

漢書 外國傳 譯註 上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2



간행사

동북아역사재단은 『사기(史記)』에서부터 『청사고(淸史稿)』에 이르는 전통시대 중국의 정사(正史)에서 외국이나 인근 종족과 관련된 열전(列傳)을 추려 ‘외국전’으로 정의하고, 2007년부터 장기적으로 외국전 전체를 번역, 주석하여 역주서를 발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의 ‘외국전’을 역주하여 『사기 외국전 역주』, 『한서 외국전 역주』 상·하, 『후한서 외국전 역주』 상·하, 『삼국지·진서 외국전 역주』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한(前漢)의 『사기』 이래 중국의 왕조에서는 기전체(紀傳體) 형식으로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여 이를 정사라 하고, 중화민국(中華民國) 시기에 편찬된 『신원사(新元史)』까지 포함하여 ‘25사’라고 통칭하였으며, 정사에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은 『청사고』까지 포함하여 ‘26사’라 통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정사에는 이웃 국가나 종족에 관한 기록이 별도의 열전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열전의 명칭은 종족의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하고, 지역적 구분에 따라 붙이기도 하고, 사방을 중국 중심의 관념체제로 이념화한 ‘사이(四夷)’ 의식에 따라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전’이라는 명칭은 『구오대사(舊五代史)』에서 처음으로 쓰였지만, 이후에도 ‘외국’과 더불어 ‘사이’ ‘만이(蠻夷)’ ‘외이(外夷)’라는 명칭이 쓰였습니다. 『청사고』에서는 ‘번부(藩部)’와 ‘속국(屬國)’의 개념이 도입되었는가 하면, 일본과 서구 각국은 열전이 아닌 ‘방교지(邦交志)’에서 기술하

였습니다.

중국 정사의 편찬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통일적 역사인식의 확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체제와 내용에 중국 왕조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이나 다른 종족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중국 왕조의 시각에서 정리되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전에 나타난 외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당시의 실제적 상황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당위적 이념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은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 변경인식, 세계인식의 실체를 담고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역사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나 분쟁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의 증진과 공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객관적 시각에서 역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중국의 왕조들이 정사에 ‘외국전’을 두어 상대적으로 풍부한 기록을 남긴 데 비해, 인접 국가나 종족들은 스스로의 입장에서 정리한 역사 기록을 충분히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는 전근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한중 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층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은 바로 외국전에 실려 있는 외국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외국 인식의 이념적 원리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나 종족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중국 사서에 기록된 한중관계에 관한 내용이 어떠한 이념적 원리에 의해 서술되었는지 파악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특히 한국 고대사와 한중관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인 중국 정사 ‘조선전(朝鮮傳)’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역주하여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전만으로는 한중관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사 외국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조선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전근대 한국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의 실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중국 정사 외국전에 대한 전체적인 역주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입니다. 중국 정사 외국전 기사의 방대한 분량과 원문의 난해함, 걸쳐있는 시간적 길이와 공간적 폭을 생각할 때, 외국전 전체를 역주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인 만큼 번역상의 오류나 체제상의 미비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은 한문 원사료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전근대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종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전문 연구자에게는 연구 분야의 확대와 연구 수준의 심화를 가능하게 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및 교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중국 정사 외국전은 외국전 상호간에 내용적, 시대적, 지역적 연계성이 두드러져 그 역주에는 개별 작업과 더불어 공동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런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전 역주에 참여해주신 학계 연구자들과 재단의 김정희 연구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이 중국의 역사인식과 세계인식 연구, 민족문제와 변경문제 연구,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 등 관련 분야의 연구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역주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역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역주서들이 학문 발전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9년 2월 13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응덕

역자 서문

이 역주서는 전통시대 중국의 정사(正史)에서 외국이나 인근 종족과 관련된 열전을 추려 '외국전(外國傳)'으로 정의하고 번역 주해한 것이다. 『구오대사』 이후 열전의 편명으로 나타난 「외국전」만이 아니라 지역, 종족명칭이 붙여진 모든 열전이 여기에 포함된다. 역대 중국 왕조에서는 기전체(紀傳體) 형식의 정사(正史)를 만들어 왔는데, 이것은 『사기(史記)』 이래 '25사(史)' 혹은 『청사고(淸史稿)』도 포함하면 '26사'로 근대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들 정사에는 대부분 인근의 종족이나 국가권력과 관계에 대한 기록이 열전 가운데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인접 국가나 종족들은 자신들에 의해 정리된 고대사 기록이 충분하지 못하여 중국 정사의 내용에 의존하여 역사를 복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찬술 때 이들 중국 정사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중국 정사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정사들의 편찬동기나 과정은 시대별 편차가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정사로 흠정되었다. 이에 따라 『후한서』나 『진서』가 최종적인 정사로 뒤늦게 확정된 뒤 기왕에 편찬되었던 많은 사서들이 모두 인멸되어 버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사의 편찬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통일적 역사인식의 확립이라는 의미가 강하였다. 물론 위진남북조시대 각 개별 왕조사와 함께 『남사』와 『북사』가 편찬되었고, 신·구의 『당서』와 『오대사』가 병존하기도 하지만, 이는 왕조적 관점에서

두 가지 정사가 모두 유용하다는 판단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의 체제나 내용도 중국 왕조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외국이나 다른 종족과 관련된 부분은 대상 종족의 선택, 그 호칭, 풍습이나 사회구조, 대외관계와 교류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국 왕조의 시각에서 정리되고 표현되었다. 더욱이 정사라는 역사 서술 체제 자체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천하일가(天下一家)’의 왕조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념적 역사 인식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기록에 비해서도 중화주의(中華主義)적 관념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국 정사 외국전은 초기에 ‘흉노(匈奴)’, ‘남월(南越)’, ‘오환(烏桓)’ 등과 같이 종족단위, 혹은 ‘서역(西域)’, ‘서남이(西南夷)’, ‘동이(東夷)’ 등 지역 관념에 입각하여 독립된 열전으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7세기 당왕조(唐王朝)에서 편찬된 정사에서는, 『진서(晉書)』 「사이전(四夷傳)」, 『양서(梁書)』 「제이전(諸夷傳)」, 『남사(南史)』 「이맥전(夷貊傳)」, 『주서(周書)』 「이역전(異域傳)」처럼 외국과 인근 종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으로 편제되었다. 또 『수서(隋書)』에서는 「동이전(東夷傳)」, 「남만전(南蠻傳)」, 「서역전(西域傳)」, 「북적전(北狄傳)」으로 나누어 사방을 중국 중심의 관념체제로 이념화한 편제를 채택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외관계의 실상보다는 천하질서를 당왕조 중심으로 이념화하여 파악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오대(五代)와 송초(宋初)에 편찬된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서는 중국 중심의 사이(四夷) 구분 외에 ‘돌궐(突厥)’, ‘토번(吐蕃)’, ‘회골(回鶻)’, ‘사타(沙陀)’ 등이 별도의 열전으로 편제되었다. 이는 관념적인 사의의식(四夷意識)과 왕조의 현실적인 대외관계가 혼합된 의식을 반영한다. 특히 당왕조가 자기 중심의 천하질서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오대와 송대에서는 국제질서의 현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점에서 당대(唐代)를 서술하면서 나타난 절충적인 인식이었다.

민족국가적 의식이 강한 송대(宋代)에 들어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한 국제관계를 중시하였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 송초에 편찬된 『구오대사(舊五代史)』였다. 여기에

처음으로 ‘외국전(外國傳)’이란 명칭으로 대외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체제가 나타나, 청초에 편찬한 『명사(明史)』에 이르기까지 정사의 일반적인 편제방식으로 지속되었다. ‘외국(外國)’이라는 표현은 『사기』에서부터 보이는데, 대체로 ‘이적(夷狄)’, ‘만(蠻夷)’와는 구분되는 국가 혹은 종족집단으로, 중국 왕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범위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적대적인 관계 혹은 전쟁 상황에서는 곧바로 ‘이적’으로 그 호칭이 변화되었다.

‘외국’이라는 개념에는 예적(禮的) 관념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외국도 만이와 동일하게 직공(職貢)의 주체로 파악되었다. 이는 국제관계의 현실 상황과 이념적인 천하질서의 개념을 이중적으로 설정하는 중화주의 관념의 독특한 수사(修辭)였다. 청대에 편찬된 『명사』에서는 유럽의 국가들도 대거 ‘외국전’에 포함되는데, 청말에 전통적인 천하질서의 관념과 현실적인 국제관계가 충돌하는 의례분쟁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외국’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관념이 그 요인이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비교적 가치관념이 배제된 외국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기류도 나타났다. 화이(華夷) 관념을 특별히 강조한 구양수(歐陽修)에 의해 다시 편찬된 『신오대사(新五代史)』에서는 「사이부록(四夷附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기도 한다. 또 명초에 편찬된 『원사(元史)』에서는 ‘외이전(外夷傳)’이라는 명칭을, 민국초에 편찬된 『청사고(淸史稿)』에서는 ‘속국(屬國)’과 ‘번부(藩部)’의 개념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족의 민족적 위기가 커지거나 혹은 중화주의적 관념이 강조되는 시기에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즉 한족의 위기가 확대되고 중화주의적 관념이 강조될 경우에 외국과 주변 종족에 대한 표현을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한편, 『송사』에서는 「외국전」 외에 「만이전(蠻夷傳)」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과거 ‘남만(南蠻)’의 후예인 운남(雲南)·귀주(貴州)·광서(廣西)의 여러 종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생활공동체 단위로 분산 거주하였고, 송왕조의 입장에서는 중앙조정에서 관장하는 국제교류가 아니라 지방조직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송대에 들어

독립된 정치체제가 확고해진 북방지역의 종족 상황과는 달리, 남방의 제종족은 종족적 통합이 확대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역대로 남월, 서남이, 남만의 후예로 크게 만이(蠻夷)의 범주에 들어 있었지만, 송대에 독립적인 국가권력을 형성하였던 교지(交趾), 대리(大理) 등은 『송사』에서는 「외국전」에 포함되게 되었다.

『명사』에서는 이전에 「외국전」에 편제되어 있던 서역지역을 분리하여 별도로 「서역전」으로 편제하였다. 명대 들어 서역과의 관계에서 공식적인 교류와 관계가 축소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송사』에서 「만이전」에 포함되었던 남방의 종족에 대한 기록을 위해 『명사』에서는 새로이 「토사전(土司傳)」을 설정하였다. 토사(土司)는 일정 지역 종족집단의 수령을 명조가 지방관으로 임명한 자로서, 결국 종족집단을 하급지방으로 포섭하여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이미 남조 송(宋), 제(齊) 시기에 시행된 ‘좌군(左郡)’, ‘좌현(左縣)’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명대 들어 토사제도(土司制度)로 남방의 여러 민족에게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반영된 정사의 편제는 『청사고』에서도 계승되었다.

이처럼 외국전의 편제가 해당 왕조의 다른 종족이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입각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훗날 편찬 당시의 관념이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외국전에 나타난 외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당위적 이념을 위해 편제되고 기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를 역주하고자 하였던 것은 정사에 나타나 있는 외국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이념의 원리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즉 이 역주작업은 일차적으로 해당 종족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국가와 종족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한중관계(韓中關係)에 대해 중국 사서에 기록된 내용이 어떠한 이념적 원리하에 서술되었는가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중국과 여타 국가나 종족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중관계의 본질과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한다.

중국 정사 외국전 모두에 대한 전체적인 역주는 기왕에 출간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정사 전체가 『이십사사전역(二十四史全譯)』(北京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자세한 주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 『사기』, 『한서』, 『후한서』가 별도로 역주본이 출간되어 있고, 고대를 중심으로 하여 「서역전」과 「흉노전」 등 부분적으로 중국, 일본 및 영어의 역주본이 나와 있다. 우리의 역주작업에서는 이들 역주본은 물론 기타 관련연구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참고하여 최상의 역주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만을 모아서 『중국정사조선전역주(中國正史朝鮮傳譯註)』 전5책(국사편찬위원회, 1986~1990)이 출간되어 있다. 이는 매우 상세하게 주석하면서 번역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부분은 이번 역주작업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역주작업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정확성을 확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동의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사업의 1차 단계로 김정희, 김유철, 하원수의 책임하에 『사기』에서 『신오대사』까지를 그 범주로 하여, 역주원칙을 정하고, 편장별로 역주담당자를 선정 의뢰하였다. 그리고 일부분의 가역주(假譯註)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역주원칙을 수정 확정하였다. 역주작업은 편장별 담당자에 의해 초벌 역주가 진행된 다음 동북지역과 서남지역으로 나누어 윤독을 통하여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고, 최종적으로 하원수와 김유철이 각각 교열하였다. 그렇지만 역주에 대한 최종적인 공과는 역주 담당자의 몫이다.

전체적인 역주는 다음의 원칙하에 진행하였다.

첫째, 역주작업은 외국전 전체를 철저히 자료에 근거하여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념을 한글의 현대적 관념과 용어로 번역한다. 다만, 사서별로 심하게 중복된 부분은 이를 설명하고 차이를 정리한 다음 중복된 부분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둘째, 역주의 텍스트는 원칙적으로 중화서국(中華書局)의 표점교감본(標點校勘本)을 저본으로 사용한다. 문장의 교감과 표점에 대해 견해를 달리할 경우, 주석을 통하여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셋째, 역주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두 본문에 한정한다. 중화서국본에 나와 있는 주를 비롯하여 본문에 대한 이전의 주석은 역자의 주석에 포함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의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내용이 많이 포함된 『삼국지』 배송지(裴松之)의 주는 원문과 동일하게 역주한다.

넷째, 한자로 표시된 인명과 지명에 대해 번역문에서는 원문을 살리되 주석에서는 당시 현지 언어와 문자에 의한 표현과 발음을 복원하는 데 노력하여 한글 발음으로 적고 괄호 안에 로마자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특히 지명은 현재의 지명으로 정확하게 고증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능한 현대의 개념으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대나 지역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수 용어나 개념 그리고 표현법은 원래의 용어를 번역문에서 살리되 주석을 통하여 현대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인명, 역사적 사건, 종족의 관직이나 사회조직, 풍속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에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도록 설명한다.

여섯째, 중국의 문화나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설정된 가치 관념이 반영된 표현들에 대해 번역에서는 원문에 충실하되, 주석을 통하여 그 실체를 설명하도록 한다. 특히 이들 종족들의 신화나 전설, 역사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종족 식자층까지도 중국의 고전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에 주의하여, 이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가능한 한 확인하여 주석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일곱째, 외국전 이외에 다른 사서나 정사 내 다른 열전기록 등을 주석에서 보충하고 그 차이를 설명한다. 특히 해당 국가나 종족의 역사기록이나 고고유물을 최대한 검토하여 중국 정사 외국전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해를 추구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다른 문헌의 원문을 전재하고 번역하도록 한다. 다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경우 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여덟째, 역주는 철저히 원문의 이해를 돕는 데 한정하고, 세밀한 사항에 대한 주관적 의견은 가능하면 배제한다. 다만,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대표적인 참고문헌

과 함께 이를 소개한다.

아홉째, 각 편별로 해당 종족의 실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 편장 전체의 줄거리와 구성 그리고 저술과정의 특징, 이전 정사와 중복된 부분이나 차이, 사료적 가치 등을 설명하는 〈해제〉를 포함한다. 아울러 말미에 참고문헌을 덧붙이고, 〈연표〉 〈세계표〉와 〈지도〉를 작성하여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2009년 1월 15일

김유철·하원수

일러두기

1. 역주문의 순서는 저본의 문단 단위로 한문 원문을 앞에 두고 이어서 본문 역주를 배치한다.
2. 원문의 구두점은 중화서국 표점본의 체계를 따르되, 전각기호는 모두 반각기호와 띄어쓰기로, ‘。’은 ‘.’로, ‘、’는 ‘.’로 바꾼다. 서명과 인명에 대한 기호는 없앤다.
3. 번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문투를 어색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가끔씩 현대적 표현으로 바꾼다. 번역문에서 내용의 이해와 문맥의 순조로운 연결을 위해 말을 보충할 경우에는 []에 넣어 처리하고, 부연설명일 경우에는 ()에 넣는다.
4. 번역문의 문단은 기본적으로 저본에 따르지만, 한 문단이 너무 길어 읽기에 불편한 곳은 단락 전체의 내용 이해에 곤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문단을 나누어도 된다.
5. 번역문도 원본의 표점과 구두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문장을 끊어 번역할 수 있다.
6. 모든 번역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명, 지명, 국명, 서명, 개념어, 역사적 용어 등의 경우,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에 한자를 병기한다. 주석문의 경우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기 위해 국한문을 혼용하도록 한다.
7. 번역문과 주석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글의 구두점을 사용한다. 서명은 『 』로, 편명은 「 」로 표기한다.
 - 예1) 『史記』「西南夷傳」, 편명 안에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史記』「西南夷傳」〈노래명〉
“노래구절”
 - 예2) 주석문의 사례: 원문은 ‘必’인데 안사고는 그 뜻이 ‘極’이라고 했다. 그에 따라 해석하였다
([顔]師古曰, “必, 極也. 極保之也”).
8. 번역문이나 주석문에서 황제나 인물 그리고 연호에 대해 그 생졸년이나 재위 기간 등을 ()에 병기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 예) 광무제(光武帝: 劉秀, 전6~후57; 재위 25~57), 유흥(劉歆, ?~25), 영제(靈帝: 劉宏, 재위 168~189)
9. 왕조명(王朝名)은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표현법을 따르고, 주석문에서는 前漢, 後漢, 曹魏, 孫吳, 蜀漢, 西晉, 東晉, 劉宋, 南齊, 梁, 陳, 北魏, 北周, 北齊로 통일한다.

10. 번역문의 숫자 표기방법은 일, 십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지만, 관용적이거나 포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 한글로 표기한다. (예: ‘천만인’, ‘팔십만 병사’, ‘천승지국’)
11. 번역문에서의 연도 표시는 ‘본문의 연도표기법(서력기원)’으로 표기한다. 연월일(年月日)이 모두 나타날 경우 사료에 표시된 대로 음력을 그대로 표기하되, 정월, 이월, 시월 등의 표현으로 음력임을 나타낸다.
- 예) “건초(建初) 원년(76)”, “원봉(元封) 6년(전75) 시월 5일”, “영수(永壽) 3년(157, 후한 환제)”
12. 주석의 항목이 인명, 지명, 관명, 역사적 사건, 개념어 등 구체적인 용어에 해당될 경우, 이를 먼저 표기하고 쌍점을 찍은 뒤 설명하여 이해의 편의를 돕는다.
- 예) 吳起: 전국시대 군사전략가.
13. 주석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과거 주석가들의 주석내용이나 다른 문헌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자세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문과 함께 제시하고 번역문을 병기한다. 이때 보기 편하도록 괄호 안에 원문을 제시하거나 해설을 첨가할 수도 있다.
- 예1) 賔布: 李賢注에서는 『說文解字』를 인용하여 南蠻의 賦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晉代 戶調之式이다. 戶調之式에서는 “丁男之戶, 歲輸絹三匹, 絲三斤, 女及次丁男爲戶者半輸. 其諸邊郡或三分之二, 遠者三分之一. 夷人輸賔布, 戶一匹, 遠者或一丈.” (『晉書』卷26, 「食貨志」: 790)로 규정하고 있는데, 夷人賔布가 戶 1匹이라고 하여, 賔布는 전국시대 이래 1匹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 예2) 武谿: 李賢은 『後漢書』 다른 곳의 주석에서 武谿는 강이름으로, 辰州 盧谿縣에 있다고 하였다(『後漢書』卷18, 「吳蓋陳臧列傳第」: 695). 史書에선 ‘武溪’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武陵의 五溪 중의 하나이다. 五溪는 沅水유역의 雄溪, 楠溪, 辰溪, 酉溪, 武溪를 가리키는데, 蠻夷의 거주지로 이를 五溪蠻으로 불렀다(『南史』卷79, 「夷貊下」〈荊雍州蠻〉: 1980).
14. 주석과정에서 다른 문헌을 인용하거나 참고문헌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병기하고 반드시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하여 자세한 서지사항을 밝힌다. 이때 쌍점(:) 뒤의 아라비아 숫자는 쪽수를 의미한다. 제자백가나 유교 경전일 경우 권수는 생략한다. 다만, 사전이나 일반적인 공구서에 나와 있는 연대나 단순한 사실에 관한 설명은 특수한 내용이 아닌 경우 이를 생략하되, 〈참고문헌〉에는 포함시킨다.
- 예) “(方國瑜, 1927: 34~39)”, “(內藤湖南, 1944: 55)”, “(다니카와, 1988: 37~40)”, “(디코스모 2005: 123)”, “(Hartwell, 1977: 12)”, “(『南史』 권79, 「夷貊下」〈荊雍州蠻〉: 1980)”, “『鹽鐵論』, 卷14 「論功篇」, “刻骨卷木, 百官有以相記”. 『孟子』 「梁惠王上」’.

차 례

- 한서 외국전 해제18

- 흉노전
 - 해제 / 25
 - 흉노 연원 / 29
 - 흉노 전사(前史) / 41
 - 두만선우(頭曼單于)와 묵특선우(冒頓單于) / 59
 - 노상선우(老上單于) / 89
 - 군신선우(軍臣單于) / 100
 - 이지사선우(伊稚斜單于) / 110
 - 오유선우(烏維單于) / 121
 - 아선우(兒單于), 구려호선우(句黎湖單于),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 / 130
 - 호록고선우(狐鹿姑單于) / 140
 - 호연제선우(壺衍鞮單于) / 148
 - 허려권거선우(虛閭權渠單于), 악연구제선우(挾衍胸鞮單于) / 160
 - 호한아선우(呼韓邪單于)와 질지(郅支) 등 여러 선우(單于)의 병립 / 167

복주류악제선우(復株叅若鞞單于), 수해악제선우(搜諧若鞞單于), 거아악제선우(車牙若鞞單于) / 193

오주류선우(烏珠留單于) / 197

오루악제선우(烏累若鞞單于), 호도이시도고악제선우(呼都而尸道皋若鞞單于) / 239

논찬 / 246

참고문헌 / 259

[하권 차례]

- 서남이양월조선전

해제

서남이(西南夷)

남월(南粵)

민월(閩粵)

논찬

참고문헌

- 서역전

해제

서역 개관

아강국(婁羌國), 선선국(鄯善國)과 누란국(樓蘭國), 차말국(且末國), 소원국(小宛國), 정절국(精絕國), 웅로국(戎盧國), 우미국(扞彌國), 거륵국(渠勒國), 우전국(于闐國), 피산국(皮山國)

오타국(烏秣國), 서야국(西夜國), 포리국(蒲犁國), 의내국(依耐國), 무뢰국(無雷國), 난두국(難兜國), 계빈국(罽賓國), 오익산리국(烏弋山離國), 안식국(安息國)

대월지국(大月氏國), 강거국(康居國), 엄채

국(奄秦國), 대완국(大宛國), 도괴국(桃槐國), 휴순국(休循國), 연독국(捐毒國), 사차국(莎車國), 소륵국(疏勒國), 위두국(尉頭國)

오손국(烏孫國), 고묵국(姑墨國), 온숙국(溫宿國), 구자국(龜茲國), 위리국(尉犁國), 위수국(危須國), 언기국(焉耆國)

오타자리국(烏貪訶離國), 비륙(卑陸國), 비륙후국(卑陸後國), 옥립사국(郁立師國), 단환국(單桓國), 포류국(蒲類國), 포류후국(蒲類後國), 서차미국(西且彌國), 동차미국(東且彌國), 겁국(劫國), 호호국(狐胡國), 산국(山國), 거사전국(車師前國), 거사후국(車師後國), 거사도우국(車師都尉國), 거사후성장국(車師後城長國)

흉노와 서역

논찬

참고문헌

세계표

연표

지도

색인

『한서』 외국전 해제

『한서(漢書)』는 한(漢) 고제(高帝) 원년(전206)부터 신(新)의 왕망(王莽) 지황(地皇) 4년(23)까지 230년에 걸친 기간의 역사를 위주로 한 기전체(紀傳體) 사서이다. 이 책은 무제(武帝) 시기로 끝난 『사기(史記)』의 후속편으로서 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 12기(紀), 8표(表), 10지(志), 70전(傳)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내용은 후한(後漢) 장제(章帝) 건초(建初) 연간(76~3) 반고(班固: 32~92)가 쓴 것이라고 해도 좋다. 그는 『(史記)後傳』을 쓰던 아버지 반표(班彪)의 사후 귀향하여 그 유업(遺業)을 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 국사(國史)를 제멋대로 개작한다고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혐의를 벗은 뒤 궁중 문헌을 관리하는 난대령사(蘭臺令史)가 된 반고는 공문서들까지 이용하여 오히려 이 책을 더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반고의 경력이 『한서』를 풍부한 자료에 기반한 방대한 규모의 믿을 만한 역사서로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다.

『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기』와 비교되고 고래(古來)로 그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두 책 모두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 만든 훌륭한 사찬(私撰)의 정사(正史)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차이 역시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기전체의 형식이 공통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항목 설정의 범주가 다르다. 『한서』는 『사기』의 ‘서(書)’를 ‘지(志)’로 바꾸었울 뿐만 아니라 ‘세가(世家)’를 없앴기 때문이다. 반고가 살았던 후한 시기는 이미 황제(皇帝)를 정점(頂點)에 둔 통일왕조(統一王朝)가 확고히 뿌리를 내려 세습적인 특권층이 사라졌던 것

이다. 이것은 『한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 왕조를 중심으로 한 단대사(斷代史)로서 『사기』의 통사적인 역사 서술과는 그 체제가 판이하다. 『한서』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유가적(儒家的) 관점 또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전근대 중국(中國)의 정사들은 대체로 『한서』를 모범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한서』의 특징은 외국전(外國傳)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서』는 권94~96에 「흉노전(匈奴傳)」, 「서남이양월조선전(西南夷兩粵朝鮮傳)」, 「서역전(西域傳)」을 신고 있는데, 그 서술 대상은 『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형식면에서 볼 때, 『사기』의 외국전은 여타 인물들의 열전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반면 『한서』에서는 이들이 한데 모여 있다. 이것은 종족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외국전과 개인에 대한 기록이 혼재하는 ‘열전’의 불균질성(不均質性)을 자각한 보다 정비된 편제(編制)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순서이다. 외국전 다음에는 외척(外戚)과 한의 찬탈자 왕망 관련 기록 그리고 후서(後序)라고 할 반고 자신에 관한 서술뿐이므로, 이것은 사실상 열전의 마지막 자리에 놓였다고 해도 좋을 때문이다. 「흉노열전」과 「남월(南越)열전」 사이에 문무(文武) 고관(高官)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외국전의 마지막인 「대완(大宛)열전」 뒤에도 6편의 유전(類傳)들이 이어지는 『사기』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한서』는 황제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에 있는 제민(齊民)과 주변의 종족·국가들을 확연히 나누었으며, 이처럼 내지(內地)와 차별적으로 인식된 이들의 열전이아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외국전’이라고 하겠다.

『한서』의 외국전은 내용상으로도 특색이 있다. 개별 열전의 해제에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책의 전반적인 성격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여기에서 지적해 두고자 한다. 먼저, 『한서』는 『사기』가 끝맺지 못한 한나라의 역사를 보충하여 완성하였다. 무제 시기까지의 기록은 사마천의 책을 거의 그대로 옮겼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100여 년 이상의 시간은 반고의 손으로 직접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무제 이후에도 한과 계속 대치한 흉노의 복잡한 성쇠(盛衰) 과정은 『한서』에 소상하게 덧붙여져 있다. 흉노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기』보다 『한서』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한서』의 남월, 민월(閩粵) 곧 동월(東越), 서남이, 조선에 대한 서술처럼, 『사기』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외국전도 있다. 실제로 기존에 각각 독립되어 있던 이들의 열전은 하나의 편으로 묶여지면서 매우 소략해졌다. 그런데 흉노와 서역 열전은 모두 두 권씩으로

양이 증가하면서 내용도 상세해져서 이와 대조적이다. 이것은 『한서』의 또 다른 특징 곧 흉노와 서역에 집중된 관심을 의미한다. 특히 「서역전」의 선구라고 할 『사기』의 「대완열전」은 장건(張騫)과 이광리(李廣利)의 합전(合傳)에 불과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나 『한서』의 경우 ‘서역’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한 뒤 그곳에 존재하던 53개나 되는 ‘국(國)’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원 이전 서역의 종족과 국가들에 대한 사료로서 『한서』만큼 좋은 책이 없다.

『한서』의 내용에서 아울러 주목되는 사실은 외국을 바라보는 한인(漢人)들의 시각이다. 중국적(中國的) 관점이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외국전에서 『사기』가 사실의 객관적인 전달에 비교적 치중하였다면, 반고의 경우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였다. 상대적으로 길어진 『한서』의 논찬(論贊)은 그 단적인 증거인데, 「흉노전」에서 그는 한과 흉노의 관계를 정벌과 화친의 역사로 정리한 뒤 “금수(禽獸)”와 같은 오랑캐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기미(羈縻)”를 강조하였다. 다른 후한인(後漢人)의 글에서도 발견되는 이러한 주장은 중원(中原)의 왕조와 그 인근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차별하는 중화의식(中華意識)의 전형적 표현이다. 이것은 흉노와의 오랜 갈등 끝에 확실히 우위를 확보한 후한 중엽이라는 시대적 조건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한서』 외국전의 특징은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반고는 조선에 관한 서술을 대부분 『사기』에서 채록하였을 뿐이고, 새롭게 첨가된 것은 한사군(漢四郡)의 명칭을 분명히 밝힌 정도에 불과하다. 무제 원봉(元封) 3년(전108) 고조선의 멸망과 함께 한의 군현(郡縣)으로 편입된 뒤의 조선은 거의 설명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서북방 지역에 관심을 집중시킨 『한서』가 한국사 연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뜻한다. 실제로 반고의 논찬도 조선에 관하여 다만 전쟁의 단서를 연 한인(漢人) 섭하(涉何) 한 사람을 언급한 데 지나지 않아 사마천과 대비된다.

그러나 『한서』 외국전이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중국 인근의 국가와 종족에 관한 사료로서 갖는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사기』도 이에 관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적어도 흉노와 서역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한서』에 비하여 그 효용이 훨씬 떨어진다. 그리고 이 책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기미론 또한 전근대 통일제국의 이민족에 대한 인식 기초(基調)로서 중요하다. 이것은 후대 한인(漢人) 왕조들의 주변 세계에 대한 중국의 편견과 교활한 대외 정책의 기본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서』의 외국전은 이와 같은 사료적 성격을 전제하고 읽어야만 한다. 다른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책에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도, 여기에 담겨진 인근 민족에 대한 비하적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20세기 이후 중국 주변 지역에서 가끔 출토되는 유물 자료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특히 『한서』에서 거의 무시된 무제 이후 조선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면 더욱 그러한데, 낙랑군(樂浪郡) 지역 등 한반도 북부에서의 고고학적 성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비문자(非文字) 자료는 전승 문헌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그 역사적 의미가 확실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서』의 「지리지(地理志)」가 중국 내지는 물론 외국전에 나오는 일부 지역까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지적해 둔다.

「흉노전(匈奴傳)」 해제

아시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광대한 초원과 사막 시대에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종족들이 거주하였다. 남쪽에 살던 중국인들은 일찍부터 훈육(薰粥), 험윤(狹允), 산융(山戎)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칭하였다. 그 가운데 흉노(匈奴)는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문헌에서부터 등장하며 남북조(南北朝) 시기까지 대략 7~8세기 동안 존속하였다고 한다. 다만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흉노’라는 말을 흉노인 스스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또한 흉노가 특정한 종족만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그런 점에서 흉노는 기원전 4~3세기부터 기원후 4~5세기 무렵까지 초원과 중국 북방 지역에 있었던 다양한 종족과 언어 집단의 정치적 혼합체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흉노는 초원지대에서 유목민들의 통일제국을 처음으로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중시된다. 기원전 3세기 말 무렵 흉노는 유목국가로서 내부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동시에 밖으로도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기원전 209년 두만선우(頭曼單于: 재위 ?~전209)는 오르도스 지방을 수복하였고, 그의 아들 묵특선우(冒頓單于: 재위 전209~전174)는 북쪽으로는 외몽골 지역, 서쪽으로는 타림분지의 도시국가들, 동쪽으로는 요동반도 등을 그 영향권 아래 두고 남쪽으로는 전한(前漢: 전206~후8)을 압도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의 역사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만리장성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한제국과 흉노제국은 대체적으로 적대적인 관계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한인들은 무력으로 흉노를 복속시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물자를 제공하여 기동력 있는 흉노 군대가 침입할 구실을 없애되 동시에 흉노와 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기미(羈

糜)정책이 흉노를 다루는 최선의 방안이라 여겼다. 한편 흉노는 초기의 통일제국이 동서로 분열되자 서역과 북방 그리고 동북 등지에서 차례대로 세력을 상실하고 한의 세력권 안에 들거나 이탈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한서』 「흉노전」 상·하권은 이상과 같은 중국과 흉노의 관계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흉노의 기원에서부터 호도이시선우(呼都而尸單于: 재위 18~46) 치세 때 패망한 신(新: 8~23) 시기까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흉노전」 상권의 전반부에는 『사기』 권110의 「흉노열전」이 거의 그대로 옮겨져 있다. 여기에는 흉노의 아홉 번째 선우인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 재위 전101~전96)가 죽기 직전 한 무제(漢 武帝: 재위 전141~전87) 천한(天漢) 4년(전97)까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흉노의 기원과 풍속, 국가 사회의 제도와 주대(周代) 이래 흉노의 역사 등이 소개되고 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외국전 역주의 해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흉노전」 상권의 후반부와 하권의 처음 부분에는 10대 호록고선우(狐鹿姑單于: 재위 전96~전85) 이후 한 선제(宣帝: 재위 전74~전49) 시기 14대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 재위 전58~전31)가 한에 항복하기 전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한의 이사장군(貳師將軍) 이광리(李廣利: ?~전88)가 흉노 원정에 실패한 뒤, 한은 더 이상의 흉노 정벌을 단념하였다. 하지만 그 뒤에도 흉노와 한은 서역의 관할권을 두고 치열하게 항쟁하였는데, 이와 같은 장기간의 전쟁은 흉노에게 커다란 정치·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었다. 그 결과 흉노는 5명의 선우가 난립하는 혼란기를 거쳐 마침내 호한야선우의 세력과 그의 형 질지선우(郅支單于: 재위 전56~전36)의 세력으로 양분되었다.

셋째, 호한야선우가 기원전 51년 한에 청신하고 입조한 이래 한과 흉노 사이에서 평화가 유지된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략 한 성제(成帝: 재위 전33~전7)의 치세까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 동안 호한야선우의 흉노가 세력을 회복하자 한의 사신은 재차 흉노와 상호 불가침을 확인하는 맹약을 맺었다. 한편 질지선우는 한이 호한야선우를 지원하는데 불만을 품었다가 한의 도호(都護)에게 피살되었다. 이에 호한야선우는 재차 한에 입조하여 스스로 북방 변세의 수비를 맡겠다고 청하기에 이른다.

넷째, 애제(哀帝: 재위 전7~전1) 이후 흉노와 한의 갈등이 점차 커져 왕망(王莽: 전45~후23)의 치세에 과국을 맞이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은 흉노의 땅 일부를 요구하였으나 흉노에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선우의 입조를 거절하려 했다가 철회한 일도

있었다. 또한 한은 흉노가 서역의 도시국가들과 오환(烏桓)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 부심하였으나, 흉노가 이에 따르지 않아 쌍방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을 대신하여 들어선 신은 흉노에 대한 예우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나아가 대규모 정벌군을 소집하기까지 하였다.

끝으로 『한서』의 찬자인 반고(班固: 32~92)의 논찬(論贊)이 나온다. 반고는 한과 흉노의 관계를 정벌과 화친의 역사로 정리하고 그 어느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정벌은 중국에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화친은 금수와 같은 오랑캐를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모두 좋은 방법이 아니고 대신 흉노가 항복해 오면 경계하면서 길들이고, 떠나 버리면 변새를 힘써 방비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흉노를 ‘기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논찬에서 보듯 『한서』 「흉노전」은 전반적으로 찬자 반고의 주관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한서』를 찬술한 반고는 부친 반표(班彪: 3~54)의 작업을 계승하여 후한 광무제(光武帝) 말기부터 화제(和帝) 영원(永元) 4년(92)에 사망할 때까지 『한서』를 저술하였고, 그 후 누이동생 반소(班昭: 49~120경)와 마속(馬續)이 그 작업을 이어 책을 완성시켰다. 『한서』는 『사기』의 기전체(紀傳體)를 그대로 본떴으며, 외국전에도 상당 부분은 『사기』 기사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흉노전」의 경우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 무제 천한 4년(전 97)까지의 기록은 『사기』와 『한서』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차이점도 보인다. 『사기』의 외국전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한서』에는 권94 상·하 「흉노전」, 권95 「서남이양월조선전(西南夷兩粵朝鮮傳)」, 권96 상·하 「서역전(西域傳)」 등 세 편의 외국전이 한곳에 모여 있다. 이 가운데 「흉노전」과 「서역전」은 특히 그 내용이 충실하여 『한서』의 가치를 빛내주는 부분으로 평가받는다. 이 점은 「조선전」이 『사기』의 내용에 몇 글자밖에 더하지 않은 점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주목된다. 이는 한 무제 이후 바깥 세상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거의 전적으로 흉노와 서역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사기』와 달리 『한서』 외국전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사기』에서 흉노는 문화적 편견 없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되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한서』의 기사는 흉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여 읽어야 한다. 『한서』에는 경제(經世)에 유용한 문장이 가감 없이 실려 있어 단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기』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널리 지적되고 있다. 「흉노전」에도 후응(侯應)과 양웅(揚雄):

전58~전18), 엄우(嚴尤: ?~23), 그리고 동중서(董仲舒: 전179~전104) 등 한인 지식인들의 흉노 정책이 길게 인용되어 있는데, 독자들은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한의 입장에서 흉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사기』와 달리 흉노 내부 사정을 보여주는 기사는 극히 일부이며, 흉노를 금수로 표현하는 부분이 곳곳에 나오는 점 등은 한과 흉노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한서』 「흉노전」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전한 시기 중국과 흉노의 관계를 전해 주는 유일한 사료라는 점에서, 또한 당시 중국인들의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결코 홀시할 수 없는 것이다.

- 역주: 정재훈 · 김석우
- 교열: 하원수

「흉노전(匈奴傳)」역주

匈奴，其先夏后氏之苗裔，曰淳維。唐虞以上有山戎·獫狁·薰粥，居于北邊，隨草畜牧而轉移。其畜之所多則馬·牛·羊，其奇畜則橐佗·驢·羸·駃騠·騊駼·驒奚。逐水草遷徙，無城郭常居耕田之業，然亦各有分地，無文書，以言語爲約束。兒能騎羊，引弓射鳥鼠，少長則射狐兔，肉食。士力能彎弓，盡爲甲騎。其俗，寬則隨畜田獵禽獸爲生業，急則人習戰攻以侵伐，其天性也。其長兵則弓矢，短兵則刀鋌。利則進，不利則退，不羞遁走。苟利所在，不知禮義。自君王以下咸食畜肉，衣其皮革，被旃裘。壯者食肥美，老者飲食其餘。貴壯健，賤老弱。父死，妻其後；兄弟死，皆取其妻妻之。其俗有名不諱而無字。

흉노(匈奴)¹⁾는 그 선조가 하후씨(夏后氏)²⁾의 후예로 순유(淳維)³⁾라고 불린다. [도]당[씨]

- 1) 匈奴: 기원전 3세기 말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북아시아 최초로 유목국가를 건설하여 발전하였다. 漢나라와 대결·화친을 되풀이하다가 내분으로 기원후 1세기경에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그 이후 내부적인 갈등의 증폭과 漢나라의 羈縻政策으로 인해 국가가 붕괴되었다. 그 이후에 주요 세력은 中國 북방으로 내려와 南匈奴를 형성하여 三國時代까지 中國의 藩屏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永嘉의 喪亂을 계기로 시작된 五胡十六國時代에 漢과 前趙, 北涼 등을 건설하면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匈奴 세력은 과거와 같은 유목국가 내지는 중원의 왕조를 건설하지 못하고 약화되어 정치적으로 소멸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4세기 유럽 게르만의 대이동을 유발한 훈(Hun)의 등장과 함께 세계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왜냐하면 匈奴와 훈의 유사성이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종족적인 기원과 함께 匈奴와 훈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연구사적인 측면에서 중시되었다. 그동안의 연구 경향은 匈奴와 훈을 동일하게 보는 입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同族論 역시

절대적인 논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문헌 연구와 함께 고고학적 조사가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정수일, 2001: 264~273). 匈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사 정리 차원에서 기존에 전개되었던 匈奴라는 말의 어원 내지는 종족적 기원 등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匈奴’라는 말의 原義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匈’을 훈(Hun 혹은 Qun)의 音寫로 보는데, 그 의미는 퉁구스어에서 ‘사람’이라는 뜻이며 匈奴 스스로가 자신들을 ‘훈(Hun, 匈)’이라고 불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알타이어에서 쿤(kūn), 즉 ‘태양’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卡哈爾曼·穆汗, 2000: 28). 그리고 한자에서 ‘중’이나 ‘노예’를 뜻하는 ‘奴’가 멸시의 의도도 첨가되어 匈奴라고 불렀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칭을 匈奴가 자신의 명칭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그 의미를 비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을 부르는 어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江鴻, 1984: 9~14).

匈奴의 종족적 기원에 대해서는 그리스 자료에서 등장하는 ‘프로노이(Phrynoi)’이나 ‘파우노이(Phaunoi)’ 등과 匈奴를 동일시한 19세기의 주장 이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匈奴와 훈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려는 시도와 관련되는데, 워낙 오래 계속된 해묵은 논쟁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다만 考古學的인 증거들과 서구 기록들이 훈의 아시아적 요소를 보여 준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게르만의 명칭을 지닌 훈의 지배층이 아시아의 匈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결정적인 증거 역시 없다는 점에서 同族說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물론 匈奴가 서구의 기록에 나오는 ‘후나(Huna)’, ‘훈니(Hunni)’라는 명칭들과 언어적인 공통점이 있으므로 그들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이것을 아시아 전역에서 유목민 일반을 지칭하거나 특정한 유목민 또는 유목민의 소국을 가리킬 때 공통적으로 사용된 말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匈奴와 훈의 명칭적 유사성만을 가지고 종족적 연관성을 단언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匈奴의 종족적 기원 문제에 대해서 남아 있는 기록을 토대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입증하려는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훈, 투르크, 몽골을 포괄하는 타타르와 匈奴를 동일시하려고 한 18세기 드기네(Deguignes)로부터 시작되어 20세기까지 匈奴가 훈의 조상이라는 견해가 유행하였다. 20세기에 들면서 히르쓰(Hirth), 白鳥庫吉 등이 匈奴와 투르크를 동일시하였는데, 이는 중국 기록의 狄이라는 명칭이 투르크의 초기 음역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설득력을 가졌다. 그리고 프리착(Pritsak), 에버하르트(Eberhard), 바쟁(Bazin), 사몰린(Samolín) 등은 薰粥, 獫狁(獵狁), 犬戎 등이 모두 匈奴가 속했던 종족과 같은 것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칼그렌(Kalgren), 마스페로(Maspero) 등은 반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크릴(Creel)은 狄과 戎 같은 중국 북방의 종족이 투르크라는 점을 부정하고 사실상 투르크는 알타이보다는 漢族에 가깝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리게티(Ligeti)는 匈奴의 언어가 알타이어계라기보다는 예니세이강 남부 시베리아 계통의 언어인 오스티약(Ostyak)어라는 주장도 했다. 또한 풀리블랭크(Pullyblank)는 匈奴의 언어에 알타이어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원래 시베리아 계통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나중에 몽골 초원에서 국가를 세운 투르크와 몽골족 등이 차용하게 되면서 비슷해졌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일리(Baily)는 匈奴가 이란계 언어를 사용했다고 했고, 도르퍼(Doerf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 연관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이처럼 언어를 기초로 한 匈奴의 원류에 대한 설명은 현재 하나의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터키(투르크), 몽골 등과

(陶唐氏)⁴⁾과 [유]우[씨](有虞氏)⁵⁾ 이전에는 산융(山戎)⁶⁾, 험윤(獫狁)⁷⁾, 훈육(薰粥)⁸⁾ 등[의

같은 나라들이 匈奴를 자신의 조상으로 보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어렵게 한다(디코스모, 2005: 449). 따라서 이런 입장은 이후 자신들의 조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匈奴나 훈에 ‘族’을 결합시켜 ‘匈奴族’·‘훈족’ 등과 같이 사료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종족적 내지는 인종적 접근을 하려고 했던 기존의 설명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 그보다는 원래의 기록에 충실하게 匈奴라는 말이 사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그것을 인종적 측면보다 하나의 정치집단을 부르는 통칭이었다고 보는 것이 그 복합적인 문화의 특징을 설명하는 올바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장들을 볼 때, 匈奴가 현재 분명하지 않은 다양한 종족과 언어 집단의 복합체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 2) 夏后氏: 옛날 부락의 명칭이다. 그 우두머리 禹가 黃河의 치수에 공이 있어 舜임금을 이어 군주가 되었고 그 아들 啓가 夏나라를 건립하였다. 따라서 夏后氏는 夏나라의 별칭으로도 쓰인다. 夏나라는 중국 最古의 王朝로서 桀王이 商의 湯王에게 망할 때까지 17세대에 걸쳐 439년간 존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考古學的 증거가 많지 않아 그 실존 여부가 논쟁 중에 있다.
- 3) 淳維: 商(이하에서 殷을 商으로 표기)대에 처음으로 북변으로 도망갔다고 했다. 淳維, 獫狁, 薰粥 등의 명칭 동일성 여부는 주 8)과 주 9)를 참조.
- 4) 陶唐氏: 五帝의 하나인 堯를 가리킨다. 舜이 그를 이었다(『史記』 권1 「五帝本紀」: 15~30).
- 5) 有虞氏: 五帝의 마지막인 舜을 가리킨다(『史記』 권1 「五帝本紀」: 30~44). 치수에 공을 세운 禹가 그를 이었고 이로부터 夏나라가 시작되었다(주2) 참조).
- 6) 山戎: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無終’, ‘北戎’이라고도 한다. 春秋시대에 山西省 太原에 살았던 戎의 한 갈래이다. 이후에 지금의 河北 涿源으로 옮겨 갔다가 다시 東遷하여 河北省 玉田縣 서북에 있는 無終山으로 이주했다. 燕나라 莊公 27년(전664)에 燕나라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齊나라 桓公이 燕나라를 도와 孤竹(지금의 河北省 盧龍 남쪽)에서 이들을 격파하였다. 이후에 이들은 다시 晉나라 북부로 이주하였다. 晉나라의 悼公 4년(전569)에 사신을 보내 여러 戎들과 결맹을 하였다. 晉나라 平公 17년(전541)에 晉나라가 이들을 太原에서 격파하였다. 그 뒤 趙나라에게 멸망당했다(주 81) 참조).
- 7) 獫狁: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음은 험윤이다. 匈奴의 다른 이름으로 지금의 陝西省·甘肅省 북부와 內蒙古自治區 서부에 거주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史記』에는 ‘獫狁’으로 기록했는데, 이런 表記의 차이는 곧 漢字로 音譯된 것임을 보여 준다. 淳維, 獫狁, 薰粥 등의 명칭 동일 여부는 주 8)과 주 9)를 참조.
- 8) 薰粥: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음은 훈육이다. 이것이 匈奴의 다른 명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먼저 ‘淳維’와 ‘薰粥(달리 獫粥으로도 기록, 『史記』에는 ‘薰粥’으로 기록)’의 음이 분명 다르다는 점은 일면 그 음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계통을 같다고 설명할 수 있는 여타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추정이다. 반면 ‘淳維(Chun-wei)’, ‘薰粥(Xun-yu)’과 匈奴(Xiong-nu)가 음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原名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상과 같이 기록한 司馬遷은 匈奴의 과거 기록에 나오는 북방의 여러 종족들의 명칭과 발음상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런 계통적인 연결을 시도했던

여러 종족들이⁹⁾ 북쪽 변경¹⁰⁾에 살면서 풀을 따라서 가축을 기르며 옮겨 다니며 [살았다].¹¹⁾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종족 내지는 부족 단위로서 그들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하는 그들의 과거 역사 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中國에 남아 있는 기록만을 토대로 북방 종족들의 계보를 연결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匈奴의 기원이 中國인과 연결된다고 하는 설정은 시초부터 이들을 中國 역사의 합법적인 구성 요소의 하나로 만드는 것을 목적을 띠고 있었다. 이는 먼저 漢代 和親의 상대로서 실재하는 匈奴가 과거부터 존재했음을 당위적으로 설명해야만 하는 정치적인 필요성과 관련되었다. 또한 漢代 이후 이미 和親 政策을 통해 婚姻關係를 맺는 등의 수사적인 血緣關係 설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匈奴와의 혈연적인 친연성이 과거부터 있었음을 강조한 것과도 관련되었다. 이것은 古代의 聖賢과 異民族들을 연결시키는 中國의 전통, 예를 들어 舜을 東夷로, 文王을 西夷로 보거나, 堯을 神農氏의 후예로 설명한 것 등에서 이런 종류의 기록 방식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빈번하게 中國 史書에 등장하는 이런 식의 수사적인 표현을 기초로 인근의 여러 민족들과 中國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논의는 보다 신중한 이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록 이외에 여러 종족이 계통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 등을 제시함으로써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주9) 참조).

9) 山戎, 獫狁, 薰粥은 모두 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秦漢 이전 匈奴의 다른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기록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 관련하여 王國維는 商과 周시대의 鬼方·混夷·獯鬻, 西周시대의 獫狁, 春秋時代의 戎狄, 戰國時代의 胡를 모두 匈奴와 같은 종류로 보았다(王國維, 1984: 583~606; 姚大力, 2004, 48~54). 梁啓超 역시 그렇게 생각해 薰粥(獯粥)·獫狁·鬼方·混夷·犬戎 등이 모두 같은 종족으로 이름만 달리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1930년대 呂思勉, 金元憲, 何震亞 등과 같은 학자들도 이런 입장에 찬동하였다. 하지만 이런 中國의 전통적인 주장과 달리 鬼方, 薰粥(獯粥), 畎夷, 獫狁 등을 匈奴와 다르고 義渠만이 동일한 것이라고 본다거나(蒙文通, 1958) 鬼方, 混夷, 薰粥(獯粥), 獫狁 등을 羌人으로 이해하기도 했다(黃文弼, 1983: 2~28). 그 밖에도 이들을 서방에서 온 종족으로 이해하기도 했다(岑仲勉, 1983: 29~36). 따라서 기존에 존재했던 다른 종족들이 직접 匈奴라는 국가를 세운 지배집단과 연결된 증거는 없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런 명칭의 유사성은 匈奴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과거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었던 종족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주8) 참조).

10) 『史記』에는 “北蠻”으로 되어 있다.

11) “풀을 따서 가축을 기르며 옮겨 다니며 살았다”고 한 것은(『史記』에는 “隨畜牧而轉移”라고 하여 조금 표현이 다르다) 몽골 초원에서 이루어지는 遊牧(또는 游牧: nomadism)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遊牧: 구대륙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목축 방식의 하나로서 초식성의 발굽 동물을 길들여 이들을 이끌고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생활 형태를 말한다. 유목은 거주지를 완전히 바꾸는 移住와 다르며, 또 일정한 중심지를 가지고 이동한다는 점에서 정처 없는 방랑이나 流浪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유목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나, 하자노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정리했다. ① 목축은 무엇보다도 경제 행위의 한 형태이다. ② 그 광역적 성격은 축사를 갖지 않고 연중 거리의 제한 없이 방목시키는 가축 사육 방법에서 비롯된다. ③ 주기적 이동은 목축 경제의 육구에

기르는 짐승들은¹²⁾ 대다수가 말,¹³⁾ 소,¹⁴⁾ 양¹⁵⁾이었는데, [그중에서] 특이한 것은 낙타(橐佗),¹⁶⁾

따라 일정한 목지의 범위 내에서 혹은 지역 간을 오가면서 이루어진다. ④ 목축 이동에는 성원의 전부 혹은 대다수가 참여한다. ⑤ 생산이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한다(하자노프, 1990: 50).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遊牧’에서 목민들이 가축을 이끌고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계절의 변화에 따른 가축들의 기후 적응과 관련되었다. 왜냐하면 혹독한 환경에서 가축들의 생체 리듬과 기후 변화를 맞추어 재생산을 해야만 했고, 그와 동시에 가축들의 먹이를 제공하는 초원의 생태를 파괴시키지 않아야 되었기 때문이다. 즉, 移動을 통해 초지의 파괴를 막음으로써 이후 다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再生産 構造의 確保’가 유목의 이유였다. 초원(steppe)은 강수량이 많지 않고 척박해 한번 파괴되면 다시 그 초지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목민들은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을 길러야만 했다. 때문에 가축들이 초지를 파괴하는 것을 막고 재생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유목 생산의 기본이었다. 따라서 유목민들은 초지 보호와 가축들의 생체 리듬에 맞추어 이동을 하는데, 가능하면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이동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범위 역시 다른 유목민들과의 중복을 피하도록 제한되었다.

또한 遊牧은 자연환경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대체적으로 몽골 초원에 거주하는 목민들은 중앙아시아의 산악지역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직’ 이동하는 유목민들과 달리 비교적 평탄한 구릉을 중심으로 ‘수평’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른다. 그리고 유목민들은 가축을 길러 얻어지는 생산물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냥 또는 채집을 하거나 약간의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곡식 등과 같이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얻기 위해 농경민들과 교역을 하기도 한하였다. 구릉 지역을 계절적으로 순환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의 경우에도 가축의 종류, 지형, 기후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띠고 있다. 몽골 초원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유목의 형태가 다르다. 고비 남부의 內蒙古의 경우에는 동부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건조 정도가 강해지고 고비 북부의 몽골공화국은 남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건조 정도가 완화되면서 삼림지대로 연결된다. 그리고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은 알타이를 비롯한 산지가 발달해 있어 곳에 따라 유목민들의 생활양식이 다르다. 이런 자연환경의 차이는 식생과 가축의 구성 등에 큰 영향을 미쳐 유목민들의 생활 방식을 결정한다(後藤富男, 1967; 張承志, 1993; 松井健, 2001).

12) 인류는 신석기시대 짐승을 길들여 생산경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발굽을 갖고 있는 초식성의 ‘有蹄類’였다. 양, 염소, 소, 낙타, 말, 순록, 산양 등이 가장 중요한 가축이었는데, 몽골 초원에서는 이 중에서도 순록과 산양을 제외하고 다섯 가지의 가축을 중시한다. 그중에서도 중요도에 따라 말, 소, 낙타, 양, 염소 순서로 나열할 수 있다. 말과 소, 그리고 양과 염소 등이 가장 기본적인 가축인데, 습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덜 건조하고 풀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소의 사육 비중이 높고, 고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낙타, 그리고 북부 산악지역에서는 이끼를 주로 먹는 순록을 일부 사육하기도 한다.

13) 말: 인류의 말 사육은 기원전 3500~3000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수레를 끄는 데 사용되었다. 반면에 말 위에 올라타는 승마를 시작한 것은 중앙유라시아에서 기원전 약 2000년경 정도로 추정되

고 있다. 유목민들은 말을 타기 위한 다양한 마구를 개량하면서 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철기로 마구를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유목민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7세기경 흑해 연안의 남러시아 초원에서 국가를 건설하였던 스키타이[이란에서는 ‘사카(Saka)’, 中國에서는 ‘塞’로 기록]였다. 스키타이가 보여 준 기마 유목기술과 다양한 문화는 이후 중앙아시아 전반에 전파되어 보편적으로 나타났고, 몽골 초원의 경우에도 月氏, 匈奴 등과 같은 세력의 등장 가능성을 높였다.



〈匈奴人の 씨름하는 모습과 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청동 장식〉
청동 장식

몽골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은, 다리가 가늘고 키가 큰 아라비아종의 말과 달리, 체구에 비해 머리가 크고 목이 굵으며 다리가 짧고 둔부가 삼각형의 모양을 띠며 노지에서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뺏가죽이 얇아 축 처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털이 많아 추위를 잘 견디고 오래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강한 알타이 계통의 말로 과거 몽골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조랑말이 바로 이 계통의 말이다. 말 무리는 작게 거세하지 않은 수말을 리더로 30마리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작은 여러 개의 무리가 모여서 큰 무리가 된다. 대개 여름철에 어린 말들을 길들여 승마가 가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

몽골인은 다리가 4개라고 할 정도로 말과 뿔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말을 탄 이런 스키타이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인들이 신화 속 켈타우루스의 형상을 만들어 냈을 정도로 유목민들은 말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만큼 말을 자유자재로 잘 탄다. 또한 몽골 속언으로 “안장이 없으면 낮에 굶고, 아내가 없으면 밤에 굶는다.”라고 할 정도로 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말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성격 역시 강하게 갖고 있다. 몽골 사람들은 駿馬를 과시하며 초원을 질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말에 대한 장식 역시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말에 대한 애정 표시는 머리에 행운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채찍으로 머리를 때리지 않고 애마는 절대로 식용하지 않는다. 식용의 경우에도 모두 먹지 않고 먹은 후에는 오보에서 제사하고 또한 말의 고환도 거세한 후에 먹지 않는 등 대우를 한다. 또한 유목민들의 지혜는 말에 대한 어휘가 연령, 성별, 털의 색깔, 털의 부분적인 특징, 신체 부위의 특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어휘가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어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활과 지혜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반영한다.

- 14) 소: 소는 일찍부터 가축화된 동물의 하나이다. 몽골 초원에서 기르는 소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소에 비해 약간 작다. 소는 가축 중에서 큰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고기와 젖, 그리고 가죽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축의 하나로 여겨진다. 몽골 초원에서는 풀이 좋고 습지가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의 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소와 비슷하지만 고산지역에서 잘 자라는 야크가 몽골 초원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사육된다. 목민들은 주로 거세한 황소를 주요한 운송수단의 하나로 사용했는데, 匈奴의 경우 車廬(수레 위에 穹廬를 올려놓은 것)를 끄는 데 소를 주로 사용했다(주21) 참조). 또한

나귀[驢], 노새[羸],¹⁷⁾ 버새[馱驘],¹⁸⁾ 도도(駒駝),¹⁹⁾ 탄해(驛奚)²⁰⁾ [등]이었다. 물과 풀을 따라

소는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기 때문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에 소를 해체하여 냉동 건조한 다음에 라면의 수프와 같이 고기 섬유질을 모은 형태의 비축 양식을 만들었다. 이것은 유목민들의 전투를 할 경우에 안장에 그것을 매달고 이동하면서 바로 물에 넣어 끓여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사용되었다(주37) 참조). 이런 전투 식량의 확보로 인해 중국처럼 많은 보급부대가 필요하지 않았던 유목군대는 기동성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15) 양: 털과 가죽, 그리고 고기와 젓 등 의식주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축으로 여겨진다. 몽골 초원에서는 한 가정이 200~300마리 정도의 양을 길러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양의 사육이 유목 생활에서 이처럼 중요한 만큼 목민들의 모든 움직임도 양의 생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양의 사육에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먼저 몽골 초원에서는 양과 함께 염소를 사육한다. 이것은 염소가 양에 비해 황량한 지방에서 훨씬 적응력이 뛰어나고 추위도 잘 견디는 특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과 다른 습성을 이용해 이들을 조화롭게 기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염소를 이용해 양을 방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를 8: 2 또는 7: 3 정도 섞어서 기른다.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염소가 한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양을 끌고 다니게 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양을 그대로 두면 한 곳에 머물러 풀의 뿌리까지 먹어 버림으로써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초원의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목의 계절 이동 중에 겨울을 나는 것 역시 양들의 생식 주기와 맞물려 있다. 혹독하고 계절인 초원의 겨울을 나기 위해 유목민들은 가축인 양을 계획적으로 겨울이 접어드는 시점에 임신을 시킨다. 왜냐하면 양의 임신 주기가 150일 정도가 되는데, 따뜻한 봄이 되자 동시에 출산을 하게 함으로써 재생산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무 때나 새끼를 낳게 되면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착하여 생활하는 冬營地와 春營地에서 새끼의 출산과 관련된 노동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1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16) 橐驼: 낙타를 말하는데, “등의 살이 전대와 같아 橐이라고 한다”는 설명처럼 등에 기름주머니인 혹이 두 개 있는 쌍봉낙타를 말한다. 이들은 체구가 아주 크고 강인하여 추위에 강하나 더위에 약한 특징이 있다. 초원보다는 주로 고비와 같은 더 건조한 지역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낙타는 고비(사막)의 장식’이라고 말이 있을 정도이다. 낙타는 모, 젓, 고기 등을 이용하고 짐을 옮기거나 승용으로 사용하는데, 특히 나쁜 자연조건에 잘 버티내기 때문에 ‘사막의 배’로서 隊商이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 목민들에게 낙타는 그들의 인내력과 강한 힘에 대한 신뢰와 함께 등에 달린 혹 때문에 유머러스한 존재로 이해되기도 한다.

17) 羸: 수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驘: mule)’이다. 생식기능은 없으나 운순하기 때문에 주로 운반용으로 사용한다.

18) 馱驘: 수말과 암나귀의 교잡으로 태어난 것으로 ‘버새(hinny)’라고 한다. 顏師古는 駿馬로 태어난 지 이레 만에 어미를 능가한다고 했다. 이런 말의 교잡 기술은 목민들이 특수하게 발명해낸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초원에 성숙된 유목 문화가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19) 駒駝: 푸른색을 띤 말을 뜻하는데, 몽골어로 야생의 노새를 가리키는 ‘치기타이(chigitai)’가 바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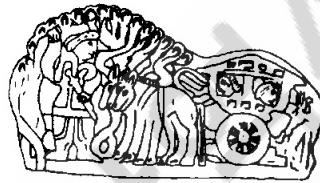
옮겨 다니며 살아 성곽이나 일정하게 사는 곳,²¹⁾ [그리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것이 없었으나 각자가 나누어 갖고 있는 땅[分地]²²⁾은 있었다. 글이나 책이 없어²³⁾ 말로 [서로] 약속을

‘駟駟’를 뜻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北海(바이칼호)에 있는 말처럼 생긴 짐승 또는 북쪽에 있는 나라의 명칭으로 그곳에서 생산되는 말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20) 駟駟: 駟駟의 한 종류로 “巨虛之屬”이라 하였고, 駟를 “野馬屬”이라고도 하였다. 이는 몽골어로 야생말을 ‘타키(taki)’라고 한 것과도 음이 상통한다는 점에서 野生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內田吟風, 1971: 4). 『史記』에는 “駟駟”로 되어 있다.

21) 居: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은 목재 기둥과 서까래 등의 골조를 펠트로 둘러싸고 난 다음 그 위에 면포나 가죽을 덮는 형식으로 된 조립식의 이동용 천막(yurt 또는 ger)에 살았다. 匈奴 시대에는 이런 조립식 천막을 수레 위에 설치한 穹廬에 거주하면서 바로 땅 위에 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주로 벽 부분이 탄력성이 좋고 유연

한 버드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사와다, 2007: 122). 이런 이동식 가옥을 이용해 遊牧民들은 계절에 따라 생활했기 때문에 이 기록처럼 고정된 주거지를 만들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西峯溝 출토 穹廬 모양 청동장식〉



〈穹廬와 싸름하는 모습을 투각한 청동장식〉

다. 하지만 춥고 바람이 많이 부

는 겨울을 보내야 하는 冬營地에서 목민들은 대체로 정해진 지역에서

머물러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맞춘 잦은 이동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分地가 일정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거지를 만들어 이동하는 생활을 했다. 한편, 계절적 이동을 기초로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에게도 匈奴 시대부터 이미 고정적인 주거지 내지는 소규모의 성곽, 그리고 넓은 농경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 유목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유목국가가 건설되면서 그를 위해 봉사하는 외래의 정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20세기 이래 몽골과 바이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굴된 匈奴時代의 농경지와 성곽 등의 유적이 그 증거이다. 이를 통해 匈奴의 대외 확장과 함께 몽골 초원과 오아시스 지역, 그리고 중국과 근접한 변경 지역에서 농업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많은 주거지가 匈奴 영역 내에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다양한 종자의 사용만이 아니라 농기구 등을 제작하기 위한 시설 등이 존재했음 역시 확인된다(馬利清, 2005: 378~388). 이상과 같은 유목과 정주의 복합적인 특징은 遊牧國家의 건설과 함께 몽골 초원에 정주와 유목의 이중적인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史記』에는 “處”로 되어 있다.

22) 分地: 하나의 가족 내지는 氏族 등이 소유한 分有地를 가리키는데, 이는 遊牧民들의 개인적인 토지 소유 상황을 설명한다. 즉, 유목민들은 개인과 가족들이 자신들의 가축 무리를 먹일 수 있도록 특정 牧草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유목민들이 토지를 하늘에서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토지에서 자라는 풀에 대해서 점유권 분쟁을 일으켰을 뿐이다. 유목민들에게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초지만이 중요한 것이었지 그 자체의 소유권이 문제가 되지 않았

했다.²⁴⁾ 어린아이들도 양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으며 [어려도] 활을 당겨 새나 쥐를 쏘아 맞추고, 점점 자라면 여우나 토끼를 쏘아 맞추어서 [얻은] 고기를 먹었다.²⁵⁾ 남자들의 힘은 활[彎弓]²⁶⁾을 잘 다룰 수 있어 모두 무장 기병(騎兵)이 되었다.²⁷⁾ 그 습속은 편하면 가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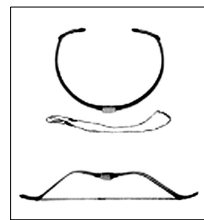
다. 따라서 목지는 어느 한 개인의 사유지적인 성격보다는 유목집단 전체의 공유물이었고, 공유라는 개념도 엄밀히 말하면 ‘限時的인 獨占의 使用權’에 가깝다. 우선적인 사용권을 갖고 있는 집단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 다른 집단이 양해를 얻어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소유권의 침해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 이용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나름대로 일정한 목지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金浩東, 1989: 260).

23) 『史記』에는 “毋文書”로 되어 있다.

24) 匈奴에는 文字가 없었으나 기호로 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인 있었음을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鹽鐵論』 “論功篇” “刻骨卷木, 百官有以相記.”: 357; 『後漢書』 “南匈奴列傳” “主斷獄訟, 當決輕重, 口白單于, 無文書簿領.”: 2944). 지금까지 匈奴에서 사용된 문자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漢나라와의 관계에서 외교문서가 작성, 교환되는 등의 예로 볼 때 한자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유목군주를 보좌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독자적인 문자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구소련의 구밀료프(Gumiev) 이래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해서 몽골공화국 서북부 예니세이 강가에서 발견된 돌에 새겨진 글자와 기호가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몽골의 도르주스렌(Dorjasuren)은 발굴된 여러 가지의 토기나 중국제 칠기 바닥에 새겨진 기호를 토대로 14개의 匈奴文字가 존재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의 일부가 이후 소위 ‘오르콘 룬문자’라고 하는 突厥文字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것은 기호가 갖고 있는 유사성으로 추정되고 또한 발견된 장소가 토기나 칠기라는 점에서 소유자의 서명 정도로 보인다(사와다, 2007: 132~133). 그 외에도 지금까지 몽골 초원 岩刻畫 등에서 발견된 400여 개의 기호 역시 문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연대의 추정도 어렵다는 점에서 匈奴의 문자 존재 여부를 밝혀 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田廣金·郭素新, 2005: 483; 馬利清·宋遠茹, 2004: 49~53).

25) 『史記』에는 “肉食”을 “用爲食”이라고 했는데, 이는 “먹을 것으로 썼다는 의미이다.

26) 彎弓: 이런 종류의 활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이 발명해 낸 것이다. 두 개의 관을 풀을 먹여 합치거나 혹은 나무로 된 궁체 뒷면에 동물의 힘줄을 팽팽하게 붙여 만든 合成弓이다. 길이가 짧은 短弓의 하나이다. 強化弓의 일종인 合成弓은 탄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 시위를 벗기는 것이 보통이다. 시위를 벗기면 궁체는 시위를 걸었을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휘다. 시위를 걸었을 때나 벗겼을 때도 궁체는 직선이나 반달 모양으로 되지 않고 彎曲되기 때문에 合成弓을 ‘反曲弓’ 또는 ‘彎弓’이라고 한다. 合成弓은 활 중에서 가장 발달된 구조로서 그 힘이 강력하다. 궁체의 길이가 짧아도 긴 單純弓에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기마민족들은 이 활을 많이 사용하여 그들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Hildinger, 1997: 21). 『史記』에는 “𠄎弓”으로 되어 있다.



〈彎弓〉

따라 다니면서 새나 짐승의 사냥을²⁸⁾ 생업으로 삼았고,²⁹⁾ 급하면 사람들이 싸워 공격하는 것을 익혀 침공하는 것이 그들의 타고난 성품이었다.³⁰⁾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쓰는 무기³¹⁾는 활과 화살이고,³²⁾ 가까이 떨어져 있을 때 쓰는 무기는 칼³³⁾과 창(鎗)³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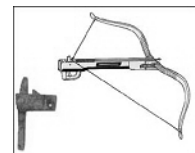
27) 騎兵의 등장은 기원전 2000년경 카스피해 근처에 살던 초원의 주민들이 말을 길들이고 그에 맞는 마구를 개발하여 직접 올라타게 된 이후이다. 그리고 기원전 7세기경 스키타이 등이 유라시아 초원에서 최초로 유목국가를 건설하면서 이들의 강력한 위력이 증명되었다. 이런 강력한 전투력을 제공하는 유목 기마 기술은 이후 점차 중앙유라시아의 초원을 따라 주변으로 전파되었다. 이로 인해 몽골 초원의 주민들도 말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였다. 그들의 중요한 기술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독특한 전술이었다. 이것은 이후에 농경 정주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왜냐하면 초기에 말을 길들이며 원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고도의 숙달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말이 잘 자랄 수 있는 초원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농경 정주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말을 사용하였지만 말을 길들이며 올라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말에 수레를 달아 사용하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주로 말을 이용한 전차 전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두 세계에서의 말의 상이한 사용이 전력상에서 큰 차이를 가져왔다.

28) 『史記』에는 “田獵”이 아니라 “因射獵”로 되어 있다.

29) “편하면 가축을 따라 다”닌다는 기록은 가축들의 생리적 특성에 맞춰 유목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주 11) 참조). “새나 짐승의 사냥을” 한다고 한 것은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생업 수단의 하나가 사냥이었음을 보여 준다. 유목민들은 사냥을 통해 부족한 고기를 보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동물의 가죽과 털을 획득하여 교역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담비털과 같은 모피가 중요한 교역 물품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사냥은 개별적으로 행해지기도 했지만 집단적인 물이사냥이 이루어져 상시적으로 군사훈련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유목민들의 전투 능력을 배가시키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30) 유목민들이 말을 타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을 하는 것 등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마전사가 되었다고 한 것을 그들의 타고난 성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연적인 행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유목민들이 騎馬弓士가 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직업에 종사하는 중국인과 달리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31) 長兵: 射程거리가 긴 兵器인 ‘弓矢’를 말한다. 匈奴의 弓矢는 漢나라에 비해 좋은 것은 아니었다. 漢나라는 활과 비슷하지만 기계적 힘으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인 쇠뇌[弩]를 가지고 있었다. 쇠뇌는 활과 달리 사용자의 팔 힘에 상관없이 일정한 강도로 발사되는 것이 특징이다. 활은 익히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쇠뇌는 단기간에 조련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따라서 훈련되지 않은 병사가 사용하기에는 쇠뇌가 활보다 훨씬 편리하였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장전 시간이 오래 걸려 발사 속도가 활보다 훨씬 느리다는 점이었다. 이 무기의 장점에 대한 지적은 晁錯의 “勁弩長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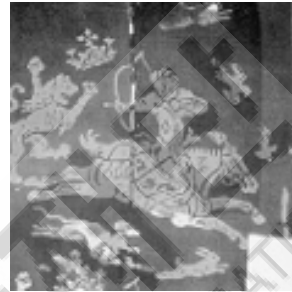


〈漢代의 쇠뇌〉

[싸움] 유리하면 나아가고 불리하면 물러났는데, 달아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³⁵⁾

射疏及遠，則匈奴之弓弗能格也。(『漢書』 권49 「晁錯列傳」: 2281)라는 말에 잘 드러난다.

- 32) 匈奴는 漢나라에 비해 열등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쓰는 활과 화살의 전술적인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匈奴는 주요한 무기인 弓矢를 이용해 輕裝騎兵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목민들이 기동력이 둔한 적을 만났을 때 적을 향해 돌진하다가 가까운 거리에 이르면 갑자기 일제히 말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흩어지면서 뒤돌아보듯이 좌후방을 향해 화살을 일제히 쏜 다음에 멀리 도망가는 전술이었다. 기마궁사들은 이런 방법을 반복적으로 구사해 적을 어지럽게 한 다음에 격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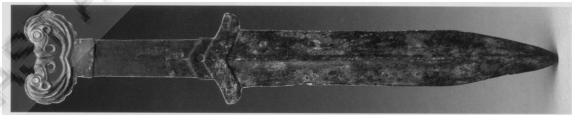


〈파르티아식 기사법의 모습을 보여 주는 비단 그림〉

유목민들이 활 쏘는 모습은 고구려 벽화 무용총 기마 수렵도에서 말을 탄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활을 쏘는 자세와도 같다. 이를 일반적으로

‘파르티아식 騎射法(Parthian shooting)’이라고 한다. 匈奴 역시 이런 전술에 익숙하였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말 위에 탄 상태에서 상반신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마법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화살을 쏠 때 반동이 적은 ‘側對步(amble)’이다. 側對步는 같은 쪽의 두 다리가 서로 근접하는 일이 없게 앞의 왼발과 뒤의 왼발이 동시에 들리는 주법(走法)이다. 이 방법은 속도를 내면 말의 어깨 쪽이 떠올라 말을 탄 사람이 넘어지기 쉽고 전회가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에 쉽게 정지할 수 있고 말을 탈 때 거의 반동을 느끼지 않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기마에 능숙하게 훈련이 된 유목민들은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활을 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나라에 비해 장비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투와 사냥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33) 刀: 匈奴에서 사용한 칼은 길이가 길지 않은 소위 ‘아키나케스 단검’이라고 부르는 동검(또는 철검)과 유사하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그리고 스키타이에서 사용한 양날의 칼인데, 騎馬에



〈흉노의 아키나케스형 청동검〉

편리하게 50cm 이하로 만들었다. 이런 형식의 칼이 점차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기원전 6~3세기경에 시베리아, 몽골, 화북 지역에 보급되었다. 고고학적인 발굴 자료에 따르면 匈奴時代 검의 모양은 양쪽에 날을 가진 단검으로 날과 자루가 하나로 주조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칼끝이 상대적으로 좁고 곧은 검코 모양을 띠고 있고 자루 끝이 버섯 모양, 동물 머리 모양, 다양한 고리 형태 등이었다. 단검에 장식된 기하학적 문양과 유사한 것이 칼자루에도 있었다(馬利清, 2005: 77~78). 특히, 이런 단검은 ‘徑路刀’라고도 하는데, 그 어원을 추적해보면 킱록(king luk(徑路))은 아키나케스(Akinakes)의 약어인 키낙(Kinak)의 전사음으로 볼 수도 있다(內田吟風1971: 4).

- 34) 鋌: 顏師古는 철제로 된 작은 창이라고 했다.

- 35) 이것은 앞서 설명한 유목민들의 ‘파르티아식 騎射法’을 사용한 경장기병의 전형적인 전법과 관련이 있다. 중국인에게 낯선 이런 전법의 기록은 이 시대 匈奴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들에 대한 이해가

오로지 이익이 있는 곳에 있고자 할 뿐 예의를 알지 못하였다.³⁶⁾ 임금부터 그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가죽의 고기를 먹고³⁷⁾ 그 가죽과 [털]로 옷을 해 입고 [털을 다진] 모직물과 가죽[旃裘]³⁸⁾을 덮었다. 젊은이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늙은이들이 그 나머지를 먹었다. 건장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노약자들은 경시하였다.³⁹⁾ 아버가 죽으면 [그를 잇는 사람이] 그 후처를 아내로 맞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 있는 형이나 아우가] 그 아내를 차지하였다.⁴⁰⁾

심화된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左傳』에서 “적은 도망함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 기록과 비슷한 하지만 이런 기술은 중국인의 전통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규율에 따라 싸우고 명예와 희생정신을 중시하는 중국군대는 물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는 司馬遷을 비롯한 중국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마의 사가들이 초원의 유목민들의 전투 방법에 대한 기록에서도 보인다(디코스모, 2005: 361)(주32) 참조).

- 36) 몽골의 속담에 “3일을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원에서 유목민들의 삶은 힘들다.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예의와 같은 것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초원의 유목민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런 태도를 여기에서 예의를 모른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 37) 食: 匈奴의 음식은 현재 몽골 유목민과 비슷하게 가죽에서 나오는 고기를 위주로 하는 육식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요사이 몽골인들의 식생활과 연결시켜 설명해 보면, 고기는 주로 양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 조리 방법은 물에 소금을 넣고 고기를 삶은 다음에 건져내 먹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 외에 소고기 내지는 사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고기를 먹는다. 또한 고기를 장기간의 보존을 위해 생고기를 냉동 건조시켜 저장해 두었다가 이것을 물에 넣어 끓여 먹는 방법 역시 발달하였다(주14) 참조). 가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역시 장기간 보존을 위해 보존 식품으로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젖을 약한 불에 가열해 유지방을 모은 다음에 이것에 산과 효모 등으로 응결시켜 고품으로 駝酪을 만들었다. 그리고 駝酪을 바짝 졸여 직사각형이나 구형으로 만든 다음 햇볕에 말린 煉乳(固乳) 등이 저장식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이후에 빵아 물에 녹여 먹었는데, 후대가 간편하여 유목민들에게 좋은 식량이 되었다. 그리고 여름철에 말의 젖을 가죽 포대에 넣고 계속 저어 유산 분해로 발효시켜 馬乳酒를 만들었다. 또한 이것을 다려 만든 燒酒 형태 등의 주류가 중요한 기호 식품으로 음용되었다. 그 외에 일부 정주민들이 경작하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곡물이나 야채 등을 식용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했다.
- 38) 旃: ‘毡毛’과 같은 의미로, 봄철 털갈이를 하기 전의 양이나 낙타, 염소 등의 털을 깎아 그것을 짜거나(양단자) 다져서(펠트) 만들었다. 갓옷[裘]은 가죽을 무두질하여 만든 옷이다.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자신들의 기본적인 의복 이외에도 중국과의 관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귀족층을 중심으로 많은 비단옷이 사용되기도 했다. 몽골 초원지역에서 모직물의 의류와 함께 발굴된 비단 자수로 된 겹옷 그 증거의 하나이다. 위에 첨부한 사진은 몽골 노인 올라 유적에서 발견된 흉노시대의 의복들인데, 당시 지배층의 의복 형태를 추정하게 한다(馬利清, 2005: 88~89).

그 풍속은 이름이 있어도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며 자(字)가 없었다.⁴¹⁾

夏道衰，而公劉失其稷官，變于西戎，邑于豳。其後三百有餘歲，戎狄攻太王亶父，亶父亡走于岐下，豳人悉從亶父而邑焉，作周。其後百有餘歲，周西伯昌伐吠夷，後十有餘年，武王伐紂而營雒邑，復居于酆鎬，放逐戎夷涇·洛之北，以時入貢，名曰荒服。其後二百有餘年，周道衰，而周穆王伐吠戎，得四白狼四白鹿以歸。自是之後，荒服不至。於是作呂刑之辟。至穆王之孫懿王時，王室遂衰，戎狄交侵，暴虐中國。



〈홍노의 비단 長袍〉



〈홍노의 모직 바지〉



〈홍노의 비단 버선과 허리띠〉



〈홍노의 털모자〉

39) 이 기록과 달리, 유목민들의 경우에도 노인의 지혜를 그 사회 유지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匈奴의 모습은 실제 핵가족 단위의 생활을 유지하는 유목민들의 습성과도 관련되었다. 왜냐하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유목민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경우 일단 젊은 남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유목민적인 지혜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 中行說이 漢나라의 사자와 논쟁을 벌이는 장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주 384) 참조).

40) 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나 동생이 그 후처를 아내로 맞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 있는 형이나 아우가 그 아내를 차지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嫂婚制’ 또는 ‘兄死取嫂’ 내지는 ‘收繼婚(levirate)’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계를 상속하는 사람이 선대의 아내를 계승함으로써 종족의 혈통이 없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했다. 왜냐하면 異姓 아내의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고 그 출신 씨족에게서 얻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나 형의 후처를 아들이나 동생이 다시 취함으로써 혈족의 단결을 유지하고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武沐, 2005: 42).

41) 匈奴에 爨鞮氏, 呼衍氏, 須卜氏 등의 氏姓이 있었음은 本傳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史記』의 기록을 인용한 『漢書』의 내용은 착오이거나 아니면 匈奴 이전의 옛 北方 民族의 습속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中國被其苦，詩人始作，疾而歌之，曰：「靡室靡家，玁狁之故」，「豈不日戒，玁狁孔棘。」至懿王曾孫宣王，興師命將以征伐之，詩人美大其功，曰：「薄伐玁狁，至於太原；「出車彭彭」，「城彼朔方。」是時四夷賓服，稱為中興。

하(夏)나라의 국운이 쇠락하자 공유(公劉)⁴²⁾가 [대대로 이어 내려온] 직관(稷官)⁴³⁾의 지위를 잃고 서융(西戎)⁴⁴⁾[의 습속]을 따르게 되어⁴⁵⁾ 빈(邠)⁴⁶⁾ 땅에 마을을 만들어 살았다. 그 뒤 삼백여 년이 지나 용적(戎狄)⁴⁷⁾이 고공단보(古公亶父)⁴⁸⁾를 공격하였다. [고공]단보는 기[산](岐山)⁴⁹⁾ 기슭으로 달아났는데, 빈 땅의 사람들이 모두 [고공]단보를 따라와서 [그곳에] 마을을 만들고 주(周)나라를 세웠다. 그 뒤 백여 년이 지나 주나라 서백창(西伯昌)⁵⁰⁾이 건이

42) 公劉: 周의 시조로서 전설상의 인물인 后稷의 증손이다. 『史記』의 『周本紀』에 따르면, 稷官의 지위를 잃고 “戎狄”의 땅으로 옮긴 것은 公劉의 조부 不畱때의 일이다(『史記』 권4 「周本紀」: 112).

43) 稷官: ‘稷’은 본래 精米를 뜻하고 ‘稷官’은 농업을 관할하던 관리의 우두머리로 ‘稷正’이라고도 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周의 시조 后稷이 唐堯 시기에 이 직임을 맡아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고 후손들이 그를 이어 관직을 세습하였다고 한다(『史記』 권1 「五帝本紀」: 38).

44) 西戎: 中國 古代 西北에 거주했던 戎狄에 대한 총칭이다. 이들은 주로 지금의 甘肅省과 陝西省 일대에 거주했다.

45) 公劉의 祖父가 稷官의 지위를 잃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이주했다. 公劉는 그 뒤 戎狄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농업 생산을 하여 西戎의 풍속과 습관을 바꾸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顏師古의 설명처럼 公劉가 西戎의 풍속에 따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鹽鐵論』에서도 후자와 같은 해석을 하였다(『鹽鐵論』 「和親篇」 “故公劉處西戎，戎狄化之.”: 335).

46) 邠: 지금의 陝西省 旬邑縣과 彬縣 일대이다.

47) 戎狄: 서쪽에 사는 다른 종족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48) 太王亶父: 古公亶父라고 한다. 여기에서 ‘父’는 ‘甫’와 통한다고 보아 통상 ‘보’로 읽는다 周의 우두머리로서 그 전설상 시조로 여겨지는 后稷의 12대손이고, 公劉의 9대손이다. 그가 岐로 도망오자 邠 땅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따라와 마을을 만들었다. 그는 文王의 조부로 周 武王 때에 太王으로 추존되었다. 그는 周의 무리를 이끌고 陝下로 옮겨 성곽과 집을 짓고 관리를 두어 戎狄의 풍습을 개혁하였고, 생산을 늘려 周의 번영을 이룩하였다고 한다(『史記』 권4 「周本紀」: 113~ 115). 『史記』에는 大王亶父로 되어 있다.

49) 岐山: 지금의 陝西省 岐山縣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50) 西伯昌: 周 文王이다. 이름은 姬昌이다. 古公亶父에게는 세 아들 伯, 虞仲, 季歷이 있었다. 그중에 季歷은 周祀를 이었고, 商王은 그가 西方의 霸王이 되는 것을 인정하여 西伯이라 불리게 되었다. 계력의 아들

씨(畎夷氏)⁵¹⁾를 정벌[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나 [주의] 무왕(武王)⁵²⁾이 [상(商)의] 주왕(紂王)⁵³⁾을 치고 난 다음 낙읍(雒邑)⁵⁴⁾을 만들었고, 다시 풍호(酆

昌이 그 뒤를 이어서 西伯昌이라 불리게 되었다(『史記』 권4 「周本紀」: 116).

51) 이들은 ‘畎夷’인데, 다르게는 ‘昆夷’라고도 한다. 이것은 昆이 混 또는 緄으로 쓰고 세 글자가 모두 그 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畎夷氏: 고대 종족 명칭의 하나로 犬戎을 통칭한다. 이들은 원래 周나라와 관계가 깊었는데, 周 文王이 西戎의 覇者로서 왕조의 기초를 쌓았고, 穆王이 犬戎을 정벌하여 太原으로 쫓은 이래 周나라는 犬戎의 잦은 침략에 시달렸다. 주나라 말기에 幽王이 즉위하여 정치가 문란해지자 전771년 犬戎견이씨(畎夷氏)은 申侯와 연합하여 주를 공격, 유왕을 살해하였다. 이로 인해 周나라는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하였다. 그 후 犬戎은 涇水·渭水에 진출하여 周나라를 위협하다가 秦의 襄公·文公시기에 그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는 春秋時代에도 세력을 떨치다가 秦과 匈奴의 힘에 눌려 쇠퇴하였다.

52) 武王: 周 武王 姬發이다. 그는 文王의 장자(문왕의 둘째 아들로서 형) 伯邑考가 商 紂王에게 피살되자 文王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姜太公을 國相에 그대로 연임키고, 그리고 동생 周公 旦과 召公 奭의 보좌를 받으면서 내정을 더욱 정비하고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또한 文王의 유지를 받들어 商나라 紂王 토벌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2년 후 봄 때가 무르익자 武王은 전차 300대, 무사 3,000명, 병사 45,000명을 직접 이끌고 인근 소국의 병력과 연합하였다. 정월 초하루에 출정식을 갖고 盟津에서 商나라로 공격해 들어갔다. 牧野에서 크게 승리한 후 商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수도를 鎬京(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서남)에 정하고 이름을 宗周라 하였다. 이후 周王室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기 위해 친족과 공신들을 책봉하고 그들에게 諸侯國을 세우도록 했다. 이에 姜太公을 營丘(지금의 山東省 淄博市)의 齊나라에, 周公 旦을 曲阜(지금의 山東省 曲阜縣)의 魯나라에, 召公 奭을 蓟丘(지금의 北京)의 燕나라에 각각 분봉하였다. 그리고 商나라의 잔여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紂王의 아들 武庚을 殷侯에 봉하여 殷의 도성에 살게 하고, 형제 管叔鮮, 蔡叔度, 霍叔處를 三監으로 파견해 그를 감시하게 하였다. 周나라가 건국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鎬京에서 병사하였다. 그가 죽은 후에 시호를 武王이라 하였다(『史記』 권4 「周本紀」: 120~131).

53) 紂王: 商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姓이 子이고, 이름은 辛이다. 帝乙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商나라의 왕이 되었다. 신체가 장대하고 외모가 준수하며, 총명하고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애첩 妲己와 황음무도한 짓을 일삼아 夏의 마지막 왕 桀과 함께 폭군의 전형이 되었다. 술로 가득 채운 연못[酒池] 주변의 나무를 비단으로 휘감은 뒤 고기를 매달아 놓고[肉林], 妲己와 함께 배를 타고 노닐면서 손이 가는 대로 고기를 따서 먹었다고 한다. 또 학정을 그치도록 간언하는 신하들로 하여금 기름을 발라 숲불 위에 걸쳐 놓은 구리기둥 위를 걷게 하는 炮烙之刑을 내려 미끄러져서 타 죽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였다. 7년에 걸쳐 거대한 호화궁전 鹿臺를 짓느라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였다. 마침내 諸侯들의 맹주격인 姬發의 공격을 받아 패배한 뒤 紂王은 鹿臺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고 전한다(『史記』 권3 「殷本紀」: 105~110).

54) 雒邑: 洛邑이며, 지금의 河南省 洛陽市에 해당한다. 周 武王이 죽은 뒤 나이 어린 成王이 제위에 오른 이후 攝政이 된 周公이 河南省 洛陽 부근인 洛邑(또는 成周)에 성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당시 商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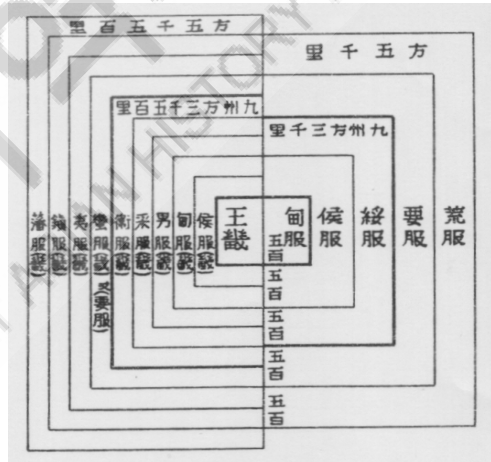
鄘)⁵⁵⁾ 땅으로 [되돌아와] 살며 용이(戎夷)를 경수(涇水)와 낙수(洛水)⁵⁶⁾ 이북으로 내쫓으니 [용이가 이로부터] 철따라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이 사는 지역을] 황복(荒服)⁵⁷⁾ 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 뒤 이백여 년이 지나⁵⁸⁾ 주나라의 국운이 쇠약해졌으나 목왕(穆王)⁵⁹⁾이 견융(猃狁)을 쳐서 네 마리의 흰 이리[狼]와 네 마리의 흰 사슴[鹿]을 잡아 가지고

대표자인 武庚과 祿夫, 그리고 周公의 동생 管叔·蔡叔 등이 東夷와 결탁하여 대반란을 일으키자 召公과 협력하여 이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 동방에 대한 지배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었다. 이곳은 이후 西周가 몰락하고 東周시대가 되면서 천하의 중심이 되었다.

55) 鄘鄘: ‘鄘京’ 또는 ‘京’이라고도 지칭되는데, 西周시대의 수도였다. 周 文王이 灋水 西岸에 鄘邑(지금의 陝西省 長安縣 서북쪽 灋河 西岸 馬王村, 西王村 일대)을 건립하고 수도로 삼았다. 周 武王은 商나라를 멸한 후에 鄘(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서쪽)에 수도를 세웠다.

56) 涇水와 洛水: 모두 陝西省 경내 渭河 西岸의 양대 지류이다. 涇水는 서쪽에, 洛水(지금의 北洛河)는 동쪽에 위치한다.

57) 荒服: 중국 고대의 관념적 지역구분의 하나로, 邊疆의 외진 지역이면서도 능히 帝王에게 복종할 수 있는 땅을 뜻한다. 이것은 王畿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五服’을 둔 제도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周代에 每 500리를 1服이라고 하고, 그 순서는 侯服, 甸服, 男服, 采服, 衛服, 蠻服이었다. 대체적으로 荒服은 王畿로부터 2500리(일설에는 4500리에서 5000리라고도 한다) 밖의 지역으로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질적인 종족이나 국가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周禮』 「夏官·職方氏」에서는 中國의 구역을 首都로부터 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이를 ‘九服’이라 했다. 그중에서 蠻服은 天子의 京畿로부터 4500리 떨어져 있는 여섯 번째 구역, 즉 夷보다 앞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여 다른 민족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 역시 동심원으로 형성된 中國의 지리 체계 내에 포함되기는 하나 정치적·도덕적 권위의 중심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리적 범주를 의미하였다.



〈五服과 九服 比較圖〉

58) 周 武王이 商을 무너뜨린 시점부터 周 穆王시대까지의 시차는 200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其後二百有餘年”이라고 한 것에서 ‘二’는 마땅히 ‘一’의 착오로 보인다.

59) 穆王(재위 전1023~전982): 이름이 姬滿으로 西周 5代 군주, 즉 成王의 손자이고 康王의 아들이다. 昭王의 아들로 기원전 10세기경 사람으로 50세 때 즉위하여 55년간 재위하였다고 한다(『史記』 권4 「周本紀」: 134). 西方의 犬戎을 토벌하려다가 실패하여 諸侯의 離反을 초래하였다. 이때부터 周나라의 덕이 쇠퇴하

돌아왔다.⁶⁰⁾ 이때부터 그 이후에 황복에서 [조공을 하러] 오지 않았다. 이에 주나라에서는 마침내 여형(呂刑)⁶¹⁾이라는 법[辟]을 만들었다. 목왕(穆王)의 손자인 의왕(懿王)⁶²⁾의 시대에 왕실이 마침내 쇠퇴하게 되어 융적이 서로 침입하여 중국을 괴롭혔다.⁶³⁾ 중국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자 시인들이 비로소 [노래를] 지어 고통스러워하면서 노래했다. “처도 없고 가장도 없게 된 것은 험윤 때문이다.”⁶⁴⁾ “어찌 하루도 경계하지 않겠는가! 험윤의 [침입이] 심하고 급격한데.”⁶⁵⁾ 의왕의 증손인 선왕(宣王)시대에 이르러 군대를 일으키고 장수에게 명하여 [그 들을] 정벌하게 하니 시인들이 그 공을 크게 찬미하여 노래하였다. “험윤을 몰아내 태원(太原)에 이르렀네.”⁶⁶⁾ “떠나가는 전차가 아주 가득하고”, “북녘 땅[朔方]에 성을 쌓았도다.”⁶⁷⁾ 이때 사이(四夷)들이 모두 복속하게 되니 중흥(中興)이라 칭하였다.⁶⁸⁾

였다고 한다. 한편 金文銘으로 보아 昭王, 穆王 시대에 법제가 정비되고 姬姓의 나라가 증가하여 영토가 확장되고 주나라 국력이 확장되었다는 견해도 있다(『史記』 권4 「周本紀」: 135~ 136). 현존하는 『穆天子傳』은 穆王의 西遊의 이야기인데, 후세의 僞書로 여겨지고 있다.

60) 이 說話는 말 그대로 犬戎의 수렵지로 들어가 진귀한 짐승을 사냥하였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이리와 사슴을 토렘으로 하는 部族들을 征伐하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리와 사슴 등과 같은 神話素가 북아시아 신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烏孫, 高車, 突厥, 蒙古 신화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북아시아 신화를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몽골의 건국신화에서도 잿빛 이리와 하얀 사슴이 결합해서 건국자 칭기스 칸의 조상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原山焯, 1995: 46~47). 이런 점에서 볼 때 周代에 犬戎으로 표현된 종족들과 후대 북방의 여러 유목민족들이 계통적인 연결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史記』 권4 「周本紀」: 136).

61) 이것은 『尙書』 「呂刑」篇의 내용이다. 穆王은 外征 뒤 諸侯와 外蕃들 중에 周나라를 따르지 않는 이가 생기자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새로 贖法을 제정한 呂刑(甫刑)을 발표하여 조정의 권위를 높이고 財政을 확보하려고 했다. 『史記』에는 “甫刑”으로 되어 있다.

62) 懿王: 周나라의 7대 군주이다.

63) 『史記』는 “穆王之後二百有餘年”이라고 하여 『漢書』의 “至穆王之孫懿王時, 王室遂衰, 戎狄交侵, 暴虐中國.”이라는 穆王 이후 인근 종족 내지는 국가의 침략을 받게 되는 상황을 기록하지 않았다.

64) 征役이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집안에 부부의 도가 어그러지는 것은 獫狁이 공격하여 괴롭히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65) 『詩經』 「小雅 采芣」에 나오는 노래이다.

66) 『詩經』 「小雅 六月」에 나오는 노래이다.

67) 『詩經』 「小雅 出車」에 나오는 노래이다.

68) 『史記』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穆王의 손자인 懿王 시대가 아니라 西周가 멸망하고 난 뒤의 일로

至于幽王，用寵姬褒姒之故，與申后[侯]有隙。申侯怒而與吠戎共攻殺幽王于麗山之下，遂取周之地，鹵獲而居于涇渭之間，侵暴中國。秦襄公救周，於是周平王去酆鎬而東徙于維邑。當時秦襄公伐戎至岐，始列為諸侯。後六十有五年，而山戎越燕而伐齊，齊釐公與戰于齊郊。後四十四年，而山戎伐燕。燕告急齊，齊桓公北伐山戎，山戎走。後二十餘年，而戎翟至維邑，伐周襄王，襄王出奔于鄭之汜邑。初，襄王欲伐鄭，故取翟女為后，與翟共伐鄭。已而黜翟后，翟后怨，而襄王繼母曰惠后，有子帶，欲立之，於是惠后與翟后·子帶為內應，開戎翟，戎翟以故得入，破逐襄王，而立子帶為王。於是戎翟或居於陸渾，東至于衛，侵盜尤甚。周襄王既居外四年，乃使使告急於晉。晉文公初立，欲修霸業，乃興師伐戎翟，誅子帶，迎內襄王于洛邑。

유왕(幽王)⁶⁹에 이르러 [그는] 포사(褒姒)⁷⁰라는 총희(寵姬)로 인해 신후(申侯)⁷¹와 틈이 생기게 되었다. 신후는 화가 나서 견융과 함께 쳐들어와 주나라 유왕을 여산(麗山)⁷² 기슭에서 죽이고 마침내 주나라 땅을 취하였다. [견융이 땅을] 노획하여⁷³ 경수(涇水)와 위수(渭

되어 있다. 그리고 『詩經』에서 인용한 노래들이 역시 “中國에서는 [그것을]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시인들은 [그들에 대해] ‘戎狄을 이에 응징하였네.’, ‘玁狁을 쳐부수어 大原에 이르렀네.’, ‘떠나는 戰車가 [길에 아주] 가득하고, 저 북녘 땅(朔方)에 성을 쌓았도다.’라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다. 이상의 노래는 원래 『詩經』 「小雅 六月」 “戎車既安，如輕如軒。四牡既佶，既佶且閑。薄伐玁狁，至于大原。文武吉甫，萬邦爲憲。”와 『詩經』 「小雅 出車」 “王命南仲，往城于方。出車彭彭，旂旒中央。天子命我，城彼朔方。赫赫南仲，玁狁于襄。”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지본에서는 축약되었다.

69) 幽王(재위 전781~전771): 이름이 姬宮涅이다. 宣王의 아들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총희 褒姒를 웃기기 위하여 가끔 거짓 烽火를 올리게 하여 諸侯들을 모이도록 하였다. 때문에 犬戎이 침공하였을 때 봉화를 올렸으나 諸侯들이 응하지 않아 驪山 기슭에서 패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사후 아들 平王이 수도를 洛陽으로 옮겨 西周時代는 끝났다(『史記』 권4 「周本紀」: 145).

70) 褒姒: 褒는 나라이름이고, 姒는 姓이다.

71) 申侯: 西周 말기 申의 諸侯로서 幽王의 后 申氏의 아버지이다. 幽王이 褒姒를 총애하여 申後와 태자 宜臼를 폐하자, 申侯가 犬戎과 연합하여 幽王을 살해하고 宜臼를 平王으로 옹립하였다(『史記』 권4 「周本紀」: 147~149). 申侯의 封邑은 申城으로 지금 河南 南陽市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72) 麗山: 지금의 陝西省 臨潼縣 동남쪽에 있다. 이곳은 『史記』에서 ‘驪山’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이된다.

73) “鹵獲”은 노획하다는 의미인데, 『史記』에는 지명인 ‘焦穫’으로 되어 있다.

水⁷⁴⁾ 사이에 머물러 살면서 중국을 침범하였다. [한편] 진(秦)나라 양공(襄公)⁷⁵⁾이 주나라를 구원하였으므로 이에 주나라 평왕(平王)⁷⁶⁾이 풍호를 떠나 동쪽 낙읍으로 옮겨 갔다. 당시에⁷⁷⁾ 진나라 양공이 [견]용을 쳐서 기[산]에⁷⁸⁾ 이르게 되어 비로소 제후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⁷⁹⁾ 이후 65년이 지나⁸⁰⁾ 산융⁸¹⁾이 연(燕)⁸²⁾나라를 넘어 제(齊)⁸³⁾나라를 공격하니 제나라 희공(釐公)⁸⁴⁾이 [산융과] 제나라의 국경에서 싸웠다. 이후 44년이 지나⁸⁵⁾ 산융이 연나

74) 渭水: 甘肅省 渭源縣에서 발원하여 陝西省 중부를 지나가는 黃河의 支流이다. 지금의 西安과 咸陽을 가로지른다.

75) 秦 襄公(재위 전781~전771): 秦나라의 開國始祖로 周 平王을 도와 동천하는 데 공을 세웠고, 이로 말미암아 諸侯로 책봉되었다(『史記』 권5 「秦本紀」: 178~195).

76) 平王(재위 전770~전720): 幽王의 아들로 이름은 姬宜白이다. 어머니는 申侯의 딸인 申后이다. 처음에 태자에서 폐위되었다가 다시 복위하였다. 西方의 異民族이 강성해져 周나라 영토를 침공하자 전 770년에 鎬京을 버리고 동쪽의 洛邑으로 도읍을 옮긴 다음 洛邑에서 즉위하여 전720년까지 재위하였다. 그가 東遷한 이후의 시대를 일반적으로 '春秋時代'라고 한다(『史記』 권4 「周本紀」: 149~150).

77) 周 桓王 14년(전706)의 일이다(『史記』 권4 「周本紀」: 150).

78) 지본에는 “郊”로 되어 있는데, 이는 “岐”의 古字로 원문을 ‘岐’로 바꾸었다(주49) 참조).

79) 秦 襄公이 周를 구한 공이 있어 平王이 東遷한 다음에 그의 故地인 酈鄙를 秦襄公에게 주었다. 이때가 襄公 7년(전771)이다.

80) 東周가 건국된 뒤 65년이 지난 전706년의 일이다.

81) 山戎은 기원전 8세기 이후 燕나라가 遼寧지역으로 계속 진출하자 遼西에 거주하던 여러 종족이 이에 맞서 燕나라와 山東半島 일대까지 침입하면서 확인되기 시작했다. 山戎은 주로 燕나라의 북쪽, 즉 지금의 遼西지역 내지는 內蒙古 등지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기초로 문헌에 등장하는 여러 종족의 문화적인 특징을 대응시키는 과정에서 山戎의 주요 거주지인 遼西지역 청동기 문화의 주인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田廣金, 2005: 365~369). 특히 遼西地域 青銅器文化, 즉 夏家店上層文化와 大凌河 동쪽에 분포하는 遼寧式 銅劍文化를 어느 집단의 문화로 보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遼西地域의 青銅器文化 담당자를 古朝鮮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東胡나 山戎이나를 놓고 논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송호정, 2003: 100)(주6) 참조).

82) 燕: 武王의 동생인 召公 奭에게 봉해진 나라이다. 河北省으로부터 점차 동북쪽으로 발전하여 戰國時代에 七雄의 하나가 되었다. 지금의 河北省 북부와 遼寧省 서쪽에 위치하였다. 이후 전222년에 秦나라에 병합되었다.

83) 齊: 周나라 武王이 太公望에게 봉해 준 나라이다. 지금의 山東省 북부와 동부에 위치하였다. 齊나라의 영역은 산과 바다의 물산이 풍부하고 도읍지인 臨淄(지금의 濟南) 부근은 커다란 상업도시로 번창하였다. 春秋 初期에 桓公이 管仲의 내정개혁 정책에 힘입어 국력을 키워서 霸主가 될 수 있었다. 靈公 때에는 萊를 멸망시켜 나라를 山東省 동부까지 확장하는 등 크게 발전하였다.

라를 쳤다. 언나라는 위급함을 제나라에 알렸고, 제나라 환공(桓公)⁸⁶⁾이 북쪽으로 산융을 공격하니 산융이 도망갔다. 이후 이십여 년이 지나 용적(戎翟)⁸⁷⁾이 낙읍까지 와서 주나라 양왕(襄王)⁸⁸⁾을 치니,⁸⁹⁾ 양왕이 나와 정(鄭)⁹⁰⁾나라의 범읍(汎邑)⁹¹⁾으로 달아났다. 이전에 주나라 양왕이 정나라를 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적 [추장의] 딸을 왕후로 맞아들여⁹²⁾ [용]적의 군사와 함께 정나라를 쳤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양왕이 적후(翟后)를⁹³⁾ 멀리하게 되자 적후가 왕을 원망하게 되었다.⁹⁴⁾ 그런데 양왕의 계모를 혜후(惠后)라고 하였는데, [그에게는] 자대(子帶)라는 아들이 있어 그를 [천자로] 세우고자 하였다. 이에 혜후가 적후, 자대와 함께 [몰래 용적과] 내통해 용적에게 [성문을] 열어주었다. 용적은 [도성 안으로] 들어와 [결국] 양왕을 격파하고 내쫓은 다음에 자대를 천자로 삼았다. 이로 인해 용적이 더러

84) 齊 釐公(재위 전730~전698): 이름이 姜祿甫이다. ‘釐’는 통상 ‘禮’와 통한다고 보아서 ‘희’로 읽는다(『史記』 권32 「齊太公世家」: 1482~1483).

85) 『左傳』에 의하면, 魯 莊公 30년(전664)에 齊가 燕을 괴롭히던 山戎을 쳤다. 따라서 이해는 앞서 설명한 山戎이 齊나라를 공격한 시점(전706년)으로부터 43년 뒤의 일이다.

86) 齊 桓公(재위 전685~전643): 이름은 姜小白으로, 春秋五霸의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내란으로 형 襄公이 살해된 후, 이복동생 糾를 몰아내고 즉위하였다. 鮑叔牙의 진언으로 糾의 옛 신하인 管仲을 재상으로 기용하였다. 그 후 管仲의 협력으로 諸侯와 종종 會盟하여 신뢰를 얻었다. 특히 葵丘에서의 회맹으로 霸者로서의 지위가 확립되었다. 또 山戎을 쳐서 燕나라를 구하고, 魯의 내란 평정에 힘을 기울였다. 인근 종족들의 침입으로 멸망한 邢을 夷儀로, 衛를 楚丘로 옮겨 부흥시켰다. 內政에서는 군사적 강화와 상업·수공업의 육성으로 나라를 튼튼히 하였다. 만년에 管仲의 유언을 무시하고 전에 추방한 신하를 다시 등용하였으나 그들에게 권력을 빼앗겼다. 그가 죽은 후 내란이 일어나 국력이 약화되었다(『史記』 권32 「齊太公世家」: 1486~1494).

87) 『史記』에는 “戎狄”으로 되어 있다. ‘翟’과 ‘狄’은 서로 통용하면서 쓴다.

88) 周 襄王(재위 전651~전619): 이름은 姬鄭이었다. 襄王은 惠王의 아들이다(『史記』 권4 「周本紀」: 152~154).

89) 周 襄王 16년(전636)의 일이다.

90) 鄭: 전806년 周나라 宣王의 아우 桓公이 세운 周나라의 封國이다. 처음 鄭(지금의 陝西省 華縣 동쪽)에 있다가 이후에 河南省 新鄭縣으로 옮겨 발전했다. 전375년 韓나라 哀侯에게 망하였다.

91) 汎邑: 지명으로 지금의 河南省 襄城縣에 있었다. 潁川의 襄城인데, 일찍이 襄王이 그곳에 머물러서 襄城이라 불리게 되었다.

92) 周 襄王 15년(전637)의 일이다.

93) 『史記』에는 “狄后”로 되어 있다.

94) 周 襄王 16년(전636)의 일이다.

육훈(陸渾)⁹⁵⁾에 살게 되면서 동쪽으로는 위(衛)⁹⁶⁾나라에까지 이르러 중국을 침입해 약탈하는 것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주나라 양왕은 도성 밖에서 4년이나 살다가,⁹⁷⁾ 사신을 진(晉)⁹⁸⁾나라에 보내 위급함을 알렸다. [당시] 진(晉)나라 문공(文公)⁹⁹⁾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패업(霸業)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용적을 쳐서 내쫓은 다음 자대를 죽이고 양왕을 맞아들여¹⁰⁰⁾ 낙읍에 살게 하였다.

當是時，秦晉爲強國。晉文公攘戎翟，居于西河園·洛之間，號曰赤翟·白翟。而秦穆公得由余，西戎八國服於秦。故隴以西有綿諸·吠戎·狄獮之戎，在岐·梁·涇·漆之北有義渠·大荔·烏氏·胸衍之戎，而晉北有林胡·樓煩之戎，燕北有東胡·山戎。各分散谿谷，自有君長，往往而聚者百有餘戎，然莫能相壹。

이 무렵 진(秦)나라와 진(晉)나라가 강한 나라였다.¹⁰¹⁾ 진(晉)나라의 문공은 용적을 몰아내 [그들을] 서하(西河)¹⁰²⁾의 은수(園水)¹⁰³⁾와 낙수¹⁰⁴⁾ 사이에 살게 하고 적적(赤翟),¹⁰⁵⁾ 백적

95) 陸渾: 지명으로 지금의 河南省 嵩縣 서남쪽에 있었다. 伊闕의 남쪽에 있는 陸渾山川이다.

96) 衛: 周나라에서 商나라의 유민을 다스리기 위해 周公의 아우 康叔을 商나라의 옛 도읍 朝歌에 봉해 준 나라이다. 西周 말년, 제8대 頃侯 때 최성기를 맞이하였다. 周나라의 幽王 살해되었을 때에 제11대 武公이 周나라 왕실을 도와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春秋時代에 이르러서는 齊, 晉, 宋, 魯 등에게서 압박을 받아 점차 쇠퇴하였다. 전600년에는 狄의 침략을 받아 한때 국토를 잃기도 하였다. 교통의 요지를 점유하고 있어 그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戰國時代에는 秦과 魏 사이에 끼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전209년 제46대 君角 때 秦나라의 2世 皇帝에게 병합되었다. 지금의 河南省 북부에 있었다.

97) 周 襄王이 都城 밖에서 산 것은 사실 단지 1년뿐이다. 즉위 16년(전636)에 나와 鄭에 머물다 17년 삼월 都城으로 돌아와 복위하였다.

98) 晉: 周나라의 封國으로 전1106년경 일어나 文公이 楚나라를 격파하고 周나라를 도와 패자가 되었다. 하지만 전376년에 韓, 魏, 趙의 세 나라로 분리되었다. 지금의 山西省 지역에 있었다.

99) 晉 文公(재위 전636~전628): 이름이 姬重耳로서 春秋五霸의 두 번째 인물로 이름이 높다(『史記』 권5 「秦本紀」: 190).

100) ‘內’는 ‘納’과 통하는데, 晉 文公이 襄王을 맞아들인 것은 文公 2년(전635) 삼월이다.

101) 기원전 7세기 秦 穆公(재위 전659~전621) 任好와 晉 文公(재위 전636~전628) 重耳가 霸者로서 列國 중에서 강국의 지위에 올랐던 사실을 말한다.

102) 西河: 지금의 陝西省 동부 黃河 남단과 그 西岸 지역이다. 『史記』에는 “河西”로 되어 있다.

(白翟)¹⁰⁶이라 불렀다. 또한 진(秦)나라의 목공(穆公)¹⁰⁷은 유여(由余)¹⁰⁸를 얻어 서융의 여덟 개 나라¹⁰⁹가 진나라에 복속되게 했다. 따라서 농[산](隴山)¹¹⁰의 서쪽에 면저(縣諸),¹¹¹ 견융(畎戎),¹¹² 적원(狄獮)¹¹³ 등의 용이¹⁴ 있었고, 기산, 양산(梁山),¹¹⁵ 경수, 칠수(漆

103) 鬪水: 秃尾河라고도 한다. 지금의 陝西省 북부 榆林과 葭縣의 경계에 있다. ‘鬪’의 음은 ‘은(嘉)’인데, 『史記』에는 ‘鬪水’로 되어 있다. 鬪水는 上郡의 白土縣의 서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黃河로 흘러들어간다. 이것은 銀州 銀水를 말하는데, 본래 ‘鬪’으로 적혀 있으니, 晉灼의 주장이 옳다. 이후에 轉寫者가 잘못해서 이를 鬪이라고 적었다.

104) 洛水: 지금의 北洛河로 陝西省 북부에서 발원하여 吳旗·延安縣 경계를 따라 흐른다. 달리 ‘漆沮’라고도 한다(주56) 참조.

105) 赤翟: 고대 종족 명칭으로 ‘赤狄’이라고도 한다. 春秋時代 狄人의 하나이다. 그들의 분포지역은 대체적으로 지금의 山西省 長治縣 북부에 해당되는데, 이곳에서 쫓나라 사람과 섞여 살았다. 그들이 붉은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기원전 6세기경에 쫓나라에 복속되었다. 이들과 관련하여 『左傳』 宣公 16年조에 “晉師滅赤狄潞氏”라는 기록이 있다. 과거에 赤翟이 山西省 長治에 거주하였는데, 本文에서는 赤翟이 河西의 鬪, 洛之間에 거주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杜預는 ‘潞’를 赤翟의 다른 종류로 보았다.

106) 白翟: 고대 종족 명칭으로 ‘白狄’이라고도 한다. 春秋時代 狄人의 하나이다. 지금의 山西省 介休와 陝西省 延安 경계지대에 거주했다가 이후에 河北省 경계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하얀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기원전 6세기경에 쫓나라에 복속되었다. 隗姓으로 春秋時代에 쫓나라와 通婚하였다. 『春秋』에는 晉師가 ‘赤狄潞氏’를 멸하고 卻缺가 ‘白狄子’를 잡았다고 기록했다.

107) 秦 穆公(재위 ?~전621): 진나라 제9대 군주로 성은 嬴, 이름은 任好이다. 德公의 셋째 아들로 춘추 五霸의 한 사람이다. 百里奚 등을 등용해서 국정을 정비하고, 동으로는 河西를 빼앗고 서로는 西戎을 쳐서 霸者가 되어, 국세가 급격히 발전하였다. 鄭나라를 치려다가 쫓나라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였고 그 실패를 뉘우치고 ‘秦誓’를 만들어 보복하였다(『史記』 권4 「周本紀」: 155).

108) 由余: 春秋時代 秦나라의 大夫인데, 그의 조상이 원래 秦나라 사람으로 戎의 땅으로 흘러들어갔다. 이후에 戎의 왕이 秦나라의 상황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秦나라에 투항하였다. 이후 秦나라는 由余의 策略을 이용하여 西戎의 8개 부락을 정복하여 땅을 천여 리 넓혀 일약 패자가 될 수 있었다(『史記』 권5 「秦本紀」: 192~195).

109) 『鹽鐵論』 「論勇篇」에도 이때 정복한 나라를 여덟 개라고 하였다. 하지만 『史記』 『秦本紀』, 「韓詩外傳」, 「韓非子」 「十過篇」, 「說苑」 「反質篇」, 「金樓子」 「說蕃篇」 등에서는 모두 열두 개 나라라고 하였고, 『漢書』 「韓安國傳」에서는 열 개국이라고 하는 등 차이가 있다.

110) 隴山: 지금의 六盤山 남단으로 陝西省과 甘肅省 경계에 위치한 산 명칭이다.

111) 縣諸: 고대 종족 명칭으로 西戎의 하나이다. 지금의 甘肅省 通渭縣의 서북에 거주했다.

112) 畎戎: 고대 종족 명칭으로 西戎의 하나이다. 『史記』에는 “緄戎”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甘肅省 天水縣에

水)¹¹⁶⁾ 이북에는 의거(義渠),¹¹⁷⁾ 대려(大荔),¹¹⁸⁾ 오지(烏氏),¹¹⁹⁾ 후연(胸衍)¹²⁰⁾ 등의 용이 있었고, 진(晉)나라의 북쪽에 임호(林胡),¹²¹⁾ 누번(樓煩)¹²²⁾ 등의 용이 있었으며, 연나라의 북쪽에 동호(東胡),¹²³⁾ 산융 등이 있었다. [그들은] 각각 계곡에 흩어져 살면서 나름의 군장(君長)이

거주했다.

- 113) 狄獯: 고대 종족 명칭으로 西戎의 하나이다. 지금 甘肅省 通渭縣 부근에 거주했다. 『史記』에는 “翟獯”으로 되어 있다.
- 114) 緜諸, 吠戎, 狄獯 등은 모두 天水의 경계에 살았는데, 綿諸道와 貊道 등이 이것이다.
- 115) 梁山: 지금의 陝西省 韓城縣 서북쪽에 위치한 산 명칭이다.
- 116) 漆水: 지금의 陝西省 舊同官縣에서 시작해 西南으로 耀州로 흘러들어가는 강의 명칭이다. 沮水와 합쳐 石州河가 되었다가 南으로 흘러가 渭水와 합류한다.
- 117) 義渠: 고대 종족 명칭으로 西戎의 하나이다. 이들은 원래 北地郡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곳은 지금의 甘肅省 東南部와 寧夏回族自治區 南部 일대이다. 前漢시대의 名將 公孫昆邪, 公孫賀, 公孫敖 등이 모두 義渠 출신이다(주503) 참조.
- 118) 大荔: 고대 종족 명칭으로 西戎의 하나이다. 이후에 명칭을 ‘臨晉’으로 바꾸었고, 馮翊에 있었다. 이곳은 지금의 陝西省 大荔縣 지역이다.
- 119) 烏氏: 고대 종족 명칭으로 西戎의 하나이다. 음은 ‘오지’이다. 이들은 涇州 安定縣 동쪽 3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곳은 지금의 甘肅省 涇川縣이다.
- 120) 胸衍: 고대 종족의 명칭이며, 西戎의 하나로 음은 ‘후연’ 또는 ‘유연’이라고 읽을 수 있다. 지금의 寧夏回族自治區 鹽池縣 부근에 살았다.
- 121) 林胡: 고대 종족 명칭으로 ‘林人’, ‘儋林’이라고도 한다. 樓煩, 東胡와 함께 ‘三胡’라고 지칭된다. 戰國時代 지금의 山西省 朔縣에 거주했다. 목축과 수렵에 종사하였고, 말 키우는 데 능숙했다. 기원전 7세기 중반 晉나라의 북변에 거주하고 있었다. 기원전 5~3세기에 燕나라의 북변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晉나라의 북변으로 이주했다. 趙나라의 肅侯(재위 전349~전326)가 군대를 보내 荏(山西省 북부)에서 대패시켰고, 武靈王이 기원전306년에 대파하자 그에 복속되어 공물을 바쳤다. 趙나라 孝成王(재위 전265~전244)이 李牧을 시켜 匈奴 십여 만 기를 격파할 때 이들 역시 완전히 복속되었다가 그 이후에 소멸되었다.
- 122) 樓煩: 고대 종족 명칭으로 林胡의 서쪽에 거주하고 있었다. 春秋 말에 주로 山西省 靈武, 崑崙縣 등지에 살고 있었다. 이들은 騎射에 능숙하고 목축업에 종사하였다. 이후 陝北과 內蒙古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다가 秦나라 말기 匈奴에게 정복되었다. 이후에 지금의 內蒙古 오르도스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漢 武帝 元朔 2년(전127)에 衛青이 이들을 격파하였다. 이런 종족명어의 해석과 달리, 『史記索隱』에서는 이것을 縣의 명칭으로 보고 있다. 縣으로서의 樓煩은 원래 異民族의 땅으로 漢代에는 雁門郡에 속했다. 이곳은 지금의 山西省 神池, 五寨 등지에 해당한다(林幹, 2003: 46~47)(주155) 참조.
- 123) 東胡: 고대 종족 명칭이다. 匈奴의 동쪽에 거주했기 때문에 東胡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長成 동북의 광활한 범위에 걸쳐 살았고, 주로 목축업에 종사하였다. 春秋戰國시대에는 남으로 燕나라

있어 가끔씩 무리를 이룬 것이 백여 개의 용(戎)¹²⁴⁾이었는데, 서로 하나로 [묶이지는] 않았다.

自是之後百有餘年，晉悼公使魏絳和戎翟，戎翟朝晉。後百有餘年，趙襄子踰句注而破之，并代以臨胡貉。後與韓魏共滅知伯，分晉地而有之，則趙有代·句注以北，而魏有西河·上郡，以與戎界邊。其後，義渠之戎築城郭以自守，而秦稍蠶食之，至於惠王，遂拔義渠二十五城。惠王伐魏，魏盡入西河及上郡于秦。秦昭王時，義渠戎王與宣太后亂，有二子。宣太后詐而殺義渠戎王於甘泉，遂起兵伐滅義渠。於是秦有隴西·北地·上郡，築長城以距胡。而趙武靈王亦變俗胡服，習騎射，北破林胡·樓煩，自代並陰山下至高闕爲塞，而置雲中·雁門·代郡。其後燕有賢將秦開，爲質於胡，胡甚信之。歸而襲破東胡，〔東胡〕卻千餘里。與荊軻刺秦王秦舞陽者，開之孫也。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距胡。當是時，冠帶戰國七，而三國邊於匈奴。其後趙將李牧時，匈奴不敢入趙邊。後秦滅六國，而始皇帝使蒙恬將數十萬之(物)[衆]北擊胡，悉收河南地，因河爲塞，築四十四縣城臨河，徙適戍以充之。而通直道，自九原至雲陽，因邊山險，塹谿谷，可繕者繕之，起臨洮至遼東萬餘里。又度河據陽山北假中。

그 이후로 백여 년이 지나¹²⁵⁾ 진(晉)나라의 도공(悼公)¹²⁶⁾이 위강(魏絳)¹²⁷⁾을 사신으로

와 접했다. 燕나라에게 패배해 북쪽의 遼河 상류지역으로 이주했다. 秦나라 말기에 東胡가 다시 강해졌지만 匈奴의 冒頓單于에게 패배하여 대부분이 그에 병합되었다. 이들은 이후에 등장하는 烏丸과 鮮卑의 조상으로 여겨진다(林幹, 1995: 9~23).

124) 戎: 일반적으로 중국 자료에서는 好戰的인 異民族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데, 그 용례는 아주 다양하다. 그 의미는 ‘尙武的인’, ‘軍隊의’, ‘戰爭’, ‘武器’ 등과 관련이 있다. 『左傳』에서도 戎은 “御戎(전차를 몰다)”, “戎車(전차)”와 같은 구절에서 戰車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西周時代에는 이 단어가 ‘오랑캐 또는 異民族’라기보다는 ‘敵對國’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25) 秦이 西戎을 차지하게 된 것은 穆公 37년(전623)이었다. 그리고 魏絳이 화친 사절로 戎에 간 것이 晉 悼公 4년(전569)이니 앞뒤로 대략 54년 정도이다. 따라서 백여 년이라고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

126) 晉 悼公(재위 전572~전558): 이름은 周이고 襄公의 손자이다.

127) 魏絳: 魏의 長子로 晉나라의 大夫이다.

보내 융적과 화친하자 융적[의 군장]이 진(晉)나라에 입조했다. 그 후 백여 년이 지나¹²⁸⁾ 조양자(趙襄子)¹²⁹⁾가 구주[산](句注山)¹³⁰⁾을 넘어 [융적을] 격파하니 대(代)¹³¹⁾[나라의 땅]을 병합하여 호(胡)¹³²⁾와 맥(貉)¹³³⁾과 맞붙게 되었다. 그 이후 [조양자가] 한(韓)¹³⁴⁾나라, 위(魏)¹³⁵⁾나라와 함께 지백(智伯)¹³⁶⁾을 내쫓고 진나라 땅을 나누어 갖게 되니¹³⁷⁾ 조(趙)나라

128) 저본에서 백여 년이라고 한 것은 魏絳이 晉 悼公 4년(전569)에 戎에 사신으로 가서 그와 화친한 이후 晉 出公 18년(전457) 趙襄子가 代를 격파할 때까지 약 117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129) 趙襄子: 이름은 趙毋恤로, 晉나라의 執政大臣이었다. 趙簡子의 아들이다. 韓, 魏의 두 집안과 함께 智伯을 무찌르고 부단히 봉읍을 확장시켰다(주136) 참조).

130) 句注山: 雁門에 있는 산 명칭이다. ‘陘嶺’ 또는 ‘西陘山’이라고도 불리는데, 古代 9塞 중의 하나이다. 山西省 代縣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131) 代: 나라 명칭으로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興和와 山西省 靈丘, 그리고 河北省 懷安과 涿源 지역에 걸쳐 있었다.

132) 胡: 일반적으로 匈奴 이전에는 북방의 異民族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범용되었다. 이후 匈奴帝國이 등장하게 되면서 주로 匈奴를 지칭한다(陳勇, 2005: 60). 『史記』와 『漢書』에서는 匈奴와 東胡 등을 모두 일컫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隋唐代에는 북방에 거주하는 유목민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중앙아시아의 소그드인(粟特人)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森安孝夫, 2007: 108). 이 단어의 어원은 비중국어 계통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 몽골어에서 ‘아들’을 뜻하는 ‘kō’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133) 貉: 고대 통구스계통 종족의 하나이다. 이들은 穢·韓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주된 구성체로서, 『詩經』, 『書經』 등을 보면 周나라의 동북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뒤 북중국의 遼東·만주지역으로 이동해 高句麗·夫餘 등의 國名이 나타나기 전에 穢와 貉으로 중국측 기록에 보인다. 그 이후 이들은 북방정세의 변화 또는 다른 요인으로 한반도 내로 이주한 高句麗와 계통을 같이한다. ‘貉’은 ‘貊’과 통한다(주 223) 참조).

134) 韓: 戰國七雄의 하나이다. 그의 조상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晉나라를 섬기던 유력한 世族으로 春秋時代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韓武子의 3대손 韓厥(獻子) 및 아들 韓起(宣子)가 함께 晉나라의 6卿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이후 전453년에 韓康子가 趙氏와 魏氏와 함께 晉나라의 知伯을 내쫓고 영토를 삼분하였다. 그리고 전403년에 周나라의 威列王으로부터 諸侯로 승인받았다. 도읍은 平陽이었으나 이후 宜陽으로 옮겼다. 전375년에 哀侯가 鄭國을 멸한 뒤 다시 新鄭으로 천도하였다. 전355년 昭侯가 申不害를 재상으로 삼아 관료체제를 정비하고 富國強兵策을 취하여 중원의 강국으로 발전했다.

135) 魏: 戰國七雄의 하나이다. 그의 조상은 周나라 왕실과 동족인 畢公高인데, 그의 자손 畢萬이 晉나라의 獻公에게서 魏(山西省) 땅을 받고 大夫가 되었다. 이후 魏絳은 卿에 임명되어 晉나라 6경의 한 사람으로 정권을 쥐었다. 전453년 魏의 桓子が 韓, 趙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晉나라를 3분하였다. 그리고 전403년에는 周나라 威烈王에게서 諸侯로 인정받았다. 魏는 安邑에 도읍을 정하였는데, 지금의 山西省 남서부, 山西省, 河北省, 山東省에 걸친 영역을 지배했다. 초대 文侯(斯)는 李悝, 魏成子, 翟璜 등을 재상으로 삼아 중앙집권체제 확립과 부국강병에 힘을 기울이고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위해 관개사업을 크게

는 대(代)와 구주(산)의 북쪽을 차지하였고, 위나라는 서하[군](西河郡)¹³⁸⁾와 상군(上郡)¹³⁹⁾을 차지하게 되어 [모두] 용과 경계를 접하게 되었다. 그 후 의거(義渠)의 용이 성곽을 쌓고 스스로 지켰으나 진(秦)나라가 [이를] 점점 먹어 들어가 혜왕(惠王)¹⁴⁰⁾에 이르러서는 의거의 스물다섯 개의 성을 차지하였다.¹⁴¹⁾ 혜왕이 [또] 위(魏)나라까지 정벌하여¹⁴²⁾ 위나라의 서하[군]과 상군을 모두 진나라로 집어넣었다. 진나라 소왕(昭王)¹⁴³⁾의 시기에 의거의 용왕과 모친 선태후(宣太后)¹⁴⁴⁾가 사통하여 두 아들을 낳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선태후는 감천[궁](甘泉宮)¹⁴⁵⁾에서 의거 용왕을 속여 죽이고 마침내 군대를 일으켜 의거를 쳐서 멸망시켜버

벌였다. 또한 명장 吳起를 등용해 秦나라의 河西 지방을 빼앗고 中山과 大梁(河南省 開封縣)을 차지했다. 그리고 楚나라를 공격하는 등 戰國 初期에 최강국으로 성장했다.

136) 智伯: 晉나라의 大夫로 이름은 瑤인데, 智襄子라고도 불렸다. 晉나라 내부에서 異姓 世族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전497년에 智伯이 韓康子, 魏桓子, 趙襄子 등과 함께 定公을 받들고 范氏, 中行氏 등을 제거하였다. 이후 국정을 장악한 智伯이 范氏, 中行氏로부터 빼앗은 토지 배분을 두고 여타 世族과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趙襄子를 공격했다. 하지만 趙襄子是 오히려 韓康子, 魏桓子와 결탁하여 智伯을 무찌르고 그의 후사를 단절시켰다. 이로 인해 전453년에 晉나라는 三分되었다. 趙襄子는 그를 원수로 여겨 그의 두개골에 칠을 해서 그릇으로 사용했다(주129) 참조).

137) 韓, 魏, 趙는 春秋時代와 戰國時代 초기까지 晉나라의 귀족이었으나 후에 나라를 쪼개어 각자 독립하였다. 周나라 威烈王 23년(전403)에 이 三家를 諸侯로 정식 승인하였다. 이를 ‘三晉’이라 하는데, 이로부터 전221년 秦나라가 통일할 때까지의 시기를 ‘戰國時代’라고 한다(『史記』 권5 「秦本紀」: 199).

138) 西河郡: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魏나라에 설치되었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陝西省 동부 黃河 西岸 지역이다. 전330년에 秦나라에 병합되면서 폐지되었다가 前漢 元朔 4년(전125)에 다시 설치되었다. 治所는 平定縣(지금의 內蒙古自治區 伊金霍洛旗 동남)인데, 일설에는 治所가 富昌縣에 있었다고도 한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伊克昭盟 동부, 山西省 呂梁山·蘆芽山 이서, 石樓 이북과 陝西省 宜川의 黃河 연안 지대이다. 後漢時代에 治所를 離石縣(지금의 山西省 離石縣)으로 옮겼다.

139) 上郡: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魏 文侯가 설치했다. 秦代에는 治所가 肤施縣(지금의 陝西省 榆林市 동남 魚河堡 부근)이고 前漢시대 관할구역은 지금 陝西省 북부 와 內蒙古 烏審旗 등지였다. 後漢 建安 20년(215)에 폐지되었다.

140) 秦 惠王(재위 전337~전311): 惠文王이라고 하는데, 秦나라의 嬴駟를 가리킨다.

141) 『史記』 권5 「秦本紀」에는 이 사건을 秦 惠文王 初更 10년(전315)에 일어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史記』 권15 「六國年表」에는 이 사건을 惠文王 初更 11년(전314)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142) 『史記』에는 “擊”으로 되어 있다.

143) 秦 昭王(재위 전306~전251): 昭襄王 嬴稷(또는 則)을 말한다. 秦 武王의 배다른 동생이다(『史記』 권5 「秦本紀」: 209~218).

144) 宣太后: 昭王의 모친으로 楚나라 사람이었다. 姓은 芈이다(『史記』 권5 「秦本紀」: 209).

렸다.¹⁴⁶⁾ 이에 진(秦)나라가 농세[군](隴西),¹⁴⁷⁾ 북지[군](北地郡),¹⁴⁸⁾ 상군을 차지하게 되었고 장성까지 쌓아 흉노[胡]를 막았다. 그리고 조나라 무령왕(武靈王)¹⁴⁹⁾은 또한 풍속을 바꾸어 호복(胡服)¹⁵⁰⁾을 입고 말을 타며 활 쏘는 것을 익혀 북쪽으로 임호와 누번을 격파한¹⁵¹⁾ 다음 장성을 구축한 뒤 대(代)와 음산[산맥](陰山山脈)¹⁵²⁾ 기슭으로부터 고궐(高關)¹⁵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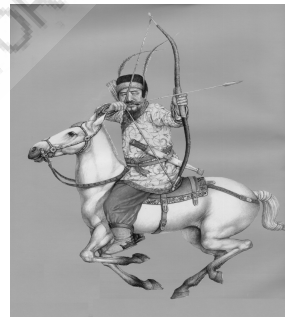
145) 甘泉宮: 秦나라가 세운 離宮의 명칭으로 陝西省 淳化縣 서북쪽에 위치하였다(주178) 참조.

146) 『史記』에는 “殘”으로 되어 있다.

147) 隴西郡: 郡의 명칭으로 戰國時代 秦나라 襄王 28년(전279)에 설치되었다. 治所는 赤道縣(지금 甘肅省 臨洮縣 남쪽)이다. 隴山의 서쪽이라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관할은 지금의 甘肅省 隴山 이서, 黃河 이동, 西漢水와 白龍峯 상류 이북, 祖歷河와 六盤山 이남의 땅이다. 後漢시대에는 점차 영역이 축소되었다.

148) 北地郡: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秦나라에서 설치하였다. 治所는 義渠縣(지금의 甘肅省 西峰市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西漢시대에는 治所를 馬領縣(지금의 甘肅省 慶陽縣 서북)으로 이전하였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甘肅省 環江, 馬蓮河 유역과 寧夏回族自治區 賀蘭山, 青銅峽, 山水河 동쪽이었다.

149) 趙 武靈王(재위 전325~전299): 이름은 趙雍이다. 戰國 중기에 강대해지기 시작한 秦나라가 遠交近攻策이라는 외교술을 통해 주변 나라들을 압박하자 趙나라가 이에 대응하였다. 趙나라의 원래 위치가 북방민족에 가까웠으므로 그들과 싸워 북방으로 국도를 확대시켜 갔고, 그들과의 교류 역시 빈번했다. 이런 과정에 武靈王은 군제를 개혁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19년(전307) 북방민족 고유의 ‘胡服騎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武靈王은 측근들의 반대를 물리치기 위해 본인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胡服으로 같이 입고 말을 타면서 활쏘기를 익혔다. 이것은 북방 유목민들의 탁월한 군사기술을 수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는 이런 새로운 군사기술의 도입을 기초로 발전을 도모하였고, 이후 秦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왕위를 惠文王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다음 스스로 主父라 불렀다. 그리고 군대를 지휘하여 인근 종족의 땅을 지나 秦나라를 공격하기도 했다(『史記』 권43 「趙世家」: 1803~1812).



〈武靈王의 胡服騎射 想像圖〉

150) 胡服: 말을 타기에 편한 질긴 바지와 버선 모양의 부츠형 신발, 그리고馬上에서 활쏘기에 편하게 웃고름이 왼쪽에 있는 저고리[左衽]를 말한다. 그에 비해 中國의 복장은 바지를 입지 않고 고름이 오른쪽에 있었다는 점[右衽]에서 달랐다(주38) 참조.

151) 趙 武靈王은 朔州 善陽縣 북쪽에 長城을 쌓았는데, 趙나라의 長城 축조는 趙 肅侯 17년(전332)에 이미 시작되었다(『史記』 권43 「趙世家」: 1802).

152) 陰山山脈: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중부에 위치한 산맥이다. 지금은 大青山이라 불리는데, 고비 남부에 있는 일련의 산지를 부르는 명칭이다. 이곳은 遊牧民들의 중요한 거점의 하나로 역할했고, 중국 역시 이 지역을 유목민족이 차지하고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吉田順一, 1980).

이르기까지 요새를 만들어 운중[군](雲中郡),¹⁵⁴⁾ 안문[군](雁門郡),¹⁵⁵⁾ 대군(代郡)¹⁵⁶⁾을 두었다. 그 이후에 연나라에는 진개(秦開)¹⁵⁷⁾라는 현명한 장군이 있어 흉노[胡]¹⁵⁸⁾에 불모가 된 적이 있었는데, 흉노[胡]가 [그를] 매우 믿었다. [진개는 그때에 정세를 잘 파악해 두었다가] 귀국하자마자 동호를 격파해 도망가게 만들었다. [동호는]¹⁵⁹⁾ 이때 천 리나 물러났다. 형가(荊軻)와 함께 진나라의 왕 정(政)을 암살하러 떠났던 진무양(秦舞陽)이 바로 [진]개의 손자였이다.¹⁶⁰⁾ 연나라는 또한 장성을 조양(造陽)¹⁶¹⁾에서 양평(襄平)까지¹⁶²⁾ 쌓았고, 상곡[군](上谷

153) 高關: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杭錦後旗 동북쪽에 위치한 험준한 산 계곡의 명칭이다. 陰山脈이 여기에서 중단되는데, 그 사이에 생긴 협곡이다. 그 입구가 마치 대궐문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이것은 원래 산의 명칭인데, 달리는 長城 이름이기도 하다.

154) 雲中郡: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趙 武靈王이 설치하였다. 秦나라 때의 治所는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托克托縣 東北 古城鄉 古城村 서쪽에 있는 古城이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內蒙古 土默特右旗 이동, 大青山 이남, 卓資縣 이서, 黃河 南岸과 長城 이북의 땅이었다. 前漢시기에 관할구역이 축소되어 後漢시대에는 并州에 속하게 되었다.

155) 雁門郡: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趙 武靈王이 설치하였다. 秦, 前漢 때의 治所는 善無縣(지금의 山西省 右玉縣 남쪽)이다. 관할구역은 山西省 河曲, 五寨, 靈武 등의 縣 이북, 恒山 이서. 內蒙古自治區 黃旗海, 岱海 이남의 땅이다. 後漢시대에는 治所를 陰館縣(지금의 山西省 朔州市 東南 夏關城)으로 옮겼다.

156) 代郡: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趙나라에서 설치하였다. 秦, 前漢 때의 治所는 代縣(지금의 河北省 蔚縣 서남)이었다. 前漢시대 관할구역은 지금의 河北省 懷安, 蔚縣 이서, 山西省 陽高, 渾源 이동에 있는 장성 안팎의 땅과 함께 장성 밖에 있는 東洋河 유역이었다. 後漢시대 高柳縣(지금의 陽高縣 서남)으로 治所를 옮겼다가 西晉時代 말에 폐지되었다.

157) 秦開: 燕 昭王(재위 전311~전279) 때의 사람이다. 동쪽으로 東胡를 격파하고, 朝鮮을 侵入하여 滿漢汗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158) “胡”는 원래 ‘北狄’의 총칭으로 사용되었는데, 저본에서는 匈奴를 지칭한다(주132) 참조.

159) 『史記』에는 “東胡”가 들어가 있다.

160) 荊軻: 衛나라 사람으로 秦나라가 衛나라를 멸한 후에 燕나라로 도피하였다. 전227년에 燕 太子 丹의 명을 받고 秦나라에 들어가 秦王 嬴政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살되었다. 秦舞陽은 그의 부하였다(『史記』 권86 「刺客列傳」: 2527~2528).

161) 造陽: 읍의 명칭으로 지금의 河北省 獨石口 부근이다. 일설에는 河北省 懷來縣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燕나라 長城의 서쪽 기점이라고 알려져 있다. 上谷과의 경계에 있다.

162) 襄平: 읍의 명칭으로 지금의 遼寧省 遼陽 북쪽 70리 정도 떨어진 곳이다. 燕나라 장성의 동쪽 기점이다. 현재의 赤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두 줄의 長城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장성은 赤峰 남쪽의 美麗河 공사에서 동서로 횡단하여 赤峰 북쪽에 있는 장성과 대체로 약 50km 거리를 두고 평행하게 존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昭盟 喀喇沁旗, 赤峰縣 남쪽, 建平縣 북쪽, 敖漢旗 중부에 분포되어 있으며 老哈河,

郡),¹⁶³ 어양[군](漁陽郡),¹⁶⁴ 우북평[군](右北平郡),¹⁶⁵ 요서[군](遼西郡),¹⁶⁶ [그리고] 요동군(遼東郡)¹⁶⁷을 설치해 흉노[胡]를 막았다. 이 무렵 의관(衣冠)과 속대(束帶)¹⁶⁸를 할 줄 아는 [예제(禮制)의 문명국이] 전국[시대]에 일곱[戰國七雄]¹⁶⁹이었는데, [그 중에서] 세 나라¹⁷⁰가 흉노와 경계를 맞대고 있었다. 그 이후 조나라 장군 이목(李牧)¹⁷¹이 [지키고 있는]

蹋河, 盟克河, 教來河 등을 통과한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魚骨盆, 明刀, 繩紋板瓦, 山字紋·獸紋 半瓦當 등의 출토를 통해 이 장성이 燕代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燕나라가 설치한 5군이 모두 이 장성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라 보았다. 遼東郡의 治所이다.

- 163) 上谷郡: 郡의 명칭으로 戰國時代 燕나라에서 설치하였다. 秦나라 때에는 治所가 沮陽縣(지금의 河北省 懷來縣 동남 20리 떨어진 廳水庫 남안에 있는 古城)에 있었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河北省 張家口市, 小五臺山 이동, 赤城縣, 北京市 延慶縣 이서, 內長城과 昌平縣 이북의 지역이었다.
- 164) 漁陽郡: 郡의 명칭으로 戰國時代의 燕나라에서 설치하였다. 秦나라 때의 治所는 漁陽郡인데, 지금의 위치를 대해서는 北京市 密雲縣 혹은 그 서남 懷柔縣 더욱 구체적으로 懷柔의 梨園莊으로 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河北省 灤河 상류 이남, 薊運河 이서, 天津市 海河 이북, 北京市 懷柔縣, 通縣 이동 지역이었다.
- 165) 右北平郡: 郡의 명칭으로 戰國時代 燕나라에서 설치하였다. 秦나라 때 治所는 無終縣(지금의 天津市 薊縣)이고, 前漢시대 治所를 平剛縣(지금의 遼寧省 凌源市 서남)으로 옮겼다. 하지만 燕代의 治所는 河北省 平泉, 遼寧省 凌源縣 安杖子村 古城, 內蒙古自治區 寧城縣 甸子鄉 黑城 古城, 寶坻 古城 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에 따르면, 黑城 내지는 寶坻 古城에서 燕나라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를 戰國時代, 그리고 후자를 말기의 治所로 보기도 한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河北省 承德, 天津市 薊縣 이동(長成 남부 灤河 유역과 그 이동은 제외), 六股河 이남 지역이다. 後漢시대에는 治所가 土垠縣(지금의 河北省 豐潤縣 동남)으로 옮겼다. 현재는 점차 영역이 축소되어 長城 이남으로 경계가 바뀌었다.
- 166) 遼西郡: 郡의 명칭으로 戰國時代 燕나라에서 설치했다. 秦나라 때 治所는 陽樂縣(지금의 遼寧省 義縣 서쪽)이었다. 前漢시대에는 柳城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을 遼寧省 朝陽市 十二臺營子 袁臺子 유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河北省 遷西縣, 唐山市 이동, 遼寧省 醫巫閭山, 大凌河 하류 이서와 長城 이남 지역이었다.
- 167) 遼東郡: 郡의 명칭으로 戰國時代 燕나라에서 설치했다. 治所는 襄平(지금의 遼寧省 丹東市 老城)이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遼寧省 大凌河 이동, 開原市 이남, 淸川江 하류 이북 지역이었다(주162) 참조.
- 168) 冠帶: 본래 帽子和 腰帶를 지칭하는 것으로 文明의 나라, 즉 中國을 지칭한다.
- 169) 戰國七雄은 秦, 楚, 齊, 燕, 韓, 魏, 趙나라를 말한다.
- 170) 세 나라는 燕나라, 趙나라, 秦나라를 말한다.
- 171) 李牧: 代郡과 雁門郡 등지에서 오랫동안 匈奴에 대비하여 趙나라의 변경을 수비하였다. 匈奴가 도발을 하자 군대를 일으켜 單于를 쫓아내고 東胡를 격파하고, 澹林을 없애고 匈奴를 물리쳤다. 그 이후 匈奴는 10여 년 이상 함부로 趙나라를 범하지 못하였다. 이후에 秦나라 군대를 대파하여 그 공으로 武安君에

시기에는 흉노가 감히 조나라의 변경을 넘볼 수가 없었다.

이후에 진(秦)나라가 여섯 나라를 멸망시키고 시황제(始皇帝)가 몽염(蒙恬)¹⁷²⁾에게 수십만의 군사¹⁷³⁾를 주어¹⁷⁴⁾ 북으로 흉노[胡]를 치게 해 하남(河南)¹⁷⁵⁾ 땅을 모조리 손에 넣었다. 황하를 이용해 요새를 만들고 황하를 따라 44개의 현에 성을 쌓고 죄수[군](適郡)¹⁷⁶⁾로 [구성된 군사를] 이주시켜 [방어에] 충당하게 했다. 그리고 직도(直道)를 통하게 해 구원[군](九原郡)¹⁷⁷⁾에서 운양[현](雲陽縣)¹⁷⁸⁾에 이르렀는데,¹⁷⁹⁾ 험준한 산의 능선을 국경으로 삼고 골짜기를 이용해 참호로 삼고 수선할 수 있는 것을 손보아¹⁸⁰⁾ 임조[현](臨洮縣)¹⁸¹⁾에서 요동[군]

봉해졌다. 전229년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史記』 권102 「張釋之馮唐列傳」: 2758).

172) 蒙恬: 秦나라의 장수로 始皇帝의 명을 받아 전221년에 匈奴를 북방으로 내쫓은 다음에 장성을 수축하는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이후에 2世 皇帝의 핍박을 받아 자살하였다(『史記』 권88 「蒙恬列傳」: 2565~2570).

173) 교감과정에서 物이 衆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는 ‘군사’로 번역했다.

174) 秦 始皇帝 32년(전215)에 北巡하던 始皇帝는 “亡秦者胡也”라는 盧生の 말을 듣고 匈奴를 막기 위해 蒙恬에게 명령하여 匈奴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가 인솔한 군대의 숫자를 저본에서는 “十萬”이라고 하였으나 『漢書』에는 “數十萬之物衆”이라고 되어 있다. 그와 달리 「蒙恬列傳」과 「秦始皇本紀」에서는 이것을 모두 “三十萬衆”이라고 다르게 기록했다. 『鹽鐵論』 「佚功篇」의 기록(“蒙公爲秦擊走匈奴, 若鷺鳥之追群雀. 匈奴勢懼, 不敢南面而望者十餘年.”: 316)에서도 “三十萬衆”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75) 河南: 지명으로 內蒙古 河套(오르도스), 즉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伊克昭盟 일대이다. 秦나라의 蒙恬이 匈奴를 몰아내고 黃河 이남의 땅을 회복한 다음에 성곽을 쌓고 백성을 이주시킨 다음에 이곳을 ‘新秦’이라고 했다. 漢 武帝시대에도 이곳을 ‘新秦中’이라 불렀다(주595) 참조).

176) 適: ‘謫’과 통해 ‘譴責’ 또는 ‘懲罰’을 뜻한다. ‘適戍’는 죄가 있어 변방을 지키는 벌을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177) 九原郡: 秦나라 때의 郡 명칭으로, 漢나라 시기에는 ‘五原’으로 바뀌었다.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包頭市 兩五原縣이다(주758) 참조).

178) 雲陽縣: 縣 명칭으로 지금의 陝西省 淳化縣 서북쪽이다. 이곳에는 秦나라 시기 林光宮, 漢나라 시기 甘泉宮이 있었다(주145) 참조).

179) 直道: 九原에서 雲陽까지 직선으로 북쪽으로 연결된 도로를 말한다. 秦 始皇帝 35년(전212)에 만들어졌는데 그 거리가 8,000여 리라고도 하고 달리 1800리라고도 한다. 秦 始皇帝의 운구가 이 길을 통해 咸陽으로 운반되기도 했다(來村多加史, 2004: 76~82).

180) 『史記』에는 “治”로 되어 있다.

181) 臨洮縣: 縣 명칭으로 지금의 甘肅省 岷縣이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12리 떨어진 곳에서 秦나라 장성이 시작되었다.

까지 만여 리에 이르렀다. 게다가 황하를 건너 양산(陽山)¹⁸²과 북가(北假)¹⁸³ 사이에 근거지를 두었다.

當是時，東胡強而月氏盛。匈奴單于曰頭曼，頭曼不勝秦，北徙。十有餘年而蒙恬死，諸侯畔秦，中國擾亂，諸秦所徙適邊者皆復去，於是匈奴得寬，復稍度河南與中國界於故塞。

그 무렵 동호가 강하고 월지(月氏)¹⁸⁴가 번성했다. 흉노의 선우(單于)¹⁸⁵를 두만(頭曼)¹⁸⁶이라 했는데, 두만은 진(秦)나라를 이겨 내지 못하고 북쪽으로 옮겨 갔다.¹⁸⁷ 십여 년이 지나 몽염이 죽고¹⁸⁸ 제후들이 나라를 배반하여¹⁸⁹ 중국 전체가 소란스럽게 되자 진나라가 강제로

182) 陽山: 산 명칭으로 河北과 高陝의 동쪽에 있는 산이다. 지금의 內蒙古自治區에 있는 狼山을 가리킨다.

183) 北假: 지명으로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河套(오르도스) 북쪽, 陽山 남쪽의 來山帶河 지역이다.

184) 月氏: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음은 월지로 ‘氏’는 ‘支’와 통한다. 지금의 甘肅省 서부와 青海省 경계지역에 살았다. 최근에 중국 학자들은 ‘yuezhi’가 아니라 ‘rouzhi’로 읽는 경향도 있다. 이것은 肉氏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설한 것에 의거한 것이나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다. 한편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禹氏駒駘”(『逸周書』), “禹氏之玉”(『管子』), “和氏之璧”(『淮南子』) 등에 나오는 “禹氏”와 “和氏”와 음이 비슷한 月氏가 춘추시대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桑原隲藏, 松田壽男, 江上波夫 등). 하지만 이것 역시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의 원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정설이 없으나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기초로 문화적인 면에서 기원전 4~3세기경 몽골 초원, 중국 서북에서 아무다리아 지역까지 퍼져 있었던 이란계통인 사카 유목민 집단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小穀伸男, 1999: 19~22). 이들은 기원전 3세기 匈奴의 등장과 함께 아무다리아 지역으로 이주해 그리스 계통 박트리아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大月氏를 건국했다. 이후 쿠산 왕조의 건국 세력과 연결되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185) 單于: 음은 선우이고 匈奴 君主의 칭호이다. 匈奴시대의 單于 이름의 교정과 계보에 대한 고증은 龔蔭의 연구(1999: 89~111)를 참조(주218) 참조).

186) 頭曼: 음은 ‘두만’이다. 투르크어 내지는 몽골어 ‘튀멘(tümen)’을 음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突厥帝國을 건설한 土門 역시 그와 동일한 음차이다. 그 의미는 만 명을 이끄는 大將 또는 酋長, 즉 萬騎長이다. 頭曼單于是 역사에 기록된 匈奴 최초의 君長으로, 초원에 있던 遊牧民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匈奴의 국가를 형성하였다.

187) 頭曼單于가 蒙恬에게 패해 北方으로 도망간 것은 秦 始皇帝 26년(전221)의 일이다(『史記』 권88 「蒙恬列傳」: 2569)(주172) 참조).

188) 蒙恬이 죽은 것은 秦始皇 37년(전210)의 일이다.

변경에 이주시킨 여러 유형수들이¹⁹⁰⁾ 모두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 [이에] 흉노가 여유를 얻어 다시 조금씩 황하[를 건너] 남쪽[河南]¹⁹¹⁾으로 중국과 이전의 요새로 경계를 삼게 되었다.

單于有太子，名曰冒頓。後有愛閼氏，生少子，頭曼欲廢冒頓而立少子，乃使冒頓質月氏。冒頓既質，而頭曼急擊月氏。月氏欲殺冒頓，冒頓盜其善馬，騎亡歸。頭曼以爲壯，令將萬騎。冒頓乃作鳴鏑，習勒其騎射，令：「鳴鏑所射而不悉射者斬。」行獵獸，有不射鳴鏑所射輒斬之。已而，冒頓以鳴鏑自射善馬，左右或莫敢射，冒頓立斬之。居頃之，復以鳴鏑自射其愛妻，左右或頗恐，不敢射，復斬之。頃之，冒頓出獵，以鳴鏑射單于善馬，左右皆射之。於是冒頓知其左右可用，從其父單于頭曼獵，以鳴鏑射頭曼，其左右皆隨鳴鏑而射殺頭曼，盡誅其後母與弟及大臣不聽從者。於是冒頓自立爲單于。

[두만]선우¹⁹²⁾에게는 태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목특(冒頓)¹⁹³⁾이라고 하였다. 그 이후에 [선우가] 총애하는 연지(閼氏)¹⁹⁴⁾가 막내 아들을 낳자 두만 [선우]는¹⁹⁵⁾ 목특 [태자]을

189) 畔: ‘叛’과 통하는데, “배반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鹽鐵論』 권45 「伐功篇」 “乃其後，蒙公死，而諸侯叛秦，中國擾亂，匈奴乃敢復爲邊寇.”: 316).

190) 『史記』에는 “適戍邊者”로 되어 있다.

191) 河南: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볼 경우 지역 명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주175) 참조). 하지만 ‘河’를 ‘黃河’로 보고 그곳을 끊은 다음 ‘南’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보다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192) 頭曼單于를 지칭한다.

193) 冒頓(재위 전209~전174): 음은 목특 또는 목돌 등으로 읽기도 하는데, 목특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冒頓의 의미는 투르크 또는 몽골어로 영웅을 지칭하는 바가투르(baghatur) 내지는 몽골어의 神聖을 지칭하는 보구드(boghud)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는 전209년에 아버지인 匈奴의 초대 頭曼單于를 살해하고 스스로 單于가 되었다. 이후 내정을 갖춘 다음 東胡와 月氏 등 인근 부족을 격파하고 오르도스의 樓煩과 白羊 등을 병합하였다. 그리고 秦나라가 확보했던 河南 지역을 다시 차지하는 등 세력을 크게 발전시켰다. 나아가 북방의 예니세이 강 상류의 丁零과 서북방의 堅昆 등도 복속시켰다. 이를 통해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거대한 유목제국을 건설했다. 漢나라와 싸워 이긴 이후에 화친을 통해 더욱 세력을 확대하는 등 匈奴帝國의 성립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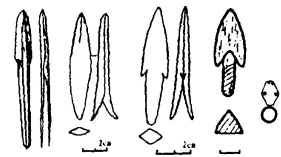
194) 閼氏: 음은 연지(煙肢)와 알지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匈奴 군주의 妃(또는 妻)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기

폐하고 막내 아들을 태자로 세우려고 목특을 월지(月氏)에 불모로 보냈다. 목특이 월지에서 불모로 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두만[선우]가 갑자기 월지를 공격했다.¹⁹⁶⁾ [이에] 월지가 목특을 죽이려고 하자 목특이 [월지의] 좋은 말을 훔쳐 타고 [본국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두만은 [자신의 계획은 어긋났지만] 아들 목특의 [용기를] 장하게 여겨 만 기(騎)를 거느리게 했다. 목특은 이에 소리나는 화살[鳴鏑]¹⁹⁷⁾을 만들고 부하들에게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연습을 시키면서¹⁹⁸⁾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내가] 소리나는 화살을 쏜 곳에 [너희들이] 모두 쏘지 않으면 베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정말] 짐승을 사냥하러 나가서 소리나는 화살을 쏜 곳에 쏘지 않는 자가 있자 바로 베어 버렸다. 얼마 후에 목특이 소리나는 화살로 스스로 [자신의] 좋은 말(善馬)을 쏘았는데, 좌우에서 감히 쏘지 못하는 자가 있자 목특이 바로 좋은 말을 쏘지 못한 자들을 베어 버렸다. 다시 얼마 지난 후 [목특이] 소리나는 화살로

도 하고 皇后로 번역되기도 한다. 關氏의 음에 대해 먼저 北宋代에 편찬된 『大宋重修廣韻』에 의거해 ‘關’의 古代 漢語음이 燕, 蓮, 湮, 鄴, 焉과 같이 ‘연’으로, 匈奴의 부인들이 식물에서 추출해서 얼굴에 발랐다는 焉支(연지)와 같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調’과 같이 ‘알’이라는 설, 그리고 歇, 羯 등 여러 어음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근거는 古代~現代 한국어의 음으로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 〈始祖條〉에 보이는 “關川 楊山村”, “關英” 및 『三國史記』 권2 「新羅本紀」 〈味鄒尼師今條〉에 보이는 “關智”에서의 ‘關’의 음이 ‘알’이기 때문이다(李丙燾, 1977; 李基東, 1982). 한편 關氏의 漢語 古음을 ‘앗시(atsi)’로 보고 이것이 통구스어와 몽골어의 ‘아시(asi)’ 또는 ‘아쉬(aši)’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면서 關氏 즉 匈奴語 ‘아시(asi)’는 통구스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關’의 한국어 음은 ‘알(al)’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다(徐復, 1983: 222-226). 여기에서는 顏師古의 주석에 의거해 “연지”로 읽었다. 195) 『史記』에는 “頭曼”이 아니라 “單于”로 되어 있다.

196) 匈奴가 月氏를 공격한 시기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蒙恬이 장성을 축조하고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匈奴가 중국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못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추정된다. 대략 秦 始皇帝 30년(전217)경이다.

197) 鳴鏑: 쏘면 날아가면서 소리를 내는 화살로 ‘嚆矢’라고도 한다. 원래 嚆矢나 鳴鏑은 공격 시작을 알리는 신호용으로 사용하던 화살인데, ‘어떤 사건의 시작이나 기원’을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쉬이익’하고 鳴鏑 소리가 나면 이어서 수십, 수백 발의 화살이 뒤따르기 때문에 鳴鏑은 적에게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 鳴鏑의 실물을 보면 화살촉 중간 부분에 동그란 방울처럼 생긴 부분이 있다. 그 속이 비어 있고 구멍이 1~6개 정도 뚫려 있어 비행 중에 호루라기처럼 소리를 내게 된다. 재질은 뿔나 청동제가 많고 철제는 흔하지 않다.



〈匈奴時代 화살촉과 鳴鏑〉

198) 그 예하 부락의 모든 백성들이 騎馬를 부리고 활을 익혔다는 의미이다.

스스로 아끼던 처를 쏘았는데, 좌우에서 몹시 두려워하여 감히 쏘지 못하자 [목특이] 다시 베어 버렸다. [또] 얼마 뒤에 목특이 사냥하러 나갔는데, 소리나는 화살로 [두만]선우의 좋은 말을 쏘니 좌우의 부하들이 모두 쏘았다. 이에 목특이 그의 좌우 [부하가] 쓸 만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아버지 선우 두만을 따라 사냥을 나가 [목특이] 소리나는 화살로 두만을 쏘자 그의 좌우 [부하들이] 모두 소리나는 화살을 따라 화살을 쏘아 선우 두만을 죽였다. 마침내 [목특은] 그의 계모와 동생들,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는 대신들을 모조리 베어 버렸다. 이에 목특이 스스로 선우가 되었다.¹⁹⁹⁾

冒頓既立，時東胡強，聞冒頓殺父自立，乃使使謂冒頓：「欲得頭曼時號千里馬。」冒頓問群臣，群臣皆：「此匈奴寶馬也，勿予。」冒頓：「奈何與人鄰國愛一馬乎？」遂與之。頃之，東胡以爲冒頓畏之，使使謂冒頓：「欲得單于一閼氏。」冒頓復問左右，左右皆怒：「東胡無道，乃求閼氏！請擊之。」冒頓：「奈何與人鄰國愛一女子乎？」遂取所愛閼氏予東胡。東胡王愈驕，西侵。與匈奴中間有棄地莫居千餘里，各居其邊爲甌脫。東胡使使謂冒頓：「匈奴所與我界甌脫外棄地，匈奴不能至也，吾欲有之。」冒頓問群臣，或：「此棄地，予之。」於是冒頓大怒，：「地者，國之本也，奈何予人！」諸言與者，皆斬之。冒頓上馬，令國中有後者斬，遂東襲擊東胡。東胡初輕冒頓，不爲備。及冒頓以兵至，大破滅東胡王，虜其民衆畜產。既歸，西擊走月氏，南并樓煩·白羊河南王，悉復收秦所使蒙恬所奪匈奴地者，與漢關故河南塞，至朝那·膚施，遂侵燕·代。是時漢方與項羽相距，中國罷於兵革，以故冒頓得自強，控弦之士三十餘萬。

목특이 즉위하니 이때 [이웃의] 동호가 강성하여 목특이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 [선우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목특에게 사자를 보내 말하였다. “생전에 두만선우의 천리마(千里馬)를 얻고 싶소.” 목특이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여러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이는 흉노의 보배로운 말입니다. 주지 마십시오.” 목특은 “내가 어찌 이웃 나라끼리 한 마리의 말을 아까워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어 버렸다. 얼마 후 동호는 목특이 [자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목특에서 [다시] 사자를 보내 선우의 연지 한 명을 달라고 말했다. 목특이 다시 좌우에

199) 冒頓單于가 자립을 한 것은 秦 2世 皇帝 元年(전209)의 일이다.

게 [그 여부를] 물으니 좌우가 모두 화를 내면서 대답했다. “동호는 무례 무도하게 연지를 달라고 하니 그들을 치기를 바라옵니다.” 목특은 “내가 어찌 이웃 나라끼리 여자 하나 주는 것을 아까워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가 아끼던 연지를 골라 동호에 보내 주었다. 동호의 왕은 더욱 교만해져 서쪽을 쳤다. [동호와] 흉노의 사이에는 버려진 땅에²⁰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천여 리에 이르렀고 [양국은] 각각 불모의 사막에 망을 보는 시설[甌脫]²⁰¹⁾을 만들어 살고 있었다. 동호는 사신을 목특에게 보내 말하였다. “흉노와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망을 보는 시설과 불모의 사막은 흉노가 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내가 갖고 싶소.” 목특이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여러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버려진 땅이니 주십시오.”²⁰²⁾ 이에 목특은 크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땅이란 나라의 근본인데 어찌 줄 수 있단 말인가!” [땅을] 주자고 말한 여러 명을 모두 목 베었다. [바로] 목특은 말에 올라타 백성들에게 뒤늦게 출진하는 자도 배어 버리겠다고 명령했다. 마침내 [흉노가] 동으로 동호를 습격했다. 동호는 처음에 흉노를 가볍게 보고 방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목특이 군대를 이끌고 [동호 땅에] 도착해 공격하니 동호의 왕이 크게 패해 망했고 [목특은] 그 백성[民衆]²⁰³⁾과 가축 등을 [전리품으로] 빼앗았다.²⁰⁴⁾ 돌아와 서쪽으로 율지를 격파해 [도망]가게 하고,²⁰⁵⁾ 남으로 누번, 백양(白羊)²⁰⁶⁾ 하남왕²⁰⁷⁾의 [땅을] 병합했다.²⁰⁸⁾ 마침내 다시 진나라 몽염이 탈취해 간 흉노의

200) 『史記』에는 “與匈奴間，中有弃地。”로 표현이 조금 다르다. 여기에서 ‘棄地’는 고비[沙漠]를 말한다.

201) 甌脫: 흙집을 지어 살피는 곳으로, 경계 지역에서 망을 보기 위한 시설이다.

202) 『史記』에는 “予之”가 “予之亦可，勿予亦可.”로 되어 있다.

203) 『史記』에는 “民人”으로 되어 있다.

204) 冒頓이 東胡를 격파한 것은 漢 高祖 元年, 冒頓單于 4년(전206)의 일이다. 東胡는 冒頓에게 격파된 이후에 나머지 무리가 烏桓山으로 물러나 살았는데, 그래서 烏桓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들의 세력이 고립되어 약했기 때문에 匈奴에게 신속하여 매년 소, 말, 양의 가죽을 바쳤다(『後漢書』「烏桓傳」: 2981. “東胡自爲冒頓所破，餘衆退保烏桓山者號烏桓，勢力孤弱，臣服於匈奴，歲輸牛·馬·羊皮.”).

205) 匈奴가 月氏를 격파한 시기는 기원전 3세기 말로 전204~전203년 전후이다.

206) 白羊: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匈奴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이들이 河南(河套 이남) 지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

207) 樓煩과 白羊의 두 왕이 사는 곳이 河南에 있었다(주122) 참조).

208) 樓煩은 冒頓單于가 月氏를 공격하기 이전에 河南에 옮겨와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匈奴의 공격을 받고 그에 복속되었다. 이런 상황은 『漢書』의 “敬從匈奴來，因言匈奴河南白羊·樓煩王”과 같은 기록(권43 「酈陸朱劉叔孫傳」: 212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南并樓煩，白羊王”이라고 하면

땅을 모두 거두어들였다. 한나라와 과거 하남의 장성선에 관문을 두고 조나[현](朝那縣),²⁰⁹⁾ 부시[현](膚施縣)²¹⁰⁾까지 진출하고 마침내 연과 대(代)까지 침입해 들어갔다. 이때 한나라는²¹¹⁾ 바야흐로 항우(項羽)²¹²⁾와 대치하여 싸우느라고²¹³⁾ 전쟁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목록은 스스로 강하게 되어 활을 쏘는 병사[弓士]²¹⁴⁾가 30여 만이라고 했다.

自淳維以至頭曼千有餘歲，時大時小，別散分離，尚矣，其世傳不可得而次云。然至冒頓而匈奴最彊大，盡服從北夷，而南與中國爲敵國，其世(信)[姓]官號乃可得而記云。

순유에서 두만까지 천여 년 동안 [흉노는] 때로 컸다가 때로 작아지기도 했으며 [그들끼리] 달리 흩어지고 나뉘어 갈라선 것이 오래 되어 그들이 대대로 전해 온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목록에 이르러 흉노가 가장 강대하게 되어 북방 오랑캐(北夷)²¹⁵⁾를 모두 복종시키고 남으로는 중국[諸夏]²¹⁶⁾과 대적하는 나라가 되니, [이때에서야] 그들이 대대로 [전한 나라의] 성과 관직 명칭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²¹⁷⁾

되기 때문에 “河南”은 쓸데없이 덧붙은 것이다.

209) 朝那縣: 縣 명칭으로 지금의 寧夏回族自治區 固原縣 동남쪽이다.

210) 膚施: 명칭으로 지금의 陝西省 榆林縣 동남쪽이다.

211) 『史記』에는 “漢兵”으로 되어 있다.

212) 項羽: 이름이籍이고 자가羽이다. 江蘇省 臨淮郡 下相縣 출신이다. 秦 2世 皇帝 1년(전209) 陳勝·吳廣의 난으로 秦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숙부 項梁과 함께 봉기했다. 會稽郡 太守를 참살하고 印綬를 빼앗았다. 그리고 秦나라 군대를 도처에서 무찌르고, 드디어 函谷關을 넘어 關中으로 들어갔다. 이어 앞서 들어와 있던 劉邦과 鴻門에서 만나 이를 복속시켰다. 그 이후 秦王 子嬰을 죽이고 咸陽을 불사른 뒤에 彭城(徐州)에 도읍해 西楚의 霸王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각지에 봉한 諸侯를 통솔하지 못하여 垓下에서 漢王 劉邦에게 포위되어 자살하였다(『史記』 권7 「項羽本紀」: 297~339).

213) 楚나라와 漢나라가 서로 대결을 벌인 것은 전206년부터 전202년까지이다.

214) 控: 당기다는 의미로, 控弦은 활을 쏠 수 있는 사람 즉, 弓士를 의미한다

215) 北夷: 渾庾, 屈射, 丁零, 鬲昆, 薪犁 등의 종족을 말한다(『漢書』 권110 「匈奴傳」: 2293).

216) 『史記』에는 “中國”으로 되어 있다.

217) 『史記』에는 “其世傳國官號乃可得而記云”으로 되어 있다.

單于姓攣鞬氏，其國稱之曰「撐犁孤塗單于」。匈奴謂天爲「撐犁」，謂子爲「孤塗」，單于者，廣大之貌也，言其象天單于然也。置左右賢王，左右谷蠡，左右大將，左右大都尉，左右大當戶，左右骨都侯。匈奴謂賢曰「屠耆」，故常以太子爲左屠耆王。自左右賢王以下至當戶，大者萬餘騎，小者數千，凡二十四長，立號曰「萬騎」。其大臣皆世官。呼衍氏，蘭氏，其後有須卜氏，此三姓，其貴種也。諸左王將居東方，直上谷以東，接穢貉·朝鮮；右王將居西方，直上郡以西，接氐·羌；而單于庭直代·雲中。各有分地，逐水草移徙。而左右賢王·左右谷蠡最大國，左右骨都侯輔政。諸二十四長，亦各自置千長·百長·什長·裨小王·相·都尉·當戶·且渠之屬。

선우의 성은 연제씨(攣鞬氏)인데, 그 나라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텡그리 쿠트선우[撐犁孤塗單于]”²¹⁸⁾라고 한다. 흉노에서는 하늘을 “텡그리[撐犁]”라고 하고, 아들을 “쿠트[孤塗]”라고 한다. 선우란 넓고 큰 모습이고, 그 모습은 하늘같이 넓고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선우 밑에는] 좌현왕(左賢王), 우현왕(右賢王), 좌록리왕(左谷蠡王),²¹⁹⁾ 우록리왕(右谷蠡王), 좌대장(左大將), 우대장(右大將), 좌대도위(左大都尉), 우대도위(右大都尉), 좌대당호(左大當

218) 撐犁孤塗單于 : ‘撐犁’는 텡그리(tengri) 즉, 하늘(天 또는 神)을 의미하고, 孤塗가 퉁구스어에서 아들을 의미하는 ‘코토(koto)’와 대비하여 撐犁孤塗를 中國의 天子와 같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中國의 인 개념과 대응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와 달리 ‘孤塗’를 투르크어의 쿠트(qut) 즉, 祝福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여 單于의 앞에 붙여 그를 수식하는 말로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은 군주’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孤塗를 아들로 해석하는 설명보다는 축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점에서 후자로 해석했다.

『史記』에는 單于에 대한 설명인 “單于姓攣鞬氏，其國稱之曰‘撐犁孤塗單于’。匈奴謂天爲‘撐犁’，謂子爲‘孤塗’，單于者，廣大之貌也，言其象天單于然也。” 부분이 없다(주185) 참조).

219) 谷蠡王: 음은 록리왕이다. ‘谷蠡’의 발음은 ‘luk-li’ 즉 ‘록리’이다.

저본에서 나열하고 있는 左賢王, 右賢王, 左谷蠡王, 右谷蠡王 등의 관칭은 地方에서 군사와 행정을 관리하는 최고 관리들의 명칭이다. 이들은 각기 單于로부터 分封을 받아 각자의 영지를 갖고 있었다. 左部는 東部는, 右部를 西部에 위치하고 있었다. 匈奴의 통치체제는 동남부에는 左賢王, 동북부에는 左谷蠡王, 서남부에는 右賢王, 서북부에는 右谷蠡王이 중앙부의 單于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통치하는 5부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로 單于의 子弟들, 즉 왕족들이 담당했다. 賢王 아래에 谷蠡王이 자리했다. 특히 左賢王은 차기 單于를 계승할 사람인 太子가 담당했는데, ‘左屠耆王’이라고도 불리었다.

戶), 우대당호(右大當戶), 좌골도후(左骨都侯), 우골도후(右骨都侯)를 두었다.²²⁰⁾ 흉노에서는 ‘어질다[賢]’는 [말을] 도기(屠耆)라고 했기 때문에 늘 태자를 좌도기왕(左屠耆王)이라고도 불렀다. 또 좌현왕과 우현왕 이하 당호에 이르기까지 크게는 만여 기(騎) 작계는 수천 기를 거느렸는데, 대체로 24인의 장들이 있었고²²¹⁾ [이들을] 만기(萬騎)라 불렀다. 여러 대신들은 모두 세습하는 관직이었다. 호연씨(呼衍氏), 난씨(蘭氏), 그 다음에 수복씨(須卜氏)가 있었는데,²²²⁾ 이 세 가지의 성이 가장 귀하였다. 여러 명의 왼쪽(左) [방향의] 왕이나 장군들은 동방에 위치하며 상곡[군]의 동쪽을 담당하였고, 예맥(穢貉),²²³⁾ 조선(朝鮮)²²⁴⁾과 접해 있었

220) 左大將, 右大將, 左大都尉, 右大都尉, 左大當戶, 右大當戶, 左骨都侯, 右骨都侯 등은 모두 匈奴의 官稱이다. 이들은 單于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관직을 나열한 것이다. 그중에서 骨都侯는 單于의 일족인 攣鞮氏가 아닌 여타 異姓들이 담당했다. 즉 呼衍氏·蘭氏·須卜氏 등이 담당했는데, 呼衍氏는 左에 蘭氏·須卜氏는 右에 자리했다.

221) 萬騎를 이끄는 長이 24라고 한 기록에 대해서는 이와 동일한 『史記』의 기록과 그 이후 匈奴의 변화를 기록한 『後漢書』 권89 「南匈奴傳」의 내용을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後漢書』에서는 위와 달리 “其大臣貴者左賢王, 次左谷蠡王, 次右賢王, 次右谷蠡王, 謂之四角; 次左右日逐王, 次左右溫禺鞮王, 次左右漸將王, 是爲六角; 皆單于子弟, 次第當爲單于者也. 異姓大臣左右骨都侯, 次左右日逐骨都侯, 其餘日逐·且渠·當戶諸官號, 各以權力優劣·部衆多少爲高下次第焉.”이라고 四角, 六角, 異姓大臣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匈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지배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했다(護雅夫, 1970: 362; 李春梅, 2006: 51). 1950년 처음 護雅夫의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한 반론으로 프리츨(Pritsak)은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ritsak, 1954: 178~202). 이에 대해 山田信夫는 24長을 左右賢王과 左右谷蠡王 및 左右骨都侯가 담당하는 지위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大將, 大都尉, 大當戶가 그에 소속된 것이라고 설명해 그 실태를 해명하였다(山田信夫, 1989: 31~46). 하지만 그는 左賢王, 左谷蠡王, 右賢王, 右谷蠡王 즉, 四角이라 칭해진 것을 상급지휘관, 左右大將, 大都尉, 大當戶 등을 중급지휘관으로 분류했다. 이것은 그들이 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單于를 배출하는 攣鞮氏였다는 점에서 姻戚氏族인 骨都侯의 지휘하에 조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4長이라고 기록된 것이 그 앞에 나열된 左賢王 이하의 관직과 그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요한 관직만을 나열한 것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다(사와다, 2006: 158).

222) 呼衍氏, 蘭氏, 須卜氏는 單于를 배출하는 씨족 이외에 匈奴의 지배층을 형성하는 핵심 씨족들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顏師古가 呼衍이 鮮卑族에 있는 呼延과 같은 성씨이고 蘭氏 역시 蘭姓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유력 씨족들은 單于를 배출하는 씨족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須卜氏의 경우에는 주로 訟事를 담당하였다고 한다(주220 참조).

223) 穢貉: 고대 중국 명칭으로 東北 邊方の 韓半島 북부에 거주하였다.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詩經』, 『論語』, 『中庸』, 『孟子』 등에는 “貉”으로, 『史記』에는 “穢貉”으로 기록되어 있다. ‘穢’의 원주지에 대한

다. 오른쪽(右) [방향의]²²⁵⁾ 왕이나 장군들은 서방에 위치하며 상군의 서쪽을 담당하였고, [월지],²²⁶⁾ 저(氏),²²⁷⁾ 강(羌)²²⁸⁾과 접해 있었다. 선우정(單于庭)²²⁹⁾은 대[군], 운중[군]과 마

명확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三國志』의 高句麗 관련 기록에 따르면, 大水(漢代에 鹽難水라고 하였던 鴨綠江) 유역에 거주한 부락과 小水(漢代에 馬訾水라고 하였던 渾江) 유역에 거주한 2개의 부락이 있어 각기 首長을 추대하고 있었다. 漢人들이 小水 지역에서 거주한 부락을 小水貊이라 칭하였다. 또한 『漢書』 권6 「武帝紀」와 『後漢書』 권85 「東夷傳」〈濊〉에 보면 전128년 穢의 君長인 南閭가 朝鮮王 右渠와의 관계를 끊고 그가 지배하던 인구 28만을 이끌고 漢의 遼東郡에 가서 內屬을 청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초기에 肅慎과 東胡 사이에 끼어 松花江과 黑龍江, 鴨綠江, 豆滿江 유역 및 한반도 북부지역인 함경도와 강원도 등지에 걸쳐 살고 있었다. 그 갈래가 남부로 이주하여 百濟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종족적으로는 알타이어계 통구스에 속하는 한 갈래로 농경문화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발전해 韓民族의 주류를 형성하였다(주133) 참조).

224) 朝鮮: 遼河 유역에서 韓半島 서북지방에 걸쳐 성장한 여러 지역집단을 통칭한다. 檀君神話의 기록에 따르면 전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하나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된 것은 기원전 7세기 초이다. 朝鮮은 戰國時代에 들어와 周나라가 쇠퇴하자 각 지역의 諸侯들이 왕이라 칭할 때 인접국인 燕나라와 동시에 왕을 칭하면서 발전하였다. 朝鮮은 기원전 4세기 무렵 燕나라와 대립하였다. 또, 당시 중국에서 교만하고 잔인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朝鮮은 기원전 3세기 후반부터 燕나라가 동방으로 진출하면서 밀리기 시작하였다. 燕나라의 장수 秦開가 遼河 상류에 근거를 둔 東胡를 원정한 다음 朝鮮 영역 내로 쳐들어와 遼河 동쪽에 遼東郡을 설치하고 障塞를 쌓았다. 그 결과 朝鮮은 서방 2천여 리의 땅을 상실하였다. 그 뒤 秦나라가 燕나라를 멸망시키고(전222) 遼東郡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자 朝鮮의 否王은 秦나라의 공격이 두려워 복속할 것을 청하나 직접 朝會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否王이 죽고 아들 準王이 즉위할 무렵 전202년 漢나라가 中國을 통일하였다. 漢나라는 秦나라와 같이 동방진출을 적극 피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燕나라가 쌓은 牆塞만을 수축하고 朝鮮과의 경계를 溟水로 재조정하였다. 전195년 燕王 盧綰이 漢나라에 반기를 들고 匈奴로 망명한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朝鮮으로 망명하였다. 이들 가운데 衛滿이 무리 약 천 명을 이끌고 朝鮮으로 들어왔다. 準王은 그를 신임하여 博士라는 관직을 주고 서쪽 백 리 땅을 통치하게 하는 한편, 변방의 수비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衛滿은 전194년 중국 군대가 침입하여 온다는 구실을 허위로 내세우고 수도인 王儉城에 입성하여 準王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로부터 일반적으로 衛滿朝鮮이라고 부른다. 그 이전의 시대를 衛滿朝鮮이나 李氏朝鮮과 구분하기 위해 古朝鮮이라고 칭하였다(『漢書』 권95 「朝鮮傳」)(주 663) 참조).

225) 『史記』에는 “右方”으로 되어 있다.

226) 『史記』에는 “月氏”가 있는데, 『저본』에는 없어 보충했다.

227) 氏: 고대 종족의 하나로 羌과 원류가 같은 종족 또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두 종족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氏의 언어는 고대의 羌, 雜胡의 언어와 비슷하였고, 漢語도 상당부분 섞여 있다. 氏는 羊을 토켄으로 하는 羌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 발상지는 지금의 甘肅省 남부인 武都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華夏와 가까운 관계로 氏는 과거에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하였다. 殷墟 甲骨文에도

주하고 있었다. 각각의 영역[分地]이 있었으며 [그 범위 안에서]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좌현왕과 우현왕, 그리고 좌록리왕과 우록리왕의 영역이 가장 컸다. 좌골도후와 우골도후가 선우의 정치를 보좌했다. 여러 24명의 장들은 각자 천장(千長), 백장(百長), 십장(十長),²³⁰⁾ 비소왕(裨小王),²³¹⁾ 상(相),²³²⁾ 도위(都尉), 당호(當戶),²³³⁾ 저거(且渠)²³⁴⁾ 등의 속관을 두었다.

氐라는 글자가 나타나는데, 주로 征伐의 뜻으로 통용되었다. 이를 통해 商나라와 氐 사이에 정복전쟁이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史記』 「西南夷列傳」에 보면 “冉과 駟으로부터 동북쪽으로 군장이 열을 헤아리는데 白馬가 가장 크며, 모두 氐시의 부류이다.”라고 하였다. 『魏略』 「西戎傳」에도 “氐에는 임금이 있다.”고 했으며, 또한 “여러 부족에는 왕후가 있으며 중국의 책봉을 받는다”고 하였다.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氐의 왕을 멸하고 罽·방의 땅을 개산군으로 하였으며 광한군 서부와 백마 氐의 땅을 武都郡으로 하였다.”고 한다. 바로 이곳이 氐가 주로 사는 거주지였다. 漢 武帝 元封 8년(전108)에 氐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당하였고 일부가 酒泉으로 이주되었다(馬長壽(b), 2006).

228) 羌: 서북지역의 오래된 종족 중의 하나이다. 주로 양을 기르기 때문에 양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羌’이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商代부터 보인다. 甲骨文에서는 ‘羌方’이라 불렀다. 이때에 두 개의 큰 부락이 있어 北羌과 馬羌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오늘날의 陝西省 서부와 甘肅省 동부, 남부에 주로 거주하였다. 『詩經』 「商頌」에 보면 商 건국 시조인 成湯시절에 먼 곳에 사는 氐, 羌이 굴복하여 왔다고 칭송하는 노래를 지었다. 商 말기에 周가 周原에서 일어나 발전할 때 羌은 그에 붙어 武王이 商나라를 공격할 때 군사를 보내 회맹에 참가하였다. 春秋時代에 秦나라가 陝西, 甘肅에서 발전하자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부터 羌은 자체적으로 발전하여 越雋羌, 廣漢羌, 武都羌 등으로 불렸다. 秦나라 孝公시기에 羌은 秦나라의 위협에 굴복하였고, 秦始皇이 6국을 통일하고 蒙恬이 匈奴를 공격하고 서쪽의 여러 戎族을 압박하자 羌은 동진할 수밖에 없었다. 漢나라 초기에 匈奴의 冒頓單于가 西域을 압박하자 羌은 匈奴에 귀부하고 漢나라의 서쪽을 공격하였다. 漢나라 초기부터 甘肅, 青海지역의 羌은 東進을 시작해 景帝시기에 隴西에 이르렀고, 武帝시기에 다시 밀려났다가 匈奴와 연합하여 河西지역을 공략하기도 했다(馬長壽(b), 2006).

229) 單于庭: 王庭(오르두)으로 單于가 머무르면서 정사를 행하던 곳이다. 匈奴 單于庭의 위치에 대해서는 주237)의 설명을 참조.

230) 遊牧民들의 군사조직은 십진법 단위로 이루어져 있었다. 匈奴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遊牧帝國에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 효시가 匈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1) 裨小王: 匈奴의 관칭으로 漢의 裨將과 같다(『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漢輕騎校尉郭成等逐數百里, 不及, 得右賢裨王十餘人.”: 2925).

232) 相: 『史記』에는 相封으로 되어 있다. 相封은 원래 相邦인데, 漢 高祖 劉邦의 이름을 피해 바꿨다고 한다. “封”은 ‘將’과 서로 통한다.

233) 當戶: 匈奴의 관칭으로 諸王이나 大臣들이 스스로 둔 속관이었다.

歲正月，諸長小會單于庭，祠。五月，大會龍城，祭其先·天地·鬼神。秋，馬肥，大會蹏林，課校人畜計。其法，拔刃尺者死，坐盜者沒入其家；有罪，小者輒，大者死。獄久者不滿十日，一國之囚不過數人。而單于朝出營，拜日之始生，夕拜月。其坐，長左而北向。日上戊己。其送死，有棺槨金銀衣裳，而無封樹喪服；近幸臣妾從死者，多至數十百人。舉事常隨月，盛壯以攻戰，月虧則退兵。其攻戰，斬首虜賜一卮酒，而所得鹵獲因以予之，得人以為奴婢。故其戰，人人自為趨利，善為誘兵以包敵。故其逐利，如鳥之集；其困敗，瓦解雲散矣。戰而扶輿死者，盡得死者家財。

매년 정월에는 여러 장²³⁵⁾들이 선우정에서 작은 모임[小會]을 갖고 제사를 지냈다.²³⁶⁾ 오월에는 용성(龍城)²³⁷⁾에서 큰 모임[大會]을 갖고 그들의 조상, 하늘과 땅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

234) 지금沮渠라는 姓은 모두 이 관리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235) 諸長: 左賢王 이하 24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주221) 참조).

236) 겨울철에 모임을 갖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모피 내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사냥 모임이란 이유 이외에 달리 까닭을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초원의 겨울은 길고 추위 모임을 갖기 좋은 계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正月에 單于庭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匈奴 고유의 것이 아니라 中國의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또는 이 집회의 성격이 원래 單于의 일족인 攣鞮氏 또는 그 씨족의 祭儀였으나 국가 성립 이후 匈奴의 장들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성격으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江上波夫, 1948: 250~252). 한편, 겨울철의 大狩獵祭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으로 보아 祭天의 의미보다는 部族 이나 국가의 통합을 위한 동맹의 확인 또는 충성의 상징을 보이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집단 물이사냥을 통한 군사적 의미에 더 초점을 두기도 한다(박원길, 2001: 23~24).

237) 龍城: 單于가 머무는 곳이기도 하면서 祭天儀式을 거행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龍城에서 벌어지는 제천 행사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몽골 초원 유목민들이 오월 초원의 풀이 푸르러지고 말 젖으로 만든 술이 익는 풍요로운 계절(여름의 시작)에 벌이는 春祭였다. 이후 몽골시대에 보이는 쿠릴타이와 같은 정치 종교적 행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되기도 했다. 따라서 龍城의 의미와 위치, 정치적 비중, 종교적 성격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의미와 위치와 관련하여 龍城의 의미는 『漢書』「嚴安傳」에 “深入匈奴，燔其龍城”이라고 되었다. 이에 대해 顏師古가 “燔燒也龍城匈奴祭天處”라고 주를 단 것을 기초로 자연 상태의 나무나 목조로 된 제단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江上波夫, 1948: 237-8). 그의 입장을 이어 龍城이 오늘날 몽골의 신앙 대상인 오보(Ovoo)라고 주장하기도 했다(護雅夫, 1967: 89~190; 後藤富男, 1956: 65). 그와 달리 성체와 같은 실체가 있는 건물로 政治, 軍事, 宗教의 중심이라고 보기도 했다(內田吟風, 1975: 60~64). 이런 차이는 문헌에 따라 龍城(『史記』「匈奴傳」), 龍城(『漢書』「匈奴傳」, 『鹽鐵論』), 龍城(『漢書』「衛青傳」) 등으로 달리 표기되고, 또한 경우에

를 지냈다. 가을이 되어 말이 살찔 무렵에는 대림(躡林)²³⁸⁾에서 큰 모임을 열어 백성과 가축의 숫자를 헤아렸다.²³⁹⁾ 그의 법에 따르면, 칼을 한 자 이상 칼집에서 뽑는 자는 사형에 처하며,²⁴⁰⁾ 도둑질한 자는 그의 집안[의 재산]을²⁴¹⁾ 몰수했다. 가벼운 범죄자는 알형(軋刑)²⁴²⁾에

따라 單于庭(『史記』와 『漢書』), 龍祠(『後漢書』 「南匈奴傳」), 朝會(『漢書』 「西域傳」), 龍庭(『後漢書』 「竇憲傳」), 庭會(『後漢書』 「南匈奴傳」) 등의 다양한 용례가 龍城과 같이 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용례를 통해 그 의미가 單于庭(오르두)이고, 龍이 그와 음이 유사하고 뜻이 부합하는 龍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하고 그 어원을 單于의 씨족인 攀鞮의 祭로 이해하기도 했다(박원길, 2001: 27~28). 한편 龍城의 의식이 갖는 성격에 대해서는 祭天儀式 이외에도 합의를 이루는 會議體로서의 정치적인 성격을 부여하기도 했다(箭內互, 1930: 367). 따라서 龍城의 위치를 單于庭이 위치한 곳과 연결지어 漠南에 匈奴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을 때에는 지금 內蒙古自治區 呼和浩特市 주변(『史記』 권110 「匈奴傳」) 또는 그들이 밀려 올라가 漠北에 머무를 때에는 몽골공화국 오르콘 강 주변(『雙溪醉隱集』, “龍庭, 和林西北地”)에 있는 호쇼 차이담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馬長壽(a), 2006: 24). 『史記』에는 “龍城”으로 되어 있다.

238) 躡林: 匈奴가 제전을 벌이는 장소 또는 행사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먼저 躡林이 벌어지는 시기는 단순히 가을(秋)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타 기록을 통해 팔월 말에서 구월 초, 즉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 즉 冬營地로 이동하기 전에 이루어진 행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행사가 벌어진 躡林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이 있다. 먼저 顏師古는 “나무로 둘러싸고 제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른 한편에서 服虔은 지명으로 보아 “삼림으로 둘러싸여진 곳”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런 차이로 인해 躡林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었다. 먼저 전자의 연장선상에서 龍城에서 이 행사가 벌어지고 躡林은 그곳에서 행해지는 祭祀儀式으로 자연상태나 인공상태로 세운 나무(몽골의 오보와 비슷하게 생긴 것) 주변을 도는 의식으로 이해했다(江上波夫, 1948: 249; 護雅夫, 1967: 190). 그와 달리 單于庭에서 벌어지는 행사의 다른 명칭에 불과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묘사한 것이 설명하는 입장도 있다(內田吟風, 1975: 244). 물론 전자와 관련해 躡林을 구체적 지명이 아니라 단순한 숲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林幹, 1986: 34) 그 祭儀의 형식이 神樹의 주변을 도는 의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즉 祭儀가 북아시아 유목민들의 神樹 숭배와 관련된 샤머니즘의 성격을 띤 것이라는 이해가 그와 관련되었다. 반면 躡林을 실재하는 구체적인 지명으로 이해하고 그 위치를 음의 유사성에 근거해 單于庭이 위치한 호쇼 차이담에서 그 서쪽에 있는 타미르 강이라고 비정하기도 했다(馬長壽(a), 2006: 24).

239) 人口와 家畜의 숫자를 따져 單于나 王長 등에게 바칠 賦稅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匈奴의 賦稅가 어떠한가 하는 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후대에 등장하는 유목국가에서 이루어졌던 징수체계와 비슷하게 人頭稅와 가축에 대한 貢納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다.

240) “拔刃尺者死”라고 기록된 내용은 평상시에 칼을 1척 이상 뽑는 것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그 의미를 전쟁에 사용하는 신성한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사와다, 2007: 128).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칼을 뽑아 남을 상하게 한 것이 1尺이 되면 사형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쳐하며 큰 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처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은 길어도 열흘을 넘지 않으니 죄수는 전국을 통틀어도 몇 명이 되지 않았다.²⁴³⁾ 그리고 선우는 아침 천막에서 나와 해가 뜨는 [동쪽을 보고] 절하고,²⁴⁴⁾ 저녁에는 달을 보고 절했다. 좌석은 왼쪽을 중요하게 여겼고 북쪽을 향하였다.²⁴⁵⁾ 열흘마다 돌아오는 십간(十干) 중에서 [제5일째의] 무일(戊日)과 [제6일째의] 기일(己日)을 길일(吉日)로 쳤다.²⁴⁶⁾ 장례를 치를 때 관(棺), 괘(槨)에다 금은이나 의상(衣裳)²⁴⁷⁾ 등을 부장품으로 넣었으며,²⁴⁸⁾ [무덤에] 봉분을 하거나 나무를 심지 않았고 상복(喪服)도 입지 않았다.²⁴⁹⁾ [군주가 죽으면] 측근 신하나 애첩이 따라 죽었는데[從死]²⁵⁰⁾

241) 여타 북방 유목민들의 습속에 따르면 도둑질을 한 경우 재물을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이상과 같은 번역이 가능하다.

242) “軛刑”은 그 얼굴을 칼로 긁거나 채찍 질이나 몽둥이질을 하는 형벌로 볼 수도 있으나 顏師古는 그것은 모두 틀리고 관절을 부셔버리는 것으로 지금의 厭蹠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 戰士의 능력을 없앤다는 점에서 발의 복사뼈를 수레바퀴로 치어 부수는 형벌이라는 설명이 더 맞을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전투 능력을 중시하는 유목사회에서 발을 못 쓰게 될 경우 보다 치명적인 형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사와다, 2007: 128). 그리고 고대 유목민의 장례 풍습에는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얼굴을 칼로 자해하는 습속이 있었다는 점에서 얼굴을 칼로 긁는 것은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43) 위와 같은 내용은 『鹽鐵論』의 기록(「論功篇」: 356, “匈奴……法約而易辨, 求寡而易供, 是以省刑而不犯, 指麾而令從.”)에서도 확인된다.

244) 匈奴는 동쪽을 앞쪽으로 삼고 이를 신성하게 여겼다. 이런 관습은 이후 突厥 등의 그것과 비슷하나 남쪽을 앞으로 생각하는 몽골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종족 간의 풍습 차이를 알 수 있다.

245) 單于의 자리는 천막 안에서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그의 왼쪽에 앉았다. 이런 배치는 왼쪽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匈奴의 관제에도 반영되어 늘 차기 계승자에게 左賢王의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늘 왼쪽이 우선적이었다. 이후 突厥시대에도 遊牧君主가 거주하는 천막 내의 자리 배치의 경우 君主의 子弟들을 왼쪽에, 그리고 異姓의 貴族이나 官吏들이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배치는 匈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46) 이런 기록을 통해 匈奴가 열흘 단위의 태양력에 기초한 달력을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戊와 己는 五行에서 土에 해당하는 방위로 중앙이며 행운과 축복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네 방위에서 종족을 통치하는 권력을 나타낸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中國의인 이해가 匈奴의 그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이 분명하지 않아 논쟁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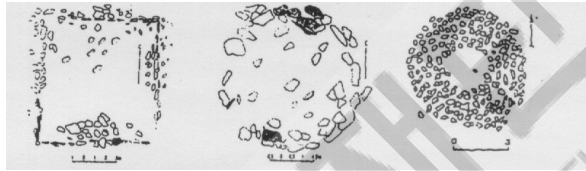
247) 『史記』에는 “衣裘”로 되어 있다.

248)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에 따르면, 匈奴시대의 묘에 부장되는 물품은 희생해 순장하는 가축(말, 소, 양 등)과 실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陶器, 금은과 같은 귀금속제품과 옥석장식품, 골제품, 칠기목제품, 비단 등) 등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馬利清, 2005: 72~92).

249) 20세기 이후 內蒙古와 몽골공화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고고 발굴 성과에 따르면, 匈奴 墳墓는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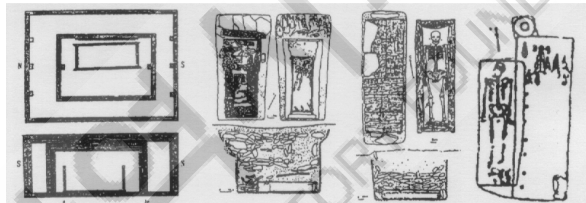
많으면 수십, 수백 명²⁵¹⁾에 이르렀다.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항상 달의 상태에 따랐는데, 차면 공격해 싸우고 달이 이지러지면 군대를 물렸다.²⁵²⁾ 전투를 벌여 목을 베거나 [산 채로] 포로를 잡으면 상으로 한 잔의 술을 내렸고, 노획품은 그대로 본인이 갖도록 하였다.²⁵³⁾ 포로

형식을 갖고 있었다. 주로 중국 북방에서 발견된 소형의 匈奴 무덤은 木棺을 넣은 장방 豎穴墳으로 지면에는 별다른 표지가 없다. 반면, 몽골공화국 내지는 바이칼호 주변 지역에서 발견된 대형의 匈奴 무덤에는 지면에 원형의 돌무지와 무덤의 네 주변에 돌무더기가 있고, 안으로는 장방형의 豎穴墳 안에 棺과 槨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丙蒙古와 달리 지금 몽골공화국 초원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匈奴의 분묘는 司馬遷의 기록과 달리 封墳이 있다(田廣金·郭素新, 2005: 474-477). 옆의 그림처럼 방형과 원형의 봉토분이 있고, 내부에는 棺과 槨이 다양하게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일반 평민의 무덤으로 보이는 것에는 石棺, 甕棺, 天葬 등의 다양한 형식이 발굴되기도 했다.



〈方形封土平面圖〉

〈圓形封土平面圖〉



〈二槨一棺〉

〈一槨一棺〉

〈單棺〉

〈偏洞室單棺〉

〈흉노의 묘장〉

250) 匈奴의 장례 풍속은 유라시아 초원에서 살았던 여타 유목민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먼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기간 동안 스스로 얼굴에 칼로 상처를 내서 피와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하는 풍습인 楞面이 있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이마에 산 자의 피를 뿌려 죽은 자와 산 자가 일체화됨으로써 그를 소생시키려는 바람을 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죽은 자와 관계 있는 사람을 殉葬하는데,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축을 함께 묻거나 산 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무덤에 넣는 剪髮의 풍습이 더욱 보편적이었다. 이것은 몸의 일부를 매장하여 의례의 간편화를 도모하며 죽은 자에게 애도를 표하는 것으로 殉死를 형식화함으로써 남겨진 사람들의 희생을 막고 나아가 노동력과 전투력을 보존하려는 것에도 관련되었다(사와다, 2007: 126-7).

251) 『史記』에는 이 구절이 “多至數千百人”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顏師古의 주석 “或數十人, 或百人.”이나 匈奴 무덤의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에 의거하면 ‘千’은 ‘十’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52) 『史記』에는 “舉事而候星月, 月盛壯則攻戰, 月虧則退兵.”로 되어 있다. 초원 유목민에게는 역법이 발달하지 않아 달이 차는 것을 기다려 공격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것은 이후 突厥도 비슷하다(『隋書』 권84 「突厥傳」1864, “候月將滿, 輒爲寇抄.”).

253) 일반적으로 遊牧民들은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재화를 약탈한 본인이 모두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遊牧君主 역시 약탈한 재화를 部落民들에게 다시 惠施해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고 했다. 이것은 초기

는 잡은 자에게 [노비]로 주었다.²⁵⁴⁾ 그러므로 전투 때 사람들은 제 이익을 향해²⁵⁵⁾ 달려 나갔는데, 군대를 유인하여 적을 포위하는²⁵⁶⁾ 것을 잘하였다. 그 까닭에 이익을 좇는 것이²⁵⁷⁾ 새떼처럼 모여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것이 구름이 스러지듯이 흩어졌다.²⁵⁸⁾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을 거두[어 돌아오]면,²⁵⁹⁾ 죽은 사람의 집과 재물[家財]을 모두 갖게 했다.

後北服渾窳·屈射·丁零·隔昆·(龍)新羣之國。於是匈奴貴人大臣皆服，以冒頓爲賢。

그 후 [목특선우는] 북방으로 혼유(渾窳),²⁶⁰⁾ 굴석(屈射),²⁶¹⁾ 정령(丁零),²⁶²⁾ 격근(隔昆),²⁶³⁾ .

에 遊牧 君主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국가가 발전하고 中國과 관계를 맺게 되면 遠征보다는 協商과 交易을 통해 물자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배분함으로써 군장에 대한 부락민들의 경제적 예측관계를 강화하려고 했다. 이상과 같이 약탈물의 획득과 분배가 부락민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초기 국가 건설 시기 부족 통합과정에서 ‘君主權의 強化’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김호동, 1993: 152).

254) 匈奴에 존재하고 있었던 한인노예는 전쟁으로 인해 文帝시대부터 昭帝시대까지 匈奴에 잡혀간 포로의 숫자로 보아 약 10만 정도라고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기록은 약탈전쟁의 성격이 재화와 人口의 약탈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王慶憲, 2005: 47~52).

255) “趨”는 “趣”로 읽는데, 향한다는 의미이다.

256) 『史記』에는 “冒”으로 되어 있는데, “덮치다”, “갑자기 공격하다”는 의미이다.

257) 『史記』에는 “故其見敵則逐利”로 되어 있다.

258) 이런 기록과 관련하여 『鹽鐵論』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다(「備胡篇」, “匈奴不變業, 而中國已騷動矣. 風合而雲解, 就之則亡, 擊之則散, 未可一世而舉也.”: 280~281). 이렇게 중국인들은 匈奴와 같은 유목민들이 이익을 좇아 움직이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목민의 이런 태도는 실제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의 한 방편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주 36) 참조).

259) 『史記』에는 “輿”로 되어 있다.

260) 渾窳: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몽골공화국 북방 시베리아 오브강과 셀렝게강 주변 즉, 匈奴의 북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史記』에는 “渾庾”로 되어 있다.

261) 屈射: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음은 ‘굴석’ 또는 ‘굴역’이다. 주로 몽골공화국 북방 시베리아 바이칼 호 동쪽 지역에 거주했다.

262) 丁零: 기원전 3세기~기원후 5세기에 걸쳐 몽골 초원에서 유목한 투르크계 종족을 총칭한다. 丁零

신리(新犁)²⁶⁴ 등의 [다섯]²⁶⁵ 나라[國]²⁶⁶를 복속시켰다. 이에 흉노의 귀인(貴人)과 대신(大臣)들이 모두 [그에게] 감복하여 목득[선우]²⁶⁷를 현군으로 [받들어] 모셨다.

是時，漢初定，徙韓王信於代，都馬邑。匈奴大攻圍馬邑，韓信降匈奴。匈奴得信，因引兵南踰句注，攻太原，至晉陽下。高帝自將兵往擊之。會冬大寒雨雪，卒之墮指者十二三，於是冒頓陽敗走，誘漢兵。漢兵逐擊冒頓，冒頓匿其精兵，見其羸弱，於是漢悉兵，多步兵，三十二萬，北逐之。高帝先至平城，步兵未盡到，冒頓縱精兵三十餘萬騎圍高帝於白登，七日，漢兵中外不得相救餉。匈奴騎，其西方盡白，東方盡駢，北方盡驪，南方盡騂馬。高帝乃使使間厚遺閼氏，閼氏乃謂冒頓：「兩主不相困。今得漢地，單于終非能居之。且漢主有神，單于察之。」冒頓與韓信將王黃·趙利期，

또는 丁靈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車輪’을 나타내는 고대 투르크어 ‘테그레크(tegrek)’의 음역이라는 설과 투르크(türk)를 음역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匈奴의 전성시대에는 바이칼호의 남쪽에서 알타이산맥 지방에 걸쳐 거주하면서 그 지배를 받다가 이후 독립하여 匈奴를 공격하였다. 魏晉南北朝時代에는 丁零의 일부가 분산하여 중국 북변에서 北西邊 사이에 흩어져 살았고 일부가 中國 내부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 주력은 몽골 지역에 살면서 鮮卑, 柔然 등과 대립하였다. 몽골고원에 남아 있던 丁零 유목민들을 中國人은 高車丁零·高車라고 불렀다. 4세기 이후에 柔然이 몽골 초원을 지배하게 되면서 정복되었다. 中國에서는 이들을 勅勒이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그 이후 隋唐代 바이칼호 남쪽에서 아랄해, 카스피해에 걸친 영역에 분포한 것으로 中國에 기록된 鐵勒이 바로 高車, 즉 丁零의 후예들이다(段連勤, 1988).

263) 隔昆: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몽골공화국의 사얀산맥 북쪽 시베리아 에니세이강 상류지역에 거주했다. 그 이후 堅昆으로, 唐代에는 黠戛斯로 불렸다. 『史記』에는 “隔昆”으로 되어 있다.

264) 新犁: 고대 종족의 명칭이다. 몽골 초원의 북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소재지는 알 수 없다. 『史記』에는 “新犁”로 되어 있다.

265) 渾窳, 屈射, 丁零, 隔昆, 新犁 등은 다섯 개의 작은 나라이다.

266) 國: 일반적으로는 ‘나라’로 번역되나 어떤 구체적인 정치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부족 내지는 하나의 종족집단을 의미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방민족에 대한 기록에서 國 내지는 部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突厥에서는 이것을 일(ii) 또는 엘(el)이라고 했고, 몽골에서는 이것을 울루스(ulus)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층차의 단위가 모두 포함된다(丁載勳, 2003: 332).

267) 『史記』에는 “單于”로 되어 있다.

而兵久不來，疑其與漢有謀，亦取關氏之言，乃開圍一角。於是高皇帝令士皆持滿傳矢外鄉，從解角直出，得與大軍合，而冒頓遂引兵去。漢亦引兵罷，使劉敬結和親之約。

이 무렵²⁶⁸⁾ 한나라가 갓 안정되어²⁶⁹⁾ 한왕(韓王) 신(信)²⁷⁰⁾을 대[군](代郡)으로 옮겨 마읍[현](馬邑縣)²⁷¹⁾에 도읍하게 했다. [그런데] 흉노가 크게 공격해 마음을 포위하자 한왕 신이 흉노에게 투항하였다.²⁷²⁾ 흉노는 [한왕] 신을 잡자 이를 기회로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구주[산](句注山)²⁷³⁾을 넘어 태원[군](太原郡)²⁷⁴⁾을 공격해 진양[성](晉陽城) 밑까지 왔다. [한나

268) 匈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점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匈奴의 冒頓單于가 동쪽의 東胡, 서쪽의 月氏를 격파한 다음 남정을 준비하고 있던 때이다. 즉, 전204년에서 전203년경으로 추정된다(주205) 참조).

269) 이 시점은 高祖 5년(전202) 십이월에 項羽가 垓下에서 죽은 다음 正月에 諸侯와 將相들이 모두 漢王을 皇帝로 추대하자 이월 甲午(初三日)에 劉邦이 汜水의 북쪽에서 皇帝에 즉위한 때를 말한다.

270) 韓王 信(?~전196): 본래 韓 襄王 서얼의 손자로, 키가 여덟 자 다섯 치나 되었다. 項梁이 楚의 후손인 襄王을 세웠을 즈음에 燕, 齊, 趙, 魏에 과거의 왕을 다시 왕으로 봉하였다. 하지만 오직 韓나라만이 후사가 없어 왕을 세울 수가 없었다. 橫陽君 成을 만나 韓王으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 項梁이 定陶(山東省)에서 패전에 죽었다. 이후 劉邦이 군사를 이끌고 와 陽城(河南省 登封縣)을 치고 張良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진무케 할 때 信이 張良을 만나 그에 투항했다. 信은 그의 병사들을 데리고 劉邦을 따라 武關(陝西省 商縣)으로 들어갔다. 劉邦이 자립하여 漢王이 되자 漢中으로 들어갔다. 三秦을 평정하자 信은 韓의 太尉가 되어 옛 땅을 공략하고 韓王이 되었다. 그는 이후 楚나라의 습격을 받고 항복했다. 나중에 도망하여 다시 漢나라로 돌아갔다. 劉邦은 다시 그를 세워 韓王으로 봉했고, 결국 項羽를 격파해 천하를 평정하는 데 공헌했다. 高祖는 割符를 갈라 信을 정식으로 韓王에 봉하고 潁川(河南省)에 도읍하게 했다. 이후 太原 일대의 왕으로 삼아 북방에 대비하게 하면서 晉陽에 도읍하게 했다. 이후 도읍을 馬邑으로 옮겨 갔는데, 그해 가을 匈奴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 그는 高祖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匈奴에 투항해 太原을 공격했다. 그 이후 직접 원정을 지휘한 高祖가 白登山에서 패배하자 匈奴를 위해 변경을 왕래하면서 漢나라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 또한 王黃 등을 시켜 漢나라의 陳豨를 설득해 漢나라에 모반하도록 하다가 실패했다. 高祖 11년(전196) 三畝(山西省 陽高縣)에서 匈奴의 기병과 함께 漢나라에 저항했다가 죽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들과 손자가 漢나라로 항복해 돌아와서 侯로 봉해졌다(『漢書』 권33 「韓王信列傳」: 1852~1857).

271) 馬邑縣: 縣 명칭으로 지금의 山西省 朔縣 일대이다.

272) 이 사건은 漢 高祖 6년(전203) 구월의 일이다.

273) 句注山: 雁門山을 지칭한다(주130) 참조).

라의] 고제(高帝)²⁷⁵가 손수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자 했다. 때마침²⁷⁶ 겨울이라 아주 춥고 눈까지 내려 병사들이 [동상으로] 손가락을 잃는 자가 열 명 중에 두세 명 되자 이에 목특이 [이런 사정을 간파하고] 저서 도망가는 척하면서²⁷⁷ [속여] 한나라의 군대를 유인했다. 한나라의 군대가 목특을 추격해 오자 목특은 그의 정예부대를 감추어 두고 [그중에서] 노약한 [병사들]을 드러나 보이게 하였다. 이에 한나라는 모든 군대를 모아 대부분 보병으로서 32만이었는데, 북으로 [홍노 군대를] 추격했다. 고제가 먼저 평성[현](平城縣)²⁷⁸에 도착하였는데, 보병들이 아직 모두 도착하지 못하자 [이에] 목특이 정병 30여만 기를 풀어 고제를 백등[산](白登山)²⁷⁹에서 에워싸고, 이레 동안이나 한나라 군대는 [포위망의] 안팎에서 서로 구원하거나 식량을 보급할 수가 없었다. 홍노의 기병들은 서쪽이 모두 흰색 [말],²⁸⁰ 동쪽은 모두 푸른 말(驪),²⁸¹ 북쪽은 모두 검은 말(驪),²⁸² 남쪽은 모두 붉은색 말(騂)이었다.²⁸³ 고제는 사신을 보내 이간을 위해 연지에게 몰래 후한 선물을 주었다. 연지가 이에

274) 太原: 郡 명칭으로 秦나라 莊襄王 4년(전246)에 설치되었다. 治所는 晉陽(지금의 太原市 서남쪽)이었다. 관할구역은 지금 山西省 五臺山과 管涔山 이남, 霍山 이북이다. 前漢시대 이후에 축소되어 文帝시대에는 國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郡이 되었다.

275) 高帝(재위 전202~전195): 漢나라를 건국한 劉邦(전256~전195)의 시호로 廟號는 高祖이고 高皇帝라고도 칭해진다. 秦나라 말기 泗水 沛縣(지금의 江蘇省 지역) 사람이다. 字는 季이다. 일찍이 亭長을 맡았다. 秦二世皇帝 元年(전209)에 陳勝·吳廣의 봉기에 호응하여 沛公이라고 칭하였다. 項羽가 秦나라의 주력 부대와 대결을 벌일 때 潁川, 南陽을 거쳐 關中으로 들어갔다. 전206년에 咸陽을 함락시키고 진나라의 법을 폐지하고 關中의 父老와 法三章을 약속하였다. 이후에 項羽가 입관하자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복속되어 그로부터 漢王의 칭호를 얻고 漢中으로 들어갔다. 이후 項羽와 4년간의 대결을 벌여 垓河에서 격파하고 칭제하였다. 한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長安에 세웠다. 건국 이후에는 제도를 완비하고 전후의 사회적 안정을 꾀하였을 뿐만 아니라 異姓 諸侯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76) 漢 高祖 7년(전204) 겨울 시월의 일이다.

277) 『史記』에는 “陽”이 “祥”으로 되어 있는데, ‘詳’이 ‘佯’과 통하기 때문에 ‘양’으로 읽을 수 있다(주35) 참조).

278) 平城縣: 縣 명칭으로 지금의 山西省 大同市 동북쪽이다.

279) 白登山: 지금 山西省 大同市 동쪽에 위치했고, 그 위에 白登臺가 있었다.

280) 『史記』에는 “白馬”로 되어 있다.

281) 『史記』에는 “青驪馬”로 되어 있다.

282) 『史記』에는 “烏驪馬”로 되어 있다.

283) 『史記』에는 적황색의 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묵특에게 말하였다. “두 나라 임금이 서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한나라 땅을 얻는다 해도 선우께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한나라 왕에게 신기한 [힘]이 있을지 모르니 선우께서는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마침] 묵특은 한[왕] 신의 [장군] 왕황(王黃)²⁸⁴과 조리(趙利)²⁸⁵와 [함께 공격하기로 미리] 약속하였는데, 기일이 되어도 [왕황과 조리의] 군대가 오랫동안²⁸⁶ 오지 않자 그들이 한나라와 음모를 [획책했을까] 의심하여 연지의 말대로 포위망의 한쪽을 풀어 주었다.²⁸⁷ 이에 고제가 병사들에게 명하여 모두 활시위를 한껏 당긴 채 화살을 메겨 바깥으로 향하도록 하고²⁸⁸ 포위가 풀린 쪽으로

284) 王黃: 匈奴 사람으로 韓王 信의 부장이었다. 이후에 韓王 信이 匈奴에 투항하자 趙利를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285) 趙利: 戰國時代 趙나라의 후예로 韓王 信이 匈奴에 도망가자 曼丘臣과 王黃 등에게 추대되어 왕이 되었다(『史記』 권93 「韓信盧綰列傳」: 2633).

286) 『史記』에는 “又”로 되어 있어 “久”와 다른데, 『漢書』가 당시의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287) 『漢書』 「韓王信傳」에도 匈奴와 漢나라의 전투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高祖] 7년(전200) 겨울에 황제가 직접 가서 공격을 하여 [韓]信의 군대를 銅鞮에서 격파하고 그의 部將 王喜를 배자 [韓]信이 匈奴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의 장수인 白土 출신인 曼丘臣과 王黃 등이 이 때 趙나라 [후예] 趙利를 세워 王으로 삼고 [韓]信의 패잔병까지 끌어모은 다음 [韓]信, 冒頓[單于]와 모의하여 漢나라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匈奴는 左賢王과 右賢王에게 기병 만여 명을 주어 王黃 등과 함께 廣武에 진을 치게 한 뒤 남하하여 晉陽에 와서 漢나라 군대와 싸웠는데, 오히려 匈奴軍이 크게 패해 離石까지 추격당해 다시 격파 당했다. 匈奴는 다시 樓煩 서북쪽에서 군사를 정비하니 漢나라에서 車騎將軍이 와서 匈奴를 격파하였다. 匈奴가 늘 패해 달아나자 漢나라 군대는 승세를 타 북으로 추격하였다. 冒頓[單于]가 代谷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高祖가 晉陽에 있다가 사람을 시켜 冒頓[單于]를 살피게 하니 돌아와 보고하여 말하였다.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 황제가 마침내 平城에 도착해 황제가 白登山에 올랐다. [이 때] 匈奴의 기병들이 상을 에워쌌는데, 황제가 바로 사람을 시켜 關氏에게 사람을 시켜 후한 선물을 주었다. 이에 關氏가 冒頓[單于]를 설득하여 말하였다. “지금 한나라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서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양국의 군주가 서로 괴롭혀야 될 까닭도 없습니다.” 이레를 머물다가 匈奴의 기병이 점차 물러나 갔다. [이 때] 하늘에서 짙은 안개가 내려오니 한나라 사신이 갔다 왔다 해도 匈奴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護軍中尉 陳平을 황제에게 말하였다. “匈奴는 화살을 쏘는 부대이니 強弓에 화살 두 개씩을 장치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천천히 가면 포위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가] 평성에 들어갔을 때 한나라 구원 부대가 또한 도착하니 흉노의 기병이 [포위를] 풀고 갔다. 한나라 역시 군대를 물려 돌아왔다. 韓信이 匈奴를 위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을 공격하였다(『漢書』 권33 「魏豹田儼韓王信傳」: 1854~1855).

288) “傳”는 “附”로 읽어야 하고, “鄉”은 “嚮”으로 읽어야 한다. 활시위를 한껏 당긴 채 화살을 메겨 바깥으로 향하도록 하여 포위가 풀린 쪽으로 바로 도망쳐 나간 것을 의미한다.

바로 도망쳐 나아가 마침내 자신의 대군과 만나게 되자 목욕도 바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 버렸다. 한나라 [고제] 역시 군대를 이끌어 물러나면서 유경(劉敬)²⁸⁹을 시켜 화친의 조약을 맺도록 했다.²⁹⁰

是後韓信爲匈奴將，及趙利·王黃等數背約，侵盜代·鴈門·雲中。居無幾何，陳豨反，與韓信合謀擊代。漢使樊噲往擊之，復收代·鴈門·雲中郡縣，不出塞。是時匈

289) 劉敬: 齊나라 사람으로 원래의 성이 婁氏였는데, 劉氏 성을 받아 劉敬이 되었다. 漢나라 高祖 5년(전202)에 隴西의 수비병으로 가다가 劉邦을 만나 郎中에 임명되었고 奉春君이라 불렸다. 高祖가 匈奴를 공격할 때 정확한 적정 분석과 조언으로 중용되었다. 高祖가 白登山에서 겨우 돌아온 이후 封領으로 2천 호를 덧붙여 關內侯에 봉해지고 建信侯라 불렸다. 그리고 匈奴에 대한 和親政策을 주청하고 匈奴에 가서 조약을 맺었다. 그 다음에 돌아와 과거 戰國時代의 貴族들을 제압하기 위해 10만여 명을 關中에 徙民하게 하는 등 強幹弱枝政策을 추진하는 데 기여했다(『漢書』 권43 『酈陸朱劉叔孫傳』: 2119~2123).

290) 公主를 匈奴에 시집보냄으로써 그와 화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婁敬列傳』에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황제가 걱정을 하여 [婁]敬에게 물었다. [婁]敬이 대답하였다. “천하가 안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종들이 전투에 지쳐 있어 다시 무력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冒頓[單于]가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 즉위하여 여러 계모들을 처로 삼고 힘으로서 누른 것은 仁義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먼 자손을 신하로 만들 수 있는 계책이 있으나 아마도 폐하께서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잘할 수 있다. 어찌 할 수 없겠는가! 무슨 계책인가?” [婁]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폐하께서 정말로 媼出 중에서 큰 公主를 시집보내는데, 후하게 받들어 보낸다면 그들이 한나라 적출 공주가 후하게 보내져 온 것을 알고 오랑캐들은 반드시 받들어 關氏로 삼을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태자가 되어 單于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匈奴가] 한나라의 푸짐한 선물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폐하가 매년 한나라에서 남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을 문안 편지와 함께 보내고 그와 함께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 예절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冒頓[單于]가 있는 동안은 사위가 되고, 죽으면 외손자가 單于가 되는 것입니다. 외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예를 거스르는 것을 일찍이 들어본 바 없습니다. 병사들이 싸우지 않고도 [匈奴를] 점차 신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큰 공주를 보내지 못하시었다면 宗室 내지는 後宮의 [딸을] 공주라고 속여 보냈는데, 그들이 알게 되면 귀하고 살갑게 대하지 않을 것이니 효과가 없습니다.” 高帝가 말하였다. “좋다.” 큰 공주를 보내려고 하였다. 呂后가 낮밤을 울면서 말하였다. “첩에게는 태자와 하나의 딸만 있는데, 어찌하여 匈奴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마침내 공주를 보낼 수 없게 되자 서민의 딸을 골라 큰 공주라고 하여 單于에게 시집보냈다. [婁]敬을 사자로 보내 화친을 맺고 결혼을 약속하게 하였다(『漢書』 권43 『酈陸朱劉叔孫傳』: 2122).

奴以漢將數率衆往降，故冒頓常往來侵盜代地。於是高祖患之，乃使劉敬奉宗室女翁主爲單于閼氏，歲奉匈奴絮繒酒食物各有數，約爲兄弟以和親，冒頓乃少止。後燕王盧綰復反，率其黨且萬人降匈奴，往來苦上谷以東，終高祖世。

그 뒤에 한[왕] 신이 흉노의 장군이 되었고, 조리, 왕황 등이 자주 [화친] 약속을 깨고 대[군], 안문[군],²⁹¹⁾ 운중[군]²⁹²⁾을 침입해 노략질해 갔다. 얼마 되지 않아 [한나라의] 진희(陳豨)²⁹³⁾가 모반해 또 한[왕]신과 같이 모의하여 대[군]을 공격했다. 한나라에서는 번쾌(樊噲)²⁹⁴⁾를 시켜 이들을 치도록 하여 대[군], 안문[군], 운중[군] 등의 군현을 다시 뺏었으나 국경의 장성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이 무렵 한나라 장수들 여럿이 백성을 이끌고 흉노로 가서 투항하는데,²⁹⁵⁾ 그래서 [교만해진] 목특이 늘 대[군]의 땅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에 고조가²⁹⁶⁾ 이를 근심스럽게 생각하여 이에 유경으로 하여금 종실의 딸을 옹주²⁹⁷⁾라 하여 모셔 가게 해 선우의 연지로 삼게 했고, 해마다 흉노에게 명주솜과

291) 『史記』에는 “鴈門”이 없다.

292) 代, 鴈門, 雲中 등의 郡은 과거 趙나라의 武靈王이 북쪽으로 林胡와 樓煩을 격파하고 長城을 구축한 다음에 설치한 것이었다(주154, 주155, 주156) 참조.

293) 陳豨: 지금의 山東省 曹縣 서북쪽에 위치한 宛胸 사람이다. 처음에 高祖를 어떻게 따라다니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漢 高祖 7년(전 200)에 漢王 信이 匈奴에 투항한 것을 정벌하기 위해 高祖가 원정 하였을 때 列侯가 되었다. 그리고 趙나라 相國의 신분으로 병졸을 거느리고 代를 수비하다가 전197년 匈奴와 결탁하였다. 그 다음 漢나라를 배반하고 스스로 代王이라고 하였다. 이후 高祖 12년(전 195)에 樊噲의 공격을 받아 패배해 靈丘(山西省 靈丘縣 동쪽)에서 죽임을 당하였다(『漢書』 권34 「韓彭英盧吳傳」: 1891~1892).

294) 樊噲(?~ 전189): 沛縣(지금의 江蘇省 沛縣) 사람으로 젊었을 때 개백정이었다. 신분이 미천했으나 劉邦을 따라 농민봉기를 일으켰다. 楚漢전쟁에 참가해 鴻門之會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劉邦을 위기에서 구출하였다. 그는 劉邦이 漢王이 된 이후 列侯, 郎中으로 三秦의 토벌을 맡았다. 즉위 이후에는 左丞相, 相國이 되어 燕王 藏余의 반란, 楚王 韓信의 반란, 燕王 盧綰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힘을 써 舞陽侯로 5,400호를 받았다. 呂皇后의 동생이 그의 처로서 高祖 말기 呂后의 일파로 몰렸다. 하지만 惠帝시기에 풀려났다가 惠帝 6년(전 189)에 죽었다(『漢書』 권41 「樊鄴滕灌傅斬周傳」: 2067~2074).

295) 이 무렵 匈奴에 투항한 한나라의 장군은 韓信, 王黃, 曼丘臣, 陳豨, 盧綰 등이었다.

296) 『史記』에는 “於是漢患之, 高帝”……라고 되어 있다.

297) 왕의 딸을 翁主라고 하는데, 『史記』에는 “翁主”가 “公主”로 되어 있다.

견직물, 술, 식품 등을 일정량 주고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면서 화친을 맺자, 목특이 이에 [공세를] 약간 멈추었다. [그렇지만] 이후에 연왕 노관(盧縮)²⁹⁸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그의 무리 만 명²⁹⁹ 이끌고 흉노에게 투항해 갔다가 상곡[군]의 동쪽을 드나들면서 [한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든 것이 고조의 시대 끝까지 갔다.³⁰⁰

孝惠·高后時，冒頓寢驕，乃爲書，使使遺高后：「孤債之君，生於沮澤之中，長於平野牛馬之域，數至邊境，願遊中國。陛下獨立，孤債獨居。兩主不樂，無以自虞，願以所有，易其所無。」高后大怒，召丞相平及樊噲·季布等，議斬其使者，發兵而擊之。樊噲：「臣願得十萬衆，橫行匈奴中。」問季布，布曰：「噲可斬也！前陳豨反於代，漢兵三十二萬，噲爲上將軍，時匈奴圍高帝於平城，噲不能解圍。天下歌之曰：『平城之下亦誠苦！七日不食，不能穀弩。』今歌吟之聲未絕，傷痍者甫起，而噲欲搖動天下，妄言以十萬衆橫行，是面謾也。且夷狄譬如禽獸，得其善言不足喜，惡言不足怒也。」高后：「善。」令大謁者張澤報書：「單于不忘弊邑，賜之以書，弊邑恐懼。退日自圖，年老氣衰，髮齒墮落，行步失度，單于過聽，不足以自汙。弊邑無罪，宜在見赦。竊有御車二乘，馬二駟，以奉常駕。」冒頓得書，復使使來謝：「未嘗聞中國禮義，陛下幸而赦之。」因獻馬，遂和親。

효혜[제](孝惠帝)³⁰¹ 고후(高后)³⁰²의 시대에 목특이 점차 교만해져 서신을 보냈다. 사신

298) 盧縮: 沛縣 사람으로 처음 劉邦을 따라 봉기하였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그를 시종하다가 관직이 太尉에 오르고 燕王에 봉해졌다. 陳豨가 漢나라를 배반하였을 때, 그가 사람을 보내 서로 연락하고 匈奴와 결탁하였다. 漢나라 군대가 진격해 오자 무리를 이끌고 匈奴로 도주하였다. 匈奴에서 東胡 盧王에 임명되었다(『漢書』 권34 「韓彭英盧吳傳第」: 1890~1891).

299) 『史記』에는 “數千人”으로 되어 있다.

300) 高祖는 12년(전195) 사월 25일 長樂宮에서 붕어했다. 『史記』에는 다음 단락이 “高帝崩”으로 시작한다.

301) 孝惠帝(재위 전195~전188): 이름은 劉盈으로 高祖의 長子로서 황위를 이었으나, 유약하여 母 呂太后가 실권을 행사하였다.

302) 高后: 漢 高祖 劉邦의 정실부인으로 呂太后를 말한다. 성은 呂, 자는 娥姁, 이름은 雉이다. 山陽 출신으로 劉邦과 결혼한 이후 지속적으로 남편을 도와 漢나라의 건국을 가능하게 했다. 劉邦이 죽은 뒤 아들

을 고후에게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독해서 설 수 없는 임금은 음습한 땅에서 태어나 드넓은 초원에 소와 말이 사는 곳에서 자랐으나 여러 번 변경에 와서 중국에서 놀기를 원했소이다. 폐하께서도 홀로 즉위하시니 고독해서 설 수 없는 과부의 신세입니다. 두 임금이 즐거움이 없고 스스로 즐길³⁰³⁾ 수 없으니 그 가진 바로 부족함을 바꾸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고후가 크게 화를 내며 승상(丞相)과 번쾌(樊噲), 그리고 계포(季布) 등을 불러 그의 사자를 뺏 것과 군대를 일으켜 공격할 것을 의논하였다. 번쾌가 말하였다. “신이 십만의 군대를 얻어 흉노에서 누비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계포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해 말하였다. “번쾌를 참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전에 진희(陳豨)가 대(代)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한나라 군대가 32만으로 번쾌가 대장군(大將軍)이었습니다. 그때 흉노가 고조를 평성에서 포위하였는데, 번쾌가 그 포위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천하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평성의 아래에서 정말로 고생했구나! 이레 동안 먹지 못하니 쇠뇌를 당길 힘도 없네.’ 지금 [그] 노래도 소리³⁰⁴⁾가 끊기지 않았고 그때 다친 사람들도 이제 비로소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번쾌가 천하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십만의 군대로 누비고 다니겠다고 망령되게 얘기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입니다. 또한 오랑캐들은 비유하면 짐승과 같아, 좋은 말을 들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나쁜 말을 들어도 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고후가 “옳다.”라고 했다. 대알자(大謁者) 장택(張澤)에게 답신을 써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우가 우리나라의 일을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 주니 우리나라가 두려워하고 있소.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하였으나 나는 늙고 기운도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과 이빨이 모두 빠져 걷는 것도 힘이 드오. 선우의 요청이 과분하시니, 스스로 그렇게 [즐기며] 더럽힐 수 없소. 우리나라는 잘못이 없으니 마땅히 용서해 주시오. 천자가 타는 두 대의 수레와 그에 맞는 말 여덟 필을 드리니 일상적으로 타는 수레로 쓰십시오.” 목특이 편지를 받고서 다시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중국의 예의를

惠帝를 즉위시키고 실권을 잡았다. 惠帝가 23세의 나이로 죽자, 惠帝의 후궁에서 출생한 여러 왕자들을 차례로 등극시켰다. 呂氏 일족을 고위고관에 중용하여 사실상 呂氏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특히, 劉氏만을 侯王으로 책봉하라는 高祖의 遺訓을 어기고 동생 呂產, 呂祿 등을 侯王으로 책봉하였다. 이것이 劉氏 옹호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그녀가 집권한 지 8년만인 辛酉 칠월 30日 未央宮에서 죽자 곧 呂氏 일가가 모두 誅滅되었다. 이로써 呂氏 정권이 붕괴한 다음에 高祖의 차남 劉恆이 즉위하여 文帝가 되었다. 『史記』에는 “呂太后”로 되어 있다.

303) ‘虞’는 ‘娛’와 같다.

304) 噲는 ‘吟’의 古字이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니 폐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에 답례로 말을 바치니 마침내 화친이 이루어졌다.³⁰⁵⁾

至孝文即位，復修和親。其三年夏，匈奴右賢王入居河南地爲寇，於是文帝下詔：「漢與匈奴約爲昆弟，無侵害邊境，所以輸遺匈奴甚厚。今右賢王離其國，將衆居河南地，非常故。往來入塞，捕殺吏卒，毆侵上郡保塞蠻夷，令不得居其故。陵轢邊吏，入盜，甚驚無道，非約也。其發邊吏車騎八萬詣高奴，遣丞相灌嬰將擊右賢王。」右賢王走出塞，文帝幸太原。是時，濟北王反，文帝歸，罷丞相擊胡之兵。

효문[제](孝文帝)가 즉위하자 다시 화친을 했다. [하지만] 그의 3년(전177) 여름에³⁰⁶⁾ 흉노 우현왕이 하남 땅으로 쳐들어와 자리를 잡고 노략질을 하자 이에 문제가 조를 내렸다. “한나라와 흉노는 형제가 되어 변경을 침해하지 않아 흉노에게 [물자를] 보내주는 것이 아주 많다. 지금 우현왕이 그 나라를 벗어나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남 땅에 사는 것은 예전에 없던 이상한 일이다. 오가면서 [변방의] 장성에 들어와 관리와 병사들을 잡아 죽이거나, 말을 몰아³⁰⁷⁾ 상군의 장성을 지키고 있던 오랑캐[蠻夷]³⁰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고향에 살 수 없게 했다. 변경의 관리를 모욕하고 들어와 도둑질을 하여 그 오만³⁰⁹⁾하고 무도함이 심한데, [이것은] 약속이 아니다. 변경의 관리와 거기(車騎) 8만을³¹⁰⁾ 징발해 고노(高奴)³¹¹⁾로 가게 하고, 승상(丞相)³¹²⁾ 관영(灌嬰)³¹³⁾을 보내 [그들을] 이끌고 우현왕을 공격하게 해라.” [결국] 우현왕은

305) 『史記』에는 이상의 편지 내용이 “高祖崩，孝惠·呂太后時，漢初定，故匈奴以驕。冒頓乃爲書遺高后，妄言。高后欲擊之，諸將曰：‘以高帝賢武，然尙困於平城。’於是高后乃止，復與匈奴和親。”으로 정리되어 있다. 후대에 이상의 내용을 『漢書』에서 보충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

306) 『史記』에는 “五月”로 되어 있다.

307) ‘毆’는 ‘驅’와 같은 글자이다.

308) 保塞蠻夷: 漢나라 초기에 포로로 잡힌 주변 종족들로, 漢나라에 소속되어 변방 요새 인근에 거주하면서 변경방비를 담당하였다.

309) 驚는 傲와 같은 글자이다.

310) 『史記』에는 8만 5천으로 되어 있다.

311) 高奴: 縣의 명칭으로 지금 陝西省 延安의 동북쪽이다.

312) 丞相: 天子를 보좌하고 정부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의 관직으로서 秩이 萬石이었다. 高祖시기에 한

장성 밖으로 달아났다. 문제가 태원에 행행하였다. 이 때 제북왕(濟北王)³¹⁴이 [그 틈을 타] 모반하자 [급히] 문제가 [장안으로] 귀환하면서 승상이 흉노[胡]를 공격하려고 했던 군대를 물렸다.³¹⁵⁾

其明年，單于遺漢書：「天所立匈奴大單于敬問皇帝無恙。前時皇帝言和親事，稱書意合驩。漢邊吏侵侮右賢王，右賢王不請，聽後義盧侯難支等計，與漢吏相恨，絕二主之約，離昆弟之親。皇帝讓書再至，發使以書報，不來，漢使不至。漢以其故不和，鄰國不附。今以少吏之敗約，故罰右賢王，使至西方求月氏擊之。以天之福，吏卒良，馬力強，以滅夷月氏，盡斬殺降下定之。樓蘭·烏孫·呼揭及其旁二十六國皆已爲匈奴。諸引弓之民并爲一家，北州以定。願寢兵休士養馬，除前事，復故約，以安邊民，以應古始，使少者得成其長，老者得安其處，世世平樂。未得皇帝之志，故使郎中係虔淺奉書請，獻橐佗一，騎馬二，駕二駟。皇帝即不欲匈奴近塞，則且詔吏民遠舍。

명의丞相을 두었다가 11년에는 명칭을 相國으로 바꾸었다. 孝惠帝와 呂后 시기에 左右 2명의 丞相을 두었다가 文帝 2년에 다시 한 명의 丞相을 두었다.

313) 灌嬰(?~전176): 睢陽(지금의 河南省 商丘市 남쪽) 사람으로 원래 비단 상인이었다. 그는 劉邦이 沛公이 되었을 때부터 그를 도왔다. 楚나라와 漢나라의 승패를 결정하는 滎陽 전투에서 中大夫로 楚나라를 격파하여 糧道를 끊는 큰 공을 세웠다. 御史大夫가 되어 齊와 淮北을 평정하였다. 高祖 즉위 이후 車騎將軍으로 燕王을 격파하고 漢王 信을 토벌하여 穎陰侯로 봉해졌다. 匈奴 토벌 중에 平城에서 고생하였다. 돌아와 陳豨를 토벌하고 黥布의 반란 역시 진압하였다. 高祖 사후에 列侯로 惠帝와 呂后를 모셨다. 하지만 呂后가 죽은 뒤 '周勃, 陳平' 등과 함께 呂氏를 몰아내고 代王을 맞아들여 文帝로 추대하였다. 周勃을 이어 승상이 되었는데, 匈奴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죽었다(『漢書』 권41 「樊鄴滕灌傅斬周傳」: 2080~2086).

314) 濟北王: 東牟侯 劉興居로 高祖의 長庶 齊悼王 劉肥의 아들이었다. 그는 呂氏 세력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워 文帝 前元 2년(전178) 삼월에 濟北王이 되었다. 文帝 前元 3년(전177) 오월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해 淸월에 자살하였다.

315) 『史記』에서는 이 문단에서 정리하고 있는 文帝 前元 3년 양국의 대결에 대한 내용을 “匈奴右賢王入居河南地，侵盜上郡葆塞蠻夷，殺略人民。於是孝文帝詔丞相灌嬰發車騎八萬五千，詣高奴，擊右賢王。右賢王走出塞。文帝幸太原。是時濟北王反，文帝歸，罷丞相擊胡之兵。”으로 정리하였는데, 『漢書』에서는 文帝의 詔勅 등을 보충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使者至，即遣之。」六月中，來至新望之地。書至，漢議擊與和親孰便，公卿皆：「單于新破月氏，乘勝，不可擊也。且得匈奴地，澤鹵非可居也，和親甚便。」漢許之。

그 이듬해³¹⁶⁾ 선우가 한나라에 편지를 보내왔다. “하늘이 세워준 흉노대선우(天所立匈奴大單于)³¹⁷⁾가 삼가 중국의 황제에게 무고하신가 안부를 묻소. 전날 황제가 화친의 일을 말했고 편지의 뜻도 이와 같아서 크게 기뻐할³¹⁸⁾ 만하였소. [그런데도] 한나라 변방의 관리가 [우리] 우현왕을 침범해 모욕했으며 우현왕이 [선우인 나한테도] 주청하지 않고 [자기 부하인] 후의로후(後義盧侯)³¹⁹⁾ 난지(難氏)³²⁰⁾ 등의 계획을 듣고 한나라 관리들과 서로 원망하며³²¹⁾ 두 나라 임금 사이에 맺었던 약속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형제(昆弟)³²²⁾간의 친밀함을 이간질했소. 황제로부터 질책하는 편지³²³⁾ 다시 왔으므로 [이쪽에서도] 사자를 보내 편지로 회답했는데, [그 사신은] 돌아오지 않았고 한나라의 사신 [역시] 오지 않으니 한나라도 그런 이유로 화합하지 않아 이웃 나라가 친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요. 지금 낮은 관리³²⁴⁾ [화친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벌로써 우현왕에게 서방으로 가서³²⁵⁾ 월지를 치게 했소.³²⁶⁾ 하늘의 축복

316) 濟北王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文帝 前元 3년(전177) 오월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明年”이라고 한 것은 文帝 前元4년(전176)이 되어야 한다.

317) “天所立匈奴大單于”라는 칭호는 匈奴의 군주 칭호를 한자로 번역이 ‘天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던 “撐犁孤塗”라고도 추정된다(주218) 참조).

318) 『史記』에는 “合歡”으로 되어 있는데, 보내온 편지의 뜻이 서로 맞아 기뻐한다는 의미이다.

319) 後義盧侯: 難氏와 연결하여 그의 관칭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匈奴의 인명으로 後義盧侯 또는 後義와 盧侯로 나누어 인명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모두 확실하지 않다.

320) 難支: 匈奴의 인명으로 『史記』에는 “難氏”로 되어 있는데, 支와 氏는 통한다.

321) 『史記』에는 “恨”이 “距”로 되어 있다.

322) 『史記』에는 “兄弟”로 되어 있다.

323) “讓書”는 질책을 한다는 의미로, 匈奴가 다시 漢나라에서 온 편지를 받고 사신을 통해 편지를 漢나라에 보냈는데, 漢나라가 그 사신을 잡아 가두고 흉노에 다시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324) 少吏는 小吏와 같다.

325) 『史記』에는 “至”가 “之”로 되어 있다.

326) 冒頓單于가 처벌로 右賢王으로 하여금 月氏를 공격하게 한 것은 文帝 前元 6년(전174)보다 1~2년 정도 앞선 시기로 추정된다(대략 전177~전176년 정도) 이로 인해 月氏가 점차 서남방으로 향하여 이 무렵에 준가르 분지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月氏는 전174~전161년 사이에 烏孫과 연합한

을 받았고 [우리] 병사가 우수하고 말의 힘이 강하였기³²⁷⁾ 때문에 월지를 섬멸함으로써 모두 죽이고 항복시켰소. 누란(樓蘭),³²⁸⁾ 오손(烏孫),³²⁹⁾ 호걸(呼揭)³³⁰⁾과 그 인근의 26개 나라를 평정해 모두 흉노[와 한 나라]가 되었소. 여러 유목민[引弓之民]들이 모두 한 집안 식구가 되니 북쪽 지방[北州]³³¹⁾은 이미 안정되게 되었소. 원컨대, [이제는] 전쟁을 중지시켜 사졸을

匈奴의 공격을 받아 일리강 유역으로부터 축출되어 아무다리야로 갔다. 이후에 이들은 이곳에서 세력화하여 大月氏를 건설하였다.

327) 『史記』에는 “馬彊力”으로 되어 있다.

328) 樓蘭: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 롭 노르(Lop Nor, 羅布泊) 서북쪽 일대에 위치했던 오아시스 도시국가이다. 왕은 扞泥城(지금의 婁光縣)에 살았는데, 동서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크게 번영하였다. 中國이 이곳에 진출하기 이전에 匈奴의 복속을 받았다가 이후에 漢나라와 匈奴 모두와 관계를 유지했다. 漢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鄯善國이라고 고쳐 불렸다. 1세기 말부터 서쪽의 쿠산 왕조의 진출로 인해 2세기 말에는 이들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中國의 분열을 틈타 동서 무역로를 차지하고 크게 번성하였다. 이 왕국은 20세기 초 이 지역을 탐사한 영국의 A. 스타인과 스웨덴의 S. 헤딘 등의 발굴조사에 의해 그 실체가 밝혀졌다. 특히 왕국의 남부에 있었던 니야 유적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카로슈티 문서(쿠산 왕조의 영내에서 사용된 카로슈티 문자로 기록)의 기록에 통해 그 실체가 밝혀졌다. 이후 대규모의 조사발굴로 東西交通路에서 차지하는 樓蘭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기도 했다. 4, 5세기에 河西지방이나 중원에 성립된 여러 왕조에 계속 入貢使를 보내어 冊封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439년 北魏가 河西지방의 涼州에 있던 北涼을 토벌하자 北涼의 잔당이 樓蘭을 공격하였다. 그 뒤 3년 후에 北魏의 군대가 樓蘭을 점령한 이후 그 명맥이 겨우 유지되었지만 왕국의 질서는 붕괴되었다. 그리고 6세기경 인근 세력의 공격과 함께 롭 노르의 이동과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원이 고갈되어 이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漢書』 권96상 「鄯善國傳」: 3875~3878).

329) 烏孫: 고대 종족의 명칭이다. 漢代로부터 南北朝時代 초기에 걸쳐 天山山麓의 일리 계곡, 이식 쿨 근처, 시르다리야 상류 등지에서 유목생활을 하였다. 그 인종에 대해서는 사카, 투르크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이들의 혼혈종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래 河西走廊에서 月氏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의 지배를 받다가 匈奴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이주하여 일리 계곡과 이식 쿨 주변 등으로 이주하였다. 이로 인해 세력화하게 되면서 동쪽으로는 匈奴, 西北으로는 康居라는 유목민, 서쪽으로는 安息 등과 접하였다. 君長이 거주하는 곳을 ‘赤穀城’이라고 하였는데, 이식 쿨 근처에 있었다. 이들은 張騫의 여행 이후에 漢나라에 알려져 그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匈奴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존재했다(王明哲·王炳華, 1983: 1~2).

330) 呼揭: 음은 ‘호걸’이다.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몽골의 북서부에 살던 투르크계 부족으로 오구즈(Oghuz)로 비정된다. 기원전 2세기 冒頓單于에게 정복되어 匈奴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呼揭王은 匈奴에 포함된 呼揭 부족의 장이라고 추정된다. 그 뒤 呼漢邪單于가 郅支單于가 匈奴를 동서 양분한 뒤, 呼揭은 전49년에 郅支單于에게 정벌되었다. 그 뒤 堅昆과 丁零 등의 정벌에 동원되었다. 南北朝·隋朝 시기 사료에 遠紇, 烏護, 韋紇 등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唐代 回鶻 즉 위구르는 이들의 後身으로 알려져 있다.

쉬게 하고 말을 먹여 앞서 있었던 [국경분쟁] 문제를 불문에 붙이여 이전의 [화친] 약속을 회복시킴으로써 변경지대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처음의 관계로³³²⁾ 맞추어 어린아이들이 탈 없이 자라게 하고 늙은이들이 그 땅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³³³⁾ 대대로 태평함을 즐기도록 해 주고 싶소이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 황제의 의중을 알 수가 없으니 낭중(郎中)³³⁴⁾ 혜호천(係虜淺)³³⁵⁾을 사신으로 삼아 이 편지를 받들어 올리게 함과 동시에 낙타(橐佗)³³⁶⁾ 한 [필], 전투용 말(騎馬) 두 [필], 수레 끄는 말(駕) 두 짝(駟)을³³⁷⁾ 드리겠소. 황제께서는 흉노[의 군대]가 한나라 변경에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귀국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조칙을 내려 멀리 떨어져서 살도록 명령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시오. 사자가 도착하면 돌려보내 주시기 바라오.” 유월 중에 [흉노의 사신] 신망(新望)³³⁸⁾의 땅에 도착하였다. [흉노의] 편지가 [한나라 조정]에 오자 한나라에서는 공격과 화친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논의하였다. 공경(公卿)들이 모두 말하였다. “선우가 새로 월지를 격파해 승세를 타고 있으니 공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흉노의 영토를 얻는다고 해도 늘 아니면 소금기 많은 황무지뿐이니 살 만한 곳도 못됩니다. [결국] 화친이 더 낫습니다.” 한나라[의 황제가 화친을] 허락했다.

孝文前六年，遺匈奴書：「皇帝敬問匈奴大單于無恙。使係虜淺遺朕書，云『願寢兵休(事)[士]，除前事，復故約，以安邊民，世世平樂，』朕甚嘉之。此古聖王之志也。漢

331) 北州: 원래 좁게 匈奴의 북방에 위치한 渾庾, 屈射, 丁零, 兩昆, 薪犁 등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주265) 참조). 문맥의 흐름상 보다 넓은 범위로 해석하여 月氏를 포함한 西域의 정복이 완성되었음을 표현한다.

332) 『史記』에는 “始古”로 되어 있다.

333) 『史記』에는 “得”이 없다.

334) 郎中: 관직 명칭으로 관청의 車, 騎, 門, 戶를 관리하였다. 안으로는 護衛를, 밖으로는 작전을 맡는 역할을 했다.

335) 係虜淺: 匈奴의 사람 이름으로 음은 “혜호천”이다. 『史記』에서는 “虜”를 “虜”로 표기했다. 그는 匈奴에 투항하였던 秦나라 사람의 후예로 추정된다. 그의 선조가 郎中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郎中이라는 관칭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36) 『史記』에는 “橐佗”로 되어 있다(주16) 참조).

337) “騎馬”는 탈 수 있는 말이고, “駕”는 수레를 끌 수 있는 말이며, “二駟”는 말 여덟 필을 의미한다.

338) 新望: 漢나라 경계 위쪽 長城 아래의 땅이다. 『史記』에는 “薪望”으로 되어 있다.

與匈奴約爲兄弟，所以遺單于甚厚。背約離兄弟之親者，常在匈奴。然右賢王事已在赦前，勿深誅。單于若稱書意，明告諸吏，使無負約，有信，敬如單于書。使者言單于自將并國有功，甚苦兵事。服繡袷綺衣·長襦·錦袍各一，比疏一，黃金飭具帶一，黃金犀毗一，繡十匹，錦二十匹，赤緋·綠繒各四十匹，使中大夫意·謁者令肩遺單于。」

효문[제]³³⁹⁾ 전원(前元)³⁴⁰⁾ 6년(전174) 한나라[의 황제]가 흉노에 편지를 보내 말하였다. “황제는 삼가 흉노 대선우에게 무고하신가 안부를 묻소. 혜호천(係序淺)을 시켜 짐³⁴¹⁾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원컨대 전쟁을 중지시켜 사졸을 쉬게 하여 앞서 있었던 [국경분쟁] 문제를 불문에 붙여 이전의 [화친] 약속을 회복시킴으로써 변경지대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대대로 태평함을 즐기도록 해주고 싶소이다.’³⁴²⁾”라고 했소. 짐은 [이 말을] 매우 기쁘게 여기는데 이는 옛 성왕의 뜻이기도 하오. 한나라와 흉노가 형제가 되기로 약속해 선우에게 아주 후하게 선물을 보냈었소. 그런데도 약속을 어기고 형제의 정리를 이간시킨 이유는 늘 흉노에 있었소. 그러나 우현왕이 일으킨 사건은 [한나라에서] 이미 대사령(大赦令)을 발표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선우는 그를 너무 심하게 책하지 말기 바라오. 만약 선우가 이 편지의 뜻과 같다면 그대 나라의 여러 관리들에게 명백히 알려 화친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그 사실이 확인되면 삼가 선우 편지의 뜻을 따를 것이오. 사자가 선우께서 몸소 군사

339) 『史記』에는 “孝文皇帝”로 되어 있는데 『漢書』에서는 “孝文”으로 축약되어 있다.

340) 漢文帝는 23년간 재위하였는데, 중간에 한 번 개원하였다. 그래서 前元 7년과 그 이후 後元 16년으로 나누어진다.

341) “朕”은 옛날에 일반적인 自稱이었으나, 秦 始皇帝 시대부터 皇帝의 自稱으로만 사용되었다.

342) 『史記』에는 편지의 내용 중에 앞부분에서 “右賢王이 [또한 單于인 나한테] 주청하지 않고 [제 부하인] 後義盧侯 難氏 등의 계획을 듣고 [한나라 관리들과 서로 싸워] 두 나라 임금 사이에 맺었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형제간의 친밀함을 이간질하게 되자 한나라도 그를 이유로 화합하지 않게 되었고 이웃 나라와도 친하지 않게 되었소. 지금 낮은 관리가 [화친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右賢王에게 그 벌로써 서쪽의 月氏를 치게 해 모두 평정할 수 있었소.”(右賢王不請，聽後義盧侯難氏等計，絕二主之約，離兄弟之親，漢以故不和，鄰國不附。今以小吏敗約，故罰右賢王使西擊月氏，盡定之：2897)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를 이끌고 여러 나라를 정벌해³⁴³⁾ 비록 전과는 얻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 역시 크다고 하니 [짐이 입는] 의복인 수넝기의(繡袷綺衣),³⁴⁴⁾ 장유(長襦),³⁴⁵⁾ 금포(錦袍)³⁴⁶⁾ 각 한 벌, 비소(比疏)³⁴⁷⁾ 한 개, 황금으로 만든 허리띠[黃金飾具帶]³⁴⁸⁾와 황금으로 만든 허리띠 장식[黃金犀紕]³⁴⁹⁾ 한 개, 수넝은 비단[繡]³⁵⁰⁾ 열 필,³⁵¹⁾ 비단[錦]³⁵²⁾ 스무 필,³⁵³⁾ 붉은색의 두꺼운 비단[赤緋]³⁵⁴⁾과 푸른색 비단[綠繒]³⁵⁵⁾ 각각 마흔 필씩을 중대부(中大夫)³⁵⁶⁾ 의(意)³⁵⁷⁾와 알자령(謁者令)³⁵⁸⁾ 견(肩)³⁵⁹⁾을 시켜 선우에게 보내오.”

343) 伐國: 匈奴가 정복한 나라를 말하는데, 그 대상은 東胡, 渾夷, 屈射, 丁零, 兩昆, 新犁, 烏孫, 月氏 등이었다.

344) 繡袷綺衣: ‘꽃을 수넝은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고, 꽃무늬를 짜 넣은 비단으로 안감을 댄 겹옷’으로天子가 착용했다. 름은 름이 없는 옷이다.

345) 長襦: 수넝은 비단으로 만든 긴 겹옷이다. 『史記』에는 “繡袷長襦”로 되어 있다.

346) 『史記』에는 “錦袷袍”로 되어 있다.

347) 比疏: 변발의 장식인데 금으로 되어 있다. 『史記』에는 “比余”로 되어 있다.

348) “具”는 ‘貝’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이것은 조개 장식을 단 황금 요대를 말한다.

349) 犀紕: 허리띠의 큰 장식인데 鮮卑에게는 郭洛帶가 있었는데, 이는 상서로운 짐승의 이름으로 東胡가 좋아하는 복장이었다. 顏師古는 이민족들이 사용하는 허리띠의 고리장식으로 鮮卑에서는 이를 師比라고도 하며 모두 한 가지 물건으로 단지 무게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史記』에는 “胥紕”로 되어 있다.

350) 繡: 무늬가 있는 비단이다.

351) 匹은 織物의 길이를 計量하는 중국 고대의 量詞이다. 漢代에 1匹의 폭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대개 帛의 넓이가 폭이 2尺 2寸, 길이가 40尺인 것을 1匹이라고 한다. 1尺=23.5cm이므로 漢代의 1匹은 길이가 약 940cm, 폭이 51.7cm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內田吟風, 1975: 227; 丘光明, 1992: 520).

352) 錦: 색깔이 빛나는 비단이다.

353) 『史記』에는 “三十四匹”로 되어 있다.

354) 緋: 두꺼운 비단[厚繒]이다.

355) 繒: 명주실로 짠 모든 직물 즉 비단[帛]의 총칭이다.

356) 中大夫: 관직 명칭으로 郎中令의 속관으로 議論을 관할하였다. 武帝 太初 元년에 光祿勳으로, 다시 光祿大夫로 바뀌었다.

357) 意: 사람 이름이다.

358) 謁者令: 관직 명칭으로 中書謁者令을 말한다. 주요 업무는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었고, 少府에 소속되었다. 후에 中謁者令으로 바뀌었다.

359) 肩: 사람 이름이다.

後頃之，冒頓死，子稽粥立，號曰老上單于。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목특이 죽고 아들 계육(稽粥)³⁶⁰이 서니 노상선우(老上單于)라 불렀다.

老上稽粥單于初立，文帝復遣宗人女翁主爲單于閼氏，使宦者燕人中行說傳翁主。說不欲行，漢強使之。說：“必我也，爲漢患者。”中行說既至，因降單于，單于愛幸之。

노상계육선우(老上稽粥單于)³⁶¹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다시 종실의 여자를 옹주³⁶²라 하여 선우에게 보내 연지로 삼게 했는데, 연나라 출신의 환관 중항열(中行說)³⁶³을 옹주의 호위[傳]로 삼았다. 중항열이 가려고 하지 않자 한나라에서 억지로 [가게] 만들었다. [그러자 중항열]이 말하였다. “기필코 나를 [가게]³⁶⁴ 한다면 한나라에 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항열이 [흉노 땅에] 도착하자마자 선우에게 투항하니 선우가 [그를] 사랑하고 아꼈다.³⁶⁵

360) 稽粥: 음은 계육이다. 老上單于를 말한다(아래 주 참조).

361) 老上稽粥單于(재위 전174~전161): 匈奴의 제3대 單于로 老上單于라고도 불린다. 이름이 稽粥이다. 匈奴의 융성을 이룩한 冒頓單于의 아들로 전174년 아버지가 죽자 즉위하였다. 漢나라 宗室의 딸을 아내로 맞고 漢나라에서 항복해 온 中行說을 고문으로 삼았다. 中行說은 匈奴의 세력 신장에 주력하여 문서 작성, 국가의 재정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이후 月氏를 공격하여 일리 지방으로 쫓아내고, 죽인 月氏王의 두개골을 술잔으로 쓰는 등 그들에게 타격을 가하였다. 또 전166년에는 漢나라 깊숙이 쳐들어갔고, 해마다 침공을 거듭하였다. 漢 文帝는 종래의 조약 외에, 匈奴에게 해마다 공물을 보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和議를 다시 맺어 무마시키고자 했다.

362) 翁主: 宗室의 딸로 諸侯王의 딸을 의미한다. 『史記』에는 “宗室女公主”로 되어 있고, 『漢書』에는 『史記』에서 公主로 된 것을 모두 翁主로 바꾸어 기록했는데, 이것이 적절하다.

363) 中行說: 姓이 中行이고 이름이 說인데, 說은 悅로 읽어 그의 이름은 즉, 중항열이다.

364) 『史記』에는 “行”이 있는데 저본에는 없다.

365) 『史記』에는 “單于甚親幸之”라고 되어 있다.

初，單于好漢繒絮食物，中行說：「匈奴人衆不能當漢之一郡，然所以強之者，以衣食異，無印於漢。今單于變俗好漢物，漢物不過什二，則匈奴盡歸於漢矣。其得漢絮繒，以馳草棘中，衣袴皆裂弊，以視不如旃裘堅善也；得漢食物皆去之，以視不如重酪之便美也。」於是說教單于左右疏記，以計識其人衆畜牧。

이전에 흉노가 한나라의 견직물과 명주솜, 그리고 식품 등을 좋아했는데, 중항열이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흉노의 인구는 한나라의 일개 군(郡)만도 못합니다.³⁶⁶⁾ 그런데도 강한³⁶⁷⁾ 까닭은 입는 것과 먹는 것이 달라 한나라에 의존하지³⁶⁸⁾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우께서 풍속을 바꾸어 한나라 물자를 좋아하게 되면 한나라 물자가 십분의 이를 넘지 않아도 흉노는 한나라에 모두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한나라의 견직물과 명주솜을 가지고 [선우께서 그것을 입고 나가] 풀과 가시덤불 속으로 말을 달려 나가 옷과 바지가 모조리 찢어져 못쓰게³⁶⁹⁾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³⁷⁰⁾ [견직물과 명주솜이 흉노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의복]만큼 튼튼하고 좋은³⁷¹⁾ 것만 못하다는 점을 보여³⁷²⁾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 식품을 얻은 다음 [그것을] 모두 버려 짓이나 유제품(重酪)³⁷³⁾의 편리함과 맛보다 못하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항]열은 선우를 보좌하는 [관리들에게] 분류하여 기록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 백성과 가축의 [숫자를] 세어서 기록[하여

366) 匈奴의 인구가 漢나라의 1개 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中行說의 말은 『鹽鐵論』 「論功篇」에서의 지적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확하다. 실제 匈奴의 인구를 「匈奴列傳」의 기록(“自左右賢王以下至當戶，大者萬騎，小者數千，凡二十四長，立號曰萬騎.”: 3751)을 근거로 계산해 보면, 匈奴의 丁壯이 24만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다시 戶口數로 계산해도 아무리 많아도 144만 정도 된다. 이것은 漢代에 汝南이 가장 번성했을 때 46만戶에 인구가 260만 정도 되는 것과 비교된다.

367) 『史記』에는 “強”이 모두 “疆”으로 되어 있다.

368) 『史記』에는 “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印’은 ‘仰’과 통용되기 때문이다.

369) 『史記』에는 “敝”로 되어 있다.

370) 『史記』에는 “示”로 되어 있다.

371) 『史記』에는 “完善”으로 되어 있다.

372) ‘視’는 ‘示’로 읽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모두 이와 유사하다

373) 『史記』에는 “湩酪”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다. 顏師古에 따르면, ‘重’은 젖으로서 본래 글자가 ‘동’으로 읽는 ‘湩’이라고 한다(주37) 참조).

과세]하도록 했다.³⁷⁴⁾

漢遺單于書，以尺一牘，辭曰「皇帝敬問匈奴大單于無恙」，所以遺物及言語云云。中行說令單于以尺二寸牘，及印封皆令廣長大，倨驚其辭曰「天地所生日月所置匈奴大單于敬問漢皇帝無恙」，所以遺物言語亦云云。

한나라에서 선우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한 자 한 치짜리³⁷⁵⁾ 나무쪽[牘]³⁷⁶⁾을 썼고 [그 첫] 구절은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는 삼가 흉노대선우가 무고하신가 안부를 묻소.” [그리고] 보내주는 물자와 용건은 무엇 무엇³⁷⁷⁾이라고 되어 있었다. 중항열은 선우가 한나라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한 자 두 치³⁷⁸⁾짜리 나무쪽을 쓰고 봉인(封印)³⁷⁹⁾까지 모두 한나라 것보다 넓고 길고 크게 만들도록 했고,³⁸⁰⁾ 글투도 오만하게³⁸¹⁾ “하늘과 땅이 낳고 해와 달이 둔 흉노대선우³⁸²⁾가 삼가 중국의 황제에게 무고하신가 안부를 묻소.”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보내는 물자와 용건이 무엇 무엇이라고 기재하였다.

374) 『史記』에는 “識”이 “課”로 되어 있다.

375) 『史記』에는 “牘以尺一寸”으로 되어 있다.

376) 牘: 書版, 竹과 木簡 등과 같은 고대 기록 도구이다. 이후에 이것은 비단이나 종이 등으로 대체되었는데, 지금은 문서를 ‘文牘’이라고도 한다. 漢代의 1尺=23.5cm이므로 1尺 1寸은 25.85cm이다.

377) 『史記』에는 “所遺物及言語云云”으로 되어 있다.

378) 漢尺 1尺 2寸은 28.3cm이다.

379) 封印: 고대에 函牘을 봉인할 때에는 竹木簡을 묶은 끈에 진흙을 칠했다. 그래서 封印을 泥封이라고 했다. 匈奴에서도 漢나라의 방식을 받아들여 동일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380) 『史記』에는 “大長”으로 되어 있다.

381) 『史記』에는 “倨傲”로 되어 있다.

382) 원문은 “天地所生日月所置匈奴大單于”인데, 이 말에서 匈奴가 天地와 日月을 중요한 권위의 원천으로 삼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유목민들의 인식은 이후 突厥, 回鶻時代의 비문에서 확인되는 匈奴의 명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형용적인 표현을 보다 많이 쓴 것은 앞서 “天所立匈奴大單于”라고 하는 일반적인 표현을 더욱 높게 보이기 위한 修辭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주317) 참조).

漢使或言匈奴俗賤老，中行說窮漢使：「而漢俗屯戍從軍當發者，其親豈不自奪溫厚肥美齋送飲食行者乎？」漢使：「然」。說：「匈奴明以攻戰爲事，老弱不能鬥，故以其肥美飲食壯健以自衛，如此父子各得相保，何以言匈奴輕老也？」漢使：「匈奴父子同穹廬臥，父死，妻其後母；兄弟死，盡妻其妻。無冠帶之節，闕庭之禮。」中行說：「匈奴之俗，食畜肉，飲其汁，衣其皮；畜食草飲水，隨時轉移。故其急則人習騎射，寬則人樂無事。約束徑，易行；君臣簡，可久。一國之政猶一體也。父兄死，則妻其妻，惡種姓之失也。故匈奴雖亂，必立宗種。今中國雖陽不取其父兄之妻，親屬益疏則相殺，至到易姓，皆從此類也。且禮義之敝，上下交怨，而室屋之極，生力屈焉。夫力耕桑以求衣食，築城郭以自備，故其民急則不習戰攻，緩則罷於作業。嗟土室之人，顧無喋喋佔佔，冠固何當！」自是之後，漢使欲辯論者，中行說輒：「漢使毋多言，顧漢所輸匈奴繒絮米糲，令其量中，必善美而已，何以言爲乎？且所給備善則已，不備善而苦惡，則候秋孰，以騎馳蹂乃稼穡也。」日夜教單于候利害處。

한나라 사자³⁸³⁾가 [와서 중항열에게] 흉노의 풍속은 노인을 천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³⁸⁴⁾ 중항열은 모질게 한나라 사신에게 대꾸했다. “당신들³⁸⁵⁾ 한나라 풍속에도 누군가가 변경 주둔군의 수비를 위해 징발될 때에는 그 [늙은] 부모가 따뜻한 옷과 기름 지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수자리 서기 위해] 군대에 나가는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까?”³⁸⁶⁾ 한나라 사신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중항열이 말하였다. “흉노가 분명히 싸우고 공격하는 것을³⁸⁷⁾ 일로 삼는데, 노약자는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 좋고 맛있는 것을 건장한

383) 文帝시대 漢나라에서 匈奴로 간 使臣이 많기 때문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漢書』의 기록(권43 「酈陸朱劉叔孫傳」, “乃召其子, 拜爲中大夫, 使匈奴. 單于無禮, 罵單于, 遂死匈奴中.”: 2118)에서 그가 中行說과 토론을 벌이고 그로 인해 匈奴로부터 죽임을 당한 漢나라 사신의 활동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朱建의 아들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84) 이 단락의 내용은 匈奴傳의 총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匈奴의 습속에 대한 기술과 상통한다(주35), 주36), 주39) 참조.

385) “而”는 ‘당신(汝)’을 의미한다.

386) 『史記』에는 “其老親豈有不自脫溫厚肥美以齋送飲食行戍乎?”로 되어 있다.

387) 『史記』에는 “戰攻”으로 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먹여 스스로 지키고,³⁸⁸⁾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자식이 각각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찌 흉노만 노인을 가벼이 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 사자가 말하였다. “흉노는 부자가 같은 천막[穹廬]³⁸⁹⁾에 살면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계모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모두 그 처를 아내로 삼고 있소. [이것은] 관을 쓰고 허리띠를 매는 예절과 조정의 예제(禮制)³⁹⁰⁾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중항열이 말하였다. “흉노의 풍속은 [사람들이] 가축의 고기를 먹고³⁹¹⁾ 젖을 마시며 가죽을 입는데, 그 가축이 풀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급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편하게 되면 일없이 즐기며, 그의 약속은 간단하여 실행하기 쉽습니다.³⁹²⁾ 군신도 [잘] 따라서 오래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가 마치 한 몸처럼³⁹³⁾ 쉽고 편하게 움직입니다. 부형(父兄)이³⁹⁴⁾ 죽고 나서 그 아내를 취하는 풍습은 종족의³⁹⁵⁾ 대가 끊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흉노는 비록 어지럽기는 하나 종실의 자제를 [선우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겉으로] 드러내놓고³⁹⁶⁾ 아버지와 형의 처를 취하지 않지만, 친족이 멀어지게 되면 서로 죽이고 역성(易姓)까지³⁹⁷⁾ 하는 것도 모두 이런 부류에서 생긴 것입니다. 또한 예의의 폐해로 위아래가 서로를 원망하고³⁹⁸⁾ [좋은] 집짓기에 힘을 다 쏟아 [노역이 아주 심하게 되어] 사람들의 힘이 결국 약해집니다.³⁹⁹⁾ 무릇 농사와 양잠에 힘을 다 써 옷과 먹을거리를 구하고 성곽을 쌓아 스스로를 갖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급할

388) 『史記』에는 “故以其肥美飲食壯健者，蓋以自爲守衛”로 되어 있다.

389) 穹廬: 모직 펠트로 만든 천막을 의미하는데, 그 형태가 하늘처럼 둥글게 생겨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 (주21) 참조.

390) 闕庭之禮: 中國의 宮廟와 墓門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를 ‘闕’이라고 한다. 이것은 典章制度를 갖춘 문명된 국가를 의미한다.

391) 『史記』에는 “人食畜肉”으로 되어 있다.

392) 『史記』에는 “其約束輕”로 되어 있다.

393) 『史記』에는 “身”으로 되어 있다.

394) 『史記』에는 “父子兄弟”로 되어 있다.

395) “種姓”은 ‘宗族’을 지칭한다.

396) 『史記』에는 “祥”으로 되어 있다.

397) 『史記』에는 “至乃易姓”으로 되어 있다.

398) 顏師古에 따르면 忠信이 쇠약하게 되어 禮義를 강요하면 末流이니 怨恨이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399) 『史記』에는 “生力必屈”로 되어 있다.

때에도 전투에 익숙하지 못하고 편할 때에도 일하는 것에 지치게 됩니다. 슬프도다. 흠집[土室]에 사는 [불쌍한 한나라]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을 잘하지도 옷을 차려 입지도 못하니 [그따위] 관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⁴⁰⁰⁾

그로부터 뒤에 한나라 사자가 변론하려고 하면 중항열이 얼른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 사자는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나라에서 흉노로 보내오는 비단과 무명과 쌀과 누룩을 수량이나 채우고 [품질이] 좋게만 잘 살피면 그뿐입니다. 어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⁴⁰¹⁾ 또한 보내온 [물품이] 제대로 잘 갖추어 있으면 그만이지만, 잘 갖추어지지 않아 거칠고⁴⁰²⁾ 나쁘다면 [우리가] 가을 추수[하기]를 기다려 말을 달려가 당신들이 농사지어 놓은 것들을 짓밟아 놓으면 될 뿐입니다.” [중항열은] 밤낮으로 선우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살필 수 있도록 가르쳤다.

孝文十四年，匈奴單于十四萬騎入朝那蕭關，殺北地都尉卬，虜人民畜產甚多，遂至彭陽。使騎兵入燒回中宮，候騎至雍甘泉。於是文帝以中尉周舍·郎中令張武爲將軍，發車千乘，十萬騎，軍長安旁以備胡寇。而拜昌侯盧卿爲上郡將軍，甯侯魏遼爲北地將軍，隆慮侯周灶爲隴西將軍，東陽侯張相如爲大將軍，成侯董赤爲將軍，大發車騎往擊胡。單于留塞內月餘，漢逐出塞卽還，不能有所殺。匈奴日以驕，歲入邊，殺略人民甚衆，雲中·遼東最甚，郡萬餘人。漢甚患之，乃使使遺匈奴書，單于亦使當戶報謝，復言和親事。

효문[제] 14년(전166)⁴⁰³⁾에 흉노 선우의 기병 14만이 조나[현](朝那縣)과 소관(蕭關)⁴⁰⁴⁾을

400) ‘嗟’는 탄식하고 근심한다는 의미이다. ‘喋喋’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고, ‘佔佔’은 옷을 잘 차려입은 모양이다. 『史記』에는 “顧無多辭，令喋喋而佔佔”으로 되어 있다.

401) 『史記』에는 “何以爲言乎”로 되어 있다.

402) 『史記』에는 “不備，苦惡”로 되어 있다.

403)文帝가 즉위한 이후 3년(전177) 오월에匈奴가 北地, 河南 등을 첫 번째로 공격하자 丞相 灌嬰을 시켜 막게 했다. 11년(전169) 여름에는匈奴가 두 번째로 狄道를 공격하였다. 14년(전166) 겨울에文帝 즉위 이후 세 번째로 공격을 하였다. 14년의 대규모 침입 원인은匈奴 인구의中國으로의 유출을 유인하는漢나라의 정책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로 인해漢나라의招納政策은 20년 정도 중단되었다(熊

침입해 복지[군] 도위(都尉)⁴⁰⁵ [손]양(孫卬)⁴⁰⁶을 죽이고 백성과 가축을 많이 노략질하여 마침내 팽양[현](彭陽縣)⁴⁰⁷에 이르렀다. 돌격 기병(騎兵)⁴⁰⁸이 들어와 회중궁(回中宮)⁴⁰⁹을 불태웠고, 척후 기병대(候騎)가 웅(雍)⁴¹⁰의 감천(甘泉)[궁]⁴¹¹까지 이르렀다. 이에 효문제는 중위(中尉)⁴¹² 주사(周舍)⁴¹³와 낭중령(郎中令)⁴¹⁴ 장무(張武)를 장군⁴¹⁵으로 삼아 전차 천대⁴¹⁶ 기병 십만을 일으켜 장안 근방에 포진시킴으로써 흉노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리고 창후(昌侯) 노경(盧卿)⁴¹⁷을 상군장군으로, 영후(甯侯) 위속(魏遯)⁴¹⁸을 복지장군, 용려후

貴平·王擴建, 2005: 72).

- 404) 蕭關: 關門의 명칭으로, 지금의 寧夏回族自治區 古原縣 동남쪽에 위치하였다.
- 405) 都尉: 武官 명칭으로, 秦代에는 ‘郡尉’라고 했다. 漢 景帝 시기에는 명칭을 都尉로 바꾸었다. 이것은 郡守를 군사적인 면에서 보좌하면서 郡守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 모두 銀印割符를 받았고 秩이 比二千石이었다.
- 406) 卬: 孫卬을 말한다. 그는 공을 많이 세워 文帝 10년(전170) 삼월 丁巳(26일)에 그의 자손인 畢이 餅侯가 되었다.
- 407) 彭陽縣: 현의 명칭으로 지금의 甘肅省 鎮原縣 동남쪽이다.
- 408) 騎兵: 『史記』에는 “奇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돌격 기병’이다.
- 409) 回中宮: 궁궐의 명칭으로 北地 즉, 지금 陝西省 隴縣 서북쪽에 있는 岐山 雍縣 서쪽 40여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武帝가 건설하였다.
- 410) 雍: 지금의 陝西省 鳳翔縣이었다. 이곳에 戰國時代 秦의 國都가 있었다.
- 411) 甘泉: 지명으로 雲陽을 가리킨다. 雲陽 서북쪽에 甘泉山이 있고, 그 위에는 甘泉宮이 있었다. 이것이 秦나라의 林光宮이었다. 甘泉宮은 지금의 陝西省 淳化縣 서북쪽에 있었다(주145)와 주178) 참조).
- 412) 中尉: 관직의 명칭이다. 이것은 이미 戰國時代부터 존재했는데, 漢나라가 秦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계속 존재했다. 武帝 太初 元年(전104)에 명칭을 바꾸어 執金吾라고 했다. 中尉는 수도의 수비[掌徼循京師]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皇帝가 출행할 때에 그를 護衛, 儀仗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 413) 周舍: 景帝시대에 御史大夫를 했다.
- 414) 郎中令: 관직의 명칭으로 秦나라 시기에 설치되었다. 武帝시대에는 명칭을 光祿勳으로 바꾸었다. 주로 宮殿의 門戶를 담당하였으나 실제 그 권력은 아주 막강하였다. 皇帝禁內에서 皇帝를 侍從, 護衛, 顧問하는 중요한 관직으로 九卿의 하나였다. 武帝시대에는 李廣과 李敢 父子가 이 자리를 맡았다. 文帝가 代王일 때에는 張武가 郎中令을 대신하였다. 이후에 그가 天子가 되자 張武가 郎中令이 되었다.
- 415) 將軍: 고급 무관의 통칭이다. 고급 문관을 ‘卿’이라고 통칭한 것과 비슷하다. 전쟁터에서는 부대의 작전을 지휘 통솔하는 임무를 맡았다.
- 416) 古代의 戰車 전술에서는 甲車 1乘에 甲士 3명, 步卒 72명, 말 4匹을 하나의 단위로 구성했다. ‘千乘’이라고 하면 甲士가 3,000명, 步卒이 72,000명, 馬가 4,000필이었다.
- 417) 盧卿: 高祖시대의 功臣이다. 본래는 齊나라의 장군으로 “昌圍侯 旅卿”으로 기록되었다(『漢書』 권16

(隆慮侯) 주조(周竈)⁴¹⁹를 농서장군, 동양후(東陽侯) 장상여(張相如)⁴²⁰를 대장군,⁴²¹ [건]성후(建成侯)⁴²² 동혁(董赤)⁴²³을 전장군⁴²⁴에 임명하고, 전차와 기병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흉노를 공격하도록 했다. 선우가 국경 장성전 안에서 한 달쯤 머물다가 [몰러나 버리니]⁴²⁵ 한나라 군대는 [그를 뒤쫓아] 장성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으나 [적을] 죽일 수 없었다. 흉노가 날로 교만해져⁴²⁶ 해마다 변경지대를 [침범해] 들어와 백성들을⁴²⁷ 죽이고 노략질한 것이 아주 많았는데, [그중에서] 운중[군]과 요동[군]의 [피해가] 가장 심했고 [그 피해는] [대]군에서도⁴²⁸ 만여 명에 이르렀다. 한나라는 [이를] 심하게⁴²⁹ 걱정하여 이에 사신을 시켜 편지를 보냈다. 선우도 또한 당호를 시켜 사과해 왔기 때문에 다시 화친에 대한 일을 얘기할 수 있었다.

「高惠高后文功臣表」. 漢王 4년에 韓信을 따라 齊를 정벌하고 項羽를 격파했고, 그 다음에 韓王 信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를 代郡에서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昌圍侯로 봉해졌다. 그는 上郡에 군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上郡將軍이라 불렸다. 아래 北地將軍, 隴西將軍 등도 將軍이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에 따라 붙은 명칭이다.

- 418) 魏遼: 高祖시기의 공신이다. 漢에 들어가 都尉가 되어 臧荼를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워 高祖 8년(전199) 사일 寧遠侯로 봉해졌다. 文帝 14년(전166)에 魏遼가 北地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北地將軍이라 불리게 되었다. 遼는 速의 古字이다.
- 419) 周竈: 高祖시기의 功臣이다. 連敖(楚官)로 漢에 들어가 長鈺都尉로서 項籍을 격파하여 高祖 6년(전201) 正月에 隆慮侯로 봉해졌다. 그의 군대가 隴西에 있었기 때문에 隴西將軍이라 불리게 되었다.
- 420) 張相如: 高祖 6년(전201)에 中大夫가 되었고 河間守로 陳豨를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웠다. 高祖 11년(전196) 십이월에 東陽武侯로 봉해졌는데, 1,300호를 받았다(『漢書』 권50 「張馮汲鄭傳」: 2307).
- 421) 大將軍: 부대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칭하는 명칭이다. 그의 지위는 丞相 다음에 해당하였고, 그에 대한 예의가 아주 깎듯하였다.
- 422) 『文紀』에는 “建成侯”라고 되어 있다.
- 423) 董赤: 음은 ‘동혁’이다. 高祖시대의 功臣으로 侯가 되었다.
- 424) 前將軍: 부대 내의 고급 장군의 명칭으로, 前, 後, 左, 右將軍 중의 하나였다. 그 위치는 大將軍과 車騎將軍 다음으로 衛將軍과 동급이었다. 그 지위는 上卿 다음에 해당하였다.
- 425) 『史記』에는 “單于留塞內月餘乃去”로 되어 있다.
- 426) 『史記』에는 “匈奴日已驕”로 되어 있다.
- 427) 『史記』에는 “畜產”이 더 들어가 있다.
- 428) 『史記』에는 “代郡”으로 되어 있는데, 저본에는 “代”가 없다.
- 429) 『史記』에는 “甚”이 없다.

孝文後二年，使使(遣)[遺]匈奴書：「皇帝敬問匈奴大單于無恙。使當戶且渠雕渠難·郎中韓遼遺朕馬二匹，已至，敬受。先帝制，長城以北引弓之國受命單于，長城以內冠帶之室朕亦制之，使萬民耕織，射獵衣食，父子毋離，臣主相安，(居)[俱]無暴虐。今聞深惡民貪降其趨，背義絕約，忘萬民之命，離兩主之驩，然其事已在前矣。書云『二國已和親，兩主驩說，寢兵休卒養馬，世世昌樂，翕然更始』，朕甚嘉之。聖者日新，改作更始，使老者得息，幼者得長，各保其首領，而終其天年。朕與單于俱由此道，順天恤民，世世相傳，施之無窮，天下莫不咸嘉。(使)漢與匈奴鄰敵之國，匈奴處北地，寒，殺氣早降，故詔吏遺單于絺纈金帛綿絮它物歲有數。今天下大安，萬民熙熙，獨朕與單于爲之父母。朕追念前事，薄物細故，謀臣計失，皆不足以離昆弟之驩。朕聞天不頗覆，地不偏載。朕與單于皆捐細故，俱蹈大道(也)，墮壞前惡，以圖長久，使兩國之民若一家子。元元萬民，下及魚鱉，上及飛鳥，跂行喙息蠕動之類，莫不就安利，避危殆。故來者不止，天之道也。俱去前事，朕釋逃虜民，單于毋言章尼等。朕聞古之帝王，約分明而不食言。單于留志，天下大安，和親之後，漢過不先。單于其察之。」

효문[제] 후원(後元) 2년(전162)에 [황제가] 사신을 시켜 흉노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였다. “황제는 삼가 흉노대선우가 무고하신가 안부를 묻소. 당호저거(當戶且渠)⁴³⁰ 조거난(雕渠難)⁴³¹과 낭중 한료(韓遼)⁴³²를 시켜 짐에게 보낸 말 두 필이 잘 와서 고맙게 받았소. 선제(先帝)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성(長城) 북쪽에 있는 유목국가[引弓之國]는 선우에게 명령을 받으며,⁴³³ 장성 안쪽에 있는 의관(衣冠)을 갖춘 [문명국인 우리] 나라는 또한 짐이 다스린다. 만백성으로 하여금 밭을 갈고 베를 짜고 사냥하게 하여 입고 먹으면 아버지와 자식이

430) “當戶且渠”라고 한 것도 한 사람이 두 개의 관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史記』에는 “且居”로 되어 있다.

431) 雕渠難: 匈奴의 사람 이름이다.

432) 郎中은 匈奴에 없는 관직으로 漢의 관직이다. 따라서 韓遼가 이런 명칭을 갖게 된 것은 그 자신이 郎中으로 匈奴에 투항했거나 아니면 그의 조상이 漢나라의 郎中으로 투항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33) 『史記』에는 “受命單于”로 되어 있다.

떨어지는 일이 없고, 신하와 임금이 서로 편안하게 되니 모두가 포악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데] 지금 들으니 사악한 백성이 그 좋아하는 것을 탐해 [이익을] 쫓아 내려가⁴³⁴⁾ 의리를 배반하고 약속을 어겨⁴³⁵⁾ 만백성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두 나라 군주 간의 친선을 이간하였지만 그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오. [선우께서 짐에게] 보내온 편지에서 ‘두 나라가 이미 화친하고 두 군주가 기꺼이 여기면서 전투를 중지하여 병졸을 쉬게 하고 말을 먹이니 대대로 번영과 즐거움 누리면서 화합해⁴³⁶⁾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도 [이것을] 정말로 기쁘게 여기오. 성인(聖人)이란 날마다 새롭게 옛것을 고치고 바꾸어 다시 [정치]를 시작하여 늙은이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각자가 수령(首領)을 보존하여 하늘이 준 수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오. 짐은 선우와 함께 이런 도리를 써서 천도(天道)에 따라 백성들을 어여쁘게 여기고 대대로 서로 이어가 그것을 끝없이 베풀 수 있다면 천하에서 편하지 않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오.⁴³⁷⁾ 한나라와 흉노는 이웃의 대등한 국가⁴³⁸⁾ 이나 흉노가 북쪽 땅에 위치해 날씨가 추우니 만물을 죽이는 냉기가 일찍 내리기 때문에 [짐이] 관리에게 시켜 해마다 선우에게 일정량의 차조, 누룩, 황금, 견포, 명주솜 등을 보내도록 할 것이오. 지금 천하가 크게 태평하게 되어 만백성이 즐거워하고 있소. 오직⁴³⁹⁾ 짐과 선우는 [만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하오. 짐이 지난 일을 되돌아보니 그것은 하찮은 일이고 사소한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모두가] 모신(諫臣)의 계략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니 [이런 것] 모두가 형제 나라로서의 친분을 별릴 만한 것이 못 되오. 짐이 듣기에 하늘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덮지 않고 땅도 어느 한쪽만을 치우치게 신지 않는다고 했소. 짐과 선우는 모두 사소한 사건⁴⁴⁰⁾ 등을 흘려버리고 같이 대도(大道)를 걸으며 과거의 잘못[舊惡]을 깨 버림으로써 장구한 대책을 세워 양국 백성들이 한 집안의 식구처럼 살 수 있게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래로는 물고기나 자라에 미치고, 위로는 나는 새에 이르기까지, 발로 걸어

434) 降: ‘내려간다’는 것으로 ‘이익을 쫓아간다’는 의미이다.

435) 『史記』에는 “今聞漂惡民貪降其進取之利，倍義絕約”으로 되어 있다.

436) 『史記』에는 “闐然”으로 되어 있다.

437) 『史記』에는 “天下莫不咸便”으로 되어 있다.

438) 『史記』에는 “鄰國之敵”으로 되어 있다.

439) 『史記』에는 “獨”이 없다.

440) 『史記』에는 “捐往細故”로 되어 있다.

다니는 것과 입으로 숨 쉬는 것, 그리고 꿈틀거리는 부류까지 편안하고 이익을 얻게 하여 위태로움을 피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오.⁴⁴¹⁾ 그러므로 오는 자를 막지 않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니, 다 함께 지난 일을 잊어버립시다. 짐은 흉노로 도망쳤거나 잡혀 온 백성을 풀어주겠소.⁴⁴²⁾ 선우도 장니(章尼)⁴⁴³⁾ 등에 대해 말하지 마시오. 짐이 듣건대 옛날의 제왕은 약속⁴⁴⁴⁾을 분명히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오. 선우가 [화친에] 뜻이 있다면⁴⁴⁵⁾ 천하는 크게 편해질 것이고, 화친한 뒤에 한나라는 먼저 [약속을 어기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오. 선우는 [이런 짐의 뜻을] 잘 살피 주시오.”

單于既約和親，於是制詔御：「匈奴大單于遺朕書，和親已定，亡人不足以益衆廣地，匈奴無入塞，漢無出塞，犯今約者殺之，可以久親，後無咎，俱便。朕已許，其布告天下，使明知之。」

선우도 이미 화친을 약속하니 이에 [문제가] 어사(御史)⁴⁴⁶⁾에게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렸다.⁴⁴⁷⁾ “흉노대선우가 짐에게 편지를 보내와 이미 화친이 결정되었다.⁴⁴⁸⁾ [흉노에서] 도망해 온 사람들이⁴⁴⁹⁾ 인구를 더해 주는 것도 영토를 넓혀 주는 것도 아니니, 흉노 [사람]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한나라 [사람]도 국경을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이번의 약속을 어기는 자를 베면 오래도록 화친할 수 있고 뒷날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 모두가

441) 『史記』에는 “莫不就安利而辟危殆”로 되어 있다.

442) 漢나라 사람이 匈奴에 도망간 사람을 추적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443) 章尼: 漢나라로 도망쳐온 匈奴 사람이다.

444) 『史記』에는 “今約”으로 되어 있다.

445) “留志”는 화친할 생각이 있음을 의미한다.

446) 御史: 관직의 명칭으로 ‘御史大夫’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御史大夫는 皇帝의 옆에서 文書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때문에 관리들에게 하달되는 皇帝의 詔書를 만들어 ‘制詔御史’ 또는 ‘制詔丞相御史’라고 했다.

447) 『史記』에는 “曰”이 있다.

448) 『史記』에는 “言”이 있다.

449) 亡人: 章尼 등과 같이 漢나라에 투항한 匈奴 사람들을 말한다(주443) 참조).

편하게 될 것이다. 짐이 이미 [이를] 허가하였다.⁴⁵⁰⁾ 그것을 천하에 포고하여 분명하게 알게 하도록 하라.”

後四年，老上單于死，子軍臣單于立，而中行說復事之。漢復與匈奴和親。

그로부터 4년 뒤에⁴⁵¹⁾ 노상선우⁴⁵²⁾가 죽고 [그의] 아들 군신(軍臣)선우⁴⁵³⁾가 즉위하니 중항열이 그를 다시 섬겼다. 한나라는 다시 흉노와 화친을 하였다.⁴⁵⁴⁾

軍臣單于立歲餘，匈奴復絕和親，大入上郡·雲中各三萬騎，所殺略甚衆。於是漢使三將軍軍屯北地，代屯句注，趙屯飛狐口，緣邊亦各堅守以備胡寇。又置三將軍，軍長安西細柳·渭北棘門·霸上以備胡。胡騎入代句注邊，烽火通於甘泉·長安。數月，漢兵至邊，匈奴亦遠塞，漢兵亦罷。後歲餘，文帝崩，景帝立，而趙王遂乃陰使於匈奴。吳楚反，欲與趙合謀入邊。漢圍破趙，匈奴亦止。自是後，景帝復與匈奴和親，通關市，給遺單于，遺翁主如故約。終景帝世，時時小入盜邊，無大寇。

군신선우가 즉위한 지 일 년 남짓 지나⁴⁵⁵⁾ 흉노가 또 다시 화친을 끊고 대거 상군과 운중

450) 『史記』에는 “朕已許之”로 되어 있다.

451) “後四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漢文帝 後元 4년(전160)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老上單于가 실제로 사망한 연도는 後元 3년(전161)이기 때문이다. 또한 “後四年”이라고 한 것은 다음에 벌어진 文帝와 匈奴의 화친 논의가 전개된 것이 後元 4년(전160)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452) 『史記』에는 “老上稽粥單于”로 되어 있다.

453) 軍臣單于(재위 전161~전126): 匈奴의 4대 單于이다. 冒頓單于의 손자로 부친 老上單于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부친이 漢나라와 체결하였던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漢의 북변을 여러 차례 침범하였다. 景帝 때에는 漢나라의 公主를 연지로 맞이했고, 貢納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빈번히 교역함으로써 이득을 보았다. 그러나 武帝가 즉위한 뒤로는 다시 침공을 시작하여 서로 항쟁을 되풀이함으로써 치세 후반부터 점차 쇠퇴하였다.

454) 『史記』에는 “既立，孝文皇帝復與匈奴和親。而中行說復事之。”로 내용이 도치되어 있다.

455) 『史記』에는 “四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고 『漢書』의 기록이 정확하다.

[군]을 각각 3만 명 기병으로 들어와⁴⁵⁶⁾ 죽이고 노략질을 아주 많이 하였다.⁴⁵⁷⁾ 이에 한나라에 서는 세 명의 장군⁴⁵⁸⁾을 북지에, 대에서는 구주산에, 조(趙)에서는 비호구(飛狐口)⁴⁵⁹⁾ 주둔시켜 변경을 따라⁴⁶⁰⁾ 또한 수비를 단단하게 함으로써 흉노의 침입에 대비했다. 또한 세 명의 장군들을⁴⁶¹⁾ 배치하여 장안 서쪽의 세류(細柳)⁴⁶²⁾와 위수(渭水) 북쪽의 극문(棘門),⁴⁶³⁾ 패상(霸上)⁴⁶⁴⁾에 진을 쳐 흉노에 대비하게 했다. 흉노의 기병이 대[군]의 구주[산] 주변으로 들어와 봉화불이 감천에서 장안까지 전달되었다. 수개월이 지나 한나라 병사들이 변경에 이르니 흉노가 또한 변경 장성에서 멀리 가버려⁴⁶⁵⁾ 한나라 군사들 역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일 년 남짓 지나 문제가 봉어하고 경제가 즉위하니⁴⁶⁶⁾ 조왕(趙王) 수(遂)⁴⁶⁷⁾가 몰래 흉노로 사신을 보냈다. 오나라와 초나라 [등 일곱 나라]의 반란⁴⁶⁸⁾이 일어났을 때 [흉노는] 조나라

456) 文帝 後元 6년(전158)에 匈奴가 대거 雲中을 공격했을 때 그의 방어를 맡았던 것은 魏尚이었다.

457) 『史記』에는 “所殺略甚衆而去”로 되어 있다.

458) 세 명의 장군은 車騎將軍 令免, 將軍 蘇意, 그리고 將軍 張武였다. 北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던 將軍은 張武였다(『漢書』 권10 「文帝紀」: 130).

459) 飛狐口: 험한 요새지로 代郡의 남쪽에 있는데, 南으로 燕과 趙가 맞닥뜨렸던 곳이다.

460) 緣邊: 漢나라와 匈奴가 서로 접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前漢시대에는 9개의 郡이 匈奴와 접해 있었다. 그것은 五原郡, 朔方郡, 雲中郡, 代郡, 雁門郡, 定襄郡, 北平郡, 上谷郡, 漁陽郡 등이었다(순서대로 주758), 주521), 주154), 주156), 주155), 주537), 주165), 주163), 주164) 참조).

461) 세 명의 장군은 河內太守 周亞夫, 宗正 劉禮, 祝茲侯 徐厲 등이었다(『史記』 권10 「孝文本紀」: 432).

462) 細柳: 지금의 陝西省 咸陽市 서남쪽 渭河 北岸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周亞夫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463) 棘門: 秦나라의 宮門 명칭으로 지금의 陝西省 咸陽市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徐厲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464) 霸上: 지명으로 ‘霸頭’라고도 한다. 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劉禮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465) 『史記』에는 “匈奴亦去遠塞”로 되어 있다.

466) 文帝가 後元 7년(전157) 유월 己亥(초1일) 未央宮에서 봉어했는데, 46세였다. 유월 초9일, 文帝의 中子 劉啟가 孝景帝(재위 전156~전141)로 즉위하였다. 『史記』에는 “孝景帝”로 되어 있다. 『漢書』에서는 “景帝”로 표기하고 있다.

467) 劉遂: 漢 高祖의 손자로 幽王 友의 아들이다. 文帝가 즉위하자 趙王이 되었다. 景帝시기에 晁錯가 영지를 줄이는 것에 반발해 吳·楚의 반란에 참여하였다가 패배하자 자살하였다.

468) 이를 보통 ‘吳楚七國의亂’이라고 부른다. 漢 景帝 3년(전154) 正月 吳王 劉濞가 조정의 削藩에 반대하여 楚王 劉戊, 남쪽의 閩, 동쪽의 越, 북쪽의 匈奴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이월 太尉 周亞夫

와 모의하여 변경을 침입하고자 했다. 한나라가 조나라를 포위해 격과하니 흉노도 [침입 기도를] 그만두었다.⁴⁶⁹⁾ 이로부터 이후에⁴⁷⁰⁾ 경제가 다시 흉노와 화친을 하고⁴⁷¹⁾ 관시(關市)를 열어 흉노에 [물자를] 보내주고, 한나라 공주를 보냈는데, [이는] 본래의 약속과 같았다. 마침내 경제의 시대에 때때로⁴⁷²⁾ 소규모의 변경 침범이 있었으나 대규모 침입은 없게 되었다.⁴⁷³⁾

武帝即位，明和親約束，厚遇關市，饒給之。匈奴自單于以下皆親漢，往來長城下。

무제⁴⁷⁴⁾가 즉위하자 [흉노와] 화친의 맹약을 분명히 하고⁴⁷⁵⁾ 대우를 후하게 하여 관시를 통해

등이 출전하여 반란을 진압하자, 삼월 반란을 일으킨 왕들이 자살하거나 피살되었다.

469) 윗와 楚가 패배해 七王 聯合軍의 주력이 약화되자 漢 조정에서는 曲周侯 鄴寄를 보내 趙를 공격하였다. 趙王이 邯鄲을 지키면서 대치하기를 7개월 정도 하였고, 匈奴도 윗와 楚의 패전 소식을 듣고 군사 행동을 중지하였다. 欒布가 齊를 멸망시키고 趙를 공격하여 성이 파괴되자 劉遂 역시 자살하였다.

470) 『史記』에는 “自是之後”로 되어 있다.

471) 景帝 元年(전156) 4월에 황제가 御史大夫 陶青을 보내 和親하고 2년(전155)과 5년(전152)에 和親使節을 다시 匈奴로 보냈다.

472) 『史記』에는 “時”로만 되어 있다.

473) 景帝시기에 匈奴의 침공을 검토해 보면, 2년(전155)에 燕나라를 공격한 것, 6년(전151)에 雁門郡을 공격하여 武泉에 이르러 上郡을 공격한 것, 後元 2년(전142)에 雁門을 공격한 것인데, 이 모두가 소규모의 소요에 불과하였다.

474) 景帝가 後元 3년(전141) 정월 甲子(28일)에 붕어하자 같은 날 즉위하였다. 『史記』에는 “武帝”가 “今帝”로 되어 있다.

武帝(재위 전141~전87): 이름은 劉徹. 묘호는 世宗. 즉위 후 前代의 權臣들을 면직시키고 어질고 겸손한 선비를 등용하여 관리의 자질을 향상시켰다. 五經博士를 두어 儒學에 중점을 두고 전127년부터 諸侯國을 왕의 여러 아들에게 分封하여 中央集權을 강화하였다. 이후에 全國을 13州로 나누고, 주마다 刺史를 두어 군수를 감독시켰다. 또 運河를 굴착하여 농지의 관개와 운송을 도왔다. 대외적으로는 張騫을 大月氏로 파견하고, 장군 衛靑, 霍去病, 李廣 등을 시켜 匈奴를 토벌시켜 오르도스 지방을 회복하여 두 개의 郡을 설치하였다. 전119년에는 衛靑이 匈奴를 고비 북쪽으로 내쫓았다. 河西에 있던 匈奴 渾邪王이 항복하자 그곳에 4군을 설치해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교통로를 확보하였다. 이후 西域 諸國의 入貢이 계속되었고 전104년에는 李廣利를 시켜 파미르 고원 북서에 있는 페르가나[大宛國]를 정벌하였다. 匈奴에 대한 방어와 西域 교통로 유지를 위해 漢人을 이주시키고 屯田을 두었다. 남으로 閩越·東越 두 왕국을 병합하였다. 전111년에는 番禺(지금의 廣州)에 도읍한 南越을 멸망시킨 다음 9개의 郡을 설치했다. 四川省 변경에서 雲南·貴州에 있는 冉駹·巂·笮·夜郎·滇 등의 종족을 귀순시

[물자를] 풍부하게 주었다. 흉노도 선우⁴⁷⁶⁾ 이하가 모두 한나라와 친근해져 장성 근처까지 오고갔다.

漢使馬邑人聶翁壹間闌出物與匈奴交易，陽爲賣馬邑城以誘單于。單于信之，而貪馬邑財物，乃以十萬騎入武州塞。漢伏兵三十餘萬馬邑旁，御史大夫韓安國爲護軍將軍，護四將軍以伏單于。單于旣入漢塞，未至馬邑百餘里，見畜布野而無人牧者，怪之，乃攻亭。時雁門尉史行微，見寇，保此亭，單于得，欲刺之。尉史知漢謀，乃下，具告單于。單于大驚，：「吾固疑之。」乃引兵還。出：「吾得尉史，天也。」以尉史爲天王。漢兵約單于入馬邑而縱(兵)，單于不至，以故無所得。將軍王恢部出代擊胡輜重，聞單于還，兵多，不敢出。漢以恢本建造兵謀而不進，誅恢。自是後，匈奴絕和親，攻當路塞，往往入盜於邊，不可勝數。然匈奴貪，尚樂關市，者漢財物，漢亦通關市不絕以中之。

한나라가 마음(馬邑)⁴⁷⁷⁾ 사람인 섭옹일(聶翁壹)⁴⁷⁸⁾을 시켜 [금령을 어기고] 몰래 국경을 넘어 물자를 내어⁴⁷⁹⁾ 흉노와 교역을 하게 했는데, [섭옹일이] 마음성을 파는 것처럼 해서

키고 6개의郡을 설치했다. 동으로는 朝鮮을 공격해 王劍城을 함락시키고 전108년 樂浪·眞番·臨屯·玄郡 등 4개의郡을 두었다. 성공적인 外治의 성과에 비해 宮殿과 離宮을 짓고, 不老長生을 믿어 方士를 모아 泰山에 封禪하고 각지를 순행하여 재정을 압박함으로써 내치에서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增稅·新稅에다 鹽·鐵을 전매하고 均輸·平準法 등을 실시하는 등 재정보호 정책을 썼다. 또한 武功爵을 팔기도 했으나 관리의 부정이 심해지고 국민의 생활도 궁핍해져 皇太子의 반란(巫蠱의亂)이 일어났다. 晚年에는 외정을 중지하고 다시 변경에 있던 輪臺의 屯田을 폐지하는 등 백성을 다스리는 데 힘썼다.

475) 武帝는 즉위한 이후에 과거에 맺었던 화친조약을 다시 확인하고 시집보내지 않은 公主를 匈奴로 보냈다. 建元 6년(전135) 匈奴가 화친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해 오자 그와 관련하여 조정에서는 논의를 벌였다. 이때 大行王 恢는 군사를 동원해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御史大夫 韓安國이 화친을 주장하였다. 관료들이 모두 韓安國의 주장에 동조하자 武帝 역시 화친을 허락하였다. 이로 인해 형성된 일시적인 화친 국면은 元光 2년(전133) 여름 6월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깨졌다.

476) 匈奴의 軍臣單于를 지칭한다.

477) 馬邑: 縣 명칭으로 漢代에 雁門郡에 속했는데 지금의 山西省 朔縣 일대이다.

478) 성은 聶이고 이름은 壹이다. “翁”이라는 것은 老人을 지칭한다.

479) 間闌: 불법적으로 장성을 빠져나가 사적인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선우를 유인하도록 했다.⁴⁸⁰⁾ 선우가 [이를] 믿고 마음의 재물을 탐내 10만의 기병을 이끌고 무주[현](武州縣)⁴⁸¹⁾의 요새로 들어왔다. 한나라에서는 30여만의 [병력을] 마음 근방에 숨겨 두고 어사대부⁴⁸²⁾ 한안국(韓安國)⁴⁸³⁾을 호군장군(護軍將軍)⁴⁸⁴⁾으로 삼아 네 명의 장군⁴⁸⁵⁾을

480) 馬邑의 聶壹이 벌인 匈奴 유인 술책에 대한 내용은 「韓安國列傳」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雁門郡 馬邑의 호족 聶壹이 大行王 恢를 통해 皇帝께 아뢰었다. “우리 변방 사람들이 匈奴와 잘 화친하고 있는데다 그들도 우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미끼로 그들을 유인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속마음을 떠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에 좋다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聶翁壹을 간첩으로 삼아 匈奴로 도망해 들어가게 했다. 聶壹은 單于를 만나서 말했다. “제가 馬邑의 縣丞과 縣丞과 관리들을 뺀 뒤 城邑을 가진 채로 투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곳의 재물을 몽땅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單于는 聶壹이 마음에 들었고 또한 그를 믿었으므로 곧 허락을 내렸다. 그래서 聶壹은 다시 馬邑으로 돌아와 사형수의 머리 몇 개를 베어 馬邑 성벽에다 내걸었다. 그리고 선우의 사자에게 귀띔했다. “보다시피 馬邑의 長吏들을 모조리 베어 죽였으니 바빠 달려가 내침해 오도록 일러 주시오.”(『漢書』 권52 「竇田灌韓列傳」: 2403~4).

481) 武州縣: 縣 명칭으로 漢代에는 雁門郡에 속해 있었다. 지금의 山西省 在雲縣의 남쪽에 있었다.

482) 御史大夫: 관직 명칭으로 秦나라 시기에는 御史였다. 이후에 명칭이 바뀌어 중앙의 관직이 되었다. 漢代에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丞相의 다음 지위에 해당했다. 秩이 中二千石이었다. 제도적으로 丞相은 金印紫綬를, 御史大夫는 銀印青綬를 갖고 있었다. 관위가 丞相에 비해 낮지만 御史大夫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국가의 모든 정무가 丞相府와 御史府에 귀속되어 있었고, 당시 두 개의 府가 병칭되었기 때문이다. 御史大夫는 내적으로 本朝의 風化를 잇고, 밖으로는 丞相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돕는 등 그가 맡은 임무가 막중하였다.

483) 韓安國: 字는 長孺로 梁나라 成安(지금의 河南省 동부) 사람이다. 韓非子와 雜家の 학설을 騶 땅의 田先生에게서 사사받은 다음에 梁孝王의 中大夫가 되었다. 吳楚七國의 반란 시기에 梁나라의 將이 되어 반란 진압에 참가해 공을 세웠다. 이후에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다가 梁王의 2,000석의 봉록을 받는 內史가 되었다. 梁의 孝王이 죽고 共王이 즉위한 이후에 은퇴했다가 武帝時期에 田蚡이 太衛가 되었을 때 北地郡의 都尉가 되었다가 大司農이 되었다. 田蚡이 丞相일 때에 安國이 御史大夫가 되어 匈奴와의 화친을 주장하였다. 이후 馬邑에서 匈奴를 치려는 계획에 참가하여 護軍將軍으로 작전을 지휘했다. 御史大夫가 된 지 4년 후에 丞相 田蚡이 죽자 丞相 대행을 하던 중 皇帝가 行幸할 때 先導 수레를 지휘하다가 그만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 그를 丞相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다리를 몹시 절어 皇帝는 할 수 없이 平棘侯 薛澤을 丞相으로 삼았다. 결국 丞相이 못되고 사직했다가 다시 中尉로 복직되어 衛尉로 승진했다. 衛青이 雁門에서 匈奴를 치려고 할 때 材官將軍으로 漁陽에 주둔했다. 하지만 匈奴의 공격을 받아 패전하였다가 문책당해 右北平(河北省 東北部와 熱河省 南部)에 주둔하는 등 좌천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다가 元朔 2년(전127)에 죽었다(『漢書』 권52 「竇田灌韓列傳」: 2394).

484) 護軍將軍: 武官의 명칭이다. 漢代에는 大將軍에서 前後左右將軍까지 모두를 감독하며 다스리는 황제의

통솔하여 [복병을 두어] 선우를 숨어서 기다렸다. 선우가 이미 국경에 돌입해 마음으로부터 백여 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왔다가 들판에 가축들이 가득 널려 있으나 목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바로 정장(亭障)⁴⁸⁶을 공격했다. 이때 안문위사(雁門尉史)⁴⁸⁷가 장성을 순시하다가 [선우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정(亭)을 지키게 되었는데, 선우가 [그를] 잡아 베고자 했다. 위사가 한나라 군대의 계획을 알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자⁴⁸⁸ 선우에게 [한나라 군대가 있는 곳을] 모두 고했다.⁴⁸⁹ 선우가 크게 놀라 “나는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바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국경을] 벗어나면서 말하였다. “내가 위사를 잡은 것은 하늘(天)의 뜻이다.⁴⁹⁰” [그래서] 위사를 ‘천왕(天王)’이라 했다. [한편] 한나라 군대는 선우가 마음에 들어오면 군사를 내어 [선우를] 치려고 약속했으나 선우가 오지 않자 한나라 군사들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한나라의 장군 왕희(王恢)⁴⁹¹의 부대는 대[군]에서 나와 흉노의 치중(輜重)부대⁴⁹²를 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우가 돌아간다는 [소식]을

최고급 무관이었다. 武帝時期에는 전쟁이 빈발하여 많은 將軍을 두었는데, 원정의 지명이나 대상 내지는 이끄는 부대의 종류 또는 임무에 따라 그 명칭이 결정되었다. 韓安國이 護軍將軍으로 임명된 것은 네 명의 장군을 통솔해야 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史記』에는 “護軍”으로 되어 있다.

485) 네 명의 장군은 驍騎將軍 衛尉 李廣, 輕車將軍 太僕 公孫賀, 將屯將軍 大行王 恢, 材息將軍 太中大夫 李息 등이다. 네 명의 장군은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馬邑 옆에 있는 谷中에 매복해서 單于를 기다리고 있었다(『漢書』 권66 「衛青霍去病列傳」: 2472).

486) 亭: 본래 地方 治安을 담당하는 機構로 10리 1亭에 亭長 1명을 두었다. 盜賊을 막는 일을 담당하고 주민들의 일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변방에 있는 봉수대를 亭 또는 亭障이라고 하는데, 변경에 적군의 동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세운 건축물이었다.

487) 漢律에 따르면 변경에 가까이 있는 郡에는 모두 尉를 두었는데, 百里마다 한 사람을 두었다. 士史와 尉史 각 두 사람이 돌면서 장성을 순찰하였다. 雁門은 요새였기 때문에 障塞을 두었고, 雁門尉史는 鄣尉 또는 塞尉에 속한 尉史였다.

488) 顏師古는 尉史가 亭樓 위에 있을 때 匈奴가 그를 창으로 찌르려고 하자 무서워 스스로 계락을 말하였다고 설명했다.

489) 『史記』에는 “[그가] 漢나라 군대의 계획을 알고 있다가 單于에게 잡혀 [單于가 위사를] 죽이려고 하자 尉史가 바로 單于에게 漢나라 군대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知漢兵謀, 單于得, 欲殺之, 尉史乃告單于漢兵所居: 2905).”로 되어 있어 내용이 다르다.

490) 『史記』에는 “吾得尉史, 天也, 天使若言.”으로 되어 있는데 저본에는 “天使若言”이 없다.

491) 王恢: 燕나라 사람으로 여러 차례 변경의 小吏로서 일했기 때문에 匈奴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王恢는 이번 馬邑에서 매복했다가 기습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사람의 하나였다.

듣고 군사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가 [공격하지] 못했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왕]희가 원래 이번의 계략을 세웠는데 나아가 공격하지 못하자 [왕]희를 참했다.⁴⁹³⁾ 그 이후로⁴⁹⁴⁾ 흉노는 화친을 끊고 [연결] 도로에 있는 요새를 공격했고, 왕왕 한나라의 변경으로 들어와 도둑질하는 것이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흉노는 탐욕스럽게 여전히 관시를 좋아해 한나라의 재물을 밝히니⁴⁹⁵⁾ 한나라에서도 또한 관시를 열고 끊지 않음으로써 [흉노의 비위를] 맞추었다.⁴⁹⁶⁾

自馬邑軍後五歲之秋，漢使四將各萬騎擊胡關市下。將軍衛青出上谷，至龍城，得胡首虜七百人。公孫賀出雲中，無所得。公孫敖出代郡，爲胡所敗七千。李廣出雁門，爲胡所敗，匈奴生得廣，廣道亡歸。漢囚敖·廣，敖·廣贖爲庶人。其冬，匈奴數千人盜邊，漁陽尤甚。漢使將軍韓安國屯漁陽備胡。其明年秋，匈奴二萬騎入漢，殺遼西太守，略二千餘人。又敗漁陽太守軍千餘人，圍將軍安國。安國時千餘騎亦且盡，會燕救之，至，匈奴乃去，又入雁門殺略千餘人。於是漢使將軍衛青將三萬騎出雁門，李息出代郡，擊胡，得首虜數千。其明年，衛青復出雲中以西至隴西，擊胡之樓煩·白羊王於河南，得胡首虜數千，羊百餘萬。於是漢遂取河南地，築朔方，復繕故秦時蒙恬所爲塞，因河而爲固。漢亦棄上谷之斗辟縣造陽地以予胡。是歲，元朔二年也。

마음의 전투가 있던 지 5년⁴⁹⁷⁾ 후 가을,⁴⁹⁸⁾ 한나라에서는 네 장[군]⁴⁹⁹⁾에게 각각 만 기씩을

492) 輜重: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부대를 말한다.

493) 이 밖에도 『韓長孺傳』에는 王恢가 자살했다고 했고, 『漢書』 권6 「武帝紀」에서는 獄死했다고 하는 등 다양한 기록이 있다.

494) 『史記』에는 “自是之後”로 되어 있다.

495) 『史記』에는 “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다.

496) 『史記』에는 “漢亦尙關市不絕以中之”로 되어 있다.

497) 漢 武帝 元光 6년(전129)이다.

498) 『漢書』 권6 「武帝紀」에는 “봄”으로 되어 있는데, 본기의 기록이 타당하다.

499) 네 명의 장군은 車騎將軍 衛青, 騎將軍 公孫敖, 輕車將軍 公孫賀, 驍騎將軍 李廣 등이다. 『史記』에는 “將”이 “將軍”으로 되어 있다.

주어 관시 부근의 흉노를 치게 했다. 장군 위청(衛靑)⁵⁰⁰은 상곡[군]⁵⁰¹을 나와 용성(龍城)⁵⁰²에 이르러 흉노의 수급과 포로 7백 인을 얻었다. 공손하(公孫賀)⁵⁰³는 운중[군]⁵⁰⁴을 나와 [흉노를 공격하였으나] 전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공손오(公孫敖)⁵⁰⁵는 대[군]을 나와

500) 衛靑(?~전106): 字가 仲卿이고 河東 平陽(지금의 山西省 臨汾市 서남쪽) 사람이다. 부친의 이름은 鄭季인데 그가 관리 시절에 平陽侯의 집에서 일하고 있다가 平陽侯의 비첩 위온과 밀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그의 이복누이 衛子가 平陽公主(武帝의 누나, 平陽侯의 夫人)를 모시다가 武帝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太中大夫(궁중고문관)가 되었다. 元光 5년(전127) 車騎將軍으로 匈奴를 공격한 이래 元朔 元年(전128)에는 河南 땅을 되찾아 朔方郡을 설치함으로써 長平侯가 되었다. 그 이후 이어진 匈奴의 공세에 대응해 元朔 5년(전124) 봄에 다시 高關에서 출정하여 匈奴의 右賢王을 격파하여 大將軍이 되었다. 그 이후에는 霍去病과 함께 大司馬가 되었다. 匈奴와의 계속된 전투에서 도합 7차례 참여하여 위협을 제거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漢書』 권66 「衛靑霍去病列傳」: 2971~2477).

501) 上谷郡: 郡의 명칭으로 지금의 河北省 懷來縣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주163) 참조.

502) 『史記』에는 “龍城”으로 되어 있다. 匈奴 單于庭이 있었던 곳을 말한다(주237) 참조.

503) 公孫賀: 義渠(秦나라에게 망한 西戎의 國名) 출신으로 그의 조상은 匈奴이다(주117) 참조). 아버지 渾邪는 景帝 때 平曲侯가 되었으나 죄를 지어 侯를 잃었다. 武帝가 太子 시절이었을 때 솜이였다. 武帝가 즉위하자 8년에 太僕 자격으로 輕車將軍이 되어 馬邑에 주둔했다. 4년이 지나자 輕車將軍으로 雲中郡에 출격했다. 5년이 지나서 輕車將軍으로 大將軍을 따라 출격해 軍功을 쌓고 봉을 받아 南甯侯가 되었다. 1년이 지나 左將軍으로 제차 大將軍을 따라 定襄에서 출격했으나 軍공은 없었다. 4년이 지나 耐禁에 걸려 侯를 잃었다. 8년이 지나서 浮沮將軍으로 五原에서 2천여 리를 진출했으나 軍공은 없었다. 8년이 지나자 太僕에서 丞相이 되어 葛繹侯로 봉해졌다. 일곱 명의 장군 중 하나로 匈奴에 출격했지만 큰 功은 없었다. 그러나 다시 侯가 되고 丞相이 되었다. 그의 아들 公孫敬聲이 陽石公主(孝武帝의 皇女)와 밀통하고 남을 저주한 죄로 일족이 몰살되어 후사도 끊어졌다(『漢書』 권66 「衛靑霍去病列傳」: 2941~2).

504) 雲中郡: 郡의 명칭으로 漢代에 11개의 현으로 이루어졌다. 郡의 治所는 內蒙古自治區 托克托縣에 있었다(주154) 참조).

505) 公孫敖: 義渠 출신의 장군이다(주117) 참조). 그는 먼저 郎官으로 武帝를 섬겼다. 그는 衛靑을 구한 것으로 권을 갖게 되었다. 武帝가 즉위한 지 12년에 騎將軍이 되어 代郡에서 출격했다. 사졸을 7천 명이나 잃어 참살될 뻔했으나 속전을 내고 서민이 되었다. 5년이 지나 校尉로서 大將軍을 따라 출격해 軍공을 세워 合騎侯가 되었다. 1년이 지나서 中將軍으로 大將軍을 따라 제차 定襄에서 출격했으나 軍공은 없었다. 2년이 지나서 將軍으로 北地郡에 출격해 驃騎將軍과의 약속기일에 지체돼 참좌에 해당됐으나 속전을 내고 서민으로 다시 떨어졌다. 2년이 지나서 校尉로 大將軍을 따라 출격했지만 軍공은 없었다. 14년이 지나 因杆將軍으로 受降城을 구축했다. 7년이 지나서 다시 因杆將軍으로 匈奴를 쳤으나 余吾水에 이르러 많은 사졸을 잃었다. 형리에게 인도되어 참형을 당했으나 거짓 죽은 체하다 도망했다. 5, 6년 동안 민간에 숨어 살다가 뒤에 발각되어 다시 옥에 갇혔다. 그의 아내가 지은 巫蠱 죄로 일족이

흉노에게 7천 명⁵⁰⁶⁾을 잃었다. 이광(李廣)⁵⁰⁷⁾은 안문[군]을 나와 흉노에게 패해 흉노가 [이]광을 사로잡았으나 [이]광이 이후에 도망쳐 돌아왔다. 한나라에서는 [공손]오와 [이]광을 잡아다가두었는데, [공손]오와 [이]광은 속전을 내고 [풀려나] 서인이 되었다. 그해 겨울에⁵⁰⁸⁾ 흉노의 수천 명⁵⁰⁹⁾ [한나라의 변경을] 도둑질하였는데, 어양군(漁陽郡)⁵¹⁰⁾[의 피해가] 더욱 심했다. 한나라에서는 장군 한안국을 어양[군]에 주둔시켜 흉노[의 침입]에 대비케 했다. 그 이듬해 가을⁵¹¹⁾ 흉노의 기병 2만이 한나라로 들어와 요서(遼西)⁵¹²⁾ 태수(太守)를 죽이고 2천여 명을 잡아갔다. [흉노가] 또한 [변경 안으로] 들어와⁵¹³⁾ 어양 태수의 군대 천여 명을

몰살되었다(『漢書』 권55 「衛青霍去病列傳」: 2491).

506) 『史記』에는 “七千餘人”으로 되어 있다.

507) 李廣: 隴西 成紀(지금의 甘肅省 秦安縣) 사람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남다른 弓術과 騎馬術로 뛰어난 장수로 이름을 떨쳤다. 文帝 14년(전166) 匈奴가 대거 蕭關을 침입하자 이를 막은 공으로 발탁되어 郎中(侍從)과 武騎常侍(侍從騎兵 武官)가 되었다. 景帝 시기에 都尉가 되었다가 騎郎將(侍從騎兵隊長)으로 승진했다. 그 이후 吳楚七國의 난 시기에 驍騎都尉로서 공을 세웠으나 梁王한테서 將軍의 인수를 몰래 받은 것이 탄로나 개선한 뒤에도 상이 없었다. 이후 上谷郡(河北省 廷慶縣 일대) 태수로 인근을 진전하면서 匈奴와 전투를 벌였다. 이후 隴西, 北地, 右北平 등의 변방 太守를 지냈다. 그리고 武帝時期에는 馬邑 전투에서 驍騎將軍으로 匈奴 원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잡혀 있다가 돌아와 참형을 면하고 庶인이 되었다. 이후 右北平郡 太守가 되어 匈奴를 방어하였다. 匈奴가 그를 飛將軍이라 부르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였다. 이후 元朔 6년(전123) 後衛軍의 將軍이 되어 大將軍 衛青의 군대에 소속되었다. 定襄(山西省 大同市 北西)으로 나가 匈奴를 쳤다. 9년(전220)에는 郎中丞으로 博望侯 張騫과 같이 출정했다가 패전하였다. 元狩 4년(전119)에 霍去病이 출정할 때 大將軍 衛青을 따라 참전하였다가 자살했다. 청렴하여 상을 받으면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어 버렸으며 음식도 사졸들의 것과 같은 것을 먹었다. 그는 죽기까지 40여 년 동안 2천 석의 俸祿을 받는 신분이면서도 집에는 재산이 남지 않았다. 또한 일생 동안 재물에 관해서 말한 적도 신경을 쓴 적도 없었다고 한다(『漢書』 권54 「李廣蘇建列傳」: 2439~2448).

508) 『漢書』 권6 「武帝紀」에는 가을로 되어 있다.

509) 『史記』에는 “數人”으로 되어 있다.

510) 漁陽郡: 郡의 명칭으로 漢代에 22개의 縣이 이루어져 있었고 郡의 治所는 漁陽縣이었다(주164) 참조).

511) 『漢書』 권6 「武帝紀」에서는 이 사건을 元朔 元年(전128) 가을로, 「衛將軍列傳」에서는 元朔 2년(전127)이라고 기록했으나 전자의 기록이 정확하다.

512) 遼西郡: 郡의 명칭으로 漢代에는 遼西郡 아래에 14개의 縣이 있었다. 郡 治所는 且慮였는데, 지금의 河北省 盧龍縣이다(주166) 참조).

513) 『史記』에는 “胡又入敗漁陽太守軍千餘人”로 되어 있다.

패배시키고 한나라 장군 [한]안국을 포위했다. [한]안국은 마침 천여 기의 병력마저 전멸하려 하였는데, 때마침 연(燕)⁵¹⁴[왕]이 구하러가⁵¹⁵ [군대가] 도착하자 흉노가 바로 물러났다. 또한 [흉노가] 안문[군]으로 들어와⁵¹⁶ 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갔다. 이에 한나라에서는 장군 위청으로 하여금 3만 기를 거느리고 안문[군]에서, 이식(李息)⁵¹⁷은 대군에서 나아가 흉노를 공격하게 했다.⁵¹⁸ [그 결과 흉노의] 수급과 포로 수천 명을⁵¹⁹ 얻었다. 그 이듬해에 [위]청이 다시 운중[군]에서 나가 서쪽으로 농서에 이르러 흉노의 누번왕(樓煩王)과 백양왕(白羊王)을 하남(河南)에서 격파하여 흉노의 수급과 포로 수천과 소와 양 백여 만을 얻었다.⁵²⁰ 이에 한나라는 마침내 하남 땅을 빼앗아 삭방[군](朔方郡)⁵²¹을 [설치하고 성을] 쌓고 다시 옛날 진나라의 장군 몽염이 구축했던 장성을 수리하여 황하를 따라 [방비를] 굳게 하였다.⁵²² 한나라는 또한 상곡[군]의 [중심과] 떨어져 있는⁵²³ 현(縣)인 조양(造陽)⁵²⁴ 땅을 버리

514) 燕의 범위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많았다. 이때에는 단지 廣陽郡(지금의 北京市 大興縣과 河北省 固安縣)에 지나지 않았다. 도읍은 薊(지금의 北京市 서남쪽)에 있었다. 이 무렵에 다스렸던 燕王 劉定國은 劉澤의 자손이었다.

515) 『史記』에는 “會燕救至”로 되어 있다.

516) 『史記』에는 “匈奴又入鴈門”으로 되어 있다.

517) 李息: 北地郡 鬱郄人(甘肅省 慶陽縣) 출신으로 처음에는 景帝를 섬겼다. 武帝가 즉위한 지 8년이 되어 材官將軍이 되어 馬邑에 주둔했다. 6년이 지나 장군이 되어 代郡에서 출격했다. 3년이 지나자 將軍이 되어 大將軍을 따라 朔方軍에서 출격했으나 모두 軍功은 없었다. 이후에 세 차례나 將軍이 되었다. 그 후로는 늘 大行(特派大使)의 직에 있었다(『漢書』 권55 『衛青霍去病列傳』: 2491).

518) 元朔 元年(전128) 가을의 일이다.

519) 『史記』에는 “得首虜數千人”으로 되어 있다.

520) 元朔 2년(전127)에 한나라는 河南 땅을 수복하여 匈奴와의 전투에서 최대의 전과를 올려 과거 秦나라의 蒙恬이 확보했던 영역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했다.

521) 朔方郡: 郡의 명칭으로 元朔 2년에 설치되어 밑에 10개의 縣이 있었고 郡治所는 朔方縣이었다.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河套 서북부와 後套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522) 『史記』에는 “因河爲固”으로 되어 있다.

523) “斗辟”에 대하여 顏師古는 “斗는 떨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縣이 [上谷郡의 중심과] 떨어져서 匈奴의 경계 안으로 굽어져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떨어진 현] 안에 造陽 땅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史記』에는 “什辟”으로 되어 있으나 그 뜻은 동일하다.

524) 造陽: 읍의 명칭으로 지금 河北省 赤城縣에서 獨石口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이곳은 燕나라 장성의 동쪽 기점이다(주161) 참조).

듯이 흉노에게 내주었다. 이 해가 원삭(元朔)⁵²⁵⁾ 2년(전127)이었다.

其後冬，軍臣單于死，其弟左谷蠡王伊穉斜自立爲單于，攻敗軍臣單于太子於單。於單亡降漢，漢封於單爲陟安侯，數月死。

그 후 겨울에⁵²⁶⁾ 군신선우⁵²⁷⁾가 죽었다. 그의⁵²⁸⁾ 동생 좌록리왕 이지사(伊穉斜)⁵²⁹⁾가 스스로 서서 선우가 된 [다음에] 군신선우의 태자 어단(於單)을 쳐서 격파했다. 어단이 한나라로 도망해 오자 한나라에서는 어단을 섭안후(涉安侯)로 봉했으나⁵³⁰⁾ 몇 달이 지나지 않아⁵³¹⁾ [그가] 죽었다.

伊穉斜單于既立，其夏，匈奴數萬騎入代郡，殺太守共友，略千餘人。秋，又入鴈門，殺略千餘人。其明年，又入代郡·定襄·上郡，各三萬騎，殺略數千人。匈奴右賢王怨漢奪之河南地而築朔方，數寇盜邊，及入河南，侵擾朔方，殺略吏民甚衆。

이지사선우가 즉위한 그 해 여름⁵³²⁾ 흉노 수만 기가 대군으로 쳐들어와 [대군] 태수 공우(共友)⁵³³⁾를 죽이고⁵³⁴⁾ 천여 명을 잡아갔다. [그 해] 가을⁵³⁵⁾ 흉노가 다시 안문[군]으로 쳐들

525) 『史記』에는 “漢之元朔”으로 되어 있다.

526) 漢 武帝 元朔 3년(전126)이다. 軍臣單于의 재위 기간은 36년이었다.

527) 『史記』에는 “匈奴軍臣單于”로 되어 있다.

528) 『史記』에는 “軍臣單于”로 되어 있다.

529) 伊穉斜(재위 전126~전114): 음은 ‘이지사’이다. 匈奴 제5대 선우이다. 『史記』에는 “伊穉斜”로 되어 있다.

530) 武帝 元朔 3년(전126) 여름 사월 丙子(초7일) 匈奴의 太子 於單을 涉安侯로 봉했고 오월에 죽었다(『漢書』「景武昭宣元成功臣表」第5: 644).

531) 數月死는 於單이 사월에 冊封되어 오월에 죽었다고 할 때 몇 달 되지 않아 죽은 것이 冊封을 받은 다음에 몇 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於單이 漢나라에 항복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죽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史記』에는 “數月而死”로 되어 있다.

532) 漢 武帝 元朔 3년(전126)이다.

533) 共友: 姓이 共이고 이름이 友으로 太守의 이름이다. 『史記』에는 “恭友”로 되어 있다.

어와 천여 명을 죽이고 잡아갔다. 이듬해⁵³⁶)에 [흉노가] 또 대군, 정양[군](定襄郡),⁵³⁷) 상군으로 들어와⁵³⁸) 각각 3만 기로 수천 명을 죽이거나 잡아갔다. 흉노의 우현왕은 한나라가 하남 땅을 빼앗아 삭방에 [성을] 쌓은 것에 원한을 품고 여러 차례 쳐들어와⁵³⁹) 변경을 도둑질하였다. 그리고 하남으로 들어와 삭방[군]을 침범하고 관리와 백성들을 살해하거나 약탈한 것이 아주 많았다.

其明年春，漢遣衛青將六將軍十餘萬人出朔方高闕。右賢王以爲漢兵不能至，飲酒醉。漢兵出塞六七百里，夜圍右賢王。右賢王大驚，脫身逃走，精騎往隨後去。漢將軍得右賢王人衆男女萬五千人，裨小王十餘人。其秋，匈奴萬騎入代郡，殺都尉朱央，略千餘人。

그 이듬해⁵⁴⁰) 봄 한나라는 위청⁵⁴¹)에게 여섯 명의 장군과 십여 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삭방 [군] 고궐⁵⁴²)에서 나가도록 보냈다.⁵⁴³) 우현왕은 한나라의 군대가 [거기까지] 쳐들어 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 군대가 요새에서 육칠백 리나 나와 밤중에 우현왕을 포위했다. 우현왕은 크게 놀라 몸만 빠져 나와 도망갔

534) 『史記』에는 “入殺代郡太守恭友”로 되어 있다.

535) 『漢書』 권6 「武帝紀」: 171에는 元朔 3년(전126) 여름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536) 漢 武帝 元朔 4년(전125) 여름의 일이다(『漢書』 권6 「武帝紀」: 171).

537) 定襄郡: 郡의 명칭으로 高祖 6년(전201)에 雲中郡의 땅을 나누어 설치되었다. 12개의 縣이 속해 있었으며 郡의 치소는 成樂縣(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和林格爾縣 서북 土城子鄉 古城)이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和林格爾縣, 清水河, 卓資縣, 察哈爾右翼中旗 등지이다. 後漢 시대에 영역이 줄어들었다가 말기에 폐지되었다.

538) 『史記』에는 “匈奴又復入代郡·定襄·上郡”으로 되어 있다.

539) 『史記』에는 “數爲寇，盜邊”으로 되어 있다.

540) 漢 武帝 元朔 5년(전124)이다.

541) 『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2923에 따르면 이때 衛青은 공을 세워 車騎將軍이었는데, 『史記』에는 大將軍이라고 되어 있다.

542) 高闕: 朔方郡의 북방에 위치한 협곡이다(주153) 참조).

543) 『史記』에는 “出朔方·高闕擊胡”로 되어 있다.

고 정예기병이⁵⁴⁴ [그의] 뒤를 따라갔다. 한나라 장군이 우현왕이 거느리던 남녀 만5천 명과 비소왕(裨小王)⁵⁴⁵ 십여 명을 잡았다. 그 해 가을 흉노의 기병 만 명이 대군으로 들어와 대군 도위 주영(朱央)⁵⁴⁶을 죽이고 천여 명을 잡아갔다.

其明年春，漢復遣大將軍衛青將六將軍，十餘萬騎，仍再出定襄數百里擊匈奴，得首虜前後萬九千餘級，而漢亦亡兩將軍，三千餘騎。右將軍建得以身脫，而前將軍翁侯趙信兵不利，降匈奴。趙信者，故胡小王，降漢，漢封爲翁侯，以前將軍與右將軍并軍，介獨遇單于兵，故盡沒。單于旣得翁侯，以爲自次王，用其姊妻之，與謀漢。信教單于益北絕幕，以誘罷漢兵，徼極而取之，毋近塞。單于從之。其明年，胡數萬騎入上谷，殺數百人。

그 이듬해⁵⁴⁷ 봄 한나라는 다시 대장군 위청을 보내 여섯 장군⁵⁴⁸과 [군사]⁵⁴⁹ 십여 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거듭⁵⁵⁰ 정양(定襄)에서 수백 리 밖까지 나가 흉노를 공격하게 했다. 앞뒤⁵⁵¹ [두 차례의 출정으로] 대략 수급과 포로 만9천여를 얻었으나 한나라 역시 두 명의 장군⁵⁵²과 [군사]⁵⁵³ 3천여 기병을 잃었다. 우장군⁵⁵⁴ [소]건⁵⁵⁵은 단신으로 탈출할 수 있었

544) 『史記』에 “諸精騎”로 되어 있다.

545) 裨小王: 漢나라의 裨將과 비슷한 下級 官吏이다(주231) 참조.

546) 『史記』에는 “朱英”으로 되어 있다. 漢代에는 ‘英’과 ‘央’이 서로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史記』에는 “匈奴萬騎入殺代郡都尉朱英”으로 되어 있다.

547) 漢 武帝 元朔 6년(전123)이다.

548) 여섯 명의 장군은 中將軍 公孫敖, 左將軍 公孫賀, 前將軍 趙信, 右將軍 蘇建, 後將軍 李廣, 強弩將軍 李沮 등이다(『漢書』 권55 「衛青霍去病列傳」: 2472).

549) 『史記』에는 “兵”이 있다.

550) 『史記』에는 “乃”로 되어 있다.

551) 앞뒤, 즉 前後는 元朔 6년(전123) 봄 이월과 여름 사월에 두 차례 출격한 것을 말한다.

552) 前將軍 趙信과 右將軍 蘇建을 말한다. 趙信은 匈奴에 투항했고, 蘇建은 몸만 빠져 나왔다.

553) 『史記』에는 “軍”이 있다.

554) 前, 後, 左, 右將軍: 이런 장군 칭호는 늘 설치되는 것이 아닌 자리로 필요에 따라서 두어졌다. 그의 위상은 上卿 다음의 지위였다. 金印紫綬를 갖고 있었고 부대 내에서는 大將軍 또는 驃騎將軍 다음으로

으나 전장군 흡후(翁侯)⁵⁵⁶ 조신(趙信)이 전세가 불리하자 흉노에 항복했다. 조신은 원래 흉노의 소왕(小王)⁵⁵⁷이었다가 한나라에 항복해 한나라에서 흡후로 책봉된⁵⁵⁸ 자로서 전장군과 우장군이 군대를 합해 [주력과 나뉘어져 가다가]⁵⁵⁹ 특별히 홀로 선우의 군대를 만나 전멸하고 말았다.⁵⁶⁰ 선우는 흡후를 사로잡자 자차왕(自次王)⁵⁶¹으로 삼고 그의 누이를 처로 준 다음에 [그와] 함께 한나라 [공격]을 모의했다. [조]신은 선우에게 좀더 북쪽으로 물러나 사막⁵⁶²을 건너 한나라 군대를 유인해 지치게 한 다음에 극도로 [지치면] 취하되 국경이 있는 곳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⁵⁶³ 알려 주었다. 선우가 [그 계책을] 따랐다.⁵⁶⁴ 그 이듬해⁵⁶⁵ 흉노의 수만 가⁵⁶⁶ 상곡으로 쳐들어가 수백 명을 죽였다.

明年春，漢使票騎將軍去病將萬騎出隴西，過焉耆山千餘里，得胡首虜八千餘級，得休屠王祭天金人。其夏，票騎將軍復與合騎侯數萬騎出隴西·北地二千里，過居延，攻祁連山，得胡首虜三萬餘級，裨小王以下十餘人。是時，匈奴亦來入代郡·鴈門，殺略數百人。漢使博望侯及李將軍廣出右北平，擊匈奴左賢王。左賢王圍李廣，廣軍

車騎將軍 또는 衛將軍과 동렬이었다.

555) 蘇建: 杜陵(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동남쪽) 사람으로 蘇武의 부친이다. 匈奴 토벌에 공을 세워 平陵侯에 봉해졌고 朔方城을 쌓았다. 匈奴와의 전쟁에서 군사를 잃고 패해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속죄금을 물고 서민이 되었다가 후에 代郡의 太守가 되었다(『漢書』 권54 「李廣蘇建列傳」: 2459).

556) 翁: 지명으로 魏郡 內黃縣 북쪽(지금의 河南省 湯陽縣 동북 古城村)에 위치하였다.

557) 小王: 裨小王을 지칭한다(주545) 참조).

558) 漢 武帝 元光 4년(전131) 시월 12일의 일이다.

559) 『史記』에는 “以前將軍與右將軍并軍分行”으로 되어 있다.

560) “介”는 특별하다는 의미이다. [그가] 본래 비록 군대를 아우르고 있었는데, 單于를 만나게 된 때가 특별하였다는 의미이다. 『史記』에는 “獨遇單于兵”로 되어 있다.

561) 自次는 單于 다음으로 높다는 것이다.

562) 幕: 고비, 즉 사막을 의미한다.

563) 長城 근처에 가지 않아도 한나라 군대를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564) 『史記』에는 “單于從其計”로 되어 있는데, 저본에는 “其計”가 없다.

565) 漢 武帝 元狩 元年(전122)이다.

566) 『史記』에는 “胡騎萬人入上谷”으로 되어 있다.

四千人死者過半，殺虜亦過當。會博望侯軍救至，李將軍得脫，盡亡其軍。合騎侯後票騎將軍期，及博望侯皆當死，贖爲庶人。

이듬해 봄에⁵⁶⁷⁾ 한나라는 표기장군(票騎將軍)⁵⁶⁸⁾ [곽]거병(霍去病)⁵⁶⁹⁾에게 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농서군에서 출정하도록 하자 [그는] 연자산(焉耆山)⁵⁷⁰⁾를 지나 천여 리 [나아가 흉노를 공격해]⁵⁷¹⁾ 흉노의 수급과 포로 8천여⁵⁷²⁾ 인을 잡고 휴도왕(休屠王)⁵⁷³⁾을 [격파해]⁵⁷⁴⁾ 잡고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쓰는 황금상(祭天金人)⁵⁷⁵⁾을 얻었다. 그 여름⁵⁷⁶⁾ 표기장군이

567) 漢 武帝 元狩 2년(전123)이다.

568) 票騎將軍: 『史記』에는 “驃騎將軍”으로 되어 있는데, 관직의 명칭으로 前漢 초기 중앙에 설치한 최고급 武官이다. 그 지위는 丞相 다음에 위치하고 大將軍과 동급이었다. 秩은 萬石이었다. 이후에 ‘大司馬’라는 칭호를 가졌다.

569) 霍去病(전140~전117): 河東 平陽 사람으로 大將軍 衛靑의 누이 衛少兒의 아들이다. 18살에 侍中이 되고 元朔 6년(전123)에 驃騎校尉가 되어 大將軍을 따라 匈奴를 격파하여 공을 세워 冠軍侯가 되었다. 元狩 2년(전121) 봄에 驃騎將軍이 되었다. 霍去病은 萬騎를 이끌고 隴西에서 나아가 匈奴를 격파하고 여름에는 대규모로 匈奴를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匈奴 토벌에 나간 일이 여섯 차례였는데, 정예부대를 이끌고 大軍보다 먼저 적진 깊숙이 쳐들어가는 전법을 썼다. 漢나라의 영토 확대에 지대한 공을 세워 衛靑과 함께 大司馬가 되었으나 그 권세는 衛靑을 능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불과 24세에 죽자 武帝는 크게 슬퍼하여 長安 근교의 茂陵에 무덤을 지어 주었다. 일찍이 霍去病이 대승리를 거둔 祁連山의 형상을 따게 하여 그의 무공을 기렸다. 그의 무덤 앞에는 匈奴를 밟고 선 石馬가 있다(『漢書』 권55 「衛靑霍去病列傳」: 2478~2489).

570) 焉耆山: 음은 ‘연자산’이다. 다르게는 ‘燕支山’ 또는 ‘胭脂山’이라고도 불린다. 지금의 甘肅省 永昌縣 서쪽, 山丹縣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史記』에는 “焉支山”으로 되어 있다.

571) 『史記』에는 “擊匈奴”가 있는데 저본에는 없다.

572) 『史記』에는 “萬八千餘級”으로 되어 있어 萬의 차이가 있다.

573) 休屠王: 匈奴의 관직 명칭으로 單于庭의 우측(서쪽)에 있는 休屠部(지금의 甘肅省 武威市 일대)를 다스리는 왕이다.

574) 『史記』에는 “破得”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본에는 “破”가 없다.

575) 匈奴가 祭天을 하는 곳이 본래 雲陽 甘泉山 아래에 있었다. 秦나라가 공격하여 그 땅을 빼앗아 버렸는데 이후에 休屠王의 오른쪽 땅을 옮겨서 休屠가 祭天金人像을 갖게 되었다. 顏師古는 金人을 天神之主으로 만들어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 佛像을 그것의 遺制로 보았다.

576) 漢 武帝 元狩 2년(전123) 여름이다.

다시 합기후(合騎侯) [공손오]와 함께 수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농서, 복지에서 이천 리를 나가 흉노를 쳤다. 거연(居延)⁵⁷⁷⁾을 지나 기련산(祁連山)⁵⁷⁸⁾에 [있는 흉노를] 공격해 흉노의 수급과 포로 3만 여⁵⁷⁹⁾와 비소왕 이하 70여 명을 얻었다. 이때⁵⁸⁰⁾ 흉노 역시 대군, 안문[군]으로 들어와 수백 명을 죽이고 잡아갔다. 한나라에서는 박망후(博望侯)⁵⁸¹⁾ [장건]과 이장군광을 시켜 우북평군⁵⁸²⁾에서 나가 흉노 좌현왕을 공격하게 했다. 좌현왕이 이광을 포위하니, [이]광의 군대 4천 명 중에 죽은 자가 반을 넘고⁵⁸³⁾ 죽이거나 잡힌 것 또한 [이쪽의 희생을] 넘어섰다. 마침 박망후의 군대가 구하러 왔기 때문에 이장군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그의 군대를 모두 잃었다.⁵⁸⁴⁾ 합기후가 표기장군과 [약속한] 날짜를 지나쳐 박망후[와 함께]⁵⁸⁵⁾ 모두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나 속전을 내고 서인이 되었다.

577) 居延: 縣 명칭으로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額濟納旗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河西지역과 漢北 사이의 교통요지였다.

578) 祁連山: 산의 명칭으로 ‘白山’, ‘雪山’, ‘天山’, ‘祁連天山’ 등으로 불린다. 祁連은 匈奴語로, 의미는 하늘[天]이다. 지금의 甘肅省 酒泉市 이남에 있는 산을 말한다. 과거에 祁連山은 남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북은 新疆 지역에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祁連山은 남쪽에 있는 것을 말한다. 張掖과 酒泉 사이에 있는데 동서로 이백여 리가 되고 나무와 풀이 잘 우거져 있어 목축에 적당하였다. 匈奴가 이 산을 잃고 큰 타격을 입었다(高榮, 2004: 25~27).

579) 『史記』에는 “人”으로 되어 있다.

580) 漢 武帝 元狩 2년(전123) 여름의 일이다.

581) 博望侯: 張騫(?~전114)을 가리킨다. 그는 武帝의 명을 받고 匈奴를 협공하기 위해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의 일리강 유역에 있던 大月氏와 동맹하려고 建元 2년(전139)경 長安을 출발하였다. 도중에 匈奴에게 붙잡혔으나 탈출하여 大宛·康居를 거쳐 이미 아무다리야 북안으로 옮긴 大月氏에 도착하였다(전129년경). 그러나 그는 大月氏가 匈奴를 칠 의사가 없어 동맹에 실패하고 귀국하던 중 다시 匈奴의 포로가 되었다가 元朔 3년(전126)에 귀국하였다. 元狩 2년(전121)에 다시 烏孫으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그가 파견한 副使들이 西域諸國의 사절과 隴商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의 여행으로 西域의 지리, 종족, 물산 등에 관한 지식이 中國으로 유입되어 東西간의 교역과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소위 ‘실크로드’를 개척한 인물로 유명하다(『史記』 권123 「大宛列傳」: 3157~3179; 『漢書』 권61 「張騫列傳」: 2687~2698).

582) 右北平: 郡의 명칭으로 지금의 河北省의 東北部에 해당한다. 郡의 治所는 前漢시대에 河北 平泉縣이었고, 後漢시대에는 河北 玉田縣에 있었다(주165) 참조.

583) 『史記』에는 “左賢王圍李將軍, 卒可四千人, 且盡”으로 되어 있다.

584) 『史記』에는 “漢失亡數千人”으로 『漢書』와 달리 표점되어 “이 장군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한나라의 손실도 수천명이었는데”로 번역할 수 있다.

其秋，單于怒昆邪王·休屠王居西方爲漢所殺虜數萬人，欲召誅之。昆邪·休屠王恐，謀降漢，漢使票騎將軍迎之。昆邪王殺休屠王，并將其衆降漢，凡四萬餘人，號十萬。於是漢已得昆邪，則隴西·北地·河西益少胡寇，徙關東貧民處所奪匈奴河南地新秦中以實之，(西)[而]減北地以西戍卒半。明年春，匈奴入右北平·定襄各數萬騎，殺略千餘人。

그 가을⁵⁸⁶ 선우⁵⁸⁷가 혼야왕(昆邪王)⁵⁸⁸과 휴도왕⁵⁸⁹이 서쪽에서 한나라에게 수만 명이 나 죽고 사로잡힌 것에 화가 나서 그들을 불러 죽이려 했다. 혼야왕과 휴도왕은 [이를] 걱정하여 한나라에게 항복할 것을 모의하니⁵⁹⁰ 한나라에서 표기장군(票騎將軍)⁵⁹¹을 보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⁵⁹² [그런데] 혼야왕이 휴도왕을 죽이고 그의 군사와 백성을 이끌고 한나라에 항복하니 대체로 4만여 명 정도였으나 10만이라고 칭했다. 이에 한나라가 혼야왕을 얻게 되자 농서, 북지, 하서(河西)⁵⁹³에 대한 흉노 침공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나라에서는] 함곡관 동쪽의 빈민들을 흉노에게서 빼앗은 하남 땅⁵⁹⁴과 신진중(新秦中)⁵⁹⁵으로 옮겨 살게 해

585) 『史記』에는 “及輿”로 되어 있다.

586) 漢 武帝 元狩 2년(전123) 가을의 일이다.

587) 匈奴 伊稚斜單于이다.

588) 『史記』에는 “渾邪王”으로 되어 있다.

589) 昆邪王이 休屠王을 살해하자 休屠王의 아들인 金日磾가 漢나라에 투항하여 光祿大夫가 되었다(『漢書』 권68 「霍光金日磾傳」: 2959~2960).

590) 漢 武帝 元狩 2년의 일이다.

591) 『史記』에는 “驃騎將軍”으로 되어 있다.

592) 『漢書』 「食貨志」의 기록에 따르면 투항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 物資의 車輛이 3萬乘이 넘었다고 한다(『漢書』 권24下 「食貨志」: 1161).

593) 河西: 지명으로 지금의 甘肅省과 青海省의 黃河 서쪽 지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594) 『史記』에는 “河南”으로 되어 있다.

595) 秦始皇이 蒙恬을 보내 匈奴를 몰아내고 河南의 造陽 북방에 있는 천여 리의 좋은 땅을 얻어 이곳에 성곽을 쌓아 백성들을 옮겨 살도록 하고 新秦이라고 했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쉬어 빈부가 갈지 않아 지금 속칭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을 ‘新秦’이라고 한 것은 이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武帝는 元狩 3년(전120)에 匈奴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마침 이때 華山 동쪽에서 黃河가 범람하자 백성들을 변경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關東의 주민들을 다시 찾은 新秦中으로

[이 지역을] 채웠으므로 북지[군] 서쪽의 수비병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었다.⁵⁹⁶⁾ 그 이듬해 봄에⁵⁹⁷⁾ 흉노가 우북평[군]과 정양[군]으로 각각 수만 기로 [쳐들어와] 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아갔다.

其[明]年春，漢謀以爲「翁侯信爲單于計，居幕北，以爲漢兵不能至」。乃粟馬，發十萬騎，私負從馬凡十四萬匹，糧重不與焉。令大將軍青·票騎將軍去病中分軍，大將軍出定襄，票騎將軍出代，咸約絕幕擊匈奴。單于聞之，遠甚輜重，以精兵待於幕北。與漢大將軍接戰一日，會暮，大風起，漢兵縱左右翼圍單于。單于自度戰不能與漢兵，遂獨與壯騎數百潰漢圍西北遁走。漢兵夜追之不得，行捕斬首虜凡萬九千級，北至寘顏山趙信城而還。

그 이듬해⁵⁹⁸⁾ 봄에 한나라에서 [조신들이] 모의하여 생각하였다.⁵⁹⁹⁾ “흡후 [조]신이 선우를 위해 계략을 세워 [선우가] 고비 북쪽에 있으면 한나라의 군대가 [그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한나라에서는] 말에게 [곡식을] 배불리 먹인 뒤 10만의 기병을 일으켰는데, 개인의 물건을 지고 따라가는 말이 14만 필로 식량을 운반하는 [말은] 그에 포함되지 않았다.⁶⁰⁰⁾ 대장군 [위]청과 표기장군 [곽]거병으로 하여금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했는데, 대장군은 정양[군]에서 나가고, 표기장군은 대[군]에서 나가 모두 고비를 건너 흉노를 치기로 약속했다. 선우가 [이 소식을] 듣고 보급품[輜重]을 멀리 [대피시켜] 보낸 다음 정병을 거느리고 고비 북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나라 대장군과 하루 종일 전투를 벌였는데, 해질 무렵에

이주시켰다(주175) 참조.

596) 漢 武帝 元狩 3년(전122) 가을에 내린 詔에서 隴西, 北地, 上郡 등 3개 군의 戍卒을 반으로 줄여서 백성들의 요역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漢書』 권6 「武帝紀」: 177).

597) 『史記』에는 “봄”이 없다.

598) 漢 武帝 元狩 4년(전121)의 일이다.

599) 『史記』에는 “以爲”가 “曰”로 되어 있다.

600) 개인이 지는 의장과 끌고 가는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公家가 아니면 나가는 것을 제한하였다는 의미이다.

큰 바람이 일어나자 한나라 군대가 좌우익 [군대]를 풀어 선우를 포위하였다. 선우는 스스로가 한나라 군대와 당할 수 없다고⁶⁰¹⁾ 판단하고 마침내 [선우]⁶⁰²⁾ 홀로 겨우 친위기병[壯騎]⁶⁰³⁾ 수백 기만 거느린 채 한나라의 포위를 돌파한 다음 서북쪽으로 도망쳤다.⁶⁰⁴⁾ 한나라 군대가 밤이라 [그를] 추격해 잡지 못하였다. 이 원정에서 베거나 사로잡은 [흉노의]⁶⁰⁵⁾ 수급과 포로는 만 9천여 명이나 되었고, 북으로 전안산(寘顔山)⁶⁰⁶⁾의 조신성(趙信城)⁶⁰⁷⁾까지 갔다

601) “與”는 “如”와 같은데 『史記』에서는 如로 되어 있다.

602) 『史記』에는 ‘單于’가 있는데, 저본에는 없다.

603) 壯騎: 親衛軍 또는 親兵集團을 말한다. 匈奴 單于를 비롯한 후대에 등장한 遊牧帝國의 군주들은 모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물리력으로 親兵集團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런 親兵集團의 존재는 部族聯合體的인 국가 성격을 극복하고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자신의 카리스마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해내는 것이다(Pritsak, 1981: 80). 匈奴帝國의 건설자인 冒頓의 경우 鳴鏑을 만들어 군대를 훈련시켜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주197 참조). 이것은 이런 親衛軍의 존재를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예의 하나이다. 이런 親兵集團의 존재는 이후에 건설된 유목국가인 柔然, 突厥, 回鶻, 契丹, 蒙古 등의 경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김호동, 1993: 152~167).

604) 『漢書』 권55 「衛青霍去病列傳」에서는 이 전투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였는데, 기록상에 약간 차이가 있다.

趙信이 單于를 위해 계책을 말했다. “漢나라 군대가 이미 고비를 넘어 사람과 말이 지쳤으니 匈奴가 앞서서도 포로를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군수 물자를 멀리 북에 놓고 모두 정예 병사를 이끌고 고비 북방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衛]靑의 군대는 장성을 천여 리 나와서 單于의 군대가 늘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에 [衛]靑이 武剛車로 고리 모양의 군영을 만들고 5천기를 보내 匈奴에 가서 부닥치게 했다. 匈奴 또한 1만 기를 풀었다. 마침 해가 질 무렵인데, 큰 바람이 일어나 모래와 자갈이 얼굴을 때려 양군이 서로 볼 수 없었고, 漢나라는 더욱 左右翼의 군대를 풀어 單于를 조였다. 單于가 한나라 군대가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래도 병사와 말이 여전히 강해 싸웠으나 匈奴가 불리하자 어스름한 저녁 單于가 마침내 六頭馬車를 타고, 壯騎 수백 명과 함께 한나라의 포위 서북을 뚫고 도망갔다. 때가 이미 어두워졌어도 한나라와 匈奴가 서로 영겨 죽이고 다친 것이 상당하였다. 한나라 좌익 校尉를 포로로 잡았는데 [그가] 單于가 어두워지기 전에 도망갔다고 하니 한나라 군대가 경장기병을 보내 밤에 추격하였고 [衛]靑의 군대도 그 뒤를 따랐다. 匈奴의 군대가 또한 흩어져 도망하였다. 동이틀 무렵 2백여 리를 갔으나 單于를 잡지 못하고 사로잡거나 죽인 것을 1만여 급이나 하고 마침내 寘顔山의 趙信城에 이르러 匈奴가 쌓아놓은 곡식을 병사들에게 먹였다. 군대가 하루 머물렀다가 모두 그 성과 나머지 곡식을 태운 다음에 돌아왔다(『漢書』 권55 「衛青霍去病列傳」: 2484).

605) 『史記』에는 “匈奴”가 있는데, 저본에는 없다.

606) 寘顔山: 산의 명칭으로 ‘寘顔山’이라고도 했다. 지금의 몽골공화국 항가이산맥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 갈래의 산을 지칭한다. 『史記』에는 “闐顔山”으로 되어 있고, 본전 下卷에서도 “寘顔山”으로 다르게

가 돌아왔다.

單于之走，其兵往往與漢軍相亂而隨單于。單于久不與其大衆相得，右谷蠡王以爲單于死，乃自立爲單于。眞單于復得其衆，右谷蠡乃去號，復其故位。

선우가 도망가자⁶⁰⁸⁾ 그의 병사들은 왕왕 한나라 군대⁶⁰⁹⁾와 서로 뒤섞여서 선우를 뒤따라갔다. [그로 인해] 선우는 오랫동안 자신의 백성들과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록리왕이 선우가 죽었다고 생각해 스스로 즉위해 선우가 되었다. 진짜 선우가 다시 백성을 얻게 되자 우록리왕은 [선우의] 칭호를 버리고 다시 과거의 지위로 되돌아 갔다.⁶¹⁰⁾

票騎之出代二千餘里，與左王接戰，漢兵得胡首虜凡七萬餘人，左王將皆遁走。票騎封於狼居胥山，禪姑衍，臨翰海而還。

[한나라]⁶¹¹⁾ 표기[장군]은 대[군]에서 이천여 리를 나와 좌[현]왕⁶¹²⁾과 전투를 벌여 한나라 병사가 얻은 흉노의 수급과 포로는 대개 칠만여 인이었고, 좌[현]왕과 장군들이 모두 도망갔다. 표기[장군]이 낭거서산(狼居胥山)⁶¹³⁾에서 봉[제](封祭)⁶¹⁴⁾를 올리고, 고연[산](姑衍

표기하고 있다.

607) 趙信城: 趙信이 匈奴에 투항한 이후에 쌓은 성을 匈奴가 이렇게 불렀다(康曰, “趙信所作, 因以名城.”). 闕顏山 서쪽에 있었다.

608) 『史記』에는 “單于之遁走”로 되어 있다.

609) 『史記』에는 “兵”으로 되어 있다.

610) 『史記』에는 “而右谷蠡王乃去其單于號, 復爲右谷蠡王”으로 되어 있다.

611) 『史記』에는 “漢”이 있는데, 저본에는 없다.

612) 『史記』에는 “左賢王”인데, 저본에는 “賢”이 없다.

613) 狼居胥山: 산의 명칭인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학설이 있다. 지금의 몽골공화국 울란바토르 동쪽에 있는 케를렌강 지역, 內蒙古自治區 克什克騰旗 서북에서 阿巴嘎旗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內蒙古自治區 五原縣 서북 黃河北岸에 있는 狼山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고비 북방에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山)⁶¹⁵에서 선[제](禪祭)⁶¹⁶를 지낸 다음에 한해(翰海)⁶¹⁷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是後匈奴遠遁，而幕南無王庭。漢度河自朔方以西至令居，往往通渠置田官，吏卒五六萬人，稍蠶食，地接匈奴以北。

이 뒤로 흉노가 멀리 달아나게 되자 고비 남쪽에 [흉노의] 왕정(王庭)⁶¹⁸이 없게 되었다. 한나라는 황하를 건너 삭방에서 서쪽의 영거(令居)⁶¹⁹까지 곳곳에 [물을 대는] 도랑을 통하게 하고 농지를 담당하는 관리를 두어 병졸 오륙만 명이 점점 [흉노 땅을] 잠식해가 [한나라의] 땅이 흉노 이복과 접해 떨어져 있지 않게 되었다.

初，漢兩將大出圍單于，所殺虜八九萬，而漢士物故者亦萬數，漢馬死者十餘萬匹。匈奴雖病，遠去，而漢馬亦少，無以復往。單于用趙信計，遣使好辭請和親。天子下其議，或言和親，或言遂臣之。丞相長史任敞：“匈奴新困，宜使爲外臣，朝請於邊。”漢使敞使於單于。單于聞敞計，大怒，留之不遣。先是漢亦有所降匈奴使者，單于亦輒留漢使相當。漢方復收士馬，會票騎將軍去病死，於是漢久不北擊胡。

614) 封祭: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615) 姑衍山: 산의 명칭으로 狼居胥山의 서북쪽에 위치하였다. 지금의 몽골공화국 울란바토르 인근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16) 禪祭: 땅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617) 翰海: ‘瀚海’라고도 한다. 일설에는 지금의 러시아에 있는 바이칼호를 지칭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몽골 초원 동부의 후룬호(呼倫湖)라고도 한다. 당시 행군로를 가지고 추측해 볼 때, 몽골 초원 동북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의 克什克騰旗와 阿巴嘎旗 사이의 달라이누르(達來諾爾)로 추정된다. 다르게는 고비를 칭하거나 몽골 초원에 있는 항가이산맥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호수의 명칭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618) 匈奴의 王庭(오르두)은 원래 고비 남부 龍城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제는 고비를 건너 漠北地域으로 이동하게 되었다(주237) 참조).

619) 令居: 縣 명칭으로 金城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의 甘肅省 永登縣 서북쪽에 있었다.

일찍이⁶²⁰⁾ 한나라의 두 장군⁶²¹⁾이 대거 출격해 선우를 포위하여 죽이거나 사로잡은 것이 8, 9만이 되었는데, 한나라 사졸 중 죽은 자 역시 수만 명이었고, 한나라의 말도 십여만 필이나 죽었다. 흉노가 비록 피폐하여 멀리 도망갔으나 한나라 역시 말이 적어서⁶²²⁾ 다시 나가 [싸울] 수 없었다. 흉노가 조신의 계략을 채택해 [한나라에]⁶²³⁾ 사신을 보내 좋은 말을 해 가며 화친을 청했다. 천자가 [이것을] 조정 대신들에게 논의하도록 했는데, 일부는 화친을 얘기하기도 하고 일부는 [흉노를] 쫓아가서 신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승상장사(丞相長史)⁶²⁴⁾ 임창(任敞)이 말하였다. “흉노는 최근에 곤궁하게 되었으니⁶²⁵⁾ 마땅히 귀속한 속국[外臣]으로 변경에서 조회를 드리도록 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한나라에서 임창을 선우에게 사신으로 보냈다. 선우는 그의 제안을 듣고 크게 화를 낸 다음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앞서 한나라 역시 [투항한] 흉노 사자를 억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선우 역시 번번히 한나라 사신을 억류하여 그에 대응했다. 한나라에서는 바야흐로 군사와 군마를 징발하려고 했는데, 때마침⁶²⁶⁾ 표기장군 [곽]거병이 병사했기 때문에 이에 한나라는 오랫동안⁶²⁷⁾ 북쪽으로 흉노를 공격하지 못했다.

數歲，伊穉斜單于立十三年死，子烏維立爲單于。是歲，元鼎三年也。烏維單于立，而漢武帝始出巡狩郡縣。其後漢方南誅兩越，不擊匈奴，匈奴亦不入邊。

620) 漢 武帝 元狩 4년(전121)의 일이다.

621) 두 명의 장군은 大將軍 衛靑과 驃騎將軍 霍去病이다.

622) 『史記』에는 “而漢亦馬少”로 되어 있다.

623) 『史記』에는 “遣使於漢”으로 되어 있다.

624) 丞相長史: 관직의 명칭으로 丞相의 屬官이다. 文帝 2년에 일시적으로 두 명의 長史를 두었다. 長史는 相府의 일을 總管하였고 秩은 千 石이었다.三公은 모두 長史를 두어 그의 보좌를 받았다.

625) 『史記』에는 “匈奴新破，困”으로 되어 있다.

626) 驃騎將軍 霍去病은 元狩 4년(전119) 漠北에서 전투를 한 지 3년 이후인 元狩 6년(전117) 가을 구월에 죽었다.

627) 武帝 元狩 4년(전119) 匈奴를 격파한 이후에 元鼎 6년(전111) 가을 公孫賀와 趙破奴를 匈奴 공격을 위해 출진시킬 때까지 약 7~8년 동안 匈奴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은 없었다.

몇 년 후 이지사선우가 즉위한 지 십삼 년 만에 죽고⁶²⁸⁾ 그의 아들 오유(烏維)⁶²⁹⁾가 서서 선우가 되었다. 이해가 한나라의 원정(元鼎)⁶³⁰⁾ 3년(전114)이었다. 오유선우가 즉위했을 때 한 무제⁶³¹⁾가 비로소 군현을 순수하러 나섰다.⁶³²⁾ 그 뒤 한나라가 바야흐로 남쪽으로 양월(兩越)⁶³³⁾을 치느라고 흉노를 공격하지 못했는데, 흉노 역시 [한나라의] 변경에 [쳐들어]⁶³⁴⁾ 오지 않았다.

628) 漢 武帝 元鼎 3년(전114) 伊稚斜單于가 재위 14년 만에 죽었다.

629) 烏維單于(재위 전114~전105): 匈奴의 여섯 번째 單于이다.

630) 漢 武帝의 다섯 번째 연호(전116~전111년)이다.

631) 『史記』에는 “天子”로 되어 있다.

632) 漢武帝의 순행은 元封 6년(전105) 겨울에 열두 장군을 이끌고 邊境의 郡縣을 巡視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雲陽을 출발하여 上郡, 西河, 五原 등을 거쳐 長城 밖으로 나아가 單于臺에 올랐다. 單于臺는 雲州 雲中縣 서북쪽 백여 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다음에 朔方에 이르렀고 北河로 가는데 군대 18萬騎와 旌旗가 거의 천여 리에 걸쳐 늘어서 있어 匈奴를 놀라 떨게 만들었다고 한다.

633) 兩越: 南越과 東越을 가리킨다.

南越是 南粵이라고도 한다. 古代 南方 越人의 일족이다. 원래는 族名이었는데, 뒤에 趙佗가 세운 國名되었다. 그 강역은 지금 廣東과 廣西 지구를 포함하여 남쪽으로는 越南 북부까지, 북쪽으로는 湖南省과 貴州省 남부까지 해당한다. 秦이 六國을 통일한 뒤 이 지역에 桂林郡, 南海郡, 象郡 3郡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史記正義』는 廣州 南海縣에 도읍하였다고 전하고 있는데, 秦始皇 33년에 嶺南을 통일한 뒤 南海郡을 설치하였고, 郡治는 番禺城이었다. 또한 지금의 廣州市 越秀區 내에 속한다(『史記』 권113 「南越列傳」).

東越是 閩越와 東甌와 함께 지금 福建省과 浙江省 남부에 거주하던 越族의 일파이다. 閩越是 司馬遷에 따르면 越王 句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대략 전334년 戰國時代 구천의 7代孫 無疆시대에 越이 망한 이후 그의 일부가 閩으로 옮겨가 살게 되면서 형성되었다. 秦代 閩中郡을 설치하자 그의 통치를 받다가, 無諸가 진나라 말에 반란을 일으켜 漢의 劉邦을 도와 閩越王이 되었다. 『史記』 권114 「東越列傳」). 漢武帝 元鼎 5년(전110) 봄에 南越의 相 呂嘉가 반란을 일으키자 가을에 伏波將軍 路博德과 樓船將軍 楊僕이 南越로 와서 元鼎 6년(전111) 겨울에 진압하고 南越에 南海 등 9개의 郡을 설치했다. 또한 6년(전111)에 東越王 餘善이 반기를 들자 가을에 橫海將軍 韓說과 樓船將軍 楊僕이 東越을 정벌하였다. 元封 元年(전110) 겨울에 繇王이 자살하고 그 백성은 江淮 사이로 이주되었다.

634) 『史記』에는 “匈奴亦不侵入邊”으로 되어 있는데, 『漢書』 권6 「武帝紀」에 따르면 元鼎 5년(전112) 가을에 匈奴가 五原에 쳐들어와 太守를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匈奴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烏維立三年，漢已滅兩越，遣故太僕公孫賀將萬五千騎出九原二千餘里，至浮苴井，從票侯趙破奴萬餘騎出令居數千里，至匈奴河水，皆不見匈奴一人而還。

오유[선우]⁶³⁵가 즉위한지 지 3년⁶³⁶만에 한나라가 이미 양월(兩越)⁶³⁷을 멸망시켰으므로⁶³⁸ 이전에 태복(太僕)⁶³⁹을 지낸 공손하(公孫賀)⁶⁴⁰를 보내 만 5천 기를 거느리고 구원(九原)에서 2천여 리를 나아가 부저정(浮苴井)⁶⁴¹까지 가게 하고, [또한] 종표후(從驃侯)였던 조파노(趙破奴)⁶⁴²를 보내 만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영거(令居)에서 수천 리를 나아가 흉노하수(匈奴河水)⁶⁴³까지 가게 하였는데, 모두 흉노를 한 명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⁶⁴⁴

是時，天子巡邊，親至朔方，勒兵十八萬騎以見武節，而使郭吉風告單于。既至匈奴，匈奴主客問所使，郭吉卑體好言：「吾見單于而口言。」單于見吉，吉：「南越王頭已懸於漢北闕下。今單于即能前與漢戰，天子自將兵待邊；即不能，亟南面而臣於漢。何

635) 『史記』에는 “烏維單于”로 되어 있다.

636)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의 일이다.

637) 『史記』에는 “南越”로 되어 있다.

638) 漢 武帝 元鼎 3년(전114) 봄의 일이다.

639) 太僕: 관직의 명칭으로 황제의 수레·가마와 황제의 巡行을 맡아보는 측근으로서 九卿의 하나이다. 公孫賀는 建元 6년(전135)부터 太僕이 되어 太初 2년(전103) 丞相이 될 때까지 太僕을 거의 33년 동안 맡았다. 따라서 公孫賀가 元鼎 6년(전111)에 九原에서 출정할 때 그의 지위는 太僕이고 그런 점에서 太僕을 지냈었다는 표현은 잘못이다(주503) 참조.

640) 『史記』에는 “賀”가 없다.

641) 浮苴井: 지명으로 九原에서 이천 리 떨어진 곳이다. 지금의 몽골공화국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642) 趙破奴: 九原 사람으로 元狩 2년(전121) 北地에서 匈奴를 격퇴한 공이 있어 從驃侯, 混野侯에 봉해졌다. 元鼎 5년(전112) 구월에 좌천되어 金失侯가 되었고, 元鼎 6년(전111) 匈奴에 대해 출정했기 때문에 그를 故從驃侯라고 불렀다.

643) 匈奴河水: 강의 이름인데 令居에서 천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史記』에는 “匈奴水”로 되어 있다.

644) 『史記』에는 “亦不見匈奴一人”으로 되어 있다.

但遠走，亡匿於幕北寒苦無水草之地爲？」語卒，單于大怒，立斬主客見者，而留郭吉不歸，遷辱之北海上。而單于終不肯爲寇於漢邊，休養士馬，習射獵，數使使好辭甘言求和親。

이 무렵⁶⁴⁵⁾ 천자가 변경지대를 친히 순시해 삭방에 이르러⁶⁴⁶⁾ 18만 기병의 군사를 검열해 절도 있고 [당당한] 무위(武威)를 보이고 곽길(郭吉)을 시켜 선우에게 [한나라 위세를 은근히] 깨우쳐 알려주었다.⁶⁴⁷⁾ [곽길이]⁶⁴⁸⁾ 흉노에 도착한 뒤 흉노의 주객(主客)⁶⁴⁹⁾이 [한나라의] 사자로 온 취지를 묻자 곽길이 몸을 낮추고 좋은 말로 이야기했다⁶⁵⁰⁾. “제가 선우를 뵙고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가 [곽길을 만나 주니] 곽길이 [선우에게] 말하였다. “남월왕의 목은 이미 한나라 수도의 북문 [아래]⁶⁵¹⁾ 걸려 있습니다. 선우께서 할 수 있다면 지금 나와서 한나라와 한번 싸워 보십시오. 천자께서 몸소 병사를 거느리고 변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우께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급히 남쪽을 향해 한나라의 [천자에게] 신하가 되십시오. 어찌 부질없이 멀리 도망쳐 고비 북쪽[幕北]의 춥고 고통스러운 물도 풀도 없는 땅에 숨어 살고 계십니까?” 말이 끝나자 선우가 몹시 화를 내고 [곽길을] 만나게 한 주객을 즉시 빼어 버리고 [곽길을] 억류해 돌려보내지 않고 북해(北海)⁶⁵²⁾

645) 漢 武帝 元封 元年(전110) 겨울 10월이었다.

646) 『史記』에는 “至朔方”으로 되어 있다.

647) “風”은 ‘諷’을 의미한다.

648) 『史記』에는 “郭吉”이 있는데, 저본에는 없다.

649) 主客: 匈奴 관직의 명칭으로 漢나라의 典客에 대응한다. 이는 주로 賓客을 접대하는 일을 관장하는 외교 관원으로 추정된다.

650) 『史記』에는 “禮卑言好”로 되어 있다.

651) 『史記』에는 “下”가 없다.

652) 北海: 러시아 시베리아 남동쪽 이르쿠츠크(Irkutsk)와 부랴트(Buryatia) 자치공화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바이칼 호를 가리킨다. 이 호수는 수심이 1,742m로 세계에서 가장 깊고 면적은 3만 1500km², 남북 길이 636km, 최장 너비 79km, 최단 너비 27km이며, 둘레가 2200km에 이른다. 약 330여 개의 강이 이곳으로 흘러드는데, 밖으로 나가는 수로는 앙가라(Angara) 강 하나뿐이다. 저수량이 2만 2000km³로 담수호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전세계 얼지 않는 담수량의 20%, 러시아 전체 담수량의 90%를 차지한다.

로 내쳐 육보였다.⁶⁵³⁾ 그러나 선우는 끝내 한나라 변경을 침범하지 않고 병사와 말을 쉬게 하고⁶⁵⁴⁾ 활쏘기를 수렵을 통해 익히게 하면서 자주 [한나라에]⁶⁵⁵⁾ 사신을 보내 좋고 교묘한 말로 화친을 청했다.

漢使王烏等闕匈奴。匈奴法，漢使不去節，不以墨黥其面，不得入穹廬。王烏，北地人，習胡俗，去其節，黥面入廬。單于愛之，陽許：「吾爲遣其太子入質於漢，以求和親。」

한나라 사신 왕오(王烏) 등이 흉노[의 형편]을 살폈다.⁶⁵⁶⁾ [그런데] 흉노의 법은 한나라 사신도 절(節)⁶⁵⁷⁾을 치우지 않고 얼굴에 먹물을 들이지 않으면 [선우의] 천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⁶⁵⁸⁾ 왕오는 북지[군] 출신으로 흉노의 풍습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절을 치우고 얼굴에 먹물을 새긴 뒤 [선우의] 천막으로 들어갔다.⁶⁵⁹⁾ 선우가 [왕오의 태도를] 기특하게 여기니 속여서 좋은 말로 말했다. “제가 태자를 한나라에 볼모로 보내 화친을 청하고자 합니다.”⁶⁶⁰⁾

653) 『史記』에는 “遷之北海上”으로 되어 있다.

654) 『史記』에는 “休養息土馬”로 되어 있다.

655) 『史記』에는 “數使使於漢，好辭甘言求請和親”으로 되어 있다.

656) 『史記』에는 “窺”로 되어 있다.

657) 節: 使臣이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드는 符節을 말한다. “符節”은 원래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째, 조정에서 명령을 전달하거나 군대를 징발할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 金·銅·玉·木으로 만들며 두 개로 나누어 朝廷과 節을 지닌 자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두 개를 합쳐 보아 맞으면 효력이 발생하였다. 둘째, 使者가 지닌 일종의 통행증도 符節이라고 한다. 대나무를 두 개로 쪼개 使者와 京師에서 하나씩 가지고 이를 합쳐 보아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신빙성을 입증하였다. 이 제도는 先秦時代에 시작하여 역대 왕조에서 계속 사용하였다. 周代에는 門關用 符節, 貨賂用 璽節, 道路用 旌節 등이 있었다. 셋째, 조정과 외국의 왕래를 보증하는 증빙서류이다. 양측이 이를 신표로 삼아 符節의 오른쪽 절반은 朝廷에 남기고 왼쪽의 반은 外官에게 주었다. 朝廷에 일이 생기면 사자를 보내 半符를 지니고 가면 外官은 다시 半符를 꺼내 맞춰본 후 진위를 판별하였다.

658) 『史記』에는 “漢使非去節而以墨黥其面者不得入穹廬.”로 되어 있다.

659) 『史記』에는 “黥面，得入穹廬.”로 되어 있다.

660) 『史記』에는 “詳許甘言，爲遣其太子入漢爲質，以求和親.”으로 되어 있다.

漢使楊信使於匈奴，是時漢東拔濊貉·朝鮮以爲郡，而西置酒泉郡以隔絕胡與羌通之路。又西通月氏·大夏，以翁主妻烏孫王，以分匈奴西方之援國。又北益廣田至眩雷爲塞，而匈奴終不敢以爲言。是歲，翁侯信死，漢用事者以匈奴已弱，可臣從也。楊信爲人剛直屈強，素非貴臣也，單于不親。欲召入，不肯去節，乃坐穹廬外見楊信。楊信說單于：「卽欲和親，以單于太子爲質於漢。」單于：「非故約。故約，漢常遣翁主，給繒絮食物有品，以和親，而匈奴亦不復擾邊。今乃欲反古，令吾太子爲質，無幾矣。」匈奴俗，見漢使非中貴人，其儒生，以爲欲說，折其辭辯；少年，以爲欲刺，折其氣。每漢兵入匈奴，匈奴輒報償。漢留匈奴使，匈奴亦留漢使，必得當乃止。

한나라는 양신(楊信)을 흉노에 사신으로 보냈다.⁶⁶¹⁾ 이 무렵 한나라는 동쪽으로 예맥(穢貉),⁶⁶²⁾ 조선(朝鮮)을 정복해 군(郡)으로 삼고⁶⁶³⁾ 서쪽으로는 주천군(酒泉郡)⁶⁶⁴⁾을 설치해 흉노와 강(羌)이 통하는 길을 막으며⁶⁶⁵⁾ [한나라는]⁶⁶⁶⁾ 또한 서쪽으로 [대]월지,⁶⁶⁷⁾ 대하(大

661) 楊信을 匈奴에 보낸 것은 元封 4년(전109) 가을이어야 한다. 『漢書』의 기록(권6 「武帝紀」 元封 4年 秋條 “以匈奴弱，可遂臣服，乃遣使說之”：196)에도 전109년으로 되어 있다.

662) “濊”는 ‘穢’와 같은데, ‘濊’라고도 한다. 또한 貉도 貉과 같다(주223) 참조.

663) 당시 漢나라는 元朔 元年(전128) 가을에 穢貉王 南閭가 朝鮮王 右渠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內屬하자 그곳에 蒼海郡을 두었다. 元封 3년(전108)에 朝鮮을 멸하고 그곳에 樂浪, 玄菟, 眞番, 臨屯의 네 개 군을 설치하였다(주224) 참조.

664) 酒泉郡: 군의 명칭으로 지금의 甘肅省 疏勒河 동쪽과 高臺縣 서쪽에 있었다. 漢나라에서는 元狩 2년(전121) 秋에 匈奴 昆邪王이 休屠王을 죽이고 투항했기 때문에 河西가 비게 되자 元鼎 2년(전115)에 張騫을 烏孫에 사신으로 보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자 그 땅에 酒泉郡을 두었다. 酒泉郡의 治所는 祿福에 있었는데, 지금의 甘肅省 酒泉縣이다.

665) 匈奴와 羌이 통하는 길을 끊는 것은 漢나라의 匈奴를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서 그들을 포위하는 방식의 일환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鹽鐵論』(「西域篇」, “胡西役大宛·康居之屬, 南與群羌通.”: 321)에서도 동일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666) 『史記』에는 “漢”이 있는데 저본에는 없다.

667) 전117년 이후 수년에 걸쳐 月氏는 匈奴의 공격을 받아 대부분 서쪽으로 옮겨갔다. 그들은 먼저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 일리하 유역과 그 서쪽에 자리잡고 大月氏를 형성했다. 그리고 서쪽으로 옮겨가지 않고 祁連山으로 들어가 羌人和 雜居한 소수의 세력이 小月氏를 형성했다. 여기서는 大月氏를 가리킨다(주185) 참조.

夏)⁶⁶⁸와 [우호관계를 맺어] 교통하고 [한나라의] 옹주를 오손왕(烏孫王)에게 시집보냄으로 썬⁶⁶⁹ 흉노의 서쪽에서 [그를] 지원하던 여러 나라⁶⁷⁰를 [그로부터] 떼어 놓았다. 또한 북쪽으로 농경지를 더욱 확장해 현뢰(眩雷)⁶⁷¹까지 나아가 요새를 구축해도 흉노는 끝내 감히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못하였다. 이해에 흡후 [조]신이 죽으니⁶⁷² 한나라의 집권자들은 흉노가 이미 쇠약해져 신하로서 따르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신은 사람됨이 강직하고 굽힐 줄 몰랐으며 평소 [그가] 높은 신하가 아니라고 하여 선우가 [그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 [선우가]⁶⁷³ [그를] 불러들이려고 해도 [양신이] 끝내 절(節)을 버리지 않자 선우가 이에 천막 밖에다 자리를 마련하고 양신을 만났다. [양]신이 선우에게 설명하여 말했다.⁶⁷⁴ “만약 [한나라와] 화친하기를 원하신다면 선우의 태자를 한나라에 볼모로 보내십시오.” 선우가 말하

668) 大夏(전246~전138): 나라 명칭으로 박트리아(Bactria 또는 Bactriana)를 말한다. 힌두쿠시산맥과 아무다리아 사이, 즉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고대 그리스인이 세운 나라이다. 페르시아어에서는 Bakhtar, 아랍어와 인도어에서는 Bhalika로 표기한다. 전126년 張騫이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大月氏의 침입을 받아 왕국이 망한 뒤였다고 한다. 『大宛列傳』에서는 大宛의 서남쪽으로 2천여 리 떨어진 곳에서 정착생활을 하여 성곽과 가옥을 가지고 있으며 大宛과 풍속이 같다고 하였다. 또 大君長은 없지만 때때로 성읍에 小長이 세워지고, 그 군대는 약하고 싸우기를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은 장사는 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大月氏가 흉노의 압박으로 서쪽으로 도망쳐 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모두 臣屬시켰다고 하였다. 대략 100여만 명이 되고, 도읍은 藍市城인데, 시장이 있어 각종 물건들을 판매하며, 그 동남쪽에는 身毒國이 있다고 하였다(『史記』 권123 「大宛列傳」: 3164). 또한 『漢書』 「西域傳」에 따르면 大月氏가 본래 敦煌과 祁連 사이에 있다가 목특선우에게 공격을 당해 그 왕의 두개골을 匈奴의 老上單于가 술잔을 만들었고, 대월지는 멀리 도망가 大宛의 서쪽으로 지나 大夏를 공격하여 복속시키고 媯水 북쪽에 도읍을 삼고 王庭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大夏의 일부는 月氏 공격을 받은 다음에 그 일부가 인도로 밀려 들어가 명맥을 유지했다고 한다(『漢書』 권96上 「西域傳」 〈大宛國〉: 3894~5).

669) 烏孫으로 시집간 공주는 漢 景帝의 손자 江都王 劉建의 딸 劉細君이다. 元封 6년(전105)에 烏孫王에게 출가하였다. 烏孫의 왕 昆莫은 그를 右夫人으로 삼았다. 武帝는 두 번에 걸쳐 宗室의 딸을 공주로 속여 烏孫王에게 출가시켰다(『漢書』 권96下 「西域傳」 〈烏孫國〉: 3903).

670) 月氏와 大夏 등의 나라를 말한다.

671) 眩雷: 고대 중족의 명칭으로 烏孫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 塔城縣 부근에 살았다. 혹 그 위치를 西河郡 西北邊 또는 內蒙古自治區 鄂托克旗地域이라고도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없다. 『史記』에는 “眩雷”로 되어 있다.

672) 前將軍 翁侯 趙信은 元朔 6년(전126) 夏에 匈奴에 투항하여 元封 4년(전107) 그곳에서 죽었다.

673) 『史記』에는 “單于”가 있는데 저본에는 없다.

674) 『史記』에는 “信既見單于, 說曰”로 되어 있다.

었다. “그것은 과거의 약속과⁶⁷⁵⁾ 다르오. 과거의 약속은 한나라에서 늘 옹주를 보내면서 비단, 명주섬, 식품 등을 등급 차이에 따라 주어 화친을 하면 흉노도 [한나라의] 변경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오. 지금 본래의 약속과 달리 나의 태자를 볼모로 달라 하니 [오히려 과거의 약속과 다른 이런 일은] 바라지도 마시오.”⁶⁷⁶⁾ 흉노의 습속에 따르면 한나라 사자가 중귀인(中貴人)⁶⁷⁷⁾이 아닐 경우 [그 사람이] 유생이면 설득하러 온 줄 알고 그의 변설을 꺾으려 하고,⁶⁷⁸⁾ [사람이] 나이가 젊으면⁶⁷⁹⁾ 자객이라 여겨 그의 기세를 꺾으려 했다. 매번 한나라의 군대가⁶⁸⁰⁾ 흉노로 들어올 때면 흉노 역시 바로 보복을 했다. 한나라에서 흉노의 사자를 잡아 두면 흉노 역시 한나라의 사자를 잡아두는 등 반드시 대등한 수단을 취하지 않고서는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⁶⁸¹⁾

楊信旣歸，漢使王烏等如匈奴。匈奴復諂以甘言，欲多得漢財物，給王烏：「吾欲入漢見天子，面相結爲兄弟。」王烏歸報漢，漢爲單于築邸于長安。匈奴：「非得漢貴人使，吾不與誠語。」匈奴使其貴人至漢，病，服藥欲愈之，不幸而死。漢使路充國佩二千石印綬，使送其喪，厚幣直數千金。單于以爲漢殺吾貴使者，乃留路充國不歸。諸所言者，單于特空給王烏，殊無意入漢，遣太子來質。於是匈奴數使奇兵侵犯漢邊。漢乃拜郭昌爲拔胡將軍，及浞野侯屯朔方以東，備胡。

675) 故約, 즉 과거의 약속은 漢 高祖가 使臣 劉敬을 보내 匈奴 冒頓單于와 맺은 和親之約을 말한다. 이것은 양국이 화친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그리고 文帝 前元 4년(전176)에 다시 冒頓單于와 漢 文帝가 편지를 통해 과거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한 文帝 6년(전174)에는 漢나라에서 匈奴의 冒頓單于에게 편지를 보내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양국의 화친 약속은 武帝시대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676) “無幾”는 “과거의 약속과 다르므로 볼모를 보내는 일은 결코 바랄 수 없다”는 의미이다.

677) 中貴人: ‘中貴’라고도 하는데, 皇帝의 寵愛를 받는 宦官을 말한다.

678) 『史記』에는 “折其辯”으로 되어 있다.

679) 『史記』에는 “其少年”으로 되어 있다.

680) 『史記』에는 “使”로 되어 있다.

681) 『史記』에는 “必得當乃肯止”로 되어 있다.

양신이 [그냥] 돌아온 뒤 한나라는 왕오 등을 흉노로 가게 했다. 흉노가 다시 속이는 말로 [왕오를] 달래 한나라의 재물을 많이 얻을 욕심에⁶⁸²⁾ 거짓으로 왕오에게 말하였다.⁶⁸³⁾ “내가 한나라에 [몸소] 들어가 천자를 뵈고 형제가 될 것을 서로 맺고⁶⁸⁴⁾ 싶네.” 왕오가 돌아와 한나라에 [이를] 아뢰자 한나라에서는 선우를 위해 장안에 큰 집을 지었다. [그러나 트집을 잡으며] 흉노 [선우]가 말하였다. “한나라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 사신으로 오지 않으면 나는 성실한 답을 줄 수 없소.” 흉노가 높은 지위의 인물을 사신으로 삼아 한나라에 보냈는데, 병이 나자 [한나라에서] 약을 먹여⁶⁸⁵⁾ 치료해 주고자 했으나 불행하게도 죽었다.⁶⁸⁶⁾ 그러자 한나라에서는 노충국(路充國)을 이천석⁶⁸⁷⁾ [고관이 차는] 인수(印綬)를 주어 사신으로 가게 하고 그 유해를 호송하게 하였는데, 후한 예물이 수천 금에 달하였다.⁶⁸⁸⁾ 선우는 한나라가 자신의 고귀한 사자를 죽였다고 여겨 바로 노충국을 잡아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선우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의 말들은 다만 선우가 왕오 등을 속인 것에 불과할 뿐이지 특별히 한나라에 들어가거나 태자를 볼모로 보낼 생각이 없었다. 이에 흉노는 여러 번 기습부대로 하여금 변경을 침범하도록 했다. 한나라에서는 이에 광창(郭昌)⁶⁸⁹⁾을 말호장군(拔胡將軍)으로 삼고, 또한 착야후⁶⁹⁰⁾ [조파노]를 삭방의 동쪽에 주둔시켜 흉노에 대비했다.

682) 『史記』에는 “漢使王烏，而單于復調以甘言，欲多得漢財物”로 되어 있다.

683) 『史記』에는 “給謂王烏曰”로 되어 있다.

684) 『史記』에는 “約”으로 되어 있다.

685) 『史記』에는 “漢予藥”으로 되어 있다.

686) 漢 武帝 元封 4년(전107) 가을이다.

687) 二千石: 漢代 관인의 등급을 표시하는 秩을 말한다. 안으로 九卿郎將과 밖으로 郡守, 郡尉까지 官秩이 모두 二千石이었다. 官秩이 다르고 印綬도 규모가 역시 달랐다(『漢書』 권19 「百官公卿表」). 二千石印綬의 規格은 銀印青綬였다.

688) 『史記』에는 “而漢使路充國佩二千石印綬往使，因送其喪，厚葬直數千金，曰：‘此漢貴人也。’”로 되어 있는데, 저본에서는 “曰：‘此漢貴人也。’”이 없다.

689) 郭昌: 雲中(內蒙古自治區 托克托 동북쪽) 사람으로 校尉로서 大將軍을 수행했다. 元封 4년(전107) 太中大夫로서 拔胡將軍이 되어 朔方에 주둔했다. 宣帝시대에 諫大夫가 되었다(『漢書』 권55 「衛青霍去病傳」: 2492).

690) “浞野侯”는 趙破奴이다.

烏維單于立十歲死，子詹師廬立，年少，號爲兒單于。是歲，元封六年也。自是後，單于益西北。左方兵直雲中，右方兵直酒泉·敦煌。

오유선우가 즉위한 지 십년 만에 죽자⁶⁹¹ [그의] 아들 첨사려(詹師廬)⁶⁹²가 즉위했는데⁶⁹³ 나이가 어려 아선우(兒單于)라 불렸다. 이 해가 [한나라의] 원봉(元封)⁶⁹⁴ 6년(전105)이었다. 이로부터 이후에⁶⁹⁵ 선우가 더욱 서북쪽으로 [옮겨가] 좌익의 군사가 운중[군]에 맞서고, 우익의 군사가 주천[군], 둔황[군](敦煌郡)⁶⁹⁶에 맞서게 했다.

兒單于立，漢使兩使，一人弔單于，一人弔右賢王，欲以乖其國。使者入匈奴，匈奴悉將致單于。單于怒而悉留漢使。漢使留匈奴者前後十餘輩，而匈奴使來漢，亦輒留之相當。

아선우가 즉위하자 한나라에서 두 명의 사신을 보낸 것은 하나는 선우를 조문하고 하나는 우현왕⁶⁹⁷을 조문하여 그 나라를 이간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신들이 흉노로 들어가자 흉노는 모두를 선우에게로 데려갔다. 선우가 화를 내면서 한나라 사신을 모두⁶⁹⁸ 잡아 두었다. 한나라 사신으로 억류된 사람은 전후로 십여 명이었는데, 흉노의 사자가 한나라에

691) 烏維單于는 元鼎 3년(전114)에 즉위하여 재위 10년 만인 漢 元封 6년(전105)에 죽었다. 『史記』에는 “烏維單于立十歲而死”로 되어 있다.

692) 『史記』에는 “烏師廬”로 되어 있다.

693) 『史記』에는 “子烏師廬立爲單于”로 되어 있다.

694) 漢 武帝의 여섯 번째 연호(전110~전105)이다.

695) 『史記』에는 “自此之後”로 되어 있다.

696) 敦煌: 郡 명칭으로 치소는 敦煌縣(지금의 敦煌市 서쪽)이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甘肅省 疏勒河 서쪽과 남쪽 지역이었다(高榮, 2004: 24). 『史記』에는 “燉煌郡”으로 되어 있다.

697) 右賢王의 이름은 兜犁湖로 烏維單于의 동생이고 烏師廬 兒單于의 숙부이다. 兒單于가 죽은 다음에 그를 이어 8代 單于가 되었다.

698) 『史記』에는 “盡”으로 되어 있다.

오면 역시 [한나라가] 번번이 잡아 두어 [그 숫자가] 서로 대응했다.⁶⁹⁹⁾

是歲，漢使貳師將軍西伐大宛，而令因杆將軍築受降城。其冬，匈奴大雨雪，畜多飢寒死，而單于年少，好殺伐，國中多不安。左大都尉欲殺單于，使人間告漢：「我欲殺單于降漢，漢遠，漢即來兵近我，我即發。」初漢聞此言，故築受降城，猶以爲遠。

이해에⁷⁰⁰⁾ 한나라에서는 이사장군(貳師將軍)⁷⁰¹⁾ [이광리(李廣利)]를⁷⁰²⁾ 시켜 서쪽으로 대완(大宛)⁷⁰³⁾을 정벌케 하고, 인우⁷⁰⁴⁾장군(因杆將軍) [공손오]를 시켜 수항성(受降城)⁷⁰⁵⁾을 쌓게 했다. 그해 겨울 흉노 [땅]에는 큰 눈이 내려 가축이 대다수 굶주리고 얼어 죽었고,⁷⁰⁶⁾

699) 『史記』에는 “而匈奴使來，漢亦輒留相當”으로 끊어 읽어 의미상의 차이는 없으나 문형이 바뀌었다.

700) 漢 武帝 太初 元年(전104)의 일이다.

701) 貳師: 大宛의 城 이름이다. 여기에서는 將軍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702) 李廣利: 中山(지금의 河北省 定縣) 사람이다. 여동생 李夫人이 漢 武帝의 총애를 받아 등용되었다. 大宛 정벌의 명을 받고 貳師城에 이르러 善馬를 얻어 돌아와 貳師將軍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후에 匈奴를 공격하다 패하고 항복하였다가 匈奴에게 피살되었다(『漢書』 권61 「張騫李廣利傳」: 2699~2704). 『史記』에는 ‘貳師將軍廣利’로 되어 있는데, 저본에는 “廣利”가 없다.

703) 大宛: 음은 ‘대완’이다. 고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파미르고원 서쪽 기슭 지금 키르기스스탄의 페르가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북으로는 康居, 서남으로는 大月氏, 大夏, 동북으로는 烏孫과 접해 있었다. 貴山이 都城이었다(『漢書』 권96上 「西域傳」 〈大宛國〉: 3894).

704) 因杆: 匈奴의 地名이다.

705) 受降城: 匈奴 貴族의 투항을 맞이하기 위하여 쌓은 성이었다.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巴彥淖爾盟 烏拉特中後旗 동쪽 지역에 그와 관련된 유적이 남아 있다.

706) 몽골 초원의 자연재해는 유목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가축을 길러야 했기 때문이다. “큰 눈이 내려 가축이 대다수 굶주리고 얼어 죽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건조한 초원에 눈이 계속되면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발생하였다. 초원의 재해는 가축의 폐사와 함께 목민들의 기근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유목 경제 자체의 와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이렇게 유목민들이 자연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遊牧이라는 생산양식 자체가 축적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겨울철에도 초지에 가축을 그대로 방목을 하는 유목 경영방식에서 지금에 비해 훨씬 열악한 조건이었을 匈奴時代에 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재해에는 건조지역에 비가 계속 오는 것 이외에도 가뭄(黑災), 한파(寒波), 폭설(暴雪, 白災)

아선우가 아직 어리고 호전적이어서 백성들 대부분이 안심하지 못하였다. 좌대도위(左大都尉)⁷⁰⁷⁾가 선우를 죽이고자 해서 몰래 사람을 시켜 한나라에 고하여 말하였다. “제가 선우를 죽이고 한나라에 항복하고자 하는데, 한나라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한나라⁷⁰⁸⁾ 군대가 바로 와서 저를 맞아주면 제가 바로 실행할 것입니다.” 일찍이 한나라에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수항성을 쌓았지만 그래도 [천자는 흉노와 너무] 멀다고 여겼다.

其明年春，漢使浞野侯破奴將二萬騎出朔方北二千餘里，期至浚稽山而還。浞野侯既至期，左大都尉欲發而覺，單于誅之，發兵擊浞野侯。浞野侯行捕首虜數千人。還，未至受降城四百里，匈奴八萬騎圍之。浞野侯夜出自求水，匈奴生得浞野侯，因急擊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늑대 피해(狼害: 겨울철 늑대들이 가축을 공격하는 것)와 가축 전염병(疫)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초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黑災)과 폭설(白災)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고, 그 다음은 가축 전염병이었다. 초원의 가뭄은 초지를 줄어들게 만들어 가축들의 생존을 어렵게 했고, 그에 따라 먹을 것이 줄어들어 약해진 가축들은 이사하거나 병에 걸려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초원이 황무지(赤地)라고 할 정도로 더 이상 풀이 자랄 수 없게 되고, 이런 파괴로 인해 유목민들은 재생산 기반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가뭄으로 인한 초지의 축소는 지금도 유목민들의 생존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로 기근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폭설은 겨울 내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 유목민들의 기근을 야기했고, 지금도 유목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폭설은 지역적으로 북위 41도 이북으로 해발 2500~3000m 이상의 지역에서 언제든지 빈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몽골 초원은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폭설의 발생이 주기적이기는 하지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응이 어려웠고, 그 외의 시기에도 언제든지 한파, 눈보라와 함께 닥칠 가능성이 있어 몽골 유목민들에게는 이런 재해가 치명적이었다. 특히, 눈보라와 한파를 동반하는 특성은 유목민들과 가축들을 고립시켜 동사하거나 기아로 아사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자연재해는 유목사회의 경우에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3년에 한번 小災, 5년에 한번 中災, 10년에 한 번 大災가 발생했다. 따라서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유목 경제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다. 특히, 말기에 이런 재해가 집중되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되면서 내적인 분열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匈奴의 경우에도 자연재해의 발생은 각 부족들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초래하여 제국의 분열과 약화를 가져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額爾敦布和, 1988: 146).

707) 左大都尉: 匈奴의 관직 명칭으로 左大將의 아래, 左大當戶의 위에 위치했다.

708) 『史記』에는 “漢”이 없다.

其軍。軍吏畏亡將而誅，莫相勸而歸，軍遂沒於匈奴。單于大喜，遂遣兵攻受降城，不能下，乃侵入邊而去。明年，單于欲自攻受降城，未到，病死。

그 이듬해⁷⁰⁹⁾ 봄 한나라에서는 착야후 [조]파노에게 2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삭방[군]에서 서북으로 2천여 리를 나아가⁷¹⁰⁾ 준계산(浚稽山)⁷¹¹⁾까지 갔다가 돌아올 것을 기약했다. 착야후는 이미 [기약한] 날짜가 되었는데,⁷¹²⁾ 좌대도위가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발각되자 선우가 [그를] 죽이고 [좌익의]⁷¹³⁾ 군대를 일으켜 착야후를 공격했다. 착야후는 [그 이전 행군 중에] 수급과 포로 수천을 잡았다. [그는] 돌아오다가 수항성에서 4백 리쯤 떨어져 있는 곳에서 흉노 [군대]⁷¹⁴⁾ 8만 기에게 포위되었다. 착야후가 밤에 목소 물을 구하러 나갔는데, [그를 숨어 있던] 흉노가 [그를] 사로잡고⁷¹⁵⁾ 그의 군대를 공격했다. 병사와 관리들은 장군을 잃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서로 돌아갈 것을 권하지 못하여 병사들이 마침내 흉노에 투항했다.⁷¹⁶⁾ [아]선우⁷¹⁷⁾가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 기습부대를 보내 수항성을 공격했다가 함락시키지 못하자 변경을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그 이듬해⁷¹⁸⁾ 선우가 목소 수항성을 공격하려 나섰다가 [수항성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나서 죽었다.

709) 漢 武帝 太初 2년(전103)의 일이다.

710) 左大都尉를 맞이하기 위함이었다.

711) “浚稽山”은 武威 북쪽에 있었다. 內蒙古의 居延海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몽골공화국 南部의 고비 알타이 산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712) 『史記』에는 “浞野侯 既至期而還”으로 되어 있다.

713) 『史記』에는 “左方兵”으로 되어 있다.

714) 저본에는 “兵”이 없다.

715) 『史記』에는 “匈奴間捕，生得浞野侯”로 되어 있다.

716) 『史記』에는 “軍吏畏亡將而誅，莫相勸而歸，軍遂沒於匈奴。”가 『漢書』에서 “軍中郭縱爲護，維王爲渠，相與謀曰：“及諸校尉畏亡將軍而誅之，莫相勸歸。軍遂沒於匈奴”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717) 『史記』에는 “匈奴兒單于”로 되어 있다.

718) 漢 武帝 太初 3년(전102)의 일이다.

兒單于立三歲而死，子少，匈奴乃立其季父烏維單于弟右賢王句黎湖爲單于。是歲，太初三年也。

아선우는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었다. 그 아들이 어려서⁷¹⁹⁾ 흉노에서는 바로 그의 숙부이자 오유선우의 동생인 우현왕 구려호(句黎湖)⁷²⁰⁾를 선우로 세웠다. 이해가 [한 무제] 태초(太初) 3년(전102)이었다.

句黎湖單于立，漢使光祿徐自爲出五原塞數百里，遠者千里，築城障列亭至盧胸，而使游擊將軍韓說·長平侯衛伉屯其旁，使強弩都尉路博德築居延澤上。

구려호선우가 즉위하자 한나라에서는 광록[훈](光祿勳) 서자위(徐自爲)를 시켜 오원새(五原塞)⁷²¹⁾에서 수백 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멀리 천여 리에 걸쳐 성채와 망루⁷²²⁾를 쌓아 [흉노의 영역인] 여구[산](盧胸山)⁷²³⁾까지 연결하게 했다. 유격장군(遊擊將軍) 한열(韓說)⁷²⁴⁾과 장평후(長平侯) 위항(衛伉)⁷²⁵⁾을 그 옆에 주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노도위(強弩都尉) 노박

719) 『史記』에는 “子年少”로 되어 있다.

720) 句黎湖(재위 전102~전101): 음은 ‘구려호’이다. 匈奴의 여덟 번째 單于이다. 『史記』에는 “响黎湖”로 되어 있다.

721) 五原塞: 지명으로 五原郡의 榆林塞를 가리킨다.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包頭市 西北이다. 일설에는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河套(오르도스) 동북쪽에 위치한다고도 한다(주758) 참조).

722) 障: 변경의 장성에 요새를 세울 때 산 속에 있는 작은 城을 말한다. 望臺를 亭이라 하였다(주486) 참조).

723) 盧胸山: 산 명칭으로 內蒙古自治區의 狼山 北麓에 위치하고 있었다. 盧胸은 원래 匈奴의 지명이다. 『史記』에는 “盧胸山”으로 되어 있다.

724) 韓說: 弓高壯侯 韓頌의 庶孫으로 衛靑을 따라 匈奴를 격퇴하였다. 그 공으로 龍頰侯에 봉해졌다가 이후에 작위를 잃었다. 이후에 다시 東越의 공격에 공이 있어 按道侯에 봉해졌다. 遊擊將軍이 되어 五原에 주둔하면서 城을 수축하는 일을 했다. 관직은 光祿勳에 이르렀다. 후에 황태자 劉據에게 괴살당하였다(『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2944).

725) 衛伉: 大將軍 衛靑의 長子로 죄를 지어 侯를 잃었다. 元封 5년(전106)에 大將軍이 죽자 長平侯가 되었다가 征和 2년(전91) 春에 巫蠱사건으로 주살되었다(『漢書』 권55 「衛靑霍去病列傳」: 2489).

덕(路博德)⁷²⁶을 거연택(居延澤)⁷²⁷ 주변에 [요새를] 쌓고 거주하게 했다.

其秋，匈奴大入雲中·定襄·五原·朔方，殺略數千人，敗數二千石而去，行壞光祿所築亭障。又使右賢王入酒泉·張掖，略數千人。會任文擊救，盡復失其所得而去。聞貳師將軍破大宛，斬其王還，單于欲遮之，不敢，其冬病死。

그해⁷²⁸) 가을 흉노가 운중[군], 정양[군], 삭방[군]⁷²⁹)으로 대거 [침입해] 들어와 수천 명을 죽이거나 잡아갔다. 이천 석[의 고관] 몇 명이 [이끄는 군사들] 격파한 뒤 돌아가면서 광록[대부 서자위]가 구축한 망루와 성채마저 파괴하였다. 또한 [흉노는] 우현왕을 시켜 주천, 장액[군](張掖郡)⁷³⁰)에 들어와 수천 명을 잡아갔다. 마침 [한나라 장수] 임문(任文)⁷³¹)이 출격해 [이들을] 구출하니⁷³²) [흉노가] 다시 얻은 것을 모두 잃고 돌아갔다. [이해]⁷³³) 이사장군 [이광리]가 대원을 격파해 그 왕을 베고 돌아왔다는 것을 듣고 선우가 [그의 귀로를] 차단하려 했으나 감히 하지 못하고 [마침] 병에 걸려 죽었다.⁷³⁴)

726) 路博德: 西河 平州(지금의 山西省 林汾市 일대) 사람이다. 右北平 太守로 驃騎將軍을 따라 원정하여 공을 세워 涿離侯로 봉해졌다. 이후에 衛尉가 되어 伏波將軍이 되었다. 죄를 지어 侯를 잃고 穹廬都尉로 居延에 주둔해 있다가 죽었다(『漢書』 권55 「衛青霍去病列傳」 〈路博德〉: 2493).

727) 居延澤: 호수 명칭으로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額濟納旗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728) 漢 武帝 太初 3년(전102) 가을의 일이다.

729) 『史記』에는 “定襄·雲中”으로 되어 있다.

730) 張掖郡: 郡 명칭으로 武帝 元鼎 6년(전111)에 武威郡에서 분리되어 설치되었다. “張國臂掖”에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고 한다. 치소는 麟得縣(지금의 甘肅省 張掖市 서북 40여 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甘肅省 高臺縣 이동 弱水 상류와 內蒙古自治區 額濟納旗지역이다.

731) 任文: 漢나라 장군이다. 그는 玉門關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貳師將軍의 뒤를 지켰다.

732) 擊救는 匈奴를 공격하여 스스로 한나라 사람들을 구하였다는 의미이다.

733) 漢 武帝 太初 3년(전102)의 일이다. 저본에는 “是歲”가 없다.

734) 漢 武帝 太初 4년(전101) 겨울의 일이다. 『史記』에는 “匈奴欲遮之，不能至。其冬，欲攻受降城，會單于病死。”로 되어 있다.

句黎湖單于立一歲死，其弟左大都尉且鞮侯立爲單于。

구려호선우는 즉위한 지 1년 만에 죽으니 [흉노가] 이에 그의 동생 좌대도위 저제후(且鞮侯)⁷³⁵⁾를 세워 선우로 삼았다.

漢既誅大宛，威震外國，天子意欲遂困胡，乃下詔：「高皇帝遺朕平城之憂，高后時單于書絕悖逆。昔齊襄公復九世之讎，春秋大之。」是歲，太初四年也。

한나라가 이미 대원[왕]을 베니 위세가 다른 나라에도 떨쳤고,⁷³⁶⁾ [그래서] 천자가 [차제에] 흉노를 곤궁케 하려고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렸다. “고조 황제는 짐에게 평성(平城)의 고통을 남겼다. 고후(高后) 때에는 선우가 매우 무도한 편지를 보내왔다. 옛날 제(齊)의 양공(襄公)이 구세(九世)의 원수를 갚으니 『춘추(春秋)』⁷³⁷⁾에서 이것을 칭찬했다.”⁷³⁸⁾ 이 해가 태초 4년(전 101)이었다.

且鞮侯單于初立，恐漢襲之，盡歸漢使之不降者路充國等於漢。單于乃自謂「我兒子，

735) 且鞮侯(재위 전101~전96): 음은 저제후이다.匈奴의 아홉 번째 單于이다.

736) 漢武帝 太初 3년(전102)에 漢나라가 다시 大宛을 공격하자 大宛의 귀족이 왕 毋寡를 살해하고 漢나라에 항복하였다.

737) 春秋: 魯나라에 전해오는 사관의 기록을 바탕으로 孔子가 隱公 元年(전722)에서 哀公 14년(전481)의 獲麟까지 12명의 公, 242년간의 사건 기록을 編年體로 엮은 사서이다. 중국 최초의 편년사이며 간략한 서술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西周 金文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초기 산문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문장은 비록 아주 짧지만 字句의 운용이나 구성은 『書經』보다 훨씬 발전하여 간결하고 평이하다.

738) 『春秋 公羊傳』 莊公 4년 春에 齊나라 襄公이 紀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복수를 한 것이다. 襄公의 九世祖이 이전에 紀侯에게 무고되어 후이 周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襄公이 紀나라를 멸망시킨 것이다. 9대가 지난 다음에도 복수를 할 수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비록 100대라도 가능하다고 했다(莊四年春, 齊襄公滅紀, 復讎也. 襄公之九世祖昔爲紀侯所誣, 而亨殺于周, 故襄公滅紀也. 九世猶可以復讎乎? 曰: 雖百世可也.”).

安敢望漢天子! 漢天子, 我丈人行。」漢遣中郎將蘇武厚幣賂遺單于, 單于益驕, 禮甚倨, 非漢所望也。明年, 浞野侯破奴得亡歸漢。

저제후선우가 처음 즉위하였을 때 한나라가 습격할까 걱정하여 한나라 사신 가운데 [흉노에] 항복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 주었다. 선우가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⁷³⁹⁾ “나는 어린애다. 어떻게 내가 감히 한나라의 천자와 [대등하기를] 바라겠는가! 한나라 천자는 나의 [아버지 같으신] 어른이다.”⁷⁴⁰⁾ 한나라에서는 중랑장⁷⁴¹⁾ 소무(蘇武)⁷⁴²⁾를 보내 선우에게 후하게 예물을 주니 선우가 더욱 교만해져 예의가 심하게 거만해졌는데, 이것은 한나라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그 이듬해 착야후 [조]파노가 한나라로 도망쳐 돌아왔다.⁷⁴³⁾

其明年, 漢使貳師將軍將三萬騎出酒泉, 擊右賢王於天山, 得首虜萬餘級而還。匈奴大圍貳師, 幾不得脫。漢兵物故什六七。漢又使因杆將軍出西河, 與強弩都尉會涿邪山, 亡所得。使騎都尉李陵將步兵五千人出居延北千餘里, 與單于會, 合戰, 陵所殺傷萬餘人, 兵食盡, 欲歸, 單于圍陵, 陵降匈奴, 其兵得脫歸漢者四百人。單于乃貴

739) 『史記』에는 “且鞮侯單于既立, 盡歸漢使之不降者, 路充國等得歸。單于初立, 恐漢襲之, 乃自謂……”로 되어 있다. 순서가 도치되기는 하였으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740) “丈人”은 노인을 존중해서 부르는 칭호이다.

741) 中郎將: 관직의 명칭으로 皇帝의 護衛部隊를 통솔하여 좌우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떤 때는 禁軍을 통솔하기도 하였는데 將軍 아래에 있는 직책이다.

742) 蘇武(?~전60): 字가 子卿으로 杜陵(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동남쪽) 사람이다. 遊擊將軍 蘇建의 아들이다. 그는 天漢 元年(전100)에 匈奴가 억류한 漢나라의 사신을 모두 석방하자 武帝가 이런 單于의 생각을 좋게 생각하여 漢나라에 머물고 있던 匈奴 사신을 송환하도록 하기 위해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그 이후에 뜻밖의 사건으로 單于로부터 투항을 권유받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19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漢나라로 다시 돌아와 영웅이 되었으나 부인이 개가를 하고 靖亂으로 아들을 잃는 등 개인적으로 불행한 운명을 맞았다(도미야 이타루, 2003: 11~19).

743) 바로위 문단과 아래의 두 문단은 『史記』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달라 학자들은 후세 사람의 가필로 여기고 있다. 이것을 주로 天漢년간(전100~전97)과 征和년간(전92~전98)에 일어난 일로 보고 있다. 匈奴에서 사신들 중에 항복하지 않은 자를 돌려보낸 것이 天漢 元年(전100)의 일이다.

陵, 以其女妻之.

그 이듬해⁷⁴⁴ 한나라에서는 이사장군⁷⁴⁵을 시켜 삼만 기를 거느리고 주천에서 나가 천산(天山)⁷⁴⁶에서 우현왕을 공격해 [흉노의] 수급과 포로 만여 인을 얻어 돌아왔다. 흉노가 이사[장군의 부대]를 크게 포위하니 거의 빠져나갈 수 없었다.⁷⁴⁷ 한나라 군대는 열에 여섯 일곱을 잃었다. 한나라에서는 또한⁷⁴⁸ 인우장군 [공손오]를 시켜 서하(西河)⁷⁴⁹에서 나가 강노도위(彊弩都尉)⁷⁵⁰ [노박덕]과 탁야산(涿邪山)⁷⁵¹에서 만났으나 얻은 바가 없었다. 또 기도위(騎都尉) 이릉(李陵)⁷⁵²을 시켜 보병과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거연에서 북쪽으로 천여 리 나아가 선우와 만나 전투를 벌여 [이]릉이 [흉노병] 만여 명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였으나 병력[과] 식량이 다 떨어져 [포위를 풀고] 돌아오려고 하자⁷⁵³ 선우가⁷⁵⁴ [이]릉을 포위하니 [이]릉이 흉노

744) 漢 武帝 天漢 2년(전99)의 일이다.

745) 『史記』에는 “廣利”로 되어 있다.

746) 天山: 산 명칭인데, 다양한 위치 비정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張掖縣에 있는 祁連山이 아니라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 하미(哈密: 伊州) 이북의 巴里坤 哈薩克自治縣 부근에 있는 蒲類海 근처에 위치한 天山을 가리킨다.

747) 『史記』에는 “幾不脫”로 되어 있다.

748) 『史記』에는 “復”으로 되어 있다.

749) 西河: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山西省, 陝西省 변경지대로 陝西 東部 黃河 西岸을 통칭한다(주102) 참조.

750) “彊弩都尉”는 路博德을 말한다. 그는 驃騎將軍을 따라 공을 세워 符離侯가 되었다. 그는 이후 죄를 지어 侯를 잃었다가 彊弩都尉가 되어 居延에 주둔했다.

751) 涿邪山: 음은 탁야산이다. 산 명칭으로 內蒙古의 居延海의 서북에서 떨어진 지금 몽골공화국의 西部에 있는 만달 고비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史記』에는 “涿涂山”으로 되어 있다.

752) 李陵(?~전74): 자는 小卿으로 隴西 成紀(지금의 甘肅城 秦安縣) 사람이다. 명장 李廣의 손자로 병사 8백 기를 이끌고 匈奴로 쳐들어가 2천 리를 들어가 지형을 살피고 돌아와 騎都尉가 되었다. 하지만 5천 명의 보병으로 匈奴를 공격하다가 잡혔다. 그 이후 가족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죽임을 당하자 匈奴에 투항하였다(『漢書』 卷54 「李廣蘇建傳」 <李陵>: 2450~2458). 司馬遷은 그를 변호하다가 궁형을 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그가 이후 蘇武에게 보낸 편지가 『文選』에 남아 있다(도미야 이타루, 2003: 11~19).

753) 『史記』에는 “兵及食盡, 欲解歸”라고 되어 있다.

754) 『史記』에는 “匈奴”로 되어 있다.

에 투항하고 그의 병사[중에서] 벗어나 한나라로 돌아온 자가 [겨우] 4백 명이었다⁷⁵⁵. 선우는 이에 [이]릉을 귀하게 여겨 그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

後二歲，漢使貳師將軍六萬騎，步兵七萬，出朔方；強弩都尉路博德將萬餘人，與貳師會；游擊將軍說步兵三萬人，出五原；因杆將軍敖將騎萬，步兵三萬人，出雁門。匈奴聞，悉遠其累重於余吾水北，而單于以十萬待水南，與貳師接戰。貳師解而引歸，與單于連門十餘日。游擊亡所得。因杆與左賢王戰，不利，引歸。

그 후 2년이 지나서 다시 이사장군 [이광리]를 시켜 6만의 기병과 보병 7만⁷⁵⁶을 거느리고 삭방에서 나아가게 했다. 강노도위 노박덕이 만여 명을 거느리고 이사장군 이광리와 만났다. 유격장군 [한]열은⁷⁵⁷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오원[군](五原郡)⁷⁵⁸에서 나갔다. 인우장군 [공손]오는 만 명의 기병과 보병 삼만 명을 거느리고 안문[군]에서 나갔다. 흉노가 [이 정보를] 듣고 짐이 될 수 있는 처자와 재산[累重]⁷⁵⁹을 모두 여오수(余吾水)⁷⁶⁰의 북쪽으로 대피시킨 다음 선우가 10만 기를 이끌고 [여오]수 남쪽에서 기다렸다가 이사장군 이광리와 전투를 벌였다. 이사장군 이광리는 공격을 풀고 되돌아오다가 선우와 연이어 10여 일을 싸웠다. 유격[대장 한열]도 전과가 없었다. 인우[장군 공손오]도 좌현왕과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자 철수해 돌아왔다.⁷⁶¹

755) 『史記』에는 “其兵遂沒，得還者四百人”로 되어 있다.

756) 『史記』에는 “十萬”으로 되어 있다.

757) 說: 韓說을 말한다. 弓高侯의 庶孫으로 校尉로서 大將軍을 따라 匈奴 정벌에 공을 세워 龍頰侯가 되었다가 죄를 지어 侯를 잃었다. 元鼎 6년(전111) 橫海將軍으로 東越을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워 按道侯가 되었다 太初 3년(전102) 游擊將軍이 되어 五原 밖에 주둔해 있었다. 光祿勳이 되었다가 巫蠱사건으로 戾太子에게 죽임을 당했다.

758) 五原郡: 郡 명칭으로 前漢 元朔 2년(전127)에 설치되었다. 치소는 九原縣(지금의 內蒙古自治區 烏拉特前旗 동남 黑柳子鄉 三頂房村 古城)이다. 관할구역은 內蒙古自治區 後套 이동, 陰山 이남, 包頭市 이서와 達拉特, 准噶爾旗 지역이다. 後漢 말에 폐지되었다(주721) 참조.

759) 累重: 짐이 될 수 있는 처자와 재산을 의미한다.

760) 余吾水: 강의 명칭으로 『山海經』 「北山經」에서 “涂吾之水”라고 되어 있다. 지금의 몽골공화국에 있는 셀렝게강의 중요한 지류 중의 하나인 툴 강을 지칭한다.

明年，且鞮侯單于死，立五年，長子左賢王立爲狐鹿姑單于。是歲，太始元年也。

이듬해 저제후선우가 죽었는데, 즉위한 지 5년 만이었고, 맏아들인 좌현왕이 즉위하여 호록고선우(狐鹿姑單于)⁷⁶²가 되었다. 이해가 태시(太始) 원년(전96)이었다.

初，且鞮侯兩子，長爲左賢王，次爲左大將，病且死，言立左賢王。左賢王未至，貴人以爲有病，更立左大將爲單于。左賢王聞之，不敢進。左大將使人召左賢王而讓位焉。左賢王辭以病，左大將不聽，謂：「卽不幸死，傳之於我。」左賢王許之，遂立爲狐鹿姑單于。

이전에 저제후[선우는] 아들이 둘이 있어 큰아들을 좌현왕으로 삼고, 작은아들을 좌대장⁷⁶³으로 삼았는데, [저제후선우가] 병이 나서 죽으면서 좌현왕을 세우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좌현왕이 오기 전에 귀인들이 [그 역시] 병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좌대장을 세워 선우로 삼았다. 좌현왕이 [이를] 듣고 감히 나서지 못하였다. 좌대장이 사람을 시켜 좌현왕을 부른 다음 [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좌현왕이 병을 핑계로 사양하니 좌대장이 듣지 않고 말하였다. “만약 불행히도 돌아가신다면 [그때에 가서] 저에게 넘기십시오.” [이에] 좌현왕이 허락하고 마침내 즉위하여 호록고선우가 되었다.

761) 여기까지 『史記』와 『漢書』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인데, 『史記』에서는 “이해에 漢나라 군사로 출정해 匈奴와 싸운 사람 중에서 軍功을 따질 만한 여지조차 없어 論功할 만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한편] 조칙을 내려 太醫令 隨但을 체포했는데, [이는] 그가 貳師將軍 [李廣利의] 가족이 몰살되었다고 말해 李廣利를 匈奴에 투항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是歲漢兵之出擊匈奴者不得言功多少，功不得御。有詔捕太醫令隨但，言貳師將軍家室族滅，使廣利得降匈奴：2918).”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전97년까지 『史記』의 기록이 마무리되고 『漢書』에는 그 이후의 부분이 이어진다.

762) 狐鹿姑單于(재위 전96~전85): 음이 ‘호록고’인데, 匈奴의 10대 單于이다.

763) 左大將: 匈奴 관직의 하나로 左部의 首將인 左賢王를 보좌하는 官리의 하나로 左谷蠡王의 아래에 있었다(주220) 참조).

狐鹿姑單于立，以左大將爲左賢王，數年病死，其子先賢揮不得代，更以爲日逐王。日逐王者，賤於左賢王。單于自以其子爲左賢王。

호록고선우가 즉위하자 좌대장을 좌현왕으로 삼았는데, 몇 년 있다가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선현전(先賢揮)⁷⁶⁴이 그를 대신하지 못하고 바꾸어 일축왕(日逐王)⁷⁶⁵으로 삼았다. 일축왕은 [그 지위가] 좌현왕보다 낮았다. 선우가 스스로 그의 아들을 좌현왕으로 삼았다.

單于旣立六年，而匈奴入上谷·五原，殺略吏民。其年，匈奴復入五原·酒泉，殺兩部都尉。於是漢遣貳師將軍七萬人出五原，御史大夫商丘成將三萬餘人出西河，重合侯莽通將四萬騎出酒泉千餘里。單于聞漢兵大出，悉遣其輜重，徙趙信城北邸郵居水。左賢王驅其人民度余吾水六七百里，居兜銜山。單于自將精兵左安侯度姑且水。

선우가 즉위한 지 6년⁷⁶⁶이 되었는데, 흉노가 상곡[군]과 오원[군]으로 쳐들어와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잡았다. 그 해⁷⁶⁷에 흉노가 다시 오원[군]과 주천[군]으로 쳐들어와 두 도위(都尉)⁷⁶⁸를 죽였다. 이에 한나라에서는 이사장군과 7만의 군사를 보내 오원에서 나아가게 하고, 어사대부 상구성이 3만여⁷⁶⁹ 명을 이끌고 서하에서 나아가게 하고, 중합후(重合侯) 망통(莽通)⁷⁷⁰이 4만 기를 이끌고 주천에서 천여 리를 나아가게 했다. 선우가 한나라의 군대

764) 先賢揮: 음은 '선현전'이다.

765) 日逐王: 匈奴의 관직명으로 左右의 구별이 있었다. 左右賢王과 左右谷蠡王 아래에 위치하고, 대체적으로 單于의 자제들이 맡았다. 匈奴 관제에서 '六角'의과 이룸며 24개 萬騎長의 하나로서, 匈奴의 서쪽 지역을 주로 담당하였다(주219) 참조.

766) 漢 武帝 征和 2년(전91)의 일이다.

767) 『漢書』「武帝紀」에 따르면 漢 武帝 征和 3년(전90)의 일이다. 왜냐하면 匈奴가 征和 2년(전91)에 上谷과 五原에 쳐들어왔고, 이듬해에 五原과 酒泉에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768) 兩部都尉에서 “部”는 잘못 들어간 것으로 “兩都尉”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69) 『漢書』「武帝紀」에는 “二萬人”으로 되어 있다.

770) 莽通: 원래 이름은 馬通이다. 明德馬后가 그의 선조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싫어하여 姓을 莽으로 바꾸게 했기 때문에 莽通이 되었다.

의 대거 출정 [소식]을 듣고 모든 보급품[輜重]을 조신성 북쪽으로 옮겨 질거수(鄜居水)⁷⁷¹에 도착했다. 좌현왕은 그 백성을 몰아 여오수(余吾水)를 건너 6, 7백 리 정도 떨어져 있는 두함산(兜銜山)⁷⁷²에 머물렀다. 선우가 몸소 정예 군대를 이끌고 안후(安侯)의⁷⁷³ 좌측으로 돌아 고저수(姑且水)⁷⁷⁴를 건너갔다.

御史大夫軍至追(斜)[邪]徑，無所見，還。匈奴使大將與李陵將三萬餘騎追漢軍，至浚稽山合，轉戰九日，漢兵陷陳卻敵，殺傷虜甚衆。至蒲奴水，虜不利，還去。

어사대부 [상구성]의 군대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추사경(追邪徑)까지 갔어도⁷⁷⁵ [홍노를] 찾을 수 없자 돌아왔다. 홍노가 대장과 이릉에게 3만여 기를 이끌고 한나라 군대를 추격하여 준계산에 이르러 만나서 싸우기를 9일이나 하였는데, 한나라 군대가 적진을 무너뜨려 적을 격퇴하니 [홍노 군대를] 죽이고 상하게 하거나 잡은 것이 아주 많았다. 포노수에 도착한 홍노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되자 돌아가 버렸다.

重合侯軍至天山，匈奴使大將偃渠與左右呼知王將二萬餘騎要漢兵，見漢兵強，引去。重合侯無所得失。是時，漢恐車師兵遮重合侯，乃遣閩陵侯將兵別圍車師，盡得其王民衆而還。

771) 鄜居水: 음은 질거수이다. 지금의 몽골공화국 항가이산맥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바이칼호로 흘러 들어가는 셀렝게강이다. 이후에는 娑陵水라고 불렸다.

772) 兜銜山: 몽골공화국에 위치한 산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항가이산맥 남쪽에 위치한 용긴강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추정된다.

773) 安侯: 몽골공화국 서남쪽에 위치한 오르콘강이다.

774) 姑且水: 음은 고저수이다. 몽골공화국 항가이산맥 동남쪽에 위치한 투이강이다.

775) 顏師古의 설명처럼 옆길까지 수색하였지만 匈奴를 보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王先謙은 斜를 邪로 고치고 '追邪徑'을 고유명사로 이해하였다. 후자의 해석에 따랐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고유명사일 경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중합후 [마통]의 군대가 천산(天山)⁷⁷⁶에 이르자 흉노는 대장 안거(偃渠)⁷⁷⁷와 좌호지왕장(左呼知王將)·우호지왕장(右呼知王將)⁷⁷⁸에게 2만여 기를 이끌고 한나라를 요격하도록 하였는데, 한나라 군대가 강한 것을 보고 물러가 버렸다. 중합후는 아무런 소득도 손실도 없었다. 이때 한나라는 거사[국](車師國)⁷⁷⁹의 군대가 중합후를 가로막을까 걱정하여 개릉후⁷⁸⁰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거사[의 군대]를 따로 포위하게 하여 그 왕과 백성들을 모두 잡아 돌아왔다.

776) 天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주746) 참조), 당시 漢나라 군대의 행군로로 추정해 볼 때 몽골공화국 향가이산맥의 최고봉인 보그도 울라(Boghdo Ula)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777) 偃渠: 匈奴의 인명이다.

778) 左·右呼知王將: 匈奴의 관직명으로 24개 萬騎長의 하나였다(주220) 참조).

779) 車師國: 新疆維吾爾自治區 吐魯番縣 부근에 있었던 고대 오아시스 왕국으로 음은 ‘거사’이다. 이 도시국가의 주민들은 원래 新疆省 북부의 울두즈 계곡에서 바르 쿨 방면에 걸친 天山山脈 동부 지역에 거주했다. 그러다가 점차 분열적 경향을 보여 武帝가 이곳으로 진출할 때에는 이미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중에서 중심 세력이 투르판 분지와 북쪽의 天山 산록에서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원래의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을 포괄하는 이 명칭의 개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後漢代까지 존속되었다. 과거에는 姑師로 불리기도 했는데, 전60년대에 漢나라가 이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이름을 車師라고 부르게 되었다. 宣帝시대에 車師前王과 車師後王, 그리고 山北의 6개 나라로 나뉘었다. 車師前王國은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 투르판(吐魯番)에 있었고, 그 도읍은 交河城이었다. 車師後王國은 天山의 북쪽으로 지금의 濟木薩 부근에 있었다. 이곳은 중국과 북방의 匈奴가 오아시스 지역의 패권을 다툰 때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다. 宣帝시기에 西域都護府가 설치되고, 元帝시기에는 戊己校尉가 車師前王國의 高昌壁에 설치되었다. 前王國은 天山山脈의 남쪽을 가로지르는 北道의 기점이었지만, 後王國에는 匈奴의 세력이 강하게 미쳤다. 平帝 때에는 敦煌에서 前王國으로 직행하는 길이 열렸다. 이 길이 後王國에 미치지 後王은 匈奴로 도망하고, 王莽의 시대에는 車師가 완전히 匈奴의 손에 떨어져 西域은 중국에서 이탈되었다. 後漢이 西域에 진출하게 되자, 다시금 匈奴와 車師前國과 後國을 놓고 다투었다. 班勇은 前國의 柳中에 진주하여 일시 西域을 경영하였다. 曹魏와 晉朝에서도 戊己校尉를 車師前國에 설치하였다. 반면 車師後國은 西進한 蠕蠕에게 멸망당하여 晉代부터 史書에서 사라졌다. 그 후 車師國은 前國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후 五胡十六國時期에 漢人이 高昌에 유입되어 車師國과 대립하게 되었다. 北涼이 멸망했을 때, 그 잔당이 高昌城에 도주하였다가 車師國을 멸망시켰다. 이들은 투르판 분지에 且渠氏의 高昌國을 세웠다. 이때 車師國 왕은 北魏로 망명했다(『漢書』 권96下 「西域傳」 〈車師國〉: 3921~3925).

780) 閼陵侯: 이름이 成婉으로 匈奴의 介和王이었다가 漢나라에 투항하였다. 車師를 공격한 공으로 閼陵侯에 봉해졌다.

貳師將軍將出塞，匈奴使右大都尉與衛律將五千騎要擊漢軍於夫羊句山狹。貳師遣屬國胡騎二千與戰，虜兵壞散，死傷者數百人。漢軍乘勝追北，至范夫人城，匈奴奔走，莫敢距敵。會貳師妻子坐巫蠱收，聞之憂懼。其掾胡亞夫亦避罪從軍，說貳師：「夫人室家皆在吏，若還不稱意，適與獄會，邳居以北可復得見乎？」貳師由是狐疑，欲深入要功，遂北至邳居水上。虜已去，貳師遣護軍將二萬騎度邳居之水。一日，逢左賢王左大將，將二萬騎與漢軍合戰一日，漢軍殺左大將，虜死傷甚衆。軍長史與決眭都尉輝渠侯謀：「將軍懷異心，欲危衆求功，恐必敗。」謀共執貳師。貳師聞之，斬長史，引兵還至速邪烏燕然山。單于知漢軍勞倦，自將五萬騎遮擊貳師，相殺傷甚衆。夜塹漢軍前，深數尺，從後急擊之，軍大亂敗，貳師降。單于素知其漢大將貴臣，以女妻之，尊寵在衛律上。

이사장군이 장성을 나가자 흉노에서는 우대도위(右大都尉)⁷⁸¹와 위율(衛律)⁷⁸²로 하여금 5천 명의 기병을 이끌게 하여 한나라 군대를 부양(夫羊)⁷⁸³ 구산(句山)⁷⁸⁴ 협곡에서 요격하도록 했다. 이사[장군]은 속국(屬國)⁷⁸⁵의 다른 종족 기병(胡騎) 2천 기를 보내 싸우게 하니

781) 右大都尉: 匈奴의 관직명으로 24개 萬騎長の 하나이다. 그의 지위는 右大將의 아래에 위치하였다(주 220) 참조).

782) 衛律: 그의 생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그의 아버지가 ‘長水の 胡人’이라고 전해져 오는 것으로 보아 원래 匈奴人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는 匈奴에 투항한 漢나라 장수인데, 투항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대체로 전100년 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漢書』 권54 「李廣蘇建傳」: 2462). 그는 匈奴에서 且鞮侯單于시기에 丁零王의 왕호를 받고 수만의 군대를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貳師將軍을 희생 제물로 바쳐 살해하였다. 그 이후 狐鹿姑單于 사후에 내부의 권력 다툼에 개입하여 壺衍鞮單于의 옹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측근으로 활약했다. 그로 인해 單于 계승 분쟁은 확대되었고, 이는 결국 이후 匈奴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783) 夫羊: 지명으로 몽골공화국의 달란짜가디(Dalandzagadi) 지역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784) 句山: 서쪽에 있는 산을 의미한다.

785) 屬國: 漢나라의 邊郡에 투항한 주변 종족들이 거처하는 곳을 부르는 명칭이다. 漢나라에서는 非漢族의 降民을 邊郡의 일정 구역에 거주하게 하고, 유목생활과 부족제도를 지속하게 하였고 屬國都尉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이런 屬國都尉體制는 武帝 元狩 3년(전122) 이후 확인되는데 隴西·北地·上郡·朔方·西河·張掖·金城·天水·安定·五原 등 적어도 10개 이상의 屬國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漢나라의 이 屬國들은 郡縣의 편제에 속해 있었지만 屬國民들의 경우 자신들의 ‘故俗’을 그대로 유지할

흉노 병사들이 저서 흩어져 죽거나 다친 사람이 수백 명이 되었다. 한나라 군대가 승리를 기회로 북쪽으로 추적하여 범부인성(范夫人城)⁷⁸⁶에 이르렀는데, 흉노가 도망가면서 감히 대적하지 못하였다. 마침 이사[장군]의 처자가 무고(巫蠱)[사건]에 연류가 되어 구금되자 [이 소식] 듣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다. 그의 아래에 있는 관리[掾] 호아부(胡亞夫)라는 사람 역시 죄를 피하기 위해 종군하였는데 이사[장군]에게 말하였다. “부인과 가족들이 모두 [옥]리의 [손에 잡혀] 있으니 만약 [장군이] 돌아가 [천자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가족을] 옥에서나 만날 수 있을지언정 질거[수] 이복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⁷⁸⁷ 이사[장군]은 이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흉노 진영까지] 깊숙이 들어가 큰 군공을 세우기 위해 마침내 질거수 주변에 도착했다. 흉노가 도망간 뒤 이사[장군]이 호군에게 2만 기를 이끌고 질거수를 건너가게 했다. 하루 만에 [호군이] 좌현왕 좌대장과 만나서 [그가 이끌던] 2만 기와 한나라 군대가 하루 종일 싸웠는데, 한나라 군대가 좌대장을 죽이니 흉노군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아주 많았다. [한나라] 군의 장사(長史)⁷⁸⁸는 결휴도위(決眭都尉) 휘거후(輝渠侯)⁷⁸⁹와 상의 해 말하였다. “장군이 다른 뜻을 품고 있습니다. 부하들을 위태롭게 해서더라도 공을 세우려고 하니 반드시 패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둘은] 같이 이사[장군]을 붙잡을 것을 모의했다. 이사[장군]이 이를 듣고 장사를 베고 군대를 물려 돌아와 속야오(速邪烏)의 연연산(燕然山)⁷⁹⁰에 도착했다. 선우는 한나라 군대가 피로하다는 것을 알고 몸소 5만 기를 이끌고 이사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단지 영토상으로만 漢에 귀속한 外國(혹은 外夷集團)에 불과하였다. 이는 使匈奴中郎將·西域都護·護羌校尉·護烏桓校尉 등 특수기관을 통하여 인근 종족의 주거지를 漢의 영토에 편입시키되 그 人民을 집단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체제와 본질적으로 일치하였다. 다만 都護制 등이 비교적 대규모의 종족이나 國家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屬國은 소규모의 降夷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김한규, 1982: 172~175).

786) 范夫人城: 漢나라 장군 范氏가 쌓은 성이다. 그 이름은 성을 쌓은 장군이 죽고 난 이후 그의 처와 그 가솔들이 그곳에 남아서 살았던 것에서 유래한다. 이곳의 위치는 夫羊旬山에 있는 협곡의 東北에 있는데, 몽골공화국의 달란짜가디지역의 동북쪽이다.

787) 주살된 이후에 비록 匈奴에 항복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다.

788) 長史: 관직 이름으로 군부의 속관이었다. 漢代에는 將軍에게 속해 있었는데, 幕府의 일을 총괄하는 일을 담당했다.

789) 決眭都尉 輝渠侯: 決眭는 匈奴의 관직 명칭인데 역할은 알 수 없다. 輝渠侯는 본래 匈奴의 관리로 漢나라에 투항한 이후에 五原에 속해 있는 屬國都尉가 되었다. 功臣表에 따르면 征和 3년(전90)에 匈奴를 공격하는 데 공을 세워 輝渠(魯陽縣) 땅의 侯로 봉해졌다. 그의 이름은 雷였다.

[장군]을 가로막아 공격하니 서로 죽이고 다친 사람이 아주 많았다. [흉노는] 밤에 한나라 군대 앞쪽에 참호를 팠는데, [그의] 깊이가 수척이나 되게 한 다음에 [한나라 군대의] 뒤쪽을 급습하니 군대가 크게 혼란에 빠져 이사[장군]이 항복했다. 선우는 평소에 그가 한나라의 대장이고 귀한 신하[貴臣]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고 위율(衛律)보다 더 높이 두고 존경하고 우대했다.

其明年，單于遣使遺漢書：「南有大漢，北有強胡。胡者，天之驕子也，不爲小禮以自煩。今欲與漢闔大關，取漢女爲妻，歲給遺我糶酒萬石，稷米五千斛，雜繒萬匹，它如故約，則邊不相盜矣。」漢遣使者報送其使，單于使左右難漢使者，：「漢，禮義國也。貳師道前太子發兵反，何也？」使者：「然。乃丞相私與太子爭鬥，太子發兵欲誅丞相，丞相誣之，故誅丞相。此子弄父兵，罪當笞，小過耳。孰與冒頓單于身殺其父代立，常妻後母，禽獸行也！」單于留使者，三歲乃得還。

그 이듬해⁷⁹¹⁾ 선우가 사신을 보내 한나라에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남쪽에는 대국인 한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강한 흉노가 있소이다. 흉노는 하늘의 총애하는 아들[驕子]로 작은 예의로서 스스로를 번거롭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나라와 큰 관시(關市)를 열고 한나라 [종실의] 여인을 취해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해마다 저에게 누룩으로 빚은 술⁷⁹²⁾ 만 석,⁷⁹³⁾ 도정한 곡물 오천 곡,⁷⁹⁴⁾ 여러 가지 비단 만 필을 주고, 그 밖의 것을 과거의 약속과 같게 해주신다면 변경을 도둑질 하는 것을 그만둘 것입니다.” 한나라에서 사자를 보내어 [흉노가] 사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답하니 선우가 좌우로 하여금 한나라 사자를 비난하여 말하였다. “한나라는 예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사[장군]이 말하기를 이전 태자가 군대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켰다고

790) 速邪烏 燕然山: 몽골공화국의 항가이산맥인데, 顏師古는 速邪烏에 燕然山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791) 漢 武帝 征和 4年(전84)의 일이다.

792) 糶酒: 누룩으로 빚은 술인데, 맛이 아주 달다.

793) 1石은 무게로 120斤(漢代에는 1斤이 258.24g)인데, 부피로는 1斛과 동일한 10斗, 즉 100升(1升 0.3425g)이다.

794) 稷米: 도정을 한 기장 또는 조의 알곡을 의미한다.

하니, 도대체 왜 그런 것이요?” 사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승상이 사적으로 태자와 싸워 태자가 군대를 일으켜 승상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승상이 [이를] 무고하니 그 때문에 승상을 베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군대를 가지고 논 것에 불과하여 그 죄가 태형에 해당하는 작은 잘못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 목특선우가 몸소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를] 이어 즉위한 것이나 계모를 늘 치로 삼는 것과 같은 짐승 같은 행동과 비교할 수야 있겠습니까?” [화가 난] 선우가 사자를 잡아두었다가 3년이 지나서야 돌아가게 했다.

貳師在匈奴歲餘，衛律害其寵，會母閼氏病，律飭胡巫言先單于怒，：「胡攻時祠兵，常言得貳師以社，今何故不用？」於是收貳師，貳師(怒)[罵]：「我死必滅匈奴！」遂屠貳師以祠。會連雨雪數月，畜產死，人民疫病，穀稼不孰，單于恐，爲貳師立祠堂。

이사[장군]이 흉노에 머문 지 1년여 되니, 위율이 그가 [선우로부터] 총애받는 것을 시기하였는데, 마침 [선우의] 어머니 연지가 아프게 되자 [위율이 흉노 무당에게 명하여⁷⁹⁵] 돌아가신 선우[의 영혼]이 노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했다. “흉노가 [일찍이] 공격을 할 때면 군대(兵)[의 신]⁷⁹⁶에게 제사를 지낼 때 늘 이사[장군]을 잡으면 제사를 지내겠다고 말하더니 지금 어찌 그렇게 [희생으로] 쓰지 않느냐?” 이에 [선우가] 이사[장군]을 잡아 가두니 이사[장군]이 [화가 나서 욕하며] 말하였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흉노를 망하게 하겠다!” [그럼에도 선우가] 마침내 이사[장군]을 죽여 제사를 지냈다. 그러자 연이어 눈이 내리기를 몇 개월 하니 가축들이 죽고 백성들이 병에 걸리며⁷⁹⁷ 곡식이 익지 않으니⁷⁹⁸ 선우가 두려워 이사[장군]을 위해 사당을 세웠다.

795) “飭”과 “敕”은 같다.

796) 兵器를 몸체로 한 軍神인데, 匈奴에서는 그들의 徑路刀를 신물로 여겼다(주33) 참조.

797) 주706) 참조.

798) 북방 지역은 날씨가 건조하고 추워서 농사를 짓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匈奴에서는 기장과 같은 곡물이 재배되었다. 이런 경작은 정주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하였다.

自貳師沒後，漢新失大將軍士卒數萬人，不復出兵。三歲，武帝崩。前此者，漢兵深入

이사[장군]이 죽고 난 이후 한나라는 새롭게 대장군과 군졸 수만 명을 잃고 다시는 출병하지 않았다. 3년이 지나 무제가 봉어하였다.⁷⁹⁹⁾ 이제까지 한나라 군대가 [흥노 안으로] 깊숙이 쳐들어가 [그들을] 추격하기를 이십여 년 [계속하니] 흥노에서는 임신한 것들이 [전쟁으로] 유산을 하였기 때문에 피폐함이 극에 달해 고통스러워했다. [이로 인해] 선우 이하 [모든 관리들이] 늘 [한나라와] 화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後三年，單于欲求和親，會病死。初，單于有異母弟爲左大都尉，賢，國人鄉之，母閼氏恐單于不立子而立左大都尉也，乃私使殺之。左大都尉同母兄怨，遂不肯復會單于庭。又單于病且死，謂諸貴：「我子少，不能治國，立弟右谷蠡王。」及單于死，衛律等與顯渠閼氏謀，匿單于死，詐矯單于令，與貴人飲盟，更立子左谷蠡王爲壺鞮單于。是歲，始元二年也。

그 후 3년이 지나⁸⁰⁰⁾ 선우가 화친을 구하고자 했으나 마침 병으로 죽었다. 일찍이 선우에게 는 어미가 다른 동생이 있어 [그를] 좌대도위로 삼았는데 [그가] 어질어 국인(國人)들이 [모두 그를] 따랐다. [선우의] 어머니 언지는 선우가 [자신의] 아들을 세우지 않고 좌대도위를 세울까 걱정하여 [그를] 사사로이 죽여 버렸다. 좌대도위와 어머니가 같은 형이 [그것에] 원한을 품고 끝내 다시 선우정의 모임에 가지 않았다. 또한 선우가 병이 나서 죽으려 할 때 여러 귀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어려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동생 우록리왕을 세워라.” 그리고 선우가 죽자 위울 등이 전거연지(顯渠閼氏)와 모의하여 선우가 죽은 것을 숨기고 선우의 명령을⁸⁰¹⁾ 사칭하여 귀인들과 술을 마시며 약속을 해 다시 아들 좌록리왕을 세우고

799) 武帝는 後元 2년(전87)에 崩御했다.

800) 漢 昭帝 始元 2년(전85)의 일이다.

801) “矯”는 “矯”와 같은데, 이것은 ‘사칭하다’는 의미이다.

호연제선우(壺衍鞮單于)⁸⁰²라 했다. 이해가 시원(始元) 2년(전85)이었다.

壺衍鞮單于旣立，風謂漢使者，言欲和親。左賢王·右谷蠡王以不得立怨望，率其衆欲南歸漢。恐不能自致，卽脅盧屠王，欲與西降烏孫，謀擊匈奴。盧屠王告之，單于使人驗問，右谷蠡王不服，反以其罪罪盧屠王，國人皆寃之。於是二王去居其所，未嘗肯會龍城。

호연제선우가 즉위한 다음 한나라 사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둘러서 [흥노가] 화친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좌현왕과 우록리왕은 [선우가]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가서 한나라에 귀속하고자 했다.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까 걱정하여 여도왕(盧屠王)⁸⁰³을 협박하고 함께 서쪽으로 가서 오손에게 항복하여 흥노를 공격할 것을 모의하고자 했다. 여도왕이 [이런 사실을] 고하자 선우가 사람을 시켜 심문을 하였는데, 우록리왕이 불복하고 오히려 그 죄를 여도왕에게 물으니 국민들이 모두 [이것을] 불평했다. 이에 두 명의 왕이 [각자] 그의 땅에서 가 살면서 용성의 모임에 [참가하려 하지] 않았다.

後二年秋，匈奴入代，殺都尉。單于年少初立，母閼氏不正，國內乖離，常恐漢兵襲之。於是衛律爲單于謀「穿井築城，治樓以藏穀，與秦人守之。漢兵至，無奈我何。」卽穿井數百，伐材數千。或曰胡人不能守城，是遺漢糧也，衛律於是止，乃更謀歸漢使不降者蘇武·馬宏等。馬宏者，前副光祿大夫王忠使西國，爲匈奴所遮，忠戰死，馬宏生得，亦不肯降。故匈奴歸此二人，欲以通善意。是時，單于立三歲矣。

2년(전83) 뒤⁸⁰⁴ 가을, 흥노가 대[군]으로 쳐들어와 도위를 죽였다. 선우가 나이가 어리고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선우의] 어머니 연지가 부정을 저지르고 나라가 분열되어

802) 壺衍鞮單于(재위 전85~전68): 匈奴의 11대 單于이다.

803) 盧屠王: 匈奴의 王 이름이다.

804) 漢 昭帝 始元 4년(전83)의 일이다.

늘 한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올까 걱정하였다. 이에 위율이 선우를 위해 모의하였다. “우물을 파고 성을 쌓으며 누각을 세우고 곡식을 저장하여 중국 사람[秦人]에게 지키게 합시다.⁸⁰⁵⁾ [그렇게 하면] 한나라 군대가 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물을 수백 개 파고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베었다. 다른 사람들이 혹 흉노 사람들은 성을 지킬 수 없으므로 이는 한나라에게 먹을 것을 남겨 주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위율이 이에 [이를] 멈추게 하고 다시 한나라 사신으로 [왔다가 흉노에] 항복하지 않은 소무(蘇武)와 마굉(馬宏) 등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모의했다. 마굉은 과거에 광록대부 왕충(王忠)의 부관으로 서쪽 나라에 사신으로 가다가 흉노에게 길이 막히자 [왕]충은 싸우다 죽고 마굉은 사로잡혔는데 항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흉노는 이 두 사람을 돌려보내 [그들의] 좋은 뜻이 전해지게 하고자 했다. 이해에 선우가 즉위한 지 3년이⁸⁰⁶⁾ 되었다.

明年，匈奴發左右部二萬騎，爲四隊，並入邊爲寇。漢兵追之，斬首獲虜九千人，生得甌脫王，漢無所失亡。匈奴見甌脫王在漢，恐以爲道擊之，卽西北遠去，不敢南逐水草，發人民屯甌脫。明年，復遣九千騎屯受降城以備漢，北橋余吾，令可度，以備奔走。是時，衛律已死。衛律在時，常言和親之利，匈奴不信，及死後，兵數困，國益貧。單于弟左谷蠡王思衛律言，欲和親而恐漢不聽，故不肯先言，常使左右風漢使者。然其侵盜益希，遇漢使愈厚，欲以漸致和親，漢亦羈縻之。其後，左谷蠡王死。明年，單于使犁汙王窺邊，言酒泉·張掖兵益弱，出兵試擊，冀可復得其地。時漢先得降者，聞其計，天子詔邊警備。後無幾，右賢王·犁汙王四千騎分三隊，入日勒·屋蘭·番和。張掖太守·屬國都尉發兵擊，大破之，得脫者數百人。屬國千長義渠王騎士射殺犁汙王，賜黃金二百斤，馬二百匹，因封爲犁汙王。屬國都尉郭忠封成安侯。自是後，匈奴不敢入張掖。

805) 秦나라 때 匈奴에 망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자손들을 여전히 ‘秦人’이라고 불렀다. 이후에도 ‘秦人’은 외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806) 漢 昭帝 始元 6년(전81)의 일이다. 이해부터 蘇武를 漢나라로 돌려보내는 논의가 이루어져 元鳳 元年(전 80년)에 그가 귀국할 수 있었다.

이듬해⁸⁰⁷⁾ 흉노는 좌·우부 2만 기를 일으켜 네 개의 부대를 만들고 변경으로 들어와 노략질을 했다. 한나라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목을 베거나 포로로 잡은 것이 9천 명이었고 구탈왕(毇脫王)도⁸⁰⁸⁾ 사로잡았는데 한나라는 잃은 것이 없었다. 흉노는 한나라에 구탈왕이 [잡혀] 있는 것을 알고 [그가 군대를] 이끌고 공격할까 걱정하여 바로 서북쪽으로 멀리 가서 감히 남쪽으로 [가축을] 몰고 와 풀과 물을 먹이지 못하고 백성들을 동원하여 구탈에 주둔시켰을 뿐이었다. 이듬해⁸⁰⁹⁾ 다시 9천 기를 보내 수항성에 주둔시키고 한나라 [공격]에 대비하였으며 [또한] 북쪽으로 여오[수]⁸¹⁰⁾에 다리를 놓아 건너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망갈 때를 대비하였다.⁸¹¹⁾ 이때는 [이미] 위율이 죽고 없었는데, 위율이 살아 있을 때 늘 [그가] 화친의 이익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도 흉노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가] 죽자 군대가 자주 곤궁한 상황에 빠져 나라가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 선우의 아우 좌록리왕이 위율의 말을 생각하고 화친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나라가 [이를] 듣지 않을까 걱정하여 선뜻 말을 하지 못해 늘 좌우의 측근을 시켜 둘러서 한나라 사신에게 이야기하게 했다. 그러면서 [흉노의] 공격과 노략질 역시 점차 줄어들게 하고 한나라 사신에 대한 대우 역시 더욱 후하게 함으로써 점차 화친에 이르고자 하였다. 한나라 역시 [이를 이용해 흉노를] 기미(羈縻)⁸¹²⁾하고자 하였다. 그 이후 좌록리왕이 죽었다.

807) 漢 昭帝 元鳳 元年(전80)의 일이다.

808) 毇脫: 국경에서 척후를 위해 땅을 파서 만든 시설을 말하는데, 毇脫王은 그것을 담당했던 책임자를 의미한다(주201) 참조.

809) 漢 昭帝 元鳳 2년(전79)의 일이다.

810) 주760) 참조.

811) 만약 급박한 일이 발생하면 漢나라의 공격을 피해 북쪽으로 도망갈 때 이 다리를 건넌다는 의미이다.

812) 羈縻: 말의 고삐와 소의 코뚜레를 합성하여 만든 말이다. 견제하면서 관계를 단절하지 않되 그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축한다. 그런데 이 용어는 漢武帝 때 처음 출현하여 昭帝·宣帝 시기에 일반화된 역사적 개념으로 外夷에 대한 중국의 독특한 대응양식을 지칭하는데, 西漢後期에 구축된 새로운 천하질서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말이다. 원문에서는 羈縻함으로써 專制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면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羈縻不絕而已’라는 관용구가 있듯이 外夷와의 관계를 ‘不絕’한다는 적극적인 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中外的 관계는 형식적으로 外夷가 中國을 향해 臣服하되, 실제적으로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羈縻”의 내용인 것이다. 이처럼 인근의 종족과 국가를 中國化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敵國化하지도 않는 국제관계의 원리는 왕조시대 중국인들이 발견한 최선의 외교 방침이었다고 하겠다(김한규, 1988).

이듬해⁸¹³ 선우는 이오왕(犁汗王)⁸¹⁴을 시켜 한나라[의 사정을] 엿보면서 [그에게] 주천[군]과 장액[군]의 군대가 약해지면 군대를 출정시켜 공격해 보면 그 땅을 다시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한나라에는 앞서 항복한 자들이 있어 그 계획을 먼저 듣고 천자가 변경에 미리 준비하도록 조칙을 내렸다.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현왕과 이오왕이 4천 명의 기병을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일륙[현]⁸¹⁵ 옥란[현](屋蘭縣),⁸¹⁶ 반화[현](番和縣)⁸¹⁷로 쳐들어왔는데, 장액태수와 속국도위가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공격해 크게 격파해 도망갈 수 있었던 자가 [겨우] 수백 명이였다. 속국(屬國)의 천장(千長)⁸¹⁸ 의거왕(義渠王)의 [부하인 어떤] 기병이 이오왕을 활로 쏘 죽여 황금 2백 근, 말 2백 필을 상으로 받고 이오왕으로 책봉되었다. 속국도위 곽충(郭忠)이 성안후(成安侯)로 책봉되었다.⁸¹⁹ 그 이후에 흉노가 감히 장액[군]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其明年，匈奴三千餘騎入五原，略殺數千人，後數萬騎南旁塞獵，行攻塞外亭(長)[障]，略取吏民去。是時漢邊郡烽火候望精明，匈奴爲邊寇者少利，希復犯塞。漢復得匈奴降者，言烏桓嘗發先單于冢，匈奴怨之，方發二萬騎擊烏桓。大將軍霍光欲發兵(要)[邀]擊之，以問護軍都尉趙充國。充國以爲「烏桓間數犯塞，今匈奴擊之，於漢便。又匈奴希寇盜，北邊幸無事。蠻夷自相攻擊，而發兵要之，招寇生事，非計也。」光更問中郎將范明友，明友言可擊。於是拜明友爲度遼將軍，將二萬騎出遼東。匈奴聞漢兵至，引去。初，光誡明：「兵不空出，卽後匈奴，遂擊烏桓。」烏桓時新中匈奴

813) 漢 昭帝 元鳳 3년(전78)의 일이다.

814) 犁汗: 匈奴의 지명인데, 右谷蠡王에게 소속된 지역이다. 다른 기록에 “犁汗都尉” 또는 “到左犁汗王成所居地”라는 용례가 있다.

815) 日勒縣: 縣의 이름으로 지금의 甘肅省 永昌縣 西北에 위치하고 있다.

816) 屋蘭縣: 縣의 이름으로 지금의 甘肅省 山丹縣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817) 番和縣: 縣의 이름으로 지금의 甘肅省 永昌縣에 위치하고 있다. 이상의 세 곳은 漢代 張掖郡에 속해 있는 縣이었다(주730) 참조.

818) 千長: 천 명으로 구성된 단위의 장을 의미한다(주230) 참조.

819) 漢 昭帝 元鳳 3년(전78) 이월의 일이다.

兵，明友旣後匈奴，因乘烏桓敵，擊之，斬首六千餘級，獲三王首，還，封爲平陵侯。

그 이듬해⁸²⁰⁾ 흉노의 3천여 기병이 오원으로 들어와 수천 명을 잡아가고 죽였고, 이후 수만 기병이 남쪽으로 내려와 요새 부근에서 사냥을 하면서 요새 밖에 있는 정장(亭障)을 공격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잡아갔다. 이때 한나라의 변군(邊郡)의 봉화[대]와 관측소가 정밀하고 정확하여 흉노가 변경을 공격해도 이익이 적어 다시 장성을 넘어 공격하는 것이 드물게 되었다. 한나라는 다시 흉노에서 항복한 사람을 잡았는데,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환(烏桓)⁸²¹⁾이 돌아가신 선우의 무덤을 파헤쳐서 흉노가 [이에] 화를 내 바로 2만 기를 일으켜 오환을 공격했다. 대장군 곽광(霍光)⁸²²⁾이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맞아 공격하고자 하여 [그것을] 호군도위(護軍都尉) 조국충(趙充國)⁸²³⁾에게 물었다. [조]충국이 대답하였다. “오환

820) 漢 昭帝 元鳳 3년(전78)의 일이다.

821) 烏桓: ‘烏丸’으로도 불리는 이들은 기원전 4~3세기경에 內蒙古自治區 동부의 老哈河의 상류 지대에서 동남으로는 遼寧省 大陵河와 小陵河 유역까지, 즉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赤峰市, 遼寧省 朝陽市 그리고 錦州市와 그 주변 지대를 포함한 일대에서 번성하였던 東胡의 한 支派이다. 東胡가 전206년에 흉노 冒頓單于의 기습을 받고 괴멸된 이후 남은 일부 部衆이 ‘烏桓山’(지금 內蒙古自治區 阿魯科爾沁旗 북부의 大興安嶺山脈 南端)으로 달아났는데, 그곳의 이름을 따서 烏桓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몽골계통의 종족으로 추정되며 생활은 주로 유목과 사냥으로 살아갔다. 내적으로 手工業과 農業도 일부 존재했다고 한다. 匈奴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소, 말, 양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공물로 바쳤다. 武帝시기에 霍去病이 이들의 일부를 병합하고 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 등의 塞外로 徙民시킨 다음 護烏桓校尉를 두어 다스렸다. 昭帝 이후에 세력을 확대하면서 匈奴와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後漢 초기에 폐지되었던 護烏桓校尉를 다시 上谷郡 寧城에 설치하여 이들을 통제하였다(『後漢書』 권90 「烏桓鮮卑傳」: 2979~2981).

822) 霍光: 字가 子孟이고 河東 平陽(지금의 山西省 臨汾縣) 출생이다. 驃騎將軍 霍去病의 이복동생으로, 10여 세 때부터 武帝를 측근에서 섬기다가 武帝가 죽을 무렵에는 大司馬大將軍 博陸侯가 되었다. 그 이후 金日磾·上官桀·桑弘羊 등과 함께 後事を 위탁받았다. 武帝가 죽자 8세에 즉위한 昭帝를 보필하여 政事を 집행하였다. 전80년 昭帝의 형인 燕王 旦의 반란을 기회삼아 병사한 金日磾를 제외하고 여타 顧命大臣인 上官桀·桑弘羊 등의 政敵을 타도하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昭帝가 죽은 후에는 그를 계승한 昌邑王의 제위를 박탈하고 앞서 巫蠱의 난 때 죽은 戾太子의 손자를 옹립했다. 이로써 宣帝가 즉위하게 되자 그 공으로 增封되었다. 또한 황후 許氏를 독살하고 자신의 딸을 皇后로 만들어 권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宣帝가 霍光이 죽은 후 그의 일족을 반역죄로 몰아 모두 죽여 버림으로써 몰락했다(『漢書』 권68 「霍光金日磾傳」: 2931~2947).

은 요사이도 종종 요새를 침범했는데, 지금 흉노가 [그들을] 공격하니 [이런 상황의 전개는] 한나라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흉노의 도발이 줄어들니 북변은 다행히 무사합니다. 오랑캐[蠻夷]끼리 서로 공격하는데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 요격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침범을 야기하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곽]광이 다시 중랑장(中郎將) 범명우(范明友)⁸²⁴에게 물으니, [범]명우는 공격을 해도 좋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범]명우를 도료장군(度遼將軍)⁸²⁵으로 삼아 2만 기를 이끌고 요동으로 출정하도록 했다. 흉노에서는 한나라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물려 [돌아]갔다. 이전에 [곽]광은 [범]명우에게 훈령을 내려 말하였다. “군대를 함부로 내지 말라, [군대를 늦게 일으켜] 흉노를 [공격하는 것이] 늦어지면⁸²⁶ 오환을 공격해라.” 오환은 이때 새로 흉노 군대에게 [피해를] 입었고 [범]명우는 이미 흉노가 물러나자 오환이 약해진 틈을 타 [그들을] 공격하여 6천여 급을 뺏고 세 명의 왕을 잡아 돌아와 평릉후(平陵侯)로 봉해졌다.⁸²⁷

823) 趙充國(전137~전52): 隴西 上邦(지금의 甘肅省 天水) 사람으로 字가 翁孫이었다. 金城令居(지금의 甘肅省 永登 서북에 위치)로 이사해 살았다. 武帝시기에 騎士로 관리 생활을 시작하였다. 용맹하고 지략이 많은 무장으로 匈奴와 羌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약하였다. 貳師將軍 李廣利를 따라 假司馬로 종군하여 공을 세워서 中郎이 되었다가 돌아와 水衡都尉가 되었다. 그 이후 匈奴를 격파하여 西祁王을 잡아 後將軍이 되었다. 霍光이 宣帝를 옹립한 이후에 營平侯가 되었다. 군대를 이끌고 변경을 수비하여 匈奴의 도발을 막았다. 新爵 元年(전61)에 先零羌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 진압에 공을 세웠다(『漢書』 권69 「趙充國辛慶忌傳」; 2971~2976).

824) 范明友(?~전66): 前漢 昭帝時代 中郎將이 되었다. 元鳳 3년(전78) 度遼將軍으로 2만을 이끌고 烏桓을 진압했다. 이듬해에는 平陵侯가 되었다. 그 이후 霍光의 사위가 되어 未央衛尉가 되었다. 宣帝時代에는 光祿勳이 되었다가 地節 4년(전66)에 霍氏의 모반에 연루되어 죽었다(『漢書』 권68 「霍光金日磾傳」; 2950~2955).

825) 度遼將軍: 遼西地域에 있는 烏桓을 정벌하는 목적을 위해 설치한 將軍이다.

826) “後匈奴”는 군대를 늦게 동원하여 匈奴를 공격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

827) 漢 昭帝 元鳳 4년(전77)의 일이다. 이상과 같은 霍光시대 烏桓과 匈奴의 대결과 漢나라의 정벌에 대해서는 『三國志』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匈奴의 壹衍鞬單于의 치세에 이르러, 烏桓은 점차 강하게 되어, 匈奴 單于의 무덤을 파내면서 장차 [이전에] 冒頓[單于]에게 격파된 치욕을 갚으려고 하였다. 壹衍鞬單于가 크게 노하여 2만 명의 騎兵을 발동하여 烏桓을 공격하였다. 大將軍 霍光이 그 소식을 듣고 度遼將軍 范明友를 파견하니, 范明友는 3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遼東으로 나가서 匈奴를 추격하였다. [그러나] 范明友의 군대가 도착했을 무렵에 匈奴는 이미 [군대를] 이끌고 가버렸다. 烏桓이 새로이 匈奴 군대에게 공격을 당하자, 그들이 쇠퇴하고 피폐된 틈을 타서 [范明友는] 마침내 진진하여 烏桓을 격파하고 6천여 명을 참수하고, [烏桓

匈奴繇是恐，不能出兵。即使使之烏孫，求欲得漢公主，擊烏孫，取車延·惡師地。烏孫公主上書，下公卿議救，未決。昭帝崩，宣帝即位，烏孫昆彌復上書，言「連爲匈奴所侵削，昆彌願發國半精兵人馬五萬匹，盡力擊匈奴，唯天子出兵，哀救公主！」本始二年，漢大發關東輕銳士，選郡國吏三百石伉健習騎射者，皆從軍。遣御史大夫田廣明爲祈連將軍，四萬餘騎，出西河；度遼將軍范明友三萬餘騎，出張掖；前將軍韓增三萬餘騎，出雲中；後將軍趙充國爲蒲類將軍，三萬餘騎，出酒泉；雲中太守田順爲虎牙將軍，三萬餘騎，出五；凡五將軍，兵十餘萬騎，出塞各二千餘里。及校尉常惠使護發兵烏孫西域，昆彌自將翁侯以下五萬餘騎從西方入，與五將軍兵凡二十餘萬衆。匈奴聞漢兵大出，老弱奔走，毆畜產遠遁逃，是以五將少所得。

흉노는 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군대를 내지 못하였다. 바로 사자를 오손으로 보내 한나라[에서 시집온] 공주를 얻고자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오손을 공격하여 거연(車延)⁸²⁸과 악사(惡師)⁸²⁹ 땅을 얻었다. 오손의 공주가 [한 조정]에 편지를 올리니⁸³⁰ 공경들에게 [그의] 구원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였는데 결정이 나지 않았다.⁸³¹ 소제가 봉어하고 선제(宣帝)⁸³²가

의] 3명의 왕의 머리를 얻어서 귀환하였다. 그 후에 [烏桓은] 자주 [漢의] 변경 요새를 침범했으나, 范明友는 그때마다 그들을 정벌하여 격파하였다”(『三國志』「魏志 東夷傳」: 833 “至匈奴壹衍鞬單于時，烏丸轉疆，發掘匈奴單于冢，將以報冒頓所破之恥。壹衍鞬單于大怒，發二萬騎以擊烏丸。大將軍霍光聞之，遣度遼將軍 范明友將三萬騎出遼東追擊匈奴。比明友兵至，匈奴已引去。烏丸新被匈奴兵，乘其衰弊，遂進擊烏丸，斬首六千餘級，獲三王首還。後數復犯塞，明友輒征破之。”

828) 車延: 음의 유사함으로 인해 쿠차(龜茲 즉 Qucha)를 지칭한다고 보기도 하나, 정확한 고증은 어렵다.

829) 惡師: 음의 유사함으로 인해 악수(Aksu)를 지칭한다고 보기도 하나, 정확한 고증은 어렵다.

830) 이 무렵 匈奴의 공격과 관련하여 烏孫에 시집간 公主가 漢나라에 보낸 편지가 『漢書』「西域傳」에 남아 있다. 그 내용은 “匈奴가 기병을 파견하여 경작을 하며 車師는 匈奴와 하나가 되어 함께 烏孫을 공격하려 하니 오직 천자만이 이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是時，烏孫公主上書言“匈奴發騎田車師，車師與匈奴爲一，共侵烏孫，唯天子救之!”라고 되어 있다(『漢書』 권96下 「西域傳」: 3905).

831) 漢 昭帝 元平 元年(전74)의 일이다.

832) 宣帝(재위 전91~49): 諱는 詢. 字는 次卿. 武帝의 曾孫이며, 戾太子의 손자이다. 조부 戾太子가 巫蠱의 난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민가에서 자랐다. 전74년에 昭帝가 봉어하고 한때 迎立된 昌邑王 賀가 霍光에 의해 폐위되자 18세로 皇位를 이었다. 처음에는 霍光이 攝政하였으나, 전68년 霍光이 병들어 죽은 뒤에는 霍氏 일족을 제거하고 친히 정사를 맡았다. 地方行政制度를 정비하고, 처음으로

즉위하자 오손의 곤미(昆彌)⁸³³가 다시 편지를 올려 말하였다. “언이어 흉노의 침범으로 [땅을] 빼앗기니 [저] 곤미가 온 나라의 정병 절반과 말 5만 필을 동원하여 온 힘을 다해 흉노를 공격하려 하니 천자께서도 군대를 내어 공주를 붙잡히 여기시어 후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시(本始)⁸³⁴ 2년(전72)에 한나라에서는 관동의 경장(輕裝) 정예병사를 동원하고 군국의 관리 중에서 [질] 3백 석의 강건하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익숙한 사람들을 뽑아 모두 종군시켰다. 어사대부 전광명(田廣明)⁸³⁵을 기련장군(祈連將軍)으로 삼아 4만여 기병을 [이끌게 하여] 서하에서 나아갔고, 도료장군 범명우는 3만여 기병을 [이끌고] 주천[군]에서 나아갔고, 전장군(前將軍) 한증(韓增)⁸³⁶은 3만 기병을 [이끌고] 운중에서 나아갔고, 후장군(後將軍) 조충국(趙充國)은 포류장군(蒲類將軍)가 되어 3만여 기를 [이끌고] 주천[군]에서 나아갔고, 운중태수(雲中太守) 전순(田順)은 호아장군(虎牙將軍)이 되어 3만여 기를 [이끌고] 운중에서 나아갔다. 대체로 다섯 명의 장군과 군대 모두 십여만의 기병이 장성 밖으로 각각 이천여 리를 나아갔다. 그리고 교위 상혜(常惠)⁸³⁷에게는 오손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 서역[의 여러 나라]

常平습을 설치하여 빈민구제를 도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匈奴의 쇠퇴를 틈타 烏孫과 손잡고 匈奴를 격파하였다. 그리고 鄭吉을 西域都護로 하여 소위 西域 36국을 服屬시켜 마침내 匈奴가 분열되었다. 전51년에는 南匈奴도 漢나라에 복속하기에 이르렀다. 宣帝시대는 武帝 이후 漢나라의 威勢가 최고도에 달하였으므로, 前漢의 여러 황제 중에서도 賢帝로 꼽혔다.

833) 昆彌: 烏孫의 군주를 지칭하는 칭호로 원래는 昆莫이다.

834) 宣帝의 첫 번째 연호로 전73~전70년까지이다.

835) 田廣明(?~전71): 京兆府 鄭(지금의 陝西省 華縣) 출신으로 字는 子公이다. 武帝 때에 郎으로 天水司馬가 되었고 공을 세워 河南都尉가 되었다. 淮陽太守로 光祿大夫 사칭 모반사건 관련자를 체포하였으며 조정에 들어와 大鴻臚가 되었다. 昭帝 시기에는 益州 夷民을 진압하여 關內侯가 되었고 나아가 左馮翊을 잘 다스렸다. 宣帝 초에 昌水侯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祁連將軍이 되어 匈奴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돌아왔다가 추문으로 인해 자살하였다(『漢書』 권90 「酷吏傳」: 3663~3664).

836) 韓增(?~전56): 漢王 信의 후예로 젊어서 郎이 되었다. 이후에 諸曹侍中光祿大夫가 되었고 龍額侯를襲封하였다. 昭帝 시대에 前將軍이 되어 田廣明 등과 함께 氐人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霍光과 함께 宣帝의 옹립을 모의하였다. 本始 2년(전72)에는 3만을 이끌고 雲中을 나아가 匈奴를 공격하였다. 神爵元年(전61)에 大司馬 車騎將軍 領尙書사가 되었다. 그는 이후에도 保身保家에 탁월하여 皇帝의 측근으로 활약했다(『漢書』 권33 「魏豹田儋韓王信傳」: 1856).

837) 常惠(?~전46): 太原(지금의 山西省 太原 西南) 사람이다. 젊었을 때 집안이 가난하여 蘇武가 匈奴로 사신가는 것에 응모를 하여 갔다가 그곳에서 십여 년간 역류생활을 했다. 昭帝 때에 귀환하여 光祿大夫로 제수되었다. 宣帝 本始 2년(전72)에 烏孫公主가 구조를 바라는 上書を 보내자, 烏孫에 사신으로

에서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오손의] 곤미가 몸소 흡후(翁侯)⁸³⁸ 이하 오만여 기를 이끌고 서쪽으로부터 [홍노로] 들어와 다섯 명의 장군이 [이끄는 부대와 합치니] 군사의 수가 2십여 만이 되었다. [하지만] 홍노는 한나라가 군대를 대거 출정시켰다는 것을 듣고 노약자를 도망시키고 가축들을 몰아 멀리 도망시켜버렸기 때문에 다섯 장군이 얻은 것이 별로 없었다.

度遼將軍出塞千二百餘里，至蒲離候水，斬首捕虜七百餘級，鹵獲馬牛羊萬餘。前將軍出塞千二百餘里，至烏員，斬首捕虜，至候山百餘級，鹵馬牛羊二千餘。蒲類將軍兵當與烏孫合擊匈奴蒲類澤，烏孫先期至而去，漢兵不與相及。蒲類將軍出塞千八百餘里，西去候山，斬首捕虜，得單于使者蒲陰王以下三百餘級，鹵馬牛羊七千餘。聞虜已引去，皆不至期還。天子薄其過，寬而不罪。祁連將軍出塞千六百里，至雞秩山，斬首捕虜十九級，獲牛馬羊百餘。逢漢使匈奴還者冉弘等，言雞秩山西有虜衆，祁連即戒弘，使言無虜，欲還兵。御史屬公孫益壽諫，以爲不可，祁連不聽，遂引兵還。虎牙將軍出塞八百餘里，至丹余吾水上，即止兵不進，斬首捕虜千九百餘級，鹵馬牛羊七萬餘，引兵還。上以虎牙將軍不至期，詐增鹵獲，而祁連知虜在前，逗遛不進，皆下吏自殺。擢公孫益壽爲侍御史。校尉常惠與烏孫兵至右谷蠡庭，獲單于父行及嫂·居次·名王·犁汙都尉·千長·將以下三萬九千萬餘級，虜馬牛羊驢羸橐駝七十

갔다. 뒤이어 漢이 다섯將軍의 大軍을 출동시켰을 때, 校尉로 임명되어 烏孫의 군대를 지휘하였다. 匈奴의 單于 父行과 名王 騎將 이하 3만 9천여 명의 首級을 얻어 귀환하였다. 이때 烏孫 사람에게 印綬節을 도둑맞아 誅殺될 위기에 처했으나, 다른 다섯 장군들이 아무 공로를 세우지 못한 것과 비교되어, 長羅侯로 封해지는 행운을 얻었다. 훗날 蘇武를 대신하여 典屬國, 右將軍 등으로 임명되어 外國관련 일에 공로를 세웠으며 元帝 때 사망하였다(『漢書』 권70 「傳常鄭甘陳段傳」: 3003~3005).

838) 翁侯: 月氏 내의 수령으로 보인다. 月氏는 大夏, 즉 박트리아 지역으로 이주한 뒤 그 땅을 5명의 수령들 내지는 翁侯(yabghu)로 나누어 다스렸다고 한다(그루세, 1998: 77). 토하라어에서 ‘땅, 지방’을 뜻하는 yapoy 혹은 ype라는 말과 연관된 것이라고 한다. 대체로 학자들은 葉護(yabghu)를 옮긴 말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투르크계 국가의 官名으로, 葉護라고 한자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副王, 君長 등을 지칭하기도 한다. 본래 고대 쿠샨이나 인도-스키타이계 종족들에서 쓰였던 칭호로 그것이 투르크계 종족들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루세, 1998: 142). 이후 葉護는 突厥시대에 可汗 이하에서 西部의 영역을 담당하는 최고위의 관직으로 주로 可汗의 子弟들이 담당하였다.

餘萬。漢封惠爲長羅侯。然匈奴民衆死傷而去者，及畜產遠移死(于)[亡]不可數勝。於是匈奴遂衰耗，怨烏孫。

도료장군이 장성에서 천 2백여 리를 나아가 포리후수(蒲離候水)⁸³⁹에 이르러 7백여 급을 베거나 포로로 잡았고 말과 소 그리고 양 [등과 같은 가축을] 만여 마리 잡았다. 전장군은 장성에서 천 2백 리를 나가 오원(烏員)⁸⁴⁰에 이르러 [홍노를] 베거나 포로로 잡았고, 후산(候山)⁸⁴¹에 이르러 백여 급을 [베거나 포로로 잡았고], 말과 소 그리고 양 [등과 같은 가축을] 2천여 마리 잡았으며 포류장군의 군대가 [원래] 오손과 만나 포류택(蒲類澤)⁸⁴²에서 홍노를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손이 약속한 날보다 일찍 왔다가 가버렸기 때문에 한나라 군대는 그들과 만나지 못하였다. 포류장군은 장성을 천 8백여 리나 나와 서쪽으로 후산까지 가서 [홍노를] 베거나 포로로 잡았고, 홍노의 사자 포음왕(蒲陰王)⁸⁴³ 이하 3백여 급을 얻었으며, 말과 소, 그리고 양 [등과 같은 가축을] 7천여 마리 잡았다. [이 세 명의 장군은] 홍노가 이미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정해진 기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돌아왔다. 천자가 그 잘못을 크게 나무라지 않고 관대하게 그들을 벌하지 않았다.

기련장군은 장성에서 천 6백여 리나 나가서 계질산(雞秩山)⁸⁴⁴에 이르러 19급을 베거나 포로로 잡고 소와 말, 양 [등의 가축을] 백여 마리 얻었다. 홍노에서 돌아오는 한나라의 사신 염홍(冉弘) 등을 만났는데, [그들이] 계질산 서쪽에 홍노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기련[장군]은 바로 [염홍을 타이르며 홍노가 없다고 하며 군대를 돌리고자 했다. 어사(御史)의 속[관](屬官) 공손익수(公孫益壽)가 그것이 불가하다고 간언하였으나 기련[장군]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군대를 물려 돌아왔다. 호아장군은 장성에서 8백여 리나 나아가 단여오수

839) 蒲離候水: 몽골공화국의 서남쪽에 있는 하천의 하나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840) 烏員: 지명으로 몽골공화국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곳에서 候山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면 바르쿨 누르의 동쪽 지역으로 보인다(內田吟風, 1971: 92).

841) 候山: 산의 이름으로 前將軍이 이곳에서 사람들을 베고 잡았다고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알 수 없다.

842) 蒲類澤: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 巴裏坤哈薩克自治縣 안에 있는 바르쿨 누르(巴裏坤湖)를 지칭한다.

843) 蒲陰王: 匈奴의 王 이름이다.

844) 雞秩山: 산의 이름으로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呼和浩特市 서북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丹余吾水)⁸⁴⁵ 근처에 이르러 멈춘 다음에 군대를 나아가지 않고 9백여 급을 베거나 포로로 잡았고, 말과 소, 그리고 양 [등의 가축을] 7만여 마리 잡은 다음에 군대를 물려 돌아왔다. 천자가 호아장군이 예정한 날에 도착하지 못하고 잡은 것을 거짓으로 늘려 말하였다고 여겼고, 기린[장군]이 앞에 흉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물어] 관리에게 명하여 [두 사람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 [어사의 속관] 공손익수를 시어사(侍御史)로 발탁하였다.

교위 상혜는 오손의 군대와 함께 우록리왕의 아정(牙庭)에 도착하여 선우 아버지 항렬 사람들과 [선우의] 형수, 거차(居次),⁸⁴⁶ 명왕(名王),⁸⁴⁷ 이오도위(犁汗都尉), 천장(千長), 장(將)⁸⁴⁸ 등 3만 9천만여 급을 얻고 말, 소, 양, 당나귀, 노새, 낙타[와 같은 가축을] 9만여 마리 잡았다. 한나라는 [이런 공을 세운] [상]혜를 장라후(長羅侯)로 봉했다. 그리고 흉노의 백성 중에서 죽고 다치거나 도망간 자들과 가축들이 멀리 이동하다가 죽은 것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흉노는 마침내 약해졌고 오손을 원망하게 되었다.

其冬，單于自將萬騎擊烏孫，頗得老弱，欲還。會天大雨雪，一日深丈餘，人民畜產凍死，還者不能什一。於是丁令乘弱攻其北，烏桓入其東，烏孫擊其西。凡三國所殺數萬級，馬數萬匹，牛羊甚衆。又重以餓死，人民死者什三，畜產什五，匈奴大虛弱，諸國羈屬者皆瓦解，攻盜不能理。其後漢出三千餘騎，爲三道，並入匈奴，捕虜得數千人還。匈奴終不敢取當，茲欲鄉和親，而邊境少事矣。

그⁸⁴⁹ 겨울에 선우가 몸소 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오손을 공격하였는데, 고작 노약한

845) 丹余吾水: 강의 이름으로 雲中郡의 북방에 있는 몽골 초원에 있었다.

846) 居次: 匈奴의 기혼 여자 또는 王女를 부르는 칭호 등으로 해석된다. 이는 漢나라의 公主와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847) 名王: 匈奴의 여러 왕 중에서 지위가 높았는데, 이것은 關氏와 太子 다음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顏師古는 이들의 역할을 單于의 명령을 받아 그 일을 받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匈奴 관제에 나오는 24萬騎長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주219), 주220) 참조).

848) 將은 “騎將”이어야 되는데, “騎”가 없다. 『漢書』 「常惠傳」·「西域傳」 등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849) 漢 宣帝 本始 3년(전71)의 일이다.

자들만 얻고서 돌아오려고 하였다. 마침 하늘에서 눈이 많이 내려 하루에 한 장(丈) 정도나 쌓여서 백성들과 가축이 얼어 죽으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열에 하나 정도였다. 이에 정령(丁令)⁸⁵⁰은 [흉노가] 약해진 것을 이용해 그 북쪽을 공격하였고, 오환은 그 동쪽에서 쳐들어왔고, 오손은 그 서쪽을 공격했다. 대체적으로 세 나라가 죽인 것이 수만 급이었고 [잡은] 말이 수만 필, 그리고 소와 양은 더욱 많았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 백성 중에서 죽은 사람이 10분의 3이고 가축 중에서 [죽은 것이] 10분의 5에 이르러 흉노는 더욱 약해졌고, [흉노에] 복속되었던 여러 나라가 모두 흩어져 [그들이 흉노를] 공격하고 노략질하는 것을 [흉노가]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 이후 한나라가 3천 명의 기병을 내어 세 길로 한꺼번에 흉노로 쳐들어가서 포로를 수천 명 잡아 돌아왔다. 흉노는 마침내 그것을 감히 당해내지 못하고 더욱 화친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변경에는 별 탈이 없게 되었다.

壺衍鞮單于立十七年死，弟左賢王立，爲虛閭權渠單于。是歲，地節二年也。

호연제선우가 즉위한 지 17년 만에 죽으니 동생 좌현왕이 즉위하여 허려권거선우(虛閭權渠單于)가 되었다. 이해가 지절(地節)⁸⁵¹ 2년(전68)이었다.

虛閭權渠單于立，以右大將女爲大閼氏，而黜前單于所幸顛渠閼氏。顛渠閼氏父左大且渠怨望。是時匈奴不能爲邊寇，於是漢罷外城，以休百姓。單于聞之喜，召貴人謀，欲與漢和親。左大且渠心害其事，：「前漢使來，兵隨其後，今亦效漢發兵，先使使者入。」乃自請與呼盧訾王各將萬騎南旁塞獵，相逢俱入。行未到，會三騎亡降漢，言匈奴欲爲寇。於是天子詔發邊騎屯要害處，使大將軍軍監治衆等四人將五千騎，分三隊，出塞各數百里，捕得虜各數十人而還。時匈奴亡其三騎，不敢入，即引去。是歲也，匈奴飢，人民畜產死十六七。又發兩屯各萬騎以備漢。其秋，匈奴前所得西噉居左地

850) 丁令: 앞에는 丁零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것이다(주262) 참조).

851) 漢 宣帝의 두 번째 연호(전69~전66)이다.

者, 其君長以下數千人皆驅畜產行, 與甌脫戰, 所戰殺傷甚衆, 遂南降漢.

허려권거선우가 즉위하자 우대장(右大將)의 딸을 대연지로 삼은 다음 이전 선우가 총애하던 전거연지(顯渠關氏)를 쫓아냈다. 전거연지의 아비인 좌대저거가 [이것을 몹시] 원망하였다. 이때 흉노가 [한나라의] 변경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에서는 장성 밖에 있는 요새를 없애고 백성들을 쉬게 했다. 선우는 [이런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귀인들을 불러 한나라와 화친할 것을 모의했다. 좌대저거는 마음속으로 그 일을 그르치게 하기 위해 말하였다. “이전에 한나라의 사신이 올 때 군대가 그 뒤를 따라왔는데, 지금 또한 한나라를 본받아 군대를 동원하여 사자를 보내기 전에 침입합시다.” 그런 다음에 스스로 [지원하여] 호려자왕(呼盧訾王)⁸⁵²과 함께 각각 만 기를 거느리고 남쪽에 가서 요새 근처에서 사냥을 하다가 [두 사람이] 서로 만나 같이 쳐들어가고려고 했다.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을 때, 세 명의 [흉노] 기병이 때마침 한나라에 도망해 항복하면서 흉노가 [한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자가 변경에 있는 기병을 일으켜 중요한 방어지점에 주둔시켰다. [그리고] 대장군군감(大將軍軍監)⁸⁵³ 치중(治衆)⁸⁵⁴ 등 네 명의 장군에게 5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요새에서 각 수백 리씩 나아가 흉노 수십 명을 잡아 돌아오도록 조칙을 내렸다. 이때 흉노는 세 명의 기병이 없어진 것을 알고 감히 쳐들어오지 않다가 바로 [군대를] 물려 돌아갔다. 이해에 흉노에 기근이 들어 백성과 가축이 죽었는데⁸⁵⁵ [그 양이] 열 가운데 예닐곱이나 되었다. 또한 두 개의 주둔군에서 만 명의 기병을 내어 한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게 했다. 그해 가을에 흉노가 이전에 포로로 잡은 서육(西囑)⁸⁵⁶ [종족] 가운데 왼쪽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군장 이하 수천 명이 모두 가축들을 몰고 와서 구탈(甌脫)에서 싸웠다. 그 싸움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아주 많아 마침내 남쪽으로

852) 呼盧訾王: 匈奴 왕의 이름이다.

853) 大將軍軍監: 관직 명칭으로 武帝시대에 大將軍이 설치되면서 그 예하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일을 맡았다. 王莽시기에는 12명을 두어 감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도 했다.

854) 治衆: 軍監의 이름이다.

855) 주706) 참조.

856) 西囑: 匈奴의 한 종족이다.

와서 한나라에 항복하였다.

其明年，西域城郭共擊匈奴，取車師國，得其王及人衆而去。單于復以車師王昆弟兜莫爲車師王，收其餘民東徙，不敢居故地。而漢益遣屯士分田車師地以實之。其明年，匈奴怨諸國共擊車師，遣左右大將各萬餘騎屯田右地，欲以侵迫烏孫西域。後二歲，匈奴遣左右奧韃各六千騎，與左大將再擊漢之田車師城者，不能下。其明年，丁令比三歲入盜匈奴，殺略人民數千，驅馬畜去。匈奴遣萬餘騎往擊之，無所得。其明年，單于將十萬餘騎旁塞獵，欲入邊寇。未至，會其民題除渠堂亡降漢言狀，漢以爲言兵鹿奚盧侯，而遣後將軍趙充國將兵四萬餘騎屯緣邊九郡備虜。月餘，單于病歐血，因不敢入，還去，卽罷兵。乃使題王都犁胡次等入漢，請和親，未報，會單于死。是歲，神爵二年也。

그 이듬해⁸⁵⁷⁾ 서역 성곽⁸⁵⁸⁾[도시 국가들]이 모두 함께 흉노를 공격하여 거사국(車師國)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 왕과 백성들을 잡아갔다. 선우가 다시 거사왕의 동생 두막(兜莫)⁸⁵⁹⁾을 거사왕(車師王)으로 삼고 그 나머지 백성을 잡아 동쪽으로 옮겨 가게 하니 이전의 땅에 감히 [다시] 살 수 없었다. [한편] 한나라는 주둔 군대를 더 보내고 그들에게 거사 땅을 나누어 주어 그 곳을 채우도록 했다. 그 이듬해⁸⁶⁰⁾ 흉노는 여러 나라가 거사국을 함께 공격한 것을 원망하여 좌우대장에게 각각 만여 거느리게 해 [그곳으로] 보낸 다음 [흉노의] 오른쪽 땅에 둔전(屯田)하게 함으로써 오손과 서역[의 여러 나라들]을 압박했다. 그 후 2년⁸⁶¹⁾이 지나 흉노가 좌오건(左奧韃)과 우오건(右奧韃)⁸⁶²⁾에게 각각 6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출정하게

857) 漢 宣帝 地節 3년(전67)이다.

858) 城郭: 성체에 살고 있는 여러 오아시스 도시를 말한다. 타림분지의 여러 오아시스 도시들에 있던 성곽 국가를 말한다. 漢의 侍郎 鄭吉은 이때 타림분지의 오아시스국가 군대 만여 명과 자신이 이끌고 온 漢나라의 屯田兵士 1,500명을 이끌고 가서 車師國을 함락하였다(주779) 참조.

859) 兜莫: 車師國 왕의 이름이다.

860) 漢 宣帝 地節 4년(전66)이다.

861) 2년이 아니라 4년 후, 즉 元康 4년(전62)이 정확하다.

862) 奧韃: 奧韃은 匈奴의 官號인데, 이후 突厥時代 氏族長을 지칭하는 ‘이르킨(irkin)’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

하여] 좌대장과 함께 거사성에 둔전하고 있던 한나라의 [군대를] 공격하게 했으나 함락하지 못하였다. 그 이듬해⁸⁶³ 정령이 [이곳에서] 3년간 자주 흉노 [영역] 안으로 쳐들어와 수천 명의 백성을 죽이거나 잡아갔고 말과 가축도 몰아갔다. 흉노가 만여 명의 기병을 보내 쫓아가 공격하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 이듬해⁸⁶⁴ 선우가 십만여 기병을 이끌고 요새 부근에서 사냥을 하면서 변경 안으로 들어와 노략질하고자 했다. 도착하기 이전에 마침 그 백성인 제제거당(題除渠堂)⁸⁶⁵이 항복해와 상황을 말하자 한나라가 이 사람을 언병록계려후(言兵鹿奚盧侯)⁸⁶⁶로 봉했고, 후장군 조충국에게 군대 4만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변경을 따라 있는 아홉 개의 군(郡)⁸⁶⁷에 주둔하게 하여 흉노에 대비하게 했다. 한 달쯤 지나서 선우가 병이 나서 피를 토했기 때문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 군대를 해산했다. 그리고 제왕(題王)⁸⁶⁸ 도리호차(都犁胡次)⁸⁶⁹를 한나라에 사신으로 들여보내 화친을 청하였는데, 이에 답하기도 전에 바로 선우가 죽었다. 이해가 신작(神爵)⁸⁷⁰ 2년(전60)이었다.

虛閭權渠單于立九年死。自始立而黜顛渠閼氏，顛渠閼氏即與右賢王私通。右賢王會龍城而去，顛渠閼氏語以單于病甚，且勿遠。後數日，單于死。郝宿王刑未央使人召諸王，未至，顛渠閼氏與其弟左大且渠都隆奇謀，立右賢王屠耆堂爲握衍胸鞮單于。

되기도 한다(內田吟風, 1971: 95).

863) 漢 宣帝 神爵 元年(전61)이다.

864) 漢 宣帝 神爵 2년(전60)이다.

865) 題除渠堂: 漢나라에 투항한 匈奴人의 이름이다.

866) 言兵鹿奚盧侯: “軍事에 대해 말을 하는 鹿奚盧(봉지의 이름)의 侯爵”을 의미한다. 이런 용례는 『漢書』 「趙充國傳」에서 “符奚盧山”이라고 기록이 나오는 것에서 볼 때 “鹿”이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匈奴大發十餘萬騎南傍塞，至符奚盧山。欲入爲寇。亡者題除渠堂言之。是符奚盧山爲塞南地，故以封之。”) 그리고 爵의 이름에 “言兵”이 붙은 것은 그가 군대가 온다는 것을 漢나라에 투항하면서 알려준 것을 보여주 기 위해 지명에다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867) 九郡: 五原，朔方，雲中，代郡，雁門，定襄，北平，上谷，漁陽을 말한다(주460) 참조).

868) 題王: 匈奴王의 명칭이다.

869) 都犁胡次: 匈奴의 인명이다.

870) 漢 宣帝의 네 번째 연호(전61~전58)이다.

握衍胸鞮單于者，代父爲右賢王，烏維單于耳孫也。

하려권선우가 즉위한 지 9년 만에 죽었다. 이전에 즉위했을 때 전거연지를 쫓아냈는데, 전거연지가 바로 우현왕과 사통을 하였다. 우현왕이 마침 용성의 모임[에 왔다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전거연지가 선우의 병이 몹시 심하니 멀리 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선우가 죽었다. [선우를 추대하기 위해] 학숙왕(郝宿王) 형미양(刑未央)이 사람을 시켜 여러 왕들을 소집하였으나 [그들이] 오지 못했는데, 전거연지가 그의 동생 좌대저거 도룡기(都隆奇)와 모의하여 우현왕 도기당(屠耆堂)을 악연구제선우(握衍胸鞮單于)로 삼았다. 세위 악연구제선우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현왕이 되었는데, [그는] 오유선우의 이손(耳孫)⁸⁷¹⁾이었다.

握衍胸鞮單于立，復修和親，遣弟伊箇若王勝之入漢獻見。單于初立，凶惡，盡殺虛閭權渠時用事貴人刑未央等，而任用顛渠闕氏弟都隆奇，又盡免虛閭權渠子弟近親，而自以其子弟代之。虛閭權渠單于子稽侯獮旣不得立，亡歸妻父烏禪幕。烏禪幕者，本烏孫·康居間小國，數見侵暴，率其衆數千人降匈奴，狐鹿姑單于以其弟子日逐王姊妻之，使長其衆，居右地。日逐王先賢禪，其父左賢王當爲單于，讓狐鹿姑單于，狐鹿姑單于許立之。國人以故頗言日逐王當爲單于。日逐王素與握衍胸鞮單于有隙，卽率其衆數萬騎歸漢。漢封日逐王爲歸德侯。單于更立其從兄薄胥堂爲日逐王。

악연구제선우가 즉위하자 다시 화친을 회복하려고 동생 이추약왕(伊箇若王)⁸⁷²⁾ 승지(勝之)를 한나라로 들여보내 [천자를] 알현했다. 선우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흉악하게 하려권거 [선우] 시기에 그를 섬겼던 귀인 형미양 등을 모두 죽이고, 전거연지의 동생 도룡기를 등용하였으며 하려권거선우의 자제와 근친 등을 모두 파면하고 스스로 자기의 아들과 동생들로

871) 13대 單于인 握衍胸鞮單于가 6대 烏維單于의 耳孫이라고 하나 그 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다.

872) 伊箇若王: 匈奴 왕명인데, 「宣帝紀」에는 “呼留若王”으로 되어 있다.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게 했다. 하려권거선우의 아들인 계후산(稽侯獬)⁸⁷³은 [자신이 선우로] 즉위하지 못하게 되자 [그의] 장인 오선막(烏禪幕)⁸⁷⁴에게 도망가 귀속하였다. 오선막은 본래 오손과 강거⁸⁷⁵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에 [살아서] 여러 차례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무리 수천 명을 이끌고 흉노에 항복하였다. 호록고선우가 동생의 아들 일축왕의 누이를 그와 결혼시켜 그의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삼아 [흉노의] 오른쪽 땅에 살게 했다. 일축왕 선현탄(先賢彈)은 그의 아버지가 좌현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우가 되어야 하는데, [그가 선우의 자리를] 호록고선우에게 양보하자 호록고선우가 이를 받아들여 즉위하였다. 국민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일축왕이 선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일축왕은 본래 악연구제선우와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무리와 수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한나라에 귀속했다. 한나라에서는 일축왕을 귀덕후(歸德侯)로 봉했다.⁸⁷⁶ [악연구제]선우가 다시 그의 사촌형인 박서당(薄胥堂)을 일축왕으로 삼았다.

明年，單于又殺先賢彈兩弟。烏禪幕請之，不聽，心恚。其後左奧鞬王死，單于自立其小子爲奧鞬王，留庭。奧鞬貴人共立故奧鞬王子爲王，與俱東徙。單于遣右丞相將萬騎往擊之，失亡數千人，不勝。時單于已立二歲，暴虐殺伐，國中不附。及太子·左賢王數讒左地貴人，左地貴人皆怨。其明年，烏桓擊匈奴東邊姑夕王，頗得人民，單于怒。姑夕王恐，卽與烏禪幕及左地貴人共立稽侯獬爲呼韓邪單于，發左地兵四五萬人，西擊握衍朐鞞單于，至姑且水北。未戰，握衍朐鞞單于兵敗走，使人報其弟右

873) 稽侯獬: 匈奴의 인명으로 虛閭權渠單于의 아들이다.

874) 烏禪幕: 匈奴의 인명으로 虛閭權渠單于의 아들 稽侯獬의 장인이다.

875) 康居: 前漢시대 西域에 있었던 유목국가의 하나로서 烏孫의 서쪽, 奄蔡의 동쪽에 거주하였다. 지금의 바르쿨 또는 이식쿨 주변지역에 살았다. 겨울을 보내는 王都는 卑闐城이었다. 漢나라 초기에는 나라가 작아 남으로 月氏에 복속되고 동으로 匈奴의 통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강대해지자 烏孫을 공격하고 남으로는 시르다리아를 건너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지역으로 진출하여 그곳을 다섯 개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남으로 大月氏와 동과 남으로 大宛과 국경을 접했다. 그러다가 이후에 쿠산王朝의 확대와 함께 세력이 약화되었다.

876) 先賢彈이 漢나라에 투항한 것은 宣帝 神爵 2년(전60)의 일이다. 그리고 歸德侯로 봉해진 것은 神爵 3년(전59)의 일이다.

賢王：“匈奴共攻我，若肯發兵助我乎？”右賢王：“若不愛人，殺昆弟諸貴人，各自死若處，無來汙我。”握衍胸鞮單于恚，自殺。左大且渠都隆奇亡之右賢王所，其民衆盡降呼韓邪單于。是歲，神爵四年也。握衍胸鞮單于立三年而敗。

이듬해⁸⁷⁷⁾ [악연구제]선우가 또 선현탄의 두 동생을 죽였다. 오선막이 [두 사람의 구명을] 청하였으나 [선우가 이를] 듣지 않자 마음속으로 몹시 화가 났다. 그 이후에 좌오건왕이 죽자 선우가 스스로 그의 막내아들을 세워 오건왕으로 삼고 [선우]정에 머무르게 했다. 오건의 귀인들이 모두 죽은 오건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우고 모두 동쪽으로 옮겨가 버렸다. 선우가 우승상⁸⁷⁸⁾에게 만 기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수천 명을 잃고 이기지 못하였다. 이때는 [이미] 선우가 즉위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었는데, [그가 백성들을] 험하게 학대하고 죽이니 그 나라 [백성들]이 그에게 복속하려 하지 않았다. 태자 좌현왕이 여러 차례 왼쪽 땅의 귀인들을 무고하니 왼쪽 땅의 귀인들이 모두 [그를] 원망하였다. 그 이듬해 오환이 흉노의 동쪽 변경에 있는 고석왕(姑夕王)을 공격하여 백성을 잡아가니 선우가 화를 났다. [이에] 고석왕이 무서워하면서 바로 오선막과 왼쪽 땅의 귀인들과 함께 계후산(稽侯珊)을 세워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⁸⁷⁹⁾로 삼고 왼쪽 땅의 군대 4, 5만을 일으켜

877) 漢 宣帝 神爵 3년(전59)이다.

878) 右丞相: 이것은 匈奴에도 丞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左右의 구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 中國과 마찬가지로 역할을 담당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單于 이하 독자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24長과 그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다(주221) 참조.

879) 呼韓邪單于(재위 전58~전31): 匈奴의 제14대 單于로 이름은 稽侯珊이다. 제12대 單于 虛閼權渠單于의 아들이다. 匈奴는 기원전 2세기 후반에 漢에 의하여 漠北으로 추방되고, 기원전 1세기에는 내란과 天災의 발생으로 그 세력이 쇠퇴하였다. 부친 單于가 사망한 뒤, 閼氏의 모책으로 握衍胸鞮單于가 섰지만 그에 불만을 품은 貴人들의 추대를 받아 전58년에 呼韓邪單于로 자립하였다. 그리고 握衍胸鞮單于가 사망한 뒤 전54년에 형인 郅支單于와 함께 匈奴를 동서로 양분하였다. 그 후 전51년에 長安으로 와서 宣帝를 알현하고 漢나라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얼마 후 서쪽의 郅支單于를 한나라의 원정군이 멸망시킨 뒤 元帝 竟寧 元年(전33)에 다시 漢朝에 朝謁하였고, 元帝는 後宮 王昭君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이후 匈奴는 前漢이 멸망할 때까지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呼韓邪單于의 漢에 대한 來朝는 漢과 匈奴의 관계사뿐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來朝 이후 匈奴와 漢은 和親의 約을 맺음으로써 상호간의 독립적인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匈奴가 漢에 대하여

서쪽으로 악연구제선우를 공격하기 위해 고저수의 북쪽에 도착했다. 아직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악연구제선우의 군대가 패배하여 도망가며 사람을 시켜 그의 동생 우현왕에게 [이런 소식을] 알리면서 말하였다. “흉노가 모두 나를 공격하니 네가 군대를 일으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우현왕이 말하였다.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여러 귀인들을 죽였다. 네가 있는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여기] 와서 나까지 더럽히지 말아라.” 악연구제선우가 화를 내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좌대저거 도용기가 우현왕의 처소에 망명해 있다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모두 호한야선우에게 항복했다. 이 해가 신작 4년(전58)이었다. 악연구제선우는 즉위한 지 3년 만에 패했다.

呼韓邪單于歸庭數月，罷兵使各歸故地，乃收其兄呼屠吾斯在民間者立爲左谷蠡王，使人告右賢貴人，欲令殺右賢王。其冬，都隆奇與右賢王共立日逐王薄胥堂爲屠耆單于，發兵數萬人東襲呼韓邪單于。呼韓邪單于兵敗走，屠耆單于還，以其長子都塗吾西爲左谷蠡王，少子姑瞞樓頭爲右谷蠡王，留居單于庭。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는 [선우]정(單于庭)으로 돌아가고 몇 개월이 지난 뒤, 전쟁을 중지하고 [병사들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민간에 있던 자신의 형 호도오사(呼屠吾斯)를 불러들여 좌록리왕(左谷蠡王)⁸⁸⁰⁾으로 세웠다. 사람을 시켜 우현왕(右賢王)⁸⁸¹⁾의

入質과 稱臣하게 되었다. 이것은 漢初 복수의 독립적 권력들이 무질서하게 산재된 상황에서 체결된 和親의 약속과는 성격을 달랐다. 또한 武帝시기 중국 이외의 外國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고 郡縣 지배를 천하로 확장하는 단계와도 달랐다. 이것은 宣帝 이후 중국과 외국들이 主客의 관계로서 상대방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정연한 질서를 갖추고 공존하는 ‘天下 질서’를 출현시킨 계기로 그 역사적 의의가 주목된다(김한규, 1988: 72~73).

880) 左谷蠡王: 匈奴의 官號로 左谷蠡라고도 하는데, ‘좌록리왕’이라고 읽는다. 左·右賢王 다음가는 지위로 지방에서 군사와 행정을 관리하는 최고 관리들의 명칭이다. 賢王과 谷蠡王은 單于로부터 分封을 받아 각자의 영지를 갖는다. 匈奴의 통치체계는 5부로 구성되는데, 單于庭을 중심으로 동남부에는 左賢王, 동북부에는 左谷蠡王, 서남부에는 右賢王, 서북부에는 右谷蠡王의 영지가 있었다. 주로 單于의 子弟들이 그 자리를 맡았다. 그 가운데 左賢王은 차기 單于를 계승할 사람인 太子가 담당하였으며 左屠耆王이라고도 불렸다. 이들 최고관리들은 單于를 우두머리로 하는 최고급 정치 평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선우는 제국을 통치하였으나 사실상 대신들이 각자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통치하였다(디코스

귀인(貴人)들에게, 그들이 우현왕을 죽여주길 원한다고 하였다. 그해⁸⁸²⁾ 겨울 도릉기(都隆奇)⁸⁸³⁾는 우현왕과 함께 일축왕(日逐王) 박서당(薄胥堂)을 도기선우(屠耆單于)⁸⁸⁴⁾로 세웠다. 그리고 수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동쪽으로 호한야선우를 습격하였다. 호한야선우의 군대는 패주하였고, 도기선우는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갔다. 그의 장자 도도오서(都塗吾西)⁸⁸⁵⁾를 좌록리왕(左谷蠡王)으로 삼고, 막내아들 고무루두(姑瞿樓頭)를 우록리왕으로 삼아 선우정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明年秋，屠耆單于使日逐王先賢擇兄右奧韃王爲烏藉都尉，各二萬騎，屯東方以備呼韓邪單于。是時，西方呼揭王來與唯犁當戶謀，共讒右賢王，言欲自立爲烏藉單于。屠耆單于殺右賢王父子，後知其冤，復殺唯犁當戶。於是呼揭王恐，遂畔去，自立爲呼揭單于。右奧韃王聞之，卽自立爲車犁單于。烏藉都尉亦自立爲烏藉單于。凡五單于。屠耆單于自將兵東擊車犁單于，使都隆奇擊烏藉。烏藉·車犁皆敗，西北走，與呼揭單于兵合爲四萬人。烏藉·呼揭皆去單于號，共并力尊輔車犁單于。屠耆單于聞之，使左大將·都尉將四萬騎分屯東方，以備呼韓邪單于，自將四萬騎西擊車犁單于。車犁單于敗，西北走，屠耆單于卽引西南，留關敦地。

모, 2005: 240).

881) 右賢王: 匈奴의 官號이다. 匈奴에서는 ‘賢’을 ‘屠耆’라고 칭하기 때문에, ‘右屠耆王’이라고도 부른다. 左賢王과 짝을 이루며 그 지위가 높다. 右賢王의 영지는 서쪽에 위치하고 匈奴의 안에서 그 영역이 가장 넓은 國 가운데 하나이다.

882) 宣帝 神爵 4년(전58)이다.

883) 都隆奇: 匈奴의 貴族이다. 虛閭權渠單于의 顯渠 閼氏의 동생이다. 宣帝 神爵 2년(전60) 虛閭權渠單于가 사망하자 都隆奇는 모의하여 右賢王 屠耆堂을 握衍胸鞬單于로 세우고 그의 신임을 받았다. 神爵 4년 握衍胸鞬單于가 虛閭權渠單于의 아들인 呼韓邪單于에게 격파되자, 都隆奇는 右賢王部로 도주하여 다시 屠耆單于를 세웠다.

884) 屠耆單于: 匈奴 선우로 이름은 薄胥堂이다. 宣帝 시기 握衍胸鞬單于가 재위할 때, 薄胥堂은 선우의 從兄으로 日逐王에 임명되었다. 握衍胸鞬單于가 죽은 뒤, 右賢王과 左大且渠 都隆奇가 함께 그를 屠耆單于로 옹립하여 호한야선우와 대립하였으나 나중에 呼韓邪單于에게 패하여 자살하였다.

885) 吾西: ‘吾斯’ 혹은 ‘牙斯’ 등과 같은 종류의 官號이다. 이 말은 일본의 ‘누시우시(大人)’와 관련 있는 말로 추정된다(內田吟風, 1971: 99).

이듬해⁸⁸⁶⁾ 가을 도기선우는 일축왕 선현탄(先賢彈)의 형인 우옥견왕(右奧健王)과 오자도위(烏藉都尉)로 하여금⁸⁸⁷⁾ 각각 2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동방에 주둔하면서 호한야선우를 방비하도록 하였다. 이 당시 서방의 호걸왕(呼揭王)⁸⁸⁸⁾이 [도기선우가 있는 곳에] 와서 유리당호(唯犁當戶)⁸⁸⁹⁾와 모의하여 함께 우현왕을 참소하였는데, 자립하여 스스로 오자선우(烏藉單于)가 되려 한다고 말하였다. 도기선우는 우현왕 부자를 살해하였다. 하지만 그 후 [우현왕의] 원통함을 알게 되자 다시 유리당호를 살해하였다. 이에 호계왕이 두려움에 빠져 마침내 [도기선우를] 배반하고 도주하였고, 자립하여 호걸선우(呼揭單于)가 되었다. 우옥견왕도 곧 자립하여 거리선우(車犁單于)가 되었다. 오자도위 또한 자립하여 오자선우(烏藉單于)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흉노에는] 모두 5명의 선우가 생겼다.⁸⁹⁰⁾

도기선우는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거리선우를 쳤으며 도류기로 하여금 오자[선우]를 공격하게 하였다. 오자[선우]와 거리[선우]는 모두 패하여 서북으로 도망가서 호걸선우

886) 宣帝 五鳳 1년(전57)이다.

887) 원문 “右奧健王爲烏藉都尉”에 대하여 현대 한어본에서는(安平秋, 2004: 1890) “右奧健王을 烏藉都尉로 임명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그 다음에 오는 “各”의 의미를 새기기 곤란하다. 그런데 王念孫은 고대에 ‘爲’가 ‘與’와 통용될 수 있는 글자였다고 하여 ‘右奧健王과 烏藉都尉’로 풀이하였다(『漢書補注』: 1586). 이를 따르면 “各”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번역문은 이에 따랐다. 한편 일역본(內田吟風, 1971: 100)에서는 ‘使’의 대상을 右奧健王에만 한정해서 번역했으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右奧健王과 烏藉都尉 둘을 모두 ‘使’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888) 呼揭: 몽골의 북서부에 살던 투르크계 부족 오구즈(Oghuz)로 추정된다. 달리 ‘烏揭’이라고도 쓴다. 기원전 2세기 冒頓單于에게 정복되어 匈奴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呼揭王은 呼揭 부족의 장일 것이다. 呼韓邪單于와 郅支單于가 匈奴를 동서로 양분한 뒤, 呼揭은 郅支單于 쪽에 복속되었고(전49) 堅昆과 丁令 등의 정벌에 동원되었다. 그 후 南北朝-隋朝 시기 사료에는 遠紇, 烏護, 韋紇 등의 이름으로 등장하며 唐代 回鶻 즉 위구르는 이들의 後身으로 알려져 있다.

889) 唯犁當戶(?~전57): 匈奴의 貴族이다. 宣帝 神爵 연간(전61~전58) 右賢王을 살해하였으나 그 역시 살해되었다. 當戶는 匈奴의 官名으로 諸王이나 大臣들이 스스로 둔 속관이었다. 左·右大當戶가 있으며, 그 밖에 24長이 설치한 當戶도 있다.

890) 五單于는 呼韓邪單于, 屠耆單于, 烏藉單于, 呼揭單于, 車犁單于를 말한다. 匈奴의 분열 소식을 들은 漢에서는 많은 신료가 匈奴 정벌을 주장하였으나, 御史大夫 蕭望之는 그것이 義에 따른 전쟁이 아니며, 성과 없는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사신을 파견하여 匈奴의 災患을 구제하면 四夷가 中國의 仁義에 감복하여 稱臣服從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漢書』 권78 「蕭望之傳」: 3279~3380). 武帝 사후 무력 개입을 자제하고자 한 漢의 대외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와 병사를 합하여 4만 명의 군대를 이루었다. 오자[선우]와 호길[선우]는 모두 선우의 호칭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아 거리선우를 받들어 보좌하였다. 도기선우가 이 소식을 듣고 좌대장(左大將)과 도위(都尉)로 하여금⁸⁹¹⁾ 4만의 기병을 이끌고 동방에 분산 주둔하면서 호한야선우에 대비하게 하고 자신은 4만의 기병을 이끌고 서쪽으로 거리선우를 쳤다. 거리선우는 패하여 서북으로 도주하였다. 도기선우는 곧 군대를 서남으로 이끌어 흡둔(闕敦) 지역⁸⁹²⁾에 머물렀다.

其明年，呼韓邪單于遣其弟右谷蠡王等西襲屠耆單于屯兵，殺略萬餘人。屠耆單于聞之，即自將六萬騎擊呼韓邪單于，行千里，未至噶姑地，逢呼韓邪單于兵可四萬人，合戰。屠耆單于兵敗，自殺。都隆奇乃與屠耆少子右谷蠡王姑瞽樓頭亡歸漢，車黎單于東降呼韓邪單于。呼韓邪單于左大將烏厲屈與父呼邀累烏厲溫敦，皆見匈奴亂，率其衆數萬人南降漢，封烏厲屈爲新城侯，烏厲溫敦爲義陽侯。是時李陵子復立烏藉都尉爲單于，呼韓邪單于捕斬之，遂復都單于庭，然衆裁數萬人。屠耆單于從弟休旬王將所主五六百騎，擊殺左大且渠，并其兵，至右地，自立爲閏振單于，在西邊。其後，呼韓邪單于兄左賢王呼屠吾斯亦自立爲郅支骨都侯單于，在東邊。其後二年，閏振單于率其衆東擊郅支單于，郅支單于與戰，殺之，并其兵，遂進攻呼韓邪。呼韓邪破，其兵走，郅支都單于庭。

그 이듬해⁸⁹³⁾ 호한야선우는 자신의 동생 우록리왕 등을 서쪽으로 보내 도기선우의 주둔군을 습격하여 만여 명을 죽이거나 약취하였다. 도기선우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스스로 6만의 기병을 이끌고 호한야선우를 쳤다. 천 리 가량 행군하여 욱고(噶姑)⁸⁹⁴⁾에 도달하기 전, 4만

891) 匈奴의 大將과 大都尉 등은 군사 지휘관이면서도 동시에 24명으로 이루어진 상층 귀족계층의 구성원이다. 돌궐에서는 28대신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디코스모, 2005: 238~239).

892) 闕敦은 통상 흉노의 지명으로 본다. 하지만 官名으로 보는 설도 있다. 後漢末 烏桓族의 군장 가운데 蹋頓이란 자가 있었는데, 唐代의 李賢은 그것이 匈奴의 王號라고 보았으며, 突厥族 官號인 吐屯(tudun)도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內田吟風, 1971: 100). 다만 번역문에서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지명으로 보았으나 어느 곳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893) 宣帝 五鳳 2년(전56)이다.

894) 匈奴 변경의 지명이다. 어느 곳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명에 이르는 호한야선우의 군대와 만나 맞붙어 싸웠다. 도기선우의 군대가 패하였고 [도기선우는] 자살했다. 도룡기는 이에 도기의 막내아들인 우록리왕 고무루두와 함께 한으로 망명 귀순하였다. 거리선우는 동쪽으로 가서 호한야선우에게 항복하였다. 호한야선우의 좌대장 오려굴(烏厲屈)과 그의 부친 호척루(呼遼累) 오려온돈(烏厲溫敦)⁸⁹⁵은 모두 흉노의 난리를 보고 휘하의 무리 수만 인을 이끌고 남하하여 한에 항복하였다. [한 천자는] 오려굴을 신성후(新城侯)로, 오려온돈은 의양후(義陽侯)로 봉하였다.⁸⁹⁶

이때 이릉(李陵)⁸⁹⁷의 아들이 다시 오자도위를 세워 선우로 삼았는데, 호한야선우가 붙잡아 참수하였고 마침내 다시 선우정을 도읍으로 삼았다. 그러나 무리는 겨우 수만 명이였다. 도기선우의 종제(從弟)인 휴순왕(休旬王)은 휘하 기병 5, 6백을 이끌고 좌대저거(左大且渠)⁸⁹⁸를 쳐서 죽인 뒤 그 병사들을 아울렀다. [흉노의] 오른쪽 땅에 이르러 윤진선우(閔振單

895) 顔師古의 주석에 따르면 “呼遼累”는 흉노의 官號이다. 그런데 『漢書』의 「宣帝紀」에서는 “匈奴의 呼速累單于가 무리를 이끌고 來降하였다”(『漢書』 권8: 266)고 하고 「功臣表」에서는 “匈奴의 諱連累單于가 무리를 이끌고 항복했다”(『漢書』 권17: 673)고 하였다. 모두 烏厲溫敦을 單于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제기」와 「공신표」의 두 기사에서 烏厲溫敦의 呼遼累라는 官號와 單于號가 동시에 칭해진 것이 된다. 그 원인에 대하여 烏厲溫敦이 漢에 항복할 때 單于를 자칭하였거나 혹은 漢 측에서 烏厲溫敦을 單于라고 잘못 표기한 탓이라는 지적이 있다(『漢書補注』: 1586).

896) 列侯로 책봉된 匈奴의 來降者들은 新城侯 烏厲屈을 제외하고는 모두 『漢書』 「功臣表」에 기록되어 있다. 栗原朋信은 이들의 列侯 책봉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들이) 책봉된 지역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식읍을 수여받고 또한 功臣表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內臣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 둘 점은 이제까지 많은 예가 있었던 것과 같이 外民族으로 王爵에 상당하는 地位를 가진 자가 漢의 內臣이 될 경우에는 일급 격하되어 ‘列侯’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漢帝國의 구조가 中華思想에 기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印綬에 대해서도 그 점을 말할 수 있다. 漢은 종종 外臣의 王에게 金印紫綬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국내에서 金印紫綬를 받는 爵位는 諸侯王보다 한 급이 낮은 列侯였다.”(栗原朋信, 1970: 465).

897) 李陵(?~전74): 前漢의 장군으로 隴西 成紀(현재 甘肅省 靜寧의 西南 지역) 사람이다. 字는 少卿이다. 李廣의 손자로 말 타고 활 쏘는 데 능하였다. 武帝 때 驍都尉가 되었다. 李陵은 자칭하여 5천 명의 騎兵과 步兵을 이끌고 匈奴를 토벌하였으나 8만의 匈奴 군사를 이기지 못하고 항복하였다. 匈奴 單于는 그를 右校王으로 삼았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 李陵은 이후 20여 년간 匈奴 지역에서 살다가 元平 원년에 病死하였다. 匈奴에 항복한 다음 李陵의 행적에 대해서는 『漢書』 권54 「蘇武列傳」에 관련된 기사가 있다.

898) 左大且渠: 匈奴의 官名이다. 且渠란 匈奴에서 ‘萬騎’를 뜻하는 24長의 이름으로, 각자 관리를 두었고 그 지위는 當戶 아래이다. 左大且渠와 且渠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은데, 且渠보다 한 단계 높은 지위로

于)로 자립하고, [흉노의] 서쪽 변경에 머물렀다. 그 뒤 호한야선우의 형인 좌현왕 호도오사(呼屠吾斯) 또한 자립하여 질지골도후선우(郅支骨都侯單于)⁸⁹⁹가 되어 [흉노의] 동쪽 변경에 주둔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 윤진선우는 그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질지선우(郅支單于)를 쳤다. 질지선우는 맞붙어 싸워 [윤진선우를] 죽이고 그 군대를 아울렀다. 이어서 나아가 호한야를 쳤다. 호한야는 격파되고 그 군대는 달아났으며⁹⁰⁰ 질지가 선우정을 도움으로 삼았다.

呼韓邪之敗也，左伊秩訾王爲呼韓邪計，勸令稱臣入朝事漢，從漢求助，如此匈奴乃定。呼韓邪諮問諸大臣，皆：「不可。匈奴之俗，本上氣力而下服役，以馬上戰鬥爲國，故有威名於百蠻。戰死，壯士所有也。今兄弟爭國，不在兄則在弟，雖死猶有威名，子孫常長諸國。漢雖疆，猶不能兼并匈奴，奈何亂先古之制，臣事於漢，卑辱先單于，爲諸國所笑！雖如是而安，何以復長百蠻！」左伊秩訾：「不然。疆弱有時，今漢方盛，烏孫城郭諸國皆爲臣妾。自且鞮侯單于以來，匈奴日削，不能取復，雖屈疆於此，未嘗一日安也。今事漢則安存，不事則危亡，計何以過此！」諸大人相難久之。呼韓邪從其計，引衆南近塞，遣子右賢王誅婁渠堂入侍。郅支單于亦遣子右大將駒于利受入侍。是歲，甘露元年也。

호한야가 패하자 좌이질자왕(左伊秩訾王)⁹⁰¹은 호한야를 위해 계책을 세웠는데, 신하를

추정된다. 匈奴 관직의 통례상 右大且渠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99) 郅支單于(?~전36): 이름이 呼屠吾斯이다. 虛閭權渠單于의 아들이고 呼韓邪單于의 형이다. 처음 左賢王에 임명되었다. 虛閭權渠單于가 사망한 뒤, 匈奴에는 내란이 발생하여 귀족들이 다투어 자립하자, 宣帝 五鳳 2년(전56)에 자립하여 郅支骨都侯單于가 되었다. 呼韓邪單于를 공격하여 한으로 남하하도록 하였다. 黃龍 원년(전49)에는 호한야선우의 공격을 피해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元帝 初元년간(전48~전44)에는 한에서 보낸 사자 谷吉을 살해하고, 서쪽으로 康居 지역까지 이동하여 烏孫을 침략하였다. 建昭 3년(전36) 한의 西域都護 甘延壽는 屯田吏士와 諸國 군대를 동원하여 郅支單于를 공격하였고 이때 피살되었다.

900) 이 부분의 원문은 “遂進攻呼韓邪。呼韓邪破，其兵走”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進攻呼韓邪破其兵 呼韓邪走”로 바꾸어야 文義가 잘 통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漢書補注』: 1586). 하지만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도 해석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901) 左伊秩訾: 匈奴의 官號이다. 이에 상응하는 것이 右伊秩訾이다. 左右의 직은 각각 서로 다른 地區를

칭하고 입조(入朝)하여 한(漢)을 섬기고 따르며 도움을 구하라고 권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흉노가 안정될 것이라 하였다. 호한야는 여러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모두가 말했다. “안 됩니다. 흉노의 습속은 본래 기백과 힘을 우러러보고, 복종하며 부림받는 것을 멸시합니다. 말 위에서 전투하면서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못 오랑캐⁹⁰²들에게 위명(威名)을 떨쳤습니다. 전장에서의 죽음은 장사(壯士)에게 모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⁹⁰³ 지금 [질지와 호한야] 형제가 나라를 다투고 있는데 [승리의 운이] 형에게 있지 않다면 동생에게 있을 것입니다.⁹⁰⁴ 비록 죽는다 해도 여전히 위명은 남을 것이며 자손들은 변함없이 여러 나라들(諸國)을 이끌 것입니다. 한은 비록 강해졌어도 여전히 흉노를 검병할 수 없습니다. 어찌서 선고(先古)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한에 신사(臣事)하여 선대의 선우들을 천시하고 욕보이며⁹⁰⁵ 여러 나라들의 웃음거리가 되려 합니까. 설령 이와 같이 하여 안정되어도 어떻게 다시 못 오랑캐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좌이질자(左伊秩訾)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함과 약함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조는 마야흐로 강성하며 오손⁹⁰⁶과 성곽 제국(諸國)⁹⁰⁷들은 모두 [한의] 신첩(臣妾)⁹⁰⁸이

말았는데, 일반적으로 左職은 동쪽, 右職은 서쪽 지역을 담당하였다.

902) 원문은 “威名於百蠻”이다. 周壽昌은 外夷들은 서로 ‘蠻’이라 칭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南方의 토착 종족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漢書補注』: 1586).

903) 원문 “戰死, 壯士所有也.”에 대하여 顏師古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풀었다. 번역문에서 직역을 했지만 일역본에서는 “戰死는 勇士의 항상적인 本分이다”(內田吟風, 1971: 102), 현대 한어본에서는 “사막에서 戰死하는 것은 壯士의 豪舉이다”(安平秋, 2004: 1891) 등으로 의역하였다.

904) 郅支單于가 형이고 呼韓邪單于가 동생이다.

905) 漢初에 한과 匈奴의 관계는 匈奴가 우위에 서고 중국이 열등한 지위에 있음을 상호 인정하는 위에서 전개되었다(디코스모, 2005: 256). 그러했던 匈奴가 漢에 대하여 稱臣하는 것은 선대 單于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906) 烏孫: 대략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 무렵까지 天山산맥의 북쪽 일리강 유역과 이식쿨의 호반 등지에 분포했던 투르크계 유목 부족이다. 원주지는 천산의 북쪽 산록인 준가르 지방이며, 처음에는 匈奴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기원전 2세기 후반 月氏를 쫓아내고 일리 지방으로 이동하였다고 본다. 부족의 都城은 赤谷城이며 그 위치는 이식쿨호수의 남안으로 추정된다. 漢代 중국과 烏孫의 관계가 친밀해지자 匈奴는 車師와 결탁하여 烏孫을 공격했다. 이때 漢이 匈奴와 車師를 격파하였고 이후 烏孫은 한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기원후 2세기 후반 鮮卑의 압박을 받았고 5세기 후반에는 柔然의 침략을 받아 서방의 파미르 고원지대로 이주하였으며, 이후 점차 그 이름이 잊혀졌다. 烏孫은 漢과

되었습니다.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⁹⁰⁹⁾ 이래 흉노는 날로 줄어들었고⁹¹⁰⁾ [잃은 것을] 되찾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여기에서 굳센 척해도⁹¹¹⁾ 하루의 편안도 맛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한을 섬기면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위험하거나 멸망할 것입니다. 무엇이 이 계책보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 대인(大人)⁹¹²⁾들은 서로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다. 호한야는 그 계책에 따르기로 하여 무리를 이끌고 [한조의] 변새 부근으로 남하하였다. 아들 우현왕 수루거당(銖婁渠堂)을 보내 입조하고 시봉하게 하였다. 질지선우 또한 아들 우대장(右大將) 구우리수(駒于利受)를 보내 입조하고 시봉하게 하였다. 이해는 감로(甘露) 원년(전53)이다.⁹¹³⁾

明年，呼韓邪單于款五原塞，願朝三年正月。漢遣車騎都尉韓昌迎，發過所七郡，郡二千騎，爲陳道上。單于正月朝天子于甘泉宮，漢寵以殊禮，位在諸侯王上，贊謁稱

匈奴의 항쟁 과정과 東西交通史上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된다.

907) 원문의 “城郭諸國”은 서역의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을 말한다.

908) 원문의 “臣妾”은 국가 권력에 종속된 인민과 藩屬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漢書』 권24(「食貨志」: 1143)에서 “匈奴가 藩을 칭하고, 百蠻이 賓服하여, 배와 수레가 닿는 곳은 모두 臣妾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909) 且鞮侯의 음은 ‘저제후’이다(『史記』 권110 「匈奴傳」: 2917, 『索隱』: 上音子餘反, 下音低).

910) 漢의 匈奴 정벌은 衛靑과 霍去病의 지휘 아래 대략 元光 6년(전129)부터 元狩4년(전119)까지 10여 년 동안에 집중되었다. 그 후에는 李廣利의 匈奴 정벌(전90)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정벌이 없었다. 따라서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且鞮侯單于(재위 전101~전96) 치세에 匈奴의 쇠퇴가 시작된 것은 전쟁의 후유증 탓으로 볼 수 있다. 武帝代 漢軍의 공격으로 匈奴는 물과 풀이 풍부한 陰山과 祁連山, 焉支山 등을 잃고, 수백만 마리의 양과 가축을 잃는 큰 피해를 입었다(김한규, 2005: 382).

911) 원문 “雖屈強於此”에 대하여 일역본에서는 “현재보다 강력하였다고 말할지라도”(內田吟風, 1971: 102)라고 해석했고, 현대 한어본에서는 “지금처럼 억지로 강한 척해도”(安平秋, 2004: 1891)라고 해석했다. 문맥상 현대 한어본이 더 무난해 보인다.

912) 원문에 “諸大人”이라고 나오는데, 周壽昌은 匈奴貴人이 서로 大人이라고 칭한 것은 이때부터라고 하였다(『漢書補注』: 1587).

913) 이때의 “遣子入侍”가 甘露元年 正月의 일임은 『漢書』 「本紀」에서 확인된다(권8, 「宣帝紀」: 268). 그런데 이보다 1년 전 五鳳 4년에도 單于가 인질을 보내 入侍한 일이 있다(“單于稱臣 遣弟谷蠡王入侍.” 『漢書』 권8, 「宣帝紀」: 268). 이것은 閏振單于 때의 일이다(內田吟風, 1971: 103).

臣而不名. 賜以冠帶衣裳, 黃金璽鑿綬, 玉具劍, 佩刀, 弓一張, 矢四發, 檠戟十, 安車一乘, 鞍勒一具, 馬十五匹, 黃金二十斤, 錢二十萬, 衣被七十七襲, 錦繡綺縠雜帛八千匹, 絮六千斤. 禮畢, 使使者道單于先行, 宿長平. 上自甘泉宿池陽宮. 上登長平, 詔單于毋謁, 其左右當戶之羣臣皆得列觀, 及諸蠻夷君長王侯數萬, 咸迎於渭橋下, 夾道陳. 上登渭橋, 咸稱萬歲. 單于就邸, 留月餘, 遣歸國. 單于自請願留居光祿塞下, 有急保漢受降城. 漢遣長樂衛尉高昌侯董忠·車騎都尉韓昌將騎萬六千, 又發邊郡士馬以千數, 送單于出朔方雞鹿塞. 詔忠等留衛單于, 助誅不服, 又轉邊穀米糒, 前後三萬四千斛, 給贍其食. 是歲, 郅支單于亦遣使奉獻, 漢遇之甚厚. 明年, 兩單于俱遣使朝獻, 漢待呼韓邪使有加. 明年, 呼韓邪單于復入朝, 禮賜如初, 加衣百一十襲, 錦帛九千匹, 絮八千斤. 以有屯兵, 故不復發騎爲送.

이듬해⁹¹⁴) 호한야선우가 오원새(五原塞)⁹¹⁵)를 두드려 [감로] 3년(전51) 정월에 입조(入朝)를 원했다. 한은 거기도위(車騎都尉)⁹¹⁶) 한창(韓昌)⁹¹⁷)을 보내 영접하게 하였으며 지나가는 일곱 군(郡)에서 군마다 2천의 기병을 징발하여 길 위에 늘어서게 하였다. 선우는 정월에 감천궁(甘泉宮)⁹¹⁸)에서 천자에게 조하(朝賀)하였다.

한은 특별한 예로 우대하여 [선우의] 지위를 제후왕 위로 하고⁹¹⁹) [천자에게] 배알할 때

914) 宣帝: 甘露 2년(전52)이다.

915) 五原塞: 五原郡의 邊塞이다. 지금의 위치는 대략 內蒙古 包頭市의 서북쪽으로 추정한다.

916) 車騎都尉: 前漢 시기의 官名으로 車騎士들을 관장하는 직책이다. 常置되지는 않았다. 長家山漢墓竹簡「秩律」에 따르면, 車騎都(尉)의 秩祿은 2千石이다(長家山漢墓竹簡[247號墓]「秩律」: 192).

917) 韓昌: 宣帝 시기 車騎都尉에 임명되었다. 甘露 3년(전51) 呼韓邪單于가 漢에 입조하였을 때, 單于를 영접하였다. 元帝 初元 2년(전47) 光祿大夫 張猛과 함께 單于의 侍子가 귀환할 때 호송하였다. 이때 單于庭에서 匈奴와 맹약을 맺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公卿들은 자의적인 맹약을 문제삼아 韓昌 등을 처벌하라고 주장하였으나 贖罪가 허용되었다. 후에 護軍都尉에 임명되었고 永光 2년(전42)에는 隴西의 屯田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918) 甘泉宮: 雲陽宮이라고도 불렀다. 陝西省 淳化縣 西北에 있는 甘泉山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에도 궁의 유지가 있다. 궁의 이름은 이 산에서 따온 것이다. 秦 二世 때에는 林光宮이었는데, 武帝 建元 1년(전140)에 확장 건축되었다. 궁의 주위 둘레는 45리이며 高光宮·長定宮·竹宮·通天臺·迎賓館·露寒館·儲胥館 등의 宮室이 있었다.

신이라고 칭하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머리에 쓰는 갓과 허리에 두르는 띠 그리고 저고리와 치마, 황금으로 만든 도장[璽]과 여초(整草)로 염색한 도장 끈,⁹²⁰⁾ 옥으로 장식한 검⁹²¹⁾과 허리에 차는 칼, 활 하나와 화살 네 묶음,⁹²²⁾ 덮개로 싸여 있는 [의장용] 창 10자루, 의자가 달린 수레[安車] 1대,⁹²³⁾ 말안장과 고삐 한 세트, 말 15필, 황금 20근,⁹²⁴⁾ 20만 전, 의복 77벌, 수놓은 비단[錦繡]·고운 주름비단[綺縠] 등과 여러 종류의 비단[雜帛] 8천 필, 명주 솜 6천 근 등을 사여하였다.

조례(朝禮)가 끝난 뒤, 사자로 하여금 선우보다 앞에 가면서 안내하게 하였다. [장안의 숙소로 가는 도중에] 장평(長平)⁹²⁵⁾에서 묵었다. 천자는 감천(甘泉)에서 [나와] 지양궁(池陽宮)⁹²⁶⁾에서 숙박하였다. [이곳에서] 천자는 장평[의 산비탈]에 올라 선우는 [천자에게] 배알

919) 漢에서는 匈奴 선우의 來降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직면하여 그를 어떻게 禮遇할 것인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그 지위를 諸侯王보다 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아래에 둘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었다. 당시 丞相 黃霸, 御史大夫 于定國 등은 單于에 대한 禮遇를 응당 '諸侯王의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는 '諸夏를 우선하고 夷狄을 뒤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蕭望之는 單于가 正朔을 받지 않는 敵國으로 응당 '不臣之禮'에 따라 대우하여 '諸侯王보다 위'로 예우해야 하며 그것이 곧 '羈縻의 뜻'이라고 주장하였다. 宣帝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單于의 位次를 諸侯王의 위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外夷를 羈縻의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漢初와 武帝代의 상이한 세계정책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절충적 선택으로서 향후 중국의 대외관계의 기초를 확립한 일로 그 역사적 의의가 강조된다(김한규, 1988: 72~73).

920) 顏師古는 '璽'가 옛 '戾'자이고, 풀의 이름이라고 했다. 그 풀의 물로 도장 끈을 염색하는 것이 제후왕에 대한 예제였다고 한다.

921) 원문 "玉具劍" 의미에 대하여 孟康은 칼날 밑(鐔)과 칼의 코끝(衛)이 모두 玉으로 된 칼이라고 풀이했다. 顏師古는 옆으로 튀어나온 劍口가 '鐔', 칼의 코끝이 '衛'라고 했다.

922) 원문 "矢四發"은 服虔과 韋昭의 주에 따르면, 한 묶음(發)은 12대의 화살을 말하니, 4묶음(發)은 화살 48대를 뜻한다.

923) 安車: 고대의 수레는 서서 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安車는 의자를 붙여 앉아서 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年老한 고급 관료나 貴婦人 등이 이용하였다. 또한 조정에서 賢人, 老人을 초빙할 때도 安車를 보내 각별한 예우를 표시하였다.

924) 前漢代 1斤은 지금의 248g에 해당된다(『漢語大詞典』「中國歷代衡制演變測算簡表」).

925) 長平: 京師 부근의 언덕을 부르는 이름이다. 宣帝 本紀의 '長平阪'에 대하여 如淳은 "阪名이다. 池陽縣의 남쪽이다. 上原의 阪에는 長平觀이 있다. 長安에서 15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顏師古는 "涇水の 남쪽 언덕이다. 지금은 畦城坂이라고 한다."고 하였다(『漢書』권8「宣帝紀」: 271). 현재 陝西省 涇陽縣 西南쪽 涇水 부근의 언덕이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서를 내렸다. [선우의] 좌우 당호(當戶) 등의 신료들은 모두 줄지어 서서 지켜 볼 수 있었다. 여러 만이(蠻夷)의 군장, 왕후 등 수 만 명도 모두 위교(渭橋)⁹²⁷⁾ 아래에서 [천자를] 영접하였다. [이들은]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늘어섰다. 황제가 위교에 올라서자 모두 만세를 외쳤다.

선우가 [장안의] 집으로 가서 한 달 여간 체류하였으며 [천자는 그를] 귀국하도록 하였다. 선우는 자청하길 광록새(光祿塞)⁹²⁸⁾ 아래 지역에 머물면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한의 수항성(受降城)⁹²⁹⁾을 지킬 수 있길 원하였다.

한은 장락위위(長樂衛尉)⁹³⁰⁾ 고창후(高昌侯) 동충(董忠)⁹³¹⁾과 거기도위 한창을 보내 기병 1만 6천을 이끌고, 또한 변군의 병사와 말 수천을 징발하여 선우가 삭방[군]의 계록새(雞鹿塞)⁹³²⁾ 밖으로 나가는 것을 호송하게 하였다. 조서를 내려 동충 등이 남아서 선우를 호위하면

926) 池陽宮: 현재 陝西省 涇陽縣 서북쪽에 있다. 漢代에 건축되었고 池陽縣의 남쪽에 있었다. 顧炎武의 『歷代宅京記』 권4에 “池陽宮 在池陽之南”이라고 되어 있다. 李吉甫의 『元和郡縣志』 권2에는 “漢池陽宮在(涇陽)縣西北八里”라고 되어 있다.

927) 渭橋: 漢代 渭水에는 다리가 세 개가 있었으며 가운데 자리한 것이 中渭橋이다. 『三輔舊事』에 따르면 秦代 渭水の 남쪽에 興樂宮이 있고, 북쪽에 咸陽宮이 있었는데, 이 둘을 잇기 위해 秦昭王이 건립하였다고 한다. 길이는 380步이고, 다리 북쪽 물속의 壘石에는 村神의 神像이 새겨져 있었다. 원래는 물 밖에 있었지만, 魏太祖의 말이 보고 놀란 뒤로 물 안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史記』 권10 「孝文本紀」: 415). 그 밖에 동쪽에는 東渭橋가 있는데 景帝 5년에 건축되었고, 서쪽의 西渭橋는 武帝 建元 3년에 축조되었다. 西渭橋는 便門과 마주하고 있어 便橋 혹은 便門橋로도 불렸다.

928) 光祿塞: 武帝는 太初 3년(전102)에 光祿勳 徐自爲를 보내 五原塞 외부에 城을 줄지어 축조하였는데 서북쪽으로 匈奴 땅 盧胸에 이르렀다(『漢書』 권6 「武帝紀」: 201). 光祿勳이 축조하였기 때문에 光祿塞 혹은 光祿城이라고 불렸다. 성터는 현재 內蒙古 包頭市 서북쪽에 있다.

929) 受降城: 武帝 太初 1년(전104) 武帝는 因杆將軍 公孫敖를 보내 塞外에 受降城을 쌓게 하였다(『漢書』 권6 「武帝紀」: 200). 이곳은 현재 內蒙古 오이라트 안의 後聯合旗 동쪽, 陰山의 북쪽으로 추정된다.

930) 長樂衛尉: 前漢 시기 설치된 관직으로 長樂宮 衛士를 지휘하였다. 상설직은 아니다.

931) 董忠(?~전48): 潁川郡 陽翟縣 사람이다. 材力이 있고,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했다. 武帝代 期門으로 給事하였고, 宣帝代에는 張章·楊惲 등과 함께 霍光의 아들인 霍禹의 모반 사실을 고발하였다. 그 공으로 地節 4년(전66)에 高昌侯로 봉해졌다. 神爵 2년(전60)에는 衛尉로 임명되었다. 甘露 3년(전51) 車騎都尉 韓昌 등과 함께 호한야선우를 장안에서 漠南으로 호송하였다. 19년간 高昌侯로 있다가 사망하였다.

932) 雞鹿塞: 顏師古에 따르면 漢代 朔方郡 涇陽縣에 있었던 邊塞이다. 현재 內蒙古 古杭錦 後期の 서남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 [선우에게] 복종하지 않은 자를 주살하는 데 조력하게 했다. 또한 변지의 곡물, [도정한] 곡물,⁹³³⁾ 건량 등을 앞뒤로 3만 4천 곡(斛)⁹³⁴⁾을 [홍노 측에게] 보내 식량에 보태도록 하였다. 이해 질지선우 또한 사신을 보내 봉헌(奉獻)하였다. 한은 그를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다.

이듬해⁹³⁵⁾ [호한야, 질지] 두 명의 선우가 모두 사신을 보내 입조하고 봉헌하였다. 한은 호한야의 사자를 대우할 때 더해 주는 것이 있었다.

이듬해⁹³⁶⁾ 호한야선우가 다시 입조하였다. 예우와 [재물] 사여는 처음과 같았지만, 의복 110벌과 비단[錦帛] 9천 필, 명주 솜 8천 근을 더 주었다. [이미 파견된 홍노 지역] 주둔병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병을 내어 호송하지는 않았다.

始郅支單于以爲呼韓邪降漢，兵弱不能復自還，卽引其衆西，欲攻定右地。又屠耆單于小弟本侍呼韓邪，亦亡之右地，收兩兄餘兵得數千人，自立爲伊利目單于，道逢郅支，合戰，郅支殺之，并其兵五萬餘人。聞漢出兵穀助呼韓邪，卽遂留居右地。自度力不能定匈奴，乃益西近烏孫，欲與并力，遣使見小昆彌烏就屠。烏就屠見呼韓邪爲漢所擁，郅支亡虜，欲攻之以稱漢，乃殺郅支使，持頭送都護在所，發八千騎迎郅支。郅支見烏孫兵多，其使又不反，勒兵逢擊烏孫，破之。因北擊烏揭，烏揭降。發其兵西破堅昆，北降丁令，并三國。數遣兵擊烏孫，常勝之。堅昆東去單于庭七千里，南去車師五千里，郅支留都之。

처음 질지선우는 호한야가 한에 항복하였고 군대가 약해 다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의 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서 [홍노의] 오른쪽 땅을 공격하여 평정하려 하였다. 한편 도기선우의 어린 동생은 본래 호한야를 모셨는데 그 또한 오른쪽 땅으로 도주하여 두 형⁹³⁷⁾의 과거 병사 수천 명을 모아 이리목선우(伊利目單于)로 자립해 있었다.

933) 원문은 “米”인데, 껍질을 벗긴 곡물 알맹이를 말한다. 孫詒讓은 『周禮正義』(권31: 1233)에서 “已舂者爲米，未舂者爲粟”이라고 하였다.

934) 전한시기 1斛은 지금의 200리터에 해당된다(『漢語大詞典』「中國歷代量制演變測算簡表」).

935) 宣帝 甘露 4년(전50)이다.

936) 宣帝 黃龍 1년(전49)이다.

길에서 질지와 만나 맞붙어 싸웠는데 질지는 그를 죽이고 그의 군사 5만여 명을 병합하였다.

[질지] 한이 군사와 곡식을 내어 호한야를 돕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홍노의] 오른쪽 땅에 머물러 살았다. 스스로 헤아리길 홍노 [전체]를 평정할 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욱 서쪽으로 오손에게 가까이 가 더불어 힘을 합치길 원하여 사신을 보내 소곤미(小昆彌)⁹³⁸⁾ 오취도(烏就屠)를 알현하게 하였다. 오취도는 호한야가 한의 보호를 받고 질지는 쫓기는 오랑캐임을 보고, [질지를] 공격하여 한의 비위를 맞추려 하였다. 이에 질지의 사신을 죽이고, 그 머리를 [한의] 도호(都護) 주둔지에 보냈으며, 8천의 기병을 일으켜 질지를 맞이하였다. 질지는 오손의 군사가 많음을 보고, 자신이 보낸 사신도 돌아오지 않자, 군대를 정돈하여 오손[군]과 조우하였을 때 공격하여 부수었다. 내친 김에 북으로 오걸(烏揭)⁹³⁹⁾을 쳐서 오걸이 항복하였다. 그 [오걸의] 군대를 내어 서쪽으로 견곤(堅昆)⁹⁴⁰⁾을 부수었고 북쪽으로는 정령(丁令)⁹⁴¹⁾을 항복시켜 [그 결과 오걸, 견곤, 정령] 3국을 병합하였다. 여러 차례 군대를 보내 오손을 공격하였는데 늘 이겼다. 견곤은 동쪽으로 선우정까지 7천 리 떨어져 있었고 남쪽으로 거사(車師)까지 5천 리 떨어져 있었는데 질지는 머물면서 도읍지로 삼았다.⁹⁴²⁾

937) “兩兄”은 屠耆單于와 呼韓邪單于를 말한다.

938) 小昆彌: 서역 烏孫國의 국왕 호칭이다. “昆彌”는 본래 ‘昆莫’이라고 한다. 漢 宣帝 때에 大, 小의 구분이 생겼다. 모두 漢으로부터 印綬를 받아 각자의 영역을 다스렸다.

939) 「陳湯傳」에 따르면 “烏揭”는 “呼揭”라고 되어 있다(「漢書」 권70 「陳湯傳」: 3008). 呼揭에 대해서는 주888) 참조.

940) 堅昆: 키르기즈 족을 말하는데 투르크계에 속한다. 匈奴의 북방에 있던 堅昆, 髡昆은 키르기즈 족의 가장 오래된 명칭으로 추정된다. 남북조시대에는 結骨·契骨, 唐代에는 黠戛斯·紇攣斯라고도 기록되었다. 唐代 투르크 비문에 처음으로 그 이름(Qyrqyz)이 등장한다고 한다. 몽골의 북서쪽 예니세이강 상류에 살았으며 주민은 주로 유럽계로 추정된다. 그 선사문화는 특히 발달된 금속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늦어도 6세기 후반 무렵에는 돌궐이 등장하면서 문화적 체질적으로 투르크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당대에는 이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堅昆都護府가 설치된 일이 있으나 명목적인 것이었다.

941) 丁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에 걸쳐 북아시아에 유목했던 투르크계 종족이다. 한자로는 丁靈, 丁零, 勅勒 등으로도 표현되는데 모두 ‘투르크’의 음역으로 추정한다. 匈奴의 전성시대에는 바이칼호수의 남안에서 알타이산맥 지방에 걸쳐 거주하면서 홍노의 지배를 받았으나, 나중에는 홍노를 공격하여 홍노의 멸망을 재촉하였다. 위진남북조시대에는 高車라고도 불렀는데, 5세기 말 알타이산맥 서안에 高車國을 세웠다.

942) 이 상황에 대하여 그루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呼韓邪에게 쫓겨난 질지는 중국에 복속된 몽골리

元帝初即位，呼韓邪單于復上書，言民衆困乏。漢詔雲中·五原郡轉穀二萬斛以給焉。郅支單于自以道遠，又怨漢擁護呼韓邪，遣使上書求侍子。漢遣谷吉送之，郅支殺吉。漢不知吉音問，而匈奴降者言聞甌脫皆殺之。呼韓邪單于使來，漢輒簿責之甚急。明年，漢遣車騎都尉韓昌·光祿大夫張猛送呼韓邪單于侍子，求問吉等，因赦其罪，勿令自疑。昌·猛見單于民衆益盛，塞下禽獸盡，單于足以自衛，不畏郅支。聞其大臣多勸單于北歸者，恐北去後難約束，昌·猛即與爲盟約：「自今以來，漢與匈奴合爲一家，世世毋得相詐相攻。有竊盜者，相報，行其誅，償其；有寇，發兵相助。漢與匈奴敢先背約者，受天不祥。令其世世子孫盡如盟。」昌·猛與單于及大臣俱登匈奴諾水東山，刑白馬，單于以徑路刀金留犁撓酒，以老上單于所破月氏王頭爲飲器者共飲血盟。昌·猛還奏事，公卿議者以爲「單于保塞爲藩，雖欲北去，猶不能爲危害。昌·猛擅以漢國世世子孫與夷狄詛盟，令單于得以惡言上告于天，羞國家，傷威重，不可得行。宜遣使往告祠天，與解盟。昌·猛奉使無狀，罪至不道。」上薄其過，有詔昌·猛以贖論，勿解盟。其後呼韓邪竟北歸庭，人衆稍稍歸之，國中遂定。

원제⁹⁴³가 처음 즉위하자 호한야선우는 다시 상서(上書)하여 [흉노] 민중이 궁핍하다고 말하였다. 한은 조서를 내려 운중군(雲中郡)⁹⁴⁴과 오원군(五原郡)⁹⁴⁵에서 곡식 2만 곡을 옮겨

아에서 현재 러시아령 투르키스탄 지역인 서방으로 신천지를 찾아서 떠났다. 도중에 일리 지역에서 오손을 격파하고 이밀 강 유역에서 呼揭와 아랄 초원의 堅昆을 복속시킨 뒤, 그들을 동맹자로 삼았다. 심지어 그는 소그디아나로 쳐들어갔다. 소그디아나 사람들은 성급하게도 그를 도와 그는 추강과 탈라스강의 초원에 牙庭을 세웠다. 이것은 서구에서 출현한 거대한 匈奴 제국의 한 기원이 되었다”(그루세, 1998: 87).

943) 元帝(전75~전33; 재위 전49~전33): 前漢 8대 황제로 이름은 劉奭이다. 부친 宣帝가 즉위하기 전 민간에 있을 때, 뒷날의 許皇后를 만나 元帝를 낳았다. 宣帝는 法家를 좋아하고 공명한 정치로 중흥을 일구어낸 군주라는 평을 받지만, 원제는 성격이 온유하고 儒學을 좋아하여 법을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德政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대조적이었다. 元帝 치세에는 실제로 儒敎의 소양의 관료 수가 크게 증가하여 유교화 과정이 진척되었다.

944) 雲中郡: 戰國시대 趙 武靈王이 설치했다. 현재 內蒙古 古托克托縣의 東北 지역이다. 秦王 政의 즉위 후 13년 秦이 이곳을 차지하고 다시 雲中郡을 두었으며 漢代에도 이어졌다. 郡의 치소는 雲中縣이고 11개의 현이 있었으며 後漢末에 廢郡되었다.

지급하였다.

질지선우는 자신의 [근거지에서 한까지] 길이 멀고, 또한 한이 호한야를 옹호하는 것을 원망하였다. 사신을 보내 상서하여 [한에 있는 흉노의] 시자(侍子)를⁹⁴⁶⁾ [돌려보내길] 요구했다. 한은 곡길(谷吉)을 보내 [시자를] 호송하였는데, 질지는 곡길을 죽였다.⁹⁴⁷⁾ 한은 곡길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흉노에서 항복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죽였다는 말을 구탈(甌脫)⁹⁴⁸⁾에서 들었다고 하였다. 호한야선우의 사신이 오자 한은 일일이 문서를 들어 책망하였는데 매우 심하였다.

이듬해⁹⁴⁹⁾ 한은 거기도위 한창과 광록대부⁹⁵⁰⁾ 장맹(張猛)⁹⁵¹⁾으로 하여금 호한야선우의

945) 五原郡: 漢武帝 元朔 2년(전127)에 설치되었다. 치소는 九原縣인데 현재 內蒙古의 包頭市 서북쪽에 해당된다. 관할 현은 16개다. 王莽 때에는 잠시 이름을 獲降이라 하였으며 후한 말에 없어졌다.

946) 이때 “侍子”는 駒于利受를 말한다. 宣帝 甘露 1년(전53) 呼漢邪單于가 質子를 한에 보낼 때, 郅支單于도 駒于利受를 質子로 보냈다. 그로부터 9년간 漢에 머물렀다.

947) 漢의 사신 谷吉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漢書』 권70(『陳湯傳』: 3008~3009)에 상세히 나온다. 初元 1년(전48) 郅支單于는 侍子를 돌려보낼 것과 아울러 ‘內附’를 청하였다. 이에 답하여 漢에서는 衛司馬 谷吉을 사신으로 郅支單于의 주둔지에 보내려 했다. 하지만 御史大夫 貢禹와 博士 匡衡은 夷狄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다며 侍子를 邊塞까지만 호송하도록 하고 사신은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谷吉은 匈奴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후환이 있을까 두렵다는 이유로 使行을 강청하였다. “한 사람의 사신이 죽어 백성을 안정하게 할 수 있다면 …… 신이 원하는 바”라는 말도 하였다. 右將軍 馮奉世의 찬성에 힘입어 元帝는 사신 파견을 허용하였으나 결국 谷吉은 피살되어 貢禹 등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 陳湯과 甘延壽가 서역을 정벌하고 郅支單于를 죽이는 계기가 되었다.

948) 원문 “聞甌脫皆殺之”에 대하여 顏師古는 甌脫에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곡길의 피살을 말했다고 하였다. 甌脫에 대해서는 『史記』 三家注에 관련 설명이 있다. 韋昭는 “경계 위에 있는 屯守處”라고 하였고, 服虔은 “土室을 만들어 漢人을 감시하였다”고 했다. 『纂文』에는 “甌脫이란 土穴이다”라고 되어 있다. 혹자는 그것을 地名으로 보아 “甌脫王을 생포하였다”고도 하였다. 『史記正義』에서는 변경에 있는 斥候의 시설을 甌脫이라고 하였다(『史記』 권110 「匈奴列傳」: 2890).

949) 元帝 永光 1년(전43)이다.

950) 光祿大夫: 원래 이름은 中大夫로 郎中令에 속해 있었다. 武帝 太初 1년(전104) 郎中令의 이름을 光祿勳으로 바꾼 뒤 中大夫는 光祿大夫가 되었다. 질록은 比二千石이다. 議論을 담당하면서 황제의 참모 역할을 하였으며 여러 大夫 가운데 그 지위가 가장 높았다. ‘給事中’ 혹은 ‘侍中’의 加官을 더하여 황제의 近臣 노릇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영예로운 직위일 뿐 아니라 실권도 컸다. 원문에서와 같이 대외정책에 관한 임무를 맡기도 하였는데, 後漢 시기에는 점차 실권이 없는 직책으로 변했다.

951) 張猛(?~전40): 字는 子游이고 漢中郡 成固縣 사람이다. 張騫의 손자이고 儒者 周堪의 門生이었다. 元帝代 周堪이 光祿勳으로 임명되었을 때, 光祿大夫 給事中이 되었다. 매우 강직하여 宦官 石顯과 외척

시자를 호송하게 하였다. [이때] 곡길 등에 대한 소식을 듣고 [흉노의] 죄를 사면하여 스스로 [한의 토벌을 받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창과 장맹은 선우의 백성들이 늘고 날로 번성하여 변세 주변의 짐승들을 모두 포획하였고, 선우는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어 질지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았다. 그 대신들이 여러 차례 선우에게 복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것을 듣고, 복으로 간 뒤 [한과] 약속을 [맺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한창과 장맹은 곧 [흉노 선우와] 맹약을 맺으며 말하였다. “오늘부터 한과 흉노는 합하여 한 집안이 되었으니, 대대로 서로 속이거나 서로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쌍방 간에] 몰래 훔치는 일이 발생하면 서로 통보하여 절도한 자는 처벌하고 [훔친] 물건은 보상한다.⁹⁵²⁾ 침략이 있으면 군대를 일으켜 서로 돕는다. 한과 흉노 가운데 감히 먼저 맹약을 배반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손 대대로 모두 맹약을 따르도록 한다.”

한창과 장맹 그리고 선우와 [그의] 대신들은 함께 흉노의 낙수(諾水) 동산(東山)⁹⁵³⁾에 올라 백마를 벤 뒤 선우는 경로도(徑路刀)와 황금제 유리(留犁)[라는 식칼]로 술과 함께 [그 피를] 섞어,⁹⁵⁴⁾ 노상선우(老上單于)⁹⁵⁵⁾에게 격과된 월지왕(月氏王)의 해골로 만든 술잔⁹⁵⁶⁾에 담아 함께 마시고 피로써 맹약하였다.

許氏, 史氏 등의 미움을 많이 샀다. 永光 4년(전40) 石顯의 참소를 받아 자살하였다.

952) 漢人이 匈奴의 지역에서 혹은 匈奴人이 漢에서 절도하면 모두 서로 보고하여 절도한 자는 처벌하고 물건은 보상한다는 말이다.

953) 顏師古는 “諾水”를 唐代 突厥 지역의 諾真水로 추정하였다. 현재 內蒙古 중부의 艾不蓋河이다. 東山은 현재 內蒙古 達爾罕茂明安 동쪽 일대를 말한다.

954) 應劭에 따르면 “徑路”는 匈奴의 寶劍이다. 留犁는 식칼이다. 그리고 “撓”란 섞는다는 말이라고 해석하였다. 顏師古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955) 老上稽粥單于(?~전160): 冒頓單于의 아들이다. 이름은 稽粥이다. 老上單于라고 불렸다. 漢文帝 전원 6년(전 174) 즉위하였다. 文帝는 諸侯王의 딸을 선발하여 처로 주었으며 宦者 中行說을 파견하여 호송하게 하였다. 中行說은 마지못해 가서 老上單于에게 항복하였다. 그리고 單于를 도와 漢의 변경을 침공하였다. 그리고 月氏君長을 공격하여 살해하고 月氏가 서쪽으로 이동하도록 압박하였다. 文帝 後元 2년(전162) 漢과 和親하였다.

956) 『史記』에 따르면, “大月氏는 …… 당시 강성하여 匈奴를 가볍게 여겼으나, 冒頓선우가 즉위한 뒤, 月氏를 공격하여 깨뜨렸으며, 匈奴 老上單于 때에 이르러서는 月氏王을 죽이고 그 머리(해골)로 飲器를 만들었다. 처음 月氏는 敦煌과 祁連山 사이에居하였으나, 匈奴에게 패한 뒤, 멀리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史記』 권123 「大宛列傳」: 3162).

한창과 장맹이 돌아와 이 일을 상주하자, 공경들은 회의에서 “선우는 변새를 지키고 [한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북으로 가려 해도 여전히 [한에] 위해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창과 장맹은 멋대로 한국(漢國)의 자자손손을 들어 이적과 맹세(盟盟)하였습니다. 선우로 하여금 [맹약을 파기하면 한에 대하여] 하늘에 악언을 고할 수 있게 하여, 국가를 모욕하였고 그 위엄과 소중함에 해를 입혔으니 [맹약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⁹⁵⁷⁾ 응당 사신을 보내 가서 하늘에 아뢰고 제사를 올려 맹약을 풀어야 합니다. 한창과 장맹은 사신의 임무를 받들었으나 그 결과가 불량하니 그들의 죄는 ‘부도(不道)⁹⁵⁸⁾에 이릅니다.” [하지만] 원제는 그 죄를 가볍게 여겼고 조서를 내려 한창과 장맹에게는 [재물로] 속죄(贖罪)할 수 있도록 판결하고 맹약을 풀지 말도록 했다. 그 뒤 호한야는 마침내 북쪽의 [선우]정으로 돌아갔으며, [흉노] 사람들도 차례차례 돌아갔다. [흉노] 국내는 마침내 안정되었다.

郅支既殺使者，自知負漢，又聞呼韓邪益彊，恐見襲擊，欲遠去。會康居王數爲烏孫所困，與諸翁侯計，以爲匈奴大國，烏孫素服屬之，今郅支單于困阨在外，可迎置東邊，使合兵取烏孫以立之，長無匈奴憂矣。卽使使至堅昆通語郅支。郅支素恐，又怨烏孫，聞康居計，大說，遂與相結，引兵而西。康居亦遣貴人，囊它驢馬數千匹，迎郅支。郅支人衆中寒道死，餘財三千人到康居。其後，都護甘延壽與副陳湯發兵卽康居誅斬郅支，語在「延壽」·「湯傳」。

질지는 [한의] 사자 [곡길]를 살해한 뒤 스스로 한을 등졌음을 알았으며, 또한 호한야가 더욱 강해졌음을 듣고 습격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멀리 떠나려 하였다. 마침 강거(康居)⁹⁵⁹⁾의

957) 원문 “不可得行”은 맹약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安平秋, 2004: 1894), 맹약의 내용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다(内田吟風, 1971: 108). 하지만 후자 쪽이 좀 더 文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따랐다.

958) 『史記』 『漢書』에 나오는 다양한 不道罪의 사례들은 그 내용이 일관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漢代의 不道罪는 그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刑量의 輕重도 달라서 모두 死刑에 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韓國磐, 1993: 177~178). 참고로 唐律에서 ‘不道’罪는 十惡의 하나로, 한 집안의 3인 이상을 살해하거나, 토막 살인을 하거나, 혹은 蠱毒 등의 맹독을 제조하는 등의 행위를 말했다(『譯註唐律疏議』 1: 114~115).

왕이 여러 차례 오손 때문에 곤경에 처하자 여러 흉후(翁侯)⁹⁶⁰들과 계책을 논의하였다. “흉노는 큰 나라이며 오손은 원래 그에 복속했었다. 지금 질지선우가 [나라] 밖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맞이하여 [강거의] 동쪽 변경에 두고, 군대를 합쳐 오손을 취하여 질지를 세우도록 하면, 오랫동안 흉노를 근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곧 사신으로 하여금 견곤에 가서 질지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질지는 평소 [한과 호한야에 대하여] 두려워하였고 또한 오손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강거의 계책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마침내 [강거 사신과] 서로 [맹약을] 맺고 군대를 이끌어 서쪽으로 향하였다. 강거 또한 귀인(貴人)을 보내 낙타와 나귀, 말 수천 필을 거느리고 질지를 맞이하였다. 질지의 사람들은 추위로 상해를 입고 길에서 죽었고, 겨우 3천 명이 남아 강거에 도착하였다.

그 뒤 도호(都護)⁹⁶¹ 감연수(甘延壽)⁹⁶²와 부도호 진탕(陳湯)⁹⁶³은 군대를 내어 강거에

959) 康居: 중앙아시아 시르다리아강 하류 지역에 있었던 투르크계 유목민의 국가이다. 漢代 張騫에 의해 중국에 알려진 이래 西晉 시대까지 역대 正史의 「西域傳」에 등장한다. 烏孫과 大宛, 大月氏 등에 인접하였고, 匈奴의 漠北交易과 타림분지, 아랄해, 카스피해 등 각 지방을 연결하는 상업로의 교착점이었다. 기원전 1세기 말 전성기에는 인구가 60만 명, 군사가 12만 명에 달했으나, 기원후 1세기 중엽 貴霜제국이 大月氏를 통일한 뒤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960) 翁侯: 月氏 내의 수령으로 보인다. 月氏는 大夏, 즉 박트리아 지역으로 이주한 뒤 그 땅을 다섯 명의 수령들 내지는 翁侯(Yabghu)로 나누어 다스렸다고 한다(그루세, 1998: 77). 토하라어에서 ‘땅, 지방’을 뜻하는 yapoy 혹은 ype라는 말과 연관된 것이라고 하며, 대체로 葉護(yabghu)를 옮긴 말로 추정하고 있다.

961) 都護: 漢 宣帝代 설치되었던 西域都護를 말하며 西域의 각국을 통할하는 관직이다. 처음에는 加官이었으나 후에 정식의 관직이 되었으며 秩 二千石이다(혹자는 比二千石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都護는 鄭吉이었고 都護府는 烏壘城(현재 新疆 위구르자치구 輪臺의 동쪽)에 있었다. 都護의 속관으로 副校尉·丞 각 1인, 司馬·候·千人 각 2인이 있었으며 여러 屯田校尉와 戍己校尉를 관할하였다. 王莽 때 파기되었다가 후한 때 다시 설치된다. 都護는 서역 諸國의 인민에 대한 개별적 지배보다는 諸國 상호간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諸國을 西域 이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김한규, 1982: 295).

962) 甘延壽: 字는 君況이며 北地郡 郿縣 사람이다. 良家子 출신으로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羽林에 선발되고, 이후 郎官으로 期門이 되었다. 材力이 뛰어나 皇帝의 총애를 받았다. 遼東太守였다가 免官되었고 그 후 車騎將軍 許嘉의 추천을 받아 郎中 諫大夫가 되었고 그 뒤 西域都護 騎都尉가 되었다. 副校尉 陳湯과 함께 匈奴를 토벌하고 郿支單于를 참수했다. 그 공로로 義成侯에 봉해졌다.

963) 陳湯: 字는 子公이며 山陽郡 瑕丘縣 사람이다. 어려서 책을 좋아하여 박식하고 글을 잘 지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어린 나이에 장안으로 가서 관직을 구하였다. 이때 富平侯 張勃과 친교를 맺었는데, 元帝 初元 2년에 張勃은 陳湯을 茂才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부친의 喪禮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下獄

와서 질지를 토벌하고 베었다. 『한서』 「감연수전」과 「진탕전」⁹⁶⁴에 이야기가 있다.

郅支既誅，呼韓邪單于且喜且懼，上書言：「常願謁見天子，誠以郅支在西方，恐其與烏孫俱來擊臣，以故未得至漢。今郅支已伏誅，願入朝見。」竟寧元年，單于復入朝，禮賜如初，加衣服錦帛絮，皆倍於黃龍時。單于自言願壻漢氏以自親。元帝以後宮良家子王牆字昭君賜單于。單于驩喜，上書願保塞上谷以西至敦煌，傳之無窮，請罷邊備塞吏卒，以休天子人民。天子令下有司議，議者皆以爲便。郎中侯應習邊事，以爲不可許。上問狀，應：「周秦以來，匈奴暴桀，寇侵邊境，漢興，尤被其害。臣聞北邊塞至遼東，外有陰山，東西千餘里，草木茂盛，多禽獸，本冒頓單于依阻其中，治作弓矢，來出爲寇，是其苑囿也。至孝武世，出師征伐，斥奪此地，攘之於幕北。建塞徼，起亭隧，築外城，設屯戍，以守之，然後邊境得用少安。幕北地平，少草木，多大沙，匈奴來寇，少所蔽隱，從塞以南，徑深山谷，往來差難。邊長老言匈奴失陰山之後，過之未嘗不哭也。如罷備塞戍卒，示夷狄之大利，不可一也。今聖德廣被，天覆匈奴，匈奴得蒙全活之恩，稽首來臣。夫夷狄之情，困則卑順，彊則驕逆，天性然也。前以罷外城，省亭隧，今裁足以候望通燹火而已。古者安不忘危，不可復罷，二也。中國有禮義之教，刑罰之誅，愚民猶尚犯禁，又況單于，能必其衆不犯約哉！三也。」

되었다. 그 후에 다시 郎官으로 천거되었다. 여러 차례 使行을 갔으며, 西域副校尉로 임명되었다. 당시 匈奴 郅支單于가 烏孫과 大宛國 등을 침공하여 서역을 위협하자, 陳湯은 建昭 3년(전36) 西域都護 甘延壽와 함께 屯田 吏士와 西域 諸國의 군사를 이끌고 匈奴를 공격하여 郅支의 근거지를 부수고 질지를 참수했다. 또한 匈奴의 귀족 2천 여 명과 전리품을 얻어 귀환했다. 元帝는 이들에게 큰 상을 내리려 했으나 中書令 石顯 등은 군대를 마음대로 일으킨 죄를 들어 포상을 반대했다. 오랜 논의 끝에 劉向의 건의에 따라 關內侯로 봉하고, 300호의 식읍을 수여했다. 이후 射聲校尉로 천임되었다. 成帝가 즉위한 뒤, 승상 匡衡은 그가 康居의 재물을 도둑질했다고 탄핵하였으며 그 결과 免官된다. 그 후에는 거짓 上書 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奪爵되어 士伍의 신분으로 떨어졌다. 建始 4년(전29) 西域都護 段會宗이 烏孫의 포위를 당하자, 陳湯은 王鳳의 추천을 받아 從事中郎이 되었다. 永始 연간(전16~전13)에는 輔政大臣 王商의 미움을 사 不道의 죄로 敦煌으로 遷徙되었다. 成帝末 장안으로 돌아왔으나 병으로 죽었다.

964) 『漢書』 권70에 甘延壽와 陳湯의 列傳이 함께 있다.

自中國尚建關梁以制諸侯，所以絕臣下之覬欲也。設塞徼，置屯戍，非獨爲匈奴而已，亦爲諸屬國降民，本故匈奴之人，恐其思舊逃亡，四也。近西羌保塞，與漢人交通，吏民貪利，侵盜其畜產妻子，以此怨恨，起而背畔，世世不絕。今罷乘塞，則生嫚易分爭之漸，五也。往者從軍多沒不還者，子孫貧困，一旦亡出，從其親戚，六也。又邊人奴婢愁苦，欲亡者多，曰『聞匈奴中樂，無奈候望急何!』然時有亡出塞者，七也。盜賊桀黠，羣輩犯法，如其窘急，亡走北出，則不可制，八也。起塞以來百有餘年，非皆以土垣也，或因山巖石，木柴僵落，谿谷水門，稍稍平之，卒徒築治，功費久遠，不可勝計。臣恐議者不深慮其終始，欲以壹切省繕戍，十年之外，百歲之內，卒有它變，障塞破壞，亭隧滅絕，當更發屯繕治，累世之功不可卒復，九也。如罷戍卒，省候望，單于自以保塞守御，必深德漢，請求無已。小失其意，則不可測。開夷狄之隙，虧中國之固，十也。非所以永持至安，威制百蠻之長策也。」

질지가 주살된 뒤 호한야선우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천자에게] 상서하여 말했다. “항상 천자를 알현하길 원하였습니만 진실로 질지가 서방에 있고, 그가 오손과 함께 와서 신을 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에 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질지가 이미 죽임을 받았으니 원컨대 조정에 들어가 알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녕(竟寧) 1년(전33)⁹⁶⁵ 선우는 다시 입조하였다. 예우와 [물품] 하사는 처음과 같았으나 의복과 비단, 명주솜을 더 주었는데, 모두 황룡 시기에 [추가로 사여한 양보다] 곱절이었다.⁹⁶⁶ 선우는 한 종실(宗室)의 사위가 되어 자신이 [한의] 친족이 되길 원한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원제 때 이후 궁에 있던 양가자(良家子)⁹⁶⁷ 왕장(王牆), 자는 소군(昭君)⁹⁶⁸을 선우

965) 成帝의 즉위 첫 해이다.

966) 宣帝 黃龍 1년(전49)에는 의복 110벌과 錦帛 9천 필, 명주 솜 8천 근을 추가로 사여하였는데, 이때는 그보다 곱절로 준 것이다.

967) 良家子: 이 말은 단순히 良家의 자제라는 일반명사로 풀이할 수도 있겠으나, 漢代에는 특정한 身分집단을 뜻하는 고유명사의 의미가 강했다. 『漢書』 권54 「李廣傳」에 따르면, 李廣이 良家子로서 “從軍擊胡” 하였다고 되어 있다(2439). 이에 대하여 周壽昌은 “漢制에서 七科謫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군에 보내며 이들을 良家子라고 부른다”(『漢書補注』: 1116)고 하였다. 여기서 七科謫은 죄를 지른 吏, 市籍에 등재된 상인, 노비 등 下層 庶人 집단을 말하며 軍役을 질 수 없었다. 따라서 良家子는 七科謫보

에게 사여하였다. 선우는 크게 기뻐하며 천자에게 상서하여 상곡(上谷)에서 서쪽으로 둔황(敦煌)에 이르는 지역의 변새를 지키고, 영원히 [그 역할을] 물려 주길 자원하였다. [대신에] 변경에서 요새를 방비하는 [중국의] 이졸(吏卒)들을 해산하여 천자의 인민이 쉬게 할 것을 청하였다. 천자는 [이 안건을] 주관 대신들의 회의에 내려보내도록 하였다. 의론자들은 모두 [선우의 요청이] 좋다고 하였다.

낭중(郎中)⁹⁶⁹ 후응(侯應)은 변경의 일에 익숙하였는데, 그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천자는 [변방의] 사정에 대하여 물었다. 후응은 말하였다. “주와 진 이래로 흉노는 흉악하고 거칠어 변경을 침략하였습니다. 한이 흥성한 뒤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신이 듣건대 북방의 변새는 요동에 이릅니다. 밖으로 음산(陰山)[산맥]이 있는데 동서로 천여 리이며 초목이 무성하고 짐승들이 많습니다. 본래 목특선우는 그 안에 기대어 머물면서 활과 화살을 만들고 밖으로 나와 노략질하였습니다. 이는 [흉노의] 안마당[苑囿]입니다. 무제의⁹⁷⁰ 치세에

다 한 층 높은 신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良家子 출신의 여자는 天子의 妻妾으로 간택되어 後宮이 될 수 있었다(鎌田重雄, 1962: 560~562). 한편 良家子는 신분이라기보다는 관리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나타내는 명칭이라는 해석도 있다(堀敏一, 1987: 228).

968) 王嬙(王昭君): 元帝 때에 良家子로 선발되어 掖庭에 들어갔는데, 呼韓邪單于가 來朝하자, 呼韓邪單于에게 시집갔다. 單于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呼韓邪가 죽은 뒤에는 匈奴의 풍습에 따라 呼韓邪 本妻의 아들에게 다시 시집을 갔다. 그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다. 그리고 匈奴의 땅에서 생을 마쳤다. 이처럼 기구했던 그녀의 인생에 착안하여 후대 여러 종류의 이야기가 창작되었다. 『西京雜記』에 따르면 元帝가 後宮 女官들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였는데, 왕소군만이 畫工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추하게 그려졌고, 그 결과 匈奴에 보내지게 되었다고 한다. 王昭君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최대의 걸작은 元代 馬致遠의 戲曲 『漢宮秋』이다(西嶋定生, 2002: 257).

969) 郎中: 周代에는 近侍의 臣을 郎中이라고 칭하였으며 秦代에는 官稱이 되었다. 侍郎, 郎中 등 2官은 九卿의 하나인 郎中丞에 속하였다. 漢代에는 尙書의 輔佐를 겸하여 尙書郎이라고 칭하였다. 隋唐代에는 六部의 侍郎이 尙書의 보좌역을 맡게 되어, 郎中은 各部各司의 長이 되었다. 員外郎과 함께 각 부서의 직무를 주관하였는데 그 명칭은 清代까지 지속되었다.

970) 武帝 劉徹(전156~전87; 재위 전141~전86): 漢朝의 제6대 황제이다. 대외정책에서 漢武帝는 漢初의 和親정책을 포기하고,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四夷지역에 31개의 邊郡을 새로 설치하였다. 그 가운데 9개는 匈奴 故地에, 10개는 越 땅에, 5개는 遼東에, 7개는 西南夷 지역에 각각 설치되었다. 한 무제 이전 漢初의 天下는 화친에 기초한 다면적 세계였다면, 武帝시대 邊郡의 확장으로 天下가 하나로 일치되는 一元的 세계가 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한규, 1988: 68). 清代 趙翼은 『漢書』 「武帝紀」의 論贊을 예로 들어 이와 같은 武帝의 武功이 후세의 儒者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폄하되고 文治만이 강조되었음을 지적하였다(『二十二史劄記』 「漢書武帝紀贊不言武功」: 34~35).

이르러 군대를 출동시켜 정벌하여 이 지역을 열어 빼앗고 [홍노를] 사막 북쪽으로 몰아냈습니다. 요새와 울타리[塞徼]를 건설하고 감시 초소[亭]와 방어용 소로[隧]⁹⁷¹⁾를 만들었으며, [요새 밖에] 외성을 쌓고 주둔군을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변경은 다소 안정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막북(幕北)은 땅이 평탄하며 초목이 적고 모래가 많습니다. 홍노가 와서 약탈하여도 몸을 숨길 곳이 적습니다. 변새 남쪽에서부터 [길은] 깊은 산과 계곡을 지나게 되어 왕래하기가 상당히⁹⁷²⁾ 어렵습니다. 변경의 장로들은 홍노가 음산을 잃은 뒤 그곳을 지날 때 통곡하지 않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변새를 수비하는 경비 부대를 철수하면 이적에게 큰 이익을 보이는 것입니다. [홍노의 제안을 받아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폐하의] 성덕(聖德)이 널리 미쳐 하늘처럼 홍노를 덮고 있습니다. 홍노는 온전히 살게 해 주는 은덕을 입을 수 있어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신하가 되었습니다. 무릇 이적의 본성은 곤궁해지면 비굴하게 복종하고 강해지면 교만하고 대드니 천성이 그러합니다. 이전에 외성을 부수고 감시 초소와 방어용 소로를 없앴으며 지금은 겨우 척후병으로 감시하고 봉화로 소식을 전할 따름입니다. 옛사람은 편안할 때도 위협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군을] 철수해서는 안 됩니다. [홍노의 제안을 받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에는 예의의 가르침과 형벌의 꾸짖음이 있습니다만 어리석은 백성이 그래도 여전히 법을 어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우가 그의 무리에게 끝까지⁹⁷³⁾ 금약을 어기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일찍부터 중국은 관문과 교량을 세워 제후를 통제하였습니다. 신하의 분에 넘치는 욕망을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새와 울타리를 세우고 주둔병을 배치한 것은 홍노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속국(屬國)의 귀순자[降民]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래 과거 홍노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과거를 생각해서 도망칠까 두렵습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근자에는 서강⁹⁷⁴⁾(西羌)[인]이 변새를 지키면서 한인과 왕래하고 있습니다만 [한의] 관리

971) 원문의 “隧”란 깊이 파서 만든 작은 길이다. 이 안에 숨어 적의 공격을 피한다.

972) 원문 “差難”에 대하여 일역본에서는 “상당히 곤란”이라고 번역하였다(內田吟風, 1971: 110). 현대 한어본에서는 “艱難”라고 했다(安平秋, 2004: 1895). 이에 따라 “差”를 ‘상당히’라는 말로 번역하였다.

973) 원문은 “必”인데, 顏師古는 그 뜻이 ‘極’이라고 했다. 그에 따라 해석하였다([顏師古曰, “必, 極也. 極保之也.”]).

와 백성이 이익을 탐하여 그들의 가축과 처자를 침범하여 빼앗았습니다. [서강 사람들은] 이 일로 원한을 품고 봉기하여 [한에] 배반하기를 대대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변새를 이용하여 지키기를 포기한다면 [서강과 마찬가지로 한과 흉노 사이에서도] 업신여기고 다투는 발단을 만들 것입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과거에 종군하였다가 [흉노에] 잡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빈곤하니 하루아침에 도망쳐서 [흉노 안에 있는] 친척을 따르려 할 것입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변인(邊人) 밑의 노비들은 근심하고 고생하여 도망치려는 자가 많습니다. [그들은] “흉노 안의 즐거움을 들어도 경비가 엄한 것을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도망하여 요새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 줄 수 없는]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도적들은 사납고 교활하여 무리지어 범을 어깍니다. 만일 곤경에 처하여 급해지면 북으로 도망쳐 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여덟 번째 이유입니다.

변새를 세운 지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요새는 모두 흠담을 세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산의 암석이나, 잡목들이 부러졌거나 말라 죽어 쓰러진 곳, 계곡의 수문(水門) 등을 어느 정도 평탄하게 만들어 이용하기도 합니다. 병졸과 형도(刑徒)들이 [요새를] 쌓거나 유지하는 노력이 오래되고 비용이 커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은 의논하는 대신들이 그 끝과 처음을 깊이 헤아리지 않고 잠시의 판단으로⁹⁷⁵⁾ 요역과 수비병을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10년 지난 뒤 100년 안에 갑자기 다른 변고가 발생하였는데 장새(障塞)는 파괴되고 초소와 방어용 소로가 멸절되어 있다면 다시 둔병을 징발하여 수선하고 만들어야 합니다만

974) 西羌: 고대 羌人의 총칭이다. 羌은 古代 三苗의 후예라 하는데, 殷周시대 羌人들은 黃河 중상류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秦漢時代에는 黃河와 湟水·洮水·岷江 상류 일대에 분포하였다. 서쪽 변경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西羌이라고 하였다. 後漢時代에는 漢의 영역 안으로 內徙한 羌人을 東羌이라고 하였다. 後漢末 董卓·馬騰·韓遂 등 軍閥의 군대에는 羌人들이 많았고, 晉代에는 關隴 지역에서 後秦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975) 원문의 “壹切”은 顏師古에 따르면 ‘權時’를 의미한다. 『漢書』「平帝紀」에는 “一切, 權時之事, 非經常也”라는 해설이 있다(권12: 349).

몇 세대에 걸쳐 이론 일을 갑자기 복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아홉 번째 이유입니다.

만일 수비병을 철수하고 척후병을 줄이면 선우는 자신이 변새를 지키고 적의 공격을 막았다고 하여 필시 한에 큰 은덕을 베풀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달라고 요구함이 끝없는 것이며 그 뜻을 조금이라도 잃는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적에게 틈을 허용하여 중국의 강고함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열 번째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우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영구히 지극한 안정을 유지하고 백만(百蠻)을 위세로 압도하는 장책(長策)이 될 수 없습니다.”

對奏，天子有：「勿議罷邊塞事。」使車騎將軍口諭單于：「單于上書願罷北邊吏士屯戍，子孫世世保塞。單于鄉慕禮義，所以爲民計者甚厚，此長久之策也，朕甚嘉之。中國四方皆有關梁障塞，非獨以備塞外也，亦以防中國姦邪放縱，出爲寇害，故明法度以專衆心也。敬諭單于之意，朕無疑焉。爲單于怪其不罷，故使大司馬車騎將軍嘉曉單于。」單于謝：「愚不知大計，天子幸使大臣告語，甚厚！」

[황제의 질문에] 대응하여 상주하자, 천자는 조서를 내려 “변새[의 수비병]을 철수하는 일은 논의하지 말라.”고 하였다. 거기장군 [허가(許嘉)]를 시켜 선우에게 구두로 깨우쳐 알렸다.⁹⁷⁶⁾ “선우는 상서하여 북변에서 관리와 병사가 주둔해 경비하는 것을 폐지하고, [직접] 자손 대대로 변새를 지키길 원하였다. 선우가 예의를 향하여 우러러 사모하며 인민을 위하여 피함이 매우 정성스럽구나. 이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로다. 짐은 심히 가상히 여기노라. 중국이 사방에 두루 관문과 교량, 장벽과 요새를 둔 것은 비단 새외[의 오랑캐]를 막기 위함만은 아니다. 아울러 중국의 간사한 [무리가] 방종하여 [변새를] 나가 약탈하고

976) 顏師古에 따르면 “車騎將軍”은 許嘉를 말한다. 許嘉(?~전29)는 전한의 諸侯·大臣으로 昌邑 사람이다. 元帝의 외조부인 許廣漢의 조카이며 成帝 許皇后의 부친이다. 宣帝대에는 中常侍에 임명되었다. 아들 없이 죽은 許廣漢의 뒤를 이어 平恩侯가 되었고, 얼마 후 將軍이 된다. 元帝 永光 3년(전41) 大司馬 車騎將軍이 되었으나 원제가 사망한 뒤 免官되었고, 이듬해 사망하였다.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그래서 법도를 밝히고 그것으로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삼가 선우의 뜻을 잘 알았으니 짐은 [홍노에게]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노라. 선우가 [한이 변방 수비병을] 파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괴이하게 여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사마 거기 장군 허가를 보내 선우에게 밝게 알리노라.”

선우는 사례하며 말했다. “어리석어 큰 계책을 알지 못했나이다. 천자께서 다행히 대신을 시켜 일러 주셨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두텁습니다!”

初, 左伊秩訾爲呼韓邪畫計歸漢, 竟以安定. 其後或讒伊秩訾自伐其功, 常鞅鞅, 呼韓邪疑之. 左伊秩訾懼誅, 將其衆千餘人降漢, 漢以爲關內侯, 食邑三百戶, 令佩其王印綬. 及竟寧中, 呼韓邪來朝, 與伊秩訾相見, 謝: 「王爲我計甚厚, 令匈奴至今安寧, 王之力也, 德豈可忘! 我失王意, 使王去不復顧留, 皆我過也. 今欲白天子, 請王歸庭.」伊秩訾: 「單于賴天命, 自歸於漢, 得以安寧, 單于神靈, 天子之祐也, 我安得力! 旣已降漢, 又復歸匈奴, 是兩心也. 願爲單于侍(史)[使]於漢, 不敢聽命.」單于固請不能得而歸.

일찍이 좌이질자는 호한야를 위해 한으로의 귀순을 획책하였고, 그 결과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뒤 어떤 자가 참조하길 [좌]이질자가 자기 공을 내세우고 늘 불만에 차 있다고 하였다. 호한야도 그를 의심하였다. 좌이질자는 죽임을 두려워하여 무리 천여 명을 이끌고 한에 항복하였다. 한은 그를 관내후로 삼았으며 식읍은 3백 호이고 [홍노]왕의 도장 끈을 두르고 다니게 하였다.

경녕 연간⁹⁷⁷)에 호한야가 내조하여 [좌]이질자와 서로 만났다. [호한야가] 용서를 구하며 말했다. “왕이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운 일의 [뜻이] 매우 두터워 홍노가 지금 안녕할 수 있는 것도 왕의 힘이다. 그 덕을 어찌 잊겠는가! 내가 왕의 뜻을 잃어 왕을 떠나게 하고 다시 머물 생각을 하지 않게 한 것은 모두 나의 잘못이다. 지금 천자에게 말씀드려 왕이 선우정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청하고자 한다.” [좌]이질자가 말했다. “선우는 천명에 따라 스스로 한에

977) 竟寧 연간은 전33년 단 한 해를 말한다. 이해 元帝가 죽고 成帝가 즉위하였다.

귀의하여 안녕을 얻은 것입니다. 선우의 신령(神靈)과 천자의 도움 덕분입니다. 제가 어찌 힘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미 한에 항복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흉노에 돌아간다면 이는 두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선우의 사신이 되어 한에 머물겠습니다. [돌아가자] 분부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선우는 거듭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王昭君號寧胡閼氏，生一男伊屠智牙師，爲右日逐王。呼韓邪立二十八年，建始二年死。始呼韓邪嬖左伊秩訾兄呼衍王女二人，長女顓渠閼氏，生二子，長曰且莫車，次曰囊知牙斯。少女爲大閼氏，生四子，長曰雕陶莫皋，次曰且麋胥，皆長於且莫車，少子咸·樂二人，皆小於囊知牙斯。又它閼氏子十餘人。顓渠閼氏貴，且莫車愛。呼韓邪病且死，欲立且莫車，其母顓渠閼氏：「匈奴亂十餘年，不絕如髮，賴蒙漢力，故得復安。今平定未久，人民創艾戰鬪，且莫車年少，百姓未附，恐復危國。我與大閼氏一家共子，不如立雕陶莫皋。」大閼氏：「且莫車雖少，大臣共持國事，今舍貴立賤，後世必亂。」單于卒從顓渠閼氏計，立雕陶莫皋，約令傳國與弟。呼韓邪死，雕陶莫皋立，爲復株絁若鞮單于。

왕소군(王昭君)은 [흉노에서] 영호연지(寧胡閼氏)라고 불렸다.⁹⁷⁸⁾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도지아사(伊屠智牙師)이고 우일축왕이 되었다. 호한야는 즉위한 지 28년이 되어 [성제] 건시 2년(전31)에 죽었다. 처음 호한야는 좌이질자의 형 호연왕(呼衍王)의 두 딸을 사랑하였다. 장녀인 전거연지(顓渠閼氏)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을 저막거(且莫車)라 하고 둘째를 낭지아사(囊知牙斯)라 했다. 둘째 딸은 대연지(大閼氏)가 되었으며, 네 아들을 두었다. 큰아들은 조도막고(雕陶莫皋), 둘째 아들은 저미서(且麋胥)라 했는데 모두 저막거보다 연상이었다. 어린 아들 함(咸)과 낙(樂) 두 명은 모두 낭지아사보다 어렸다. 또한 다른 연지의 아들 10여 명이 있었다. 전거연지의 지위가 높았고, [그의 큰아들] 저막거가 [선우의] 사랑을 받았다.

978) “閼氏”는 顏師古에 따르면 匈奴 皇后를 부르는 이름이다. ‘연지’로 읽힌다. 또한 오랑캐가 王昭君을 얻음으로써 國이 안녕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寧胡”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호한야가 병이 들어 죽을 때 저막거를 세우려 했다. 그의 모친 전거연지는 말했다. “흥노에 10여년간 난리가 발생했지만 머리카락처럼 끊어지지 않았으며, 한의 힘에 의지하게 되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평정을 찾은 지 오래 되지 않았으며 인민들도 전투를 삼가고 경계합니다. 저막거는 나이가 어리고 백성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를 세우면] 다시 나라가 위태롭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와 대연지는 한 집안의 친자매로 서로의 자식들을 사랑함에 차이가 없습니다.⁹⁷⁹⁾ [대연지의 큰 아들] 조도막고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연지는 말했다. “저막거는 비록 어리다 해도 대신들이 국사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인[의 아들]을 버리고 친한 [저의 아들]을 세운다면 후세에 반드시 난이 발생할 것입니다.” 선우는 마침내 전거연지의 생각에 따라 [대연지의 아들] 조도막고를 세우고, 동생에게 나라를 물려주도록 약(約)을 맺었다. 호한야가 죽은 뒤 조도막고가 옹립되어 복주류약제선우(復株累若鞮單于)⁹⁸⁰⁾가 되었다.

復株累若鞮單于立，遣子右致盧兒王醯諧屠奴侯入侍，以且麋胥爲左賢王，且莫車爲左谷蠡王，囊知牙斯爲右賢王。復株累單于復妻王昭君，生二女，長女云爲須卜居次，少女爲當于居次。

복주류약제선우가 즉위한 뒤, 아들 우치로아왕(右致盧兒王) 헤헤도노후(醯諧屠奴侯)를 [한에] 보내 입시하게 하였다. 저미서(且麋胥)를 좌현왕, 저막거(且莫車)를 좌록리왕, 낭지아사(囊知牙斯)를 우현왕으로 삼았다. 복주류선우는 다시 왕소군을 처로 삼아 두 딸을 낳았다. 큰딸 운(云)은 수복거차(須卜居次),⁹⁸¹⁾ 작은딸은 당우거차(當于居次)⁹⁸²⁾가 되었다.

979) 원문의 “一家”란 顏師古에 따르면 친자매라는 말이다. 또한 “共子”란 둘이 낳은 자식들을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말이다.

980) 復株累若鞮單于(재위 전31~20): 呼韓邪單于의 차녀인 大閼氏가 낳은 아들이다. 이름은 雕陶莫舉이다. 호한야선우가 사망한 다음 單于가 되었으며 다시 王昭君을 처로 삼아 두 딸을 낳았고 10년간 재위하였다. 成帝 鴻嘉 1년(전20)에 사망한다. 復株累若鞮單于부터 匈奴의 單于號에는 ‘若鞮’라는 말이 들어간다. 이는 漢語의 ‘孝’에 해당하며 漢 皇帝의 諡號에 ‘孝’자를 집어넣은 것을 모방한 것이다. 다만 匈奴의 경우에는 살아 있을 때의 호칭과 죽은 뒤 시호의 구별은 없었던 것 같다(栗原朋信, 1970: 446).

981) 원문의 “居次”란 여자의 호칭으로 ‘公主’를 의미하며, 須卜氏는 匈奴의 貴族이다.

河平元年，單于遣右皋林王伊邪莫演等奉獻朝正月。旣罷，遣使者送之蒲反。伊邪莫演言「欲降。卽不受我，我自殺，終不敢還歸。」使者以聞，下公卿議。議者或言宜如故事，受其降。光祿大夫谷永·議郎杜欽以爲「漢興，匈奴數爲邊害，故設金爵之賞以待降者。今單于詘體稱臣，列爲北藩，遣使朝賀，無有二心，漢家接之，宜異於往時。今旣享單于聘貢之質，而更受其逋逃之臣，是貪一夫之得而失一國之心，擁有罪之臣而絕慕義之君也。假令單于初立，欲委身中國，未知利害，私使伊邪莫演詐降以卜吉凶，受之虧德沮善，令單于自疏，不親邊吏；或者設爲反間，欲因而生隙，受之適合其策，使得歸曲而直責。此誠邊竟安危之原，師旅動靜之首，不可不詳也。不如勿受，以昭日月之信，抑詐諉之謀，懷附親之心，便。」對奏，天子從之。遣中郎將王舜往問降狀。伊邪莫演：「我病狂妄言耳。」遣去。歸到，官位如故，不肯令見漢使。明年，單于上書願朝河平四年正月，遂入朝，加賜錦繡繒帛二萬匹，絮二萬斤，它如竟寧時。

[성제] 하평(河平) 원년(전28) 선우는 우고림왕(右皋林王) 이사막연(伊邪莫演)⁹⁸³ 등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정월에 조하(朝賀)하였다. [조회를] 파한 뒤, [한은] 사신을 보내 [홍노 사신들을] 배웅하여 포반(蒲反)[현]⁹⁸⁴에 이르렀다. [이때] 이사막연이 “[한에] 항복하려 합니다. 만일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살할 것입니다. 끝내 [홍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한의] 사신은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황제는] 공경들의 회의에 붙였다.

의논자들 가운데 흑자는 응당 ‘고사(故事)’에 따라 항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록대부 곡영(谷永)⁹⁸⁵ 의랑(議郎)⁹⁸⁶ 두흠(杜欽)⁹⁸⁷은 말하였다. “한이 흥기한 후 홍노는

982) 文潁에 따르면 “當于”도 匈奴의 大族이다. 顏師古는 須卜과 當于가 모두 夫家の 氏族名이라고 하였다.

983) 『漢紀』에서는 “黃渾”, 『通鑑』에서는 “莫渾”이라고 한다. 伊邪莫演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대략 위의 번역문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

984) 蒲反: ‘蒲坂’이라고도 한다. 포반현은 秦代에 설치되었으며 漢代에도 이어졌다. 『漢書』 「地理志」에는 河東郡 관할로 나온다. 王莽代 蒲城, 後漢代에는 蒲坂縣이라 하였다. 현재 山西省 永濟縣의 서남쪽 蒲州 鎮에 해당된다.

985) 谷永(?~전8): 원래 이름이 並이였지만 나중에 永으로 바꾸었다. 字는 子云이다. 長安 사람이며 衛司馬 谷吉의 아들이다. 어려서 長安의 小史였으며 經書를 널리 공부하였다. 御史大夫 繁延壽가 그의 才名을 듣고 太常丞으로 천거하였으며, 成帝代에는 大將軍 王鳳에 의하여 光祿大夫로 발탁되었다. 수년 뒤,

여러 차례 변방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작위(爵位)를 상으로 내걸어 투항을 유도했습니다. 지금은 선우가 몸을 굽혀 신을 칭하고 늘어서서 북방의 울타리가 되었으며, 사신을 파견하여 조하하며 두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한가(漢家)의 대우는 마땅히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지금 이미 선우의 진실한 빙문(聘問)과 공물을 받았습니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흉노에서] 도망친 신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한 사람을 얻으려는 욕심에 한 나라의 마음을 잃는 일이며, 죄지은 신하를 예우하여 의(義)를 사모하는 군주와 절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령 선우가 처음 즉위하여 중국에 몸을 맡기려 하지만 이익과 해로움을 알지 못하여, 사사로이 이사막연에게 거짓 항복을 하게 하여 길흉을 짐쳐 보게 하였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덕을 훼손하고 선의를 무너뜨려 선우로 하여금 스스로 [중국을] 멀리하고 [한의] 국경 관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이간책을 세워 그것으로 [한과 흉노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흉노의 투항자를] 받아들이면 바로 그 계획에 말려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 측이] 허물을 지게 되고 [흉노는] 직접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변경이 안정되거나 위기에 빠지는 원인이며 군대가 움직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어서 깊이 생각하지

安定太守로 出任하였으며 그 후 涼州刺史, 太中大夫, 光祿大夫給事中 등의 자리를 歷任하였다. 成帝代 황제 측근의 小臣들이 몰래 궁 밖으로 외유하기를 좋아하자, 谷永은 天變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였다. 元延 1년(전12)에는 北地太守로 出任하였다. 몇 년 뒤, 驃騎將軍 王根의 추천을 받아 大司農으로 중앙에 돌아왔다. 병으로 면관되었다가 사망하였다. 그의 經學은 폭이 넓었고, 특히 『天官』 『京氏易』에 정통하여 災異에 대하여 잘 말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대략 40여 건의 사안을 上奏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가운데 20여 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986) 議郎: 漢代 光祿勳의 속관으로 郎官의 하나이다. 議政에 참가하고 황제의 近臣으로 자문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으며 宿衛하지는 않았다. 郎官 가운데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秩祿은 比六百石이고 定員은 없다. 議政에 참여하고, 皇帝의 近臣으로 활동하였다.

987) 杜欽: 字가 子夏이다. 南陽 杜衍 사람이며 杜延年의 次子이다. 어려서 經書를 좋아했다. 집안은 부유했으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仕官을 바라지는 않았다. 하지만 뛰어난 재능으로 京師에서 그 명성이 높아 士人들이 ‘盲杜子夏’라고 불렀다. 평소에 작은 冠을 쓰길 좋아하여 ‘小冠杜子夏’라고도 불렀다. 成帝 때 大將軍 王鳳의 추천을 받아 大將軍 軍武庫令이 되었다. 후에 자신의 조카와 皇太后의 누이동생인 司馬君力이 私通한 일이 발생하자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자진하여 사임하고 집안에 거거했다. 그 뒤 다시 大將軍의 징소를 받아 출사하여 國家의 주요 정책을 王鳳과 함께 논의하였다. 賢士 韋安世·王駿 등을 천거하고, 馮野王·王尊·胡常 등을 구제하였다. 王鳳 輔政기의 善政은 대부분 杜欽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며 王鳳에게도 적절한 처신을 권유하여 그가 천수를 누리게 하였다.

않으면 안 됩니다. [투항자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 같은 신의를 밝히고, 거짓 음모를 누르고, [한에] 기대고 가까이하려는 마음을 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제의 질문에] 대하여 상주하자 천자가 그것을 따랐다.

중랑장(中郎將)⁹⁸⁸ 왕순(王舜)⁹⁸⁹으로 하여금 [이사막연에게] 가서 투항하고자 하는 정황에 대하여 묻게 하였다. 이사막연은 말했다. “제가 정신병이 들어 망언을 했습니다.” [그를] 돌려보내니, [흥노정에] 도착한 뒤 관위(官位)는 과거와 같이 유지하였고 한의 사자를 만나지는 못하게 하였다.

이듬해⁹⁹⁰ 선우가 상서하여 하평 4년(전25) 정월 입조를 원하였고 실제로 입조하였다. 수놓은 비단[錦繡]·무늬 없는 비단[繒帛] 2만 필과 명주 솜 2만 근을 더 주었다. 나머지는 경녕 연간(전33)과 같았다.⁹⁹¹

復株鞮單于立十歲，鴻嘉元年死。弟且麋胥立，爲搜諧若鞮單于。

복주류선우는 10년간 재위하고, 홍가(鴻嘉) 원년(전20)에 사망하였다. 동생 저미서가 즉위하여 수해약제선우(搜諧若鞮單于)⁹⁹²가 되었다.

搜諧單于立，遣子左祝都韓王胸留斯侯入侍，以且莫車爲左賢王。搜諧單于立八歲，

988) 中郎將: 秦代 설치되었고, 漢代에도 있었다. 九卿의 하나인 郎中令의 속관이다. 전한시기 皇帝의 衛侍는 五官, 左, 右 三署에 分屬되어 있었다. 각각 中郎將을 두어 통령하였다. 그래서 五官中郎將, 左中郎將, 右中郎將의 구분이 있고, 秩은 모두 比二千石이다. 그 지위는 將軍 다음이다. 後漢代 中郎將의 구분은 더욱 복잡해졌다.

989) 王舜(?~전36): 房陵 사람이다. 宣帝 王皇后的 형이다. 侍中, 中郎將 등을 역임하였다. 初元 1년(전48) 安平侯로 봉해졌다.

990) 成帝 河平 3년(전26)이다.

991) 竟寧 1년(전33) 呼韓邪單于가 다시 입조하였을 때, 예우와 물품 하사의 내역이 黃龍 연간(전49)과 같았고, 다만 추가로 사여한 품목은 그 양이 예전보다 곱절이라고 하였다.

992) 搜諧若鞮單于(재위 전20~12): 이름이 且麋胥다. 呼韓邪單于와 呼衍王의 少女 사이에 태어난 次子다. 呼漢邪單于가 죽은 뒤, 復株鞮若鞮單于가 즉위하였고, 成帝 鴻嘉 1년(전20) 그가 죽은 다음 즉위하였다.

元延元年，爲朝二年發行，未入塞，病死。弟且莫車立，爲車牙若鞮單于。

수해선우가 즉위한 뒤 아들 좌축도한왕(左視都韓王) 구류사후(胸留斯侯)를 보내 입시하게 하였다. 저막거를 좌현왕으로 삼았다. 수해선우는 8년간 재위하였다. 원연(元延) 원년(전12), 이듬해 [원연] 2년에 [한에] 입조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떠나 행차하였으나 [한의] 변세에 들어오지 못하고 [도중에] 병으로 죽었다. 동생 저막거가 즉위하여 거아약제선우(車牙若鞮單于)⁹⁹³⁾가 되었다.

車牙單于立，遣子右於涂仇揮王烏夷當入侍，以囊知牙斯爲左賢王。車牙單于立四歲，綏和元年死。弟囊知牙斯立，爲烏珠留若鞮單于。

거아선우가 즉위한 뒤 아들 우어도구탄왕(右於涂仇揮王) 오이당(烏夷當)을 [한에] 보내 입시하게 하였다. 낭지아사를 좌현왕으로 삼았다. 거아선우는 4년간 재위하고, [성제] 수화(綏和) 원년(전8)에 죽었다. 동생 낭지아사가 즉위하여 오주류약제선우(烏珠留若鞮單于)⁹⁹⁴⁾가 되었다.

烏珠留單于立，以第二闕氏子樂爲左賢王，以第五闕氏子與爲右賢王，遣子右股奴王

993) 車牙若鞮單于(재위 전12~8): 이름은 且莫車다. 車牙單于라고 부르며 搜諧若鞮單于의 동생이다. 鴻嘉 원년(전20) 左賢王이 되었다가 元延 원년(전12) 搜諧單于가 사망한 뒤 單于가 되었다. 4년간 재위하고 죽었다.

994) 烏珠留若鞮單于(재위 전8~후13): 이름은 囊知牙斯다. 車牙單于의 동생이다. 成帝 綏和 1년(전8) 車牙單于를 이어 單于의 자리에 올랐다. “烏珠留單于”로 간칭한다. 哀帝 元壽 2년(전1) 한에 입조하였다. 王莽이 찬탈한 뒤 흉노선우를 “降奴單于”라고 낮추어 부르고 30만의 군대를 일으켜 匈奴를 공격했다. 그래서 烏珠留單于도 누차 한의 邊塞를 공격하였고, 雁門太守와 朔方太守를 살해하고 吏民과 畜産을 노략질했다. 宣帝 이래 여러 대에 걸친 和平은 이 시기에 무너졌다. 21년간 재위하였고 始建國 5년(13) 병으로 죽었다.

烏鞮牙斯入侍. 漢遣中郎將夏侯藩·副校尉韓容使匈奴. 時帝舅大司馬票騎將軍王根領尚書事, 或說根:「匈奴有斗入漢地, 直張掖郡, 生奇材木, 箭竿就羽, 如得之, 於邊甚饒, 國家有廣地之實, 將軍顯功, 垂於無窮.」根爲上言其利, 上直欲從單于求之, 爲有不得, 傷命損威. 根卽但以上指曉藩, 令從藩所說而求之. 藩至匈奴, 以語次說單于:「竊見匈奴斗入漢地, 直張掖郡. 漢三都尉居塞上, 士卒數百人寒苦, 候望久勞. 單于宜上書獻此地, 直斷關氏, 省兩都尉士卒數百人, 以復天子厚恩, 其報必大.」單于:「此天子詔語邪, 將從使者所求也?」藩:「詔指也, 然藩亦爲單于畫善計耳.」單于:「孝宣·孝元皇帝哀憐父呼韓邪單于, 從長城以北匈奴有之. 此溫偶駱王所居地也, 未曉其形狀所生, 請遣使問之.」藩·容歸漢. 後復使匈奴, 至則求地. 單于:「父兄傳五世, 漢不求此地, 至知獨求, 何也? 已問溫偶駱王, 匈奴西邊諸侯作穹廬及車, 皆仰此山材木, 且先父地, 不敢失也.」藩還, 遷爲太原太守. 單于遣使上書, 以藩求地狀聞. 詔報單于:「藩擅稱詔從單于求地, 法當死, 更大赦二, 今徙藩爲濟南太守, 不令當匈奴.」明年, 侍子死, 歸葬. 復遣子左於駱仇禪王稽留昆入侍.

오주류선우가 즉위한 뒤, 둘째 연지의 아들 낙(樂)을 좌현왕으로 삼고, 다섯째 연지의 아들 여(輿)를 우현왕으로 삼았다.⁹⁹⁵⁾ 아들 우고노왕(右股奴王) 오제아사(烏鞮牙斯)를 보내 입시 하도록 하였다. 한은 중랑장 하후번(夏侯藩)⁹⁹⁶⁾과 부교위(副校尉) 한용(韓容)⁹⁹⁷⁾을 흉노에 사신으로 보냈다. 당시 황제의 외삼촌인 대사마 표기장군 왕근(王根)⁹⁹⁸⁾이 상서의 일을 주관

995) 이 두 사람(樂과 輿)은 모두 烏珠留單于의 아들이다. 둘째 연지는 위에서 말한 大關氏를 말한다. 다섯째 연지는 呼韓邪單于의 關氏이다.

996) 夏侯藩: 夏侯蕃이라고 쓰기도 한다. 魯 東平 사람이다. 名儒인 夏侯勝의 증손자이다. 전한 말 郡守와 州牧을 역임하였다. 성제때 중랑장으로 두 차례에 걸쳐 匈奴에 使行 갔다. 평제때 長樂少府의 지위에 올랐다.

997) 韓容: 字는 子伯이다. 성제때 副校尉로 임명되어 匈奴에 出使했다. 후에 光祿大夫로 遷任되었다. 哀帝 元壽 2년(전1) 執金吾가 되었다가 1개월 뒤 면관되었다.

998) 王根(?~전2): 전한시기의 外戚 大臣이다. 자는 稚卿이고, 東平陵 사람이다. 元帝 王皇后의 동생으로 성제가 즉위한 뒤, 關內侯의 작위를 받고 光祿勳으로 임명되었다. 河平 2년(전27) 曲陽侯로 봉해져 7천 7백 호의 식읍을 받았다. 元延 1년(전12) 王商을 대신하여 大司馬 驃騎將軍으로 輔政하였다. 成帝가

[領尙書事]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왕근에게 말했다. “흥노의 땅 일부가 한지(漢地)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 장액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재목이 나고 큰 수리⁹⁹⁹)의 깃은 화살대를 만듭니다. 이곳을 차지하면 변경 지역은 매우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국가는 토지를 넓히는 실익을 얻을 것이며, 장군께서는 공을 드러내어 무궁히 전할 것입니다.” 왕근은 황제에게 그 이익을 말하였고 황제는 바로 선우에게 그 땅을 요구하려 했다. [하지만] 만일 얻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황제의] 조명(詔命)이 손상되어 그 위엄이 훼손될 수 있었다. 왕근은 곧 황제의 뜻을 하후번에게 넌지시 알렸는데, 하후번의 입을 통하여 그 땅을 얻고자 한 것이다.

하후번이 흥노정에 이르렀다. 말 꺼낼 때를 기다려서 선우에게 말하였다. “가만히 보니 흥노[의 땅 일부가] 한지 안으로 쑥 들어가 장액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의 세 도위(都尉)가 그곳의 변세 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사졸 수백 명이 추위에 고통받고 있으며 경계 임무를 서느라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선우께서는 응당 글을 올려 그 땅을 [한에] 헌납하겠다고 하고, [그곳을] 곧게 잘라내어 막으면, [한으로서는] 두 명의 도위와 사졸 수백 명을 철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써 한 천자의 두터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한의] 보상은 반드시 클 것입니다.” 선우가 말했다. “이는 천자의 조령(詔令)인가, 사자의 요구에서 나온 것인가?” 하후번이 말했다. “조령의 지시입니다. 하지만 하후번 저 역시 선우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제시하였을 뿐입니다.” 선우는 말했다. “효선황제와 효원황제는 부친 호한야선우를 가련히 여겨 장성 이북 땅을 흥노가 갖도록 하였다. 이곳은 온우도왕(溫偶駙王)¹⁰⁰⁰)이 살던 땅인데, 그 지역의 생김 모양과 물산을 잘 알지 못한다. 청컨대 사신을 파견하여 묻고자 한다.” 하후번과 한용이 한으로 돌아왔다. 뒤에 다시 흥노에 사신으로 갔는데, 도착한 뒤 곧 땅을 요구하였다. 선우가 말했다. “부형이 5대에 걸쳐 전해 왔으나 한은 그 땅을 요구하지

아들이 없자, 傳太后의 뇌물을 받고 定陶王 劉欣을 황제로 세웠는데 그가 哀帝이다. 綏和 1년(전8) 병으로 면관되었다. 그는 王莽이 자신을 공경한다는 이유로 자기 대신 大司馬로 임명했다. 개인적으로 사치하고 교만하였으며 재산이 巨萬에 달하여 크게 집을 만들고 정원의 건물이 宮中을 방불케 하였다. 그래서 哀帝의 불만을 샀다. 成帝의 服喪 기간에 掖庭의 女樂을 취하고 置酒歌舞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封國으로 돌아갔다. 元壽 2년(전2) 병으로 죽었다. 王莽이 漢을 대신한 뒤, 王根의 공을 추도하여 直道讓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999) 원문의 “虓”는 노란 머리에 붉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그 깃털로 화살을 만드는 큰 독수리를 말한다.
1000) 溫偶駙王: 匈奴의 제후왕이다. 長城 이북에 거주하였다. 溫偶駙는 후세의 옹구트(Ongut, 汪古惕)로 추정되기도 한다.

않았다. [나] 낭지아사 때 와서 유독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온우도왕에게 물었더니, “흉노의 서쪽 제후¹⁰⁰¹들은 궁려(穹廬)¹⁰⁰²와 수레를 만들 때 모두 이 산의 재목을 가지고 만들며, 뿐만 아니라 선조의 땅이기 때문에 감히 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

하후번은 돌아와 태원태수(太原太守)로 천임(遷任)되었다. 선우가 사신을 보내 상서하여 하후번이 땅을 구한 정황에 대하여 물었다. 조서를 내려 선우에게 답하였다. “하후번은 제멋대로 조서를 칭하고 선우에게 땅을 구하였다. 법에 따르면 응당 죽어야 하나 두 차례의 대사면을 받았다. 지금은 하후번을 제남태수로 삼아 다시 흉노의 일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듬해(수화(綏和) 2년, 전7),¹⁰⁰³ [흉노의] 시자가 사망하자 돌려보내 장사치르도록 하였다. [선우는] 다시 아들 좌어도구탄왕(左於駙仇揮王) 계류곤(稽留昆)¹⁰⁰⁴을 보내 입조하여 시봉(侍奉)하게 하였다.

至哀帝建平二年，烏孫庶子卑援寔翁侯人衆入匈奴西界，寇盜牛畜，頗殺其民。單于聞之，遣左大當戶烏夷泠將五千騎擊烏孫，殺數百人，略千餘人，毆牛畜去。卑援寔恐，遣子趨遂爲質匈奴。單于受，以狀聞。漢遣中郎將丁野林·副校尉公乘音使匈奴，責讓單于，告令還歸卑援寔質子。單于受詔，遣歸。

아제 건평 2년(전5)에 이르러, 오손의 서자(庶子) 비원치 흡후(卑援寔翁侯)의 무리가 흉노의 서쪽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 소와 [기타] 가축을 도둑질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 선우가

1001) 원문에는 匈奴의 “諸侯”라고 하였는데, 顏師古에 따르면, 匈奴의 小王을 諸侯라 칭한 것으로 중국의 용어를 흉내내었다고 하였다.

1002) 穹廬: 유목민들의 이동식 거주시설이다. 유목민들은 목재 기둥과 서까래 등의 골조를 펠트로 둘러싸고 난 다음 그 위에 면포나 가죽을 덮는 조립식의 이동용 천막(yurt 또는 ger)에 살았다. 匈奴시대에는 이런 조립식 천막을 수레 위에 설치한 穹廬에 거주하면서 땅 위에 직접 살지 않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보통 벽 부분이 탄력성이 좋고 유연한 버드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사와다, 2007: 122).

1003) 이해에 成帝가 죽고 哀帝가 즉위하였다.

1004) 稽留昆: 烏珠留單于의 아들이다. 成帝 綏和원년(전8) 烏珠留單于가 즉위한 뒤, 左於駙仇揮王이 되었다. 이듬해 한에 들어와 侍子가 되었다. 哀帝 元壽 2년(전1) 烏珠留單于가 漢에 入朝하고 돌아갈 때, 함께 匈奴로 갔다.

그 소식을 듣고 좌대당호 오이령(烏夷泔)을 보내 5천 기병을 이끌고 오손을 공격하게 하였다. 수백 명을 죽이고 천여 명을 포로로 잡고 소와 [기타] 가축을 몰고 갔다. 비원치는 두려워하여, 아들 추록(趨遯)을 흉노에 인질로 가게 하였다. 선우는 받아들여 이 일을 [한에] 보고하였다. 한은 중랑장 정야림(丁野林)·부교위 공승음(公乘音)을 흉노에 사신으로 보내, 선우를 꾸짖고 비원치의 질자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선우는 조서를 받들어 돌려보냈다.

建平四年，單于上書願朝五年。時哀帝被疾，或言匈奴從上游來厭人，自黃龍·竟寧時，單于朝中國輒有大故。上由是難之，以問公卿，亦以爲虛費府帑，可且勿許。單于使辭去，未發，黃門郎揚雄上書諫：

[애제] 건평 4년(전3년) 선우가 상서하여 [건평] 5년에 입조하길 원하였다. 당시 애제가 병이 났는데, 혹자가 말하기를 흉노는 상류 지방에서 내려와 사람을 억누르니¹⁰⁰⁵ 황룡 연간(전49)과 경녕 연간(전33) 때부터 선우가 중국에 입조하면 번번히 국가의 대상(大喪)이 발생하였다고 했다. 황제는 이 때문에 [흉노의 입조를] 꺼려하여 이 일을 공경들에게 물었다. [공경들도] 또한 헛되이 창고와 금고의 재물¹⁰⁰⁶을 낭비할 것이라며 허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선우의 사신은 인사하고 돌아가려 했다. 아직 출발하기 전 황문랑(黃門郎)¹⁰⁰⁷ 양웅(揚雄)¹⁰⁰⁸이 상서하여 [아래와 같이] 간쟁하였다.

1005) 원문의 “從上游來”에 대하여, 服虔은 游를 流로 풀이하여 황하가 서북쪽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로 “上游”를 풀이하였다. 반면 顏師古는 上游는 地形을 총괄해서 말한 것으로 반드시 黃河와 연관지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1006) 원문의 “府”란 재물을 모아두는 곳이다. 그리고 “帑”이란 錦帛을 보관해 두는 장소이다.

1007) 黃門郎: 黃門에 봉직하던 郎官을 말하는데, 황제 측근에서 황제 개인 사무를 담당하였다. 給事黃門의 관속은 모두 黃門이란 칭호를 앞에 내걸었다.

1008) 揚雄(전58~전18): 前漢시기의 저명한 辭賦家, 철학자이다. ‘揚雄’이라고도 쓴다. 蜀郡 成都 사람이다. 司馬相如의 賦를 숭앙하여 매일 그의 작품을 모방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屈原의 文才를 깊이 추송하였다. 나이 40여 세에 처음 四川에서 나와 京師에 머물렀다. 大司馬 王音이 그를 門下吏로 辟召하였다. 成帝 때에 발탁되어 給事黃門이 되었다. 成帝, 哀帝, 平帝의 삼대를 거치면서 승진하였다. 王莽이 제위를 찬탈하자 그것을 칭송하였으나 발탁되지 못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후에 병으로 免職되었다. 만년에 학문에 열중하여 『論語』를 모방한 『法言』을 지었고, 『易經』을 모방하여 『太玄』을

臣聞六經之治，貴於未亂，兵家之勝；貴於未戰。二者皆微，然而大事之本，不可不察也。今單于上書求朝，國家不許而辭之，臣愚以爲漢與匈奴從此隙矣。本北地之狄，五帝所不能臣，三王所不能制，其不可使隙甚明。臣不敢遠稱，請引秦以來明之：

신이 듣건대 육경(六經)¹⁰⁰⁹에서 다스림은 혼란이 발생하기 전[의 다스림]을 귀하게 여깁니다. 병가(兵家)¹⁰¹⁰에서 승리는 전쟁하기 전[의 승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두 가지는 모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미묘합니다만 큰일의 근본이니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선우가 글을 올려 입조(入朝)를 원하였지만, 국가¹⁰¹¹는 허락하지 않고 사양했습니다. 어리석은 신이 생각하건대 한과 흉노는 이 일 때문에 사이가 벌어질 것입니다. 본래¹⁰¹² 북쪽 땅¹⁰¹³의 적인(狄人)들은 오제(五帝)¹⁰¹⁴도 신속시킬 수 없었고, 삼왕(三王)¹⁰¹⁵도 복종시킬 수 없었습

지었다. 『藝文志』에 12편의 賦가 있다고 하나 현재는 10편이 남아 있다.

1009) 六經: 六部の 儒家 전적으로 『易』, 『禮』, 『樂』, 『詩』, 『書』, 『春秋』를 말한다. ‘六學’, ‘六藝’, ‘六籍’ 이라고도 하는데, 孔子가 교육의 교본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莊子』 「天運」편의 “孔子謂老聃曰, 丘治詩書禮樂易春秋六經, 自以爲久矣”라는 구절에서(『莊子集解』 卷4, 「天運」 第14: 95) 六經이라는 말을 찾을 수 있으나, 漢武帝 때 五經博士가 성립된 뒤 經學의 범주가 확정되었다고 본다. 『樂經』은 원래 없었다는 주장도 있고, 秦代 망일되었다는 설도 있다.

1010) 兵家: 제자백가의 하나로 兵術을 주로 논의한다. 『漢書』 권30 『藝文志』(1762)에는 兵家の 기원에 대하여 “兵家者, 蓋出古司馬之職, 王官之武備也”라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孫子兵法』 82편 등 兵書 53家 750篇을 제시하였다.

1011) 國家: 중국 史書에 등장하는 ‘國家’란 정치적 조직체로서의 ‘國’과 종족적 공동체인 ‘家’의 합성어로서 선진시대에는 다수의 ‘國家’가 병존하였다. 하지만 漢武帝 이후 사실상 하나의 國과 하나의 家가 天下를 통치하게 되면서 國家는 곧 漢을 지칭하게 되었고, 동시에 皇帝 혹은 漢朝廷을 의미하기도 하였다(김한규, 1988: 56).

1012) 錢大昭는 闕本에 따르면, “本”은 “夫”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漢書補注』: 1591).

1013) 원문은 “北地”인데 이 말은 『漢書』에서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① 戰國秦 이래 설치된 北地郡을 말한다. 前漢 시기 치소는 馬嶺이며 지금의 甘肅省 寧縣 서쪽 지구이다. ② 屬國의 명칭이다. 宣帝 五鳳 3년(전55)에 설치되었고 항복한 匈奴인들이 머물렀다. 현재 寧夏 回族 自治區 지역에 있다. ③ 중국 북부의 변경지구를 넓게 지칭하는 말이다. 『漢書』 「武帝紀」에 나오는 “北地”가 “北邊”을 의미한다고 王先謙은 보았다. 이 가운데 원문의 “北地”를 ③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문맥상 특정한 행정구역을 의미한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014) 五帝: 중국의 전설적인 5명의 帝王을 말한다. 西周 이래 春秋戰國時代의 문헌에는 다수의 帝와 神이

니다. [따라서 한과 흉노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신은 [오제, 삼왕 시절의] 먼 일을 들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청하옴건대 진(秦) 이래[의 일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以秦始皇之彊，蒙恬之威，帶甲四十餘萬，然不敢窺西河，乃築長城以界之。會漢初興，以高祖之威靈，三十萬衆困於平城，士或七日不食。時奇譎之士石畫之臣甚衆，卒其所以脫者，世莫得而言也。又高皇后嘗忿匈奴，羣臣庭議，樊噲請以十萬衆橫行匈奴中，季布：「噲可斬也，妄阿順指！」於是大臣權書遺之，然後匈奴之結解，中國之憂平。及孝文時，匈奴侵暴北邊，候騎至雍甘泉，京師大駭，發三將軍屯細柳·棘門·霸上以備之，數月乃罷。孝武卽位，設馬邑之權，欲誘匈奴，使韓安國將三十萬衆徼於便墜，匈奴覺之而去，徒費財勞師，一虜不可得見，況單于之面乎！其後深惟社稷之計，規恢萬載之策，乃大興師數十萬，使衛青·霍去病操兵，前後十餘年。於是浮西河，絕大幕，破寘顏，襲王庭，窮極其地，追奔逐北，封狼居胥山，禪於姑衍，以臨翰海，虜名王貴人以百數。自是之後，匈奴震怖，益求和親，然而未肯稱臣也。

[중국어] 진시황(秦始皇)¹⁰¹⁶의 군섭과 몽염(蒙恬)¹⁰¹⁷의 위세, 그리고 갑옷 입은 병사 40

등장하다가 전국시대 후기 五行說이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五帝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燧人, 伏羲, 神農 등을 지칭하는 三皇이 주로 문명의 발전단계를 상징한다면, 黃帝, 顓頊, 帝嚳, 唐堯, 虞舜 등을 지칭하는 五帝는 가부장적 부락 연맹체를 대표하는 神格이라는 설명이 있다. 五帝의 구성에 대해서도 여러 학설이 있다.

1015) 三王: 일반적으로 夏商周 三代之 聖王을 지칭한다. 夏의 禹王, 商의 湯王, 周의 文王·武王 등을 말한다.

1016) 秦始皇(전259~전210): 이름은 嬴政이다. 秦 莊襄王의 아들로 태어나, 13세에 秦王으로 즉위하였고, 39세에 稱帝하였으며 37년간 在位하였다. 최초의 統一王朝 황제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황제로 즉위한 후, 蒙恬을 보내 匈奴를 공격하고 河南地를 수복하고 匈奴를 陰山산맥 以北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서쪽의 臨洮(현재 감숙성 岷縣)에서 동쪽의 遼東에 이르기까지 만리장성을 연결하였다. 또한 남으로는 百越을 점령하고 桂林, 象郡, 南海郡 등을 세웠다. 처음 秦朝가 天下를 통일하였을 때는 36개 郡이었으나, 始皇帝의 재위 말기에는 40여 개로 늘어났다. 그럼으로써 '中國'뿐 아니라 匈奴와 越人 등 '四夷' 지역에도 郡縣을 설치하는 세계[天下]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1017) 蒙恬(?~전210): 秦代之 名將이다. 先代는 齊나라 사람인데, 조부 蒙驁가 秦으로 들어와 昭王을 섬겼고

여 만을 가지고도,¹⁰¹⁸⁾ 서하(西河)¹⁰¹⁹⁾를 감히 엿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성(長城)을 쌓아¹⁰²⁰⁾ [한과 흉노 사이의] 경계를 삼았습니다. 한이 처음 발흥하였을 때, 고조(高祖)¹⁰²¹⁾의 위엄과 신령, 30만의 [군(軍)]중(衆)을 가지고도¹⁰²²⁾ 평성(平城)¹⁰²³⁾에서 곤궁에 처하였습니다. 병사들 가운데 일부는 7일간이나 먹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꽤 많은 책사와 견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신하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간에서

누차 戰功을 세웠다. 부친 蒙武는 楚를 멸하였다. 이와 같은 장군의 가문 출신으로 몽염은 軍將이 되어 齊國을 대파하였다. 秦始皇의 명을 받아 六國을 통일한 이후, 匈奴를 축출하고 河南地를 수복하였으며 長城 수축을 감독하였다. 上郡에서 10여년 간 주둔하였는데 진시황이 사망한 뒤 趙高 등의 모함을 받아 죽었다.

1018) 기원전 215년 진시황은 蒙恬을 보내 匈奴를 정벌했다. 『史記』 권6(「秦始皇本紀」: 252)에 따르면, 이때 군사 30만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흉노 정벌의 원인에 대하여 後漢의 유학자 鄭玄은 “秦을 멸망시킬 자는 胡이다(亡秦者胡也)”라는 『錄圖書』의 기록이 二世皇帝 胡亥를 겨냥하는 것인 줄 모르고 북방의 胡(즉 匈奴)를 공격하였다고 한다(『史記』 권6: 253). 하지만 이는 秦朝가 흉노와 같은 외부 요인보다 내부의 문제로 멸망했음을 강조하는 漢代 儒家들의 의식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다(쓰루마 가즈유키, 2004: 163~164).

1019) 西河: 현재의 山西省과 陝西省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黃河를 지칭한다. 이곳은 夏와 商 이래 山東 지역 국가들의 都城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西河’라고 불렸다. 『史記』 권111(「衛青列傳」: 2924)에 “車騎將軍 衛青이 西河를 지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西河”에 대하여 『史記正義』는 “雲中郡의 西河”라고 풀이하였다. 한편 日역본(內田吟風, 1971: 121)에서는 황하의 서쪽 지대인 오르도스 지역을 지칭하였다. 또한 이곳에는 武帝 元朔 4년(전125)에 西河郡이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현재 내몽고 자치구에 있는 平定縣이었다.

1020) 長城: ‘만리’장성은 당시의 척도로 약 5천km에 달한다. 長城 축조의 기사는 『史記』 권6「秦始皇本紀」에서 진시황 33년, 즉 秦始皇 사망 4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온다. 따라서 이 짧은 시기에 秦始皇이 長城을 완성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대신 戰國秦이 축조한 오르도스 장성과 陰山長城, 그리고 戰國시기 趙, 燕이 축조한 장성을 연결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 秦始皇시대 長城의 축조가 寧夏 回族自治區 지역에 賀蘭山 長城을 새로 축조한 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쓰루마 가즈유키, 2004: 174).

1021) 漢高祖 劉邦(전256~전195; 재위 전202~전195): 前漢의 開國 황제이다.

1022) 中華書局本에는 “以高祖之威靈 三十萬衆困於平城”으로 끊었다. 하지만 그에 따르지 않고 “以高祖之威靈, 三十萬衆, 困於平城”으로 끊어 해석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以 …… 蒙恬之威, 帶甲四十餘萬, 然不敢窺西河”의 문장과 동일한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023) 平城: 秦代 설치한 縣의 이름으로 漢에서도 따랐다. 현재에도 古城이 남아 있는데, 그 위치는 山西省 大同市의 동북쪽이다.

언급을 꺼릴 만한 [추악한] 것이었습니다.¹⁰²⁴⁾ 또한 고황후(高皇后)¹⁰²⁵⁾는 일찍이 흉노에게 분개하여, 신료들을 조정에 모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¹⁰²⁶⁾ [이 자리에서] 번쾌(樊噲)¹⁰²⁷⁾는 10만의 무리를 가지고 흉노 안을 휘젓고 돌아다니게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만, 계포(季布)¹⁰²⁸⁾는 “번쾌는 참수(斬首)할 만합니다. 망령되게 [황후의] 뜻에 아첨하여 따르려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신들은 임시방편으로 [흉노의 비위에 맞는] 편지를 써

1024) 顔師古는 平城 탈출의 계획이 醜惡해서 世間에서 언급을 피했다고 풀이하였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기원전 200년 劉邦은 漢軍 32만을 동원하여 匈奴를 공격하였다. 冒頓單于가 지휘하는 匈奴의 騎兵 40만은 平城 부근의 白登에서 7일간 漢軍을 포위하였다. 劉邦은 陳平의 계획에 따라, 匈奴 측에 뇌물과 關氏를 바치는 조건으로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원전 198년 겨울 漢은 劉敬의 건의에 따라 匈奴와 정식으로 和親의 約을 맺었다. 이 約은 漢이 匈奴에게 公主의 出嫁, 歲幣의 공급을 약속하고 쌍방이 兄弟의 盟約을 맺으며, 匈奴는 漢의 변경을 침공하지 말 것 등 4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 내용은 漢측의 열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간에서 언급을 회피할 만큼 ‘醜惡’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漢文帝 시기 저명한 文學之士 賈誼는 이 점을 비판하여 “天下의 형세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天下之勢方倒懸)”고 하였다(『漢書』 권48 「賈誼傳」: 2240). 한편 이러한 約을 통해 형성된 ‘和親’ 관계는 武帝 이전 시기 국제관계의 특징적인 형태로서 南越, 朝鮮 등의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漢 측에서는 이들에게 不可侵을 요구하고, 非漢 측에서는 반대급부로 歲幣를 요구하였다(김한규, 1982: 197~201).

1025) 高皇后, 즉 呂后(?~전180): 劉邦의 부인으로 이름은 呂雉이다. 劉邦이 稱帝한 뒤, 皇后가 되었다. 漢에 위협이 될 만한 韓信과 彭越 등의 異姓諸侯王을 숙청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026) 惠帝와 高皇后 때 冒頓單于는 점차 교만해져 남편을 잃은 高皇后의 처지를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 高皇后를 大怒하게 하였다. 이에 丞相 陳平과 樊噲, 季布 등을 불러 匈奴 使者를 참수하고, 匈奴 정벌이 가능한지 의논하도록 하였다. 惠帝 3년(전192)의 일이다(『漢書』 권94 「匈奴」上: 2754~2755).

1027) 樊噲(?~전189): 沛縣 사람이다. 어려서 개 잡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秦末 劉邦이 거병하자 숨어서 그를 따랐으며 누차 戰功을 세워 賢成君이란 작위를 받았다. 鴻門의 宴會 자리에서 范增이 유방을 죽이려 하자 劉邦을 구해냈다. 劉邦이 漢王이 되었을 때, 臨武侯로 책봉되었다. 楚漢 전쟁 때 여러차례 항우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漢 건립 이후 將軍, 相國 등을 역임하면서 陳豨, 韓信 등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舞陽侯로 책봉되었다. 惠帝 6년에 죽었다.

1028) 季布: 彭城 사람이다. 어려서 俠客으로 자임하면서 法度를 지키지 않았다. 項羽가 西楚霸王으로 自立한 뒤, 彭城에 이르렀을 때, 季布를 장수로 임명하였다. 季布는 楚漢 전쟁 동안 여러 차례 劉邦을 곤경에 빠뜨렸다. 漢朝 건립 이후, 劉邦은 특별히 季布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季布는 大俠 朱家의 도움을 받아 사면을 받고 나아가 郎中으로 임명되었다. 惠帝 때에 中郎將이 되었는데, 樊噲의 匈奴 정벌 기도를 막았다. 文帝代에는 河東郡守를 역임했다. 御史大夫로 발령받았으나 병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민간에서는 “黃金 1千斤을 얻는 것이 季布로부터 한 차례 인정을 받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 이름이 높았다.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흉노와 얽힌 일도 풀렸고, 중국의 근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효문제¹⁰²⁹ 때에는 흉노가 북변을 침략하여 해치고, [흉노의] 척후 기병(候騎)이 웅(雍)¹⁰³⁰의 감천(甘泉)[산]¹⁰³¹에까지 이르러 경사(京師)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에 한은] 세 명의 장군을 일으켜 세류(細柳),¹⁰³² 극문(棘門),¹⁰³³ 패상(霸上)¹⁰³⁴에서 대비하게 하였습니 다만¹⁰³⁵ 몇 개월 뒤 철수하고 말았습니다.¹⁰³⁶ 효무제(孝武帝)는 즉위한 뒤 마읍(馬邑)¹⁰³⁷

1029) 漢文帝 劉恒(전203~전157; 재위 전180~전157): 漢高祖 劉邦의 아들이다. 呂后가 사망한 뒤 옹립되어 23년간 在位하였다. 다음 황제 景帝(재위: 전157~전141)와 함께 이른바 ‘文景之治’의 치세를 이루었다. 文帝는 南越을 설득하여 歸附시켰고, 匈奴와 和親을 맺는 등 유희적인 세계 정책을 추진했다. 匈奴가 변경을 침공해도 반격하지 않았다.

1030) 雍: 『漢書』 권28상 「地理志」(1532)에 따르면 “九州”의 하나인 雍州는 “黑水·西河惟雍州”라고 그 범위가 설명되고 있는데, 대개 현재의 陝西省과 그 서쪽의 일부 지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西河’는 현재 山西省과 陝西省 사이를 흐르는 黃河를 뜻하며, ‘黑水’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현재 甘肅省의 張掖河, 黨河, 혹은 青海省의 大通河 등을 말한다.

1031) 甘泉: 甘泉山을 말한다. 현재 陝西省 淳化縣 서북에 있다. 漢武帝 때에 이곳에 甘泉宮을 지었다.

1032) 細柳: 옛 지명으로 어디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① 현재의 陝西省 咸陽市の 서남쪽으로 渭水의 북쪽 지대를 말한다. ② 현재의 陝西省 長安縣의 서남쪽을 말한다. 『漢書』에서는 “柳市”라고 지칭하는 곳으로 渭水보다 남쪽에 있다. 『漢書』 권4(「文帝紀」: 131)에 細柳에 대한 주석이 있다. 如淳은 “長安의 細柳倉이 渭水 북쪽에 있다. 石徼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는 ①의 細柳이다. 반면 張揖은 “昆明池 남쪽에 있다. 지금의 柳市를 말한다”고 했고 顏師古는 “細柳는 渭水 북쪽에 있지 않다. 張揖의 설이 맞다”고 했다. 이는 ②의 細柳, 즉 柳市를 말한다. 『史記索隱』에서도 細柳가 渭水 북쪽에 있다는 설을 비판하고 있다(『史記』 권10 「孝文本紀」: 432). 하지만 원문에서 周亞夫가 주둔한 곳은 ①의 細柳, 즉 渭河의 북단을 말한다는 지적도 있다.

1033) 棘門: 현재의 陝西省 咸陽縣의 동북 지역에 있으며 본래 秦의 宮門이었다. 宮門의 방어를 위해 가시나무를 걸쳐놓았기 때문에 棘門이란 이름이 생겼다. 『括地志』에는 棘門이 渭水의 북쪽 10여 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다.

1034) 霸上: 현재 섬서성 西安市 동쪽의 白鹿原 북쪽 지역으로 고대로부터 咸陽과 長安 부근의 군사요지였다. 應劭는 霸上이 “地名이다. 長安의 동쪽 30리 지점에 있다. 고대에는 滋水라고 하였으나 秦穆公이 霸水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였으며, 顏師古는 “霸水の 위에 있기 때문에 霸上이라고 했다. 지금의 霸頭를 말한다”고 하였다(『漢書』 권1상 「高帝紀」: 23).

1035) 漢文帝 후원 6년(전158) 겨울에 있었던 일이다. 『漢書』에 따르면 당시 3만의 匈奴 騎兵이 上郡을 공격하였고, 또 다른 3만의 기병은 雲中郡을 공격했다. 이에 漢은 河內太守 周亞夫를 將軍으로 삼아 細柳에 주둔하게 하였으며, 宗正 劉禮는 將軍으로 霸上에, 祝茲侯 徐厲는 將軍으로 棘門에 각각 주둔하게 하였다(『漢書』 권4 「文帝紀」: 130~131).

의 계략을 세워 흉노를 유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안국(韓安國)¹⁰³⁸으로 하여금 30만의 무리를 이끌고 유리한 지역¹⁰³⁹에 숨어 공격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흉노는 그 음모를 깨닫고 도주하여 헛되이 재물을 낭비하고 군사를 고생시켰습니다. 한 명의 오랑캐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선우의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¹⁰⁴⁰ 그 뒤 [무제께서는] 사직(社稷)을 위한 계책을 신중히 생각하시고 크게 만년을 이어갈 대책을 꾀하셨습니다. 이에 수십만의 군사를

1036) 일역본에서는 漢軍이 철수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內田吟風, 1971: 122), 현대 한어본에서는 匈奴 부대가 철수하였다고 해석했다(安平秋, 2004: 1901). 어느 일방만이 철수했을 리 없겠으나, 『漢書』 권40(「周亞夫傳」: 2058)의 “月餘, 三軍皆罷”라는 기사에 따라 漢軍이 철수한 것으로 번역하였다. 또한 논지의 전개가 匈奴에 대한 중국의 열세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漢兵의 철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037) 馬邑: 『漢書』 권28하 「地理志」에 따르면 馬邑은 鴈門郡 관할이다(1621). 顏師古는 “晉『太康地記』에 의하면, 秦代 이 지역에 城을 쌓았는데 번번이 무너졌다. 그런데 어느 말이 반복해서 [특정지역을] 빙빙 돌며 뛰어다니자, 父老가 특이하게 생각하여 그곳에 築城하였고, 그 이름을 馬邑이라고 했다”고 하였다. 漢初에는 韓王信 封國의 수도였고 匈奴에 속했다가 다시 속하였으며 王莽代에는 章昭라고 불렀다. 현재 山西省 朔縣에 해당된다.

1038) 韓安國(?~전127): 前漢의 大臣으로 梁國 成安 사람이다. 처음 梁孝王 아래에서 中大夫로 있었다. 吳楚七國의 난 때, 반란군이 梁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武帝代 徵召되어 北地都尉, 大司農, 御史大夫 등을 역임하였다. 元光 2년(전133) 馬邑에서 匈奴를 습격하였지만, 소득이 없었다. 元朔 2년(전127) 材官將軍으로 임명되었다. 이때 匈奴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軍屯 폐지를 건의하였다가 匈奴가 대거 침입하여 패한 일이 발생하였다. 그 뒤 右北平으로 任地를 옮겼다가 근심 속에 사망하였다.

1039) “隆”은 “地”의 古字이다.

1040) 馬邑 사건의 줄거리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漢武帝는 즉위한 이후에도 祖母 竇太后的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으나, 建元 6년(전135) 竇太后가 사망하자 독자적인 행동을 개시하였고 그 최초의 일이 匈奴 문제였다. 이해 무제는 匈奴 정벌 문제를 朝議에 붙였으나 御史大夫 韓安國 등의 반대에 부딪혀 開戰論은 부결되었다. 그 이듬해 元光 1년(전134) 馬邑 사람 聶壹이 開戰의 계책을 올렸고 그 다음 해 元光 2년(전133) 武帝는 다시 朝議를 소집하여 30만 대군의 출병 계획을 확정지었다. 흉노의 軍臣單于는 聶壹의 말에 속아 10여만 기를 이끌고 馬邑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漢의 계획을 눈치채고 철수하였다. 이 일로 聶壹의 계책을 중앙에 보고했던 主戰論者 王恢는 문책을 받고 獄死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漢初 이래 유지되었던 한과 匈奴 사이의 화친관계는 결정적으로 파탄났고 그 뒤 쌍방은 본격적인 전쟁관계로 접어들었다(西嶋定生, 2002: 153~154). 이처럼 漢·匈奴 관계의 악화에는 漢武帝 개인의 의도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匈奴 單于의 정치적 지도력은 중국의 皇帝만큼 공고하지 못했고, 따라서 화친관계는 匈奴의 귀족 구성원들의 자의적 약탈에 의하여 늘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점(디코스모, 2005: 297~298)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크게 일으키고 위청(衛靑)¹⁰⁴¹과 괘거병(霍去病)¹⁰⁴²으로 하여금 군대를 지휘하도록 하여 10년 전후의 시간이¹⁰⁴³ [지났습니다.] 이에 [한군은] 서하(西河)를 넘어 대사막(大沙漠)¹⁰⁴⁴을 중단하였으며, 치안(寘顔)[산]¹⁰⁴⁵을 공파하고, [선우의] 왕정(王庭)을 습격하고,¹⁰⁴⁶ [홍노] 땅 구석구석까지 도망자들을 쫓아 북으로 진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낭거서산(狼居胥山)¹⁰⁴⁷에서 봉(封)[의 의식을 거행]하고 고연(姑衍)[산]¹⁰⁴⁸에서는 선(禪)[의 의식을 거행]

1041) 衛靑(?~전105): 漢武帝 시기 對匈奴의 전쟁을 지휘한 名將이다. 字는 仲卿이며 河東 平陽 사람이다. 그의 부친이 縣吏로 平陽公主의 집안에 給事하다가 婢女와 私通하여 衛靑을 낳았다. 衛靑은 同母異父姊인 衛子夫가 武帝에게 得幸하자 그 역시 武帝의 부름을 받아 建章監, 侍中, 太中大夫 등을 역임하였다. 元光 6년(전129) 車騎將軍으로 임명된 뒤, 7차에 걸쳐 匈奴 원정에 나섰다. 그 결과 河南地를 수복하여 朔方郡을 설치하였고, 秦代의 邊塞를 수선하여 長安 防備를 충실히 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長平侯에 임명되고 食邑 3천 8백호를 받았다. 元狩 4년(전119)에는 定襄塞 밖 천여 리까지 원정하여 匈奴 伊穉斜單于를 포위 공격하였다. 이후 한동안 한과 匈奴 사이에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었다. 武帝는 衛靑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히 大司馬를 신설하여 그를 大司馬 大將軍으로 임명하였다. 衛靑은 비록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朝政에 간여하지 않고, 겸손한 처신으로 인심을 얻었다. 元封 6년(전105)에 사망했다.

1042) 霍去病(?~전117): 漢武帝 시기 對匈奴 전쟁을 이끈 名將이다. 大將軍 衛靑의 생질로 그와 명성을 나란히 했다. 모친은 衛子夫의 손위 누이였다. 18세에 霍去病은 皇后의 인척으로 侍中이 되었다. 元朔 6년(전123) 大將軍 衛靑을 따라 匈奴 전쟁에 참가했다. 元狩 2년(전121) 驃騎將軍이 되었다. 그 뒤 전후 6차에 걸쳐 匈奴를 공격하였다. 특히 元狩 2년(121)의 匈奴 공격 결과 匈奴의 渾邪王이 4만을 이끌고 來降하였다. 이때 5개의 屬國을 세워 그 무리를 안치하였다. 그리고 河西 지역에 武威, 張掖, 酒泉, 敦煌 등 4郡을 세웠다. 元狩 4년(전119)의 전투 때에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바이칼호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돌아와서 大司馬 驃騎將軍으로 추대되었다. 武帝代 발생한 戾太子 사건으로 衛氏는 몰락하지만, 霍去病的 동생 霍光은 武帝 사후 정권을 장악한다. 霍氏 일족의 권력 장악은 宣帝代까지 지속되었다.

1043) 원문 “前後十餘年”은 대략 본격적인 對匈奴 전쟁이 시작된 元光 6년(전129)부터 일단락되는 元狩 4년(전119)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044) 원문은 “絕大幕”이다. 『史記』 권111(「衛將軍驃騎列傳」: 2934)의 「索隱」에 따르면 “幕即沙漠”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大幕”을 大沙漠이라고 번역하였다.

1045) 寘顔山: 대략 몽골 항가이(Khangai)산맥 南面 일대이다. 前漢 元狩 4년(전119) 衛靑이 匈奴 單于의 군대를 격파하고 북쪽으로 寘顔山 趙信城까지 갔다가 귀환하였다. 『史記』 권111(「衛靑傳」: 2935), 『漢書』 권 94상(「匈奴傳」: 3770)에 “寘顔山”으로 나온다.

1046) 일역본에서는 “王庭”을 右賢王의 幕營地로 보았고(內田吟風, 1971: 122), 현대 한어본에서는 單于의 王庭이라고 하였다(安平秋, 2004: 1902). 『史記』 권111(「衛靑傳」: 2935)에 따르면, 漢軍은 單于 군대와 전투를 거쳐 ‘寘顔山’에 이르렀다. 그 점에서 單于의 王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며¹⁰⁴⁹⁾ [나아가] 한해(翰海)¹⁰⁵⁰⁾에 다다랐습니다. [귀환할 때 흉노의] 명왕(名王)과 귀인(貴人) 수백 명을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 흉노는 [한을] 두려워하고 더욱 화친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하라고 칭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且夫前世豈樂傾無量之費，役無罪之人，快心於狼望之北哉？以爲不壹勞者不久佚，不斲費者不永寧，是以忍百萬之師以摧餓虎之喙，運府庫之財填廬山之壑而不悔也。至本始之初，匈奴有桀心，欲掠烏孫，侵公主，乃發五將之師十五萬騎獵其南，而長羅侯以烏孫五萬騎震其西，皆至質而還。時鮮有所獲，徒奮揚威武，明漢兵若雷風耳。雖空行空反，尚誅兩將軍。故北狄不服，中國未得高枕安寢也。逮至元康·神爵之間，大化神明，鴻恩溥洽，而匈奴內亂，五單于爭立，日逐·呼韓邪攜國歸(死)[化]，扶伏稱臣，然尚羈縻之，計不顯制。自此之後，欲朝者不距，不欲者不彊。何者？外國天性忿鷙，形容魁健，負力怙氣，難化以善，易隸以惡，其疆難誦，其和難得。故未服之時，勞師遠攻，傾國殫貨，伏尸流血，破堅拔敵，如彼之難也。旣服之後，慰薦撫循，交接賂遺，威儀俯仰，如此之備也。往時嘗屠大宛之城，蹈烏桓之壘，探姑繒之壁，籍蕩姐之場，艾朝鮮之旃，拔兩越之旗，近不過旬月之役，遠不離二時之勞，固

1047) 狼居胥山: 현재 몽골공화국 경내의 부르칸 칼둔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르칸은 투르크어와 몽골어로 '佛陀' 혹은 '神性'을 의미한다. 몽골족의 聖山이다. 武帝 元狩 4년(전119) 霍去病이 代郡의 邊塞를 나와 匈奴를 공격하고 이곳 狼居胥山에서 封祭를 올렸다. 일설에는 이곳이 현재 內蒙古 克什克騰旗 서북 阿巴嘎旗 일대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설로는 현재 河套 서북의 狼山을 말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史記』, 『漢書』의 전투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1048) 姑衍山: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의 동남지역으로 狼居胥山 부근에 있다.

1049) 山上에 흙을 쌓아 제단을 만든 뒤,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封”이고, 땅에 제사지내는 것이 “禪”이다.

1050) 翰海: ‘瀚海’라고도 하는데 지칭하는 대상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唐代 이전 사람들이 『史記』, 『漢書』를 주석할 때는 이것을 큰 海의 이름으로 보았다. 현재 몽골 고원 북쪽의 呼倫(Hulun) 湖나 바이칼호를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唐代에는 그 뜻이 몽골고원 大沙漠의 이북과 서쪽 准가르 분지 일대를 가리키는 범칭이었다. 西夏 시기에는 靈州 일대의 소택지를 瀚海라 불렀다. 元代에는 현재 新疆 위구르自治區의 古爾班通古特 사막을 瀚海라고 하였다. 혹은 현재의 알타이산을 瀚海라고 하기도 했다. 明代 이후 ‘翰海’는 고비사막을 지칭하였다. 현대 학자 岑仲勉은 漢代 霍去病이 이곳에 ‘登臨’하였다고 한 이상, 翰海는 海가 아니라 山이며 현재 몽골 杭가이산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已犁其庭，掃其閭，郡縣而置之，雲徹席卷，後無餘蓄。唯北狄爲不然，眞中國之堅敵也，三垂比之懸矣，前世重之滋甚，未易可輕也。

지난 시기¹⁰⁵¹⁾라고 해서 어찌 헤아릴 수 없는 경비를 쏟아내고 죄 없는 사람을 부리는 것을 즐기며, 봉화를 올려 적의 동태를 살피는 북녘 땅¹⁰⁵²⁾에서 마음이 편하였겠습니까? 전력을 기울여 일하지 않은 사람은 오랫동안 편안할 수 없고, 잠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영구한 안녕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백만의 군대를 굶주린 호랑이의 입 안으로 몰아넣고, 부고(府庫)의 재물을 옮겨 노산(盧山)의 구렁을 매우고도 참고 후회하지 않은 것입니다.¹⁰⁵³⁾ 본시(本始) 연간(전73~전70) 초기에 흉노는 불순한 마음을 품고 오손국을 침략하여 [오손으로 시집간 한의] 공주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¹⁰⁵⁴⁾ 이에 [한은] 다섯 장수와 군사 15만을 징발하여 그 [오손의] 남쪽에서 말 타고 사냥하게 하고, 장라후(長羅侯) [상혜(常惠)]¹⁰⁵⁵⁾는 오손의 기병 5만으로 그 서쪽을 진동시켰는데, 모두 원래 약속했던 지역까지 갔다가¹⁰⁵⁶⁾ 돌아왔습

1051) 漢武帝 때를 말한다.

1052) 원문에서는 “狼望之北”이다. 顏師古는 “狼望”이 匈奴의 지명이라 했지만, 胡三省은 변방의 사람들이 봉화를 올리는 것을 “狼煙”이라 말하므로, “狼望”이란 그 “狼煙”으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지역을 뜻한다고 하였다(『資治通鑑』 권34: 1104). 胡三省의 주석을 따라 해석하였다.

1053) 원문 “喙”는 顏師古에 따르면 ‘입’을 말한다. 백만의 군대를 짐승의 입으로 몰아넣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盧山”은 匈奴 안의 산을 말한다고 하였다.

1054) 匈奴가 烏孫國의 公主를 빼앗으려 한 것은 漢과 烏孫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였다. 漢은 武帝 元封 6년(전105)에 江都王建의 딸 劉細君을 公主로 삼아 烏孫의 昆莫에게 시집보냈다. 烏孫 昆莫은 公主를 右夫人으로 삼았다. 이후 細君이 사망하자, 漢은 다시 楚王 戊의 손녀인 解憂를 公主로 삼아 시집보냈다. 그런데 昭帝 때 公主는 上書하여 匈奴가 車師國과 동맹을 맺고 烏孫國을 침입한다며 구원을 요청하였다. 宣帝가 즉위한 뒤, 다시 上書하여 匈奴가 大軍을 내어 烏孫을 침략하였으며, 公主를 탈취하여 烏孫國과 漢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한다며, 재차 구원병을 요청하였다(『漢書』 권96下 「西域傳」: 3904~3905).

1055) 本始 2년(전72)의 匈奴 정벌에서 돌아온 뒤, 常惠는 長羅侯로 封해졌다(『漢書』 권94상 「匈奴傳」上: 3786).

1056) 원문에는 “至質”이라고 되어 있는데, 顏師古는 “質”은 “信”이며, 기약한 장소를 말한다고 하였다. 현대 한어본에서는 원래 정한 기한 안에 돌아왔다고 해석하였는데(安平秋, 2004: 1902), 여기서는 顏師古의 해석에 따랐다.

니다.¹⁰⁵⁷⁾ 이 당시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 거의 없었고¹⁰⁵⁸⁾ 단지 무위(武威)를 떨쳐 보여 한의 군대가 마치 번개와 바람처럼 [무섭고 빠르다는 것을] 밝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비록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두 명의 장군을 죽여야 했습니다.¹⁰⁵⁹⁾ 그래서 북적이 북중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원강(元康)과 신작(神爵) 연간(전65~전58)에 이르러 크나큰 덕화가 성스럽게 밝고, 커다란 은혜가 두루 미쳤습니다.¹⁰⁶⁰⁾ 그리고 흉노에서는 내란이 발생하여 다섯 명의 선우가 다투어 일어났습니다. 일축선우와 호한야선우가 나라 [사람들을] 이끌고 귀화하여,¹⁰⁶¹⁾ 옆드려 기면서¹⁰⁶²⁾ [스스로를] 신하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미(羈縻)할 뿐, [신첩(臣

1057) 본시 2년(전72) 한은 關東 지역의 ‘輕銳士’를 대거 징발하고, 郡國의 吏 三百石 가운데 강건하며 말타기 활쏘기에 능한 사람을 군인으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御史大夫 田廣明을 祁連將軍으로 삼고 4만여 기를 이끌고 西河로 출동하고, 度遼將軍 范明友는 3만여 기를 이끌고 張掖으로 나가고, 前將軍 韓增은 3만여 기를 이끌고 雲中으로 나가고, 後將軍 趙充國은 蒲類將軍으로 삼아 3만여 기를 이끌고 酒泉으로 나가고, 雲中太守 田順은 虎牙將軍으로 삼아 3만여 기를 이끌고 五原으로 각각 나가도록 하였다. 모두 5명의 장군이 10여만의 기병을 이끌고 각각 2천여 리 가량 出塞하였다. 또한 校尉 常惠는 出使하여 公主를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그가 烏孫의 西域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烏孫의 昆彌도 스스로 翁侯 이하 5만여의 기병을 이끌고 西方으로부터 匈奴로 침입하였다. 그래서 다섯 將軍과 함께 무릇 20여만의 軍衆을 이루게 되었다(『漢書』 권94상 「匈奴傳」上: 3785).

1058) 匈奴는 漢의 군대가 대거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약자가 다투어 도주하고, 畜産을 몰아 멀리 달아났다. 그래서 획득한 전리품은 적었다. 度遼將軍 范明友는 포로 700餘 級을 베고, 말과 소, 양 만여 마리를 얻었다. 前將軍 韓增은 포로의 목 100여 급과 말, 소, 양 2천여 마리를 얻었다. 蒲類將軍 趙充國은 單于의 使者 蒲陰王 이하 300여 급의 목을 얻고, 말, 소, 양 7천여 마리를 노획했다(『漢書』 권94상 「匈奴傳」上: 3785~3786).

1059) 5명의 장군 가운데, 祁連將軍 田廣明과 虎牙將軍 田順을 자살시킨 것을 말한다. 田廣明은 雞秩山에 匈奴의 군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군대를 돌려 퇴각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田順은 기한 안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획물을 거짓으로 부풀렸다(『漢書』 권94상 「匈奴傳」上: 3786).

1060) 선제 神爵 2년(전60) 가을, 匈奴 日逐王 先賢揮이 來降하였고, 처음 鄭吉을 都護로 임명하여 日逐王을 맞이하고, (흉노의 요충지인) 車師國을 정벌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흉노 선우는 名王을 보내 天子에게 봉헌하고 정월에 朝賀하였다(『漢書』 권8 「宣帝紀」(262) 참조).

1061) 『資治通鑑』 권34(1104)에 인용된 揚雄의 상소에는 “歸化”가 아닌 “歸死”로 되어 있고 胡三省은 그 의미를 “歸死命於漢也”라고 풀이하였다.

1062) 『釋文』에 “扶伏”이란 ‘포복(匍匐)’한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다. 『春秋左氏傳』 昭公21년조 “扶伏而擊之”(楊伯峻: 1429)도 그러하다.

妾)으로 삼아]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뒤로 조알하려는 자들은 막지 않았고, [조알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강제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국 [사람들]은 천성이 사납고 거칠며,¹⁰⁶³⁾ 생김새가 크고 건장하며, 완력과 용기를 믿고 의지하니, 선(善)한 [방법으로는] 교화하기가 어렵고, 무력을 동원해야 따르게 하기가 쉬울 것입니니다.¹⁰⁶⁴⁾ [그러니]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굴복시키기가 어려우며 유화적인 방법으로는 [복종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니다. 그래서 미처 복속되지 않았을 때는 군대를 힘들게 부려 먼 곳까지 공격하느라, 나라를 기울여 재화를 탕진하고 죽어 넘어진 시체들에서 피가 흐르니, 군센 [적의 진영]을 부수고 적을 쳐 없애기가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니다. 또한 [한에] 신복한 뒤에도 위로의 공물(供物)로 어루만져 따르게 하고, [사신들이] 교왕하며 만날 때에도 뇌물을 보내야 합니니다. 위엄 있는 예의에 따라 거동¹⁰⁶⁵⁾하면서 [신복을 유지하려면] 이처럼 구비해야 하는 것입니니다.

지난 시절 일찍이 대완(大宛)의 성을 도륙하고,¹⁰⁶⁶⁾ 오환의 군영을 짓밟고,¹⁰⁶⁷⁾ [서남이(西

1063) 원문 “驚”의 의미를 顏師古는 ‘어그러진다’는 뜻의 “很”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很’은 ‘很’과 통하는 말로 보인다. 예를 들어 『史記』 권7(「項羽本紀」: 305)에 나오는 “很如羊”이란 말은 『漢書』 권31(「陳勝項籍傳」: 1802)에는 “很如羊”으로 되어 있다. 또한 很은 ‘패려긋다(언행이 거칠다)’, ‘말을 듣지 않는다’, ‘거스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문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다.

1064) 원문 “隸”란 “附屬”한다는 말이다. “惡”이란 “威”를 말한다. 원문의 해석은 顏師古에 따랐다. 하지만 『資治通鑑』에서는 원문의 “隸”를 “肄”로 적고 胡三省은 “肄”가 “習”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구절을 “言易習於爲惡也”(쉽게 惡行을 익히게 된다)라고 풀이하였다(『資治通鑑』 권34: 1104).

1065) 원문에 “威儀俯仰”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俯仰”은 ‘거동’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俯는 우러러보는 것이고, 仰은 굽어보는 행동으로 상반된 의미를 갖는데(『春秋左氏傳』 定公15년조), 두 글자가 합쳐지면, 一舉一動의 의미를 갖는다. “范雎 …… 先言外事, 以觀秦王之俯仰”에서의 “俯仰”도 같은 용례라고 할 수 있다(『史記』 권79 「范雎傳」: 2409).

1066) 武帝는 大宛에서 나는 명마를 얻고자 사신과 재물을 보냈으나, 大宛王이 따르지 않고 漢의 사신을 살해했다. 이에 武帝는 貳師將軍 李廣利로 하여금 군사 10여만을 이끌고 大宛을 정벌하게 했다. 宛人이 그의 왕을 목 베고, 말 3천 필을 보냈다(『漢書』 권96상 「西域傳」: 3895). 武帝 太初 4년(전101) 貳師將軍 李廣利가 汗血馬를 얻어 귀환하였다(『漢書』 권6 「武帝紀」: 202).

1067) 匈奴의 冒頓선수가 東胡를 멸한 뒤, 나머지 부족들은 鮮卑山과 烏桓 등지에 산재하면서 匈奴의 지배를 받았다. 漢武帝 이래 匈奴가 쇠퇴하자 다시 그 세력이 커졌는데(『資治通鑑』 권23: 769), 昭帝 치세기에 烏桓은 匈奴 單于의 무덤을 파헤쳐 冒頓單于에 대한 원한을 갚았다. 이에 匈奴가大怒하여 烏桓을 공격 격파하였다. 이 사실을 안 大將軍 霍光是 度遼將軍 范明友에게 2만의 기병을 이끌고 匈奴 군대를

南夷] 고증(姑繒)의 울타리를 염담하고,¹⁰⁶⁸⁾ [강족(羌族)] 탕저(蕩姐)의 마당을 밟고,¹⁰⁶⁹⁾ 조선의 깃발[旃]을 끊어 버리고,¹⁰⁷⁰⁾ 양월(兩越)의 깃발[旗]은 뽑아버렸습니다.¹⁰⁷¹⁾ 짧은 열흘에서 한 달을¹⁰⁷²⁾ 넘기지 않는 전투와 길게 걸리더라도 6개월 이상 걸리지 않는¹⁰⁷³⁾

요격하도록 하였다. 范明友는 이후 재차 烏桓 지역에 진격하여 6천여 금을 베고, 3왕의 머리를 가지고 귀환하였다(『後漢書』 권90 「烏桓傳」: 2981).

1068) “姑繒”이 族名인지 地名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顏師古는 姑繒을 西南夷의 一種으로 보았다. 그런데 『漢書』 권7 「昭帝紀」에는 始元 1년(전86) “益州郡의 廉頭와 姑繒, 牂柯郡의 談指, 同並 등 24개의 邑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다”(219)고 되어 있어 姑繒은 邑을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다. 蘇林은 이들이 모두 西南夷 別種의 이름이라고 하였고, 顏師古는 이 해석에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경과를 보면, 始元 1년 西南夷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漢은 水衡都尉를 보내 진압하였고, 3년 뒤, 다시 姑繒과 葉榆에서 반란이 일어나 益州太守를 살해하고 漢軍을 격파하자, 이듬해 軍正 王平等이 파견되어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때 蠻夷 5만여 금을 베고 畜産 10여만 마리를 획득하였다(『漢書』 권95 「西南夷傳」: 3843).

1069) “蕩姐”는 羌族에 속한 族名으로 보인다. “籍”은 “踏”의 의미이다. 胡三省은 “元帝 永光 3년에 ‘隴西羌 多姐反’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어찌 이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蕩姐가 多姐와 같다고 보았으며 그가 살던 시대에도 西羌에 그 姓이 남아 있다고 한다(『資治通鑑』 권28: 920). 『馮奉世傳』에 따르면, 永光 2년(전42) 隴西 羌族의 多姐 旁種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신료들은 당시 四方에 饑饉이 들어 아무런 대책을 내지 못하였다. 오직 右將軍 馮奉世가 4만의 군사를 동원하면 1개월 이내에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반대를 무릅쓰고 1만 2천의 군대를 가지고 出征하였다. 이후 출병한 군사의 수는 계속 증가되어 6만에 이르렀다(『漢書』 권79 「馮奉世傳」: 3296~3299).

1070) “艾”란 顏師古에 따르면 ‘끊어 버린다[絶]’는 의미이다. 武帝 元封 3년(전108) 한의 원정군이 조선왕 右渠의 목을 베고, 그 지역에 樂浪, 臨屯, 玄菟, 眞番 등 4郡을 설치하였다(『漢書』 권6 「武帝紀」: 194). 이 정벌군은 수군 5만을 거느린 樓船將軍 楊僕과 遼東의 육로를 이용한 左將軍 荀彘가 지휘하였다. 전쟁의 경과에 대해서는 『漢書』 권95 「朝鮮傳」(3865~3867) 참조.

1071) 胡三省은 武帝 元鼎 6년(전111)의 일이라 하였다(『資治通鑑』 권34: 1105). 元鼎 5년 秋 伏波將軍 路博德과 樓船將軍 楊僕 등이 南越國을 공격하고 이듬해 겨울 火攻으로 番禺를 함락시키고 反漢세력의 우두머리인 呂嘉를 생포하였다. 그 뒤 越地에 南海郡 등 9개 군을 설치하였다. 같은 해 가을 東越王 餘善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橫海將軍 韓說 등이 출격하여 진압하였다. 황제는 軍吏에게 조서를 내려 東越 지역의 民을 모두 江淮之間으로 옮기고 東越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다(『漢書』 권95 「兩粵傳」: 3857~3863).

1072) 원문은 “旬月之役”이다. “旬月”은 10일에서 1개월 사이의 비교적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後漢書』 권54 「楊震傳」에 “旬月之間, 並各拔擢”(1780)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章惠康 등의 『後漢書』 今注今譯本에는 “10일이나 혹은 1개월 간 공부를 한 뒤, 모두 각각 발탁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다(章惠康·易孟醇, 1998: 1453).

고생만 하고서도, 반드시 [오랑캐의] 앞마당을 경작하고 그 마을을 비로 쓸어 낸 다음 군(郡)과 현(縣)을 설치하니, 마치 구름이 사라지고 자리를 맡아 올리는 것처럼 [그 과정이 신속하고 완전하여], 뒷날 재해가 발생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다.¹⁰⁷⁴⁾ [하지만] 오로지 북적만은 그러지 못했으니, 진실로 중국의 강고한 적입니다. [북을 제외한 동·서·남] 세 변방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현격하고 과거에 [황제들께서도¹⁰⁷⁵⁾ 북방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으니, [폐하께서도] 가볍게 대해도 좋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今單于歸義，懷款誠之心，欲離其庭，陳見於前，此乃上世之遺策，神靈之所想望，國家雖費，不得已者也。奈何距以來厭之辭，疏以無日之期，消往昔之恩，開將來之隙！夫款而隙之，使有恨心，負前言，緣往辭，歸怨於漢，因以自絕，終無北面之心，威之不可，諭之不能，焉得不爲大憂乎！夫明者視於無形，聰者聽於無聲，誠先於未然，卽蒙恬·樊噲不復施，棘門·細柳不復備，馬邑之策安所設，衛·霍之功何得用，五將之威安所震？不然，壹有隙之後，雖智者勞心於內，辯者穀擊於外，猶不若未然之時也。且往者圖西域，制車師，置城郭都護三十六國，費歲以大萬計者，豈爲康居·烏孫能踰白龍堆而寇西邊哉？乃以制匈奴也。夫百年勞之，一日失之，費十而愛一，臣竊爲國不安也。唯陛下少留意於未亂未戰，以遏邊萌之禍。

지금 선우는 [한의] 의(義)를 따르기 위하여 정성스런 마음을 품고, 그 [선우]정을 떠나 [천자] 앞에서 알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대에서 이루지 못한 일이며 신령들이 바라고 희망하던 일입니다. 국가로서는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홍노 선우가] 내려오면 [천자를] 억누른다'는 말로 거절하고¹⁰⁷⁶⁾ [입조할] 날짜를 약속해 주지 않고 소외시켜, 지난날의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장래의 틈을 열어두려 하십니까! 무릇

1073) “不離二時”에 대하여 顏師古는 “離”가 “歷”이고 一時는 3개월의 기간을 뜻한다고 하였다.

1074) 원문 “蓄”는 “災”의 古字이다.

1075) 皇帝들이란 표현은 현대 한어본에 따라 넣었다(安平秋, 2004: 1903).

1076) 匈奴 單于가 북에서 내려오면 사람을 억눌러 번번이 국가에 大喪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앞에서 소개되었다. “或言匈奴從上游來厭人，自黃龍·竟寧時，單于朝中國輒有大故.”(『漢書』 권94하 「匈奴傳」: 3812).

정성을 보이는데도 거리를 두어 원한의 마음을 갖게 한다면, 지난날의 말을 어기고 과거 [화친의] 약속에 연연해하면서 한을 향하여 원망하고, 스스로 [관계를] 끊고 끝내 북면(北面)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압하여도 효과가 없고 회유하여도 불가능 하니 어찌 큰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밝은 사람은 아직 형체가 드러나기 전에 알아보고, 총명한 자는 소리가 없어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실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조치한다면, 몽염과 번쾌를 다시 쓸 필요가 없고, 극문과 세류를 다시 방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계책을 세울 이유가 어디에 있겠으며, 위청과 광거병의 군공은 어디에 쓰겠으며, 다섯 장군의 위세가 진동해야 할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여 한번 틈새가 벌어진 뒤에는 비록 지략이 있는 사람이 안에서 애써 궁리하고, 변설에 능한 사람이 밖에서 [오고 가며] 수레 바퀴가 부딪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하는 것]만 못합니다. 또한 과거에 서역을 도모하여 거사국(車師國)을 제압하였으며, 성곽을 세워 36개국을¹⁰⁷⁷⁾ 모두 보호하였는데(都護),¹⁰⁷⁸⁾ 그 비용이 해마다 수백만[전]을 헤아립니다. 어찌 강거국과 오손국이 백룡퇴(白龍堆)¹⁰⁷⁹⁾를 넘어 서쪽 변경을 침략할까 두려워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흉노를 제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릇 100년 동안 고생을 한 뒤 [그 쌓은 것을] 하루 만에 잃거나 열을 쓰고 나서 하나를 아끼는 것은, 신은 삼가 나라를 위해 불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폐하께서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유의하시어 변방에서 싹트는 화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1077) 36개국이란 西域에 있는 오아시스 諸國의 범칭이다(呂太山, 2005: 61).

1078) 이는 西域都護府 설치와 車師國에 戊己校尉府를 설치한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西域의 諸國에 대해서는 본래 匈奴 日逐王이 僮僕都尉란 기구를 常置하여 통령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宣帝 神爵 2년(전60)에 日逐王이 漢에 來降하여, 西域에 대한 지배권이 漢으로 이양되었다. 漢은 神爵 3년(전59)에 都護를 두어 서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都護”라는 명칭은 鄯善國 서쪽의 南道 諸國뿐 아니라, “車師國 서쪽의 北道까지 並護”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元帝 初元 원년(전48)에는 戊己校尉를 車師前王國에 두어, 屯田을 경영하게 하여, 西域都護府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김한규, 1982: 285~288).

1079) 孟康에 따르면 白龍堆는 그 모습이 土龍의 몸체와 같다. 머리가 없고 꼬리만 있으며, 높은 곳이 2, 3丈이고 낮은 담도 1丈을 넘는다. 모두 東北을 향하고 모양이 비슷하다. 西域 안에 있다. 현재 新疆 위구르自治區 天山 南路에 위치한다. 龍堆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의 명칭은 庫穆塔格이다. 가장 동쪽 끝에는 漢代에 樓蘭國이 있었다.

書奏，天子寤焉，召還匈奴使者，更報單于書而許之。賜雄帛五十匹，黃金十斤。單于未發，會病，復遣使願朝明年。故事，單于朝，從名王以下及從者二百餘人。單于又上書：「蒙天子神靈，人民盛壯，願從五百人入朝，以明天子盛德。」上皆許之。

상서가 아뢰어지자 천자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흉노의 사자를 불러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선우에게 대답하는 서한을 보내 [건평 5년(전2)의 입조를] 허락하였다. 양웅에게는 비단 50필과 황금 10근을 사여하였다. 선우가 출발하기 전에 마침 병이 생겨서, 다시 사신을 보내 그 다음 해에 입조하길 원하였다. 고사(故事)에 따르면 선우가 입조할 경우 명왕(名王) 이하 따르는 자가 200여 명이였다. 선우는 또한 상서하여 말하였다. “천자의 신령에 힘입어 [흉노의] 인민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시종하는 사람 500명이 입조할 수 있도록 하여 천자의 높고 훌륭한 덕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천자는 모두 허락하였다.

元壽二年，單于來朝，上以太歲厭勝所在，舍之上林苑蒲陶宮。告之以加敬於單于，單于知之。加賜衣三百七十襲，錦繡繒帛三萬匹，絮三萬斤，它如河平時。既罷，遣中郎將韓況送單于。單于出塞，到休屯井，北度車田盧水，道里回遠。況等乏食，單于乃給其糧，失期不還五十餘日。

[예제] 원수(元壽) 2년(전1) 선우가 와서 입조하였다. 황제는 태세(太歲) [기년법에 따른 금기]를 눌러 이기기[厭勝] 위하여,¹⁰⁸⁰⁾ 선우를 상림원(上林苑)¹⁰⁸¹⁾에 있는 포도궁(蒲陶宮)에

1080) “太歲”는 목성이다. 胡三省에 따르면 이해 太歲가 申의 地支에 있었다고 한다(『資治通鑑』: 1123). 太歲가 申에 있는 것을 “涇灘”이라고 하는데(『爾雅注疏』 권6: 187), 그때에는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미신이 있었다. 漢代에는 천체의 순환 주기를 계산할 때, 달과 목성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들의 순환 주기를 대략 12년으로 보고, 이 숫자 12를 자연계와 인간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파악하는 기준수로 삼았다. 이러한 관념은 漢代人들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는데(최진목, 2001: 247), 특히 목성(太歲)을 諸神을 통솔하는 人君의 상징으로 보고, 그것이 지시하는 方位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凶災를 막기 위해서 각각의 방위에 五行의 물건을 걸어두는 등 厭勝之法을 행하였는데, 그것을 “太歲避忌之法”이라고 하였다(『陔餘叢考』 「太歲大將軍」: 692). 『論衡』에 보면 당

머물게 하였다.¹⁰⁸²⁾ [이 조치가] 선우에게 공경을 더하는 것이라고 [선우에게] 고하였으나, 선우가 [사실을] 알게 되어 [불쾌하게 생각하였다].¹⁰⁸³⁾ 의복 370벌과 수놓은 비단과 [기타] 견직물 3만 필, 명주 솜 3만 근을 추가로 사여하였고, 나머지 [사여품은] 하평 연간(전28~전25)과 같았다.¹⁰⁸⁴⁾ [일정이] 끝난 뒤 중량장 한황(韓況)을 보내 선우를 호송하게 하였다. 선우는 변새 밖으로 나가 휴둔정(休屯井)에 도착하였고, 거전(車田) 노수(盧水)를 북쪽으로 건넜는데 그 길이 예들러 돌아가 멀었다. [그래서] 한황 등의 식량이 부족해졌다. 선우가 이에 자신들의 양식을 주었다. [한황 등은 귀환하기로] 약속된 날짜에서 50여 일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못하였다.

시의 미신서인 『移徙法』이란 책에 “太歲의 운행 방향에 따라도凶하고 그와 반대되어도凶하다”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太歲가 子의 地支에 있을 경우, 天下 사람들은 모두 南北으로 이동해서는 안 되고, 집을 짓거나 嫁娶하는 일도 피해야 하며, 대신 東西 방향이나 東北, 東南 등 네 귀퉁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는 믿음이 있었다(『論衡』: 1401).

1081) “上林苑”은 秦代 도성인 咸陽에 처음 조성되었는데, 현재 西安市 서쪽, 渭水의 남쪽에 있었다. 始皇帝 35년(전212)에 이곳 안에 宮을 건설하였는데, 阿房宮이 그 前殿이다. 전한 초기에 황폐화되어 백성들이 들어가 개간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漢武帝가 다시 이곳을 宮苑으로 확대 조성하고, 水衡都尉, 上林苑令, 丞, 尉 등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곳에서 皇帝는 사냥을 하기도 하고, 離宮과 觀, 館 수십 곳을 세웠다. 蒲陶宮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1082) 원문 “舍之上林苑蒲陶宮”에서 “舍”는 顏師古에 따르면 “止宿”의 의미이다. 胡三省에 따르면, 포도는 본래 大宛國에서 나는데, 武帝가 大宛을 정벌한 뒤, 蒲陶를 채집하여 離宮에 심었기 때문에 이곳이 蒲陶宮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資治通鑑』 권35: 1123).

1083) [불쾌하게 생각하였다]는 원문에 없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충하지 않으면 “單于知之”의 뜻이 모호하다. 單于에게 ‘告’하였으면, 응당 單于가 ‘知’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뒤에 무엇인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資治通鑑』에는 “單于知之” 다음에 “不悅”(1123)이란 말이 추가되어 있다. 『漢書』 哀帝 본기에도 單于가 2월, 匈奴로 돌아가면서 “不說”하였고 이 말이 『匈奴傳』에 있다고 하였다(권11 「哀帝紀」: 344). 하지만 “不說”이란 표현은 『匈奴傳』에 보이지 않는다. 일단 司馬光은 哀帝本紀의 기사에 의거하여 “不悅”을 “單于知之” 다음에 삽입하였다고 생각되는데, 타당하다고 본다. 일역본도 같은 의견이다(內田吟風, 1971: 126~127). 요컨대 원문에서 “單于知之” 다음에 “不說”이 빠진 것으로 보고 위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1084) “河平 4년(전25) 정월 입조하였을 때, 수놓은 비단·무늬 없는 비단 2만 필과 명주솜 2만 근을 추가 사여하고, 나머지는 景寧 연간(전33)과 같았다”고 하였다(『漢書』 권94하 「匈奴傳」: 3808).

初，上遣稽留昆隨單于去，到國，復遣稽留昆同母兄右大且方與婦入侍。還歸，復遣且方同母兄左日逐王都與婦入侍。是時，漢平帝幼，太皇太后稱制，新都侯王莽秉政，欲說太后以威德至盛異於前，乃風單于令遣王昭君女須卜居次云入侍太后，所以賞賜之甚厚。

일찍이 천자는 [한에 시자(侍子)로 와 있던 오주류선우의 아들] 계류곤에게 선우를 수행하여 [돌아] 가도록 하였다. [선우는] 국에 도착한 뒤 다시 계류곤의 동모형(同母兄)인 우대저(右大且) 방(方)과 부인을 보내 입시하게 하였다. [이번에] 돌아간 뒤에도 다시 [우대]저 방의 동모형(同母兄)인 좌일축왕(左日逐王) 도(都)와 부인을 보내 입시하도록 하였다. 이 당시 한의 평제(平帝)¹⁰⁸⁵는 나이가 어려, 태황태후(太皇太后)가 칭제(稱制)하고¹⁰⁸⁶ 신도후(新都侯) 왕망(王莽)¹⁰⁸⁷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왕망은] 태후의 위덕(威德)이 지극히 펼쳐서

1085) 평제(전9~5; 재위 전1~5): 前漢 14대 황제. 이름은 劉衍이다. 조부는 元帝이고 부친은 中山孝王이며母親은 衛氏이다. 哀帝가 사망한 뒤, 太皇太后 王氏가 권력을 장악하여 9살 나이의 평제를 즉위시켰다. 이 때 王莽이 大司馬로서 실권을 장악하고, 딸을 皇后로 옹립하였다. 평제의 외척 衛氏는 中山에 머물게 하여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결국 族滅시켰다. 이 사실을 평제가 알게 되자, 王莽은 평제를 독살하였다.

1086) “稱制”란 皇帝의 직권을 대리 행사하였음을 말한다. 일찍이 惠帝가 사망한 뒤, 少帝恭이 즉위하자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太后 呂氏가 “臨朝稱制”하였다(『漢書』 권3: 95). 顏師古에 따르면 천자의 명령은 制書와 詔書의 형식을 취하는데, 制書란 制度에 관련된 명령을 의미한다. 본래 황태후가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呂太后가 臨朝하여 天子의 일을 대신 수행하였기에 “稱制”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번역문에서 “太皇太后”는 元帝의 皇后였던 王皇后(元后라고도 말한다)였다. 王皇后는 이름이 政君으로 魏郡 元城縣 사람이다. 宣帝 五鳳 4년(전54)에 18세의 나이로 掖庭에 들어왔다. 이때 황태자(후일의 元帝)의 총애를 받아 皇太子 孫(후일의 成帝)을 출산하였다. 成帝가 즉위한 뒤, 皇太后가 되어 동생인 王鳳을 大司馬 大將軍 領尙書事로 임명함으로써 외척 王氏가 國政을 장악하였다. 전한시대 외척 세력의 효시로서는 宣帝代 祖母 史良娣의 史氏와 모친 王夫人의 王氏, 그리고 宣帝의 첫 황후였던 許皇后의 許氏 등을 꼽는다(西嶋定生, 2002: 283).

1087) 王莽(전45~후23): 전한말의 외척이고 이후 新朝의 황제이다. 字는 巨君이다. 父親은 王曼으로 원제대 황후 王氏의 여러 동생 가운데 하나였다. 王皇后의 동생들은 외척으로 封侯되고 元帝와 成帝 시기 輔政의 권한을 승계하면서 큰 세도를 누렸다. 하지만 王曼은 일찍 죽었고, 그의 아들 王莽도 상대적으로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 이 시기 王莽은 검약과 성실함 그리고 효행으로 그 德行이 널리 알려졌다. 大將軍 王鳳은 죽기 전 王莽을 추천하였고, 그 결과 黃門郎으로 관직의 제수받는다. 그 후 騎都尉,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말로 태후를 즐겁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우에게 넌지시 말하여 왕소군의 딸 수복거차(須卜居次) 운(云)¹⁰⁸⁸을 태후에게 보내 입시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태후가] 상으로 하사한 것들이 매우 많았다.

會西域車師後王句姑·去胡來王唐兜，皆怨恨都護校尉，將妻子人民亡降匈奴，語在「西域傳」。單于受置左谷蠡地，遣使上書言狀：「臣謹已受。」詔遣中郎將韓隆·王昌·副校尉甄阜·侍中謁者帛敞·長水校尉王歙使匈奴，告單于：「西域內屬，不當得受，今遣之。」單于：「孝宣·孝元皇帝哀憐，爲作約束，自長城以南天子有之，長城以北單于有之。有犯塞，輒以狀聞；有降者，不得受。臣知父呼韓邪單于蒙無量之恩，死遺言：『有從中國來降者，勿受，輒送至塞，以報天子厚恩。』此外國也，得受之。」使者：「匈奴骨肉相攻，國幾絕，蒙中國大恩，危亡復續，妻子完安，累世相繼，

光祿大夫 등을 역임하면서 王莽은 賓客, 名士 등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成帝가 죽기 전 大司馬로 제수받지만, 哀帝시기에는 董賢 등의 견제로 일단 정계에서 물러난다. 哀帝가 죽고 어린 平帝가 즉위하자 太皇太后 王氏는 다시 王莽을 불러들여 國政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그 후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平帝가 사망한 뒤에는 2살의 孺子嬰을 황제로 옹립한 뒤, 자신은 攝政의 명의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기원후 8년 정식으로 皇位에 오르고 國號를 '新'으로 하였다. 王莽은 『周禮』에 의거하여 托古改制의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무엇보다 사회경제분야의 개혁이 두드러졌다. 천하의 토지를 '王田', 奴婢는 '私屬'이라고 칭하며 이들의 매매를 금지시켰으며 한 가구의 남자가 8인 이상이 되지 못하는데 1井 즉 9百畝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경우에는 親族과 鄉黨에 분배하도록 강제하였다. 또한 '六筮'·'五均'의 제도를 시행하여 鹽鐵酒 등 주요 상품을 전매하여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商工業을 장악하려 하였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화폐를 새롭게 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토지 소유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으나,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 등의 이유로 커다란 혼란만을 남긴 채 실패한다.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은 王莽 정권의 몰락을 크게 앞당겼다. 匈奴의 烏桓 침공 등으로 王莽 정권과 匈奴의 갈등이 커가는 상황에서, 王莽은 單于에게 격식을 낮춘 인장을 사여하고 주변 지역 통치자들의 封號도 '王'에서 '侯'로 격하하여 원망을 샀다. 뿐만 아니라 30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匈奴 정벌을 시도하고, 병력 차출에 응하지 않은 고구려도 공격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민중들이 봉기하여 赤眉軍과 綠林軍 등이 장안을 함락시켰다. 王莽은 피살되었으며, 新王朝는 불과 15년 만에 막을 내렸다.

1088) 앞에서 復株鞮單于가 王昭君을 다시 처로 삼아 낳은 두 딸 가운데 큰 딸이 운(云)으로 수복거차(須卜居次)가 되었다고 하였다.

宜有以報厚恩。」單于叩頭謝罪，執二虜還付使者。詔使中郎將王萌待西域惡都奴界上逆受，單于遣使送到國，因請其罪。使者以聞，有詔不聽，會西域諸國王斬以示之。乃造設四：中國人亡入匈奴者，烏孫亡降匈奴者，西域諸國佩中國印綬降匈奴者，烏桓降匈奴者，皆不得受。遣中郎將王駿·王昌·副校尉甄阜·王尋使匈奴，班四條與單于，雜函封，付單于，令奉行，因收故宣帝所爲約束封函還。時，莽奏令中國不得有二名，因使使者以風單于，宜上書慕化，爲一名，漢必加厚賞。單于從之，上書：「幸得備藩臣，竊樂太平聖制，臣故名囊知牙斯，今謹更名曰知。」莽大說，白太后，遣使者答諭，厚賞賜焉。

마침 서역 거사후왕 구고(句姑)¹⁰⁸⁹·거호래왕(去胡來王)¹⁰⁹⁰ 당두(唐兜) 등이 모두 [한의] 도호교위(都護校尉)에 대해 원한을 품고, 처자와 인민을 이끌고 흉노에게로 도망하였다. 이 이야기는 『한서』 「서역전」에 있다.¹⁰⁹¹ 선우는 [이들을] 받아들여 좌록리[왕이 관할하

1089) 句姑(姑句)(?~2): 前漢 말기 西域 車師後國의 王이다. 『漢書』 권96 「西域傳」에는 “姑句”로 되어 있다.

1090) “去胡來王”이라는 王號에 대하여 顏師古는 胡를 떠나 漢으로 來降했다는 뜻으로 보았지만 顧炎武는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였고, ‘去胡來’는 현지음의 音寫로 보인다(岑仲勉 1981: 5). 余太山(2005: 77~78)은 이 말이 Tochari를 옮긴 것이라 하지만, 단언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去胡來王은 婁羌國의 王이다. 婁는 중국측 기록에서 『左傳』과 『穀梁傳』에 기원전 7세기 魯國의 한 귀족의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羌族의 일부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Hulsewé 1979: 80). 婁羌은 崑崙산맥에서 인도 서북부에 이르는 고산지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岑仲勉(1981: 1~6)은 이 지명이 후일 야르칸드(Yarkand, 葉爾羌)의 기원이 된 것으로 보았다. 都城은 현재 新疆 위구르 자치구 婁羌縣의 동남쪽에 있었다. 『漢書』 권96, 「西域傳」(3875)에 따르면 婁羌國은 陽關에서 1천 8백리, 長安에서는 6천 3백 리 떨어져 있었다. 중국에서 陽關을 나가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국가였다. 그러나 西南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孔道와 만나지 않았다. 450戶에 1,750口가 살았고, 勝兵을 500명 보유하고 있었다. 서쪽으로는 且末國과 인접하고, 가축을 방목하여 물과 풀을 따라 생활하였다. 농사는 짓지 않고, 且末國과 鄯善國에서 곡식을 가져와 먹었다. 산에는 鐵이 생산되어 스스로 병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 서북쪽으로 鄯善國에 가야만 孔道와 만날 수 있었다.

1091) 『漢書』 「西域傳」(3924~3925)에는 車師後王 姑句와 去胡來王 唐兜가 匈奴에 항복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姑句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平帝 元始 2년(후2)에 車師後王國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五船의 북쪽을 나와 玉門關으로 통하였는데, 往來하기가 비교적 가까웠다. 戊己校尉 徐普는 이 길을 새로 내어 (서역에 왕래하는 거리를) 절반 가량 줄이고, 白龍堆의 험로를 우회하려 하였다. 하지만 車師後

는] 지역(左谷蠡地)에 두고 [한에] 사신을 보내 상서하여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하였다. “신이 삼가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천자는] 조서를 내어 중랑장 한릉(韓隆)·왕창(王昌)¹⁰⁹²·부교위(副校尉) 견부(甄阜)¹⁰⁹³·시중알자(侍中謁者)¹⁰⁹⁴ 백창(帛敞)¹⁰⁹⁵·장수교위(長水校尉)¹⁰⁹⁶ 왕흡(王歙)¹⁰⁹⁷ 등을 흉노에 사신으로 보냈다. 선우에게 고하기를 “서역은 [한에] 내속되어 있다. [너희가 투항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선우

王 姑句는 이 길이 자기 나라를 관통하기 때문에 (徐普의 제안에) 마음이 불편하였다. 새로운 길의 위치가 匈奴 南將軍의 관할구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徐普는 姑句를 불러 그 경계를 명확히 해 둔 다음 황제에게 上奏하려 하였다. 하지만 姑句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하옥하였다. 姑句는 소와 양을 뇌물로 바쳐 탈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姑句의 집에서 창끝에 불이 붙는 일이 발생하자, 姑句의 처는 姑句가 곧 살해될 것이라 하여 匈奴로 도주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姑句는 高昌壁을 뚫고 나와 匈奴로 도주하였다. 한편 (婁羌國의) 去胡來王 唐兜는 (국가가) 大種 赤水羌과 근접하여 여러 차례 서로 침략하였는데, 이기지 못하자 都護에게 긴급히 구원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都護 但欽은 제때에 구조하지 않아 唐兜는 困急해졌다. 이에 但欽을 원망하면서, 동쪽 玉門關으로 갔다. 하지만 玉門關에서도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唐兜는 妻子, 人民 1천여 명을 이끌고 匈奴로 가서 항복하였다. 匈奴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漢 天子에게 上書하여 알렸다.

- 1092) 王昌: 전한의 列侯이다. 平帝代 中郎將으로 임명되었다. 그 뒤 中少府로 遷任되고, 建威侯로 封해졌다. 王莽 居攝 2년(7) 東郡太守 翟義가 擧兵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中堅將軍으로 나가 진압하였다.
- 1093) 甄阜(?~23): 漢 平帝 때 副校尉로 임명되어 2차에 걸쳐 匈奴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그 뒤 王莽의 편에 서서 다시 匈奴에 出使했다. 地皇 3년(23) 前隊大夫로 임명되어 군대를 이끌고 綠林軍을 진압하다가 毆살되었다.
- 1094) 侍中謁者: 侍中은 秦代 처음 설치되었고 漢代에도 이어졌는데, 정규 관직이 아닌 加官의 하나였다. 황제의 좌우에서 시종하면서 궁정에 출입하였고, 朝政 일들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였다. 점차 貴重한 자리가 되어 晉代 이후에는 宰相의 지위에 상당하게 되었고, 唐代에는 門下省의 장관이 되었다.
- 1095) 帛敞: 平帝시기 侍中·謁者에 임명되었다. 元始 2년(2) 匈奴에 出使하였고, 王莽의 新朝가 설립된 뒤에 다시 匈奴에 出使하여 새로운 單于 印綬를 사여했다.
- 1096) 長水校尉: 漢武帝 때 설치된 武官으로 北軍 八校尉 가운데 하나이다. 秩은 二千石이다. 『漢書』 권19, 「百官公卿表」(738) 따르면, 그 직책이 “長水宣曲胡騎”를 관장한다고 하였는데, 顏師古는 “長水는 胡名이고, 宣曲은 觀의 명칭으로, 宣曲에 주둔하는 胡騎를 말한다”고 주석하였다. 항상 오랑캐의 정세에 밝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임명되어 京師에 주둔하는 정예의 상비군을 지휘하였다. 後漢初에 잠시 罷했다가 다시 설치되었다.
- 1097) 王歙: 南郡 秭歸 사람으로 王昭君의 생질이다. 平帝시대 長水校尉로 임명되었고, 王莽이 新朝를 개창한 뒤, 和親侯로 封해졌다. 4차례에 걸쳐 匈奴에 出使하여, 匈奴의 單于 印璽를 바꾸고, 叛將 陳良 등을 사로잡았다. 新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외교관으로 평가받는다.

는 말했다. “효선황제¹⁰⁹⁸와 효원황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약속을 정하시어, 장성의 남쪽은 천자께서 영유하시고 장성의 이북은 선우가 영유한다고 하였습니다. 변새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상황을 [서로] 알리고, 투항자가 생기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 지(知)¹⁰⁹⁹의 부친인 호한야선우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어, 죽을 때 유언하길 ‘중국에서 투항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받지 말고, 곧 변새로 보내라. 그로써 천자의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거사후국과 야강국이 중국이 아니라] 외국[의 투항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신은 말하였다. “흉노는 골육 간에 서로 공격하여 나라가 거의 멸절될 뻔하였다. 중국의 큰 은혜를 입어 위태로워 망할 뻔한 나라가 다시 이어지고 처자가 온전히 안전하게 되어 누대에 걸쳐 서로 이어졌다. 응당 두터운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선우는 머리를 찢으며 용서를 빌고 2명의 오랑캐 [구고와 당두]를 돌려보내 [한의] 사자에게 넘겼다. [천자는] 조서를 내려 중랑장 왕맹(王萌)¹¹⁰⁰으로 하여금 서역 악도노(惡都奴)¹¹⁰¹의 경계 위에서 [사신 일행을] 맞이하고 [구고와 당두도] 접수하도록 하였다. 선우는 사신을 [한조에] 보내 그 죄[의 용서]를 청하였다.¹¹⁰² [흉노에서 귀환한] 사신이 이 사실을

1098) 宣帝 劉詢(전92~전49; 재위 전73~전49): 前漢 7대 皇帝로 본명은 病己이다. 武帝의 증손자이고, 戾太子의 손자이다. 태어난 지 수개월 뒤, 戾太子의 巫蠱사건이 발생하여 郡邸獄에 갇혀 자랐다. 나중에 大赦令을 만나 皇族 신분을 회복한다. 전74년 昭帝가 사망한 뒤, 繼位할 아들이 없자, 霍光 등은 18세의 宣帝를 옹립하였다. 즉위 초에는 霍光에게 정사를 맡겼으나, 얼마 후 親政에 나서, 吏治를 정돈하고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法令 政策을 숙지하고 있는 文法吏를 다수 임용하였으며, 治書侍御史를 두어 廷尉의 판결형량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流亡者를 招撫하고,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켰으며, 빈민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元康 연간(전65~전62)에는 흉년이 지속되어 穀價가 1石當 5錢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前漢시기에 기록된 가장 저렴한 가격이었다.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보면, 神爵 연간(전61~전58)에는 羌族의 난을 진압하였고, 金城屬國을 설치하여 降羌人들을 安置하였다. 또한 西域都護를 설치하여 鄭吉을 임명하였다. 甘露 2년에는 呼韓邪單于가 來降 稱臣하였다. 이에 邊境이 안정되고, 徭役이 감소되었다.

1099) 원문의 “臣知”란 囊知牙斯를 말한다. 그는 곧 烏珠留若鞮單于이다.

1100) 王萌: 平帝時 中郎將으로 임명되었다. 王莽이 匈奴를 대거 침공할 계획을 세웠을 때, 王萌은 平狄將軍으로 임명되어 代郡에 주둔하면서 출동 명령을 기다렸다. 그 후 王莽이 邊將을 철수시켰을 때, 王萌도 돌아왔다.

1101) 惡都奴: 顏師古는 服虔을 인용하여 “西域의 계곡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後漢書』 「西域傳」에 보이는 “伊吾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분명치 않다.

보고하자, 조서를 내려 허락하지 않았으며 서역 국가들의 왕을 모아놓고 [구고와 당두의] 참수를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4개조의 [규약]을 만들어 세웠다. 중국인이 흉노에 도망쳐 들어간 경우, 오손[인]이 흉노에 도망쳐 항복한 경우, 서역의 여러 국가 가운데 중국의 인수(印綬)를 받은 [국가의 사람이] 흉노에 항복한 경우, 오환[인]이 흉노에 항복한 경우 등은 모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천자는] 중랑장 왕준(王駿)¹¹⁰³ · 왕창 · 부교위 견부 · 왕심(王尋)¹¹⁰⁴ 등을 흉노에 사신으로 보내, 4개 조항을 선우에게 나누어주고, [새서(璽書)와] 함께 상자 안에 봉하여 선우에게 주고 받들어 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돌아가신 선제가 약속한 [규약이 담겨 있는] 봉함을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

이 당시 왕망은 상주하여 중국에서는 이름에 두 글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¹¹⁰⁵ 이에

-
- 1102) 원문은 “單于遣使送到國”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 한어본과 일역본의 해석이 다르다. 현대 한어본에는 單于가 漢朝에 사신을 보냈다고 되어 있다(安平秋, 2004: 1905). 하지만 漢朝를 단순히 ‘國’으로 표현한 것이 다소 어색하다. 일역본에서는 單于가 사신을 匈奴와 唐兜 두 사람의 本國으로 보냈다고 하였다(內田吟風, 1971: 129). 이것은 ‘國’의 의미를 중시한 해석이다. 하지만 『西域傳』의 기사에서 보았듯이 唐兜의 경우 自國民 천여 명과 집단 망명하였기 때문에 本國 조정이 남아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이들이 本國에 대하여 罪를 짓고 망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赦罪를 요청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일역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資治通鑑』에는 해당 기사가 “單于遣使送”이라고만 되어 있고 ‘到國’은 생략하였다. 또한 胡三省은 “두 포로를 위하여 漢에 요청하여, 그들의 背叛罪를 사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주석하여 匈奴가 사신을 漢朝로 보냈음을 명확히 하였다(『資治通鑑』 권35: 1137). 번역문에서는 이 해석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到國’을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 1103) 王駿(?~16): 王莽 시기의 장군이다. 平帝 때 中郎將으로 임명되었다. 匈奴에 出使하여 匈奴가 망명자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條文을 單于에게 포고하였다. 王莽이 稱帝한 뒤, 五威將으로 임명되어 재차 匈奴에 出使하여 單于의 印璽를 교환하였다. 그 뒤 備武將軍이 되어 張掖에서 匈奴 공격을 준비하였다. 天鳳 3년(16) 군대를 이끌고 西域으로 나갔다가, 焉耆國의 伏兵에게 피살되었다.
- 1104) 王尋(?~23): 王莽 시기의 大臣이다. 平帝대 副校尉로 匈奴에 出使하여 匈奴가 망명인을 받을 수 없다는 條文을 반포하였다. 그 뒤 王莽의 皇位 찬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그 공로로 丕進侯에 봉해졌다. 始建國 원년(9)에 章新公으로 進封되었고, 大司徒에 제수되었다. 地皇 4년(23) 綠林軍 王鳳과 劉秀 등이 昆陽을 공격하였을 때, 王尋은 王邑과 함께 42만의 군대를 이끌고 대적하였다. 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被殺되었다.
- 1105) 胡三省은 “『公羊春秋傳』이 두 글자의 이름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王莽이 그것을 본받았다”고 하였다(『資治通鑑』 권35: 1137). 『春秋』 定公 6년 經文에 다음의 구절이 있다. “季孫斯와 仲孫己가 군대를 이끌고 鄆國을 포위하였다.” 이에 대하여 公羊傳은 “(仲孫忌는) 仲孫何忌를 말한다. 어찌하여 仲孫忌

사신으로 하여금 선우에게 던지시 알려길, 응당 상서하여 [천자의] 덕화를 그리워하여 한글자만 가지고 이름을 만들겠다고 하면 한은 반드시 후한 상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다. 선우가 이에 따라 상서하여 말하였다. “다행스럽게 변신(藩臣)이 되어 남몰래 [한의] 태평성제(太平聖制)를 좋아하였습니다. 신은 원래 이름이 낭지아사입니다만 이제 삼가 이름을 바꾸어 지(知)라고 하겠습니다.” 왕망은 크게 기뻐하여 태후에게 말하고, 사신을 [흉노에] 보내 유지(諭旨)로 답하고 큰 상을 사여하였다.

漢旣班四條，後護烏桓使者告烏桓民，毋得復與匈奴皮布稅。匈奴以故事遣使者責烏桓稅，匈奴人民婦女欲賈販者皆隨往焉。烏桓距：「奉天子詔條，(之)[不]當予匈奴稅。」匈奴使怒，收烏桓酋豪，縛到懸之。酋豪昆弟怒，共(入)[殺]匈奴使及其官屬，收略婦女馬牛。單于聞之，遣使發左賢王兵入烏桓責殺使者，因攻擊之。烏桓分散，或走上山，或東保塞。匈奴頗殺人民，毆婦女弱小且千人去，置左地，告烏桓：「持馬畜皮布來贖之。」烏桓見略者親屬二千餘人持財畜往贖，匈奴受，留不遣。

한이 네 개 조항을 반포하자 그 뒤 오환을 [감]호([監護)하는 [한의] 사신이 오환의 인민에게 포고하기를, 다시는 흉노에게 피포세(皮布稅)¹¹⁰⁶를 납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흉노는 고사(故事)를 근거로 사신을 보내 오환에게 납세를 독촉하였다. [징수한 물건으로] 장사를 하고 싶었던 흉노의 인민과 부녀들도 모두 따라왔다. 오환은 거절하며 말하였다. “[한] 천자의

라고 하였는가? 두 글자의 이름을 비난한 것이다. 두 글자의 이름은 非禮이다.”라고 하였다. 何休는 『公羊解詁』에서 “(두 글자로 이름을 짓는 것을 非禮라 하는 이유는) 避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글자로 이름을 만들면 부르기 어렵고 避諱하기는 쉽다. 그래서 (윗사람에 대한) 신하나 자식의 恭敬心を 조장하며 아랫사람을 僥박하지 않을 수 있다. …… 이는 春秋時代의 제도이다.”라고 해설하였다. 반면 『左傳』에는 해당 經文을 설명하는 傳文이 없으며, 杜預는 左傳注에서 “(仲孫何忌를 仲孫忌라 말한 이유는 『春秋』 經文에서) 글자가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간단히 설명하였다. 楊伯峻도 “(공양전의 해설은) 妄說이다. 先人들의 비관이 많았다.”(楊伯峻: 1555)고 하였다. 王莽이 公羊傳의 說에 따른 것은 漢代 公羊 春秋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趙伯雄, 2004: 『兩漢春秋學』 참조).

1106) 烏桓이 匈奴에게 공납하던 皮革이나 氈布類의 貢物을 말한다(內田吟風, 1971: 129).

조령 조문을 받들기 때문에, 흉노에게 납세할 수 없다.” 흉노의 사신은 분노하여 오환의 우두머리(酋豪)를 잡아들여, 결박하고 거꾸로 매달았다. 우두머리의 형제들은 분노하여, 함께 흉노의 사신과 그 관속을 살해하고 [함께 따라온] 부녀와 소·말을 강탈하였다. 선우가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좌현왕의 군사를 일으켜, 오환에 들어가 사신을 죽인 자를 문책하여 죽였으며 나아가 오환을 공격하였다. 오환[의 무리는] 분산하여 혹은 산 위로 도망치고 혹은 동쪽의 요새로 피신하였다. 흉노는 [오환의] 인민을 다수 학살하고 부녀와 노약자들 1천 명을 몰아가 [흉노] 좌측의 땅에 두었다. [그리고] 오환에게 고하기를 “말 등 가축과 피혁·포백 등을 가지고 와서 속면해 가라”고 하였다. 오환 사람 가운데 붙잡혀간 사람의 친척 2천여 명이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가서 속면하고자 하였다. 흉노는 [재물을] 받기만 하고, [포로들은]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王莽之篡位也，建國元年，遣五威將王駿率甄阜·王颯·陳饒·帛敞·丁業六人，多齎金帛，重遺單于，諭曉以受命代漢狀，因易單于故印。故印文曰「匈奴單于璽」，莽更曰「新匈奴單于章」。將率既至，授單于印紱，詔令上故印紱，單于再拜受詔。譯前，欲解取故印紱，單于舉掖授之。左姑夕侯蘇從旁謂單于：「未見新印文，宜且勿與。」單于止，不肯與，請使者坐穹廬，單于欲前爲壽。五威將：「故印紱當以時上。」單于：「諾。」復舉掖授譯。蘇復：「未見印文，且勿與。」單于：「印文何由變更！」遂解故印紱奉上，將率受。著新紱，不解視印，飲食至夜乃罷。右率陳饒謂諸將率：「鄉者姑夕侯疑印文，幾令單于不與人，如今視印，見其變改，必求故印，此非辭說所能距也。既得而復失之，辱命莫大焉。不如椎破故印，以絕禍根。」將率猶與，莫有應者。饒，燕士，果悍，卽引斧椎壞之。明日，單于果遣右骨都侯當白將率：「漢賜單于印，言『璽』不言『章』，又無『漢』字，諸王已下乃有『漢』言『章』。今[印][卽]去『璽』加『新』，與臣下無別。願得故印。」將率示以故印，謂：「新室順天制作，故印隨將率所自爲破壞。單于宜奉天命，奉新室之制。」當還白，單于知已無可奈何，又多得賂遺，卽遣弟右賢王與奉馬牛隨將率入謝，因上書求故印。

왕망이 제위를 찬탈한 건국(建國)¹¹⁰⁷ 원년(9)에 오위장(五威將)¹¹⁰⁸ 왕준과 장수[率]¹¹⁰⁹ 건부·왕립(王颯)¹¹¹⁰·진요(陳饒)¹¹¹¹·백창·정업(丁業)¹¹¹² 등 6인을 파견하여, 많은 귀금속과 비단을 실어 다시 선우에게 보냈다. [신조(新朝)가] 천명을 받아 한을 대신한 상황에 대하여 깨우쳐 알렸고, 아울러 선우의 옛 인장을 교체하고자 하였다. 옛 인문(印文)에는 “흉노선우새(匈奴單于璽)”라고 되어 있는데, 왕망은 바꾸어 “신흉노선우장(新匈奴單于章)”¹¹¹³이라고 하였다. [신의] 오위장과 장수들이 도착한 뒤 선우에게 [새로운] 인장과 인장

1107) 왕망이 제위를 찬탈한 뒤의 연호를 『漢書』 「匈奴傳」에서는 이처럼 “建國”이라고 하였으나, 『漢書』 권99中 (4099)에서는 이를 “始建國”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漢書』는 이 두 표현을 혼용하고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建國”으로 통일하여 쓰겠다.

1108) 五威將: 新代의 관직명이다. ‘威’란 皇天上帝의 威命이고, ‘五’란 五行의 수를 뜻한다. 王莽은 자신이 漢을 대신하여 受命하였음을 알리기 위해 특별히 이 관직을 설치하였다. 모두 12명이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천하에 循行하면서 『符命』 42편을 반포하였다. 그리고 新朝의 새 印綬를 주고 漢의 옛 印綬를 회수하였다. 五威將은 乾文車에 타고, 坤六馬를 몰며,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또한 한 사람마다 左·右·前·後·中帥 등 5명을 배속시켰다. 의복과 수레, 말의 장식 등은 각 方面의 色과 數에 따랐다. 將은 持節하고 太一之使라고 칭했으며, 帥는 幢을 쥐고 五帝之使라고 칭하였다. 동쪽 변계로 나간 사람은 玄菟, 樂浪, 高句麗, 夫餘에 이르렀고, 남쪽 변계로 나간 사람은 徼外로 넘어가 益州, 鉤町을 지났다. 서쪽 변계로 나간 사람은 西域에 이르렀고, 북쪽 변계로 나간 사람은 匈奴에 이르렀다. 五威將에 대한 기사는 『漢書』 권99중, 「王莽傳」(4112~4115) 참조.

1109) 일역본은 “率”을 官名으로 보아 일반명사로 두었으나(內田吟風, 1971: 130), 五威將 휘하에 左·右·前·後·中帥 등 “凡五帥”가 있다는 「王莽傳」의 기사(4115)처럼 ‘帥’로도 표현된다. 그래서 ‘장수’라고 번역하였다.

1110) 王颯: 王莽시대의 관리이다. 관직은 驕都尉이고 展德侯에 봉해졌다. 建國 1년(9) 五威將 王駿을 따라 匈奴에 出使하여 匈奴 선우의 印章을 교체하였다. 天鳳 1년(14)에 다시 匈奴에 出使하여 烏累若鞮單于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地皇 4년(23) 更始帝의 군대가 長安에 진입하자, 王颯은 항복하여, 中郎將의 관직을 얻고 歸德侯에 봉해졌다. 更始 2년(24) 다시 匈奴에 出使하여 漢代 舊制의 印綬를 單于에게 사여했다.

1111) 陳饒: 王莽시대의 장군으로 燕 지역 사람이다. 품성이 과감하고 용맹하였다. 建國 1년 五威將 王駿을 따라 匈奴에 사신으로 가서 선우의 印章을 교체하였다. 單于가 故印을 회수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부수어 버렸다. 귀환한 뒤, 王莽은 陳饒를 大將軍으로 임명하고, 威德子로 封하였다.

1112) 丁業: 王莽대의 관리로 建國 1년(9)과 天鳳 2년(15) 두 차례에 걸쳐 匈奴에 出使하였다.

1113) “新”이란 王莽이 자신의 國號를 붙인 것이다. 栗原朋信은 漢代 天下가 內臣, 外臣, 外客臣, 絕域의 朝貢國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南匈奴의 선우는 그 안에서 外客臣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宣帝가 呼韓邪單于에게 사여한 인장에는 ‘匈奴單于璽’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앞에 ‘漢’자를 쓰지

끈을 주고, 조서를 내려 옛 인장과 인장 끈을 바치게 하였다. 선우는 두 차례 절하고 조서를 받았다. 통역관이 앞으로 나가 [선우가 차고 있는] 옛 인장의 끈을 풀어서 취하려 하였다. 선우도 겨드랑이를 들어 올려 넘겨주려 하였다. 이 때 좌고석후(左姑夕侯) 소(蘇)가 옆에서 선우에게 말하였다. “새 인장의 인문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선우도 [행동을] 멈추고 주려하지 않았다. [한의] 사신에게 요청하여 궁려에 앉게 하고, 선우는 앞으로 나아가 [새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려 하였다. 오위장 [왕준]은 “옛 인장과 인장 끈은 제때에 바쳐야 합니다.”고 말했다. 선우는 “[마지못해] 알겠다.”¹¹¹⁴⁾고 하며 다시 겨드랑이를 들어 올려 통역관에게 [인장과 인장 끈을] 주려하였다. 소는 다시 말하였다. “인문을 보기 전에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선우는 말했다. “인문이 바뀔 이유가 있겠는가!” 마침내 옛 인장의 끈을 풀어 받들어 올렸다. 오위장과 장수가 받았다. [선우는] 새로운 도장 끈을 착용하고, [주머니를] 풀어 [새] 인장을 보지는 않았다. 밤늦도록 마시고 먹은 뒤 [자리]를 파하였다.

우솔(右率)¹¹¹⁵⁾ 진요는 오위장과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앞서 고석후 [소]가 인장의 문구를 의심하여 하마터면 선우가 우리에게 [옛 인장을] 주지 않을 뻔하였소. 만일 [새] 인장을 보고 [그 문구가] 바뀐 것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옛 인장을 찾을 것이요. 이는 말로 설득해서 거절할

않은 점, 單于라는 흉노 고유의 군장 호칭을 인정받은 점 등은 일반 外臣과 다른 外客臣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 外臣에게 사여하는 印章에는 ‘漢·新’ 등 중국왕조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끝에 ‘印·章’ 등의 문자를 넣는다. 이 점에서 王莽이 ‘新匈奴單于章’이라 적힌 印章을 사여한 것은 흉노의 지위를 外客臣에서 外臣으로 조정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다. 客臣에는 內客臣과 外客臣의 구분이 있는데, 新朝가 건립된 후 漢 최후의 군주 孺子嬰을 定安侯로 책봉하고 新室의 ‘賓臣’으로 삼은 것은 ‘內客臣’의 예이다. 이 때 定安侯는 新室의 禮로부터 독립하여 漢禮를 지킬 수 있도록 허용받았으나, 新法으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반면 外客臣인 匈奴의 경우에는 匈奴 내부에서 독자의 禮·法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 점에서 ‘外客臣’과 ‘內客臣’의 차이가 있다 (栗原朋信, 1970: 475~476).

1114) 『禮記』曲禮上에 “父召無諾, 先生召無諾, 唯而起”란 구절이 있다. 이에 대하여 鄭玄은 “응대하는 말로 唯가 諾보다 공손하다”고 주석하였다. 또한 孔穎達은 부모와 선생이 부르면 반드시 ‘唯’라고 해야지 ‘諾’이라 대답해서는 안 되는데, ‘唯’란 급하게 대답하는 것이고, ‘諾’이란 천천히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원문의 “諾”을 마지못해 허락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1115) 앞에서 五威將 한 사람에게 左·右·前·後·中帥 등 5명의 장수[率]가 따른다고 하였다. 右率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수 없을 것이요. 이미 [옛 인장을] 얻은 다음 다시 잃는다면 [천자의] 명을 욕되게 하는 일이 그보다 더 클 수는 없을 것이요. 옛 인장을 때려 부수어 화근을 잘라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소.” [하지만] 오위장과 장수들은 망설이면서 응하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 진요는 연(燕) 지방 출신의 군인으로 과단성 있고 용감하였는데 즉각 도끼를 가지고 와 [옛 인장을] 쳐서 부수었다.

다음날 선우는 과연 우골도후(右骨都侯)¹¹¹⁶ 당(當)을 보내 오위장과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한은 선우에게 인장을 사여하였을 때, ‘새(璽)’라고 했지 ‘장(章)’이라 하지 않았으며 또한 ‘한(漢)’이란 글자도 없었소. 제왕(諸王) 이하 [의 인장]에 비로소 ‘한’이 있고 ‘장’이라 말했소.¹¹¹⁷ 지금 ‘새’를 없애고 ‘신’을 [앞에] 더하여 [한의] 신하와 다를 것이 없게 되었소. 원컨대 과거의 인장을 돌려 주시오.” 오위장과 장수들은 [부서진] 옛 인장을 보이며 말했다. “신 황실에서 천(天)[의 명령]에 따라 [새 인장을] 제작하고, 옛 인장은 오위장과 장수들의 [의견]에 따라 임의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선우께서도 응당 천명에 따라 신 황실의 제도를 받으십시오.” [흉노의 사신] 당이 돌아가 [선우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고 선우는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알았다. 또한 [신의] 뇌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곧 동생 우현왕 여(興)를 보내 말과 소를 가지고, 오위장과 장수들을 따라 [신에] 들어가 사례하도록 하였다. 이 기회에 글을 올려 옛 인장을 [회복해 달라고도] 요구하였다.

將率還到左犁汗王咸所居地，見烏桓民多，以問咸。咸具言狀，將率：「前封四條，不得受烏桓降者，亟還之。」咸：「請密與單于相聞，得語，歸之。」單于使咸報：「當從塞內還之邪，從塞外還之邪？」將率不敢顯決，以聞。詔報，從塞外還之。

오위장과 장수들은 좌려한왕(左犁汗王) 함(咸)이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왔다. [이곳에] 오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함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함은 그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말하였

1116) 右骨都侯: 匈奴에서 정치 보좌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직이다. 그 지위는 左右大當戶의 아래이다. 官位는 세습되고, 左骨都侯와 상응한다.

1117)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 外臣에게 사여하는 印章의 경우에는 먼저 ‘漢’·‘新’ 등 중국왕조의 이름이 나오고 끝에 ‘印’·‘章’ 등의 문자를 넣는다(栗原朋信, 1970: 475~476).

다.¹¹¹⁸⁾ 오위장과 장수들이 말하였다. “전에 4개조의 [규약을] 봉하여 [주었는데] 오환의 투항자들을 [흉노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소. 한시 바빠 돌려보내시오.” 함이 말하였다. “청하옵건대 은밀히 선우에게 알려 회답을 얻은 뒤에 돌려보내겠소.” 선우는 함을 시켜 대답하였다. “[돌려보내기는 하겠는데] 변세의 안쪽 [길을] 따라 돌려보내는가 아니면 변세 바깥 [길을] 따라 돌려보내는가?” 오위장과 장수들은 멋대로 결정할 수 없어 [천자에게] 문의하였다. 조서를 내려 회답하길 변세 바깥 [길을] 따라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單于始用夏侯藩求地有距漢語，後以求稅烏桓不得，因寇略其人民，釁由是生，重以印文改易，故怨恨。乃遣右大且渠蒲呼盧訾等十餘人將兵衆萬騎，以護送烏桓爲名，勒兵朔方塞下。朔方太守以聞。

선우는 일찍이 하후번이 [흉노의] 땅을 요구하였을 때,¹¹¹⁹⁾ 한의 말을 거절한 일이 있다. 그 뒤에는 오환에게 [피포]세를 요구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오환의] 인민을 약탈하였다. [한과 흉노 사이의] 틈은 이로부터 생겼으며, 다시 인장의 글귀를 고친 일 때문에 [흉노는] 원한을 품게 되었다. 이에 우대저거(右大且渠) 포호로자(蒲呼盧訾) 등 10여 명을 보내 병사들 1만 기를 이끌고 걸으로는 오환 [포로들의] 호송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변세 아래에서 군대의 대오를 정돈하였다. 삭방군태수가 [이를] 보고하였다.

明年，西域車師後王須置離謀降匈奴，都護但欽誅斬之。置離兄狐蘭支將人衆二千餘人，毆畜產，舉國亡降匈奴，單于受之。狐蘭支與匈奴共入寇，擊車師，殺後成長，傷都護司馬，復還入匈奴。

1118) 앞에서 匈奴가 皮布稅를 납부하지 않은 오환을 습격하여, 부녀와 노약자 천 명을 납치해 와서 匈奴 땅의 좌측에 둔 일이 소개되었다.

1119) 成帝 때 大司馬 票騎將軍 王根이 張掖郡과 마주하고 있는 匈奴의 땅을 夏侯藩을 통하여 요구한 일이 있었다. 匈奴는 그곳이 穹廬와 수레를 만들 때 필요한 재목을 공급하는 선조 이래의 땅이기 때문에 감히 버릴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듬해¹¹²⁰) 서역 거사후국의 왕 수치리(須置離)가 흉노에게 항복할 것을 모의하자, 도호 단흠(但欽)¹¹²¹)이 그 죄를 물어 참수하였다. 수치리의 형 호란지(狐蘭支)가 무리 2천여 명을 이끌고 가축들을 몰고 나라를 들어 도망하여 흉노에게 항복하자, 선우는 그들을 받아들였다. 호란지와 흉노는 함께 [한을] 침략하였다. 거사[국]을 공격하고 후성(後成)[국]의 우두머리 장수를¹¹²²) 살해하였으며, 도호의 사마에게 부상을 입히고 다시 흉노로 돌아갔다.

時戊己校尉史陳良·終帶·司馬丞韓玄·右曲候任商等見西域頗背叛，聞匈奴欲大侵，恐并死，即謀劫略吏卒數百人，共殺戊己校尉刀護，遣人與匈奴南犁汗王南將軍相聞。匈奴南將軍二千騎入西域迎良等，良等盡脅略戊己校尉吏士男女二千餘人入匈奴，玄·商留南將軍所，良·帶徑至單于庭，人衆別置零吾水上田居。單于號良·帶曰烏桓都將軍，留居單于所，數呼與飲食。西域都護但欽上書言匈奴南將軍右伊秩訾將人衆寇擊諸國。莽於是分匈奴爲十五單于，遣中郎將蘭苞·副校尉戴級將兵萬騎，多齎珍寶至雲中塞下，招誘呼韓邪單于諸子，欲以次拜之。使譯出塞誘呼右犁汗王咸·咸子登·助三人，至則脅拜咸爲孝單于，賜安車鼓車各一，黃金千斤，雜繒千匹，戲戟；拜助爲順單于，賜黃金五百；傳送助·登長安。莽封苞爲宣威公，拜爲虎牙將；封級爲揚威公，拜爲虎賁將軍。單于聞之，怒：「先單于受漢宣帝恩，不可負也。今天子非宣帝子孫，何以得立？」遣左骨都侯·右伊秩訾王呼盧訾及左賢王樂將兵入雲中益壽塞，大殺吏民。是歲，建國三年也。

이 당시 무기교위(戊己校尉)¹¹²³)의 사(史)¹¹²⁴) 진량(陳良)과 종대(終帶)¹¹²⁵)·사마승(司馬

1120) 주석으로 新 建國 2년(10)이다.

1121) 但欽(?~13): 王莽시기의 관리이다. 전한 말기에 西域都護로 임명되었다. 建國 2년(10) 車師後國의 왕이 이반하였을 때 그를 참수하였다. 建國 5년(13) 焉耆國이 新으로부터 離叛하였을 때, 但欽도 擊殺되었다.

1122) “後成”은 車師의 小國 이름이다. “長”이란 그 나라의 長帥를 말한다.

1123) 戊己校尉: 『漢書』 「百官公卿表」에는 “元帝 初元元年(전48) 설치되었고, [屬官으로] 乘·司馬가 각 1인, 候 5인이 있으며, 秩 比六百石이다”라고 하였다. 丞이 比六百石이니 戊己校尉의 秩祿은 比二千石이 될 것이다. 戊己校尉는 車師前國의 王庭인 高昌의 交河城에 주로 설치되었다. 車師國에 屯田한 것은

丞) 한현(韓玄)·우곡후(右曲候)¹¹²⁶⁾ 임상(任商) 등은 서역 [국가들]이 배반하는 일이 많음을 보고, 흉노가 크게 침략하고자 한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모의하여 이졸(吏卒) 수백 명을 협박하여 함께 무기교위 초호(刀護)¹¹²⁷⁾를 살해하고, 사람을 보내 흉노 남리한왕(南犁汗王)의 남장군(南將軍)에게 알렸다. 흉노 남장군은 2천의 기병을 서역에 보내 진량 등을 맞이하였다. 진량 등은 무기교위 [휘하의] 관리와 군사, 남녀 2천여 명을 모두 협박하여 흉노로 들어갔다. 한현과 임상은 남장군의 주둔지에 남았고, 진량과 종대는 선우정으로 갔다. [다른] 사람들은 별도로 영오수(零吾水)¹¹²⁸⁾ 주변에 두어 경작하며 살게 하였다. 선우는 진량과 종대를 오환도장군(烏桓都將軍)이라 부르면서, 선우의 거처에 머물게 하였고 자주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며 어울렸다.

서역도호 단흠은 상서하여 흉노 남장군 우이질자(右伊秩訾)¹¹²⁹⁾가 무리를 이끌고 여러 나라를 약탈, 공격한다고 말하였다. 왕망은 이에 흉노를 크게 나누어 15명의 선우를 세우고자 하여, 중랑장 인포(閼苞)·부교위 대급(戴級)을 보내 군사 1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귀한 보물을 가득 실은 채 운중군의 변새 아래에 이르러, 호한야선우의 여러 아들을 유인하여 순서에 따라 [선우로] 임명하려 하였다. 통역관을 변새 바깥으로 보내 우리한왕 함과 함의 아들 등

宣帝 地節 4년(전66)이 처음이다. 그 뒤 元康 2년(전64) 匈奴가 車師國을 공격하자 漢은 車師國 屯田을 포기하고 車師國 사람들을 渠黎로 옮겼으며 交河城 일대가 匈奴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곳에 다시 戊己校尉를 설치한 것이 「百官公卿表」에 나오는 元帝 初元 元年 때의 일이다. 戊己校尉의 前身은 屯田校尉이며 屯田을 ‘戊己’로 개명한 것은 ‘戊己’가 匈奴 멸망을 상징하는 ‘以土填水’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呂太山, 2005: 75~76).

1124) 戊己校尉府의 屬吏로 보인다. 秦漢 시기에는 史라고 칭해지는 吏員이 많다. 公府에는 長史가 있고 郡府에는 卒史가 있다. 縣廷에는 令史·丞史·尉史 등이 있다. 여러 曹掾에서는 正職이 掾이고 副職이 史였다. 이들 掾史 아래에 또다시 令史가 있고 그 밖에 小史가 있으며 그 지위가 가장 낮다.

1125) 陳良·終帶(?~13): 두 사람 모두 王莽시대 西域 戊己校尉의 史였다. 建國 2년(10) 이들은 戊己校尉 刀護를 살해하고, 吏士 2천여 명을 협박하여 匈奴에 투항하였다. 그 후 3년 뒤, 烏累單于가 繼位하여 다시 新과 和親을 맺었다. 이때 王莽은 이들을 京師로 압송하여 불에 태워 죽였다.

1126) “司馬丞·右曲候”는 모두 戊己校尉府 소속의 軍官을 말한다.

1127) 원문은 “刀”인데, 顏師古는 ‘초(貂)’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1128) “零吾水”는 현재 어느 곳을 말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1129) 右伊秩訾: 匈奴의 官名으로 右伊秩訾王이라고도 한다. 한의 上郡 以西 지역에 거주한다. 左伊秩訾와 그 지위가 상응한다.

(登), 조(助) 등 3명을 띄어내었으며, 도착하자 협박하여 함은 효선우(孝單于)로 책봉하고 의자가 달린 수레와 고거(鼓車)¹¹³⁰⁾ 각각 1대, 황금 1천 근, 여러 종류의 비단 1천 필, 기를 매단 창[戲戟] 10자루 등을 사여하였다. 조는 순선우(順單于)로 책봉하고 황금 500근을 사여하였다. 조와 등을 장안으로 차례대로 보냈다. 왕망은 인포를 선위공(宣威公)으로 봉하고 호아장군(虎牙將軍)¹¹³¹⁾으로 임명하였다. 대급은 양위공(揚威公)으로 봉하고 호분장군(虎賁將軍)¹¹³²⁾으로 임명하였다.

[오주류]선우가 듣고 분노하여 말하였다. “선대의 선우가 한선제의 은혜를 입었으니 배반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의 천자는 선제의 자손이 아니니 어찌 [그의 손에서 선우로] 즉위할 수 있는가?”¹¹³³⁾ 좌골도후·우이질자왕 호로자(呼盧訾)와 좌현왕 낙(樂) 등을 보내 군대를 이끌고 운중군의 익수새(益壽塞)¹¹³⁴⁾로 침입하여 관리와 인민을 크게 학살하였다. 이해가 건국 3년(11)이다.

是後，單于歷告左右部都尉·諸邊王，入塞寇盜，大輩萬餘，中輩數千，少者數百，殺鴈門·朔方太守·都尉，略吏民畜產不可勝數，緣邊虛耗。莽新即位，怙府庫之富欲立威，乃拜十二部將率，發郡國勇士，武庫精兵，各有所屯守，轉委輸於邊。議滿三十萬衆，齎三百日糧，同時十道並出，窮追匈奴，內之于丁令，因分其地，立呼韓邪十五子。

이후 [오주류]선우는 좌우부의 도위, 변경지대의 여러 왕에게 통고하여 변새를 넘어 침략하도록 하였다. 큰 무리는 만여 명, 중간 무리는 수천, 작은 무리는 수백[씩] 안문군(鴈門郡)¹¹³⁵⁾·삭방군(朔方郡) 태수¹¹³⁶⁾·도위(都尉) 등을 살해하고 관리와 인민·가축 등을 약탈

1130) 鼓車: 북을 단 儀仗車를 말한다.

1131) 漢宣帝와 王莽 때 虎牙將軍을 두었다.

1132) 虎賁將軍: 虎賁이란 ‘猛虎처럼 달린다’는 말로 용맹함을 뜻한다. 虎賁校尉는 漢武帝 때 설치되었으나 虎賁將軍의 이름은 王莽 시기에 보인다.

1133) 찬탈자 王莽에게 單于로 임명되는 것은 宣帝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란 의미이다.

1134) 益壽塞: 현재 內蒙古 呼和浩特市 혹은 包頭 부근에 있었다.

1135) 鴈門郡: 원래 樓煩의 땅이었으며, 雁門山에서 이름을 따왔다. 전국시대 조나라 武靈王이 林胡·樓煩을

한 수가 헤아릴 수 없어 변경 지대가 텅 비었다. 왕망이 새롭게 즉위한 다음 부고(府庫)의 풍요함을 믿고 [외적에게] 위엄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에 12부의 오위장과 장수들을 임명하고¹¹³⁷⁾ 군국의 용사와 무기고의 날카로운 무기들을 징발하여 각각 주둔하여 지키는 지역을 할당하고, 차례대로 변경 지역으로의 수송을 맡겼다. 의논하기를 30만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3백 일의 군량을 확보하면, 동시에 10개의 길을 따라 출격하여 흉노를 압박해서 정령[의 땅]으로 몰아넣은 다음 [흉노의] 땅을 나누어 호한야선우의 15명의 아들을 [선우로] 세우고자 하였다.

莽將嚴尤諫：「臣聞匈奴爲害，所從來久矣，未聞上世有必征之者也。後世三家周・秦・漢征之，然皆未有得上策者也。周得中策，漢得下策，秦無策焉。當周宣王時，獫狁內侵，至于涇陽，命將征之，盡境而還。其視戎狄之侵，譬猶蟲蠹之螫，毆之而已。故天下稱明，是爲中策。漢武帝選將練兵，約齋輕糧，深入遠戍，雖有克獲之功，胡輒報之，兵連禍結三十餘年，中國罷耗，匈奴亦創艾，而天下稱武，是爲下策。秦始皇不忍小恥而輕民力，築長城之固，延袤萬里，轉輸之行，起於負海，疆境旣完，中國內竭，以喪社稷，是爲無策。今天下遭陽九之阨，比年饑饉，西北邊尤甚。發三十萬衆，具三百日糧，東援海代，南取江淮，然後乃備。計其道里，一年尚未集合，

격파한 뒤 郡을 두었다. 秦漢代 治所는 善無縣으로 현재 山西省 右玉縣의 남쪽이다. 雁門郡의 경계는 오늘날의 山西省 河曲・五寨・寧武 등 縣의 以北과 恒山 以西, 內蒙古 黃旗海・岱海 이남의 땅이다. 후한대에는 치소가 陰館縣으로 이동하였다(현재 山西省 朔州市 동남쪽 55리 夏關城이다). 三國時代에는 曹魏가 치소를 廣武縣(현재의 代縣 서남쪽 古城)으로 옮겼다. 北魏時代에는 司州와 肆州 등에 속했고, 北周시대에는 代州를 雁門郡이라 하였다. 그 후 隋唐代에는 代州 혹은 雁門郡 등으로 몇 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1136) 朔方郡: 전한 元朔 2년(전127)에 설치되었다. 치소는 朔方縣이다(현재 內蒙古 杭錦旗北什拉召 일대이다). 경계는 현재 內蒙古 伊克昭盟 서북부와 巴彥淖爾盟后套지구이다. 후한대에는 치소를 臨戎縣으로 옮겼다. 順帝 永和 5년(140)에 五原縣으로 옮겼다가 獻帝 建安 20년(215) 폐지되었다. 후한대 匈奴 南單于가 이곳에 屯牧하였다. 前秦 이후 폐지되었다가 北魏와 隋唐代에 다시 설치되었다.

1137) 王莽이 建國 1년(9) 가을 五威將 王奇 등 12인을 천하에 파견한 일을 말한다(『漢書』 권99中, 「王莽傳」: 4112).

兵先至者聚居暴露，師老械弊，勢不可用，此一難也。邊旣空虛，不能奉軍糧，內調郡國，不相及屬，此二難也。計一人三百日食，用糒十八斛，非牛力不能；牛又當自齋食，加二十斛，重矣。胡地沙鹵，多乏水草，以往事揆之，軍出未滿百日，牛必物故且盡，餘糧尚多，人不能負，此三難也。胡地秋冬甚寒，春夏甚風，多齋黓薪炭，重不可勝，食糒飲水，以歷四時，師有疾疫之憂，是故前世伐胡，不過百日，非不欲久，勢力不能，此四難也。輜重自隨，則輕銳者少，不得疾行，虜徐遁逃，勢不能及，幸而逢虜，又累輜重，如遇險阻，銜尾相隨，虜要遮前後，危殆不測，此五難也。大用民力，功不可必立，臣伏憂之。今旣發兵，宜縱先至者，令臣尤等深入霆擊，且以創艾胡虜。」莽不聽尤言，轉兵穀如故，天下騷動。

왕망의 장군 엄우(嚴尤)¹¹³⁸가 [다음과 같이] 간쟁하였다. “신이 듣건대 흉노가 [중국에] 해를 입히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만, 상고시기에 [그들을] 반드시 정벌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후대 주·진·한 세 왕조에서 정벌하였습니까만, 모두 상책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주(周)는 중책(中策), 한은 하책(下策)을 얻고, 진은 무책(無策)이었습니다. 주 선왕(宣王)¹¹³⁹ 때에 험윤(獫狁)¹¹⁴⁰이 안으로 침략해 경양(涇陽)¹¹⁴¹에 머물렀습니다. [선왕은]

1138) 嚴尤(?~23): 王莽 때의 大臣이다. 建國 3년(11) 王莽이 군대를 내어 匈奴를 공격할 때, 嚴尤는 討穢將軍이었다. 그 뒤 高句麗가 新을 離叛하자, 王莽은 嚴尤를 파견하여 공격한 뒤 고구려의 이름을 ‘下句麗’로 바꾸었다. 이 일로 嚴尤는 武建伯이 되었다. 天鳳 3년(16) 大司馬에 제수되었다. 6년에는 王莽의 西夷 정벌을 비판하였다가 免官되었다. 얼마 뒤 納言大將軍이 되어 綠林軍을 막았다. 更始 원년(23) 昆陽의 전투에서 패한 뒤, 汝南에 있는 漢 皇族 劉聖의 세력에 투항하여 大司馬의 지위를 얻었으나 얼마 뒤 피살되었다. 『匈奴傳』에는 嚴尤의 高句麗 공격이 등장하지 않지만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에 관련 기사가 있다. 당시 遼西尹 田譚이 邊塞를 侵寇한 고구려 군대를 추격하다가 피살되었는데, 嚴尤는 이 일을 지나치게 문제삼을 경우 도리어 高句麗가 背叛할 것이고 이에 夫餘·濊貊도 동조할 수 있기 때문에, 慰安策을 쓸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王莽은 듣지 않고 고구려를 치도록 하였다. 嚴尤는 고구려 장수 延丕를 피어 목을 베어 京師에 보냈다. 이에 王莽이 기뻐하여 고구려왕을 ‘下句麗侯’라고 改稱하고 천하에 布告하였으나, 이후 高句麗의 侵寇는 더욱 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漢書』 권99중, 『王莽傳』(4130)에는 嚴尤가 高句麗侯 騶를 유인 살해했다고 하였다. ‘我將 延丕를 살해했다는 『三國史記』와 다르다. 이 점에 대하여 이병도는 『漢書』의 기록이 誤傳 내지 과장이 아닐까 추정하였다(『國譯 三國史記』 권13: 227).

장군에게 명하여 정벌하게 하였으나, 변경을 보존한 뒤 돌아왔을 뿐입니다. 용적의 침입을 보길 마치 모기나 등애가 쏘는 것에 비유하여 쫓아낼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은] 그 현명함을 칭양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책입니다. 한 무제 때에는 장수를 선발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옷가지와 짐] 식량을 소량만 가지고서 [홍노의 진영] 깊숙이 멀리 들어가 지켰습니다. 비록 [전투에] 승리하고 [적의 수급을] 얻는 공적을 세운 일은 있었습니다만 오랑캐는 그때마다 보복하였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그 참화는 30여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중국은 피폐해졌으며 홍노 또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천하가 그 무위(武威)를 칭송하였으나, 이는 하책(下策)입니다. 진시황은 작은 수치를 참지 못하고 민력을 가볍게 여겨 견고한 장성(長城)을 축조하였는데 그 길이가 만 리(萬里)나 이어졌습니다. [공사 물자의] 운반 행렬은 해안 지대로부터 시작되었고 강역의 경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중국의 내부는 고갈되어 사직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는 무책(無策)입니다.

지금 천하는 양구(陽九)의 액년¹¹⁴²을 만나 매년 기근이 들고 있습니다. 서북 변경지대는

1139) 周 宣王(재위 전827~전782): 西周 제11대 王이다. 姬姓이고 이름은 靜이다. 周 厲王의 아들이다. 厲王 때 國人的 난이 일어나자 대신 召穆公 虎가 太子 靜을 구해 내었다. 共和 14년(전828) 厲王이 사망하자, 대신들은 靜을 王으로 옹립하였다. 宣王은 즉위한 뒤 召穆公과 周定公, 尹吉甫 등 대신을 등용하여 朝政을 정비하여 일시 중흥기를 가져왔다. 宣王의 주요 공적은 周朝를 침공한 戎狄와 淮夷를 토벌한 것이다. 재위 5년에는 尹吉甫와 獫狁(西戎)을 정벌하였다. 江漢 지구를 침공한 淮夷는 召穆公 등에게 명령하여 토벌하게 하고, 淮水 유역의 최강대국인 徐國을 복종시켰다. 뿐만 아니라 荊蠻도 정벌하였다. 南土 지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舅·弟를 봉건하였다. 그러나 宣王의 중흥기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재위 30년 이후에는 戎과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고,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太原에서 ‘料民’하기도 하였다. 宣王은 모두 46년간 재위하였고 幽王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幽王 때 西周는 멸망하였다.

1140) 獫狁: 지금의 섬서성, 감숙성 북부와 內蒙古 자치구 서부에 토착하였던 종족을 말한다. 『史記』에는 “獫狁”을 “獫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史記集解』에서 晉灼은 “堯임금 때는 葷粥, 周代에는 獫狁, 秦代에는 匈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史記』 권110, 「匈奴列傳」: 2880).

1141) “涇陽”은 현재 섬서성 중부 涇河의 서북 지역이다. 본래 西周의 邑이었고, 戰國時代 秦나라는 이곳에 도읍을 세웠다.

1142) 陽九: 陰陽五行에 기초한 術數學에서는 天文과 曆數에 따라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데, “陽九”란 陽의 五厄과 陰의 四厄을 합친 재난을 말한다. 『漢書』(권21上) 「律曆志」에는 “『周易』의 九扈說에 따르면, 元年에 진입한 뒤, 106년 동안 旱災가 9차례 발생하고, 그 다음 374년 동안에는 水災가 9차례 발생하고 …… 모두 4617년이 되면 一元이 結束된다. 4560년을 거치면서 재해가 발생한 해는 57년이

특히 심합니다. 30만의 군대를 일으키고 300일 먹을 수 있는 군량을 갖추려면, 동쪽으로 발해와 태산[이 있는 청주(靑州) 지역¹¹⁴³]의 물자를 끌어오고, 남쪽으로 양자강과 회수 지역[의 물자]를 끌어온 연후에야 구비할 수 있습니다. [물자가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다 모을 수 없습니다. 먼저 도착한 군사들은 노천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모여 있게 되어, 병사들은 지치고 병장기도 손상되어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려운 점입니다. 변경의 [인구와 물자가] 비게 되면 군량을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안으로 군국에서 징발해야 하는데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어려운 점입니다. 한 사람이 300일 동안 먹는 식량을 계산하면 말린 밥 18곡이 필요합니다. 소의 힘이 없으면 [군량 수송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는 스스로 먹을 건초도 짊어져야 하기에 20곡이 추가되어 [그 짐이] 무겁습니다. 오랑캐 지역은 소금기가 많은 사막이어서 물과 풀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 일을 가지고 따져보면 군대가 출동하고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소들은 필경 모두 죽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식량이 여전히 많아서 사람들이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난점입니다. 오랑캐 땅은 가을과 겨울에 매우 춥고 봄과 여름에는 바람이 심합니다. 가마솥이나 아가리가 큰 솥,¹¹⁴⁴ 뿔나무와 솥 등을 많이 신고서는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말린 밥과 마실 물은 4계절을 지나게 되면 [부패하여] 군사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거에 오랑캐를 정벌할 때에는 100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정벌하려는]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형편과 힘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난점입니다. 군수품들도 자연히 따르게 되는데 가볍고 날랜 병사들이 적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랑캐가 서서히 도주하여도 따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행히 적과 마주친다고 할지라도 [무거운] 짐에 얽매일 것입니다. 만일 험난한 곳을 만나면 말의 재갈과 꼬리가 한 줄로 늘어서듯 [부대가 한 줄로 길게 늘어설 터인데],

다”(『漢書』: 948)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 “陽九”를 太乙數라고 하여 456년 동안 한 번의 ‘陽九’, 288년 동안 한 번의 ‘百六’의 때가 찾아와 재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1143) 원문은 “海代”이다. 胡三省은 여기서 ‘代’는 응당 ‘岱’이고 ‘岱山’을 뜻한다고 했다(『資治通鑑』: 1192). 岱山은 산둥성 태안시에 있는 泰山의 별칭이다. 『尙書』 「禹貢」편에 “海岱惟靑州”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渤海와 泰山 사이의 지역이 靑州”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海岱”란 靑州 지역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144) 원문의 “鬪”는 솥의 옛 글자이다. “鍤”은 아가리가 큰 솥을 말한다.

적군이 요격하여 [대오의] 앞과 뒤를 차단하면 그 위태로움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난점입니다. 백성의 힘을 크게 사용하고도 공을 반드시 세울 수 없다면, 신은 옳드려 그 일을 근심합니다. 지금 이미 군대를 일으켰으니 응당 먼저 [적지에] 도착한 군사들을 출동 시키고, 신 엄우 등으로 하여금 [이들을 이끌고] 깊이 침투하여 번개처럼 공격하게 하여, 오랑캐 적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도록 하소서.”

왕망은 엄우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전처럼 군대와 식량을 [변경지대로] 운송하였다. 천하가 큰 혼란에 빠졌다.

咸既受莽孝單于之號，馳出塞歸庭，具以見脅狀白單于。單于更以爲於粟置支侯，匈奴賤官也。後助病死，莽以登代助爲順單于。

[흉노의 우리한왕(右犁汗王)] 함은 이미 왕망이 [사여한] 효선우의 칭호를 받은 다음, 말을 몰아 변새 밖으로 나가 흉노정으로 돌아갔다. [신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상황을 모두 [오주류]선우에게 아뢰었다. [오주류]선우는 다시 [그를] 어숙치지후(於粟置支侯)로 삼았는데¹¹⁴⁵⁾ 흉노의 천한 관직이다. 나중에 조(助)가 병으로 사망하자 왕망은 조를 대신하여 등(登)을 순선우(順單于)로 임명하였다.

厭難將軍陳欽·震狄將軍王巡屯雲中葛邪塞。是時，匈奴數爲邊寇，殺將率吏士，略人民，毆畜產去甚衆。捕得虜生口驗問，皆曰孝單于咸子角數爲寇。兩將以聞。四年，莽會諸蠻夷，斬咸子登於長安市。

염난장군(厭難將軍)¹¹⁴⁶⁾ 진흠(陳欽)¹¹⁴⁷⁾·진적장군(震狄將軍)¹¹⁴⁸⁾ 왕순(王巡)¹¹⁴⁹⁾은 운중

1145) 『資治通鑑』에는 “粟”이 아니라 “栗”로 되어 있다(『資治通鑑』 권37: 1193).

1146) 厭難將軍: ‘厭難’이란 厭勝之術에 관계된 이름으로 보인다. 王莽의 新朝 때 설치되었다.

1147) 陳欽(?~15): 王莽 때의 장군으로 字는 子佚이다. 蒼梧(현재 광서성 梧州) 사람이다. 전한 말 胡常에게서 『左傳』을 전수받아 다시 王莽에게 전하였다. 王莽이 황제가 된 뒤 厭難將軍에 임명되었다. 匈奴의

군의 갈사새(葛邪塞)¹¹⁵⁰에 주둔하였다. 이 당시 흉노는 여러 차례 변경지대를 침략하여 장수¹¹⁵¹와 관리·사병들을 살해하고 인민을 납치하며, 몰고 가버린 가축들이 매우 많았다. 사로잡은 오랑캐 포로들을 심문하니 모두 효선우 함의 아들 각(角)이 여러 차례 노략질하였다 고 말하였다. 두 명의 장군 [진흙·왕순]이 [왕망에게] 보고하였다.

[건국] 4년(12) 왕망은 여러 만이(蠻夷) [수장들을] 모아놓고 장안의 저자에서 [시자(侍子)로 와 있던] 함의 아들 등(登)을 참수하였다.

初，北邊自宣帝以來，數世不見煙火之警，人民熾盛，牛馬布野。及莽撓亂匈奴，與之構難，邊民死亡係獲，又十二部兵久屯而不出，吏士罷弊，數年之間，北邊虛空，野有暴骨矣。

일찍이 북방의 변경지대는 선제 이래로 여러 대에 걸쳐서 봉화의 연기가 [오르는] 경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인민이 크게 번성하였고 소와 말이 들판을 덮었다. [그 뒤] 왕망이 흉노를 교란하여 더불어 화난을 일으키니 변경의 인민들은 죽거나 잡혀가게 되었다. 또한 [왕망이 징집한] 12부(部)의 군단은¹¹⁵² 장기간 [변새에] 주둔하면서 벗어나지 못하자 관리

侍子를 참수하도록 하였다가 天鳳 2년(15) 하옥되어 자살하였다.

1148) 震狄將軍: 震狄이란 戒狄을 두렵게 한다는 말이다. 王莽 시기에 설치되었다.

1149) 王巡(?~23): 王莽 때의 장군이다. 震狄將軍으로 임명되어 雲中郡에 주둔하면서 匈奴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天鳳 연간(14~19) 중 王莽과 匈奴가 화친하게 되자 王莽은 邊將들을 철수시켰다. 王巡은 조정에 들어와 車騎將軍으로 임명되었다. 綠林軍과 赤眉軍이 봉기하자 王巡은 太師 王匡을 따라 진압에 나섰으나 여러 차례 패하였다. 地皇 4년(23) 更始軍이 장안으로 공격해 들어오자 王巡은 王莽을 호위하고 漸臺로 도망하였다가 피살되었다.

1150) 葛邪塞의 현재 지명이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1151) 앞에서는 “將率”을 ‘五威將과 將帥’를 지칭하는 특수한 말로 번역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장수’의 의미로 번역했다.

1152) 建國 2년(10) 12월 왕망은 흉노와의 전쟁을 위하여 立國將軍 孫權 등 12將帥로 하여금 10道로 동시에 진군시켰다(『漢書』 권99中: 4121). 원문의 “十二部兵”이란 이 12將帥가 통솔한 부대로 보인다. 이해 왕망은 전쟁 준비를 위하여 무리한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백성의 큰 원성을 산 결과 군 주둔지 并州와 平州 등을 중심으로 流亡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任仲燦, 1995:

와 사병들은 피폐해져 갔다. 수년 사이에 북방의 변경지대는 텅 비어 버리고 들판에는 시체가 이 뿔굴었다.

烏珠留單于立二十一歲，建國五年死。匈奴用事大臣右骨都侯須卜當，即王昭君女伊墨居次云之壻也。云常欲與中國和親，又素與咸厚善，見咸前後爲莽所拜，故遂越輿而立咸爲烏累若鞮單于。

오주류선우는 즉위한 지 21년이 되어 건국 5년(13)에 사망하였다.¹¹⁵³⁾ 흉노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대신 우골도후 수복당(須卜當)은 왕소군의 딸 이묵거차운(伊墨居次) 운(云)의 남편이다.¹¹⁵⁴⁾ 운은 늘 중국과 더불어 화친하고자 하였다. 또한 평소에 함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함이 여러 차례 왕망으로부터 [선우로] 책봉받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輿)를 건너뛰고 함을 오루약제선우(烏累若鞮單于)로 세웠다.¹¹⁵⁵⁾

烏累單于咸立，以弟輿爲左賢王。烏珠留單于子蘇屠胡本爲左賢王，以弟屠耆闕氏子盧渾爲右賢王。烏珠留單于在時，左賢王數死，以爲其號不祥，更易命左賢王曰「護

47).

1153) 즉위한 지 21년째 되는 해 건국 5년(13)에 사망하였다고 하니, 역산하면 烏珠留單于是 成帝 綏和 1년(전8)에 즉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54) 王昭君은 呼韓邪單于와 먼저 혼인하여 아들 하나(伊屠智牙師)를 낳았다. 呼漢邪單于가 사망한 다음 復株鞮單于의 처가 되어 두 딸을 낳았다. 큰딸은 須卜居次 云이고 둘째 딸은 當于居次이다.(匈奴傳 원문에는 둘째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匈奴에서 '居次'란 漢의 '公主'와 같은 말이다. 큰딸 云은 처음에는 須卜居次였다가 伊墨居次라는 지위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云은 남편 右骨都侯 須卜當과 共謀하여 烏累若鞮單于를 옹립하고 王莽과 和親관계를 맺는 데 노력하였다. 그 후 王莽에 의하여 長安에 억류되었다가 반란군에게 피살된다.

1155) 번역문에 '輿를 건너뛰고'라고 하였다. 비록 咸과 輿 둘 가운데 咸이 형이지만, 그가 於栗置支侯라는 賤官으로 떨어졌다가 右賢王인 輿를 제치고 單于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한다(內田吟風, 1971: 139). 咸은 둘째 闕氏의 아들이고 輿는 다섯째 闕氏의 아들이다. 顏師古는 둘째 闕氏는 呼衍王의 둘째 딸인 大闕氏이고 다섯째 闕氏는 呼韓邪單于의 闕氏라고 하였다.

于」。護于之尊最貴，次當爲單于，故烏珠留單于授其長子以爲護于，欲傳以國。咸怨烏珠留單于貶賤已號，不欲傳國，及立，貶護于爲左屠耆王。云·當遂勸咸和親。

오루선우 함은 즉위한 뒤, 동생인 여를 좌록리왕으로 삼았다. 오주류선우의 아들 소도호(蘇屠胡)는 본래 좌현왕이었다. 동생 도기연지(屠耆闕氏)의 아들 노훈(盧渾)을 우현왕으로 삼았다. 오주류선우가 살아 있었을 때 좌현왕이 여러 차례 죽었다. 그래서 그 호칭이 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명칭을 바꾸어 좌현왕을 “호우(護于)”라고 하였다. 호우[의 자리]가 가장 존귀하여 다음으로 선우가 될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주류선우는 그의 장자에게 호우[의 자리]를 주어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함은 오주류선우가 자기의 호칭을 [어속치지 후로] 천하게 낮추어 나라를 물려주지 않으려 했음을 원망하였다. 그래서 즉위하자 호우를 낮추어 좌도기왕(左屠耆王)으로 바꾸었다. [왕소군의 딸과] 운과 그 남편 당은 마침내 함에게 화친을 권유하였다.

天鳳元年，云·當遣人之西河虎猛制虜塞下，告塞吏曰欲見和親侯。和親侯王歙者，王昭君兄子也。中部都尉以聞。莽遣歙·歙弟騎都尉展德侯颯使匈奴，賀單于初立，賜黃金衣被繒帛，給言侍子登在，因購求陳良·終帶等。單于盡收四人及手殺校尉刀護賊芝音妻子以下二十七人，皆械檻付使者，遣廚唯姑夕王富等四十人送歙·颯。莽作焚如之刑，燒殺陳良等，罷諸將率屯兵，但置游擊都尉。單于貪莽賂遺，故外不失漢故事，然內利寇掠。又使還，知子登前死，怨恨，寇虜從左地入，不絕。使者問單于，輒：「烏桓與匈奴無狀黠民共爲寇入塞，譬如中國有盜賊耳！咸初立持國，威信尚淺，盡力禁止，不敢有二心。」

천봉(天鳳) 원년(14), 운과 당은 서하[군](西河郡) 호맹[현](虎猛縣)의 제로새(制虜塞)로¹¹⁵⁶⁾ 사람을 보내 변세의 관리에게 화친후(和親侯)를 알현하고 싶다고 고하였다. 화친후

1156) “虎猛”은 현의 이름이다. 制虜塞는 그 경계 안에 있다. 西河郡은 漢武帝 元朔 4년(전125)에 설치되었다. 치소는 平定縣(현재 內蒙古 伊金霍洛旗 동남 경계)이다. 일설에는 富昌縣이라고도 한다. 관할 戶數는

왕흠이란 사람은 왕소군의 조카다. 중부도위(中部都尉)¹¹⁵⁷⁾가 이 일을 아뢰었다. 왕망은 왕흠과 왕흠의 동생인 기도위(騎都尉)¹¹⁵⁸⁾ 전덕후(展德侯) [왕]립(王颺)을 흉노에 사신으로 보내 선우의 새로운 즉위를 축하하고, 황금과 의복, 비단 등을 사여하였다. [건국 4년에 참수한 오루선우의 아들] 시자(侍子) 등(登)이 살아 있다고 거짓말하고, [흉노에 망명한] 진량과 종대 등을 돈을 주고 데려오려 하였다.

선우는 [진량 등] 네 사람과 [무기]교위 초호를 손으로 때려죽인 역적 지음(芝音)¹¹⁵⁹⁾의 처와 자식 이하 27명을 다 잡아들여 모두 형틀을 채우고 우리에게 가둔 다음 사신에게 넘겼다. 주유고석왕(廚唯姑夕王) 부(富) 등 40인을 보내 왕흠과 전덕후 [왕]립 등을 진송하였다. 왕망은 분여(焚如)의 형벌¹¹⁶⁰⁾을 만들어 진량 등을 태워 죽였다.

[그리고 변경의] 여러 장수들과 둔병을 폐지하고 다만 유격도위(游擊都尉)만을 두었다.¹¹⁶¹⁾

13만 6천 390이고 口數는 69만 8천 836이다. 36개의 현을 관할하였다. 虎猛縣은 西部都尉의 치소이다. 後漢, 曹魏시대에는 치소의 위치가 바뀌었고, 西晉시대에는 西河國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西河郡으로 바뀌었다. 制虜塞의 위치는 현재 內蒙古 伊金霍洛旗 서남의 紅慶河 古城에 비정되고 있다.

1157) 中部都尉: 秦代 이래 漢武帝 이전까지 邊郡에 설치된 都尉는 오로지 蠻夷를 관할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郡守의 지휘권 아래 속해 있기도 했고, 그러지 않기도 하였다. 마치 후한대 屬國과 같았다. 그러나 漢武帝 이후 邊郡에 모두 郡守가 설치되고, 都尉는 漢의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신 屬國都尉를 신설하여 蠻夷 관장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嚴耕望, 1961: 160). 都尉는 1郡 안에 여러 개가 설치되는데, 東·西·南·北·中 등의 방위가 이름 앞에 오고 이를 五部都尉라고 한다. 『漢書』 「地理志」에 따르면 西河郡에는 屬國都尉(치소는 美稷縣), 南部都尉(塞外 翁龍·埤是), 西部都尉(虎猛縣), 北部都尉(千章·增山) 등이 보일 뿐 中部都尉는 없으나, 위의 기록처럼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158) 騎都尉: 騎都尉의 설치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진한고체기 靳歙이 騎都尉로 劉邦을 도와 三秦 지역을 평정하였다. 전한시기 秩祿 比二千石의 무관으로 皇帝를 측근에서 시위하며 많은 경우 侍中을 加官으로 갖는다. 宣帝代 西域都護를 두고 騎都尉를 그 자리에 임명하였는데, 이후 그것이 제도가 되었다.

1159) 네 사람은 戊己校尉 刀護 살해를 주도한 陳良과 終帶·韓玄·任商 등을 말할 것이다. “芝音”은 직접 刀護를 죽인 戊己校尉府의 軍吏로 보인다.

1160) 원문의 “焚如之刑”에 대하여 應劭는 『易經』에는 焚如, 死如, 棄如라는 말이 있어 王莽은 그에 따라 刑名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如淳은 焚如, 死如, 棄如 등이 모두 불효자식을 [다스리는 형벌을] 말하며 이들은 부모가 기를 수 없고, 친구들이 포용할 수 없으니, 燒殺한 뒤 버린다고 하였다.

1161) 天鳳원년(14) 변경지역에는 큰 기근이 들어 ‘人相食’의 참극이 벌어졌다. 諫大夫 如普가 변경의 군부대를 시찰하고 돌아와 “軍士들이 장기간 주둔하면서 추위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邊郡에서는 그들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지금 單于가 새롭게 화친의 관계를 맺으니, 응당 변경의 주둔군을 철수해

선우는 왕망이 보낸 뇌물을 탐내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한의 고사를 어기지 않는다 하면서도,¹¹⁶²⁾ 속으로는 약탈을 이롭게 여겼다. 또한 [신에 보냈던] 사신이 돌아온 뒤 아들 등이 이미 죽었음을 알고 원한을 품었다. [그래서] 노략질하는 오랑캐가 [흉노의] 좌지(左地)로부터¹¹⁶³⁾ 침입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신의] 사자가 선우에게 혈문하면 그때마다 말하였다. “오환과 흉노의 무례하고 교활한 인민들이 함께 [중국을] 침공하여 변세 안으로 들어갔으니, 마치 중국 안에 도적이 있는 것과 같을 뿐이오! 함이 처음 즉위하여 국가를 장악하였을 때 위신이 아직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금지하였으며, 감히 두 마음을 품지 않았소.”

天鳳二年五月，莽復遣歙與五威將王咸率伏黯·丁業等六人，使送右廚唯姑夕王，因奉歸前所斬侍子登及諸貴人從者喪，皆載以常車。至塞下，單于遣云·當子男大且渠奢等至塞迎。咸等至，多遺單于金珍，因諭說改其號，號匈奴曰「恭奴」，單于曰「善于」，賜印綬。封骨都侯當爲後安公，當子男奢爲後安侯。單于貪莽金幣，故曲聽之，然寇盜如故。咸·歙又以陳良等購金付云·當，令自差與之。十二月，還入塞，莽大喜，賜歙錢二百萬，悉封黯等。

천봉 2년(15) 5월 왕망은 다시 왕흠과 오위장 왕함(王咸),¹¹⁶⁴⁾ 장수 복암(伏黯)¹¹⁶⁵⁾과 정업

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校尉 韓威의 반대가 있기는 하였으나, 王莽은 如普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경의 諸將을 철수시키고, 아울러 陳歙 등 18인을 면직시켰다(『資治通鑑』 권37: 1203). 이때 유일하게 철수시키지 않은 游擊都尉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王莽이 將軍으로 임명한 韓威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162) “漢故事”란 한과 匈奴가 和親을 맺을 경우, 한에서는 匈奴가 필요로 하는 歲幣를 제공하는 대신 匈奴는 한의 변경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약속을 의미할 것이다.

1163) 左地: 匈奴의 동부 지역을 말한다(內田吟風, 1971: 140).

1164) 王咸(?~15): 前漢의 儒生으로 濟南 사람이다. 哀帝 말기에 博士弟子로 長安에 就學하였다. 당시 司隸校尉 鮑宣이 丞相 孔光의 속료를 치죄한 일이 발단이 되어 下獄되자, 王咸은 太學에서 직접 諸生 천여 명을 모아 반대시위를 주도하여 鮑宣의 목숨을 구해냈다. 王莽 치세인 天鳳 2년(15)에는 匈奴에 사신으로 가서 單于의 이름을 ‘善于’로 고쳤다. 임무를 마친 뒤 귀환 길에 병으로 죽었다.

1165) 伏黯: 琅邪 사람이다. 五威將 휘하의 장수로 임명되어 天鳳 2년 匈奴에 出使하였다. 귀환한 뒤 王莽은

등 6인을 보내 우주유고석왕(右廚唯姑夕王)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전에 참수한 시자 등과 [그를] 수행했던 여러 귀인들의 영구를 정중히 돌려보내도록 하였는데, 모두 상거(常車)¹¹⁶⁶)에 실었다. 변새 아래에 도착하자 선우는 운과 수복당 사이에서 난 아들 대저거(大且渠) 사(奢) 등을 변새에 보내어 맞이하였다. 왕함 등이 도착하여 선우에게 많은 금품과 보배를 주었다. 아울러 그들의 호칭을 바꾼 것에 대하여 설득하였는데, 흉노를 “공노(恭奴)”, 선우를 “선우(善于)”라고 불렀다. 인장과 인장끈을 사여하였는데, 골도후 당을 후안공(後安公), 당의 아들 사를 후안후(後安侯)로 삼았다. 선우는 왕망의 금은보화를 탐냈기 때문에 [뜻을] 굽혀 따랐다. 하지만 침략과 도적질은 이전과 같았다.

왕함과 왕흡은 또한 진량 등 때문에 내걸었던 돈을 운과 당에게 주었는데, 그들 스스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게 하였다.

12월 [신의 사신 일행이] 돌아와 변새 안으로 들어왔다. 왕망은 크게 기뻐하여 왕흡에게 20만 전을 사여하고, 복암 등 모두에게 작위를 봉하였다.

單于咸立五歲，天鳳五年死，弟左賢王興立，爲呼都而尸道皋若鞮單于，匈奴謂孝曰「若鞮」。自呼韓邪後，與漢親密，見漢諡帝爲「孝」，慕之，故皆爲「若鞮」。

선우 함은 즉위한 지 5년째인 천봉 5년에 사망하였다. 동생 좌현왕 여(興)가 즉위하여 호도 이시도고약제선우(呼都而尸道皋若鞮單于)가 되었다. 흉노인들은 효(孝)를 “약제(若鞮)”라고 말하였다. 호한야선우 이래 한과 친밀해지면서 한에서 황제의 시호에 “효”자를 넣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였다. 그래서 모두 “약제”라고 하였다.

出使者들에게 크게 상을 내렸는데, 伏黯은 子爵을 수여받았다.

1166) 원문 “常車”에 대하여 劉德은 “縣易車”라고 하고 司農에서 돈을 내어 수레를 구입하는데, 각 縣에서 차례대로 소와 바꾸었다고 하였다. 일역본에서는 “常車”가 官用 常設의 乘用牛車라 하였다(內田吟風, 1971: 140). 다른 해석으로 “常車”를 儀仗車로 보기도 하는데, 수레 위에 해와 달의 모습을 그려 넣은 大常旗를 꽂아 두기 때문에 常車라고 불렀다 한다.

呼都而尸單于與旣立，貪利賞賜，遣大且渠奢與云女弟當(戶)[于]居次子醯犢王俱奉獻至長安。莽遣和親侯歛與奢等俱至制虜塞下，與云·當會，因以兵迫脅，將至長安。云·當小男從塞下得脫，歸匈奴。當至長安，莽拜爲須卜單于，欲出大兵以輔立之。兵調度亦不合，而匈奴愈怒，並入北邊，北邊由是壞敗。會當病死，莽以其庶女陸遂任妻後安公奢，所以尊寵之甚厚，終爲欲出兵立之者。會漢兵誅莽，云·奢亦死。

호도이시선우 여가 즉위한 뒤, [신에서] 상으로 내리는 물건을 담내어 대저거 사와 운의 여동생인 당호거차(當戶居次)의 아들 혜독왕(醯犢王)으로 하여금 함께 [재물을] 봉헌하기 위해 장안으로 가게 하였다. 왕망은 화친후 왕흡에게 대저거 사 등과 함께 제로새 아래에 이르러 운과 수복당과 만나게 하였다. 이때 군대로 협박하여 장안으로 데려왔다. [다만] 운과 수복당의 어린 아들은 변세 지역에서 탈출하여 흉노로 돌아갔다. 수복당이 장안에 도착하자 왕망은 수복선우(須卜單于)로 삼았고, 대군을 출동시켜서 그를 도와 [흉노의 선우로]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군대의 징발이 뜻대로 되지 못하였고 흉노 또한 더욱 분노하여 여러 갈래로 북변에 침입하였다. 북변 지역은 이 일로 크게 파괴되었다.

이때 마침 수복당이 병으로 죽었다. 왕망은 서출의 딸인 육록임(陸遂任)¹¹⁶⁷을 후안공 사의 처로 삼았다. 그래서 [후안공 사를] 존중하고 총애하는 바가 매우 두터웠으며 결국에는 군대를 보내어 [선우로] 옹립하려 한 사람이었다.¹¹⁶⁸ 마침 한의 [반란] 군대가 왕망을 주살하였고 운과 사 또한 피살되었다.

更始二年冬，漢遣中郎將歸德侯颯·大司馬護軍陳遵使匈奴，授單于漢舊制璽綬，王侯以下印綬，因送云·當餘親屬貴人從者。單于與驕，謂遵·颯：「匈奴本與漢爲兄弟，匈奴中亂，孝宣皇帝輔立呼韓邪單于，故稱臣以尊漢。今漢亦大亂，爲王莽所篡，

1167) 陸遂任: 李奇에 따르면 '陸遂'은 문의 이름이다. 王莽은 公主를 '任'이라고 고쳐 불렀다. 奢는 본래 侯였는데, 王莽이 딸을 시집보낸 뒤, 그의 작위를 公으로 올렸다고 해설하였다.

1168) 須卜當을 須卜單于로 삼으려던 계획이 좌절되자 그의 아들 奢를 다시 匈奴 선우로 옹립하려 한 것이다.

匈奴亦出兵擊莽，空其邊境，令天下騷動思漢，莽卒以敗而漢復興，亦我力也，當復尊我！」遵與相掌距，單于終持此言。其明年夏，還。會赤眉入長安，更始敗。

경시 2년(24) 겨울 한은 중랑장 귀덕후(歸德侯) 왕립(王颺),¹¹⁶⁹⁾ 대사마호군(大司馬護軍)¹¹⁷⁰⁾ 진준(陳遵)¹¹⁷¹⁾을 흉노에 사신으로 보냈다. 선우에게 한의 과거 규격에 따른 옥새와 인장 끈, 그리고 왕·후 이하의 인장과 인장 끈을 사여하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직] 남아 있던 운과 당 등의 친숙과 귀인 등 시종자들도 보냈다.

[호도이시]선우 여는 교만하여 [다음과 같이] 진준과 왕립에게 말하였다. “흉노는 본래 한과 형제이다. 흉노의 [역사 가운데] 중간 시기에 난리가 발생하자 효선황제의 도움으로 호한야선우가 즉위하였다. 그래서 칭신하고 한을 존승하였다. 지금은 한에서 또한 큰 내란이 발생하여 왕망에게 [황제의 자리가] 찬탈되자, 흉노 또한 군대를 내어 왕망을 공격하여 그 변경을 텅 비게 함으로써, 천하에 소동이 일어나 한을 그리워하도록 하였다. 왕망이 마침내 패하고 한이 다시 흥기한 것은 또한 나의 힘이니 응당 나를 다시 존승해야 한다!” 진준은 [선우와] 서로 버티었는데 선우는 끝내 이 주장을 견지하였다.

그 이듬해 여름 [사신 일행은] 돌아왔다. 마침 적미(赤眉)¹¹⁷²⁾[군]이 장안으로 진입하였고

1169) 地皇 4년(23) 更始帝의 군대가 장안에 진입한 뒤, 王颺은 항복하여, 中郎將의 관직을 얻고 歸德侯에 봉해졌다.

1170) 大司馬護軍: 大司馬의 屬官으로 大司馬를 보좌하고 군대의 사무를 監護하는 임무를 맡는다.

1171) 陳遵(?~25): 字는 孟公이고 杜陵 사람이다. 祖父는 宣帝와 元帝 때 太原太守, 京兆尹, 廷尉 등을 역임한 陳遂다. 陳遵은 어려서 고아로 자랐으며 성품이 활달하고 얽매이는 것이 없었다. 키가 8척 여에 달하고 긴 머리에 큰 코를 지닌 훌륭한 용모였다. 公府掾史를 거쳐 三輔의 郁夷縣令이 되었고, 그 후 校尉로 趙朋 등의 도적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워 嘉威侯로 봉해졌다. 그의 명성이 높아 京師에 오는 郡國 豪傑들이 모두 그의 집에 찾아왔는데, 술을 매우 좋아하였다. 傳記를 대략 섭렵하고 文辭에 능하였으며 글씨도 잘 썼다. 王莽은 그의 재능을 아껴 哀帝와 平帝 시기에 河南太守로 기용되었다. 임기 중 과부 집안에 들어가 음주하고 문란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免官되었다. 오래 뒤 다시 九江과 河內의 都尉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면관된다. 그 후 王莽이 패망한 뒤, 更始帝의 군대가 장안에 들어왔을 때 대신들이 陳遵을 大司馬護軍으로 추천하였다. 그리고 王颺과 함께 匈奴에 出使하였다. 使行에서 돌아올 때, 마침 更始帝가 패하여 陳遵은 朔方郡에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술에 취한 채 피살되었다. 그의 열전이 『漢書』 권92 「游俠傳」에 있다.

경시제¹¹⁷³⁾는 패하였다.

贊：書戒「蠻夷猾夏」，詩稱「戎狄是膺」，春秋「有道守在四夷」，久矣夷狄之爲患也。故自漢興，忠言嘉謀之臣曷嘗不運籌策相與爭於廟堂之上乎？高祖時則劉敬，呂后時樊噲·季布，孝文時賈誼·朝錯，孝武時王恢·韓安國·朱買臣·公孫弘·董仲舒，人持所見，各有同異，然總其要，歸兩科而已。縉紳之儒則守和親，介胄之士則言征伐，皆偏見一時之利害，而未究匈奴之終始也。自漢興以至於今，曠世歷年，多於春秋，其與匈奴，有脩文而和親之矣，有用武而克伐之矣，有卑下而承事之矣，有威服而臣畜之矣，詘伸異變，強弱相反，是故其詳可得而言也。

[반고(班固)는] 밝혀¹¹⁷⁴⁾ 말한다. 『서(書)』¹¹⁷⁵⁾에서는 “만이가 제하(諸夏)를 어지럽혔”을

1172) 赤眉軍: 新朝 말년의 농민 반란군이다. ‘赤糜’라고도 칭한다. 天鳳 5년(18) 琅邪人 樊崇이 菑縣에서 舉兵하자 靑州와 徐州의 굶주린 백성들이 호응하여 수만의 군대를 이루었다. 주로 靑州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殺人者死, 傷人者償創’이란 구호를 내세우고 눈썹을 붉게 칠해 적과 구분을 지었다. 그래서 ‘赤眉’라 불렸다. 建武 3년(27) 赤眉軍은 劉秀의 군대에게 격퇴되었다.

1173) 更始帝 劉玄(?~25): 兩漢 교체기 綠林軍이 건립한 更始 정권의 皇帝이다. 字는 聖公이고 南陽郡 蔡陽 사람으로 光武帝 劉秀의 族兄이다. 王莽 시기 법을 어기고 平林에 망명하였다. 地皇 3년(22) 綠林 농민의 반란군에 참가하였다. 이듬해 23년 綠林軍이 王莽의 將領 甄阜 등을 격파한 뒤, 劉玄을 更始將軍으로 추대하였다. 그 뒤 劉氏 宗室이란 이유로 황제로 추대되고 更始라고 建元하였다. 이해 6월 宗室의 諸將을 크게 봉건하였다. 반란군이 昆陽 대첩에서 승리한 뒤, 洛陽과 三輔 지방을 공략하자, 각지의 豪強이 다투어 王莽의 牧守들을 살해하고 한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更始의 政令에 따랐다. 王莽이 敗死한 뒤, 更始帝는 수도를 洛陽에서 長安으로 옮겼다. 그 뒤 劉玄은 政事는 趙萌에게 위임한 채 궁정의 사치스런 생활에 빠져들었고 그 결과 離叛者가 속출하였다. 25년 10월 赤眉軍이 장안을 압박하자 劉玄은 申屠建 등 중요한 將領들을 죽이고 투항하였으나 얼마 후 살해되었다.

1174) 중국의 史書에는 ‘論贊’이라 불리는 형식이 있다. 그 효시는 『左傳』의 ‘君子曰’, ‘穀梁傳’과 『公羊傳』의 ‘穀梁子’, ‘公羊子’ 등으로 시작되는 해설 부분이다. 司馬遷은 『史記』의 모든 編末에 ‘太史公曰’이란 論贊 항목을 두었고 그 뒤 史書의 상례가 되었다. 班固 『漢書』의 ‘贊’, 荀悅 『漢紀』의 ‘論’, 陳壽 『三國志』의 ‘評’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劉知幾는 論贊이 ‘의혹을 판명하고 막힌 것을 풀기 위해’[辯疑惑, 釋凝滯] 있는 것인데 司馬遷이 매 편마다 덩으로써 번잡하게 史論이 생기는 길을 열었다고 하였다. 또한 論贊은 ‘事情을 중복해서 표현하지 않고, 간략한 문장으로 의미를 드러내야’[蓋欲事無重出 文省可知]하는데, 후대로 갈수록 본문 내용을 중복 채록하거나 文飾을 달리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하였다

을 경계하였다.¹¹⁷⁶⁾ 『시』¹¹⁷⁷⁾에서는 “용적을 무찌른” 일을 칭찬하였다.¹¹⁷⁸⁾ 『춘추』¹¹⁷⁹⁾에서는 “(천자에게) 도(道)가 있으면 오랑캐들이 [제하(諸夏)를] 방비한다”고 하였다.¹¹⁸⁰⁾ 오래되었구나

(劉知幾, 『史通』 권4, 「論贊」). 본문의 반고 論贊은 분량이 적지 않은 별도의 논문이라 할 수 있는데, 匈奴에 대한 征伐과 和親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고 ‘羈縻’가 최선의 방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漢代 가장 체계적으로 전개된 대표적인 羈縻論이라 할 수 있으며(김한규, 1988: 83), 대외관계에 대한 漢代人的 의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1175) 『書』: 『尙書』라고도 한다. ‘尙’이란 上古를 뜻하고 ‘書’란 竹帛 위에 쓴 역사 기록이란 의미이다. 즉 『尙書』란 ‘上古의 史書’를 뜻한다. 주로 商·周 두 시대 통치자의 講話를 기록하였다. 商代와 관련된 몇 편은 周代에 流傳되었는데, 周代 사람들의 표현 방식에 영향을 받았으며 周代 宋國의 史官이 윤식을 가하기도 하였다. 별도의 4편은 虞夏의 書로 알려져 있는데, 「甘誓」가 商周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堯典」·「皋陶謨」·「禹貢」 등은 춘추전국시대에 가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176) 이 구절은 『尙書』「虞書」의 「舜典」에서 舜 임금의 皋陶를 土로 삼으면서 명령하는 말 가운데 나온다. 舜 임금은 “皋陶여! 蠻夷가 諸夏를 어지럽히고, 寇賊이 안팎으로 들끓고 있소. 너를 土로 임명하니, 다섯 가지 형벌을 행하고 ……”라고 말하였다.
- 1177) 『詩』: 중국 최초의 詩歌集으로 西周에서 春秋 중기까지 대략 500년간 305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크게 「風」·「雅」·「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風」은 「國風」이라고도 하는데 각지의 民歌를 수록하였다. 「雅」는 귀족의 작품을 모아 놓은 「大雅」와 民歌도 포함하고 있는 「小雅」로 구분된다. 「頌」은 귀족들이 신령과 조상에게 제사지낼 때 부르던 詩歌를 수록한 것인데, 「周頌」·「魯頌」·「商頌」으로 구분된다. 『詩』는 고대인들의 예술적 창조물이며 아울러 당시 사회생활과 典章 제도, 풍속 습관 등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1178) 「魯頌」에는 ‘駟」·‘有駟」·‘泮水」·‘閟宮」 등 4편의 시가 있다. 이들 詩의 풍격은 廟에서 제사를 지낼 때 불리는 「頌」보다는 「風」과 「雅」에 가깝다. 그 가운데 ‘閟宮’편은 魯 僖公이 오랑캐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하고, 善政을 베푸는 것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원문 구절의 전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 “僖公의 군대는 3만 명인데, 조개 장식 갑옷을 붉은 실로 꿰매으며, 많은 무리들 시골시골하네. 戎狄를 무찌르고 남쪽 나라를 경계하니, 아무도 감히 우리에게 맞서지 않네.”
- 1179) 『春秋』: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編年體 史書다. 魯國의 隱公 元年(전772)에서 哀公 14년(전481) 혹은 16년(전479)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하였다. 문장이 간략하고 殘缺의 부분이 있으나, 1만 6천여 자의 분량에 이른다. 紀年은 비록 魯國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술 범위는 주변 지역을 포괄한다. 내용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천문기상, 물질생산, 사회생활 등 다방면에 관련된다. 기술 내용은 비록 짧지만 그 정확성은 높이 평가된다. 가령 日食이 37차 등장하는데, 현대 천문학자들은 36차의 日食이 실제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 점에서 『春秋』를 후대의 杜撰으로 보기는 어렵다. 작자는 孔子로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魯國의 역대 史官들이 편찬한 것이며, 『春秋』의 학습과 연구가 孔子에서 시작되었다. 현존의 『春秋』는 『左傳』·『公羊傳』·『穀梁傳』 등 三傳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 1180) 원문에서 “有道守在四夷”가 『春秋』에 나온다고 하였으나, 실제 동일한 구절은 없다. 顏師古는 그것이

이적의 근심이 되었음.

그래서 한이 흥기한 이래, 일찍이 충성스런 말로 [간쟁하고] 훌륭한 계책을 [세웠던] 신하들이 어찌 조정¹¹⁸¹⁾에서 서로 논쟁하지 않았겠는가? 고조 시기에는 유경(劉敬),¹¹⁸²⁾ 여후 시기에는 번쾌·계포, 효문제 시기에는 가의(賈誼)¹¹⁸³⁾·조조(朝錯),¹¹⁸⁴⁾ 효무제 시기에는 왕희

『左傳』昭公 23년조의 “古者天子，守在四夷”를 말한다고 하였다. 당시 楚나라 囊瓦가 沈尹이 되어 郢에 築城하자 沈尹인 戌은 “囊瓦는 반드시 郢을 멸망시킬 것이다. …… 고대에는 天子의 守衛가 四夷에 있었다. …… 백성에게 안으로 근심이 없고, 밖으로 두려움이 없다면 국가에게 城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토목공사를 비판하였다. 顏師古는 그것이 천자의 德이 멀리 [四夷에게] 미친다는 말이라 하였는데, 그 의미는 (天子가) 四夷를 和柔하면, 그들이 諸夏의 侍衛가 된다는 것이다(竹添光鴻, 『左傳會箋』, 楊伯峻: 1448).

1181) 원문의 “廟堂”은 원래 종묘와 明堂을 말하는데, 朝廷을 지칭한다. 조정에서 국사를 의결 집행하기 전에 먼저 宗廟에서 조상에게 고하고 群臣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1182) 劉敬: 본명은 婁敬이다. 齊나라 사람으로 漢高祖 5년(전220)에 낙양으로 와서 劉邦을 만나, 關中 천도를 권유했다. 郎中으로 임명되었고 劉氏 성을 사여받았다. 關內侯로 봉해졌고 建信侯라 칭했다. 유방이 平城에서 匈奴에 포위되었을 때, 종실의 여자를 匈奴 선우에게 보내어 和親할 것을 주장했다. 그 뒤 과거 六國 귀족의 후예들을 關中으로 옮겨 지방의 할거 세력을 약화시키도록 하였다. 박학다식 하였으며 『漢書』 『藝文志』에 의하면, 『劉敬』 3편을 남겼다고 한다.

1183) 賈誼(전201~전168): 洛陽 사람으로 詩書의 암기에 능하고 문장을 잘 지어 어린 나이에 이름을 날렸다. 18세 때 河南 군수 吳公이 그를 門下에 두었다. 文帝가 즉위한 뒤, 吳公의 추천을 받아 겨우 20여 세에 博士로 임명되었다. 매년 朝議에 참가하여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太中大夫로 승진하였다. 그는 正朔 개정과 服色제도의 개혁, 禮樂의 진작과 法令의 개정 등 다방면의 개혁안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중신이었던 周勃과 灌嬰 등의 견제를 받아 長沙王 太傅로 좌천된다. 이때 지은 『鵬鳥賦』가 남아 있어 당시 그의 심정을 전하고 있다. 그 후 특별히 문제의 부름을 받아 梁懷王 太傅로 임명되었고, 여러 차례 治安의 방도를 상소하였다. 文帝 전원 11년 梁懷王이 낙마하여 사망하자 그 일을 자책하다가 33세의 일기로 세상을 등졌다. 『漢書』 『藝文志』에 賈誼의 저서로 『賈子』 58편, 賦 7편이 보인다. 그의 정치사상이 반영된 글로 『治安策』과 『過秦論』을 꼽는다.

1184) 朝錯(?~전154): 朝錯는 『史記』 권101, 『漢書』 권49에 立傳된 鼂錯이고 통상 이렇게 쓰나, 朝錯 혹은 晁錯라고도 한다. 景帝 때 주로 활동한 政論家이다. 潁川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申不害와 商鞅 등의 刑名之學을 배웠다. 文學으로 太常掌故로 임명되었다. 이 때 伏生에게 가서 古文 『尚書』를 배웠다. 그 뒤 太子舍人 文大夫 등을 역임하다가 博士와 太子家令으로 遷任되었다. 太子 劉啓(훗날 景帝)의 신임을 얻었으며 ‘智囊’이란 별명도 얻었다. 鼂錯는 匈奴와 토지 겸병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上書하여 邊塞의 방어와 勸農이 급선무임을 설파했다. 또한 徙民實邊 정책과 邊塞에 곡물을 보내면 작위를 주고 죄를 사하는 정책 등을 세워 실현시켰다. 그 후 中大夫로 천임되어 諸侯王의 권력을 삭탈하고 법령 개정을 주장하여 중앙집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는데, 景帝는 이를 받아들여 削藩의 조치를 단행한

(王恢)¹¹⁸⁵ · 한안국(韓安國)¹¹⁸⁶ · 주매신(朱買臣)¹¹⁸⁷ · 공손홍(公孫弘)¹¹⁸⁸ · 동중서(董仲舒)¹¹⁸⁹ 등 사람마다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각 같고 다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요점을 총괄하면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을 따름이다.

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諸侯國들이 이른바 吳楚七國의 난을 일으켰으며, 景帝는 이들을 무마하기 위해 鼂錯을 처형하였다. 『漢書』 「藝文志」에 의하면 『鼂錯 31篇』이 있었다고 한다.

1185) 王恢(?~전134): 燕 지역 출신이다. 여러 차례 邊吏로 일하다가 武帝 建元 4년(전137)에 大行令이 되었다. 건원 6년 閩越과 東越이 싸우자, 韓安國과 함께 출병하였다. 한편 匈奴의 사신이 와서 화친을 요구하자, 무제는 廷議를 개최하였는데, 王恢는 이 자리에서 화친을 반대하고 전쟁을 주장했다. 元光 2년(전133)에는 將屯將軍에 임명되어, 馬邑에서 匈奴를 습격하려 하였으나, 눈치를 챈 匈奴 군대가 철수하여 실패한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살하였다.

1186) 韓安國(?~전127): 字는 長孺이고, 梁國 成安 사람이다. 처음 梁孝王 劉武 밑에서 中大夫로 있었다. 吳楚七國의 난 때 叛軍이 梁國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武帝 建元 연간(전140~전135)에는 北地都尉로 徵召되었고, 大司農, 御史大夫로 천임되었다. 元光 2년(전133)에는 馬邑에서 匈奴를 습격하는데 참여하였다. 元朔 2년(전127) 材官將軍으로 임명되어 漁陽郡에 주둔하였다. 匈奴가 멀리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변경의 軍屯 철폐를 주장하였으나 얼마 뒤 匈奴가 대거 침공하여 大敗하였다. 그 뒤 右北平에 주둔하다가 사망하였다.

1187) 朱買臣(?~전115): 자는 翁子이며, 吳人이다. 일찍이 집안이 가난하여 뿔나무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그 후 무제에게 발탁이 되어 中大夫로 임명되었다. 東越王이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키자 무제에게 東越 도벌책을 제시하고 會稽太守로 임명되었다. 東越을 격파한 뒤, 主爵都尉로 徵召되었고 丞相府 長史가 되었을 때, 張湯을 고발하여 자살시켰으나 그 자신도 주살되었다.

1188) 公孫弘(전200~전121): 漢武帝 때의 丞相이다. 淄川薛人이다. 빈한한 집안의 출신으로 獄吏였다가 면직되어 돼지를 기르며 살았다. 40여 세 때 비로소 『春秋』 雜說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武帝가 賢良文學을 徵召할 때 천거되어 博士가 되었다. 후에 匈奴에 사행을 갔다가 武帝의 뜻을 어겨 면직되어 돌아왔다. 元光 5년 다시 博士로 임명되어 金馬門에서 待詔하였다. 공손홍은 법률을 잘 알고, 아울러 儒術로 수식할 줄 알았다. 무제의 환심을 사서 御史大夫와 丞相을 역임하였는데, 漢代 평민 출신으로 丞相이 된 첫 사례이다. 平津侯로 봉해졌다. 공손홍은 향후 儒士가 고위 관료로 진출하는 선례가 되었다.

1189) 董仲舒(전179~전104): 전한시기 儒家 公羊學派의 大師이고 今文經學의 창시자로 칭해진다. 廣川 사람이다. 어려서 『春秋』를 공부하여 景帝 때 博士가 되었다. 연구에 몰두하여 3년 동안 마당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武帝 建元元年 賢良對策으로 武帝의 칭찬을 받는다. 이 대책문에서 ‘天人感應’, ‘君權神授’ 등을 표방하여 유가 神學化의 길을 열었고 ‘三綱五常’의 윤리체계를 세우고, 春秋大一統의 정치사상을 주장했다. 또한 儒術 獨尊을 요구하여 太學을 설립하고 州郡에서 秀才와 孝廉 등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限田과 奴婢제도 폐지, 賦役 경감 등도 요구하였다. 江都國의 相 등을 역임하고 사직한 뒤 학문에 몰두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현재 『春秋繁露』가 전한다.

허리띠에 [홀(笏)을] 꿰고 있는¹¹⁹⁰⁾ 유자(儒者)들은 화친을 지키자고 하고, 갑옷과 투구를 [착용한] 무사들은 정벌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한때의 이익과 해로움만을 치우쳐 보았을 뿐, 흉노[와 한 관계]의 전 과정을 깊이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한 흥기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이 지나 『춘추』[의 244년]보다 오래되었다.¹¹⁹¹⁾ [한과] 흉노 사이에는 문치에 주력하여 화친한 때도 있었고, 무력을 사용하여 정복한 때도 있었으며, [한이 스스로를] 비하하고 [흉노를] 받들어 섬긴 경우도 있었고, 위압으로 복종시켜 신하로 부린 경우도 있었다. [한의 흉노 정책이] 급히기도 하고 떨치기도 하며 다양하게 변화하였는데, [시기마다 국세의] 강함과 약함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 상세한 사정]은 가히 설명할 수 있다.

昔和親之論，發於劉敬。是時天下初定，新遭平城之難，故從其言，約結和親，賂遺單于，冀以救安邊境。孝惠·高后時遵而不違，匈奴寇盜不爲衰止，而單于反以加驕倨。逮至孝文，與通關市，妻以漢女，增厚其賂，歲以千金，而匈奴數背約束，邊境屢被其害。是以文帝中年，赫然發憤，遂躬戎服，親御鞏馬，從六郡良材力之士，馳射上林，講習戰陳，聚天下精兵，軍於廣武，顧問馮唐，與論將帥，喟然歎息，思古名臣，此則和親無益，已然之明效也。

과거 화친의 논리는 유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천하가 갓 평정되었고 새롭게 평성의 곤경을 만난 탓에 그의 말을 따라 약속하여 화친을 맺고 선우에게 뇌물을 주어 변경의 안정을 바랐다.¹¹⁹²⁾

효혜제와 고후 시대에는 [화친의 약속을] 존중하고 어기지 않았으나, 흉노의 침략과 도적질

1190) “緡紳”의 번역이다. 文官의 복장을 말한다.

1191) 『春秋』는 隱公 1년부터 哀公 14년까지 모두 244년 동안의 編年史이며, 漢의 건립 이래 班固가 『漢書』를 완성한 시기인 章帝 建初 연간(76~83)까지는 3백 년이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이다. 그래서 『春秋』보다 오래되었다고 한 것이다.

1192) 漢高祖가 平城에서 匈奴에게 포위되었다가 劉敬의 화친 제안으로 풀려난 사정은 『漢書』 권43(『酈陸朱 劉叔孫傳』: 2122) 참조.

이 줄어들거나 그치지 않았으며, 선우는 도리어 교만한 [태도를] 더하였다.¹¹⁹³⁾ 효문제 때에 이르러서 관시를 열고, 한 [황실]의 딸을 처로 주었으며, 사여하는 재물도 많이 늘려 해마다 천금에 달하였다.¹¹⁹⁴⁾ 그러나 흉노는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고 변경은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다.¹¹⁹⁵⁾ 이에 문제는 [재위 시기] 중간에 크게 발분하여 마침내 몸소 군복을 입고 친히 안장을 올린 말을 몰고, 6군¹¹⁹⁶⁾ 양가(良家)의 재력(材力) 있는 군사들을 따라 상림[원]에서 말달리며 활을 쏘고, 전투 대오를 강습하고, 천하의 날랜 병사를 모아 광무(廣武)[성]¹¹⁹⁷⁾에 주둔하도록 하였다.¹¹⁹⁸⁾ [문제가 친정(親征)을 포기한 다음] 풍당(馮唐)¹¹⁹⁹⁾에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물어보다가 더불어 장수(將帥)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크게 탄식하면서 과거의 명신을 생각하였다.¹²⁰⁰⁾

1193) 惠帝 3년(전192) 흉노 冒頓單于가 편지를 보내 남편을 잃은 高后를 조롱한 사건이(『漢書』 권94 「匈奴」 上: 2754~2755) 이 시기 흉노와 한의 관계를 잘 이야기해 준다.

1194) 漢文帝는 전원 6년(전174) 시월(『漢書』 권94 「匈奴」 上: 2758)과 후원 2년(전162)(『漢書』 권94 「匈奴」 上: 2762~2764) 和親관계를 맺었다.

1195) 文帝시기 匈奴는 전원 3년(전177), 전원 11년(전169), 전원 14년(전166), 후원 6년(전158)에 한을 침공하였다. 『漢書』 권94 「匈奴」 上 (2756~2764) 참조.

1196) 六郡: 隴西郡, 天水郡, 安定郡, 北地郡, 上郡, 西河郡을 말한다. 그런데 安定郡과 天水郡, 西河郡은 武帝때 설치된 것이다. 史書에는 文帝 때부터 그 郡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것은 소급해서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197) 廣武城: 현재 河南省 滎陽 동북 지역에 있는 廣武山 위에 東과 西의 두 성이 있다. 楚·漢이 싸울 때 유방과 항우가 각각 한 성씩을 점거하고 대치한 일이 있었다.

1198) 漢文帝 전원 14년(전166)의 일이다. 匈奴 老上單于가 14만기의 기병을 이끌고 침범하여 인민과 가축을 약탈하고 安定郡 彭陽縣까지 들어왔다. 이에 中尉 周舍와 郎中令 張武를 장군으로 삼고 車 1千乘, 騎卒 10만을 일으켜 長安을 방비하였다. 文帝도 친히 군대를 격려하고 병사들을 단속하며 敎令을 내려 스스로 匈奴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신료들이 간쟁하고 皇太后의 만류가 있어 親征은 중단한다. 대신 張相如와 董赤, 爰布 등을 장군으로 삼아 공격하도록 하였다. 匈奴는 塞內에 한 달여 간 머물다가 돌아갔다(『漢書』 권4 「文帝紀」: 125~126).

1199) 馮唐: 安陵 사람이다. 어려서 효행으로 이름이 나 郎中이 되었고 郎署의 長에 올랐다. 文帝代 雲中郡守 魏尙이 공적을 상신하면서 斬首한 匈奴 사람의 숫자에 착오가 생겼다. 이에 文帝가 그의 작위를 박탈하고 벌을 내리려 하자 馮唐은 그러한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魏尙은 죄를 사면받고 다시 雲中郡太守가 되었다. 景帝가 즉위한 후, 馮唐은 楚相이 되었고, 武帝 때 90여 세의 나이로 다시 천거되었지만, 대신 아들 馮尙을 郎官으로 올렸다.

1200) 직접 親征에 나서지 못한 文帝는 郎署에 들렀다. 文帝가 馮唐 부친의 집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馮唐은

이러한즉 화친의 무익함이 이미 밝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仲舒親見四世之事，猶復欲守舊文，頗增其約。以爲「義動君子，利動貪人，如匈奴者，非可以仁義說也，獨可說以厚利，結之於天耳。故與之厚利以沒其意，與盟於天以堅其約，質其愛子以累其心，匈奴雖欲展轉，奈失重利何，奈欺上天何，奈殺愛子何。夫賦斂行賂不足以當三軍之費，城郭之固無以異於貞士之約，而使邊城守境之民父兄緩帶，稚子咽哺，胡馬不窺於長城，而羽檄不行於中國，不亦便於天下乎！」察仲舒之論，考諸行事，乃知其未合於當時，而有關於後世也。當孝武時，雖征伐克獲，而士馬物故亦略相；雖開河南之野，建朔方之郡，亦棄造陽之北九百餘里。匈奴人民每來降漢，單于亦輒拘留漢使以相報復，其桀驁尚如斯，安肯以愛子而爲質乎？此不合當時之言也。若不置質，空約和親，是襲孝文既往之悔，而長匈奴無已之詐也。夫邊城不選守境武略之臣，脩障隧備塞之具，厲長戟勁弩之械，恃吾所以待邊寇。而務賦斂於民，遠行貨賂，割剝百姓，以奉寇讎。信甘言，守空約，而幾胡馬之不窺，不已過乎！

동중서는 4대 동안의 일을 직접 보고 나서도 여전히 다시 과거 [조약의] 문구를 지키려 하였고, 그 조약 [내용]을 크게 증가시키려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의(義)는 군자를 움직이고, 이(利)는 탐욕스런 사람을 움직입니다. 흉노와 같은 자들은 인의(仁義)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많은 이익을 주어야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늘을 향하여 [맹약을]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제공해야만 그 [침략의] 뜻을 잦아들게 하고, 하늘을 향하여 맹서해야 약속을 굳게 할 수 있으며,

代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文帝가 代에서 자랄 때, 조나라 장수 李齊의賢함에 대하여 늘 들었노라고 말하였다. 이에 馮唐이 李齊가 廉頗와 李牧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자 文帝는 “아아, 나는 어찌서 廉頗와 李牧을 장수로 갖지 못하였는가!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어찌 흉노를 근심하겠는가?”라고 탄식하였다(『漢書』 권50, 『馮唐傳』: 2312~2313). 『漢書』 『馮唐傳』에서는 위 일화가 언제 발생한 일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資治通鑑』(권15: 478)에서는 文帝 전원 14년 匈奴가 침공하고 문제가 親征을 기도했다가 실패한 뒤의 일로 나온다. 『資治通鑑』에서 이렇게 비정한 근거가 위 『漢書』의 문장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일단 『資治通鑑』에 근거해서 주해하였다.

[선우의] 아끼는 자식을 인질로 삼아야 그 마음을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흉노가 비록 마음을 바꾸려 하여도¹²⁰¹⁾ 어찌 많은 이익을 포기하겠습니까. 어찌 하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끼는 자식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무릇 세금을 걷어 [흉노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비용은] 삼군(三軍)을 [출동시키는] 비용에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단단한 성곽은 지조 있는 사신이 맺는 맹약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변성(邊城)에서 경계를 지키는 백성의 부형(父兄)들은 허리띠를 늦출 것이며, 어린 자식들은 입속의 음식물을 삼킬 수 있습니다.¹²⁰²⁾ 오랑캐의 말은 장성을 엿보지 않고, 깃털을 매달아 [긴급함을 알리는] 격문¹²⁰³⁾이 중국에 돌아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천하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중서의 의론을 검토할 때, 실제 발생했던 일들과 맞추어 본다면 당시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후세에도 부당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효무제 시대에는 비록 정벌하여 승리하고 [전리품을] 획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군사와 말이 죽은 것은 대략 [흉노의 피해에] 맞먹는다. 비록 하남(河南)¹²⁰⁴⁾의 들판을 열고 삭방군을 건립하였어도,¹²⁰⁵⁾ 또한 조양(造陽)¹²⁰⁶⁾ 이북의 땅 9백 여 리는 포기해야 했다. 흉노의 인민은 한에 와서 항복할 때마다, 선우 또한 번번히 한의 사신을 구류하여 상응하는 보복을 하였다. 그 사납고 오만함이 이와 같으니 아끼는

1201) 원문의 “展轉”에 대하여 顏師古는 ‘그 마음을 옮기는 것’이라 풀이하였다. 현대 한어본에서는 그와 달리 “輾轉邊塞”라 하였다(安平秋, 2004: 1914). ‘변새를 옮겨 다니면서 침략하려 하여도’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 가능한 해석이라고 본다. 다만 번역문에서는 顏師古의 주해가 좀 더 문의에 적합하다고 보아 그에 따랐다.

1202) 원문의 “咽”은 삼킨다는 말이다. “哺”는 입안에 머금은 음식물을 말한다.

1203) “羽檄”을 말한다. “羽檄”은 국가의 유사시나 급히 군사를 동원해야 할 때, 木簡에 글을 적고 깃털을 끼워 긴급함을 나타낸다.

1204) 여기서 “河南”은 현재의 河南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內蒙古 河套 지구 안의 黃河 이남 지역을 말하는데, 오르도스(Ordos, 鄂爾多斯)라고도 부른다. 북으로 陰山 서쪽으로 賀蘭山脈, 남동쪽으로 長城에 둘러싸여 있다. 遊牧에 적합하여 고대시기부터 많은 유목민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항쟁하였다. 진한시기에는 匈奴가 이곳에 침입하자 중국에서 朔方郡을 두었다. 이 지역에 최초로 독립왕국을 세운 것은 오호십육국시기 赫連勃勃의 夏이다(407~431). 그 후 7세기 무렵에는 突厥이 유목하였고, 唐代 이후 夏州 拓拔氏 세력이 강성해져 西夏를 건국하여 동서교역의 요충지가 되었다.

1205) 漢武帝 元朔 2년(전127) 匈奴가 변경을 침공하자, 무제는 衛靑 등을 파견하여 오르도스 지방을 점령하고 朔方郡을 세웠다. 「衛靑傳」 참조(『漢書』 권55, 「衛靑霍去病傳」: 2473).

1206) 현재 河北省 獨石口 부근이다. 일설에는 河北省 懷來縣의 東南 지역이라고도 한다.

자식을 인질로 보내려 하겠는가? 이는 당시 [실정에] 합당하지 못한 말이다. 만일 인질을 두지 않고 공허하게 화친을 약속한다면 이는 효문제 때 이미 겪었던 후회를 반복하는 것이며, 흉노의 끝없는 배신을 조장하는 일이 된다.

무릇 변성에서 경계를 지키는 힘세고 지략 있는 신하를 선발하지도 않고, 요새와 방어용 소로나 요새를 방비하는 무기(武具)들을 정비하지도 않고, 긴 창과 강노(强弩) 등의 기계를 갈아두지도 않고, 우리가 변방의 침략에 대비하는 모습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으면서도,¹²⁰⁷⁾ 힘써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멀리 [흉노에게] 재물을 보내고 있으니, 백성을 수탈하여 원수를 받드는 일이다. 듣기 좋은 말(甘言)을 믿고 헛된 약속을 지키면서 오랑캐의 말(胡馬)이 엿보지 말기를 바라고 있으니 잘못이 아니겠는가!

至孝宣之世，承武帝奮擊之威，直匈奴百年之運，因其壞亂幾亡之院，權時施宜，覆以威德，然後單于稽首臣服，遣子入侍，(二)[三]世稱藩，賓於漢庭，是時邊城晏閉，牛馬布野，三世無犬吠之警，菽庶亡干戈之役。

호선황제의 치세에 이르러, 무제가 떨쳐 공격했던 위세를 계승하고, 흉노가 100년째 되는 운세를 맞이하여, 흉노가 무너지고 어지러워 멸망에 가까워진 위태로운 상황을 틈타, 당시에 맞게 적당한 [정책을] 폈으며, 위세와 은덕을 [그 위에] 펼쳤다.¹²⁰⁸⁾ 그런 뒤 선우는 머리를 숙이고 신복(臣服)하여 자식을 보내 [한에] 들어와 [천자를] 시봉하게 하고, 삼대에¹²⁰⁹⁾ 걸쳐

1207) 이 부분에 대하여 현대 한어본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도록 한다”(安平秋, 2004: 1914)고 해석하였으나 “변경의 침입을 맞아 대처하는 실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서”라고 한 일역본의 해석(内田吟風, 1971: 145)이 좀 더 문의에 적합하다고 보아 참조하였다.

1208) 宣帝代에는 本始 2년(전72) 다섯 장군을 동원해 흉노를 공격하였으나, 별 소득 없이 귀환하였다(『漢書』 권8 「宣帝紀」: 244). 그 후 匈奴는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漢 또한 재해의 피해에 부심하게 된다. 그래서 元康 2년(전64) 서역의 鄭吉이 車師國 공격을 위해 파병을 요구하였으나, 魏相이 災害를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시켰다(『漢書』 권74 「魏相丙吉傳」: 3136). 원문의 “權時施宜”란 이러한 정책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그 후 神爵 2년(전60) 日逐王의 來降 이후 흉노는 天子에게 奉獻하기 시작하였으며(『漢書』 권8 「宣帝紀」: 262) 呼韓邪單于의 來朝로 이어졌다.

1209) 원문은 “三世”인데 呼韓邪單于·復株累單于·烏珠留單于를 말한다.

외번(外藩)을 자칭하며 한의 조정에 와서 빈공(賓貢)하였다. 이 당시 변성(邊城)은 해가 저물어야 문을 닫았고, 소와 말이 들판을 덮었다. 삼대에¹²¹⁰⁾ 걸쳐 개가 짚는 경계(警戒)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백성들은¹²¹¹⁾ 전쟁에 동원되는 일이 없었다.

後六十餘載之間，遭王莽篡位，始開邊隙，單于由是歸怨自絕，莽遂斬其侍子，邊境之禍構矣。故呼韓邪始朝於漢，漢議其儀，而蕭望之：「戎狄荒服，言其來服荒忽無常，時至時去，宜待以客禮，讓而不臣。如其後嗣遁逃竄伏，使於中國不爲叛臣。」及孝元時，議罷守塞之備，侯應以爲不可，可謂盛不忘衰，安必思危，遠見識微之明矣。至單于咸棄其愛子，昧利不顧，侵掠所獲，歲鉅萬計，而和親賂遺，不過千金，安在其不棄質而失重利也？仲舒之言，漏於是矣。

그 후 60여 년이 지난 뒤, 왕망의 찬탈을 당하자 비로소 변경에서 [한과 흉노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 선우는 이로 말미암아 원망을 [중국 쪽에] 돌리고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였고, 왕망은 마침내 입시하고 있는 [선우의] 아들을 참수하였다. 변경에서 화란이 일어났다.

과거 호한야선우가 처음 한에 입조하였을 때, 한에서는 [예우의] 격식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소망지¹²¹²⁾가 말하였다. “음직한 황복(荒服)’이라 하는데, 그들이 와서 복종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일관되지 못하여 때로는 오고 때로는 가버림을 말합니다. 응당 객례(客禮)로 대우하고, [신하를 칭하려 할지라도] 사양하고 신하로 삼아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그의 계승자가 도망하여 숨는다고 해도 중국에게 배반한 신하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¹²¹³⁾

1210) 여기서 “三世”란 한의 元帝·成帝·哀帝를 말한다.

1211) 원문은 “菑庶”라고 되어 있는데, “菑”는 “黎”의 옛 글자이다.

1212) 蕭望之(전106?~전47): 前漢 宣帝 때의 학자, 관료. 東海郡 蘭陵縣 사람이며 후에 杜陵으로 이주하였다. 자는 長倩이다. 대대로 농사를 짓던 집안 출신이지만 어려서부터 학업에 열중하였다. 처음에는 后倉에게 배웠고, 그 후 長安에서 白奇·夏侯勝에게 배웠다. 射策甲科로 郎이 되었다. 동생의 犯罪에 연루되어 일시 郡吏로 내려갔으나 察廉으로 大行治禮丞이 되었다. 霍光 사후 霍氏 일족의 전횡을 비판하여 宣帝의 주목을 끌었다. 霍氏가 숙청된 뒤, 平原太守, 左馮翊, 大鴻臚, 御史大夫, 太子太傅 등을 역임하였다. 元帝가 즉위한 뒤 그의 師傅로 중용되었으나 宦官 弘恭과 石顯 등의 농간으로 자결하였다.

호원제 때에 이르러서는 변세를 방어하는 수비병을 철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후웅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는데,¹²¹⁴⁾ 가히 성할 때 쇠함을 잊지 않고, 편안할 때도 반드시 위험을 생각하며, 멀리 보고 미세한 점도 이해하는 현명함이라 말할 수 있다. 선우 함¹²¹⁵⁾에 이르러서는 [인질로 보낸] 아끼는 자식을 버리고, 이익에 눈이 멀어 돌아보지 않았으며, 침략하여 획득한 물자가 해마다 1억을¹²¹⁶⁾ 헤아렸다. 하지만 화친으로 지급하는 물자는 1천 금을 넘지 못하니, 어찌하여 [흉노가] 인질을 버리고 [화친으로 얻어지는] ‘큰 이익[重利]’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¹²¹⁷⁾ 동중서의 말은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이다.

夫規事建議，不圖萬世之固，而媮恃一時之事者，未(必)[可]以經遠也。若乃征伐之功，秦漢行事，嚴尤論之當矣。故先王度土，中立封畿，分九州，列五服，物土貢，制外內，或脩刑政，或昭文德，遠近之勢異也。是以春秋內諸夏而外夷狄。夷狄之人貪而好利，被髮左衽，人面獸心。其與中國殊章服，異習俗，飲食不同，言語不通，辟居北垂寒露之野，逐草隨畜，射獵爲生，隔以山谷，雍以沙幕，天地所以絕外內也。是故聖王禽獸畜之，不與約誓，不就攻；約之則費賂而見欺，攻之則勞師而招寇。其地不可耕而食也，其民不可臣而畜也，是以外而不內，疏而不戚，政教不及其人，正

1213) 당시 丞相 黃霸와 御史大夫 于定國 등은 匈奴 선우에 대한 禮儀는 “마땅히 諸侯王의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宣帝는 蕭望之의 주장을 받아들여 “單于의 位次를 諸侯王의 위에 두되 贊謁稱臣하고 不名하게” 하였다. 이는 비록 單于가 來朝 稱臣한다 할지라도 皇帝와 單于의 관계는 君臣 관계가 아니라 主客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중국과 외국이 主客의 관계로서 정연한 질서를 갖추고 공존하는 형태의 천하상이 구현되는 장면으로 평가되었다(김한규, 1988: 72~73).

1214) 元帝가 죽기 직전인 景寧 1년(전33) 정월, 呼韓邪單于가 來朝하여 漢 북방의 수비를 대신 맡을 것이니 漢의 守備兵을 철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앞에서 侯應이 이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대하였다.

1215) 烏累單于를 말한다.

1216) 원문은 “鉅萬”으로, 顏師古는 “大萬”, 즉 “萬萬”이라 하였는데, 1억을 뜻한다.

1217) 여기서 “失重利”는 董仲舒가 앞에서 匈奴가 화친으로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다시 인용한 것이다. 문맥상 침략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화친으로 얻어지는 “重利”는 쉽사리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朔不加其；來則懲而御之，去則備而守之。其慕義而貢獻，則接之以禮讓，羈靡不絕，使曲在彼，蓋聖王制御蠻夷之常道也。

무릇 사태를 헤아려 의론을 세울 경우, 항구적인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구차하게 한때의 상황에만 맞추려고 한다면, 먼 장래까지 경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정벌의 성과와 진조나 한조가 [홍노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는 엄우의 평론이 타당하다.¹²¹⁸⁾

고대의 선왕들은 땅을 측량하여 그 가운데에 왕기(王畿)를 세우고, 구주(九州)를 나누고, 오복(五服)을 나열해 놓고, [각지의] 토산물을 공헌하도록 하고, 외(外)와 내(內)[를 구분하는 제도]를 제정하였다. 어느 지역에는 형벌의 정치(刑政)를 펴고, 어느 지역에는 문치의 덕을 밝혔다. [차이를 둔 것은]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정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춘추』에 제하(諸夏)는 내부로 보고, 이적은 외(外)족(族)으로 [구별하여 기록하는 서법(書法)이] 있었다.¹²¹⁹⁾

이적의 사람은 탐욕스럽고 이익을 좋아하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좌임(左衽)하며¹²²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다. 중국과는 복식이 다르고 습속도 다르다. 음식이 같지 아니하며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 북쪽 가장자리 찬 이슬이 내리는 곳에 치우쳐 거주하며, 풀을 따르고 가축을 좇아 [이동하며], 사냥으로 먹고 산다. [중국과 홍노는] 산과 계곡으로 격절되어 있고, 사막으로 막혀 있으니, [그 구별은] 하늘과 땅이 바깥과 안을 단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성왕은 [오랑캐를] 금수로 길렀을 뿐, 더불어 [화친을] 서약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공격하여 정벌하지도 않았다. 서약한다면 재물을 쓰고도 배신당할 수 있었으며, 공격한다면 군대를 피로하게 하며 침공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홍노의] 땅은 경작해서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있지 않고 그 인민은 신하로 기를 수도

1218) 앞에서 嚴尤는 王莽의 대규모 匈奴 정벌을 반대하면서 漢武帝 때 匈奴를 공격한 것은 下策이고, 진시황의 만리장성 축조는 無策이라고 비판하였다.

1219) 顏師古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春秋』 成公 15년 “諸侯들이 吳와 鍾離에서 會合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公羊傳에서 “어찌하여 특별히 회합하였는가? 吳는 外이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外인가? 『春秋』에서는 中國을 內로 諸夏를 外로 한다. 그리고 諸夏를 內로 하고, 夷狄을 外로 하기 때문이다.

1220) 左衽: 옷의 왼쪽 셔츠 오른쪽 셔츠 안에 넣는 것을 말한다. 오랑캐의 복장 형태를 말한다.

없다. 그런 까닭에 외부에 두고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며, 멀리하고 가까이 두지 않는다. 정교(政敎)가 [흉노] 인민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천자의] 역법을 그 나라에 주지 않는다. 항복해 오면 경계하면서¹²²¹⁾ 길들이고, 떠나 버리면 방비하면서 지킨다. 그들이 [중국의] 의(義)를 흠모하면서 공물을 바칠 경우에는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대접한다. [요컨대] 말고 빼와 쇠코뚜레[羈縻]¹²²²⁾를 [잡은 것과 같은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문제 발생의] 원인이 저쪽에 있도록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대개 성왕이 오랑캐를 통제하고 거느리는 법도이다.¹²²³⁾

1221) 원문 “懲”에는 ‘벌주다, 응징하다’는 의미가 있다. 이 경우 “來”는 와서 침공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顏師古는 “懲”의 의미를 “創父”(삼가고 경계함)로 이해하였다. 그렇다면 “來”는 來降의 의미에 가까울 것이다.

1222) 원문의 “靡”는 “糜”와 통용될 수 있고, 여기에서 “羈靡”는 곧 “羈縻”의 뜻이다.

1223) 後漢代 魯恭은 “聖王之制 羈縻不絕而已”라고 하였다(『後漢書』 권25 「魯恭傳」: 876). 漢代 외국을 ‘羈縻’ 한다는 것은 외국이 설령 稱臣來降해도 ‘不臣’ 즉 신하로 삼지 않고 客禮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을 ‘羈縻’하면 훗날 離叛하더라도 정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외부의 변화로부터 중국의 평화를 고수하려는 외교 원칙으로 ‘漢代 중국인들이 발견한 최선의 지혜’로 평가된다(김한규, 1988: 98).

| 참고문헌 |

- 國史編纂委員會, 『中國正史朝鮮傳譯註』 1,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0
- 李丙燾 譯註, 『國譯 三國史記』, 서울: 을유문화사, 1977
- 김택민·임대희 주편, 『譯註 唐律疏議』(1),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7
-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 十三經,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四庫全書研究所整理, 『欽定四庫全書總目』(整理本), 北京: 中華書局, 1997
- 司馬光,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56
- 孫詒讓, 『周禮正義』, 北京: 中華書局, 2000
- 沈維賢, 『前漢匈奴表』, 二十五史刊行委員會編, 『二十五史補編』, 北京: 中華書局, 1998
- 楊伯峻, 『春秋左傳注』 1~4, 北京: 中華書局, 1990
- 王先謙 補注, 『漢書補注』 上·下,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55
- 王充, 『論衡』 1~4, 北京: 中華書局, 1979
- 劉知幾, 姚松·朱恒夫 譯註, 『史通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7
- 許嘉璐 主編, 『二十四史全譯 漢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章惠康·易孟醇 主編, 『後漢書今注今譯』 上·中·下, 長沙: 岳麓書社, 1998
- 趙翼, 樂保群·呂宗力 校點, 『陔餘叢考』,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3
- 趙翼, 王樹民 校證, 『二十二史劄記校證』 上·下, 北京: 中華書局, 1984
- 內田吟風, 田村實造 譯註, 『騎馬民族史 1 - 正史北狄傳』, 東京: 平凡社, 1971
- 金翰奎, 『古代中國的世界秩序研究』, 서울: 一潮閣, 1982
- 金翰奎, 『天下國家 -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 질서』, 서울: 소나무, 2005
- 도미야 이타루, 李在成 譯, 『나는 이제 오랑캐의 옷을 입었소: 이릉과 소무』, 서울: 시공사, 2003
- 디코스모, 이재정 역, 『오랑캐의 탄생』, 서울: 황금가지, 2005
- 르네 그루쎬 저,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서울: 사계절, 1998
-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 서울: 민속원, 2001
- 사와다 이사오, 김숙경 옮김, 『匈奴: 지금은 사라진 고대 유목국가 이야기』, 서울: 아이필드 2007
-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서울: 푸른역사, 2003

- 쓰루마 가즈유키 지음, 김경호 옮김, 『중국 고대사 최대의 미스터리 진시황제』, 서울: 청어람 미디어, 2004
-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1 古代篇』, 서울: 一潮閣, 1982
-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 2001
- 하자노프, 金浩東 譯, 『遊牧社會의 構造 - 역사인류학적 접근』, 서울: 知識産業社, 1990
- 江鴻, 『匈奴興亡之追踪』,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4
- 丘光明, 『中國歷代度量衡考』, 北京: 科學出版社, 1992
- 段連勤, 『丁零·高車與鐵勒』,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8
- 馬利清, 『原匈奴·匈奴-歷史與文化的考古學探索』,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5
- 馬長壽, 『北狄與匈奴』,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a)
- 馬長壽, 『氏與羌』,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b)
- 蒙文通, 『周秦少數民族研究』, 上海: 上海龍門聯合書局, 1958
- 武沐, 『匈奴史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2005
- 宋超, 『漢匈奴戰爭三百年』, 北京: 華夏出版社, 1996
- 嚴耕望, 『中國地方行政制度史上篇 秦漢地方行政制度』上,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1
- 余太山, 『兩漢魏晉南北朝正史西域傳要注』, 北京: 中華書局, 2005
- 翁獨健 主編, 『中國民族關係史綱要』,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 王光華, 『古代中國西北歷史資料輯錄』, 蘭州: 蘭州大學出版社, 1988
- 王明哲·王炳華, 『烏孫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83
- 李大龍, 『兩漢時期的邊政與邊吏』,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1998
- 李德龍, 『漢初軍事史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2001
- 林幹, 『匈奴通史』,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 林幹 編, 『匈奴史料彙編』, 北京: 中華書局, 1988
- 林幹, 『東胡史』, 內蒙古人民出版社, 1989
- 林幹, 『東胡烏桓鮮卑研究與附論』,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 林幹, 『中國古代北方民族通史』, 鷺江出版社, 2003
- 岑仲勉, 『漢書西域傳地理校釋』上·下, 北京: 中華書局, 1981(重印)
- 張興唐, 『史記漢書匈奴地名今釋』, 臺北, 國防研究院, 1963
- 田廣金·郭素新, 『北方文化與匈奴文明』,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5
- 趙伯雄, 『春秋學史』,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4

- 陳序經, 『匈奴史稿』,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 韓國磐, 『中國古代法制史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江上波夫, 『ユウラシア古代北方文化: 匈奴文化論考』上・下, 東京: 山川出版社, 1948
- 堀敏一, 『中國古代の身分制 - 良と賤』, 東京: 汲古書院, 1987
- 鎌田重雄, 『秦漢政治制度の研究』,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1962
- 內田吟風, 『北アジア史研究 匈奴編』, 京都: 同朋舍, 1975
- 來村多加史, 『萬里の長城 攻防三千年史』, 東京: 講談社, 2004
- 山田信夫, 『北アジア遊牧民族史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東京: 講談社, 2007
- 小谷仲男, 『大月氏』, 東京: 東方書店, 1999
- 原山煌, 『モンゴルの神話・傳説』, 東京: 東方書店, 1995
- 張承志, 『モンゴル草原遊牧誌』, 東京: 朝日新聞社, 1993
- 松井健, 『遊牧といる文化』, 東京: 吉川弘文館, 2001
- 護雅夫, 『遊牧騎馬民族國家』, 東京: 講談社, 1967
- 後藤富男, 『內陸アジア遊牧民の社會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7
- Barfield, T.J.,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Cambridge: Basil Blackwell, 1989
- Hildinger, *Warriors of the Steppe: A Military History of Central Asia, 500 B.C. to 1700 A.D.*, New York: Sarpedon, 1997
- Hulsewé, A. F. P., *China in Central Asia: The Early State: 125 B.C.~A.D. 23.*, Leiden: E. J. Brill, 1979
- Pritsak, O., *The Origin of Rus* vol.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姜仁旭, 「中國 北方地帶와 夏家店上層文化의 청동투구에 대하여 - 기원전 11~8세기 중국 북방 초원지역의 지역 간 상호교류에 대한 접근」, 『先史와 古代』 25, 2006
- 姜仁旭, 「한국고고학의 최근 성과와 과제: 시베리아 고고학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 중국 동북지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貧雪 任孝宰教授 停年紀念論叢 特輯號: 韓國先史考古學報』 12, 2006
- 金翰奎, 「漢代의 天下思想과 <羈縻之義>」, 全海宗 外, 『中國의 天下思想』, 서울: 민음사, 1988
- 金浩東,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 中國史』 II, 서울: 知識產業社, 1989
- 金浩東, 「北아시아 遊牧國家의 君主權」, 『東亞史上的 王權』,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3

- 朴京哲, 「遼西琵琶形青銅文化의 再認識」, 『先史와 古代』 12, 1999
- 裴眞永,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 - 전국시대 동북아시아의 세력관계」, 『中國史研究』 36, 2005
- 복기대, 「紀元前 7~4세기 遼西 지역의 정치적 변화에 관하여 - 秦開 東征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21, 2004
- 복기대, 「東北아시아 青銅器文化의 地域性: 夏家店上層文化와 凌河文化 比較研究」, 『先史와 古代』 20, 2004.
- 복기대, 「韓國 上古史와 東北아시아 青銅器時代 文化 - 南滿洲 지역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4, 2006
- 吳江原, 「中國 東北地域 세 青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流關係」, 『先史와 古代』 20, 2004
- 任仲燦, 「王莽의 개혁과 평가」, 『東洋史學研究』 51, 1995
- 丁載勳, 「古代遊牧國家의 社會構造」,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編, 『韓國古代史講座 제3권 古代國家의 構造와 社會』, 서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 崔振默, 「數字의 體系와 漢代人의 생활」, 『古代中國의 理解』 5, 서울: 지식산업사, 2001
- 高榮, 「月氏·烏孫과 匈奴在河西의 研究」, 『西北民族研究』 2004-3, 2004
- 龔蔭, 「匈奴單于疏證」, 『西北民族研究』 1999-2, 1999
- 馬利清·宋遠茹, 「關於匈奴文字의 新線索」, 『考古與文物』 2004-2, 2004
- 武沐, 「對匈奴收繼婚制度의 再探討 - 匈奴婚姻制度研究之一」, 『中國邊疆史地研究』 2005-3, 2005
- 徐復, 「閼氏讀音考」, 林幹 編, 『匈奴史論文選集(1919~1979)』, 北京: 中華書局, 1983
- 額爾敦布和, 「牧區“白災”及防禦對策」, 內蒙古自治區蒙古族經濟史研究組 編, 『蒙古族經濟發展史研究』 第2集,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8
- 梁啓超, 「史記匈奴傳或狄名意考」, 『中國歷史上民族之研究』(『飲冰室合集·全集』 41·42), 北京: 中華書局, 1989
- 吳疆, 「突厥의 向東拜日習慣의 述考」, 『蘭州大學學報』 1989-4, 1989
- 王慶憲, 「生活在匈奴地區의 中原人口」, 『黑龍江民族叢刊』 2005-3, 2005
- 王國維, 「鬼方昆方獯豸考」, 『觀堂集林』 권13, 北京: 中華書局, 1984
- 姚大力, 「追溯匈奴의 前史 - 兼論司馬遷對“史道”의 突破」, 『復旦學報』 2004-4, 2004
- 熊貴平·王擴建, 「孝文十四年匈奴南“侵”原因及影響新探」, 『江西師範大學學報』 2005-3, 2005
- 李春梅, 「匈奴政權“二十四長”和“四角”, “六角”探析」, 『內蒙古社會科學』 2006-3
- 岑仲勉, 「伊朗之胡與匈奴之胡」, 『眞理雜誌』 1-3, 1944, 『匈奴史論文選集』, 中華書局, 1983
- 卡哈爾曼·穆汗, 「塞·匈奴·月氏·鐵勒四部名稱考」, 『西域研究』 2000-4, 2004

- 陳勇, 「《史記》所見“胡”與“匈奴”稱謂考」, 『民族研究』2005-6, 2005
- 黃文弼, 「論匈奴族之起源」, 『古代匈奴民族之研究』, 1943『匈奴史論文選集』, 中華書局, 1983
- 吉田順一, 「ハンガイと陰山」, 『史觀』102, 1980
- 栗原朋信, 「漢帝國と周邊諸民族」, 『岩波講座 世界歴史』, 東京: 岩波書店, 1970
- 護雅夫, 「北アジア・古代遊牧國家の構造」, 『岩波講座 世界歴史』, 東京: 岩波書店, 1970
- 後藤富男, 「モンゴル族におけるオボの崇拜 - その文化における諸機能」, 『民族學研究』, 1956
- Pritsak, O., “Die 24 Ta-ch'en. Stuide zur Geschichte des Verweltungsaufba us der Hsiung-nu Reice”, *Orinens Extremus* 1, 1954
- 季德源 主編, 『中華軍事職官大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9
- 高文德 主編, 『中國民族史人物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 丘樹森 主編, 『中國歷代職官辭典』,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8
- 紀大椿 主編, 『新疆歷史辭典』,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3
-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大辭典: 歷史地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7
-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 徐連達 主編, 『中國歷代官制詞典』,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991
- 雪梨, 『中國絲綢之路辭典』,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4
- 呂宗力 主編, 『中國歷代官制大辭典』, 北京: 北京出版社, 1994
- 翁獨健・劉榮焱 主編, 『中國歷史大辭典: 民族史』,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5
- 魏崇山 主編, 『中國歷代地名大辭典』,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1995
- 俞鹿年 編著, 『中國官制大詞典』,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2
- 劉維新 主編, 『西北民族辭典』,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8
- 李成華 編著, 『中國古代職官辭典』, 臺北: 常春樹書房, 1988
- 林幹 編, 『匈奴歷史年表』, 北京: 中華書局, 1984
- 鄭天挺・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0
- 中國歷史編輯委員會, 『中國大百科全書: 中國歷史』(縮印本),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 陳永齡 主編, 『民族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9
- 倉修良 主編, 『漢書辭典』,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6
- 小松久男, 『中央ユーラシアを知る事典』, 東京: 平凡社, 2005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22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2
漢書 外國傳 譯註 上

초판 1쇄 인쇄 2009년 4월 15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4월 27일

편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01-3-94910
978-89-6187-106-8-세트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漢書 外國傳 譯註 下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2



차 례

- 서남이양월조선전

해제 / 275

서남이(西南夷) / 277

남월(南粵) / 297

민월(閩粵) / 333

논찬 / 347

참고문헌 / 348

- 서역전

해제 / 351

서역 개관 / 355

야강국(婁羌國), 선선국(鄯善國)과 누란국(樓蘭國), 차말국(且末國), 소완국(小宛國), 정절국(精絕國), 응로국(戎盧國), 우미국(扞彌國), 거특국(渠勒國), 우전국(于闐國), 피산국(皮山國) / 365

오타국(烏秣國), 서야국(西夜國), 포리국(蒲犁國), 의내국(依耐國), 무뢰국(無雷國), 난두국(難兜國), 계빈국(罽賓國), 오익산리국(烏弋山離國), 안식국(安息國) / 379

대월지국(大月氏國), 강거국(康居國), 암채국(奄蔡國), 대완국(大宛國), 도괴국(桃槐國), 휴순국(休循國), 연독국(捐毒國), 사차국(莎車國), 소륵국(疏勒國), 위두국(尉頭國) / 393

오손국(烏孫國), 고묵국(姑墨國), 온숙국(溫宿國), 구자국(龜茲國), 위리국(尉犁國), 위수국(危須國), 언기국(焉耆國) / 406

오탐자리국(烏貪訶離國), 비륙(卑陸國), 비륙후국(卑陸後國), 옥립사국(郁立師國), 단환국(單桓國), 포류국(蒲類國), 포류후국(蒲類後國), 서차미국(西且彌國), 동차미국(東且彌國), 겁국(劫國), 호호국(狐胡國), 산국(山國), 거사전국(車師前國), 거사후국(車師後國), 거사도우국(車師都尉國), 거사후성장국(車師後城長國) / 446

흥노와 서역 / 452

논찬 / 467

참고문헌 / 473

세계표	478
연표	480
지도	490
색인	495

[상권 차례]

- 한서 외국전 해제

- 흉노전

해제

흉노 연원

흉노 전사(前史)

두만선우(頭曼單于)와 묵특선우(冒頓單于)

노상선우(老上單于)

군신선우(軍臣單于)

이지사선우(伊稚斜單于)

오유선우(烏維單于)

아선우(兒單于), 구려호선우(句黎湖單于),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

호록고선우(孤鹿姑單于)

호연제선우(壺衍鞬單于)

허려권거선우(虛閭權渠單于), 악연구제선우(挾衍駒單于)

호한아선우(呼韓邪單于)와 질지(郵支) 등 여러 선우(單于)의 병립

복주류악제선우(復株鞮若鞬單于), 수해악제선우(搜諧若鞬單于), 거아악제선우(車牙若鞬單于)

오주류선우(烏珠留單于)

오루악제선우(烏累若鞬單于), 호도이시도고악제선우(呼都而尸道臯若鞬單于)

논찬

참고문헌

서남이양월조선전(西南夷兩越朝鮮傳)



「서남이양월조선전 (西南夷兩粵朝鮮傳)」 해제

『한서(漢書)』 「서남이양월조선전(西南夷兩粵朝鮮傳)」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기술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고 있으며, 사마천이 기술한 시기를 바로 이어서 한(漢) 소제(昭帝) 시원(始元) 원년(元年)(전86)부터 왕망(王莽) 때까지의 일을 적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뒤의 시기 기술에서도 주로 서남이(西南夷) 변군(邊郡) 지역의 반란과 그에 대한 진압에 대한 기계적 서술이 전부이다.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서남이(西南夷) 지역에 대한 변군지배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이 지역에 대한 풍토나 전승에 관한 정보는 전혀 추가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여전히 서남이 변군 지역에 관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었거나, 반고(班固)가 고의적으로 그 정보를 외면하였거나 혹은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의미할 터인데, 실상은 후자가 가깝다. 「원외전(袁牢傳)」을 지은 촉군(蜀郡)의 양종(楊終)은 서남이의 일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반고와 동시대인이었을 뿐 아니라, 반고가 난대(蘭臺)에서 『한서(漢書)』를 찬하고 있을 때 교서랑(校書郎)에 임명된 사람이다. 그리고 둘은 일찍이 백호관(白虎觀)에서 오경에 관하여 토론을 한 적이 있었던 이미 아는 사이였다. 결국 이는 반고가 서남이지역의 사건에 대한 한 정부 측의 기록만을 참고하여 기록하였을 뿐, 다른 기록이나 소문들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고의 태도는 다양한 서남이 지역의 전승을 추가한 범엽(范曄)과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장교(莊騫)의 입진(入滇) 고사를 소개하고 있는 사마천과도 다르다 할 수 있다.

사료의 취사선택에서도 『한서』는 『사기』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기』 「남월열전(南越列傳)」에는 보이지 않는 효문제(孝文帝)가 조타(趙佗)에게 내린 조서(詔書)와

그것에 대한 조타의 상주문이 그대로 실려 있어 한과 남월 간의 관계와 그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서간체의 이 문장들은 고대 조서와 상주문의 형식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황제가 제후왕에게 내린 하사품, 그리고 반대로 황제에게 올린 진상품 등이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 반면에 동월(東越)의 경우는 오히려 『사기』보다 생략과 축약이 많은데, 예를 들어 건원3년 민월이 동구를 공격하자 태위 전분과 업조 사이에 기미책과 적극적 대응책을 논한 구절을 “「엄조전(嚴助傳)」에 상세하다”는 기술로 요약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처럼 『한서』는 『사기』 「남월열전」과 「동월열전」을 큰 틀에서는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월(越)을 ‘월(粵)’로 고치거나 상주문과 조서를 간단히 요약하고 있다. 때문에 표와 열전을 상호 비교해가며 보는 것이 주의된다. 한편 『한서』의 경우 「지리지(地理志)」가 따로 입지(立志)되어 있어 『사기』와는 다른 지리적 관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전에서 볼 수 없는 각 지역의 특성과 산물, 풍속 등을 설명하고 있어 외국전과 상호 비교해가며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겠다.

「서남이양월조선전」에는 원래 조선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본 역주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 역주: 정면 · 문정희
- 교열: 김유철

「서남이양월조선전 (西南夷兩粵朝鮮傳)」 역주

(西)[南]夷君長以十數, 夜郎最大. 其西, 靡莫之屬以十數, 滇最大. 自滇以北, 君長以十數, 邛都最大. 此皆椎結, 耕田, 有邑聚. 其外, 西至桐師以東, 北至葉榆, 名爲嵩·昆明, 編髮, 隨畜移徙, 亡常處, 亡君長, 地方可數千里. 自嵩以東北, 君長以十數, 徙·茆都最大. 自茆以東北, 君長以十數, 冉駹最大. 其俗, 或土著, 或移徙. 在蜀之西. 自駹以東北, 君長以十數, 白馬最大, 皆氐類也. 此皆巴蜀西南外蠻夷也.

남이(南夷) 군장(君長)은 열을 헤아리는데, [그중에] 야랑(夜郎)¹⁾이 가장 크다. 그 서쪽에 미막(靡莫)의 족속이 열을 헤아리는데, 전(滇)²⁾이 가장 크다. 전의 이북에도 군장이 열을 헤아리는데, 공도(邛都)³⁾가 가장 크다. 이들은 모두 추계(魍結)⁴⁾하고, 밭을 갈며, 읍취(邑聚)

- 1) 夜郎: 顔師古(581~645)가 말하기를, “나중에 縣이 되어 牂柯郡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後爲縣, 屬牂柯郡.” 이하 인용된 주석에서의 ‘師古’는 ‘顔師古’이다.). 야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列傳」 譯註를 참조할 것.
- 2) 滇: 師古가 말하기를, “그 지역에 滇池가 있는 까닭에, 이를 좇아 이름을 붙인 것이다. 滇의 음은 顛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地有滇池, 因爲名也. 滇音顛.”). ‘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列傳」 譯註를 참조할 것.
- 3) 邛都: 師古가 말하기를, “오늘날의 邛州는 본디 그들의 땅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今之邛州本其地.”). ‘공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列傳」 譯註를 참조할 것.
- 4) 魍結: 師古가 말하기를, “椎의 음은 直과 追의 반절이다. 結은 髻라고 읽는다. 상투를 트는데, 몽치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陸賈傳』과 『貨殖傳』에서는 모두 魍字로 적었다. 음과 뜻이 같다. 이 아래 〈朝鮮傳〉 또한

의 주거지를 이루고 산다. 그 바깥에 서쪽으로 동사(桐師) 이동(以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엽유(葉榆)⁵⁾에 이르는 지역에 이름하여 수(嵩)와 곤명(昆明)⁶⁾이라 하는 족속이 있다. 변발(編髮)⁷⁾에 가축을 따라 옮겨 다니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군장도 없는데, 땅이 사방 수천 리(里)이다. 수로부터 동북쪽으로 군장이 열을 헤아리는데, 사(徙)와 작도(笮都)⁸⁾가 가장 크다. 작으로부터 동북쪽에도 군장이 열을 헤아리는데, 염방(冉駹)⁹⁾이 가장 크다. 그 풍속은 어떤 이들은 정착하여 사나,¹⁰⁾ 어떤 부류는 옮겨 다닌다. 촉(蜀)의 서편에 있다. 방으로부터 동북쪽으로도 군장이 열을 헤아리는데, 백마(白馬)가 가장 크며, 모두 저(氏)의 부류이다. 이들은 모두 파촉(巴蜀)의 서남 바깥에 있는 만이(蠻夷)이다.

始楚威王時，使將軍莊騫將兵循江上，略巴·黔中以西。莊騫者，楚莊王苗裔也。騫至滇池，方三百里，旁平地肥饒數千里，以兵威定屬楚。欲歸報，會秦擊奪楚巴·黔

마찬가지다"이라고 하였다(師古曰, “椎音直追反. 結讀曰髻. 爲髻如椎之形也. 陸賈傳及貨殖傳皆作髻字, 音義同耳. 此下朝鮮傳亦同”).

- 5) 葉榆: 師古가 말하기를, “葉榆는澤의 이름이며, 이로 인하여 호칭을 만들었다. 나중에 縣을 설치하여 益州郡에 속하게 하였다”라고 했다(師古曰, “葉榆, 澤名, 因以立號, 後爲縣, 屬益州郡.”). ‘엽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傳」 譯註를 참조할 것.
- 6) 昆明: 師古가 말하기를, “嵩는 곧 지금의 嵩州이다. 昆明은 또 그 西南쪽에 있으며, 곧 지금의 南寧州인데, 諸蠻이 거주하는 그 땅이다. 嵩의 음은 髓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嵩卽之今嵩州也. 昆明又在其西南, 卽今之南寧州, 諸蠻所居, 是其地也. 嵩音髓.”).
- 7) 編髮: 師古가 말하기를, “編의 음은 步와 典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編音步典反”).
- 8) 徙와 笮都: 師古가 말하기를, “徙와 笮都 두 國이다.徙는 나중에 徙縣이 되었으며, 蜀郡에 속하였다. 笮都是 나중에 沈黎郡이 되었다.徙의 음은 斯이다. 笮의 음은 材와 各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徙及笮都, 二國也. 徙後爲徙縣, 屬蜀郡. 笮都後爲沈黎郡. 徙音斯. 笮音材各反.”). ‘사와 작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傳」 譯註를 참조할 것.
- 9) 冉駹: 師古는 말하기를, “지금의 夔州와 開州의 首領 중에는 姓이 冉인 자들이 많은데, 본디 모두 冉種이다. 駹의 음은 彪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今夔州·開州首領多姓冉者, 本皆冉種也. 駹音彪.”). 『史記』 「西南夷列傳」에서는 ‘冉駹’으로 표기하였다. ‘염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列傳」 譯註를 참조할 것.
- 10) 師古가 말하기를, “土著은 거처가 일정하여 토지에 붙어 사는 것을 말한다. 著의 음은 直과 略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土著, 謂有常處著於土地也. 著音直略反”).

中郡，道塞不通，因乃以其衆王滇，變服，從其俗，以長之。秦時嘗破，略通五尺道，諸此國頗置吏焉。十餘歲，秦滅。及漢興，皆棄此國而關蜀故徼。巴屬民或竊出商賈，取其苴馬·僂僮·旄牛，以此巴蜀殷富。

옛날 초(楚)나라 위왕(威王) 때에 장군(將軍) 장교(莊驕)에게 군대를 이끌고 장강(長江)을 따라 올라가,¹¹⁾ 파(巴)와 검중(黔中)¹²⁾ 이서(以西) 지역을 경략(經略)하게 하였다. 장교라는 자는 옛 초나라 장왕(莊王)의 먼 후손이다. 장교가 전지(滇池)¹³⁾에 이르렀는데, [물의 넓이가] 사방 300리(里)이며, 결의 평지가 기름지고 넉넉한 것이 수천 리였다.¹⁴⁾ [장교가] 군대로 위협하여 [이 땅을] 평정하고 초나라에 속(屬)하게 하였다. 귀국하여 보고하려 하였으나, 마침 진(秦)이 초의 파군(巴郡)과 검중군(黔中郡)을 쳐서 빼앗으니, 길이 막혀 교통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끝내 그 무리를 바탕으로 전(滇)에서 왕이 되었는데, 옷을 바꾸어 입고 그 풍속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¹⁵⁾ 진(秦)나라 때의 상과(嘗破)¹⁶⁾가 [이 땅을] 경략하여 오척도(五尺道)¹⁷⁾를 개통하고, 이 국(國)들에 관리를 자못 많이 두었다. 10여 년이 지나 진이 멸망하였다. 한(漢)이 일어나자, [관리들이] 모두 이 국(國)을 버리고, 촉(蜀)의

11) 師古가 말하기를, “循은 順이다. 江을 따라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驕의 音은 居와 略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循, 順也. 謂緣江而上也. 驕音居略反.”).

12) 黔中: 師古가 말하기를, “黔中, 곧 지금의 黔州가 바로 그 땅이다. 본디 巴人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黔中, 卽今黔州是其地, 本巴人也.”). 秦 昭王 때 白起가 蠻夷를 정복하여 설치한 郡으로, 후에 楚國을 멸망시키고 沅陵一帶 즉 湘江流域을 떼어 長沙國을 설치하였다. 漢代에는 武陵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의 湖南 北部와 西部 일대를 포괄하고 郡治는 常德 沅陵 일대로 알려져 있다.

13) 滇池: 師古는 “『地理志』 益州 滇池縣조에 따르면, 그 澤은 현의 西北쪽에 있다. 『華陽國志』에서 이르기를, 澤의 下流가 얇고 좁아서, 모양이 거꾸로 흐르는 못 같기 때문에 滇池라고 한다”고 말하였다(師古曰, “地理志益州滇池縣, 其澤在西北. 華陽國志云澤下流淺狹, 狀如倒池, 故云滇池.”). ‘전지’와 관련하여 다른 설명은 『史記』 「西南夷傳」 역주 참조.

14) 師古가 말하기를, “滇池 주변의 땅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池旁之地也”).

15) 師古가 말하기를,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爲其長帥也.”).

16) 『史記』 「西南夷傳」에서는 常頰이라고 되어 있다.

17) 五尺道: 師古가 말하기를, “그곳이 험하고 막힌 까닭에 길의 너비가 겨우 5尺에 불과하였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其處險阨, 故道纔廣五尺”). ‘오척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傳」 譯註 참조.

옛 요(徼)¹⁸⁾에 관(關)을 설치하였다. 파(巴)와 촉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은 몰래 나와 교역을 하였는데, 작마(笮馬)와 북동(犍僮) 그리고 모우(旄牛)¹⁹⁾를 사들였다. 이 때문에 파와 촉이 넉넉하고 풍성해졌다.

建元六年，大行王恢擊東粵，東粵殺王郢以報。恢因兵威使番陽令唐蒙風曉南粵。南粵食蒙蜀枸醬，蒙問所從來，：“道西北牂柯江，江廣數里，出番禺城下。”蒙歸至長安，問蜀賈人，獨蜀出枸醬，多持竊出市夜郎。夜郎者，臨牂柯江，江廣百餘步，足以行船。南粵以財物役屬夜郎，西至桐師，然亦不能臣使也。蒙乃上書說上：“南粵王黃屋左纛，地東西萬餘里，名為外臣，實一州主。今以長沙·豫章往，水道多絕，難行。竊聞夜郎所有精兵可得十萬，浮船牂柯，出不意，此制粵一奇也。誠以漢之強，巴蜀之饒，通夜郎道，為置吏，甚易。”上許之。乃拜蒙以郎中將，將千人，食重萬餘人，從巴(笮)[符]關入，遂見夜郎侯多同。厚賜，諭以威德，約為置吏，使其子為令。夜郎旁小邑皆貪漢繒帛，以為漢道險，終不能有也，乃且聽蒙約。還報，乃以為犍為郡。發巴蜀卒治道，自犍道指牂柯江。蜀人司馬相如亦言西夷邛·笮可置郡。使相如以郎中將往諭，皆如南夷，為置一都尉，十餘縣，屬蜀。

건원(建元) 6년(전135)에 대행(大行)²⁰⁾ 왕희(王恢)²¹⁾가 동월(東粵)을 공격하자, 동월은 그 왕 영(郢)을 죽여 [항복의 의사를] 알렸다. 왕희는 군사적 위세를 바탕으로 파양령(番陽令) 당몽(唐蒙)을 보내 남월(南粵)을 넉넉히 일러 깨우치게 하였다.²²⁾ 남월이 당몽에게 촉에서

18) 徼: 師古가 말하기를, “西南 지역의 徼는 北方의 塞와 같다. 徼의 음은 工과 鈞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西南之徼, 猶北方塞也. 徼音工鈞反”).

19) 旄牛: 『史記』에서는 ‘髦牛’라고 적었다. ‘모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傳」 譯註 참조.

20) 大行: 귀순한 蠻夷를 담당하던 典客을 개칭한 것.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傳」 譯註 참조.

21) 王恢: 西漢의 將軍이다. 燕나라 사람으로 여러 차례 邊吏를 지낸 까닭에 胡 즉, 흉노의 일에 밝았다. 建元 元年(전140)에 匈奴가 化친을 청하였을 때, 大行의 職에 있으면서 韓安國과 조정에서 논쟁을 벌여 化친에 반대하였다. 元光 元年(전134) 馬邑 사건으로 武帝의 질책을 받자, 자살하였다.

22) 師古가 말하기를, “番의 음은 蒲와 何의 반절이다. 風은 颯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였다(師古曰, “番音蒲何反. 風讀曰颯.”). ‘파양(番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傳」 譯註 참조.

나는 구장(枸醬)²³을 대접하였다. 당몽이 들여온 곳을 물으니, 말하기를, “서북쪽 장가강(群柯江)을 통하여 오는데,²⁴ 강은 너비가 수 리(里)이며, 번우성(番禺城)²⁵ 아래로 나옵니다”라고 하였다. 당몽이 돌아와 장안(長安)에 이르러 촉(蜀)에서 온 상인에게 [그 사정을] 물으니, 오직 촉 지방에서만 구장이 나는데, 대부분 몰래 가지고 나가서 야랑(夜郎)에 판다고 하였다. 야랑은 장가강가에 있는데, 그 강의 너비가 100여 보(步)로 죽히 배를 띄울 만하다고 하였다. (또) 남월은 재물을 가지고 야랑을 역속(役屬)하여 [그 영향력이] 서쪽으로 동사(桐師)에 이르지만, 신하로 부리지는 못 한다고 하였다. 당몽이 이를 바탕으로 상서(上書)하여 처자를 설득하여 말하기를, “남월왕은 황옥좌독(黃屋左纛)의 제도를 시행하고,²⁶ [다스리는] 땅은 동서 만여 리(里)라 하니, 이름은 외신(外臣)²⁷이로되, 실은 한 주(州)²⁸의 주인(主人)입니다. 지금 장사(長沙)²⁹와 예장(豫章)³⁰을 통해 가면, 물길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가기 어렵습니

23) 枸醬: 晉代 사람으로 『漢書音義』를 지은 晉灼이 말하기를, “枸의 음은 矩이다”라고 하였다(晉灼曰, “枸音矩.”). 劉德이 말하기를, “枸樹는 罌나무 같이 생겼는데, 그 오디의 길이가 2,3촌쯤 되며, 맛이 시다. 그 열매를 취하여 醬을 담그면 맛이 있는데, 蜀 지역 사람들이 珍味로 여긴다”라고 하였다(劉德曰, “枸樹如桑, 其椹長二三寸, 味酢. 取其實以爲醬, 美, 蜀人以爲珍味.”). 師古가 말하기를, “劉德이 說은 그르다. 열매의 모양이 罌나무의 오디처럼 생겼을 뿐이다. 木에서 나므로, 樹가 아니다. 열매 또한 길이가 2,3촌까지 되지 않으며, 맛은 또 맵지 시지는 않다. 오늘날의 宕渠에 가면 얻을 수 있다. 食은 飢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劉說非也. 子形如(赤)[桑]椹耳. 緣木而生, 非樹也. 子又不長二三寸, 味尤辛, 不酢. 今宕渠則有之. 食讀曰飢.”).

24) 師古가 말하기를, “道는 由(말미암다)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道, 由也, 由此而來也.”).

25) 番禺: 師古가 말하기를, “番의 음은 普와 安의 반절(번)이다. 禺의 음은 隅(우)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番禺普安反. 禺音隅.”). ‘番’은 ‘番禺’의 예에서처럼 ‘과’의 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고의 설명을 좇아 ‘번우’로 읽었다. ‘번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史記』「西南夷傳」譯註 참조.

26) 師古가 말하기를, “天子의 車服을 사용하였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言爲天子之車服”).

27) 外臣: 漢代의 中國 郡縣 바깥에 존재하며 중국의 황제와 군신관계를 맺은 자를 지칭한다. ‘외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史記』「西南夷傳」역주 참조.

28) 州: 여기에서의 ‘州’는 部刺史의 감찰구역으로서의 ‘州’나 後漢代 13州의 하나로서의 ‘州’와는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 여기에서의 주는 오히려 ‘九州’의 州 특히 우임금이 정비하기 이전의 독립적이고 격절된 하나의 구역 내지 자체적 세계로서의 ‘州’라는 의미에 가깝다.

29) 長沙: 長沙國을 가리킨다. 장사국은 前漢시기 湖南에 출현한 제일의 諸侯封國인데, 기원전 202년에 세워지고 7년에 廢封되어 209년간 존속하였다. 漢高祖가 봉건한 이성제후 가운데 한고조 사망 이후에도 존속한 유일한 제후왕이다. 그 강역은 秦代의 長沙郡 영역을 이어받았고, 장사군의 치소인 ‘湘縣’(오늘날

다. 제가 듣건대, 야랑이 보유한 정예 군사가 10여만은 족히 된다고 하니, 장가강에 배를 띄워 불시에 [군대를] 내보내는 것이 월(越)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책(奇策)입니다. 진실로 한(漢)의 강성함과 파촉(巴蜀)의 넉넉함이라면, 야랑(夜郎)에 이르는 길을 개통하여 [군현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置吏)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라고 하니, 천자가 그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당몽을 낭중장(郎中將)에 제수(除授)하여 천 인의 군사와 보급부대³¹⁾ 만여 인을 이끌고 파(巴)의 작관(笮關)[符關]³²⁾으로부터 들어가게 하니, 마침내 야랑후(夜郎侯) 다동(多同)³³⁾을 만났다. 당몽이 하사품을 넉넉하게 내리고,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이득으로써 타이르고 훈계하니 [군현을 설치하여] 관리를 두기로 약(約)을 맺고, 야랑후의 아들을 현령(縣令)으로 삼도록 하였다.³⁴⁾ 야랑 주변의 작은 읍(邑)들이 모두 한(漢)나라의 증백(繪帛)을 탐하였는데, 한(漢)나라에 이르는 길이 험하여 끝내 얻을 수 없으리라 여기고, 결국 오래지 않아 곧 당몽의 약(約)을 받아들였다. 귀환하여 보고하니, 곧 건위군(犍爲郡)³⁵⁾으로 삼았다. 파와 촉의 군사들을 징발하여 길을 닦았는데, 북도(犍道)³⁶⁾에서 장가강으로 향하였다. 촉 출신인 사마상여(司馬相如)³⁷⁾ 또한 말하기를, 서이(西夷)의 공(邛)과 작(笮)은 군(郡)

의 臨湘縣)을 國都로 삼았다.

30) 豫章: 漢代の 郡名. 현재의 江西省 일대에 해당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傳」 역주 참조.

31) ‘食重’: 師古가 말하기를, “食糧과 衣重이다. 重의 音은 直과 用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食糧及 衣重也. 重音直用反.”). 衣는 輻과 통한다. 輻은 의복 따위 가벼운 물건(物件), 重은 무기(武器) 따위 무거운 물건을 뜻한다. 따라서 衣重은 말이나 수레 따위에 실은 짐, 그리고 군대(軍隊)의 여러 가지 군수 물품(物品), 탄약(彈藥), 식량(食糧), 장막(帳幕), 피복 따위 물건(物件)을 통칭하는 말이다.

32) 『史記』에서는 ‘笮關’이라고 하였는데, 『史記』의 기재가 옳다고 생각된다.

33) 師古가 말하기를, “多同은 그 侯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多同, 其侯名也.”).

34) 관리를 두기로 약속하고 야랑후의 아들을 현령으로 삼기로 한 데 대하여, 師古는 “漢의 縣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比之於漢縣也.”).

35) 犍爲郡: 前漢 建元 6년(전135)에 廣漢郡 남부를 나누어 夜郎國 지역과 함께 설치하여 益州에 속하게 하였다. 治所는 僇縣(오늘날 貴州 遵義市 서부)에 두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傳」 역주 참조.

36) 犍道: 전국시대 秦이 설치한 縣으로 현 四川의 宜賓市에 해당한다. 일설에는 宜賓縣 서쪽의 安邊場鎮이라 하기도 한다(史爲樂, 2005: 2791).

37) 司馬相如(전179? ~ 전117): 字는 長卿이며, 현재의 四川省 南充 蓬安 출신이다. 辭와 賦로 유명하며, 景帝時에 재물을 마쳐 郎이 되었고 武騎常侍를 맡았으나, 景帝가 사부를 좋아하지 않는 데다, 마침 입조한 사부를 좋아하는 양왕을 수종한 枚乘·鄒陽 등과 어울리게 되자 사직하고 양으로 갔다. 枚乘·鄒陽

을 설치할 만하다고 하였다. 사마상여를 낭중장(郎中將)³⁸으로 삼아 가서 깨우치게 하니, 모두 남이(南夷)처럼 하였다. 도위(都尉)³⁹ 하나와 10여 현(縣)을 설치하여 촉군(蜀郡)에 속(屬)하게 하였다.

當是時，巴蜀四郡通西南夷道，載轉相饗。數歲，道不通，士罷餓餒，離暑溼，死者甚衆。西南夷又數反，發兵興擊，耗費亡功。上患之，使公孫弘往視問焉。還報，言其不便。及弘爲御史大夫，時方築朔方，據河逐胡，弘等因言西南夷爲害，可且罷，專力事匈奴。上許之，罷西夷，獨置南夷兩縣一都尉，稍令犍爲自保就。

이때에 파(巴)와 촉(蜀)의 4군(郡)은 서이도(西夷道)와 남이도(南夷道)의 개통을 위해 서로 돌아가며 그 군량을 실어 날랐다.⁴⁰ 몇 해가 지나도 길이 통하지 않자, 병사들이 지쳐 굶주리고 무더위와 습한 기운을 만나,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⁴¹ 서남이(西南夷) 또한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는데, 군대를 일으켜 쳤으나, 비용만 소모⁴²할 뿐 공(功)이 없었다. 천자가

등과 어울리면서 「子虛賦」를 지었다. 이후 귀향하여 임공에서 거부 卓王孫의 딸과 결혼하여 부자가 되었다. 漢武帝가 即位 후에 「子虛賦」를 보고 크게 기뻐하자, 狗監 楊得意의 推薦으로 다시 입궐하게 된다. 司馬相如是 漢武帝를 위하여 「上林賦」를 지었다. 이후 본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郎中將(中郎將)으로서 西夷道 개통에 종사하게 된다.

38) 郎中將: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은 [궁 안에서] 門戶를 지키고 [황제의] 외출시에는 車騎를 지키는 일을 맡는다. [그 종류에는] 議郎·中郎·侍郎·郎中이 있고, 모두 定員이 없으며, 많으면 千명에 이른다. 議郎·中郎은 秩이 比六百石이고, 侍郎은 比四百石이며, 郎中은 比三百石이다(『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 第7上, 727쪽).” 「考證」에 따르면, 「司馬相如傳」에서는 郎中將을 中郎將이라 적었다(瀧川資言, 1935: 4696)고 했는데, 낭중장은 ‘郎中の將’으로, 중랑장은 ‘中郎의將’으로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듯하다.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平帝 元始 元年(후 1년) 謁者의 명칭을 虎賁郎으로 바꾸고, 中郎將을 두었으며, 秩이 比二千石이라 하였는데(『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 第7上, 727쪽), 이 중랑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39) 都尉: 여기에서의 都尉는 郡都尉를 지칭하며, 특히 ‘部都尉’의 설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傳」 역주 참조.

40) 『史記』에서는 ‘載’ 대신 ‘戍’라고 적었다. 사고는 “饗는 옛 餉字”라고 하였다(師古曰, “饗, 古餉字.”).

41) 師古가 말하기를, “罷는 疲로 읽어야 한다. 餓는 飢의 의미로 풀어야 한다. 離는 遭의 의미로 풀어야 한다. 餒의 음은 能과 賄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罷讀曰疲. 餓, 飢也. 離, 遭也. 餒音能賄反.”).

그것을 걱정하여, 공손홍(公孫弘)에게 가서 조사하여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는 돌아와 보고하기를, 서이도와 남이도의 개척이 국가에 불편(不便)을 끼친다고 말하였다. 공손홍이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을 때, 마침 막 삭방군(朔方郡)⁴³⁾에 성(城)을 쌓고 황하(黃河)를 경계로 호(胡)를 축출하려 하였다. 공손홍 등이 이를 기화로 서남이 경영이 손해가 되니,⁴⁴⁾ 장차 [서남이 경영을] 포기하고 흉노(匈奴) 문제에 전력(專力)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천자가 허락하여, 서이(西夷) 경영은 포기하고, 오직 남이(南夷)의 두 현(縣)과 도위 하나만 설치하여 두었으며, 점차 건위군(犍爲郡)으로 하여금 스스로 지키고 [군현을] 이루어가도록 하였다.⁴⁵⁾

及元狩元年，博望侯張騫言使大夏時，見蜀布·邛竹杖，問所從來，曰“從東南身毒國，可數千里，得蜀賈人市。”或聞邛西可二千里有身毒國。騫因盛言大夏在漢西南，慕中國，患匈奴隔其道，誠通蜀，身毒國道便近，又亡害。於是天子乃令王然于·柏始昌·呂越人等十餘輩間出西南夷，指求身毒國。至滇，滇王當羌乃留爲求道。四歲餘，皆閉昆明，莫能通。滇王與漢使：“漢孰與我大？”及夜郎侯亦然。各自以一州王，不知漢廣大。使者還，因盛言滇大國，足事親附。天子注意焉。

원수(元狩) 원년(전122)에 박망후(博望侯) 장건(張騫)이 말하기를, 대하(大夏)⁴⁶⁾에 사신으로 갔을 때 촉포(蜀布)와 공죽장(邛竹杖)을 보고 그 들어온 곳을 물었더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동남쪽의 신독국(身毒國)⁴⁷⁾에서 오는데, 수천 리(里)는 족히 될 터이지만, 촉(蜀) 상인이

42) 師古가 말하기를, “耗는 損의 의미로 풀어야 한다. 音은 呼와 到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耗, 損也, 音呼到反.”).

43) 朔方郡: 前漢 元朔 2년(전127) 설치되었고, 치소는 朔方縣(內蒙古 杭錦旗 북 什拉召 일대)에 있었다. 그 지역은 오늘날의 內蒙古 伊克昭盟 西北部와 巴彥淖爾盟 后套 지구에 해당한다.

44) 師古가 말하기를, “서이도와 남이도를 개통하는 것이 크게 손해가 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言通西南夷大爲損害.”).

45) ‘自保就’에 대하여 師古는 “스스로 지키게 하고, 또 장차 고쳐서 군현을 이루도록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師古曰, “令自保守, 且脩成其郡縣.”).

46) 大夏(전246~전138): Bactria; Bactriana. 힌두쿠시(Hindu Kush)산맥과 아무다리아(Amu Darya) 강 사이 즉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고대 그리스인이 세운 나라. 보다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傳」과 「大宛列傳」의 역주 참조.

파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고 했다. [또] 어떤 이에게 듣기를, 공(邛)의 서쪽으로 2000리 정도에 신독국이 있다고 하였다. 장건이 이를 근거로 조금 과장하여 말하기를, 대하는 한(漢)의 서남쪽에 있는데, 중국을 흠모하지만 흉노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진실로 촉(蜀)을 통하면, 신독국에 이르는 길은 편하고 가까우며 해가 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천자(天子)가 마침내 왕연우(王然于), 백시창(柏始昌), 여월인(呂越人) 등 10여 무리에게 영을 내려 서남(西南夷) 사이의 틈을 찾아 몰래 나가⁴⁸⁾ 신독국을 찾게 하였다. 전(滇)에 이르렀는데, 전왕(滇王) 당강(當羌)⁴⁹⁾이 [사자들을] 머무르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길을 찾았다. 네 해 남짓 지났으나, 모두 곤명에게 막혀 교통할 수 없었다.⁵⁰⁾ 전왕이 한의 사자와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한(漢)나라와 우리 중에 어느 쪽이 더 큰가?”⁵¹⁾라고 하였다. 그리고 [漢의 사자가 야랑후에게 가자] 야랑후 또한 그렇게 말하였다. 각기 스스로를 한 주(州)의 왕(王)으로 여기며 한나라의 광대함을 알지 못하였다. 사자가 돌아와 과장되게 칭찬하여 전(滇)은 큰 나라로 가까이 지내기에 족하다고⁵²⁾ 말하니, 천자가 주목하였다.

及至南粵反，上使馳義侯因犍爲發南夷兵。且蘭君恐遠行，旁國虜其老弱，乃與其衆反，殺使者及犍爲太守。漢乃發巴蜀罪人當擊南粵者八校尉擊之。會越已破，漢八校

47) 身毒國: 師古가 말하기를, “(身毒國은) 곧 天竺이다. 捐篤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即天竺也, 亦曰捐篤也.”). 인도를 지칭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傳」과 『大宛列傳』 역주의 해당注 참조.

48) 師古가 말하기를, “사이의 틈을 찾아 나간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求間隙而出也.”). 『史記』 「大宛傳」에 따르면, 왕연우(王然于), 백시창(柏始昌), 여월인(呂越人) 등이 武帝의 명을 받아 실제로 身毒國道를 찾아 나선 것은 張騫이 신독국도를 찾을 것을 건의한 뒤 한참 뒤, 즉 南越이 멸망한 기원전 111년 이후의 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史記』 「西南夷傳」 역주 참조.

49) 師古가 말하기를, “當羌은 滇王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當羌, 滇王名”). 『史記』에서는 “當羌”이라고 적었다. 이 둘에 관하여 더 이상의 정보는 구하기 어렵다.

50) 師古가 말하기를, “곤명에게 막힌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爲昆明所閉塞”). 여기에서는 師古의 해석을 좇았다.

51) 師古가 말하기를, “與는 如와 같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與猶如”).

52) 師古가 말하기를, “불러오게 하여 친부하게 할 만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言可專事招來之, 令其親附.”)

尉不下，中郎將郭昌·衛廣引兵還，行誅隔滇道者且蘭，斬首數萬，遂平南夷爲牂牁郡。夜郎侯始倚南粵，南粵已滅，還誅反者，夜郎遂入朝，上以爲夜郎王。南粵破後，及漢誅且蘭·邛君，并殺苻侯，冉駝皆震恐，請臣置吏。以邛都爲卑夷郡，苻都爲沈黎郡，冉駝爲文山郡，廣漢西白馬爲武都郡。

남월(南粵)이 반란을 일으키자,⁵³⁾ 무제(武帝)는 치의후(馳義侯)에게 건위군을 통하여 남이(南夷)의 군대를 동원하게 하였다. 차란⁵⁴⁾군(且蘭君)은 멀리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주변의 국(國)들이 (남은) 노약자들을 사로잡을까 두려워한 것이다.⁵⁵⁾ 결국은 자신의 무리와 함께 배반하여, 사자와 건위태수를 죽였다. 이 때문에 한은 파촉(巴蜀)의 죄인을 징발하여 남월 공격을 담당하게 하였던 여덟 교위(校尉)에게 그들을 격파하게 하였다. 마침 월이 이미 격파된⁵⁶⁾ 까닭에 한의 여덟 교위는 남하(南下)하지 않았는데, 중랑장(中郎將)⁵⁷⁾ 곽창(郭昌)⁵⁸⁾과 위광(衛廣)⁵⁹⁾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전으로 향하는 길을 막던 차란(且蘭)⁶⁰⁾에

53) 南越의 相 呂嘉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원정 6년(전111) 여름 사월의 일이다.

54) 且蘭: 且蘭國은 滇國시기부터 漢初에 이르는 古國이다. 그 위치는 현재 貴州의 都勻·福泉·黃平·貴定 등의 市縣 일대에 해당한다.

55) 師古가 말하기를, “군대를 동원하여 한과 함께 원정한 뒤에 그 국이 비게 되면, 주변의 국들이 침구하여 그 노약자들을 약취하여 갈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且의 音은 子와 餘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恐發兵與漢行後, 其國空虛, 而旁國來寇, 鈔取其老弱也. 且音子餘反.”).

56) 남월이 격파된 것은 원정 6년 겨울 시월이다.

57) 中郎將: 『漢書』 「百官公卿表」에 “議郎, 中郎, 侍郎, 郎中이 있는데, 모두 정해진 員이 없어서, 많으면 천명에까지 이른다. 議郎과 中郎은 秩이 比六百石이고, 侍郎은 比四百石이며, 郎中은 比三百石이다. 中郎에는 五官과 左右 3將이 있는데, 秩이 모두 比二千石이다”라고 하였다(『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 第7上, 727쪽). 이로 보건대, 여기에서의 중랑장은 오관 과 좌우 중랑장 중 하나이다.

58) 郭昌: 『漢書』 「郭昌傳」에서는 “郭昌은 雲中人이다. 校尉로서 大將軍 衛靑을 종군하였다. 元封 4년에 太中大夫로서 拔胡將軍이 되었으며 朔方에 둔수하였다. 昆明을 쳤으나 功이 없어 人수를 회수당하였다”라고 하였다(『漢書』 卷55 「郭昌傳」, 2492). 『漢書』 「武帝紀」에 따르면, 곽창은 元封 6년(전105) 삼월에 일어난 益州郡의 昆明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하는데(『漢書』 卷6 「武帝本紀」, 198), ‘功이 없어 人수를 회수당하였다’라고 한 것은 이때의 일인 듯싶다.

59) 衛廣: 『漢書』 「西南夷傳」 외에 별다른 기록을 찾기 어렵다.

60) 『史記』에서는 ‘頭蘭’이라고 적었다.

대하여 바로 주벌(誅罰)⁶¹⁾을 행하였으며,⁶²⁾ 수만 명을 참수하고, 마침내 남이를 평정하여 장가군(牂柯郡)을 설치하였다. 야랑후는 처음에 남월에 의지하였다. 남월이 이미 멸망하고, [한군이] 귀환하던 중 이반한 자들을 주벌하니,⁶³⁾ 야랑이 마침내 입조(入朝)하였고, 천자가 야랑왕(夜郎王)으로 삼았다. 그런데 남월이 격파된 뒤, 한이 차란과 공군(邛君)을 주멸하고, 아울러 작후(笮侯)⁶⁴⁾를 죽이자, 염방(冉駹)이 모두 떨며 두려워하여 칭신(稱臣)하고 [군현을 설치하여] 관리를 둘 것을 요청하였다. 공도(邛都)에 월수군(粵嶯郡)을 설치하고, 작도(笮都)를 침려군(沈犁郡)으로 만들고, 염방(冉駹)에 문산군(汶山郡)을 설치하였으며, 광한군(廣漢郡) 서쪽의 백마(白馬)는 무도군(武都郡)으로 삼았다.

使王然于以粵破及誅南夷兵威風諭滇王入朝。滇王者，其衆數萬人，其旁東北勞深·靡莫皆同姓相杖，未肯聽。勞·莫數侵犯使者吏卒。元封二年，天子發巴蜀兵擊滅勞深·靡莫，以兵臨滇。滇王始首善，以故弗誅。滇王離西夷，滇舉國降，請置吏入朝。於是以為益州郡，賜滇王王印，復長其民。西南夷君長以百數，獨夜郎·滇受王印。滇，小邑也，最寵焉。

[한무제가] 왕연우(王然于)를 사자로 보내 남월의 패망 사실과 남이를 주멸한 군사적 위세를 들어 전왕(滇王)에게 넉지시 깨우쳐⁶⁵⁾ 입조하도록 하였다. 전왕이라는 자는 그 무리가 수만 인에 그 곁 동북쪽에 노심(勞深)⁶⁶⁾과 미막(靡莫)이 있어 모두 동성(同姓)으로 서로 의지

61) 顏師古는 『漢書』 「嚴助傳」에 주를 달면서, “왕자의 군대는 단지 주벌을 행할 뿐, 전투는 있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不伐’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王者之兵，但行誅耳，無有戰鬥，故云不伐也”。『漢書』卷64上 「嚴助傳」, 2788쪽).

62) 師古가 말하기를, “군대가 행군하면서 바로 주벌을 행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言因軍行而便誅之也.”).

63) 師古가 말하기를, “군대가 귀환하다가 차란을 주벌한 것을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謂軍還而誅且蘭.”)

64) 여기에서의 君과 侯의 爵號는 이들이 한 왕조의 왕·후·군·장의 봉작체제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65) 師古가 말하기를, “風은 諷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師古曰, “風讀曰諷.”).

66) 『사기』에서는 ‘勞瀆’이라 적었다.

하는 까닭에 기꺼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⁶⁷⁾ 노심과 미막은 여러 차례 [한의] 사자와 관리 및 사졸을 침범하였다. 원봉(元封) 2년(전109)에 천자가 파촉의 군대를 일으켜 노심과 미막을 쳐서 멸하고, 그 군대로 전을 압박하였다. 전왕이 처음 한과 관계를 가진 이래로 늘 선의(善意)를 가졌기 때문에 주멸당하지 않았다.⁶⁸⁾ 전왕(滇王)이 서이(西夷)의 전례를 좇아,⁶⁹⁾ 나라[國]를 들어 항복하고, 군현의 설치와 입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익주군(益州郡)을 설치하고, 전왕에게 왕(王)의 인(印)을 내려 다시 그 민을 다스리도록 하였다[그 민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다].⁷⁰⁾ 서남이의 군장이 백을 헤아리는데, 오직 야랑(夜郎)과 전(滇)만이 왕인(王印)을 받았다. 전은 작은 읍(邑)이었지만, 가장 충애를 받았다.

後二十三歲，孝昭始元元年，益州廉頭·姑繒民反，殺長吏。牂柯·談指·同並等二十四邑，凡三萬餘人皆反。遣水衡都尉發蜀郡·犍爲犇命萬餘人擊牂柯，大破之。後三歲，姑繒·葉榆復反，遣水衡都尉呂辟胡將郡兵擊之。辟胡不進，蠻夷遂殺益州太守，乘勝與辟胡戰，士戰及溺死者四千餘人。明年，復遣軍正王平與大鴻臚田廣明等並進，大破益州，斬首捕虜五萬餘級，獲畜產十餘萬。上：“鈞町侯亡波率其邑君長人民擊反者，斬首捕虜有功，其立亡波爲鈞町王。大鴻臚廣明賜爵關內侯，食邑三百戶。”後間歲，武都氐人反，遣執金吾馬適建·龍顏侯韓增與大鴻臚廣明將兵擊之。

23년이 지난 뒤 효소제(孝昭帝) 시원(始元) 1년(전86)에 익주군(益州郡) 염두(廉頭)와 고증(姑繒)⁷¹⁾의 민(民)이 반란을 일으켜 장리(長吏)를⁷²⁾ 죽였다. 장가군(牂柯郡)의 담지(談

67) 師古가 말하기를, “杖은倚와 같으니, 서로 의지하여 도움을 주어 滇王이 入朝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杖은 音이 直과 亮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杖猶倚也, 相依倚爲援而不聽滇王入朝也. 杖音直亮反.”).

68) 師古가 말하기를, “처음 교통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善意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言初始以來, 常有善意.”). 한편 ‘始’를 ‘비로소’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군대가 滇에 가까이 닥치자, 비로소 스스로 앞장서 善意를 표시하였다는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69) 師古가 말하기를, “동쪽을 향하여 한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言東嚮事漢.”).

70) 師古가 말하기를, “우두머리가 되어 통솔하였다”라고 하였다(師古曰, “爲之長帥.”).

71) 廉頭와 姑繒: 임내강은 『華陽國志校補圖注』 안에 붙인 「說鹽」이라는 글에서 ‘1’를 지명이나 민족명이

指)⁷³⁾와 동반(同並),⁷⁴⁾ 등의,⁷⁵⁾ 24개 읍(邑) 함께 3만여 인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다. 수형도위(水衡都尉)⁷⁶⁾를 보내, 촉군(蜀郡)과 견위군(犍爲郡)의 분명(犇命) 만여 인을 징발하였으며,⁷⁷⁾

아닌 제염업에 종사하는 工人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풀었다. 그리고 ‘고증’은 羌族으로 일찍이 雲南 高原 지역으로 이주한 자들의 古稱으로 풀었다. 임내강은 ‘염두’를 소금 산지인 連然縣에서 益州郡의 위탁을 받아 제염업에 종사하는 工人들로, 한군현의 착취와 차별에 반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이들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반란에 越隴郡의 鹽工인 고증이 호응하고, 이 결과 소금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익주군과 월수군의 만이들이 동요하여 반란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태는 익주군과 월수군의 소금에 의지하던 牂牁郡 중남부의 만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반란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任乃強, 1987: 238쪽).

72) 長吏: 史書에서 ‘長吏’의 정의는 대체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우선 吏로 六百石 이상의 秩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데, 그 상한은 대체로 二千石 정도로 보인다. 둘째로는 縣의 令長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秩 百石 이하의 縣吏를 小吏라 칭하는데 비하여, 秩 二百石 이상 四百石 이하의 縣 丞·尉를 포함하는 吏를 지칭하는 것이다. 당시 익주군의 군현 지배의 정도로 추단하건대, 두 번째의 현의 令長 정도까지로 보인다.

73) 談指: 장가군의 縣 이름. 현재의 貴州 貞豐布依族苗族自治縣 등의 지역.

74) 同並: 師古가 말하기를, “並의 音은 伴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並音伴.”). 현재 雲南의 弥勒縣에 해당한다.

75) 원문은 “牂牁·談指·同並”이라고 하여 장가를 담지 동반과 같이 읍의 하나로 표현하였지만, 표점본의 실수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昭帝紀』에서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牂牁談指·同並”이라 하였다(『漢書』 『昭帝紀』: 219).

76) 水衡都尉: 官名.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武帝 元鼎 2년(前115)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上林苑을 관장하며, 5丞이 있다. 屬官으로는 上林·均輸·御羞·禁圃·鞞濯·鍾官·技巧·六廩·辯銅九官令丞이 있다. 그리고 衡官·水司空·都水·農倉, 또 甘泉上林·都水七官長丞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上林에는 八丞 十二尉가 있고, 均輸四丞과 御羞兩丞, 都水三丞, 禁圃兩尉, 甘泉上林四丞이 있다. 成帝 建始 2년에 技巧와 六廩官을 폐지하였다. 王莽이 水衡都尉을 고쳐 予虞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御羞·上林·衡官 및 鑄錢의 일이 모두 少府에 속하였다(『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 第7上, 735쪽).” 後漢代에는 일이 있을 때만 水衡都尉를 설치하였으며, 上林苑 등의 일상적인 업무는 少府에 귀속시켰다. 曹魏는 水衡都尉에게 水軍의 舟船과 器械를 관장하게 하였다. 晉 초기에 폐지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설치하였다. 南朝의 宋은 水衡令을 설치한 바 있다. 唐은 都水使者를 고쳐서 水衡都尉라 하였는데, 漢의 水衡都尉와 그 관장하는 것이 달랐다.

77) 犇命: 師古가 말하기를, “犇은 옛 奔字이다. 奔命은 『昭帝紀』에서 풀어놓았다”하고 하였다(師古曰, “犇, 古奔字. 奔命, 解在昭紀.”). 『소제기』에는 應劭와 李斐 그리고 사고의 주가 있다. 우선 應劭는 “옛날 郡國에는 모두 材官과 騎士가 있어서 급한 어려움이 있으면 달려갔는데, 지금 夷가 반란을 일으켜 상비병만으로는 토벌하기에 충분하지 않자, 임시로 정예의 용사를 가려 뽑은 것이다”. 命을 들으면 떨쳐 달려가는 까닭에 일러 奔命이라 한 것이다(應劭曰, “舊時郡國皆有材官騎士以赴急難, 今夷反, 常兵不足以討之, 故權

장가를 쳐서 크게 격과하였다. 3년 뒤, 고증과 엽유(葉榆)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니, 수형도위 여벽호(呂辟胡)⁷⁸⁾를 파견하여 [익주]군의 군대를 이끌고 치게 하였다. 여벽호가 진격하지 않자, 만이(蠻夷)가 마침내 익주태수(益州太守)를 죽이고, 승세를 몰아 여벽호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여벽호의 병사 중에 싸우다 죽은 자와 물에 빠져 죽은 자가 4000여 인이었다. 다음 해에 다시 군정(軍正) 왕평(王平)과 대홍臚(大鴻臚)⁷⁹⁾ 전광명(田廣明)⁸⁰⁾ 등이 함께 진

選取精勇. 聞命奔走, 故謂之奔命.”)라고 말하였다. 李斐는 말하기를, “평시에는 20세 이상 50세에 이르는 자들을 징발하여 甲卒로 삼는데, 지금은 50세 이상 60세 이하를 징발하여 奔命으로 삼은 것이다. 奔命은 그 급함을 말하는 것이다(李斐曰, “平居發者二十以上至五十爲甲卒, 今者五十以上六十以下爲奔命. 奔命, 言急也.”)라고 하였다. 師古는 “응소의 說이 옳다. 奔은 옛 奔字일 따름이다(師古曰, “應說是也. 奔, 古奔字耳. 反.”)라고 하였다(『漢書』「昭帝紀」, 219쪽).

78) 呂辟胡: 師古가 말하기를, “辟의 음은 璧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辟音璧.”). 『漢書』「百官公卿表」에 따르면, 始元元年(전 86)에 水衡都尉였고, 5년에 雲中太守가 되었다. 『昭帝紀』에는 呂破胡라고 하였다(『漢書』卷7「昭帝紀」第7, 219쪽). 이 밖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79) 大鴻臚: 『漢書』「百官公卿表」에서는 大鴻臚를 귀순한 蠻夷를 담당하던 典客의 후신으로 보았는데, “典客은 秦官으로 귀순한 蠻夷들을 담당하며, (屬官으로) 쯤이 있다. 景帝 中6년(전144)경에 大行令으로 불렸고, 武帝 太初 元年(전104)에 大鴻臚로 이름을 바꾸었다. 屬官으로 行人譯官別火 3令 쯤 과 郡邸長쯤이 있다. 武帝 太初 元년에 行人을 大行令으로 고쳐 불렀고, 別火를 처음으로 두었다”(『漢書』卷90上「百官公卿表」第7上, 730쪽)라고 하였다. 顏師古는 景帝 中2년(전148) 諸侯王이 죽거나 列侯가 처음 봉건되어 취국할 때는 大鴻臚가 誥·詔와 策을 올리게 하고, 列侯가 죽거나 諸侯의 太傅가 처음 관에 제수될 때는 大行이 誥·詔와 策文을 올리게 한 조치에 관한 『景帝紀』의 기사에 注를 달면서, “大鴻臚는 본디 명칭이 典客이며, 나중에 고쳐 大鴻臚라 한 것이다. 大行令은 본디 명칭이 行人이며, 바로 典客의 屬官인데, 나중에 고쳐 大行令이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일이 귀하고 무거울(尊重) 경우에는 大鴻臚를 파견하고, 일이 가볍고 천한(輕賤) 경우에는 大行을 보내는 것이다. 이 本紀의 글에 따르면, 景帝는 이미 典客을 고쳐 大鴻臚라 하였으며, 行人을 고쳐 大行이라 하였다. 그런데 『百官公卿表』에서는 여전히 景帝 中6년에 典客의 이름을 바꾸어 大行令이라 하고, 武帝 太初 元년에 大行令의 이름을 바꾸어 大鴻臚라 했으며, 行人의 이름을 바꾸어 大行令이라 했다고 했다. 이는 마땅히 表의 오류이다”(師古曰, “大鴻臚者, 本名典客, 後改曰大鴻臚. 大行令者, 本名行人, 即典客之屬官也, 後改曰大行令. 故事之尊重者遣大鴻臚, 而輕賤者遣大行也. 據此紀文, 則景帝已改典客爲大鴻臚, 改行人爲大行矣. 而百官公卿表乃云景帝中六年更名典客爲大行令, 武帝太初元年更名大行令爲大鴻臚, 更名行人爲大行令. 當是表誤.”)라고 하였다.

80) 田廣明: 『漢書』「酷吏傳」에 약전이 기록되어 있다. 鄭人이라 하였다. 武帝時 郎으로서 天水郡 司馬에 임명된 뒤, 지방관으로서 공을 세워 大鴻臚에 오른다. 소제시 大鴻臚로서 익주 반란 진압에 공을 세워 關內侯의 爵을 받고, 衛尉, 左馮翊의 관직을 거치며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 宣帝初에는 御史大夫에 임용되었으며, 以前에 馮翊으로서 定策에 참여한 공로로 昌水侯에 봉해진다. 이후 흉노 정벌 과정에서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져 자살한다.

격하여 익주군의 반란세력을 크게 격파하였다. 머리를 베거나 포로로 잡은 것이 5만여 급(級)이었으며, 노획한 가축이 10여 만이었다. 상(上)이 말하기를, “구정후(鉤町⁸¹)侯) 망파(亡波)가 그 읍의 군장(君長)과 인민을 이끌고 반도(叛徒)를 공격하였는데, 적의 목을 베고 사로잡은 데 공(功)이 있으니, 또한 망파를 세워 구정왕(鉤町王)으로 삼는다. 대흥려 광명에게는 관내후(關內侯⁸²)의 작(爵)을 내리며, 300호(戶)의 식읍(食邑)을 내린다”라고 하였다. 한 해 건너⁸³ 무도군(武都郡)의 저인(氐人)이 반란을 일으키자, 집금오(執金吾) 마적건(馬適建)과 용액후(龍頤侯) 한증(韓增), 및 대흥려 전광명을 파견하여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게 하였다.

成帝河平中，夜郎王興與鉤町王禹·漏臥侯俞更舉兵相攻。牂柯太守請發兵誅興等，議者以爲道遠不可擊，乃遣太中大夫蜀郡張匡持節和解。興等不從命，刻木象漢吏，立道旁射之。杜欽說大將軍王鳳：“太中大夫匡使和解蠻夷王侯，王侯受詔，已復相攻，輕易漢使，不憚國威，其效可見。恐議者選與，復守和解，太守察動靜，有變乃以聞。如此，則復曠一時，王侯得收獵其衆，中固其謀，黨助衆多，各不勝忿，必相殄滅。自知罪成，狂犯守尉，遠藏溫暑毒草之地，雖有孫吳將，賁育士，若入水火，往必焦沒，知勇亡所施。屯田守之，費不可勝量。宜因其罪惡未成，未疑漢家加誅，陰敕旁郡守尉練士馬，大司農豫調穀積要害處，選任職太守往，以秋涼時入，誅其王侯尤不軌者。卽以爲不毛之地，亡用之民，聖王不以勞中國，宜罷郡，放棄其民，絕其王侯勿復通。如以先帝所立累世之功不可墮壞，亦宜因其萌芽，早斷絕之，及已成形然後戰師，則萬姓被害。”

81) 鉤町: 師古가 말하기를, “鉤의 음은 鉅와 于의 반절이다. 町은 음이 大와 鼎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鉤音鉅于反. 町音大鼎反.”). 鉤町은 縣의 이름으로, 오늘날 雲南省 廣南縣 등지에 해당한다.

82) 關內侯: 관내후에 관하여 『史記集解』에서는 如淳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列侯는 關을 나서 就國하고, 關內侯은 단지 그 몸에 작만 내릴 뿐인데, 특별히 더하는 경우에는 관내의 읍을 주어 그 조세만 받아먹게 한다. 『風俗通義』에 이르기를, ‘秦나라 때 아직 六國이 평정되지 않았을 때, 將帥들이 모두 關中에 집을 둔 까닭에 칭하여 關內侯라 하였다’라고 하였다”(『史記』卷9 呂太后本紀第九, 406).

83) 師古가 말하기를, “間歲는 한 해를 건너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間歲, 隔一歲.”). 한 해를 건너뛰면, 元鳳 1년(전80)이 된다.

성제(成帝) 하평(河平) 연간(전28~전25)에 이르러, 야랑왕(夜郎王) 흥(興)이 구정왕(鉤町王) 우(禹) 및 누와후(漏臥侯) 유(俞)⁸⁴⁾와 번갈아 군대를 일으켜 서로⁸⁵⁾ 공격하였다. 장가태수가 군대를 일으켜 흥 등을 주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조정회의에서 길이 멀어 칠 수 없다 하여, 끝내 태중대부(太中大夫)⁸⁶⁾ 축군(蜀郡) 출신 장광(張匡)을 파견하여 절을 들고[持節] 화해를 주선하도록 하였다. 흥 등이 명(命)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나무를 꺾어 한(漢)의 관리 모양을 한 목상을 만들어 길가에 세워두고 활을 쏘아댔다. 두흠(杜欽)이 대장군(大將軍) 왕봉(王鳳)을 설득하여 말하였다. “태중대부 장광이 사자로 가서 만이(蠻夷) 왕과 후에게 화해하도록 하였지만, 왕과 후가 조(詔)를 받고도 이미 다시 서로 공격하였습니다. 한(漢)의 사자를 가벼이 여기고 국가의 권위를 거리끼지 않는 것이니, 그 효과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조정회의에서는 문제를 회피하여⁸⁷⁾ 다시 화해를 고집하고, 태수에게 동정을 살펴 변화가 있으면 보고하게 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다시 한때를 허비하게 될 것이며,⁸⁸⁾ 왕과 후는 그 무리를 모아 그 계획을 거둬 다질 수 있을 것이고 패거리(黨助)가 더욱 많아질 것이니, 각기 그 분(忿)을 이기지 못하여 반드시 서로 끝장을 보려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면 미쳐서 군수(郡守)와 도위(都尉)를 범할 것인데,⁸⁹⁾ 열병(溫暑)⁹⁰⁾과 독초를 품은 먼 땅이라 설사 손무(孫武)와 오기(吳起)와 같은 지장과 맹분(孟

84) 漏臥: 孟康이 말하기를, “漏臥는 夷邑의 이름이다. 나중에 현이 설치되었다”라고 하였다.(孟康曰, “漏臥, 夷邑名, 後爲縣.” 師古曰, “俞音踰.”). 현재의 운남성 羅平縣 등지에 해당한다.

85) 師古가 말하기를, “更은 互의 의미이다. 音은 工과 衡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更, 互也, 音工衡反.”).

86) 太中大夫: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中令에 속한 大夫官의 하나로 秩은 比千石이고, 論議를 담당하였다(『漢書』卷19上, 727쪽).

87) 師古가 말하기를, “選奕은 怯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選의 音은 息과 袞의 반절이다. 奕의 音은 人과 兗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選奕, 怯不前之意也. 選音息袞反. 奕音人兗反.”).

88) 師古가 말하기를, “曠은 空(헛되이)의 의미이다. 一時란 [삼]月을 뜻한다. 헛되이 한 때를 버려 일찍 군대를 일으키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曠, 空也. 一時, (二)[三]月也. 言空廢一時不早發兵也.”)

89) 師古가 말하기를, “사리분별을 못하여 울컥하는 마음이 일어나 태수를 죽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言起狂勃之心而殺守尉也.”).

90) 溫暑: 『漢語大辭典』에 ‘溫’자 풀이에 따르면, 熱病의 총칭이라 하면서 『素問』의 「熱論」의 다음과 같은 한구절을 소개하고 있다.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爲病溫, 後夏至日者爲病暑.”(3354쪽, ‘暑’.3054

賁)과 하육(夏育)과 같은 용사가 있더라도⁹¹⁾ 물과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을 것이며, 가면 반드시 [불에] 그을리고 [물에] 빠져서 그 지략과 용맹을 베풀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둔전(屯田)하여 지키자니 그 비용이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 죄악이 아직 저질러 지지 않은 때에, 그리고 아직 ‘한가(漢家)’가 주멸을 행하리라는[加誅] 의심이 없을 때에 은밀히 칙령을 내려 그 주변 군의 태수와 도위에게 군마(軍馬)를 가려 준비하게 하고,⁹²⁾ 대사농에게는 곡식을 조발하여 요해처(要害處)에 쌓아두게 하십시오.⁹³⁾ (그리고) 태수직(太守職)을 맡아 갈만한 자를 가려 뽑아 가을 시원할 때에 들어가서 그 왕후들과 반역의 무리들[不軌者]을 베게 하십시오. 만약 아무것도 나지 않은 땅[不毛之地]과 쓸 모 없는 백성[亡用之民]이라 여기신다면, 성왕(聖王)은 그것 때문에 중국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⁹⁴⁾ 마땅히 그 (郡)을 파하여 그 민을 버리고, 그 왕후들과 절교하여 다시는 교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선제(先帝)가 세운 누세의 공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여도,⁹⁵⁾ 또한 마땅히 그 착이 보일 때 일찍 끊어버려야지, 이미 형태를 갖춘 연후에 전쟁을 일으켜 정벌하면 만성(萬姓)이 해를 입습니다.”

大將軍鳳於是薦金城司馬陳立爲牂柯太守。立者，臨邛人，前爲連然長，不韋令，蠻

족). 즉, 夏至 전에 오는 열병을 온이라 하고, 하지 뒤에 오는 열병을 서라 하는 셈이다. 결국 춘계와 하계에는 열병이 성하여 공략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는 후에 가을을 공격의 시기로 잡는 것과도 상통한다.

91) 師古가 말하기를, “孫은 孫武를 가리킨다. 吳는 吳起를 말한다. 賁는 孟賁이다. 育은 夏育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孫, 孫武也. 吳, 吳起也. 賁, 孟賁也. 育, 夏育也.”). 孟賁은 전국시대의 이름난 역사이고, 夏育은 周代의 이름난 용사이다.

92) 師古가 말하기를, “練은 簡(가리다, 선택하다)의 의미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練, 簡也.”).

93) 師古가 말하기를, “調는 發(징발하다)의 의미이다. 要害라는 것은 아군에게는 필요한 곳이 되고 적에게는 해가 되는 곳을 말한다. 調의 음은 徒와 鈞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調, 發也. 要害者, 在我爲要, 於敵爲害也. 調音徒鈞反.”).

94) 師古가 말하기를, “卽은 若(만약의 의미)과 같다. 不毛는 草木이 나지 않음을 말한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卽猶若也. 不毛, 言不生草木.”).

95) 師古가 말하기를, “如 또한 若의 의미이다. 墮는 毀(헐다, 이지러지다)의 의미이며, 音은 火와 規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如亦若也. 墮, 毀也, 音火規反.”).

夷畏之。及至牂柯，諭告夜郎王興，興不從命，立請誅之。未報，乃從吏數十人出行縣，至興國且同亭，召興。興將數千人往至亭，從邑君數十人入見立。立數責，因斷頭。邑君：“將軍誅亡狀，爲民除害，願出曉士衆。”以興頭示之，皆釋兵降。鈞町王禹·漏臥侯俞震恐，入粟千斛，牛羊勞吏士。立還歸郡，興妻父翁指與興子邪務收餘兵，迫脅旁二十二邑反。至冬，立奏募諸夷與都尉長史分將攻翁指等。翁指據阬爲壘，立使奇兵絕其饗道，縱反間以誘其衆。都尉萬年：“兵久不決，費不可共。”引兵獨進，敗走，趨立營。立怒，叱戲下令格之。都尉復還戰，立引兵救之。時天大旱，立攻絕其水道。蠻夷共斬翁指，持首出降。立已平定西夷，徵詣京師。會巴郡有盜賊，復以立爲巴郡太守，秩中二千石居，賜爵左庶長。徙爲天水太守，勸民農桑爲天下最，賜金四十斤。入爲左曹衛將軍·護軍都尉，卒官。

대장군 왕봉이 [두흠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성군(金城郡)의 사마(司馬) 진립(陳立)을 추천하여 장가태수(牂柯太守)로 삼았다. 진립은 임공현(臨邛縣) 사람으로 전에 연연현장(連然縣長)과 불위현령(不韋縣⁹⁶⁾을 지냈는데,⁹⁷⁾ 만이가 그를 두려워하였다. 장가에 이르러 야랑왕 홍에게 타일러 훈계하였는데[諭告], 홍이 명을 따르지 않자, 진립이 (조정에) 요청하기를 그를 죽이겠다고 하였다. 아직 (조정의)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 군리(郡吏) 수십인을 거느리고 나가 속현(屬縣)을 순행(巡行)하였다.⁹⁸⁾ 야랑왕 홍의 국(國) 차동정(且同亭⁹⁹⁾)에 이르러 홍을 불렀다. 홍이 수천인을 거느리고 왔는데, 정(亭)에 이르러 읍군(邑君) 수십인을 거느리고 들어가 진립을 알현하였다. 진립이 [잘못을] 낱낱이 들어¹⁰⁰⁾ 질책하고, 이어 머리를 베었다. 읍군들이 말하기를, “장군이 무례한 자[亡狀]를 베어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였으니, 원컨대 나아가 사중(士衆)을 깨우치십시오”라고 하였다. [진립이 나가] 홍의 머리를 보이니, 모두 무장을 풀고¹⁰¹⁾ 항복하였다. 구정왕(鈞町王) 우(禹)와 누와후(漏臥侯)

96) 不韋縣: 방국유는 오늘날의 雲南 施甸으로 비정하였다.

97) 蘇林이 말하기를, “(연연과 불위) 모두 益州郡의 縣이다”라고 하였다(蘇林曰, “皆益州縣也.”).

98) 師古가 말하기를, “行의 음은 下와 更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行音下更反.”).

99) 師古가 말하기를, “且의 음은 子와 餘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且音子餘反.”).

100) 師古가 말하기를, “數의 음은 所와 具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數音所具反.”).

유(兪)가 놀라 두려워하며 조[粟] 천 곡(斛)¹⁰²⁾을 납입하고 소와 양으로 군리와 병사를 위로 하였다. 진립이 군(郡)으로 귀환하자 흥의 장인 옹지(翁指)와 아들 야무(邪務)가 나머지 병력을 수습하여 주변의 22읍(邑)을 협박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겨울이 되자, 진립이 상주(上奏)하여 여러 만이와 도위 및 장사(長史) 중에 군대를 나누어 이끌고 옹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자를 공모하자고 하였다. 옹지가 막힌 곳에 의지하여 성채를 쌓자, 진립이 기병(奇兵)을 보내 그 보급로를 끊고 간첩¹⁰³⁾을 풀어 그 무리를 유혹하였다. 도위 만년(萬年)이 말하기를, “싸움이 오래도록 결판이 나지 않아, 그 비용을 댈¹⁰⁴⁾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군대를 이끌고 홀로 진격하였다가 패주하여 진립의 군영으로 쫓겨 들어왔다.¹⁰⁵⁾ 진립이 진노하여 그 휘하를 질책하고 끝까지 치도록 하였다.¹⁰⁶⁾ 도위(都尉)가 다시 돌아가 싸우니, 진립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였다. 마침 날이 크게 가물자, 진립이 공격하여 그 물길을 끊었다. 만이(蠻夷)가 함께 옹지를 베고, 수급을 가지고 나와 항복하였다. 진립이 서이를 평정한 뒤 [황제의] 부름을 받아 경사(京師)로 귀환하였다. 마침 파군(巴郡)에 도적(盜賊)이 일어나자, 다시 진립을 파군 태수로 삼아 질(秩) 중이천석(中二千石)에 거하게 하고 좌서장¹⁰⁷⁾의 작(爵)을 내렸다. 옮겨서 천수태수(天水太守)가 되었는데, 민에게 농상을 권장하여 그 실적이 천하 최고였다. 금 40근(斤)을 내렸다. 다시 [중양으로] 들어가 좌조위장군(左曹衛將軍)과 호군도위(護軍都尉)를 지냈고, 관직에 있는 중에 죽었다.

101) 師古가 말하기를, “釋은 解(풀다)의 의미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釋, 解也.”).

102) 斛: 양을 세는 용기의 이름이다. 용량을 세는 단위. 고대에는 열 말(斗)이 1斛이었지만, 南宋末年에 5두 1곡으로 고쳤다고 한다.

103) 師古가 말하기를, “間의 음은 居와 覓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間音居覓反.”).

104) 師古가 말하길, “共은 供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였다(師古曰, “共讀曰供.”).

105) 師古가 말하기를, “趨는 趣로 읽어야 한다. 趣는 向의 의미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趨讀曰趣. 趣, 向也.”).

106) 師古가 말하기를, “戲는 許와 宜의 반절이며, 또 麿의 음이다. 풀이는 「고제기」와 「관부전」에 있다”라고 하였다(師古曰, “戲音許宜反, 又音磨. 解在高紀及灌夫傳.”).

107) 左庶長: 師古가 말하기를, “(20등작 가운데) 열 번째 爵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第十爵也.”).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한대의 20등 작은 다음과 같다. 1급 公士, 2급 上造, 3급 簪褭, 4급 不更, 5급 大夫, 6급 官大夫, 7급 公大夫, 8급 公乘, 9급 五大夫, 10급 左庶長, 11급 右庶長, 12급 左更, 13급 中更, 14 급 右更, 15급 少上造, 16급 大上造, 17급 駟車庶長, 18급 大庶長, 19급 關內侯, 20급 徹(列)侯.

王莽篡位，改漢制，貶鉤町王以爲侯。王邯怨恨，牂柯大尹周欽詐殺邯。邯弟承攻殺欽，州郡擊之，不能服。三邊蠻夷愁擾盡反，復殺益州大尹程隆。莽遣平蠻將軍馮茂發巴·蜀·犍爲吏士，賦斂取足於民，以擊益州。出入三年，疾疫死者什七，巴·蜀騷動。莽徵茂還，誅之。更遣寧始將軍廉丹與庸部牧史熊大發天水·隴西騎士，廣漢·巴·蜀·犍爲吏民十萬人，轉輸者合二十萬人，擊之。始至，頗斬首數千，其後軍糧前後不相及，士卒飢疫，三歲餘死者數萬。而粵嶺蠻夷任貴亦殺太守枚根，自立爲邛穀王。會莽敗漢興，誅貴，復舊號云。

[始建國 1년(후9) 秋] 왕망(王莽)이 제위(帝位)를 찬탈하였다. 한(漢)의 제도를 고치고, 구정왕의 작(爵)을 떨어뜨려 후(侯)로 삼았다. [후12년] 구정왕 함(邯)이 원망하여 한(恨)을 품자,¹⁰⁸⁾ 장가군의 대윤(牂柯大尹) 주흠(周欽)이 함을 속여 살해하였다. 함의 아우 승(承)이 주흠을 공격하여 살해하였다. 익주와 소속 군이 쳤으나,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天鳳 1년; 후14) 삼변의 만이(蠻夷)가 근심으로 요란(擾亂)하여 모두 반란을 일으켰으며, 또 익주군의 대윤 정룡(程隆)을 죽였다. [天鳳 3년(후16) 시월] 왕망은 평만장군(平蠻將軍) 풍무(馮茂)를 파견하여 파군, 촉군 그리고 건위군의 속리(屬吏)와 병사를 일으키고, 민(民)에서 부렴(賦斂)을 필요한 만큼 취하여 익주군을 공격하였다. 출동하여 [익주군에] 들어간지 3년이 지났는데, 질병과 역병으로 죽은 자가 10에 7이나 되니, 과축의 [민들이] 크게 동요하였다. (이에) 왕망이 풍무를 소환하여 죽였다. 다시 영시장군(寧始將軍) 염단(廉丹)과 용부목(庸部牧)¹⁰⁹⁾ 사웅(史熊)을 파견하여, 천수군(天水郡)과 농서군(隴西郡)의 기사(騎士) 그리고 광한군(廣漢郡), 파군, 촉군, 건위군의 속리와 민(民) 10만 인을 징발하고, 수송을 담당한 자들까지 합하여 20만 인이 공격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참수한 것이 자못 많아 수천에 달했으나, 그 뒤로는 군량의 수송이 앞뒤로 서로 이어지지 못하여, 사졸이 굶주리고 전염병이 돌았으니, 3년여가 지나자 죽은 자가 수만이었다. 그리고 월수(粵嶺)의 만이 임귀(任貴) 또한 태수 매근(枚根)을 죽이고 자립하여 공곡왕(邛穀王)이 되었다.¹¹⁰⁾ 때마침 왕망이 패망하고 한(漢)이 흥하여, 임

108) 師古가 말하기를, “邯은 그 왕의 이름이다.邯의 음은 酣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邯, 其王名也. 邯音酣.”).

109) 師古가 말하기를, “王莽이 益州를 고쳐 庸部라 하였다”고 하였다(師古曰, “莽改益州爲庸部.”).

귀를 주멸하고 옛 호칭을 회복하였다.¹¹¹⁾

南粵王趙佗，眞定人也。秦并天下，略定揚粵，置桂林·南海·象郡，以適徙民與粵雜處。十三歲，至二世時，南海尉任囂病且死，召龍川令趙佗語曰：“聞陳勝等作亂，豪桀叛秦相立，南海辟遠，恐盜兵侵此，吾欲興兵絕新道，自備待諸侯變，會疾甚。且番禺負山險阻，南北東西數千里，頗有中國人相輔，此亦一州之主，可爲國。郡中長吏亡足與謀者，故召公告之。”卽被佗書，行南海尉事。囂死，佗卽移檄告橫浦·陽山·湟谿關：“盜兵且至，急絕道聚兵自守。”因稍以法誅秦所置吏，以其黨爲守假。秦已滅，佗卽擊并桂林、象郡，自立爲南粵武王。

남월왕(南粵)¹¹²⁾ 왕 조타(趙佗)¹¹³⁾는 진정(眞定)¹¹⁴⁾ 사람으로 성은 조씨(趙氏)이다. 진(秦)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양월(揚粵)¹¹⁵⁾을 공략하여 평정하고 계림군(桂林郡),¹¹⁶⁾ 남해군(南

110) 師古가 말하기를, “枚根은 太守의 姓名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枚根, 太守之姓名.”).

111) 師古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漢이 興하였다고 한 것은 光武帝의 中興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師古曰, “此漢興者, 謂光武中興也.”).

112) 南粵: 粵은 越과 通用자. 古音은 Wut, Wat, Wet으로 읽었다. 고대 강남 토착인들은 ‘人’이라는 말을 이렇게 발음하였다. 越은 즉 ‘人’이라는 뜻이다(黃現璠, 『壯族通史』, 廣西民族出版社, 1988). 『史記』에는 南越로 되어 있다. 원래는 族名이었는데, 뒤에 趙佗가 세운 國名되었다. 그 疆域은 현재 廣東과 廣西 지구를 포함하여 남쪽으로는 湄南 북부까지, 북쪽으로는 湖南省과 貴州省 남부까지 해당한다. 秦이 六國을 통일한 뒤 이 지역에 桂林郡, 南海郡, 象郡 3郡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史記正義』(이하 『正義』로 약칭)는 廣州 南海縣에 도읍하였다고 전하고 있는데, 秦始皇 33년에 嶺南을 통일한 뒤 南海郡을 설치하였고, 郡治는 番禺城이었다. 현재 廣州市 越秀區 내에 속한다. 越秀區는 南海縣과 番禺縣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隋 開皇 10년에 番禺縣을 南海縣에 통합하였다가 唐 長安 3년에 다시 番禺縣을 회복시켰다. 이후 五代十國과 宋代 통합과 분리를 거듭하다가 明代 鹿步巡檢司의 관할에 속하면서 같은 행정 소속이 되었다.

113) 趙佗: 『史記』에는 ‘尉佗’라고 되어 있다.

114) 眞定: 顏師古 『漢書』注(이하 顏師古注로 약칭)에 따르면 “眞定은 본래 趙나라의 縣이었다(眞定, 本趙國之縣也)”라고 한다. 또 『史記索隱』(이하 『索隱』으로 약칭)에 인용된 韋昭에 따르면, 처음에는 郡名이었는데, 뒤에 縣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前漢 초에 설치되었고 常山郡에 속하였다. 漢武帝 元鼎4년(전113)에 眞定國으로 바뀌었다. 治所는 현재 河北省 正定 남쪽에 있다.

海郡),¹¹⁷⁾ 상군(象郡)¹¹⁸⁾을 설치하였다. 이곳에 죄를 지은 자들을 천사시켜[以適徙民]¹¹⁹⁾ 월나라 사람과 섞여 살게 하였다. 그러기를 어언 13년이 흘렀다. 그러다가 이세가 즉위했을 즈음¹²⁰⁾ 남해위(南海尉)¹²¹⁾였던 임오(任囂)¹²²⁾가 병이 들어 죽음에 임박해서 당시 용천령(龍川令)¹²³⁾인 조타(趙佗)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들으니 진승(陳勝)¹²⁴⁾ 등이 난을

115) 揚粵: 顏師古注에 따르면, 원래 揚州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揚粵이라 한다. 그런데 『史記』에는 楊越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史記正義』는 禹의 九州 중 楊州에 南越이 속해 있기 때문이라 하고 있는데(夏禹九州本屬揚州, 故云楊越), 楊州란 명칭은 『尚書』 「禹貢」에 “淮海惟揚州”라고 처음 보인다. 현재의 淮水, 黃海, 長江에 걸친 江蘇省, 安徽省, 江西省, 浙江省, 福建省 등을 포함한 지역이다. 현재의 揚州도 포함하는 지역이지만 똑같은 지역이라 말할 수는 없다.

116) 桂林郡: 秦始皇 33년(전214)에 설치되었다. 현재 廣西 대부분 지역을 포괄한다. 郡의 治所는 布山縣(현재의 廣西省 貴港市) 혹은 현재의 廣西省 桂平市 西南이라고 하여 불분명하다. 『索隱』은 『漢書』 「地理志」(이하 「地理志」로 약칭)를 인용하여 桂林郡이 武帝 때 鬱林郡으로 개명되었다고 전한다.

117) 南海郡: 秦始皇 33년(전214)에 설치되었다. 4개의 현(番禺, 四會, 博羅, 龍川) 또는 6개 현(番禺, 四會, 博羅, 龍川, 洸江, 揭陽)을 관할했다고 전한다. 郡의 治所는 番禺(현재의 廣州)였으며, 주요 관할지역은 현재 廣東省에 있다.

118) 象郡: 『索隱』에 따르면, 秦始皇 33년(전214) 陸梁의 땅을 공략하여 이곳에 南海, 桂林, 象郡을 설치하면 서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또 「地理志」에는 武帝 때 日南郡으로 개명하였다고 전한다. 그 治所가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첫째, 漢代 日南郡이 곧 秦代 象郡이라는 설과 둘째, 秦代 설치된 후 漢 昭帝 元鳳 5년 가을에 폐지하고 그 땅에 郁林, 柯 두 郡을 설치했다는 郁林설(「地理志」)이 있다(李龍章, 「秦漢象郡辨析」, 「秦俑秦文化研究」), 郡 치소는 臨塵(현재의 廣西省 崇左)이었으며, 일설에는 象林(현재의 越南 維州南茶驛) 또는 盧容(현재의 越南 順化 東北)이었다고 한다.

119) 以適徙民: 『史記』에는 ‘謫民’으로 되어 있다. 顏師古注에 따르면, 원문의 ‘適’은 ‘謫’, 즉 유배를 보내다는 의미로 읽어야 하므로 죄를 지은 자들을 월나라 땅에 옮겨 살게 해서 그 땅의 토착민과 서로 섞여 살게 하였다(適讀曰謫. 謫有罪者, 徙之於越地, 與其土人雜居)로 해석된다. 秦漢代 죄를 지어 형을 받은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하거나 築城 등 노역에 동원하는 일이 많았는데, 秦始皇이 만리장성 축조에 刑徒를 동원한 일이나 漢武帝 때 이광리에게 죄수를 징발하여 대완을 정벌한 일(『漢書』 「武帝紀」, “遣貳師將軍 李廣利發天下謫民西征大宛.” 顏師古注, “庶人之有罪謫者也.”)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120) 『史記』에는 “以謫徙民, 與越雜處十三歲. 佗, 秦時用爲南海龍川令. 至二世時”라고 하여 ‘十三歲’와 ‘至二世時’ 사이에 ‘佗, 秦時用爲南海龍川令’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漢書』에는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고, 中華書局 標點本에서는 ‘十三歲, 至二世時’로 연결하고 있다.

121) 南海尉: 『史記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이때까지는 아직 都尉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都尉로 개칭된 것은 前漢 景帝 中元 2년(전148)의 일이다.

122) 任囂: 任囂의 ‘囂’자에는 ‘떠들썩하다’는 의미의 ‘호’와 ‘거만하다’는 의미의 ‘오’라는 두 가지 음이 있다. 이에 대해 顏師古注는 “음이 敖(囂音敖)”라고 하였기에 이것을 따랐다.

일으켰다고 하오.¹²⁵⁾ 또 호걸들은 진(秦)에게서 등을 돌려 잇달아 독립하고 있소. 남해군(南海郡)은 비록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치우쳐 있다 하나, 도적떼 같은 저들의 군대가 언제 이곳까지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소. 그래서 나는 군사를 일으켜 신도(新道)¹²⁶⁾를 끊고 스스로 방비하여 제후들이 일으킨 변고에 대비코자 마음먹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병이 들어 이처럼 깊어지게 되었소. 우리 번우(番禺)는 뒤로는 험한 산세를 등지고 있고[負山險阻],¹²⁷⁾ 남북으로 동서로 수천 리에 걸쳐 뻗어 있소.¹²⁸⁾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건너온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있으니 이 또한 한 주(州)¹²⁹⁾의 주인으로서 나라를 세울 만하오. 군에 있는 장리

- 123) 龍川令: 顏師古注는 “龍川은 南海郡 소속의 縣으로, 현재 순주(龍川, 南海之縣也, 卽今之循州)”라고 하였다. 그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南宋의 裴淵이 편찬한 『廣州記』(『史記正義』에 인용)에, 원래 博羅縣의 東鄉이었는데, 용이 땅에서 나온 뒤 그 구멍에서 샘이 흘러나와 龍川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史記』「主父偃傳」에 따르면, 秦이 百越을 평정할 때 조타와 屠睢가 군을 이끌었는데, 도수의 군대는 서쪽 서구지역에서 참패하여 시체가 수십만에 이르렀으나 동쪽 조타의 군대는 越人의 지지를 얻으며 진군하니 閩越 일대를 확고하게 장악하였다. 秦始皇 33년(전214)에 마침내 임오가 장군이 되고 조타가 그 보좌로서 백월을 평정하니, 임오는 남해군위에, 조타는 龍川令에 임명되었다고 전한다. 唐代 『元和郡縣志』(권34) ‘河源縣’조에 보면, “용천고성은 하원현 동북수로 175리에 있다. 진의 용천현이다. 진의 남해위 임오가 병들자 용천령 조타를 불러 그에게 정사를 맡겼는데, 바로 이곳이다(龍川故城在縣東北水路一百七十五里, 秦龍川縣也. 秦南海尉任囂疾, 召龍川令趙佗, 授之以政, 卽此處也)”라고 하였다.
- 124) 陳勝: 陳涉을 말하며 중국 최초의 농민반란의 영수이다. 司馬遷은 이를 특별히 世家에 포함시켜 18번째 「陳涉世家」를 만들었다. 진섭은 자립해서 왕이라 칭한 것은 불과 6개월뿐이었고 영토도 부여받지 못했지만 이처럼 司馬遷이 世家에 포함시킨 것은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漢初 공신들인 彭越, 黥布, 韓信 등을 世家에서 제외하고 진섭을 세가에 포함시킨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 125) 『史記』에는 이 구절 다음에 “秦爲無道, 天下苦之, 項羽·劉季·陳勝·吳廣等州郡各共興軍聚衆, 虎爭天下, 中國擾亂, 未知所安”라는 구절이 있는데, 『漢書』에서 생략되어 있다. ‘聞陳勝等作亂’ 이하 50자의 내용은 중복되고 있어 『漢書』에는 ‘聞陳勝等作亂, 豪傑叛秦相立’ 12자로 수정하고 있다.(龍川資言, 『史記會注考證』, 北岳文藝出版社, 1998년, 제9卷 「南越列傳」, 4649쪽. 이하 『史記會注考證』의 인용은 책명과 쪽수만 표시).
- 126) 新道: 顏師古注에 따르면, “진이 개척한 율로 통하는 도로(秦所開越道也)”이다. 즉 秦이 嶺南에 개척한 南海郡 등 3郡과 연결된 도로를 말한다.
- 127) 負山險阻: 顏師古注는 “背는 등지다(負, 背也)”라고 하였다.
- 128) 『史記』에는 『漢書』의 ‘南北’이 ‘南海’로 되어 있고 구두가 ‘且番禺負山險, 阻南海, 東西數千里’라고 되어 있어 『漢書』와는 다르다. 周壽昌에 따르면, 南北이라고 하면 ‘南北東西數千里’가 되어 南越의 강역을 포함되지 않는다(『史記會注考證』, 4649쪽).
- 129) 州: 여기에서 말하는 ‘州’는 이른바 천하의 통치지역을 상징하는 九州의 하나를 의미한다. 九州의 9는

(長吏)¹³⁰⁾들과는 이런 일을 함께 의논할 수가 없어 공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이오.” 그리고는 조타에게 조서를 주어[被佗書]¹³¹⁾ 남해위(南海尉)의 일을 대행하도록 하였다.¹³²⁾ 임오가 죽자 조타는 곧바로 횡포관(橫浦關),¹³³⁾ 양산관(陽山關),¹³⁴⁾ 황계관(滄谿關)¹³⁵⁾에 격문을 돌려 포고하기를, “도적떼 같은 군대가 장차 들이닥칠 터이니 빨리 도로를 끊고 병사들을 소집하여 각자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진(秦)이 임명한 관리들 [吏]¹³⁶⁾을 범망에

실제 9개의 州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역을 총칭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前漢 武帝 때 전통적인 『禹貢』의 九州에 새로이 편입된 남월지역에 交阯자사를 두고 雍州를 나눠 朔方자사를 두는 등 13州로 구체화하고 州刺史를 설치한 데에서 알 수 있다.

130) 長吏: 지위가 높은 관리를 뜻한다.

131) 被佗書: 『集解』와 『索隱』 모두 韋昭를 인용하여 ‘被之以書’ 즉 ‘조타에게 조서를 쓰게 하다’로 해석하였으나 顏師古注는 “被, 加也” 즉 ‘조타에게 조서를 주다’로 해석하고 있다.

132) 『索隱』에 인용된 服虔에 따르면, 任囂가 거짓으로 조서를 작성해서 南海尉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133) 橫浦關: 현재의 廣東省 南雄縣 동북에서 江西省 大庾縣 西南 大庾嶺 위에 있는 梅關을 말하며 秦關이라고도 한다. 대유령에서 橫浦관으로 이어지는 關道는 江西와 廣東을 잇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 중의 하나였다(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이하 『中國歷史地名大辭典』으로 약칭) 『索隱』에 인용된 『南康記』에 따르면, 南野縣 大庾嶺 30 리에서 橫浦에 이르는 사이에 秦代 설치된 關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래 지방 사람들은 이를 ‘塞上’이라 불렀다고 한다.

134) 陽山關: 『索隱』에 인용된 『地理志』에 따르면, 揭陽郡에 陽山縣이 있는데, 이 縣 상류 백여 리쯤에 있다는 騎田嶺이 바로 陽山關이라고 한다. 현재의 廣東省 陽山 서북쪽에 있다.

135) 滄谿關: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桂陽郡에 있으며 南海郡 소속인 四會縣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索隱』은 황계를 날계(滄谿)라고 하였는데, 『漢書』가 ‘滄谿’라 하였고, 안사고주도 “滄音皇”이라 하여 황으로 읽었다. 『衛青傳』과 『南粵傳』에 ‘出桂陽, 下滄水’에도 ‘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姚察은 『史記』에 ‘涅’이라 되어 있다고 하고 鄒誕 역시 ‘涅’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涅’이 조금 옛날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索隱 “滄谿. 鄒氏·劉氏本並作‘涅’, 音年結反. 漢書作‘滄谿’, 音皇. 又[衛青傳][南粵傳]云‘出桂陽, 下滄水’是也. 而姚察云史記作‘涅’, 今本作‘滄’, 涅及滄不同, 良由隨聞則輒改故也. 水經云含匯縣南有匯浦關, 未知孰是. 然鄒誕作‘涅’, 漢書作‘滄’, 蓋近於古”). 실제로 涅水는 현재 세 곳으로 추정된다. 첫째, 지금 河南省 陳平縣 서쪽과 鄧縣 東越河이고, 둘째, 지금의 山西省 武鄉縣 서쪽이며, 셋째, 지금 廣東省 英德 서남쪽, 즉 廣東의 東江이다. 남월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한데, 문헌자료로는 『水經注』 「泚水注」의 “其餘水又東至龍川縣爲涅水”라고 하였다. 청대 전조망은 용천이 날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이하 『中國歷史地名大辭典』으로 약칭). 황수 또한 세 곳으로 추정되는데, 첫째, 하남성 공의시 서쪽, 둘째, 滙水로 廣東省 連州市 동남쪽 連江, 셋째, 洛都水, 樂都水 또는 西寧河로 青海省 동부의 황하 상류의 지류이다. 이중 남월과 비교적 근접한 것은 두 번째 滙水로 여기에서 말하는 滄谿關은 廣東 連州市 서북쪽에 설치한 關으로 보고 있다(『中國歷史地名大辭典』, 2618쪽).

없이 죽어 없애고 자신의 일당을 수(守) 또는 가(假)로 삼았다[守假].¹³⁷⁾ 얼마 후 진이 멸망하자 조타는 곧바로 계림군(桂林郡)과 상군(象郡)을 공격하여 병합하고 스스로 남월 무왕(武王)¹³⁸⁾에 즉위하였다.

高帝已定天下，爲中國勞苦，故釋佗不誅。十一年，遣陸賈立佗爲南粵王，與剖符通使，使和輯百粵，毋爲南邊害，與長沙接壤。

고제(高帝)¹³⁹⁾는 천하를 평정한 뒤 중국이 전쟁으로 피폐해졌다고 생각하여 조타를 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었다[釋佗].¹⁴⁰⁾ 11년(전196)¹⁴¹⁾에 육가(陸賈)¹⁴²⁾를 보내 조타를 그대로

136) 吏: 『史記』에는 長吏로 되어 있다.

137) 守假: 『史記』에는 ‘假守’로 되어 있고 『索隱』은 趙佗가 자기의 친당을 郡縣의 職 혹은 假守에 임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漢書』에는 ‘守假’로 되어 있고 顏師古는 “군현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는데, 혹은 守 혹은 假로 임명하다(令爲郡縣之職, 或守或假也)”로 해석하였다. 『史記會注考證』은 ‘假守’와 ‘守假’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보았다(『考證』, 4650쪽) 여기에서는 顏師古注를 따라 해석하였다.

138) 武王: 『集解』에 인용된 韋昭는 살아서 ‘武’라는 호를 쓴 것은 옛 제도를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39) 高帝: 漢高祖 劉邦을 말한다. 『史記』는 「高祖本紀」라 하였고, 『漢書』는 「高帝本紀」라고 篇名을 삼았다. 다만 『史記』 본문에서는 高帝와 高祖가 거의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140) 釋佗: 顏師古注는 “釋, 置也”, 즉 ‘방치하다’로 해석하였다.

141) 11년이라 함은 漢高祖 11년을 말하며, 기원전 196년이다. 『史記』에는 앞에 ‘漢’이 덧붙여져 있어 “漢十一年”으로 되어 있다. 『漢書』 「高祖本紀」 十一年五月詔에 “粵人之俗, 好相攻擊, 前時秦徙中縣之民南方三郡, 使與百粵雜處. 會天下誅秦, 南海尉佗居南方長治之, 甚有文理, 中縣人以故不耗減, 粵人相攻擊之俗益止. 俱賴其力. 今立佗爲南粵王”이라고 되어 있다.

142) 陸賈: 楚人으로 前漢 초기 漢高祖 劉邦이 기의했을 때부터 그 휘하에서 활동하였고, 漢 건국 후에도 漢高祖 劉邦을 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高祖에게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말 위에서 다스릴 수 없다”는 충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외에 漢高祖 劉邦에게 秦의 멸망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新語』라는 저서를 편찬하여 지어 바쳤다. 『史記』 「酈生陸賈列傳」에는 그가 언변이 뛰어나 자신의 일을 자주 말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력 때문에 남월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列傳에는 陸賈가 조타를 상대로 유세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을 인용해 보면, “足下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척과 형제, 조상의 무덤이 眞定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足下는 천성을 위반하여 冠帶를 버리고 구구한 越나라로 천자와 맞서 敵國이 되고자 하니 장차 화가 일신에 미칠 것입니다. 또 저

인정하여 남월왕에 책봉하고 부(符)를 나뉘(剖符)¹⁴³⁾ [신의의 징표로 삼고] 사신을 왕래토록 하였다. 또한 조타로 하여금 백월(百粵)의 [여러 부족들]을 평화롭게 이끌어[和輯百粵]¹⁴⁴⁾ 한(漢)의 남쪽 변경에서 우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장사국(長沙國)¹⁴⁵⁾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高后時，有司請禁粵關市鐵器。佗：“高皇帝立我，通使物，今高后聽讒臣，別異蠻夷，隔絕器物，此必長沙王計，欲倚中國，擊滅南海并王之，自爲功也。”於是佗乃自尊號爲南武帝，發兵攻長沙邊，敗數縣焉。高后遣將軍隆慮侯竈擊之，會暑溼，士卒大疫，

秦나라는 失政하여 제후들과 호걸들이 모두 봉기하였는데, 오직 漢王만이 제일 먼저 入關하여 咸陽을 점거하였습니다. 項羽가 약조를 배반하고 스스로 西楚霸王으로 자처하자 제후들이 모두 그에게 귀속되니 참으로 강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漢王은 巴蜀에서 봉기하여 천하 사람들을 체찍질하여 다른 제후들을 평정하고 마침내 項羽를 주멸하였습니다. 그 후 5년 사이 海內가 평정되었으니 이는 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늘이 세워 준 일입니다. 천자께서는 君王이 南越의 왕이 되어 천하를 도와 폭도를 주멸하지 않았음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將相들이 군대를 일으켜 왕을 주멸하고자 하였지만 천자께서는 백성들의 노고를 가엾게 여겨 전역을 쉬게 하려고 臣을 보내 군왕께 印을 하사하고 황제의 符節을 나눠 사신을 왕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왕은 마땅히 郊에 나와 이를 맞이해야 하며 北面하여 稱臣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든 미완의 남월로 이와 같이 한나라에 대하여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漢나라에서 만일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군왕의 조상들의 무덤을 불태우고 종족들을 모두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부장으로 십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월나라를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월나라 사람들이 군왕을 죽여 한에 항복하는 것은 손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쉬울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143) 剖符: 황제가 제후를 분봉할 때나 전쟁에 장수를 파견할 때 金, 玉, 銅, 竹 등으로 만든 符를 2개로 쪼개 각각 황제와 신하가 나눠 가짐으로써 신의의 징표로 삼았던 것을 말한다. 필요할 때에는 서로 합쳐 보아 진위를 따질 수 있다. 이것은 한왕조가 정식으로 조타를 남월왕에 임명한 표시라고 할 수 있다.

144) 和輯百粵: 顏師古注는 원문의 ‘輯’을 모으다[集]과 같이 보았다(“輯與集同也”).

145) 長沙國: 기원전 202년에 건립되어 기원후 37년에 폐지될 때까지 209년간 존속하였다. 秦代 長沙郡이 설치되었던 관할지역을 계승한 것으로 治所는 ‘湘縣’(뒤에 臨湘縣으로 개명, 현재의 湖南省 長沙)을 국도로 삼았다. 漢의 개국공신인 吳芮가 제1대 長沙王에 봉해졌다. 그 후 王莽에 의해(8) 모든 侯國이 폐지됨에 따라 長沙國은 ‘填蠻郡’으로 강등되었고 국도인 臨湘縣 또한 ‘撫陸縣’으로 개명되었다가 후한 때 劉秀에 의해 원래 이름으로 회복되었으나 국이 아닌 군으로 편제되었다.

兵不能險領。歲餘，高后崩，卽罷兵。佗因此以兵威財物賂遺閩粵·西甌駱，役屬焉。東西萬餘里。乃乘黃屋左纛，稱制，與中國侔。

고후(高后)¹⁴⁶ 때 유사(有司)가 월(粵)¹⁴⁷과 국경 관문에서 거래하던[關市]¹⁴⁸ 철기의 교역을 중단할 것을 주청하였다. 조타가 말하기를, “고황제(高皇帝)¹⁴⁹가 나를 왕으로 인정해 [한과] 사신이 오고가며 물자를 교역해 왔는데, 지금 고후(高后)는 [남월을] 중상하는 신하의 말만 듣고 오랑캐라 차별하며 기물의 교역을 중단하였다. 이는 장사왕(長沙王)¹⁵⁰의 음모임이 분명하다. 장사왕은 중국에 기대어 남해(南海)¹⁵¹를 공격해 멸망시키고 이를 병합해 왕이 되어 공업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타는 스스로 호를 높여 남무제(南武帝)¹⁵²라고 한 다음 군사를 일으켜 장사국 변방의 읍을 공격하고 여러 현들을 쳐부수었다¹⁵³

146) 高后: 漢高祖 劉邦의 부인인 呂雉. 高祖 사후 아들 惠帝가 그 뒤를 잇자 실권을 행사하였다. 惠帝마져 재위 7년만에 사망한 뒤 惠제의 아들 少帝 恭을 세웠다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자 폐위시켜 죽이고 동생인 常山王 弘을 제위에 앉히고 여씨 일파를 중용하는 등 한초 정계를 주름잡았다. 司馬遷은 이 때문에 「呂太后本紀」를 두어 本紀에 넣었고 「漢書」도 「高后紀」를 두어 惠帝 사후 高后가 臨朝稱制한 후부터 高后 元年~8년까지 紀年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147) 『史記』에는 ‘南越’로 되어 있다.

148) 關市: 원래 關과 市에서 교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國語』 「齊語」에 “關市幾(稽)而不征”이라 하였고, 『周禮』 「天官」의 九賦 중에 “關市之賦”가 있으며, 睡虎地秦簡의 秦律에도 ‘關市律’이 있어 關市에서 교역하는 데 일정한 원칙과 범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漢代에는 匈奴와 南越 등과의 교역을 위해 關市를 설치, 운용하였는데, 흉노의 경우 ‘胡市’라고 불렀다. 高后 때 남월과의 교역을 금지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漢은 이민족과 화해 또는 통제하는 방법으로 關市를 하나의 통제책으로 이용했다.

149) 高皇帝: 『史記』에는 ‘高帝’로 되어 있다.

150) 長沙王: 長沙共王 吳右를 말하며, 기원전 186~기원전 178년까지 재위하였으며, 초대 長沙王 吳芮의 曾孫이다.

151) 南海: 『史記』에는 南越로 되어 있다.

152) 南武帝: 『史記』에는 ‘南越武帝’로 되어 있다. 『漢書』 「高后紀」에도 ‘南武帝’로 되어 있는데, 顏師古注를 보면, 韋昭는 살아 있을 때 武帝라고 칭한 것은 옛날 제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顏師古는 이에 대해 반박하여, 成湯이 ‘吾武甚’이라 하며 스스로 武王이라 한 것을 근거로 옛날 제도는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韋昭曰, “生以武爲號, 不稽古也.” 師古曰, “此說非也. 成湯曰 ‘吾武甚’, 因自號武王. 佗言武帝亦猶是耳, 何謂其不稽古乎?”).

153) 『史記』에는 ‘敗數縣’ 다음에 ‘敗數縣而去焉’라고 하여 ‘부수고 돌아가다’로 되어 있다.

고후가 장군 용려후(隆慮侯) 조(寵)¹⁵⁴⁾를 파견하여 공격하게 하였다. 때마침 덥고 습한 여름 이어서 병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 군대는 [양산]령¹⁵⁵⁾을 넘지 못했다. 1년 뒤(전180)에 고후가 죽자 곧바로 군대를 철수하였다. 조타는 이때를 틈타 민월(閩越)¹⁵⁶⁾과 서구(西甌)¹⁵⁷⁾ 낙(駱)¹⁵⁸⁾ 등을 군사로 위협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선물을 보내 이들의 환심을 사서 그 밑에 복속시켰다.¹⁵⁹⁾ 이로써 남월은 동서로 만여 리나 되었다. 마침내 조타는 황옥(黃

154) 隆慮侯 寵: 『索隱』에 인용된 韋昭에 따르면, 隆慮侯의 隆慮는 縣의 이름이며 河內郡 소속이라고 한다. 『漢書』「高后紀」注에 인용된 應劭에 따르면, 隆慮는 원래 林慮인데, 殤帝를 휘하여 隆慮로 고쳤다고 한다. 林慮는 현재 河南省 林縣에 있다. 隆慮侯 寵의 姓은 周이다. 顏師古는 周寵이라고 하였는데, 周寵은 漢高祖 劉邦을 도와 項羽를 친 공으로 漢高祖 6년(전 201) 正月에 隆慮侯에 책봉된 인물이다.

155) 『史記』에는 '踰嶺'으로 표기되었는데, 『索隱』은 이 영이 陽山嶺(현재 廣東省 陽山縣 경내)으로 추정하고 있다. 顏師古注는 『史記』와 같이 “險與踰同。下皆類此”라고 하여 ‘고개를 넘다’로 해석하고 있다.

156) 閩越: 중국 남방의 百越族의 한 지류이다. 주요 근거지는 지금의 福建省 武夷山에서 臺灣海峽에 이르는 일대이다. 先秦시대부터 특유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벼농사와 어로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閩越의 역사에 대해서는 『史記』「東越列傳」이 立傳되어 전해지고 있다.

157) 西甌: 『漢書』「西南夷兩粵」에 따르면, “蠻夷中, 西有西甌, 衆半羸, 南面稱王; 東有閩粵, 其衆數千人; 亦稱王”이라 하여 동쪽의 閩越과 대칭하여 서쪽의 만이를 西甌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顏師古도 西甌는 곧 駱越이며, 西라고 한 것은 東甌와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西甌卽駱越也。言西者, 以別東甌也.”). 이처럼 사서에는 어떤 때에는 낙월이라 하고, 또 어떤 때는 서구라고 하며 또 어떤 때에는 서구와 낙월이라 명칭할 때에도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 그러나 『考證』이 지적하듯이(4652쪽), 閩越, 西甌, 駱는 각각 별개의 나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58) 駱: 『集解』는 『漢書音義』를 인용하여 ‘駱越’이라 하였다. 『索隱』 또한 鄒氏의 말을 인용하여 駱越이라 하는 한편, 姚氏의 말을 인용하여, 『廣州記』에 “交趾에는 駱田이 있는데, 潮水가 위 아래로 흘러들어가 그 밭을 일구어 먹고 사는 사람들을 ‘駱人’이라 부른다. 그래서 駱王도 있고 駱侯도 있다. 또 그 밖의 여러 현에서는 자칭 ‘駱將’이라 하며 銅印에 靑綬를 하니 오늘날의 令長에 해당한다. 뒤에 蜀王의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駱侯를 토벌한 뒤 安陽王이라 자칭하며 治소를 封溪縣에 두었다. 뒤에 南越王 尉他가 安陽王을 쳐서 두 명의 사자로 하여금 交趾와 九眞郡의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駱은 바로 甌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西甌는 하나의 국명으로 여기의 駱은 『考證』(4652쪽)에 따르면, 아래 문장에 ‘其西甌駱裸國’과 같이 西甌와 駱裸처럼 駱 아래에 裸자가 덧붙여져야 되는 것과는 달리 甌駱을 명칭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駱자는 원래 壯族 언어로는 地名을 가리키는데, 산록이나 산기슭을 壯語로는 六(lok)이라고 하며, ‘六’과 ‘駱’은 음이 비슷하다. 壯族은 원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할 때 각각각색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테면 『廣州記』에서 말한 ‘駱田’은 바로 ‘六田’ 즉, 산기슭 사이에 있는 밭을 말한다(黃理璠, 『壯族通史』, 廣西民族出版社, 1988).

159) 『史記』에는 이 구절이 “佗因此以兵威邊, 財物賂遺閩越·西甌·駱, 役屬焉”으로 되어 있어, 漢의 변방을

屋)¹⁶⁰⁾과 좌독(左纛)¹⁶¹⁾을 갖춘 수레를 타고 칭제(稱制)¹⁶²⁾하는 등 중국과 [황제의 의례를] 같이 하였다[與中國侔].¹⁶³⁾

文帝元年，初鎮撫天下，使告諸侯四夷從代來即位意，諭盛德焉。乃爲佗親冢在眞定置守邑，歲時奉祀。召其從昆弟，尊官厚賜寵之。詔丞相平舉可使粵者，平言陸賈先帝時使粵。上召賈爲太中大夫，謁者一人爲副使，賜佗書曰：“皇帝謹問南粵王，甚苦心勞意。朕，高皇帝側室之子，棄外奉北藩于代，道里遼遠，壅蔽樸愚，未嘗致書。高皇帝棄群臣，孝惠皇帝卽世，高后(白)[自]臨事，不幸有疾，日進不衰，以故諱暴乎治。諸呂爲變故亂法，不能獨制，乃取它姓子爲孝惠皇帝嗣。賴宗廟之靈，功臣之力，誅之已畢。朕以王侯吏不釋之故，不得不立，今卽位。乃者聞王遺將軍隆慮侯書，求親昆弟，請罷長沙兩將軍。朕以王書罷將軍博陽侯，親昆弟在眞定者，已遣人存問。脩治先人冢。前日聞王發兵於邊，爲寇災不止。當其時長沙苦之，南郡尤甚，雖王之國，庸獨利乎！必多殺士卒，傷良將吏，寡人之妻，孤人之子，獨人父母，得一亡十，朕不忍爲也。朕欲定地犬牙相入者，以問吏，吏曰‘高皇帝所以介長沙土也’，朕不得

위협하는 한편 閩越, 西甌, 駱 등에는 선물을 보내 그들을 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漢書』에는 군사로 위협하는 대상과 재물로 회유한 대상이 모두 閩越, 西甌, 駱 등이 된다. 이처럼 구절을 이으면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

160) 黃屋: 『史記集解』에 인용된 蔡邕의 말에 따르면, 황색의 비단으로 속을 만든 수레 덮개를 말한다. 좌독과 함께 漢代에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마 장식으로 황제의 의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161) 左纛: 황제의 마차를 장식하는 기인데, 물소 꼬리털이나 평의 꼬리 깃털로 만든다. 『史記』 「項羽本紀」, “紀信乘黃屋車, 傅左纛”의 『集解』注에 인용된 李斐에 따르면, 纛은 깃털로 만든 幢으로 황제의 수레 저울대 왼쪽 위에 꽂는 장식물이라고 하였다. 또 蔡邕은 犛牛, 즉 장모의 털이 검은 소의 꼬리털로 만들며, 결마 머리에 두거나 혹은 수레 바탕 위에 둔다고 하였다. 秦漢代에는 黃屋과 함께 황제의 거마행렬을 장식하는 상징물로 취급되었다.

162) 稱制: 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한 뒤 황제라 칭하고 그에 걸맞는 황제 제도를 제정하였는데, 황제의 명령을 ‘制’라 칭하고 그 공문을 ‘詔’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황제가 즉위하여 집행하는 것을 ‘稱制’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史記』 「魏其武安侯列傳」에 “孝景崩, 即日太子立, 稱制, 所鎮撫多有田蚡賓客計策”라고 하였고, 『後漢書』 「章帝紀」에도 “帝親稱制臨決”이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163) 與中國侔: 顏師古는 ‘侔’를 ‘等’ 즉 대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擅變焉。吏曰：‘得王之地不足以爲大，得王之財不足以爲富，服領以南，王自治之。’雖然，王之號爲帝，兩帝並立，亡一乘之使以通其道，是爭也；爭而不讓，仁者不爲也。願與王分棄前患，終今以來，通使如故。故使賈馳諭告王朕意，王亦受之，毋爲寇災矣。上褚五十衣，中褚三十衣，下褚二十衣，遺王。願王聽樂娛憂，存問鄰國。”

문제(文帝) 원년(전 180)¹⁶⁴⁾에 처음으로 천하를 호령하면서 제후왕(諸侯王)과 사이(四夷)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이 대왕(代王)에서 천자의 위에 오르게 되었음을 알리고 황제의 크나큰 덕을 일깨워 주었다.¹⁶⁵⁾ 이어서 조타의 (선친[親]¹⁶⁶⁾ 무덤이 진정(眞定)에 있었으므로 그곳에 수읍(守邑)¹⁶⁷⁾을 설치하여 세시(歲時)마다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또한 조타의 중형제들을 불러 벼슬을 높여 주고 많은 선물을 하사하여 그들을 후대하였다. 승상(丞相) 진평(陳平)¹⁶⁸⁾

164) 『史記』에는 ‘及孝文帝元年’으로 되어 있다. 孝文帝는 高祖의 후비인 薄姬의 아들로 高祖 11년(전 196)에 代王에 봉해졌으며, 高后가 사망하고 여씨 세력이 반란을 피하자 丞相 陳平과 太尉 周勃, 朱虛侯 劉章 등이 代王을 천자로 추대하여 呂氏 일당을 축출하였다. 그 과정은 『高后紀』나 『高五王傳』에 상세하게 나왔다.

165) 顏師古는 이에 대해 “무력으로 원방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을 말한다(言不以威武加於遠方也)”라고 하였으나, 여기에서 즉위 원년(전180)에 諸侯와 사이들에게 그 경위를 널리 알렸다는 것은 『漢書』 「文帝紀」에는 즉위 원년 6월에 郡國에 명하여 조공하러 오지 않도록 하여 시혜를 베푸니 제후들과 사이들이 너나할것없이 좋아했다는 구절로 추측컨대, 『南越列傳』에 보이는 성덕을 일깨워 주었다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166) 親: 顏師古가 말하기를, “親이란 父母를 말한다(親謂父母也).”

167) 守邑: 守邑이란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드는 데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읍을 말한다. 秦始皇 때부터 능 옆에 陵邑을 조성하여 천하 부호들을 이곳에 천사시켰는데, 漢代에도 이를 계승하여 황제의 능 옆에는 陵邑을 조성하고 선대 황제와 관련 있는 功臣들이나 고위 관리들, 부호들을 이곳에 천사시켜 일종의 제국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漢書』 「地理志」에는 “漢이 일어난 뒤 長安에 도읍을 정한 뒤 楚昭王, 屈王, 景王과 여러 공신들이 長陵에 거처를 마련하였고 후대에는 二千石의 관리들과 부호들을 여러 능 옆에 천사시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능읍은 황제의 능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守邑도 歲時마다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기능상으로는 능읍과 동일하다. 다만 이를 陵邑이라 하지 않고 守邑이라 한 사례는 『南越列傳』에 처음 등장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알 수 없다.

168) 陳平: 前漢 陽武(현재 河南省 原陽 동남) 사람으로, 지모가 뛰어나 劉邦이 천하를 쟁취하는 데 크게 공헌하여 漢初에 曲逆侯에 봉해졌고, 陸賈의 계책에 힘입어 絳侯 周勃과 함께 呂氏 일족을 숙청하고

에게 조를 내려 월(粵)에 사신을 갈 만한 자를 추천케 하자 진평은 육가(陸賈)가 선제(先帝)¹⁶⁹⁾ 때 월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¹⁷⁰⁾ 그리하여 천자(上)¹⁷¹⁾는 육가를 불러 태중대부(太中大夫)¹⁷²⁾에 임명하고 알자(謁者) 한 사람을 부사(副使)로 임명하여¹⁷³⁾ 조타에게 서신을 보내 말하기를,¹⁷⁴⁾ “황제(皇帝)가 삼가 남월왕(南粵王)에게 안부를 묻소.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시오[甚苦心勞意]?¹⁷⁵⁾ 짐은 고향제 측실의 자식(側室之子)¹⁷⁶⁾으로서 조정에서 멀리 떨어져[棄外] 대(代) 땅에서 북방을 지키고 있었기에, [남월로 통하는] 길은 아득히 멀고 성정이 본래 우둔하여 아는 바 적어[壅蔽樸愚]¹⁷⁷⁾ 일찍이 서신을 보내지 못했소.¹⁷⁸⁾ 고향제(高皇帝)께서 신하들을 저버리고[棄群臣]¹⁷⁹⁾ 효혜황제(孝惠皇帝)께서 세상을 떠나[即

文帝를 즉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문제 즉위 후 絳侯 周勃은 右丞相에, 陳平은 좌승상에 임명되었다. 絳侯 周勃이 사임한 뒤에는 1인 재상으로 최고 지위를 누렸는데, 文帝 2년(전179)에 병으로 사망하였다(『史記』「陳丞相世家」).

169) 先帝: 漢高祖 劉邦을 일컫는다.

170) 이 구절에서 『史記』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陸賈의 출신을 나타내는 好畤縣이 생략되었고 ‘習使南越’에서 ‘習’자가 생략되었다.

171) 上: 『史記』에는 연결어인 ‘酒’로 되어 있고 ‘上’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

172) 太中大夫: 『漢書』「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中令 소속으로 大夫는 의론을 담당하는데, 太中大夫, 中大夫, 諫大夫가 있다. 皇帝의 자문에 응대하는 일과 황제의 명을 받들어 出使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太中大夫는 秩 比千石, 中大夫는 武帝 太初 원년에 光祿大夫로 명칭을 바꾸면서 秩이 比2천석이 되었고, 諫大夫는 원래는 秦官이었는데, 漢初에 폐지되었다가 武帝 元狩 5년에 다시 설치되면서 秩 比8백석이 되었다. 漢代 조정의 법령과 정책은 모두 이들에 의해 만들어져 나온 경우가 많은데, 陸賈를 비롯하여 賈誼, 竈錯, 董仲舒 등 大夫를 역임한 자들이 적지 않다.

173) 『史記』에는 謁者 一人을 副使로 임명하였다는 구절이 없다. 謁者는 『漢書』「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中令 소속으로 “손님접대와 황제의 명을 받드는 일을 담당하며 秩은 比六百石(掌賓讚受事……秩比六百石)”이라 하였다.

174) 이 서신의 내용은 『史記』에는 실려 있지 않다.

175) 甚苦心勞意: 이 5자는 서신의 첫머리에 오는 상투어이다. 의미는 ‘(노심초사) 매우 수고가 많다’ 정도이다.

176) 側室之子: 顏師古에 따르면 “정실의 소생이 아님(非正嫡所生也)”을 말한다.

177) 壅蔽樸愚: ‘壅蔽’는 ‘가리워졌다’는 의미이며, ‘樸愚’는 말 그대로 ‘질박하며 우둔하다’는 뜻인데, 서신에서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겸어이다.

178) 顏師古에 따르면, “월나라에 사신을 보내 통교하지 못했음(未得通使於越)”을 말한다.

179) 여기에서 ‘棄’란 황제가 사망한 것을 완곡히 표현한 말이다.

世]¹⁸⁰⁾ 고후(高后)께서 몸소 정사를 주관하셨다가 불행하게도 병이 들어, 날이 갈수록 병세가 깊어져[日進不衰]¹⁸¹⁾ 이 때문에 다스림에 어그러지는 바가 생기게 되었소[諄暴乎治].¹⁸²⁾ 여씨 일당¹⁸³⁾이 변고를 일으켜 법을 어지럽히면서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자 마침내 다른 성씨의 자식을 효혜황제의 후사로 삼았소.¹⁸⁴⁾ 그러나 종묘에 계신 선조 혼령의 가호와 공신들의 노력으로 그들을 주멸하여 없애버렸소. 짐은 왕후리(王侯吏)¹⁸⁵⁾들이 [사양하는]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까닭에¹⁸⁶⁾ 부득불 황제의 위에 오르게 되었소. 듣자니 지난번 왕께서 장군 융려후(隆慮侯)¹⁸⁷⁾에게 보낸 서신에 [그대의] 형제들을 찾고 장사(長沙)의 두 장군을 파면해 달라는 말을 들었소.¹⁸⁸⁾ 짐은 왕이 말한 대로 장군 박양후(博陽侯)¹⁸⁹⁾를 파면하고 진정(眞定)

180) 卽世: 『左傳』成公十三年에 “無祿, 獻公卽世”라 하였듯이, ‘세상을 떠나다’, 즉 사망하다는 의미이다. 24사중역본에는 ‘卽位’로 해석하였으나, 『左傳』의 용법대로라면, ‘사망하다’는 의미가 맞다.

181) 日進不衰: 顏師古는 “질병이 더욱 심해졌음(疾病益甚也)”을 말한다고 하였다.

182) 諄暴乎治: 顏師古는 “諄은 어그러지다는 뜻이다(諄, 乖也)”라고 해석하였다.

183) 呂祿, 呂產 등을 말한다.

184) 宣平侯 張敖와 呂后의 친딸인 魯元公主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인 嬌이 孝惠皇后였을 때 자식이 없자 후궁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 속이고 그 어머니는 몰래 살해한 뒤 태자로 삼은 일을 말하는데, 이 태자가 뒤에 呂后에게 폐위되어 살해당한 少帝 劉恭을 말한다.

185) 王侯吏: 王侯國의 관리를 말한다. 『通典』 권14 「選舉」 2에 “한초에는 왕후국의 백관은 한 조정과 다를 바 없었고 다만 승상만은 천자가 임명하였다. 御史大夫 이하는 모두 왕후국 각자 설치할 수 있었다. 경제 때 오초칠국의 난이 일어난 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어사대부 이하의 관직은 혁파하였으며, 무제 때 이르러서는 왕후리 중 질 이천 석인 자들은 함부로 임명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漢初, 王侯國百官皆如漢朝, 唯丞相命於天子, 其御史大夫以下皆自置. 及景帝懲吳楚之亂, 殺其制度, 罷御史大夫以下官. 至武帝, 又詔: 「凡王侯吏職秩二千石者, 不得擅補.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참조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王侯吏는 文帝가 代王이었을 당시 그를 보좌하던 代國의 관리들을 의미하며, 『漢書』 「文帝本紀」에 따르면, 中尉 宋昌이 조정의 부름에 의심을 가지고 주저하던 代王을 설득시켜 천자에 즉위토록 하는 데 일등공신이어서 천자 즉위 후 그를 莊武侯에 책봉하였다고 전한다.

186) 朕以王侯吏不釋之故: 이 구절에 대해 孟康은 “제위를 사양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다(辭讓帝位不見置也)”라고 해석하였다.

187) 周竈를 말한다. 周竈는 漢高祖 劉邦을 도와 項羽를 친 공으로 漢高祖 6년(기원전 201년) 正月에 隆慮侯에 책봉되었다.

188) 顏師古는 이 구절에 대해 고향에 남아 있는 趙佗의 형제들을 찾아줄 것과 군사를 이끌고 越을 공격한 두 장군(隆慮侯 周竈와 博陽侯 陳濞)을 파면시킬 것을 청하면서 두 조건이 만족되면 漢에 賓附, 즉 臣服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佗之昆弟在故鄉者求訪之, 而兩將軍將兵擊越者請罷之, 以賓附於漢也). 또

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고 선친의 묘를 돌보도록 조치하였소. 일전에 왕은 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 노략질을 멈추질 않고 있다 들었소. 이 때문에 그 당시 장사국은 매우 고통스러워 했으며 남군(南郡)¹⁹⁰⁾이 특히 심하였소. 왕의 나라라고 해서 어찌 좋기만 했겠소?¹⁹¹⁾ 필시 사졸이 많이 죽고 훌륭한 장수와 관리들이 다쳤을 것이며, 남의 처를 과부로 만들고 남의 자식을 고아로 만들며 남의 부모를 자식 없이 홀로 되게 하니,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이런 일을 짐은 차마 할 수가 없소. 짐은 [그대의 나라와] 개의 이빨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땅을 정리하고자 관리에게 물었는데, 관리가 답하기를, ‘고황제께서 이 때문에 장사국의 땅을 그 사이[介]¹⁹²⁾에 둔 것입니다’라고 하니, 나로서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소. 관리가 말하기를, ‘[남월] 왕의 땅을 얻는다 해도 그것을 죽히 크다고 할 수 없고 (남월) 왕의 재물을 얻는다 해도 그것을 죽히 넉넉하다고 할 수 없으니, 복령(服嶺)¹⁹³⁾ 이남은 (남월) 왕이 스스로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소. 그렇다고 해도 왕은 제(帝)를 칭하였소. 두 황제가 양립한다는 것은 일승의 사신[一乘之使]¹⁹⁴⁾도 서로 내통할 수 없음을 뜻하니 이는 다투[爭]이요. 다투며 서로 양보하지 않은 것은 어진 이라면 하지 않을 것이요. 원컨대 왕과 함께 이전에 있었던 근심걱정을 털어버리고 지금부터 옛날과 같이 사신을 왕래토록 했으면 하오.

親昆弟를 복속한 자(言親昆弟者, 謂有服屬者也)들로 해석하고 있다.

- 189) 博陽侯: 陳滂을 말한다. 『史記』「高祖功臣侯者年表」의 『索隱』에 따르면, 『楚漢春秋』에는 이름이 漬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楚漢 전쟁 때 刺客將으로 漢에 투항하여 項羽를 滎陽에서 공격하여 공을 세운 侯에 봉해진 인물이다.
- 190) 南郡: 秦 昭王 29년(전278)에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郢(현재의 湖北 荊沙市 荊州區 故江陵縣城 西北 紀南城)이다. 前漢시대에는 江陵縣으로 옮겨 郡治로 삼았다. 그 관할구역은 현재의 湖北省 襄樊市, 南漳縣 以南, 松滋縣, 公安縣 以北, 洪湖市 以西, 利川縣과 四川省 武山縣 以東에 해당한다(『中國歷史地名大辭典』, 1810쪽).
- 191) 顏師古는 이 구절에 대해 “월나라 군사가 변경을 노략질하여 장사와 남군이 모두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했고, 한편 한나라 군대 역시 그에 맞서 싸워 전투를 벌였기에 월나라 역시 이롭지 않았을 것(言越兵寇邊, 長沙·南郡皆厭苦之. 而漢軍亦當相拒, 方有戰鬥, 於越亦非利也)”이라고 해석하였다.
- 192) ‘介’: 顏師古는 “介는 사이가 뜨다(介, 隔也)”라고 해석하였다.
- 193) 服嶺: 顏師古注에 인용된 蘇林에 따르면 고개 이름(山嶺名也)이며, 위치는 如淳에 따르면 長沙 남쪽 경계(長沙南界也), 즉 호남 남부로 추정된다. 혹자는 이 산령을 五嶺 중의 하나인 大輿嶺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江西省 大余와 廣東省 南雄 두 縣이 교차하는 곳으로 大輿嶺이 服嶺인지는 명확치 않다.
- 194) 一乘之使: 수레 한 대로 구성된 가벼운 행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육가(陸賈)로 하여금 말을 달려 짐의 뜻을 왕에게 고하도록 하였으니 왕 역시 이를 받아들여 다시는 노략질을 하지 말았으면 하오. 상저(上褚) 오십 벌, 중저(中褚) 삼십 벌, 하저(下褚) 이십 벌을 왕께 보내오.¹⁹⁵⁾ 원컨대 왕께서는 음악을 들으며 시름은 잊으시고 이웃 나라¹⁹⁶⁾와 안부나 물으며 사시길 바라오”라고 하였다.

陸賈至，南粵王恐，乃頓首謝，願奉明詔，長爲藩臣，奉貢職。於是下令國中曰：“吾聞兩雄不俱立，兩賢不並世。漢皇帝賢天子。自今以來，去帝制黃屋左纁。”因爲書稱：“蠻夷大長老夫臣佗昧死再拜上書皇帝陛下：老夫故粵吏也，高皇帝幸賜臣佗璽，以爲南粵王，使爲外臣，時內貢職。孝惠皇帝卽位，義不忍絕，所以賜老夫者厚甚。高后自臨用事，近細士，信讒臣，別異蠻夷，出令曰：‘毋予蠻夷外粵金鐵田器；馬牛羊卽予，予牡，毋與牝。’老夫處辟，馬牛羊齒已長，自以祭祀不脩，有死罪，使內史藩·中尉高·御史平凡三輩上書謝過，皆不反。又風聞老夫父母墳墓已壞削，兄弟宗族已誅論。吏相與議曰：‘今內不得振於漢，外亡以自高異。’故更號爲帝，自帝其國，非敢有害於天下也。高皇后聞之大怒，削去南粵之籍，使使不通。老夫竊疑長沙王讒臣，故敢發兵以伐其邊。且南方卑溼，蠻夷中西有西甌，其衆半羸，南面稱王；東有閩粵，其衆數千人，亦稱王；西北有長沙，其半蠻夷，亦稱王。老夫故敢妄竊帝號，聊以自娛。老夫身定百邑之地，東西南北數千萬里，帶甲百萬有餘，然北面而臣事漢，何也？不敢背先人之故。老夫處粵四十九年，于今抱孫焉。然夙興夜寐，寢不安席，食不甘味，目不視靡曼之色，耳不聽鍾鼓之音者，以不得事漢也。今陛下幸哀憐，復故號，通使漢如故，老夫死骨不腐，改號不敢爲帝矣！謹北面因使者獻白璧一雙，翠鳥千，犀角十，紫貝五百，桂蠹一器，生翠四十雙，孔雀二雙。昧死再拜，以聞皇帝陛下。”

육가(陸賈)가 당도하자 남월왕은 매우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그리고

195) 顏師古에 따르면, “저란 옷에 솜을 둘러 장식한 것을 말하는데, 상중하라고 한 것은 솜의 많고 적음과 얇고 두꺼운 차이를 말한다(以綿裝衣曰褚。上中下者，綿之多少薄厚之差也).”

196) 顏師古는 이 이웃나라를 “동월과 구락 등(謂東越及甌駱等)”이라고 해석하였다.

현명하신 황제의 명을 받들어 오래도록 번신(藩臣)으로서 직분을 다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곧바로 온나라에 영을 내려 말하기를,¹⁹⁷⁾ “내가 듣기로 두 영웅은 함께 설 수 없고 두 현인(賢人)은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한황제(漢皇帝)는 현명한 천자이다.¹⁹⁸⁾ 그러니 지금 이후로는 황제의 [칭호를] 버리고 칭제(稱制)하지 않으며, 황옥(黃屋)과 좌독(左纛)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글을 써서 말하기를,¹⁹⁹⁾ “만이(蠻夷)의 대장(大長)²⁰⁰⁾ 노부(老夫) 신(臣) 타(佗),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두 번 절하며 황제 폐하께 글을 올립니다. 노부는 옛 월(粵)의 관리로, 고황제께서 일찍이 신 타에게 새를 하사하시어 남월왕에 임명하사 외신(外臣)이 되어 때마다 공물을 바쳐 직분을 다하였습니다. 효혜황제(孝惠皇帝)께서 즉위하시자 의리상 차마 끊지 못하시고 노부에게 많은 상사(賞賜)를 내려주는 등 후대하셨습니다.²⁰¹⁾ 그런데 고후(高后)께서 직접 정사를 돌보신 이후부터 세사(細士)²⁰²⁾를 가까이 하고 중상하는 신하들[讒臣]을 신임하더니 만이(蠻夷)를 차별하고 달리 대하셨습니다. 급기야 명을 내리시어, ‘만이(蠻夷)인 외월(外粵)²⁰³⁾에게 철기와 농기구[金鐵田器]²⁰⁴⁾ 등

197) 이 구절 또한 『史記』와 비교해 볼 때 문장이 도치되거나 생략되어 서신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史記』에는 趙佗가 조정에 올린 서신의 내용이 먼저 실려 있고, 그 다음 南越 國中에 황제의 칭호와 의례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전개되어 있는데, 『漢書』는 우선 國中에 먼저 선포한 다음 漢 조정에 올린 서신의 내용을 실고 있다.

198) 『史記』에는 ‘漢’이라는 글자가 없다. 문맥상 영웅은 둘이 될 수 없으며 賢人, 즉 聖人은 한 세상에 둘이 나올 수 없다는 고사를 앞부분에 설명하고 그 다음 皇帝란 모름지기 賢人 天子, 즉 聖人天子이므로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이것을 ‘漢의 皇帝’라고 ‘漢’을 덧붙인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漢의 皇帝라고 한다면, 南越의 皇帝, 朝鮮의 皇帝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史記會注考證』도 ‘漢’자가 뒤에 덧붙여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史記會注考證』, 4653 쪽).

199) 내용상 『史記』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史記』가 서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라면 『漢書』는 원문 그대로를 실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서신에서 사용되는 형식적인 어투나 한 조정에 바치는 물품의 상세한 내용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200) 大長: 여기에서 수장을 의미하며 만이 중에서 으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蠻夷의 首長을 ‘君長’이라고 칭하는데, ‘蠻夷大長’이란 칭호는 ‘蠻夷君長’ 중의 ‘君長’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1) 번역문의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후대하셨습니다.”라는 부분은 『史記』에는 보이지 않는 구절이다. ‘昧死再拜上書皇帝陛下’ 구절은 서신에서 볼 수 있는 상투적인 문구라 할 수 있다.

202) 細士: 顏師古에 따르면, 細士란 소인배를 뜻한다(細士猶言小人也).

203) 外粵: 顏師古에 따르면, 중국이 아닌 지역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師古曰, “言非中國, 故云外粵”). 따라

을 주지 마라. 말, 소, 양은 주되 수컷에 한하며 암컷은 주어서는 안 된다²⁰⁵⁾라고 하셨습니다. 노부는 궁벽진 곳에 있는 데다 말, 소, 양 등은 이미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없어 죽을 죄를 지은 것마냥 죄송스러워 내사(內史) 변(藩), 중위(中尉) 고(高), 어사(御史) 평(平) 이 세 사람을 시켜 글을 올려 사죄하였으나, 모두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풍문으로 들려오는 것은 노부의 선친 묘가 훼손되어 평지가 되고 형제와 종족들도 모조리 죽임을 당하였다 들었습니다. 관리들과 논의를 거듭한 결과, ‘지금 안으로 한(漢)에 대항하여 떨쳐 일어날 수 없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보다 높거나 남다르지도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帝)로 호칭을 바꾸고 스스로 (남월)국 내에서 황제 노릇을 하였던 것이지, 감히 천하에 누를 끼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황후(高皇后)께서는 이를 듣고 크게 노하시어 남월(南粵)의 본적(本籍)을 삭제하여 없애시고 사신 왕래를 금하시었습니다. 노부는 이것이 장사왕(長沙王)이 신(臣)을 모함해서 일어난 일로 의심하여 군사를 일으켜 그 변방을 쳐서 징벌하였습니다. 또 남방은 지대가 낮고 기후는 습합니다. 만이 중에 서쪽에 서구(西甌)가 있는데, 그 무리는 반은 벌거벗고 다니면서도[牟羸]²⁰⁶⁾ 남면(南面)하며 왕을 칭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민월(閩越)이 있는데, 그 무리는 수천 인에 불과하면서도 역시 왕을 칭하고 있습니다. 서북에는 장사(長沙)가 있으며, [무리의] 반이 만이(蠻夷)²⁰⁷⁾ 역시 왕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노부가 외람되게도 제호를 참칭하여 애오라지 스스로 즐거워할 뿐이었습니다.²⁰⁸⁾ 노부는 직접 백읍(百邑)의 땅을 평정하였습니다. [평정한 땅

서 蠻夷와 外粵이 아니라 ‘蠻夷인 外粵’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204) 田器: 앞에서 趙佗가 ‘器物的 거래를 중단’했다는 구절로 미루어 보아 철기와 농기구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205) 암컷은 주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번식할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師古曰, “恐其蕃息.”). 高后가 거래를 중단한 물품을 보면 철기와 농기구, 그리고 씨종자 등은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최첨단 고급기술과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번영을 구가하는 남월을 압박하고자 하였다.

206) 牟羸: 顏師古는 “羸謂劣弱也”라고 하여 ‘숫자가 적고 약세’라고 해석하였는데, 『史記』와 상호 비교하고 남방 특유의 다습한 기후라는 앞 구절을 상기해 볼 때 안사고 해석보다는 ‘반은 벌거벗고 다니다’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또한 본문의 ‘牟’이라는 글자 또한 顏師古처럼 ‘숫자가 적고 약세’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207) 顏師古에 따르면, 長沙國 역시 그 국인의 반 이상이 만이로 서로 섞여 살고 있다(言長沙之國半雜蠻夷之人)고 한다.

208) 이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천왕(天王)께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豈敢以聞天王哉)”라는 구절이 『漢書』

은] 동서남북 수만 리에 이르고 군사는 백만이 좀 넘는데도 북면(北面)하여 신하로서 한(漢)을 섬겼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선조를 배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부가 월에 머문 지 이제 49년, 지금 손자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며 부지런히 살고 있지만, 잠을 자되 편안히 자지 못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되 그 맛을 모르고 아름다운 미녀들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종과 북의 아름다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²⁰⁹⁾ 이 모든 것이 한(漢)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다행스럽게도 딱히 여기시고 옛 호칭을 회복시켜주고 옛날처럼 한에 사신을 왕래할 수 있게 하시니, 노부는 죽어도 백골난망으로[死骨不腐]²¹⁰⁾ 어찌 다시 황제를 칭하겠습니까! 삼가 북면(北面)하여 사신 편에 백벽(白璧) 한 쌍과 취조(翠鳥)²¹¹⁾ 천 마리, 무소뿔(犀角) 열 대, 자패(紫貝) 5백,²¹²⁾ 계두(桂蠹)²¹³⁾ 한 사발, 생취(生翠) 40쌍,²¹⁴⁾ 공작(孔雀) 두 쌍을

에는 생략되어 있다.

209) 이 구절은 『呂氏春秋』 「順民」편에 “目不視靡曼，耳不聽鐘鼓”라 하여 똑같은 구절이 있다. 이것을 볼 때 당시 趙佗의 南越은 이미 중국과 문화적 소양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0) 死骨不腐: ‘죽어도 뼈는 썩지 않듯이, 號를 고쳐 帝라 칭하지 않겠다’라고 해석(小竹武夫 譯, 『漢書』, 筑摩書房)할 수도 있겠고, ‘죽어도 편안히 눈을 감다’(許嘉璐 主編, 『二十四史全譯·漢書』, 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2004)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의역이지 문장 그대로의 해석은 아니다. 여기에서 문맥상 ‘어찌 ~하리오!’라는 반어적 어투를 살려 ‘백골난망’이라는 상투어로 해석하였다.

211) 翠鳥: 파랑새목 물총새과. 등부터 꼬리까지 비취빛을 띠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전에는 魚虎, 魚狗라고도 했는데, 물고기를 잡는 모양이 마치 사냥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불렀다. 영어명으로도 kingfisher라고 하듯, 사냥에 능숙한 새이다. 비취보석처럼 깃털이 아름다워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취조 천’을 바쳤다는 말은 살아 있는 물총새 천 마리일 수도 있으나 물총새의 깃털로 해석하기도 한다(小竹武夫, 위의 책).

212) 紫貝: 文貝 또는 硯螺(소라)라고 한다. 껍질은 둥글고 바탕은 희며 붉은색의 알록 무늬가 있다. 예부터 아름다운 장식에 빠지지 않는 물품으로 『楚辭』 「九歌·河伯」에는 “魚鱗屋兮龍堂，紫貝闕兮朱官”이라고 노래했고, 일찍이 司馬相如 역시 「子虛賦」에서 “張翠帷，建羽蓋，罔瑋瑁，鉤紫貝”라고 노래했는데, 『文選』 李善注에 인용된 郭璞에 따르면, “자패는 붉은 바탕에 검은 무늬이다(紫貝，紫質黑文也)”라고 하였다.

213) 桂蠹: 顏師古注에 인용된 應劭에 따르면, 계수나무에 기생해서 사는 벌레의 일종이다(應劭曰, “桂樹中蝸蠹也”). 또한 蘇林에 따르면 漢代에는 항상 능묘에 이것을 바쳤으며 붉은색을 칠한 수레바퀴를 한 작은 수레에 이것을 실었다(蘇林曰, “漢舊常以獻陵廟，載以赤轂小車.”). 이 벌레는 계수나무를 파먹고 살기 때문에 그 맛이 시어 꿀에 담갔다가 먹는다(此蟲食桂，故味辛，而漬之以蜜食之也)고 하였다. 桂蠹는 일반적으로 가래 제거에 특효인 약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계두는 계수나무에 기생해서 사는 벌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어 녹을 먹는 관리로 비유되기도 한다.

보냅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두 번 절하며 황제 폐하께 알립니다.”

陸賈還報，文帝大說。遂至孝景時，稱臣遣使入朝請。然其居國，竊如故號；其使天子，稱王朝命如諸侯。

육가(陸賈)가 돌아와 이 사실을 보고하니 문제(文帝)가 크게 기뻐하였다. 이후 효경제(孝景帝)²¹⁵⁾ 때까지 신하를 칭하며 사신을 보내 조청(朝請)²¹⁶⁾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 안에서는 이전과 같이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였고 천자에게 사신을 보낼 때에는 다른 제후들처럼 왕을 칭하며 조정의 명을 받들었다.

至武帝建元四年，佗孫胡爲南粵王。立三年，閩粵王郢興兵南擊邊邑。粵使人上書曰：“兩粵俱爲藩臣，毋擅興兵相攻擊。今東粵擅興兵侵臣，臣不敢興兵，唯天子詔之。”

214) 生翠: 『漢書新注』에 따르면 박제된 翡翠를 말한다. 비취는 공작, 앵무새와 같이 영남 지방에서 나는 기이한 새들이다. 『逸周書』 「玉卣」편에는 남방에서 湯에게 바친 물품이 기록되어 있는데, “請令以珠璣·玳瑁·象齒·文犀·翠羽·菌鶴·短狗爲獻.”이라고 하듯 翠羽가 포함되어 있다.

215) 孝景帝: 孝文帝의 태자 劉啓로, 모후는 竇皇后이다. 기원전 157년 文帝 사망 후 2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통치기간에 吳楚七國의 난을 평정하여 중앙집권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16) 朝請: 봄에 황제에게 문안인사하는 것을 朝, 가을에 인사하는 것을 請이라 하여 漢律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로 『周禮』의 春朝秋覲의 禮를 말한다. 『史記』 「吳王濞列傳」 “吳王恐，爲謀滋甚。及後使人爲秋請”의 『集解』에 인용된 孟康의 말에 따르면, “律，春曰朝，秋曰請，如古諸侯朝聘也”라고 하였고 『說文解字』에는 “請，謁也”라 하였으며, 그 段玉裁注에 “周禮，春朝秋覲，漢改爲春朝秋請”이라고 하였다. 漢律로 규정된 것은 그만큼 漢代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뜻하는데, 제도의 기원은 段玉裁가 지적하듯 漢代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史記』 「貨殖列傳」에 朝請의 사례가 이미 보이고 있어 漢 이전 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한 뒤로 추정하기도 한다(張豐乾, 「朝請」, 「諸侯與竹簡〈文字〉的撰作年代」, 『簡帛研究』, 2001. 11.15). ‘朝請’은 漢 조정이 지방 제후들을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방 제후들이 朝請, 不朝請함으로써 중앙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후대에 ‘奉朝請’이라는 명예직으로 지속되는데, 朝覲이 제후에 한정되었다고 한다면 朝請은 秦漢시대 중요 대신들로 확대되었고 이것은 통일 후 균형제적 통치하에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들과 상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於是天子多南粵義，守職約，爲興師，遣兩將軍往討閩粵。兵未險領，閩粵王弟餘善殺郢以降，於是罷兵。

무제(武帝) 건원(建元) 4년(전137)이 되자²¹⁷⁾ 조타의 손자인 호(胡)가 남월왕(南粵王)이 되었다. [왕이 된 지] 3년(전135)에 민월왕(閩粵王) 영(郢)이 군사를 일으켜 남월 변방에 있는 읍들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월(粵)²¹⁸⁾이 사람을 보내 상서하기를, “양월(兩粵)²¹⁹⁾은 모두 한(漢)의 번신(藩臣)이 되었으니 함부로 군대를 일으켜 서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월(東粵)²²⁰⁾이 함부로 군대를 일으켜 신(臣)의 나라를 침범하였습니다. 신이 마음대로 군대를 일으킬 수 없으니 오직 천자의 명만 기다릴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천자는 남월이 의리가 있고 맡은 바 직분을 잘 지켰음을 칭찬하며²²¹⁾ 남월을 위해 군사를 일으켜, 두 명의 장군을 파견해 민월을 토벌하게 하였다.²²²⁾ 군대가 영(嶺)²²³⁾을 넘기도 전에 민월왕

217) 『漢書』에는 『史記』 “至建元四年卒”과 같이 ‘卒’자가 없다.武帝 建元 4년은 기원전 137년으로, 조타는文帝 원년에 이미 ‘老夫가 월에 거한 지 49년’이라 했으니,文帝 23년을 거쳐 景帝 16년,武帝 建元 4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43년이며 趙佗가 20여 세에 龍川수가 되었다고 했으니, 모두 합치면 110여 세가 넘는다.列傳에 조타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建元 4년은 손자인 胡가 즉위한 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考證』, 4653쪽에 인용된 王鳴盛 설).

218) 『史記』에는 趙佗의 손자 ‘胡’라고 되어 있다.

219) 兩粵: 南粵과 東粵(閩越)을 가리킨다.

220) 東粵: 『史記』에는 閩越로 되어 있다.

221) 顏師古에 따르면, “藩臣으로서의 직무를 지키고 약속된 규정을 어기지 않은 사실(守藩臣之職, 而不踰約制)”을 말한다.

222) 『漢書』 『武帝本紀』 建元 6년(전135)조에 “閩粵王郢攻南粵. 遣大行王恢將兵出豫章, 大司農韓安國出會稽, 擊之. 未至, 越人殺郢降, 兵還”이라고 하여, 閩越 토벌작전이 建元 6년(전 135)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두 장군은 王恢와 韓安國으로, 王恢는 豫章에서, 韓安國은 會稽에서 출격하였다.

223) 여기의 嶺은 梅嶺일 가능성이 높다. 『史記』 『東越列傳』에 20여 년 뒤인 元鼎 5년(전112)에 누선장군 양복이 동월을 공격할 것을 청하자 예장의 매령에서 대기토록 하였다는 기사(至元鼎五年, 南越反……是時樓船將軍楊僕使使上書, 願便引兵擊東越. 上曰士卒勞倦, 不許, 罷兵, 令諸校屯豫章梅領待命)가 있기 때문이다. 梅嶺은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會稽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고, 『索隱』은 徐廣의 설명이 틀렸다고 하며 豫章 30리에 梅嶺이 있으며 洪崖山 기슭이며 옛날 驛道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正義』는 『括地志』를 인용하여 梅嶺은 虔化縣 동북 128리에 있으며, 虔州는 漢대에도 豫章郡 소속이었으나 두 곳 모두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譚其驥의 『역사지도집(진한)』에는 豫章郡에

의 동생인 여선(餘善)²²⁴이 영을 죽이고 항복하자 군대를 해산하였다.

天子使嚴助往諭意，南粵王胡頓首曰：“天子乃興兵誅閩粵，死亡以報德！”遣太子嬰齊入宿衛。謂助曰：“國新被寇，使者行矣。胡方日夜裝入見天子。”助去後，其大臣諫胡曰：“漢興兵誅郢，亦行以驚動南粵。且先王言事天子期毋失禮，要之不可以怵好語入見。見則不得復歸，亡國之勢也。”於是胡稱病，竟不入見。後十餘歲，胡實病甚，太子嬰齊請歸。胡薨，諡曰文王。

천자가 엄조(嚴助)²²⁵를 보내 한 조정의 뜻을 알리자 남월왕(南粵王) 호(胡)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천자께서²²⁶ 군사를 일으켜 민월(閩粵)을 토벌하셨으니, 죽어도 그 은덕에 보답할 길이 없사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태자 영제(嬰齊)를 보내 입조시켜 천자를 숙위(宿衛)하도록 하였다. 호가 엄조에게 말하기를, “나라가 적에게 침략당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으니 사신은 먼저 돌아가시오. 저 호(胡)는 가까운 시일 내에 행장을 꾸려 입조하여 천자를 알현토록 하겠소”라고 하였다. 그런데 엄조가 떠나자 남월의 대신들이 호에게 간언하기를, “한(漢)이 군사를 일으켜 영(郢)을 주살하여 놀랐는데, 또다시 [왕께서] 입조하기 위해 한(漢)에 간다면 이 역시 남월에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입니다.²²⁷” 또 선왕(先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의 江西省 寧都縣 동북에 해당한다.

224) 餘善: 閩越王 驩郢의 아우이다. 閩越王 驩郢이 군사를 일으켜 南越을 공격하자 漢의 군대가 이를 응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형인 驩郢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립하였다. 武帝 元鼎 6년에는 ‘武帝’를 자칭하며 漢나라 군대와 맞서다가 형과 마찬가지로 吳衍 등 閩越 내부 사람들에게 피살되었다(『史記』 「東越列傳」).

225) 嚴助: 『史記』에는 莊助로 되어 있다. 이는 後漢의 明帝 劉莊을忌諱하여 莊을 嚴으로 고친 것이다. 莊助(전?~전122)는 字가 詳이고 會稽 吳人이다. 漢武帝 建元 3년에 吳王의 아들 劉駒의 부추김을 받아 閩越이 동구를 공격했을 때 嚴助는 會稽郡의 군사를 동원하여 동구를 구원하였고, 建元 6년(전135)에 민월이 남월을 공격하자 남월의 구원 요청으로 사신으로 파견되어 남방을 안정시켰다. 그 공으로 會稽太守에 임명되었다가 淮南王 劉安의 난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226) 『史記』에는 ‘신(臣)을 위해(爲臣)’라는 두 글자가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어 있다.

227) 『考證』(4654쪽)은 “漢興兵誅郢，亦行以驚動南越”의 ‘行’ 뒤에 구두를 찍어 한이 군사를 일으켜 영을 주살한 것과 남월왕의 행차 모두 남월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王)²²⁸⁾께서 옛적에 하신 말씀이, 천자를 섬기되 예를 잃지 않도록 힘을 뿐이라 하셨습니다. 요컨대 사신의 달콤한 말에 기꺼워하며[怵好語]²²⁹⁾ 입조하여 알현할 것까지는 없다는 말입니다. 입조하여 천자를 알현하러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 이는 망국(亡國)의 지름길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호는 병을 핑계삼아 결국 입조하여 천자를 알현하지 않았다. 그 후 10여 년이 흘러 호는 진짜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태자인 영제(嬰齊)가 귀국을 청하였다. 호가 죽자[薨] 그 시호(諡號)를 문왕(文王)이라 하였다.²³⁰⁾

嬰齊嗣立，卽臧其先武帝·文帝璽。嬰齊在長安時，取邯鄲媯氏女，生子興，及卽位，上書請立媯氏女爲后，興爲嗣。漢數使使者風諭，嬰齊猶尚樂擅殺生自恣，懼入見，要以用漢法，比內諸侯，固稱病，遂不入見。子次公入宿衛，嬰齊薨，諡爲明王。

영제(嬰齊)가 [조호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는데, 선왕 무제(武帝), 문제(文帝)의 옥새를 창고에 넣어두었다.²³¹⁾ 장안(長安)에서 숙위하던 시절 영제는 한단(邯鄲)²³²⁾의 규씨(媯

228) 남월왕 趙佗를 말한다.

229) 怵好語: 『史記』에는 ‘說好語’로 되어 있다. 『索隱』은 ‘說’을 ‘悅’이라 하여 “悅好語入見”으로 해석하였다. 韋昭는 이것을 “誘怵好語”, 즉 듣기 좋은 말로 꾀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顏師古 역시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어 한에 입조하는 것(怵, 誘也. 不可被誘怵以好語而入漢朝也)으로 해석하였다.

230) 고대 예법에는 등급에 따라 죽음도 구별했는데, 제후가 죽었을 때 薨이라 한다. 『禮記』「曲禮下」에 “天子死曰崩，諸侯曰薨，大夫曰卒，士曰不祿，庶人曰死”라고 하였다. 趙胡의 묘가 1983년 6월 현재 廣州市 象崗山에서 발견되었는데, 수천 건에 달하는 부장품이 출토되었고 그중에 ‘文帝行璽’라고 새겨진 龍紐金印이 출토되었다. 이것으로 남월왕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帝號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기물에 새겨진 명문은 묘주가 趙昧이라고 되어 있는데, 麥英豪, 黃展岳 등 다수 학자들이 趙昧이 『史記』의 趙胡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혹자는 이를 부정하고 있어(吳海貴, 「象崗南越王墓主新考」, 『考古與文物』, 2000-3) 아직 정론은 없는 실정이다. 남월왕묘 발굴현황에 대해서는 廣州象崗漢墓發掘隊, 「西漢南越王墓發掘初步報告」, 『考古』 1984-3을 참조.

231) 『史記』에는 武帝璽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索隱』은 李奇의 말을 인용하여 “그동안 참칭한 제호를 버린 것”으로 해석하였다. 비록 史書에는 嬰齊 때 황제호의 참칭을 버렸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출토된 南越王墓의 玉璽를 보면 여전히 국내에서 帝號와 玉璽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32) 邯鄲: 『漢書』「地理志」에는 “옛날 秦의 한단군을 고제 4년에 조국으로 바꿨고 경제 3년에 다시 한단군으로 고쳤다가 5년에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였다(趙國, 故秦邯鄲郡, 高帝四年爲趙國, 景帝三年復爲邯鄲郡,

氏)²³³⁾ 딸을 취하여 아들 흥(興)²³⁴⁾을 낳았었다. 영제는 왕위에 오르자 한 조정에 상서하여 규씨 여자를 왕후(王后)로 삼고 그 소생 흥을 후계자로 인정해 주기를 청하였다. 한(漢)은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영제에게 입조하여 천자를 알현하도록 권유했으나[風諭]²³⁵⁾ 영제는 제멋대로 살생을 즐기고 맘껏 사는 것을 좋아했는데, 입조하면 한법(漢法)의 적용을 받고 내제후(內諸侯)들과 같이 취급될까 두려워 한사코 병을 핑계로 입조하여 천자를 알현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들 차공(次公)을 보내 숙위토록 하였다. 영제가 죽자 시호를 명왕(明王)이라 하였다.²³⁶⁾

太子興嗣立，其母爲太后，太后自未爲嬰齊妻時，曾與霸陵人安國少季通。及嬰齊薨後，元鼎四年，漢使安國少季諭王·王太后入朝，令辯士諫大夫終軍等宣其辭，勇士魏臣等輔其決，衛尉路博德將兵屯桂陽，待使者。王年少，太后中國人，安國少季往，復與私通，國人頗知之，多不附太后。太后恐亂起，亦欲倚漢威，勸王及幸臣求內屬。卽因使者上書，請比內諸侯，三歲壹朝，除邊關。於是天子許之，賜其丞相呂嘉銀印，及內史·中尉·太傅印，餘得自置。除其故黥劓刑，用漢法。諸使者皆留填撫之。王·王太后飭治行裝重資，爲入朝具。

태자인 조흥(趙興)이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태후가 되었다. 그런데 태후는 영제(嬰齊)의 처(妻)²³⁷⁾가 되기 전에 일찍이 패릉(霸陵)²³⁸⁾ 사람 안국소계(安國少季)²³⁹⁾

五年復故)”고 전한다. 郡의 屬縣이 4개였는데, 그중 하나가 邯鄲縣이다. 그 治所는 현재 河北省 邯鄲市에 있다.

233) 媯氏: 『史記』에는 媯氏로 되어 있다. 『索隱』은 媯氏를 媯氏라고 하며 그 음은 기(紀)와 규(虯)의 반절이라 하였다. 또 媯姓은 邯鄲이 본이라 하였다.

234) 興: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興이 일설에는 ‘典’이라고 한다.

235) 風諭: 顏師古는 이를 ‘넌지시 깨우쳐 입조하도록 하였다(風讀曰諷. 諷諭令人朝)’라고 해석하였다.

236) 1983년 5월 즉 象崗 대묘가 발견되기 1개월 전에 廣州市 西村 車輛段 숙소 공사현장에서 이미 도굴당한 前漢 초기 대형목곽묘를 발굴하였다. 이미 도굴당하였으나 몇 개의 정교한 옥제품으로 미루어 발굴단은 이 묘를 제3대 趙嬰齊의 묘로 추정하였다(麥英豪, 「象崗南越王墓反映的諸問題」, 『嶺南文史』, 1987-10).

와 정을 통하던 사이였다. 영제가 죽은 뒤 원정(元鼎) 4년(전113)에 한(漢)은 안국소계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왕과 왕태후에게 입조하도록 종용하였다.²⁴⁰⁾ 그리고 변사(辯士)인 간대부(諫大夫)²⁴¹⁾ 종군(終軍)²⁴²⁾ 등에게는 직접 황제의 뜻을 말하도록 하고 용사(勇士)인 위신(魏臣) 등에게는 곁에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게 하였으며[輔其決],²⁴³⁾ 위위(衛尉)²⁴⁴⁾인 노박덕(路博德)²⁴⁵⁾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계양(桂陽)²⁴⁶⁾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사자를 기다리도록 하였다. 왕이 어린데다가 태후가 중국인이었고 또 안국소계와 정을 통한 사이라 그가 사신으로 오자 다시 사사로이 정을 통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대부분

237) 『史記』에는 妻가 姬로 되어 있다. 嬰齊는 南越 출신의 본처가 나온 所生도 있었기 때문에 長安에서 취한 嫪氏 女는 엄밀히 말하자면 처가 아닌 처첩의 의미로 희가 더 타당해 보인다.

238) 霸陵: 縣名이다. 前漢 文帝 9년(전171) 芷陽縣을 霸陵縣으로 개명하였다(『漢書』「地理志」, “霸陵, 故芷陽, 文帝更名.”). 京兆尹 소속이다. 治所는 현재 陝西省 西安市 東新市村 부근이다. 孝文帝 劉恒의 陵墓인 霸陵에서 지역의 이름을 삼았다.

239) 安國少季: 顏師古에 따르면, 安國은 姓이고 少季는 이름이다(姓安國, 字少季).

240) 『史記』에는 ‘比內諸侯’라는 네 글자가 더 있으나 『漢書』에는 생략되어 있다.

241) 諫大夫: 郎中丞 소속으로 秩은 比八百石이며 정원은 없다. 諫大夫는 『漢書』「百官公卿表」에 따르면, 元狩 5년(119)에 처음 설치하였다고 한다.

242) 終軍(전133~112): 자는 子雲, 濟南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博聞強記하여 문필로 郡中에 이름이 나 18세에 博士弟子에 추천되었다. 長安에 도착한 뒤에는 匈奴로 갈 사신에 자원한 일을 계기로 武帝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남월 공략에도 자청하여 출사하였다. 이때의 南越 出使 때 여가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의 사적에 대해서는, 『史記』에는 立傳되어 있지 않고 『漢書』「終軍傳」에 상세하다.

243) ‘輔其決’: 『史記』에는 ‘輔其缺’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돕도록’이라고 해석된다. 『漢書』처럼 ‘決’로 되어 있으면, 顏師古注의 “助令決策也”와 같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도운 것이 된다. 부족한 부분을 돕도록 하였다는 것도 통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문맥상 남월국의 왕과 신하들이 내속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게 부추겼다는 의미가 다분해서 顏師古의 주석이 보다 더 타당해 보인다.

244) 衛尉: 漢代 황궁을 지키는 직관으로 秦代에도 있었다. 景帝 때 中大夫令으로 개칭된 적이 있으나 후에 다시 개명되었다. 본 직무는 衛士를 거느리고 황궁을 지키는 관직이나 유사시 군대를 이끌고 황제의 명을 받들어 파견나가기도 한다. 秩 中二千石으로 九卿 중의 하나이다.

245) 路博德: 生卒년대는 자세하지 않다. 西河 平州(현재의 山西省 離石) 사람이다. 武帝 元狩 4년(전119)에 霍去病을 따라 匈奴 원정에 나서 공을 세워 左離侯에 봉해졌다. 元鼎 6년(전111)에 伏波將軍에 임명되어 남월을 평정하였고 다음 해인 기원전 110년 海南島를 공격하여 이곳에 珠崖郡과 儋耳郡 2郡을 설치함으로써 해남 통치의 서막을 열었다. 『史記』「衛將軍驃騎列傳」에는 强弩都尉가 되어 居延에 주둔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246) 桂陽: 郡名. 治所는 郴縣(현재 湖南省 郴州)이다.

태후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태후는 나라에 난이 일어날까 두려웠고 또 한(漢)의 위세를 빌리려고 여러 번 왕과 신하들에게 한에 내숙할 수 있도록 청하라고 권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신을 통해 상서하여 내제후가 하듯 3년에 한번 입조하고 변방에 설치된 관을 철폐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이를 허락하고 승상²⁴⁷⁾ 여가(呂嘉)에게 은인(銀印)을 하사(下賜)하고 내사(內史)²⁴⁸⁾와 중위(中尉)²⁴⁹⁾ 태부(太傅)에게 인(印)을 하사하였으며 나머지 관직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⁵⁰⁾ 월나라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경형(黥刑)²⁵¹⁾과

247) 丞相: 漢初 諸侯王國의 丞相은 처음에는 相國이라 하였다가 惠帝 元年 제후국의 相國法을 폐지하고 丞相으로 개명되었다. 또 景帝 中原 5년에는 丞相을 相으로 개칭하였다.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왕국 승상의 직책은 “統衆官”, 즉 왕의 보좌역할로 그 권한이 막대하였다. 『漢官儀』에는 “帝子爲王. 王國置太傅·相·中尉各一人, 秩二千石, 以輔王. …… 皆官如漢官官吏”라고 하였다. 그 秩祿은 賈誼 『新書』 「等齊」에 따르면, “天子之相, 號爲丞相, 黃金之印; 諸侯之相, 號爲丞相, 黃金之印, 而尊無異等, 秩加二千石之上”라고 하여 천자나 제후의 경우 똑같이 丞相이라 하고 金印을 사용하며 秩祿은 二千石 이상이라 하였다. 이것을 보면 文帝 때까지는 王國 丞相의 秩祿과 지위는 天子의 丞相과 차이가 없었는데, 景帝 때 吳楚七國의 난 이후 諸侯王國의 丞相을 相으로, 金印을 銀印으로, 秩祿은 二千石 이상에서 二千石으로 강등조치를 취하였다(吳榮會, 『西漢王國官制考實』, 『北京大學學報』, 1990年 第3期 참조). 이 구절에서 南越의 丞相인 呂嘉에게 銀印을 下賜하였다고 하였으니, 景帝 이후에도 南越에서는 적어도 호칭과 印綬 등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48) 內史: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王國 內史의 주요 職掌은 “治國民”이다. 王國의 內史는 王國 내의 민의 호적을 관장하고 지방관인 縣令과 직접 종속관계에 있다. 王國의 內史는 또한 刑獄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王國의 內史는 漢 조정의 內史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漢의 內史는 京師의 內治를 담당하여 丞相과 御史가 중추를 담당한 것과 달리 王國의 內史는 漢의 丞相과 御史와 같이 왕을 보좌하는 관리였다(吳榮會, 앞의 글). 『漢官儀』에 따르면, 秩祿은 二千石이고, 成帝 綏和 元年(전8) 때 內史를 폐지하고 相이 太守처럼 治國을 담당하게 되었다.

249) 中尉: 王國의 中尉는 軍事を 담당, 왕국의 軍吏는 모두 中尉에 의해 통속되었다. 따라서 왕국에서 출병할 때는 將軍은 언제나 中尉에서 담당하였다. 이처럼 中尉는 王國 내에서는 相과 內史 다음으로 중요한 요직이었다(吳榮會, 앞의 글). 秩祿은 相, 太傅와 함께 二千石이다.

250) 顏師古에 따르면, 丞相, 內史, 中尉, 太傅 이외의 관은 모두 南越國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漢의 印綬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丞相·內史·中尉·太傅之外, 皆任其國自選置, 不受漢之印綬). 여기에서 內史, 中尉, 太傅에게 하사한 印은 丞相 呂嘉가 銀印을 하사받았으므로 銅印이었을 것이다.

251) 黥刑: 일명 墨刑이라고 하는 신체형인 육형의 하나이다. 죄인의 이마에 먹물을 새겨 넣어 범죄자임을 표시하는 형벌이다. 春秋戰國시대 제자백가 중 墨家は 이와 같은 형벌을 받고 수공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秦末 漢初 군웅 중의 하나인 英布는 일찍이 墨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黥布’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漢書』 「刑法志」에 따르면, 文帝 때 형벌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肉刑이 정식으로 폐지

의형(劓刑)²⁵²을 폐지하고 한나라 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²⁵³ 또한 사신들은 모두 그대로 머물며 정세를 장악하고, 왕과 왕태후는 행장과 예물을 준비하여 입조할 채비를 하였다.

相呂嘉年長矣，相三王，宗族官貴爲長吏七十餘人，男盡尚王女，女盡嫁王子弟宗室，及蒼梧秦王有連。其居國中甚重，粵人信之，多爲耳目者，得衆心愈於王。王之上書，數諫止王，王不聽。有畔心，數稱病不見漢使者。使者注意嘉，勢未能誅。王·王太后亦恐嘉等先事發，欲介使者權，謀誅嘉等。置酒請使者，大臣皆侍坐飲。嘉弟爲將，將卒居宮外。酒行，太后謂嘉：“南粵內屬，國之利，而相君苦不便者，何也？”以激怒使者。使者狐疑相杖，遂不敢發。嘉見耳目非是，卽趨出。太后怒，欲縱嘉以矛，王止太后。嘉遂出，介弟兵就舍，稱病，不肯見王及使者。乃陰謀作亂，王素亡意誅嘉，嘉知之，以故數月不發。太后獨欲誅嘉等，力又不能。

[남월의] 상(相)²⁵⁴ 여가(呂嘉)는 나이가 많았는데, 삼대에 걸쳐 왕을 모셨기 때문에 그의 종족 중에는 벼슬길에 나가 장리(長吏)가 된 자가 70여 명이나 되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으며 여자들은 왕의 자제들이나 종실과 혼인을 맺었다. 창오(蒼梧)²⁵⁵ 진왕(秦王)²⁵⁶과도 인척이었다. 나라 안에서 그의 신망은 매우 두터워 월나라 사람들이 그를 신뢰

되었는데, 이때黥刑도 폐지되었다.

252) 劓刑: 周代 ‘五刑’(墨刑, 劓刑, 宮刑, 剕刑, 死刑)의 하나이다. 의형은 『周禮』「秋官·司刑」鄭康成注에 “劓, 截其鼻也”라고 하여, 코를 베는 형벌이다. 劓刑은 墨刑보다는 重刑에 속하고 剕刑보다는 輕刑에 속하는 형벌로, 商鞅이 변법을 실시했을 때 처음 법을 어긴 公子虔을 의형에 처했다고 한다. 文帝 때 肉刑을 폐지하는 대신에 劓刑은 笞刑 300대로 대체하였다.

253) 이 구절에도 『史記』에는 ‘比內諸侯’ 네 글자가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254) 相: 앞에서 漢이 ‘丞相 呂嘉’에게 ‘銀印’을 하사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相’이라 하여 丞相을 相이라고 하였으니, 호칭도 고쳤음을 알 수 있다.

255) 蒼梧: 前漢 呂后 5년(전183)에 南越王 趙佗가 族弟 趙光을 蒼梧王에 임명하자 梧州에서 蒼梧王城을 흥건하였다. 前漢 元鼎 6년(전111)에 武帝가 嶺南을 정복한 뒤 廣信縣을 설치하자 蒼梧王城은 廣信縣城이 되었다. 廣信이라는 명칭은 『漢書』「郡國志」에 의하면, “縣의 이름이 廣信인 것은 처음으로 粵 땅을 개척하여 널리 [황제의] 은혜와 신의를 알린다”는 의미에 붙여졌다. 漢武帝는 南越國을 평정한 뒤 南海, 蒼梧 등 9군을 설치하였고 蒼梧郡에는 廣信 등 10縣을 설치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목이 되어 일하는 자들이 많아서 민심을 얻는 것이 왕을 넘어서고 있었다. 왕이 한(漢)에 상서하려고 할 때마다 여가는 여러 번 그를 만류했으나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가는] 역심을 품고 자주 병을 핑계로 한나라 사신을 접견하지 않았다. 사자들은 모두 여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형세가 아직 그를 죽일 수는 없었다. 왕과 왕태후 역시 여가 등이 먼저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에²⁵⁷⁾ 한나라 사자의 힘을 빌려 [介漢使者權]²⁵⁸⁾ 여가 등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술자리를 마련하여 사자를 초청하고 대신들은 모두 곁에 앉아 술을 마셨다.²⁵⁹⁾ 여가(呂嘉)의 동생은 장군이어서 병사를 이끌고 궁 밖에 머물고 있었다. 술이 한바퀴 돌자 태후가 여가에게 말하였다. “남월이 한나라에 내속하게 되면 나라에 이익이 될 터인데, 상군(相君)²⁶⁰⁾께서는 어찌 그리 불편해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요?”라고 하여 한나라 사자들을 격노하게 하였다. 한나라 사자들은 머뭇거리며 서로 미루다가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다. 여가(呂嘉)는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嘉見耳目非是]²⁶¹⁾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태후는 화를 내며 직접 창으로 여가를 찌르려[縱]²⁶²⁾ 하였으나 왕이 태후를 저지하였다. 여가는 마침내 [궁을]

256) 秦王: 顏師古注에 인용된 孟康에 따르면, “창오와 월 가운데 왕으로 스스로 진왕을 자처한 자이다. 連이란 혼인관계를 말한다(蒼梧, 越中王, 自名爲秦王 連, 親婚也)”라고 하였다. 또 淸灼에 따르면, “진왕은 바로 아래에서 말한 조광이다. 조씨는 본래 진과 동성이기 때문에 진왕이라고 한 것이다(秦王卽下趙光也. 趙本與秦同姓, 故曰秦王)”라고 하였다. 하지만 『史記會注考證』에 인용된 周壽昌에 따르면, “趙光이 창오지역에 근거하면서 멋대로 秦王을 칭한 것이지 秦과 趙氏가 同姓이기 때문이겠는가” 하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257) 『史記』에는 이 구절 다음에 ‘乃置酒’ 세 글자, 즉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258) 介漢使者權: 顏師古는 ‘介’를 ‘恃’, ‘믿고 의지하다’로 해석하였다. 『集解』에 인용된 韋昭도 “사자를 방패 삼아 믿고” 정도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介’의 의미에 대해 『索隱』은 韋昭의 해석을 일단 긍정하면서도, 西晉시대 虞喜가 지은 『志林』에는 ‘介’를 ‘因’으로 보아 “사자를 매개로 임의대로 여가를 죽이려 하다”로 해석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索隱』은 虞喜의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하였다.

259) 『史記』에는 이 술자리를 생생하게 “사자들은 모두 동쪽을 향해 자리를 잡고 태후는 남쪽을 향해, 왕은 북쪽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았다. 승상 여가와 대신들은 모두 서쪽을 향해 자리를 잡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使者皆東鄉, 太后南鄉, 王北鄉, 相嘉·大臣皆西鄉, 侍坐飲)”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漢書』에는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다.

260) 『史記』에는 ‘相’으로 되어 있다.

261) ‘嘉見耳目非是’: 顏師古는 이에 대해 “평상시와 다른 것(異於常也)”으로 해석하였다.

빠져나와 동생 휘하의 병졸들을 무장시켜 [방어하며] 집으로 돌아갔다[介其弟兵就舍].²⁶³⁾ 이후 여가는 병을 핑계로 왕과 사자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밀리에 대신들과 반란을 꾀하였다. 왕은 본래 여가를 죽일 마음이 없었고, 여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은 조용히 아무 일도 벌이지 않았다.²⁶⁴⁾ 태후가 독자적으로 여가 등을 없애려고 해도 세력이 약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

天子聞之，罪使者亡決。又以爲王·王太后已附漢，獨呂嘉爲亂，不足以興兵，欲使莊參以二千人往。參曰：“以好往，數人足；以武往，二千人亡足以爲也。”辭不可，天子罷參兵。邾壯士故濟北相韓千秋奮曰：“以區區粵，又有王應，獨呂嘉爲害，願得勇士三百人，必斬嘉以報。”於是天子遣千秋與王太后弟膠樂將二千人往。入粵境，呂嘉乃遂反，下令國中曰：“王年少，太后中國人，又與使者亂，專欲內屬，盡持先王寶入獻天子以自媚，多從人，行至長安，虜賣以爲僮，取自脫一時利，亡顧趙氏社稷爲萬世慮之意。”乃與其弟將卒攻殺太后·王，盡殺漢使者。遣人告蒼梧秦王及其諸郡縣，立明王長男粵妻子術陽侯建德爲王。而韓千秋兵之入也，破數小邑。其後粵直開道給食，未至番禺四十里，粵以兵擊千秋等，滅之。使人函封漢使節置塞上，好爲謾辭謝罪，發兵守要害處。於是天子曰：“韓千秋雖亡成功，亦軍鋒之冠。封其子延年爲戍安侯。膠樂，其姊爲王太后，首願屬漢，封其子廣德爲隤侯。”乃赦天下，曰：“天

262) ‘縱’을 顏師古는 “쳐서 찌르다(縱謂撞刺之也)”라고 해석하였다. 『集解』 역시 韋昭를 인용하여 치다[撞]로 해석하고 있다. 『索隱』은 그 음이 칠(七)과 흉(凶)의 반질, 즉 충이라 하였고, 『吳王濞傳』의 “縱殺吳王”과 같은 의미라고 하였다.

263) 介其弟兵就舍: 顏師古注에 인용된 李奇는 “개는 입다(介, 被也)”로 해석하였고, 顏師古는 “개는 갑옷이다. 갑옷을 입고 스스로 방어한 것이다. 제병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말한 동생인 장군이 밖에서 거느리고 있던 병사들을 말한다(介, 甲也, 被甲而自衛也, 弟兵即上所云弟將卒居外者)”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史記』에는 ‘介’가 ‘分’으로 되어 있다. 『索隱』은 이것을 ‘동생의 병사 일부를 거느리고 집으로 가다’로 해석하였다.

264) 『史記』에는 “太后有淫行，國人不附(그 후에도 태후의 음란한 행위는 계속되어 남월국 사람들이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게 되자)”라는 구절이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문맥상 앞 구절과 중복이 되어 『漢書』처럼 생략해도 무방할 듯하다.

子微弱，諸侯力政，讖臣不討賊。呂嘉·建德等反，自立晏如，令粵人及江淮以南樓船十萬師往討之。”

천자는 이 소식을 듣고 사자가 나약해 결단하지 못했다고 죄를 주었다.²⁶⁵⁾ 또 왕과 왕태후는 이미 한(漢)에 귀속하기로 했는데 여가(呂嘉) 홀로 반란을 일으켰으니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장삼(莊參)에게 이천의 군사를 주어 남월에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장삼이, “친선을 위해 간다면 두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만, 정벌하러 간다면 이천 명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불가하다고 사양하였다. 이에 천자는 장삼의 군사를 파면하였다.²⁶⁶⁾ 그런데 협현(郟縣)²⁶⁷⁾의 장사(壯士)이자 이전에 제북국(濟北國)²⁶⁸⁾의 상(相)을 지냈던 한천추(韓千秋)²⁶⁹⁾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앞으로 나서서 말하기를, “조그만 월나라인데다가 왕이 안에서 호응하고 있고 오직 여가²⁷⁰⁾만이 문제인데, 용맹한 병사 삼백²⁷¹⁾이면 반드시 여가의 목을

265) 이 구절에서도 『史記』는 “여가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왕과 왕태후는 약하고 고립되어 이를 제압할 수 없는데다(嘉不聽王，王·王太后弱孤不能制)”라는 내용이 있는데, 『漢書』는 이를 생략하고 있다.

266) 『史記』에는 ‘天子罷參也’라고 ‘兵’자가 없다.

267) 郟縣: 顏師古注에 따르면, 郟의 음은 협(夾)이라 하였다. 또한 郟縣은 潁川郡 소속이다. 郟縣은 秦代 설치되었고 그 治所는 지금의 河南省 郟縣에 있었다.

268) 濟北國: 濟北國의 治所는 盧縣(현재의 山東省 長清縣 동남쪽에 위치)에 있다. 그런데 『史記』 「李陵傳」에는 韓千秋가 濟北相이 아니라 濟南相으로 되어 있다(成安侯者，潁川人，父韓千秋，故濟南相，奮擊南越戰死，武帝封子延年爲侯，以校尉隨陵). 濟北國은 孝文帝 元年(전179)에 처음 설치된 이래 잠깐 폐지되었다가 孝文帝 15년(전165)에 다시 설치된 후 孝宣帝 地節 3년(전67) 平原郡과 泰山郡으로 분리되어 폐지되었다. 한편 濟南國은 文帝 16년(전164)에 濟南郡을 國으로 개칭하고 劉肥의 아들 辟光을 濟南王에 임명 東平陵(지금 山東省 章丘市 서쪽)에 도읍하였다. 景帝 3년(전154)에 吳楚七國의 亂에 참가하여 郡으로 강등되었다. 武帝 이후에는 南郡가 泰山郡에 소속됨으로써 관할지역이 더욱 축소되었다.

269) 韓千秋: 郟縣(현재의 河南省 郟縣) 사람으로 『史記』 「南越列傳」과 『漢書』 「李陵傳」에 그 이름이 부분적으로 보이며 그 내용은 「南越列傳」에 서술된 바와 같이 南越 공격을 자청하여 출정하였다가 여가의 유인 작전에 빠져 전사하고 말았다. 武帝는 뒤에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그의 아들 韓延年을 成安侯에 봉하였다.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에는 “以校尉韓千秋擊南越死事。子侯”라고 韓千秋가 校尉의 신분으로 南越을 공격하다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70) 『史記』에는 呂嘉 앞에 ‘相’ 자가 있다.

271) 『史記』에는 ‘二百’으로 되어 있다.

바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천자는 한천추를 파견함²⁷²⁾과 동시에 왕태후의 동생인 규악(摎樂)에게 이천의 군사를 이끌고 가게 하였다.²⁷³⁾

[이 군사가] 남월의 국경에 진입하자 여가 등은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 온 나라에 영을 내려 말하기를, “왕의 춘추 아직 어린데다가 태후는 중국인이다. 게다가 한의 사자와 사사로이 정을 통하면서 오로지 한에 내속하려 하고 있다. 선왕의 귀중한 보물을 가져다가 몽땅 천자에게 바쳐 아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장안(長安)에 데리고 가서 노비로 팔아버리려 하고 있다. 스스로 한때의 화를 모면하려는 이익만 취하려 할 뿐 조씨(趙氏) 사직을 돌보아 만세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동생과 병졸들을 이끌고 공격하여 왕과 태후 그리고 한의 사자를 죽였다. 창오(蒼梧)의 진왕(秦王)과 소속 군현에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명왕(明王)²⁷⁴⁾의 장남으로 월인(粵人) 아내가 낳은 술양후(術陽侯)²⁷⁵⁾ 건덕(建德)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자 한천추의 병사들이 들어와 몇몇 작은 읍들을 쳤다. 남월은 단지 길을 열어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유인하다가 한천추의]²⁷⁶⁾ 군대가 번우성(番禺城)에서 40리쯤에 못 미쳤을 때, 남월은 군사를 일으켜 한천추 등을 공격하여 전멸하였다. 사람을 시켜 한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부절(符節)을 함에 봉해서 국경의 요새 위에 두게 하고²⁷⁷⁾ 그럴듯한 말[謾辭]²⁷⁸⁾로 사죄의 뜻을 표하는 한편, 군사를 동원하여 요충지를 지키도록 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한천추(韓千秋)는 비록 공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군의 선봉으로서

272)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校尉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고 하였다.

273) 『漢書』中華書局本은 『史記』와 달리 여기에서 구두를 찍어 문장을 끝냈다. 이것을 따라 해석하였다.

274) 明王: 趙嬰齊를 말한다.

275) 術陽侯: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元鼎 4년에 南越王의 형인 越을 高昌侯에 봉하였다고 하였다. 또 『索隱』의 韋昭는 漢에서 책봉한 이름이라 하고, 「功臣表」에 따르면, 術陽은 下邳郡(지금 江蘇省 水滸縣 서북)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에는 元鼎 4년(전113)에 建德을 侯에 봉하였고 이듬해 元鼎 5년(전112)에 죄를 지어 廢國되었다고 되어 있다.

276) 顏師古는 그 이유를 “깊숙이 들어오게 내버려두었다가 뒤에 모조리 없애버리기(縱之令深入, 然後誅滅之)”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277) 『索隱』은 漢의 사자의 부절을 함에 봉해서 새 위에 두었다(函封漢使節置塞上)고 하여 단순히 국경의 요새로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南康記』가 이 ‘塞上’은 오령의 하나인 大庾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 것을 들어(索隱函封漢使節置塞上. 案: 南康記以爲大庾名‘塞上’也.) 특정 지명으로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78) ‘謾辭’를 顏師古는 속이다, 유혹하다[誑]로 해석하여, 여기에서는 ‘그럴듯한 말’로 번역하였다.

는 으뜸이었다”라고 하며, 그의 아들인 한연년(韓延年)을 성안후(成安侯)²⁷⁹에 봉하였다. 규악(摎樂)은 그의 누이가 왕태후이고 제일 먼저 한에 내속하길 청하였으므로 규악의 아들인 광덕(廣德)을 용후(隴侯)²⁸⁰에 봉하였다. 그리고 사면을 내려, “천자의 권위가 미약하여²⁸¹ 제후들이 서로 힘으로 다퉴 때, 신하된 자로서 난적을 토벌하지 않는 것을 『춘추(春秋)』에서 나무랐다.²⁸² 지금 여가(呂嘉)와 건덕(建德) 등이 반란을 일으켜 자립하여 태연자약하고 있다.²⁸³ 죄수들과 장강(長江) 및 회수(淮水)²⁸⁴ 이남의 누선(樓船)²⁸⁵ 10만 병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라”라고 하였다.

元鼎五年秋，衛尉路博德爲伏波將軍，出桂陽，下湟水；主爵都尉楊僕爲樓船將軍，出豫章，下橫浦；故歸義粵侯二人爲戈船·下瀨將軍，出零陵，或下離水，或抵蒼梧；使馳義侯因巴蜀罪人，發夜郎兵，下牂柯江；咸會番禺。

원정(元鼎) 5년(전112) 가을 위위(衛尉) 노박덕(路博德)이 복파장군(伏波將軍)이 되어 계양(桂陽)²⁸⁶에서 출동하여 황수(湟水)²⁸⁷로 남하하였다. 주작도위(主爵都尉)²⁸⁸ 양복(楊

279) 成安侯: 『索隱』은 「功臣表」를 인용하여 成安은 郿縣 소속이라 하였다(索隱案功臣表, 成安屬郿). 治所는 현재의 河南省 汝州市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280) 隴侯: 『史記』에는 ‘龍亢侯’로 되어 있다. 『索隱』에 인용된 服虔에 따르면 ‘隴’의 음은 공(邛)이며, 焞灼는 옛 ‘龍’字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焞灼설을 따라 용후라 하였다. 治所는 현재의 安徽省 懷遠縣 서북 龍亢鎮에 해당한다.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에 따르면, 元鼎 5년(전112)에 廣德은 龍亢侯에 책봉되었다가 元封 6년(전105)에 죄를 지어 처벌되고 폐국되었다.

281) 『史記』에는 단지 ‘天子微’로만 되어 있는데, 『漢書』는 뒤에 ‘弱’자를 추가하였다.

282) 顏師古注에 따르면, “역정이란 군사력으로 서로 경쟁함을 말한다. 신하가 적을 토벌하지 않는 것을 나무란 것은 춘추의 뜻이다(力政謂以兵力相加也. 讖臣不討賊者, 春秋之義)”라고 하였다.

283) 顏師古는 이 구절을 “자립하여 마음대로 관직을 두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여 두려운 바가 없음을 말한다(言自相置立, 而心安泰無恐懼)”라고 풀이하였다.

284)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淮는 어떤 곳에는 ‘匯’로 되어 있다.

285) 『集解』에 인용된 應劭에 따르면, 당시 남월을 치려면 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선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樓船이라고 한 것은 배 위에 망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286) 桂陽: 郡名. 현재의 河南省 長垣縣 西北쪽에 있다.

287) 顏師古는 ‘湟’에 대해 음이 隴이라고만 주석을 가하였는데, 『史記』에는 ‘湟’이 ‘匯’로 되어 있다. 『集解』의

僕)²⁸⁹은 누선장군(樓船將軍)이 되어 예장(豫章)²⁹⁰에서 출동하여 횡포(橫浦)²⁹¹로 남하하였다.²⁹² 이전 월나라 사람으로 한에 귀의한 귀의후(歸義侯) 두 사람²⁹³은 각각 과선장군(戈船將軍)²⁹⁴과 하퇴장군(下瀨將軍)²⁹⁵이 되어 영릉(零陵)²⁹⁶에서 출발하여 한 사람은 이수(離

徐廣은 『史記』의 匯水是 ‘滄水’로 된 곳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裴駰은 『地理志』에 “桂陽에 匯水가 있어 四會로 통한다”라고 하여 부정하였고, 아울러 匯는 ‘淮’로 된 곳도 있다고 하였지만, 『索隱』도 劉氏를 인용하여 匯는 ‘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곳은 이 ‘滄’이 ‘淮’으로도 되어 있다고 한다. 『水經注』 「匯水注」에는 “匯水出桂陽縣西北上驛山盧聚為盧溪水，東南流徑桂陽縣故城，謂之匯水”라 하여 桂陽縣에서 발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廣東省 連州市 동남에 있는 連江이다.

288) 主爵都尉: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主爵都尉는 秦代에는 主爵中尉로 列侯의 封爵을 담당하였다. 漢 景帝 中元 6년(전144) 主爵都尉로 개칭되었고 武帝 太初 원년(전104)에 右扶風으로 개칭되면서 내사가 관할하던 右地를 담당하면서((主爵中尉, 秦官, 掌列侯. 景帝中六年更名都尉, 武帝太初元年更名右扶風, 治內史右地) 원래의 직장인 封爵과는 달리 경기 지역의 오른쪽을 담당하는 행정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289) 楊僕: 『史記』 「酷吏列傳」에 “양복은 의양 사람이다. 천부로 관리가 되었다. 하남군수 안의 추천으로 어사가 되었고 관동의 도적을 감찰하였다. 윤제의 통치를 모방하여 함부로 잡아들였다. 벼슬이 주작도 위어까지 이르러 구경의 반열에 들어섰다. 천자가 능력이 있다고 여겨 남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누선장군에 제수하였고 공을 세워 장랑후에 봉하였다. 순체에게 잡혔다가 병사하고 말았다(楊僕者, 宜陽人也. 以千夫爲吏. 河南守案舉以爲能, 遷爲御史, 使督盜賊關東, 治放尹齊, 以爲敢擊行. 稍遷至主爵都尉, 列九卿. 天子以爲能. 南越反, 拜爲樓船將軍, 有功, 封將梁侯. 爲荀彘所縛. 居久之, 病死)”고 전하고 있다.

290) 豫章: 郡名이다. 漢高祖 初年(전202년경)에 豫章郡을 설치하였다. 郡治는 南昌(현재의 江西省 南昌市)이었고 南昌, 廬陵, 彭澤, 鄱陽, 餘汗, 柴桑, 贛, 新淦, 南城, 宜春, 潯都, 艾, 安平, 海昏, 厲陵, 建成 등 18개 縣을 관할하였다. 관할지역은 대체로 현재 江西省 일대와 일치한다.

291) 橫浦: 橫浦關을 말한다. 橫浦關에 대해서는 앞의 주 참조.

292) 『漢書』 「武帝本紀」에는 누선장군 楊僕이 豫章에서 출발하여 滄水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다(樓船將軍楊僕出豫章, 下滄水). 滄水는 현재의 廣東省 南雄縣 大庾嶺 남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曲江縣에 이르러 武水와 만나고 남쪽의 물줄기는 北江이 된다.

293) 顏師古는 “월나라에서 귀의해 와 한에서 책봉한 것이다(從粵來歸義, 而漢封之)”라고 하였다. 『漢書』 「武帝本紀」에 이들의 이름이 각각 嚴과 甲으로 되어 있는데(歸義越侯嚴爲戈船將軍, 出零陵, 下離水; 甲爲下瀨將軍, 下蒼梧), 清代 梁廷의 『南越五主傳』에 따르면, 鄭嚴과 田甲이라고 한다.

294) 戈船將軍: 『集解』에서 裴駰은 명칭의 유래에 대해 張晏설을 인용하여, 월나라 사람들은 물속에서 다른 사람의 배를 뒤집어엎거나 또 물속의 교통을 처치하기 위해서 배 아래에 창을 넣어두기 때문에 戈船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였다. 臣瓚은 또 『伍子胥書』에 戈船이란 것이 있는데, 방패와 창을 실었기 때문에 그리 불렀다고 설명하고 있다(集解徐廣曰, “厲, 一作 ‘瀨.’ 駰案: 張晏曰 “越人於水中負人船, 又有蛟龍之害, 故置戈於船下, 因以爲名也.” 應劭曰 “瀨, 水流涉上也.” 瓚曰 “伍子胥書有戈船, 以載干戈,

水)²⁹⁷⁾로 남하하고, 한 사람은 창오(蒼梧)²⁹⁸⁾로 진격하였다. 치의후(馳義侯)²⁹⁹⁾로 하여금 파촉(巴蜀)의 죄인들과 야랑국(夜郎國)³⁰⁰⁾의 군사를 징발하여 장가강(牂柯江)³⁰¹⁾으로 남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번우(番禺)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因謂之‘戈船’也.”) 이처럼 戈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考證』도 徐德森과 劉放의 설을 인용하여 배 밑에 창을 둔 데에서 유래되었다는 張晏설이 황당하다고 설명하고 臣瓚의 설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하고 있다(4662쪽). 또 『西京雜記』권6에는, “昆明池에 戈船, 樓船이 각각 백 척이 있다. 樓船 위에는 樓櫓를 세우고 戈船 위에는 戈矛를 세운다. 네 모퉁이에 모두 幡旄를 드리운다……”고 되어 있어 과선은 창을, 누선은 망루를 배위에 설치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95) 下瀨將軍: 『史記』에는 瀨가 厲로 되어 있다. 『集解』에 인용된 徐廣도 下厲의 厲는 瀨라고 하였다. 『漢書』 「武帝本紀」注에 인용된 臣瓚에 따르면, 『伍子胥書』에 ‘下瀨船’이 있다고 하였으니(“瀨, 湍也, 吳越謂之瀨, 中國謂之瀨. 伍子胥書有下瀨船”), 樓船과 戈船처럼 下瀨도 선박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下瀨는 수심이 얕은 물의 급류를 헤치고 다니는 밀이 평평하고 낮은 쾌속선을 말한다.
- 296) 零陵: 縣名이다. 秦代 설치되었으며 長沙郡 소속이다. 治所는 현재의 廣西省 全州縣 西南쪽에 있다. 前漢 때에는 零陵郡治가 되었다. 『考證』은 丁謙을 인용하여, 零陵郡은 武帝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湖南 永州府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4662쪽).
- 297) 離水: 현재의 廣西省 漓江, 桂江이며 西江의 지류이다. 『集解』의 徐廣에 따르면, 離水는 零陵에 있으며 廣信과 이어진다고 하였다. 『正義』는 「地理志」를 인용하여 “零陵縣에 離水가 있는데, 동쪽으로 廣信까지 이르며 鬱林으로 들어간다, 총 980리에 이른다”고 하였다. 또 『水經注』 「漓水」조에, “漓水亦出陽海山, 南過蒼梧荔浦縣, 又南至廣信縣, 入于郁水”라고 하였다.
- 298) 蒼梧: 舜이 남으로 巡狩하다가 사망한 곳으로 유명하다(『史記』 「五帝本紀」, “南巡狩, 崩于蒼梧之野.”). 元鼎 6년(전111)에 蒼梧郡이 설치되었고 治所는 廣信縣(현재의 廣西省 梧州市)이었다.
- 299) 馳義侯: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越나라 사람이며 이름은 遺라고 한다. 『漢書』 「武帝本紀」에는 “越馳義侯遺”라고 되어 있다.
- 300) 夜郎國: 『正義』는 曲州와 協州 이남이 곧 夜郎國이라 하였다(正義曲州·協州以南是夜郎國). 戰國시대에서 西漢 초까지 존재했다. 현재의 貴州 서부와 북부 雲南 동북을 포괄하며 四川 남부와 廣西 북부도 그 관할하에 있었다. 國都는 아직 정론이 없는데, 최근 貴州 赫章縣 서북 可樂民族鄉古遺址에서 대량의 진귀한 문물이 발굴되었다. 夜郎國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列傳」 주 참조.
- 301) 牂柯江: 『正義』에 따르면 牂柯江은 남쪽 요새 밖에서 나와 동쪽으로 四會와 통하며 番禺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다. 牂柯江의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史記』 「西南夷列傳」의 『정의』에 인용된 崔浩에 따르면, ‘牂柯’는 ‘배를 매는 말뚝’이다(正義崔浩云, “牂柯, 繫船杙也.”) 이것이 地名의 유래가 된 데에는 『華陽國志』에 “楚頃襄王 때 莊蹻를 보내 夜郎을 쳤는데, 군대가 且蘭에 이르러, 江岸에 배를 대고 步兵戰을 벌였다. 夜郎을 멸한 뒤에, 且蘭을 배를 댄 말뚝이 있는 곳이라 하여 곧 그 이름을 고쳐 牂柯라 하였다(常氏華陽國志云, “楚頃襄王時, 遣莊蹻伐夜郎, 軍至且蘭, 楫船於岸而步戰. 既滅夜郎, 以且蘭有楫船柯處, 乃改其名爲牂柯.”)”라고 하였다.

六年冬，樓船將軍將精卒先陷尋陔，破石門，得粵船粟，因推而前，挫粵鋒，以粵數萬人待伏波將軍。伏波將軍將罪人，道遠後期，與樓船會乃有千餘人，遂俱進。樓船居前，至番禺，建德·嘉皆城守。樓船自擇便處，居東南面，伏波居西北面。會暮，樓船攻敗粵人，縱火燒城。粵素聞伏波，莫，不知其兵多少。伏波乃爲營，遣使招降者，賜印綬，復縱令相招。船力攻燒敵，反馭而入伏波營中。遲旦，城中皆降伏波。呂嘉·建德以夜與其屬數百人亡入海。伏波又問降者，知嘉所之，遣人追。故其校司馬蘇弘得建德，爲海常侯；粵郎都稽得嘉，爲臨蔡侯。

[원정(元鼎)] 6년(전111)³⁰²⁾ 겨울, 누선장군(樓船將軍)이 정예병사를 이끌고 먼저 심협(尋陔)³⁰³⁾을 함락시키고 석문(石門)³⁰⁴⁾을 격파하였다. 남월 배의 군량미를 노획하고 그 여세를 몰아 전진하여 남월의 선봉을 꺾고, 수만 명의 월(粵)³⁰⁵⁾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파장군(伏波將軍)이 도착하길 기다렸다. 복파장군은 죄수들을 거느린데다 [행군한] 거리가 너무 멀어 약속한 기일에 늦게 되었다. 누선장군과 만났을 때에는 겨우 천여 명 정도의 군사가 있었고 마침내 [합류하여] 함께 행진하였다. 누선장군이 앞장을 서서 번우에 이르렀다. 건덕(建德)과 여가(呂嘉)는 모두 성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다. 누선장군은 자기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동남

302) 『史記』에는 6년 앞에 元鼎이라 하였다.

303) 尋陔: 『史記』에는 陔이 陔으로 되어 있다(陔, 陔, 峽 모두 같이 쓰인다). 『索隱』은 姚氏의 말을 인용하여 尋陔은 始興 서쪽 300리에 위치하며 連口에 가깝다고 하였다(索隱姚氏云, “尋陔在始興西三百里, 近連口也.”). 『考證』의 丁謙에 따르면, 尋陔은 곧 韶州 英德縣 남쪽에 있는 湞陽峽을 말한다. 또 『方輿紀要』 권101 清遠縣 ‘峽山’조에 “觀亭山在縣東三十五里. 一名觀峽山. 或云即峽山之支麓, 或謂之尋陔”이라고 하였다. 현재 위치로는 廣東省 清遠市 동쪽이다.

304) 石門: 『索隱』은 石門에 대해 『廣州記』의 다음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番禺縣 북쪽 30리에 있다. 옛날 여가가 한에 대항하여 싸울 때 돌을 쌓아 강을 메워서 석문이라 이름을 붙였다. 또 세속에서는 石門水を ‘탐천(貪泉)’이라 하였는데, 그 물을 마시면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吳隱之가 石門에 이르러 그 물을 떠서 마시고 곧바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索隱按: 廣州記 “在番禺縣北三十里. 昔呂嘉拒漢, 積石鎮江, 名曰石門. 又俗云石門水名曰『貪泉』, 飲之則令人變. 故吳隱之至石門, 酌水飲, 乃爲之歌云也.”) 또 『方輿紀要』 권101 廣州府를 보면 石門山은 “두 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문과 같다(兩山對峙如門)”라고 하여 石門이라 이름하였다고 전한다. 현재의 廣東省 廣州市 西北 30리에 있다.

305) 『史記』에는 ‘粵’자가 없다.

쪽에 진을 쳤고 북과장군은 서북쪽에 진을 치게 되었다. 때마침 날이 저물자 누선장군이 월나라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성을 불태워버렸다. 남월 사람들은 평소 북과장군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게다가 날이 저물자 그의 병사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었다. 북과장군은 곧바로 영루(營壘)³⁰⁶를 세워 사자를 보내 항복해 오는 자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인수(印綬)³⁰⁷를 하사하고 다시 풀어줘 항복한 자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³⁰⁸ 그리하여 누선장군이 전력을 다해 적을 공격하고 성을 불태운 것이 오히려 남월 사람들을 북과장군 진영으로 몰아간 꼴이 되었다. 날이 채 밝기도 전(遲旦)³⁰⁹에 성안 사람들이 모두 북과장군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여가(呂嘉)와 건덕(建德)은 이미 밤을 타서 자신의 일속 백여 명을 데리고 바다로 도망쳤다.³¹⁰ 북과장군은 또 항복해온 자들에게³¹¹ 여가가 도망친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본 다음 사람을 시켜 그 뒤를 추적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교위(校尉)의 사마(司馬)³¹² 소홍(蘇弘)³¹³은 건덕을 잡은 공로로 해상후(海常侯)³¹⁴에 봉해졌고, 월의 랑(郎)³¹⁵ 도계

306) 營壘: 顏師古에 따르면 영루를 설치하여 항복해 오는 자들을 맞이하기 위한 것(設營壘以待降者)이라고 한다.

307) 印綬: 『史記』에는 ‘印’으로만 되어 있다. 漢代 관리의 秩祿에 따라 金印, 銀印, 銅印을 하사했고 印을 묶는 綬도 綠綬, 紫綬, 青綬, 黃綬, 黑綬로 구분하였다. 또 印에는 꼭지 위에 매는 끈 紐가 있는데, 龜紐, 鼻組 등으로 구별하였다. 印綬 제도는 戰國시대부터 있었던 것을 漢代에 계승, 발전시켰다.

308) 顏師古는 “항복한 자들에게 후의 인을 내려 풀어주고 돌아가도록 해서 [그들의 무리들을] 회유해서 불러오도록 하다(來降者即賜以侯印, 而放令還, 更相招諭之也)”라고 풀이하였는데, 이것을 따라 해석하였다.

309) ‘遲旦’: 『史記』에는 ‘犁旦’으로 되어 있다. 『集解』는 徐廣을 인용하여 ‘犁’를 ‘~까지 이어지다, 미치다’는 의미로 풀이하였고 『索隱』은 ‘犁’의 의미를 검은[黑]로 해석, 날이 미쳐 밝기 전 어두운 때라고 하여 이것을 따라 해석하였다.

310) 『史記』에는 ‘入海’ 뒤에 ‘以船西去’ 네 글자가 더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어 있다.

311) 『史記』에는 투항한 자들 중 貴人에게 呂嘉의 행방을 물었다고 하였는데, 『漢書』는 이 역시 생략하고 있다.

312) 『史記』에는 ‘故校尉司馬’로 되어 있는데, 『漢書』는 ‘故其校司馬’라고 하였다. 『考證』은 朱一新의 말을 인용하여 ‘故校尉司馬’를 ‘이 때문에 校尉였다가 이제 軍司馬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지만, 顏師古는 “校의 司馬이다. 지금의 行軍總管사마이다(校之司馬, 若今行軍總管司馬也)”라고 해석하였다. 『功臣年表』에 蘇弘은 伏波司馬로 南越王 建德侯를 잡았다고 되어 있어, 이것을 참조하면 顏師古의 해석처럼 伏波將軍 휘하 校尉의 司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13) 蘇弘: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에 의하면, 伏波司馬로 南越王 乾德을 잡은 공으로 侯가 되었고, 元封 6년 7월 乙酉일에 莊侯 蘇弘의 원년이 되었으며, 太初元년에 蘇弘이 사망하고 후사가 없어 國이 폐지되

(都稽)³¹⁶)는 여가를 잡은 공로로 임채후(臨蔡侯)³¹⁷)에 봉해졌다.

蒼梧王趙光與粵王同姓，聞漢兵至，降，爲隨桃侯。(又)[及]粵揭陽令史定降漢，爲安道侯。粵將畢取以軍降，爲瞭侯。粵桂林監居翁諭告甌駱四十餘萬口降，爲湘城侯。戈船·下瀨將軍兵及馳義侯所發夜郎兵未下，南粵已平。遂以其地爲儋耳·珠崖·南海·蒼梧·鬱林·合浦·交趾·九真·日南九郡。伏波將軍益封。樓船將軍以推鋒陷堅爲將梁侯。

창오왕(蒼梧王) 조광(趙光)은 월왕과 동성(同姓)이다. 한나라 군대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항복하여 수도후(隋桃侯)³¹⁸)가 되었다. 또 월의 게양령(揭陽令)³¹⁹)인 사정(史定)³²⁰)이

었다. 「高祖功臣侯者年表」의 「索隱」에 의하면, ‘莊侯’는 項籍을 참한 五侯에게 내려진 시호인데, 「建元以來侯子年表」에는 南越王 乾德을 잡은 蘇弘과 東越의 循北將軍을 잡은 轅終古 외에는 莊侯의 시호가 보이지 않는다.

314) 海常侯: 『集解』의 徐廣에 따르면 東萊에 있다. 食邑이 東萊郡에 있다는 말인데, 東萊郡의 郡治는 현재의 山東省 掖縣에 있다. 일설에는 그 食邑이 琅邪郡에 있다고도 하는데, 琅邪郡의 郡治는 山東省 諸縣에 있다.

315) 越郎: 顏師古注에 인용된 孟康에 따르면, 월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한 郎을 말한다(越中所自置郎也.) 郎은 본래 王宮을 지키는 衛士였는데, 前漢 때에는 이미 직장이 명문화되어 황제 혹은 왕국의 막료로 충당되었다. 한조정과 마찬가지로 王國의 郎官은 郎中과 中郎, 侍郎이 있었으며, 『漢官儀』에 따르면, 秩祿은 2백 석이었다. 「百官公卿表」에는 “景帝中五年令諸侯王不得復治國, 天子爲置吏, ……郎諸官長丞皆損其員”라고 하여, 景帝 中元5년에 王國의 郎官의 숫자를 감축했다고 전한다(吳榮曾, 앞의 글, 114쪽).

316) 都稽: 『漢書』 「景武昭宣元成功臣表」에는 孫都로 되어 있다.

317) 臨蔡侯: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에는 실려 있지 않고, 『漢書』 「景武昭宣元成功臣表」에 臨蔡侯는 河內郡 소속이며, 食邑이 千戶로 되어 있다. 河內郡의 治所는 懷縣, 즉 현재의 河南省 武陟縣 서남이다.

318) 隋桃侯: 『漢書』 「功臣年表」에는 隋桃의 소제에 대해 적혀 있지 않지만, 『史記』 「建元以來侯者年表」의 「索隱」에 隋桃, 安道, 瞭가 모두 南陽郡(前漢 때 관할지역의 범위는 현재의 河南省 桐柏縣 以西, 湖北省 丹江口市 以東, 河南省 魯山縣 以南, 河南省 鄭州市와 湖北省 廣水市 以北에 해당) 소속으로 되어 있다. 「功臣年表」에 趙光은 元鼎 6년(전111) 4월에 隋桃侯에 책봉되었고 食邑 三千戶였다.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趙昌樂이 위를 계승하였고, 宣帝 本始 元年(전73)에 趙昌樂이 죽은 뒤 그 아들이 죄가 있어 뒤를 잇지 못했다가 平帝 元始 5년(5), 趙光의 玄孫인 趙放紹가 桃侯에 책봉되었고, 食邑 千戶였다. 趙光이 隋桃侯에 책봉되었다는 기사는 『史記』 「南越列傳」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에 항복하여 안도후(安道侯)³²¹가 되었다. 월의 장수 필취(畢取)는 군대를 이끌고 항복하여 요후(僚侯)가 되었다.³²² 월의 계림감(桂林監)³²³인 거옹(居翁)³²⁴은 구락(鬪駱)에게 한나라에 복속하도록 종용하여 그 40여만 구를 이끌고 항복하여 상성후(湘城侯)³²⁵가 되었다. 과선장군(戈船將軍)과 하뢰장군(下瀨將軍)의 군대 및 치의후(馳義侯)가 징발한 야랑국 병사가 미처 당도하기도 전에 남월은 평정되었다. 마침내 이곳에 담이(儋耳),³²⁶ 주애(珠崖),³²⁷ 남해(南海),³²⁸ 창오(蒼梧),³²⁹ 울림(鬱林),³³⁰ 합포(合浦),³³¹ 교지(交趾),³³² 구진(九眞),³³³ 일

319) 揭陽令: 顏師古注에 인용된 蘇林에 따르면, “揭의 음은 갈(羯)이다. 남해현이다(揭音羯. 南海縣)”라고 하였다. 그런데 『史記集解』의 韋昭에 따르면,揭의 음은 기(其)와 서(逝)의 반절, 즉 ‘게’이다. 『素隱』은 또한 「地理志」를 인용하여 揭陽縣이 南海郡에 속해 있다고 하였고 揭의 음은 곁(桀)이라 하여 ‘揭’는 게, 갈, 곁로 음이 각각 다르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揭陽縣은 秦代 설치되었고 揭陽嶺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揭陽이라 불렀다. 治所는 현재의 廣東省 揭陽市 서북이다.

320) 史定: 揭陽令의 이름이다. 『史記』에는 ‘揭陽令 定’으로 되어 있다.

321) 安道侯: 安道는 『史記』 「建元以來侯者年表」의 『素隱』에 南陽郡 소속이라 하였다.

322) 이 구절은 『史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顏師古는 이에 대해 “월의 장수이며 성이 필이고 이름이 취이다. 「공신년표」에 요는 남양군 소속이다(越將姓畢名取也. 功臣表僚屬南陽)”라고 하였다.

323) 桂林監: 顏師古注에 인용된 服虔에 따르면, 桂林部監이라고 하였는데, 『集解』에 인용된 『漢書音義』에 따르면 桂林郡의 中監이다.

324) 居翁: 顏師古注에 인용된 服虔에 따르면, 姓이 居이고 이름이 翁이다.

325) 湘城侯: 『史記』 「建元以來侯者年表」의 『素隱』에 堵陽縣 소속이라 하였는데, 堵陽縣은 원래 秦代 陽城縣을 前漢代 개칭한 것으로, 현재의 河南省 方城縣 동쪽 6리에 있다.

326) 儋耳: 治所는 儋耳縣, 즉 현재의 海南省 儋州市 西北 남단이다. 관할 지역은 현재 海南省 海南島 서부지구에 해당한다. ‘儋耳’라는 지명은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 문신과 큰 귀걸이를 하였기 때문에 붙여졌다. 儋耳郡에는 3개의 현, 九龍縣(현재의 東方縣), 玉來縣(현재의 昌江縣), 儋耳縣(현재의 儋縣)이 설치되었다. 漢昭帝 始元 5년(전82)에 儋耳縣을 珠崖郡에 병합되었다.

327) 珠崖: 治所는 瞻都縣, 즉 현재의 海南省 琼山市 동남 30리이다. 儋耳郡과 함께 交州刺史의 관할하에 있었다. 고증에 따르면, 珠崖郡에는 5개 현, 潭都縣, 玳瑁縣(두 현이 대략 현재의 琼山市), 苟中縣(현재의 澄邁縣), 紫貝縣(현재의 文昌市), 臨振縣(현재의 三亞市)이 설치되었다. 珠崖라는 명칭은 『漢書』에 “郡在大海岸之邊, 出珍珠, 故曰珠崖”라고 하여 이 지역이 진주가 많이 나는 곳이어서 붙여졌다. 元帝 初元 3년(전46) 珠崖郡을 폐지하고 朱盧縣(혹은 朱崖縣)으로 고쳐 合浦郡에 병합시켰다.

328) 南海: 南海郡 앞의 주 참조.

329) 蒼梧: 蒼梧郡 앞의 주 참조.

330) 鬱林: 鬱林郡은 桂林郡을 개명한 것이다. 桂林郡은 秦始皇 33년(전214)에 설치, 현재의 廣西省 대부분 지역을 포괄한다. 郡의 治所는 布山縣(현재 廣西省 貴港市) 혹은 현재의 廣西省 桂平市 西南이라고

남(日南)³³⁴ 구군(九郡)을 설치하였다. 북과장군은 봉을 더하였고 누선장군은 선봉에서 견고한 적의 군대를 함몰시킨 공로로 장량후(將梁侯)³³⁵에 봉해졌다.

自尉佗王凡五世，九十三歲而亡。

위타(尉佗)가 처음으로 왕이 된 이래 5대 93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閩粵王無諸及粵東海王搖，其先皆粵王句踐之後也，姓駙氏。秦并天下，廢爲君長，以其地爲閩中郡。及諸侯畔秦，無諸·搖率粵歸番陽令吳芮，所謂番君者也，從諸侯滅秦。當是時，項羽主命，不王也，以故不佐楚。漢擊項籍，無諸·搖帥粵人佐漢。漢五年，復立無諸爲閩粵王，王閩中故地，都冶。孝惠三年，舉高帝時粵功，曰閩君搖功多，其民便附，乃立搖爲東海王，都東甌，世號曰東甌王。

하여 불분명하다. 『漢書』 「地理志」에는 桂林郡이武帝 때鬱林郡으로 개명되었다고 전한다.

331) 合浦:武帝元鼎6년(전111)에 처음 설치하였고, 治所는 徐聞縣(현재의 廣東省 徐聞縣 남쪽)이다. 관할 지역은 현재의 廣東省 新興縣, 開平縣以西, 廣西省 容縣, 玉林, 橫縣以南에 해당한다. 後漢 때 郡治를 合浦縣(현재의 廣西省 浦北縣 南舊州村)으로 이전하였다.

332) 交趾:前漢 때 治所는 羸陵縣(현재의 越南 河內市 서북)이다. 관할 지역은 현재의 越南 북부 지구에 해당한다. 後漢 때 治所를 龍編縣(현재의 越南 河北省 仙游 東쪽)으로 옮기면서 관할영역이 축소, 紅河 삼각주 일대로 제한되었다.

333) 九眞: 治所는 胥浦縣(현재의 越南 淸化省 東山縣 楊舍村)이다. 관할영역은 현재 越南 淸化省, 河靜省과 義安省 동부 지구에 해당한다. 後漢 때에는 交州에 속하였다.

334) 日南: 治所는 西捲縣(현재 越南 平治天省 廣治西北의 廣治河와 甘露河의 합류지점)이다. 『漢書』 「地理志」에 따르면, 秦代 설치된 象郡을 前漢武帝 때 改名한 것이라고 한다. 顏師古는 그 지명에 대해 “해의 남쪽에 있음을 말한다. 소위 북쪽으로 문을 내어 해를 향하는 곳이다(言其在日之南, 所謂開北戶以向日者)”라고 하였고 『水經注』 「溫水注」에 “區粟에서는 팔 척의 表를 세워 해 그림자를 남쪽 팔 촌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남을 해의 남쪽에 있다 하여 군명으로 삼았다(區粟建八尺表, 日影度南八寸, 自此影以南, 在日之南, 故以名郡)”라고 전하고 있다.

335) 將梁侯: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의 『索隱』에 따르면, 『漢書』 「景武昭宣元成功臣表」와 「地理志」에 기록이 없다.

민월왕(閩粵王)³³⁶⁾ 무제(無諸)와 월나라 동해왕(東海王)³³⁷⁾ 요(搖)는 그 선조가 모두 월왕

- 336) 閩粵王: 閩의 음은 『集解』에 인용된 韋昭에 따르면, 무(武)와 건(巾)의 반절 즉 민이며, 東越이라고도 한다. 『索隱』 역시 『說文解字』를 인용하여 東越의 일파라고 하였다. 閩越를 東越이라 한 것은 閩越王 郢을 죽이고 자립한 餘善이 東越王을 칭한 데에서 기인한다. 閩越國은 현재의 福建省 북부와 浙江省 남부에 걸쳐 기원전 334~기원전 110년간 존속하였다. 閩越國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기원전 334년 越王 句踐의 7대손인 無疆이 楚威王과의 전투에서 저 멸망한 뒤 월나라 유민들이 남하하여 백월족 원주민과 섞여 살게 되었다. 越國의 왕족은 이때 배를 타고 閩으로 들어가 월나라 사람들은 越遷山(현재의 福建省 長樂縣)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월인은 신체가 왜소하고 얼굴 길이가 짧으며 수염이 적고 코가 넓적하고 동공이 크다는 신체적 특징과 물가에 살아서 水戰에 능하고 조선 기술이 뛰어난 점, ‘斷髮文身’의 습속 등 증원과는 풍속이 달랐다. 이 지역은 뱀이 많았기에 당시 뱀을 토템으로 한 부족들이 많았는데, 뱀은 고어 중에는 長虫이라고도 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閩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許慎의 『說文解字』에도 이 閩자를 “閩은 東南越이다. 뱀의 일종이다”라고 하였는데, 閩자를 풀이해 보면, 門은 음을 나타내고 虫은 뜻을 나타낸다. 이 뜻을 나타내는 ‘虫’은 許慎이 뱀의 일종이라고 풀이하게 된 유래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許慎이 글자의 형태로 풀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민속학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뱀의 일종이라기보다는 뱀을 토템을 하는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게 합리적이다. 후대 福建省을 가리키는 칭호로 ‘閩’을 사용하게 된 것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秦이 六國을 통일한 뒤 閩越이 있던 지역에 ‘閩中郡’을 설치하였고, 秦末에 守尉令長을 閩中에 파견하여 閩越王의 왕의 칭호를 ‘君長’으로 대체하였을 뿐 그 통치는 그대로 인정하는 등 직접 통제하에 두지는 않았다. 閩越의 역사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史記』 「東越列傳」에서 처음 보이며, 『한서양월열전』은 그대로 전제하고 있다. 『東越列傳』에 따르면, 기원전 209년 중원에서 陳勝, 吳廣의 난이 발발하자 閩越의 無諸는 병사들을 이끌고 북상하여 진 멸망에 일조하였으며, 기원전 206년 楚漢 전쟁시에는 劉邦을 도와 項羽를 쳐서 공을 세워, 그 공로로 기원전 202년 無諸는 閩越王에 책봉되었고, 이 일대에 閩越王城을 축성하였다. 최근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閩越王城은 48m²에 달하고 4개의 성문으로 이루어졌으며, 東西 성문 사이에는 10m에 달하는 大道가 배치되었으며, 대도 북쪽에는 2만m²에 달하는 궁전터가 있는데, 중심 건축물은 900여 m²에 달한다. 이처럼 당시 閩越國은 漢代 동남일대에서 최강의 국가로서 자리잡았다. 無諸 사후 대내외적 분쟁과 전쟁으로 혼란을 거듭하다가 閩越王 郢을 죽이고 그 동생 餘善이 ‘武帝’를 칭하는 등 漢에 반기를 들었다. 漢武帝는 즉각 네 갈래 길로 대군을 파견하여 閩越國을 포위함과 동시에 閩越國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여 閩越 繇王 등이 여선을 살해하고 한에 귀속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후 漢武帝는 閩越의 백성을 江淮 內地로 천사시키고 閩越 왕성을 불태웠는데, 최근 발견된 城村古城과 그 궁전터는 바로 그 흔적이다. 1996년 福建省考古工作隊에서 新店古城을 발굴하였는데, 발굴단은 이 新店古城이 『史記』와 『漢書』에 묘사된 閩越王城으로 추정하고 있다. 왕성유지 주변에서는 다양한 문양과 ‘萬歲’, ‘萬歲未央’ 등의 문자가 새겨진 와당 파편과 ‘閩’자로 추정되는 瓦當이 발견되었다. (許智范·肖明華, 『南方文化與百越演越文明』, 江蘇教育出版社, 2005, 167~169쪽).
- 337) 東海王: 東海는 『漢書』 「惠帝紀」의 “[三年]夏五月, 立閩越君搖爲東海王” 그 應劭注에 “……東海, 在吳郡 東南濱海云”이라고 하여 吳郡(後漢代 會稽郡을 나눠 설치, 현재의 江蘇省 동남일대) 東南 해안이라

구천(句踐)의 후예로서 성은 추씨(騶氏)³³⁸⁾이다. 진(秦)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이들을 폐하여 군장(君長)³³⁹⁾으로 삼고 그 땅에 민중군(閩中郡)³⁴⁰⁾을 설치하였다. 제후들이 진(秦)에 반기를 들자 무제(無諸)와 요(搖)는 월나라 백성을 이끌고 과양령(番陽令) 오예(吳芮)³⁴¹⁾에게

하였고, 顏師古는 泉州(현재의 福建省 福州)라고 하여, 그 위치가 다르다. 이 東海는 秦代에 설치된 東海郡과는 무관하다. 즉 秦代에 설치된 東海郡은 현재의 山東省 郟城縣 일대인데, 도움으로 삼은 東甌(현재의 福建省 溫州市)를 고려해보아도 顏師古가 말한 泉州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동해가 구체적으로 어느곳인지 顏師古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로 泉州는 唐 睿宗 景雲 2년(711)년 武榮州를 泉州로 개칭하고 閩州都督府에 귀속시키면서 이후 이 지역을 泉州라고 하였다고 한다

338) 騶氏: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騶는 ‘駱’으로도 되어 있다. 『索隱』도 徐廣설을 인용하여 위에서 말한 ‘歐駱’을 말하며 姓이 騶씨는 아니라고 하였다. 陳直도 『史記新證』에서 騶氏は 齊나라의 大姓으로 閩越에 이 성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와전된 듯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339) 君長: 고대 소수민족의 수장을 가리키는 칭호이다. 『史記』 「五帝本紀」에, “舜遂見東方君長”이라고 되어 있다. 後漢 袁康의 『越絕書』 「外傳記地傳」에도 “親以上至句踐, 凡八君, 都瑯琊二百二十四歲. 無疆以上, 霸, 稱王. 之侯以下微弱, 稱君長”이라고 하여 無疆 이전에는 王을 칭하다가 세력이 미약해져 君長을 칭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340) 閩中郡: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建安郡 侯(候)官縣(현재 福建省 福州市)이라고 하였다. 『索隱』도 徐廣의 설을 인용하는 한편, 閩州가 되었다고 한다. 또 아래 ‘東冶에 도움하다’는 구절로 韋昭 역시 侯官縣에 있다고 하였다. 『正義』는 閩州이며 다시 福州로 개명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또 顏師古는 “현재의 泉州 建安이 바로 이곳이다(即今之泉州建安是也)”라고 하였는데, 唐代 泉州 建安은 현재 廣西省 全州縣 西南 60리이다. 그런데 『漢書』 「地理志」에 실려 있는 秦의 36郡에는 閩中郡이 없는데, 이에 대해 王鳴盛은 閩中郡이 始皇帝 말년에 설치되었으나 無諸와 搖가 여전히 그 땅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가 秦에 복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후들을 따라 秦을 멸망시켜 36군에 들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考證』, 4668쪽). 閩中郡의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기왕에 많은 학자 사이에서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辛德勇은 王國維가 『史記』 「秦始皇本紀」에 “二十五年, 大興兵……王翦遂定荊江南地; 降越君, 置會稽郡”을 근거로 秦始皇25년에 설치되었다고 한 고증에 대해 의문을 제시, 降越君이 통치한 지역은 會稽이지 閩中이 아니므로, 적어도 秦始皇 25년에 설치된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辛德勇, 「秦始皇三十六郡新考(上)」, 『文史』, 2006년 1期).

341) 吳芮: 吳芮(?~전202)는 番邑(현재의 江西省 鄱陽縣) 사람이다. 일설에는 餘干縣이라고도 한다. 『東越列傳』에서 언급한 것처럼 秦代 鄱陽令으로 있으면서 민심을 얻어 鄱君으로 존중받은 인물이다. 秦末 百越族을 이끌고 기병하여 부장 梅緡과 사위 英布를 보내 사졸들을 훈련시키고 北上하여 項梁의 군대와 함께 秦을 쳤다. 함양을 공격할 때 吳芮는 入關의 공으로 衡山王에 책봉되었다. 楚漢 전쟁 때 吳芮는 劉邦을 도와 漢의 승리를 이끌었다. 漢高祖 4년에 長沙王에 봉해지고, 臨湘에 도움하였다. 高祖 5년에 황제의 명에 따라 군대를 이끌고 閩을 평정하러 가다 도중에 병사하고 만다. 시호를 文王이라 하였다. 漢初 劉邦이 봉한 8명의 異姓諸侯王 중 7명이 반란을 일으켜 모두 주멸되었으나 오직 吳氏만이 漢에

귀순하였다. 오에는 과군(番君)이라고까지 불렸던 자인데, 제후들을 따라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때 항우(項羽)³⁴²⁾가 제후들을 호령하였는데, 이들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자³⁴³⁾ 이 때문에 초(楚)를 따르지 않았다. 한이 항적(項籍)을 공격하자 무제와 요는 월나라 사람들을 이끌고 한을 도왔다. 한[고조] 5년(전202)에 다시 무제를 민월왕에 봉하니 민중(閩中)의 옛 땅을 통치하고 야(冶)³⁴⁴⁾에 도읍하였다. 효혜제(孝惠帝) 3년(전192)에는 고제(高帝) 때 월나라가 세운 공을 높이 추켜세워 ‘민군(閩君) 요(搖)의 공이 크다’고 칭찬하니, 그 백성들이 곧바로 한에 귀부하였다. 그리하여 요를 동해왕(東海王)에 봉하니 동구(東甌)³⁴⁵⁾에 도읍하여, 세간에서는 그를 일러 동구왕(東甌王)이라 하였다.

충성하여 5대를 거쳐 존속하다가 후사가 없어 폐국되고 만다. 吳芮 사후 그 자손 吳臣, 吳回, 吳右, 吳耆가 長沙王의 지위를 계승하였다.

342) 項羽: 『史記』에는 項籍으로 되어 있다. 西楚霸王(전232~전202)으로 잘 알려진 項羽는 이름이 籍이고 字가 羽이다. 下相(현재의 江蘇省 宿遷縣) 사람이다. 楚國의 名將인 項燕의 손자로, 楚 멸망 후 그 일족은 모두 살해되어 그의 숙부 項梁을 따라 吳中(현재의 江蘇省 蘇州)으로 피난하였다. 秦末 기의하여 제후들을 호령하고 西楚霸王을 자칭하며 천하를 호령하다가 한고조 유방의 연합군에게 패하여 烏江에서 최후를 마감하였다.

343) 『集解』에 인용된 『漢書音義』에 따르면, “제후들을 호령하며 無諸와 搖 등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344) 冶: 顏師古는 冶에 대해 “지명이다. 바로 후관현이다(地名, 卽侯官縣是也)”라고 하였다. 『史記』에는 東冶로 되어 있다. 현재의 福建省 福州市이다. 後漢 때에는 東冶縣을 설치하고 會稽郡에 소속시켰다. 『後漢書』 「鄭弘傳」의 “舊交阯七郡貢獻轉運, 皆從東冶汎海而至, 風波艱阻, 沈溺相係. 弘奏開零陵·桂陽嶠道, 於是夷通 至今遂爲常路”의 李賢注에 “東冶, 縣, 屬會稽郡. 太康地理志云漢武帝名爲東冶, 後改爲東侯官, 今泉州閩縣是”라고 하여 漢武帝 때 東冶라고 하였다가 東侯官으로 개칭하였고, 唐代에는 泉州 閩縣이었으며, 交阯와 통하는 주요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345) 東甌: 東甌는 戰國末에 현재의 浙江 東部 甌江 유역 일대에 살았던 越族과 그 거주지역을 일컫는 명칭이다. 당시 嶺南지역의 桂江과 潯江 일대에도 또 다른 越族이 살고 있어 이 월족과 구별하기 위해 東甌라 하였다. 그리하여 晉代 郭璞注 『山海經』에, “甌在閩海中, 鬱林郡爲西甌”라고 하였다. 漢初에 東甌왕이 東甌에 도읍하였고, 後漢 때 永寧縣을 설치, 隋代에 永嘉縣으로 개칭, 唐宋 이래 溫州에 해당한다. 地名의 유래에 대해서는 『索隱』에 인용된 姚氏에 따르면, 강 이름이며, 또 劉宋의 鄭緝之의 『永嘉記』에, “이 강은 永寧山에서 발원하며 30여 리를 흐르는데 郡城에서 5리 떨어진 곳에서 강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하였다. 또 옛날 동구왕의 도성이 있어 정이 있고 돌을 아 도로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그 길이 남아 있다(永嘉記: 水出永寧山, 行三十餘里, 去郡城五里入江, 昔有東甌王都城. 有亭, 積石爲道, 今猶在也.)”고 전하고 있다.

后數世，孝景三年，吳王濞反，欲從閩粵，閩粵未肯行，獨東甌從。及吳破，東甌受漢購，殺吳王丹徒，以故得不誅。

그 뒤 몇 대가 지나 효경제(孝景帝) 3년(전156)에 이르러 오왕(吳王) 비(濞)³⁴⁶⁾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오왕은 민월을 반란에 동참시키려 했으나³⁴⁷⁾ 민월은 이에 응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동구(東甌)만이 [오에] 동참했다.³⁴⁸⁾ 오가 격파될 즈음에 동구는 한의 뇌물을 받고 오왕을 단도(丹徒)³⁴⁹⁾에서 살해하였다. 이 때문에 동구는 주살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³⁵⁰⁾

吳王子駒亡走閩粵，怨東甌殺其父，常勸閩粵擊東甌。建元三年，閩粵發兵圍東甌，

346) 吳王 濞: 吳는 한초 同姓 제후에게 분봉한 나라 중 하나로 東陽, 彰郡, 會稽 등 3郡을 관할하였고 廣陵(현재의 江蘇省 揚州 西北)에 도읍하였다. 吳國의 彰郡은 銅 생산지였으며 해변가의 소금 생산으로 부강국이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천하의 유민을 초치하여 동과 소금 생산, 운반 등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文帝 때 吳太子가 입조하였을 때 태자와 함께 바둑 때문에 다투다가 태자 劉啓(후에 景帝)에게 피살되어 이 일로 인해 吳王 濞는 20여 년 동안 稱病하고 입조하지 않았다. 마침내 景帝 3년(전154) 廣陵(현재의 江蘇省 揚州)에서 기병하여 楚와 연합해서 淮水를 건너 서진하여 진격, 이에 景帝는 太尉 周亞夫 등 장군을 파견하여 吳楚 연합군을 공격, 진압에 진전이 없자 吳의 丞相을 지내던 爰盎의 건의에 따라 처음 반란의 빌미가 되었던 削藩令을 제안한 晁錯을 죽여 七國의 난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유리한 상황에 있었던 吳王 濞는 스스로 '東帝'를 자칭하며 황제의 명을 받들기를 거부, 전쟁은 계속되었다. 吳楚軍이 洛陽을 향해 진군하던 중 景帝의 동생인 劉武의 封國인 梁國에서 대치하게 되었는데, 이때 周亞夫가 이끄는 漢軍이 남하하여 吳軍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淮水 북쪽에서 漢軍에 유리한 평지에서 전투를 벌여 吳楚軍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 吳王 濞는 패하여 도주하여 長江 이남의 丹徒(현재의 江蘇省 鎮江)로 물러났다. 漢은 吳軍 중에 포함되어 있던 東越人을 시켜 吳에 반기를 들게 하였는데, 東越인들이 마침내 吳王 濞를 살해하였다. 楚王 劉戊도 자살하여 吳楚七國의 亂은 정월에 시작되어 3월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吳楚七國의 亂이 평정됨으로써 漢初 이래 문제가 되었던 제후왕들의 세력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漢武帝의 '推恩令'에 의해 '強幹弱枝'의 중앙집권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347) 顏師古는 “월을 끌어들이 따르게 하다(招粵令從也)”로 해석하였다.

348) 『史記』에는 從 다음에 吳 자가 있다.

349) 丹徒: 縣名으로 前漢代 會稽郡 속현이었으며, 현재의 江蘇省 鎮江市 동북쪽이다.

350) 『史記』에는 '歸國' 두 글자가 더 있다.

東甌使人告急天子。天子問太尉田蚡，蚡對曰：“粵人相攻擊，固其常，不足以煩中國往救也。”中大夫嚴助詰蚡，言當救。天子遣助發會稽郡兵浮海救之，語具在助傳。漢兵未至，閩粵引兵去，東粵請舉國徙中國，乃悉與衆處江淮之間。

오왕(吳王)의 아들 [자]구(子駒)³⁵¹⁾는 민월로 도망갔는데, 동구가 그 아버를 죽인 것을 원망하여 항상 민월에게 동구를 칠 것을 권하였다. [무제] 건원(建元) 3년(전138)에 마침내 민월이 군사를 일으켜 동구를 포위하자, 사자를 보내 천자에게 위급함을 알렸다.³⁵²⁾ 천자가 태위(太尉)³⁵³⁾ 전분(田蚡)³⁵⁴⁾에게 대책을 묻자, 전분은 대답하길,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것이 일상이니,³⁵⁵⁾ 중국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가서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³⁵⁶⁾”라고 하였다. 그러자 중대부(中大夫)³⁵⁷⁾ 엄조(嚴助)³⁵⁸⁾가 전분을 비난하면서 당연히 구원해야 한

351) 『史記』「東越列傳」과 「吳王濞列傳」에 모두 吳王子 子駒로 되어 있다.

352) 『史記』에는 “동구의 식량이 바닥나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東甌食盡, 困, 且降)”라는 구절이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353) 太尉: 前漢 초기에 설치한 군사의 최고 관직으로 황제를 대신하여 군사를 통솔하거나 황제의 군사고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군사 징발과 통솔 등 실제적 권한은 없었고 상설직이 아니었다. 한무제 때에는 문신으로 충당되었으며 승상 버금가는 지위에 해당하는 최고위 관직이다. 뒤에 폐지되었다가 後漢 초에 다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田蚡이 太尉에 임명된 것은 建元 元年(전140)이고 建元 2년(전139)에 趙綰과 王臧의 일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史記』「魏其武安侯列傳」, “及建元二年, 御史大夫趙綰請無奏事東宮. 竇太后大怒, 乃罷逐趙綰·王臧等, 而免丞相·太尉……魏其·武安由此以侯家居.”). 일설에는 建元 3년인 이때에 田蚡은 列侯의 신분으로 집에 기거하고 있었기에 이 기사를 의문시하고 있는데(『考證』에 인용된 『通鑑考異』와 梁玉繩의 설), 비록 관직에 있지 않아도 그의 발언은 여전히 황제에게 가납되었던 집에 비추어볼 때(“武安侯雖不任職, 以王太后故, 親幸, 數言事多效”) 기사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태위의 직책으로 전분을 설명한 것은 잘못 표기된 듯하다.

354) 田蚡: 田蚡(?~전131)은 長陵(현재의 陝西省 咸陽) 사람이다. 景帝의 황후 王姁의 동생이다. 魏其侯 竇嬰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田蚡은 郎官으로 竇嬰 가문과 친분을 맺었다. 孝景帝 말년에 太中大夫가 되었고 孝景帝 後元 3년에는 武安侯에 봉해졌다. 魏其侯 竇嬰과 함께 漢武帝 초 외척의 신분으로 전횡을 일삼다가 武帝에게 탄핵당할까 두려워하다 병사하였다.

355) 『史記』에는 이 뒤에 “또 자주 약속을 반복하기 일쑤여서(又數反覆)”가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356) 이 구절 뒤에도 『史記』에는 “그래서 진대부터 내버려두고 귀속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自秦時棄弗屬)”라는 구절이 있는데,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357) 中大夫: 『漢書』「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中令 소속으로 大夫는 의론을 담당하는데, 太中大夫, 中大夫,

다고 말했다.³⁵⁹⁾ 천자는 엄조를 보내 회계군(會稽郡) 병사를 징발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동구를 구원하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엄조전(嚴助傳)」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³⁶⁰⁾ 한의 군대가 미처 동구에 이르기도 전에 민월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버렸다. 동구는 온 나라를 바쳐 중국으로 옮겨 가 살 수 있도록 청하였다. 그리고는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장강(長江)과 회수(淮水) 사이에 거처하게 되었다.³⁶¹⁾

六年，閩粵擊南粵，南粵守天子約，不敢擅發兵，而以聞。上遣大行王恢出豫章，大司農韓安國出會稽，皆爲將軍。兵未險領，閩粵王郢發兵距險。其弟餘善與宗族謀曰：“王以擅發兵，不請，故天子兵來誅。漢兵衆強，卽幸勝之，後來益多，滅國乃止。今殺王以謝天子，天子罷兵，固國完。不聽乃力戰，不勝卽亡入海。”皆曰：“善。”卽縱

諫大夫가 있다. 皇帝의 자문에 응대하는 일과 황제의 명을 받들어 出使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이 중 中大夫는 武帝 太初 원년에 光祿大夫로 명칭을 바꾸면서 秩이 比이천석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므로 建元 3년(전138)인 이때에는 아직 秩祿 千石의 관직이다. 前漢代 조정의 법령과 정책은 모두 이들에 의해 만들어져 나온 경우가 많은데, 陸賈를 비롯하여 賈誼, 竈錯, 董仲舒 등 大夫를 역임한 자들이 적지 않다.

358) 嚴助: 嚴助(?~전122)는 字가 詳, 會稽郡 吳縣 사람이다. 郡의 賢良對策에 추거되어 武帝 때 中大夫에 발탁되었다. 建元년간에 會稽太守에 제수되었는데, 淮南王 劉晟과 사적으로 친분을 쌓았다가 劉晟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 일에 연루되어 피살되었다. 그의 사적은 『漢書』 「嚴助傳」에 입전되어 있는데, 莊助를 嚴助라고 하였다. 이는 後漢 明帝의 이름을 기휘한 것이다. 『漢書』 「藝文志」에는 嚴助가 지은 賦 3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359) 구체적인 내용이 『史記』에는 “다만 힘이 못 미쳐 구원할 수 없거나 덕이 못 미쳐 모두 감화시킬 수 없음을 걱정할 뿐이지, 능히 할 수 있는데 어찌 포기합니까? 또 진은 함양을 비롯하여 온 천하를 포기한 것이지 어찌 월만을 포기한 것이겠습니까?(特患力弗能救, 德弗能覆; 誠能, 何故棄之? 且秦舉咸陽而棄之, 何乃越也!)”라고 실려 있다.

360) 『史記』 「兩越列傳」과 『漢書』 「嚴助傳」에는 武帝가 嚴助에게 虎符가 아닌 節을 내려 회계군 병사를 징발토록 하였는데, 회계태수가 이에 저항하며 군사를 내려하지 않으려 하자 엄조는 사마 한 명의 목을 베면서 황제의 뜻을 알려(乃遣莊助以節發兵會稽. 會稽太守欲距不爲發兵, 助乃斬一司馬, 諭意指) 임무를 완성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361)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漢興以來諸侯王年表』에 東甌王 廣武侯 望이 그 무리 4만여 명을 이끌고 항복해 왔고 廬江郡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殺王，使使奉其頭致大行。大行曰：“所爲來者，誅王。王頭至，不戰而殞，利莫大焉。”乃以便宜案兵告大司農軍，而使使奉王頭馳報天子。詔罷兩將軍兵，曰：“郢等首惡，獨無諸孫繇君丑不與謀。”乃使郎中將立丑爲粵繇王，奉閩粵祭祀。

[건원] 6년(전135)에 민월(閩粵)이 남월(南粵)을 공격하였다. 남월은 천자와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지 않고 이 사실을 [한에] 알렸다. 천자는 대행(大行)³⁶² 왕희(王恢)³⁶³를 예장(豫章)³⁶⁴에서 출병하도록 하고 대사농(大司農)³⁶⁵ 한안국(韓安國)³⁶⁶을 회계(會稽)에서 출병하도록 하였는데, 모두 장군에 임명하였다. 군대가 미처 영을 넘지 못했을 때 민월왕(閩粵王) 영(郢)은 군사를 징발하고 험한 지세에 의지하여 저항하였다. 그러자 영의 동생인 여선(餘善)이 [민월의] 상(相) 및 종친들과 모의하길, “왕이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³⁶⁷ 천자에게 주청하지 않으니 천자의 군대가 징벌하러 오고 있소. 지금 한나라의

362) 大行: 『漢書』 「百官公卿表」에 의하면, “전객이며 진관이다. 귀의해 오는 만이를 담당한다. 승이 있다. 경제 중원 6년에 대행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무제 태초 원년에 다시 대홍려로 바꾸었다(典客, 秦官, 掌諸歸義蠻夷, 有丞. 景帝中六年更名大行令, 武帝太初元年更名大鴻臚).” 秩은 中二千石이며 丞의 秩은 千石이다. 제후왕과 열후 그리고 귀의한 이민족의 책봉, 조빙, 연회에서의 의례를 담당하였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오는 上計吏들의 접대도 담당하였다. 속관에는 行人令, 丞, 譯官令, 丞, 別火(獄官)令, 丞과 郡邸長丞이 있다.

363) 王恢: 燕나라 사람이며 武帝시기 흉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흉노가 화친을 청하자 韓安國과는 반대로 정벌을 주장하여 武帝시기 흉노 원정의 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제안한 馬邑 매복전이 실패로 끝난 뒤 그 追罪로 자살하고 말았다. 그와 韓安國과의 흉노 전쟁에 관한 논의는 『史記』 「韓長孺傳」에 상세히 실려 있다.

364) 豫章: 漢 高帝 초년(전 202)에 설치. 郡治는 南昌이었고 18개 縣을 관할하였다. 분포 지역은 贛江, 盱江, 信江, 修水, 袁水 연안이다.

365) 大司農: 『史記』 「景帝本紀」에 景帝 中元 6년(전145) “치속내사를 대농으로 고치다(治粟內史爲大農)”라고 하였는데, 정확한 명칭은 大農令이다. 『集解』에 인용된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치속내사는 진관으로 곡물과 재화를 담당(治粟內史, 秦官, 掌穀貨也)”한다고 하였으니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관직이다. 武帝 太初 원년(전104)에 大司農으로 개칭되었다. 『史記』에는 ‘大農’으로 되어 있는데, 太初 元年 이전이니 大農이라는 표현이 사실 정확하다.

366) 韓安國(?~전127): 梁縣 成安(현재의 汝州 小屯村 北쪽) 사람이다. 建元 초에 太尉 田蚡의 추천으로 北地都尉에 임명되었고 얼마 안 있어 大農, 즉 大司農으로 영전하였다. 뒤에 閩越의 원정 뒤에는 御史大夫가 되었으며, 이때 匈奴 원정을 둘러싸고 王恢와 갑론을박을 전개하였다.

군대는 수가 많고 강하오. 지금 운중아 이긴다 해도 뒤에 오는 군사는 더 많을 테니³⁶⁸⁾ 나라가 망해야 끝날 것이오. 지금 왕을 죽여 천자에게 사죄합시다. 천자가 이를 받아들여 군사를 물리면 온전히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을 다해 싸웁시다. 이기지 못하면 도망하여 바다로 나갑시다”라고 하였다. 모두들, “좋습니다”라고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왕을 쳐서 죽이고[縱殺³⁶⁹⁾] 그 머리를 사신에게 들려보내 대행(大行)에게 바치도록 하였다. 대행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왕을 벌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왕의 머리가 내 앞에 있으니 이는 싸우지 않고도 적을 제거한 것이다[不戰而殞].³⁷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임의로 군대를 멈추고 대사농(大司農)의 군대에게 연락을 취하는 한편 사신에게 왕의 머리를 가지고 말을 달려 천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두 장군의 군대를 해산하도록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영(郢) 등이 원흉이지, 저 무제(無諸)의 손자인 요군(繇君) 축(丑)³⁷¹⁾은 홀로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낭중장(郎中將)³⁷²⁾을 보내 축을 세워 월요왕(粵繇王)으로 삼고 민월(閩粵)의 선조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餘善以殺郢，威行國中，民多屬，竊自立爲王，繇王不能制。上聞之，爲餘善不足復興師，曰：“餘善首誅郢，師得不勞。”因立餘善爲東粵王，與繇王並處。

여선(餘善)은 영(郢)을 살해하고 나서 그 나라에 위엄을 떨쳐 나라 백성들이 모두 그를

367) 『史記』에는 뒤에 “남월을 공격하다(擊南越)”라는 구절이 더 있으나 『漢書』에는 생략되었다.

368) 顏師古는 이 구절을 “한국의 땅은 광대하고 군사는 막강하면서도 많아 지금 당장 그들을 이긴다 해도 뒤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言漢地廣大，兵衆盛強，今雖勝之，後必更來也)”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를 따라 번역하였다.

369) 縱殺: 顏師古는 “縱의 음은 초와 강의 반절(縱音初江反)” 즉 창이라 하였다. 『索隱』에 인용된 劉氏에 따르면, 그 뜻은 치다[撞]는 의미이다.

370) 『史記』에는 ‘不戰而耘’이라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풀을 베어 없애다’는 뜻으로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371) 繇君 丑: 『索隱』에 따르면, 繇의 음은 요(搖)이고 음명이며, 丑은 사람 이름이다.

372) 郎中將: 郎中을 총괄하는 관이다. 궁중의 문을 수비하는 직책으로 郎中丞 소속이다. 일의 계통에 따라 車將, 戶將, 騎將으로 불리기도 한다. 秩은 比千石이다.

따르자 몰래 자립하여 왕이 되었다. 요왕(繇王)은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³⁷³⁾ 천자가 이 소식을 들었지만 여선 때문에 다시 군사를 일으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여선은 제일 먼저 영(郢)을 베었으니 군사를 일으켜 수고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선을 세워 동월왕으로 삼고 요왕과 함께 나란히 거처하게 하였다.

至元鼎五年，南粵反，餘善上書請以卒八(十) [千] 從樓船擊呂嘉等。兵至揭陽，以海風波爲解，不行，持兩端，陰使南粵。及漢破番禺，樓船將軍僕上書願請引兵擊東粵。上以士卒勞倦，不許。罷兵，令諸校留屯豫章梅嶺待命。

원정(元鼎) 5년(전112)에 남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여선³⁷⁴⁾이 상서하여 병졸 8천 명을 이끌고 누선장군(樓船將軍)을 따라 여가(呂嘉) 등을 치겠노라고 청하였다. 군대가 계양(揭陽)³⁷⁵⁾에 이르자 바다에 파도가 심하다는 핑계로 더 나아가지 않은 채 두 마음을 품고 은밀히 남월과 내통하고 있었다.³⁷⁶⁾ 한(漢)이 번우(番禺)를 격파하게 되자 누선장군(樓船將軍) 양복(楊僕)³⁷⁷⁾은 상서하여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동월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천자는 사졸들이 지쳐 있다고 하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대를 멈추게 하고 모든 교위들에게 예장군(豫章郡) 매령(梅嶺)³⁷⁸⁾에 주둔하여 명을 기다리도록 하였다[待命].³⁷⁹⁾

373) 『史記』에는 “그 백성을 바로잡아 정통을 유지할 수 없었다(繇王不能矯其衆持正)”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74) 앞에 ‘東粵王’이라는 칭호가 생략되어 있다.

375) 揭陽: 秦代 설치되었으며 南海郡 속현이다. 治所는 현재의 廣東省 揭陽市 西北이다. 揭陽嶺 남쪽에 있어 揭陽이라 이름하였다.

376) 顏師古는 이 구절을 “사자를 보내 서로 (정보를) 알리다(遣使與相知)”라고 해석하였다.

377) 樓船將軍 楊僕: 그의 사적에 대해서는, 『史記』 「酷吏列傳」에 “楊僕은 宜陽 사람이다. 千夫로 관리가 되었다. 河南郡守 案의 추천으로 御史가 되었고 關東의 도적을 감찰하였다. 尹齊를 모방하여 다스렸다. 벼슬이 主爵都尉에까지 이르러 九卿의 반열에 들어섰다. 천자가 능력이 있다고 여겨 南越이 반란을 일으키자 樓船將軍에 제수하였고 공을 세워 將梁侯에 봉하였다. 荀彘에게 잡혔다가 병사하고 말았다”고 전한다.

378) 梅嶺: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梅嶺은 會稽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索隱』은 徐廣의 이 설이 틀렸다고 하며 豫章 30리에 梅嶺이 있으며, 洪崖山 기슭에 있으며 옛날 驛道에 해당한다고

明年秋，餘善聞樓船請誅之，漢兵留境，且往，乃遂發兵距漢道，號將軍驕力等爲‘吞漢將軍’，入白沙·武林·梅嶺，殺漢三校尉。是時，漢使大司農張成·故山州侯齒將屯，不敢擊，卻就便處，皆坐畏懦誅。餘善刻‘武帝’璽自立，詐其民，爲妄言。上遣橫海將軍韓說出句章，浮海從東方往；樓船將軍僕出武林，中尉王溫舒出梅嶺，粵侯爲戈船·下瀨將軍出如邪·白沙，元封元年冬，咸入東粵。東粵素發兵距嶮，使徇北將軍守武林，敗樓船軍數校尉，殺長史。樓船軍卒錢唐棖終古斬徇北將軍，爲語兒侯。自兵未往。

다음 해(원정 6년, 전111) 가을, 여선(餘善)은 누선장군이 [동월을] 치게 해 달라고 청하였으며 한나라 군대가 국경에 주둔하여 앞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자,³⁸⁰⁾ 마침내 반기를 들고 군사를 징발하여 한나라와 통하는 길을 막아섰다. 장군 추력(驕力) 등을 ‘탄한장군(吞漢將軍)’³⁸¹⁾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백사(白沙),³⁸²⁾ 무림(武林),³⁸³⁾ 매령(梅嶺)으로 들어가 한의 교위(校尉) 세 명을 죽였다. 이때 한나라에서는 대사농 장성(張成)³⁸⁴⁾과 이전 산주

하였다. 『正義』는 『括地志』를 인용하여 梅嶺은 虔化縣 동북 128리에 있으며, 虔州는 漢代에도 豫章郡 소속이었으나 두 곳 모두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의 江西省 寧都縣 동북에 있다.

379) 待命: 顏師古는 “황제의 명을 받들다(聽詔命也)”로 해석하였다.

380) 顏師古는 이 구절을 “군대가 국경 머리말에 와 있으니 내려와 칠 것을 두려워함을 말한다(言兵在境首, 恐將來討之)”고 해석하였다.

381) 吞漢將軍: ‘한나라를 삼킬 장군’이라는 뜻이다. 漢의 ‘樓船將軍’이나 ‘橫海將軍’ 등과 같이 상설직이 아닌 당시 부여받은 임무에 따른 명칭이다.

382) 白沙: 현재의 江西省 波陽縣 서쪽이다. 『太平寰宇記』 권107 饒州 鄱陽縣에 “白沙在府西. 水路百二十里, 沙白如雪. 因以爲名”이라 하여 모래가 눈처럼 희어서 地名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383) 武林: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武林은 豫章의 경계에 있다. 『索隱』은 또한 豫章 북쪽 200리는 鄱陽의 경계에 접해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이 白沙이며, 작은 물줄기가 호수로 흘러들어가 이름을 白沙沔이라 한다. 그 동남쪽 80리에 武陽亭이 있고 亭의 동남쪽 30리의 땅 이름이 武林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白沙와 武林은 모두 閩越에서 京道로 들어가는 통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武林은 현재의 江西省 餘干縣 동북 30리 武陵山에 있다.

384) 大司農 張成: 『漢書』 「百官公卿表」에는 大農令으로, 『史記』 「東越傳」에는 大農으로 되어 있다. 張成은 人名인데, 상세한 이력은 없다.

후(山州侯) 치(齒)³⁸⁵를 장수로 삼아 주둔케 하였는데, 이들은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도리어 안전한 곳으로 후퇴하였기에, 모두 적을 겁내는 나약한 죄로 처형되었다. 여선은 ‘무제(武帝)’ 새를 새겨 자립하여 그 백성을 속이고 망언(妄言)³⁸⁶을 일삼았다. 주상은 횡해장군(橫海將軍) 한열(韓說)³⁸⁷을 보내 구장(句章)³⁸⁸에서 출격하도록 하였는데, 바다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게 하였다. 누선장군 양복은 무림에서 출격하였고, 중위(中尉)³⁸⁹ 왕온서(王溫舒)³⁹⁰는 매령에서 출격하였으며,³⁹¹ 월후(粵侯)는 과선장군과 하뢰장군이 되어 여사(如邪)³⁹²와 백사(白沙)³⁹³에서 출격하였다. 원봉(元封) 원년 겨울(전110), 모두 동월로 들어갔다. 동월은 평소

385) 故山州侯 齒: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齒는 城陽 共王 劉喜의 아들이다. 武帝 元朔 4년(전125) 山州侯에 봉해졌으나 元鼎 5년에 酎金律에 걸려 삭탈되었기에 ‘이전 산주후’라고 했던 것이다.

386) 妄言: 顏師古는 “망령되이 스스로를 크게 높임(妄自尊大也)”이라고 해석하였다.

387) 橫海將軍 韓說: 顏師古의 해석을 따라 한열이라 하였다(說讀曰悅). 『史記』「衛將軍驃騎列傳」에 “將軍 韓說은 弓高侯의 庶孫이다. 교위로 대장군을 따라 공을 세워 용액후가 되었다. 주금률에 걸려 봉후를 잃었다. 원정 6년에 대조로 횡해장군이 되어 동월을 쳐 공을 세워 안도후가 되었다. 태초 3년에 유격장군이 되어 오원 밖에 열성에 주둔하였다. 광록훈이 되어 태자궁에서 고를 파내 위태자가 살해하였다(將軍 韓說, 弓高侯庶孫也. 以校尉從大將軍有功, 爲龍額侯, 坐酎金失侯. 元鼎六年, 以待詔爲橫海將軍, 擊東越有功, 爲按道侯. 以太初三年爲游擊將軍, 屯於五原外列城. 爲光祿勳, 掘蟲太子宮, 衛太子殺之)”고 전한다.

388) 句章: 『索隱』에 인용된 鄭氏에 따르면 句章의 句는 음이 구(句)이며 會稽의 縣이다. 『正義』에 따르면 句章故城은 越州 鄞縣 서쪽 100리에 있으며 漢의 縣이다. 현재의 浙江省 餘姚市 동남쪽 50리에 있다.

389) 中尉: 수도의 治安을 담당하고 국가의 武庫를 관리하는 관직이다. 병졸을 이끌고 경성을 지키나 때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기도 한다. 九卿 중의 하나이며 秩은 中二千石이다. 후에 執金吾로 개칭되었다.

390) 王溫舒: 漢武帝기 대표적인 酷吏이다. 陽陵(현재의 陝西省 高陵縣) 사람이며 관리가 되어서 治獄으로 廷史가 되었고, 張湯을 섬겨 御史로 승진하였다. 당시 도적을 감독하였는데, 매우 혹독하여 살상이 많았으며 廣平都尉로 승진한 뒤에는 廣平일대가 道不拾遺하여 천자가 이 소식을 듣고 河內太守에 임명하였다. 얼마 안 있어 다시 中尉로 승진을 거듭한다. 東越 원정에서 돌아와 비리가 적발되어 잠깐 좌천되었다가 中尉 소속 병졸을 돌려 通天臺 축성에 이용한 공로로 少府에 임명되고 다시 右內史까지 승진한다. 뒤에 그가 저지른 비리가 적발되어 三族에 처해져 자살하였다(『史記』「酷吏列傳」).

391) 「將相表」와 『漢書』「武帝本紀」에는 韓說과 王溫舒는 會稽에서 출격하고 楊僕은 豫章에서 출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92) 如邪: 『史記』에는 若邪로 되어 있다. 현재의 浙江省 紹興 이남이다. 『正義』에 따르면 越州에 若耶山과 若耶溪가 있다. ‘若’은 ‘如’와 같은 의미이다. 이처럼 『正義』는 若邪를 越州에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沈欽韓은 越州라면 너무 멀다고 생각하여 『輿地廣記』를 인용하여 新昌縣 서쪽에 鹽溪가 있어 일명 若耶溪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若邪라고 보았다(『考證』, 4674쪽).

393) 白沙: 현재의 江西省 鄱陽縣 서쪽에 있다. 『正義』는 豫州에 白沙山이 있고 백사 동쪽이 이전의 閩州라고

대로 군대를 일으켜 험한 곳에 의지하여 순북장군(徇北將軍)³⁹⁴에게 무림(武林)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누선장군의 몇몇 교위를 괴멸시키고 그 장사(長史)³⁹⁵를 죽였다. 누선장군은 전당(錢唐)³⁹⁶의 원종고(稯終古)³⁹⁷을 이끌고 순북장군을 베니, [원종고를] 어아후(語兒侯)³⁹⁸에 봉하였다. [누선장군이 거느린 한나라] 군대가 미처 도착하기도 전의 일이었다.

故粵衍侯吳陽前在漢，漢使歸諭餘善，不聽。及橫海軍至，陽以其邑七百人反，攻粵軍於漢陽。及故粵建成侯敖與繇王居股謀，俱殺餘善，以其衆降橫海軍。封居股爲東成侯，萬戶；封敖爲開陵侯；封陽爲卯石侯，橫海將軍說爲按道侯，橫海校尉福爲繚嫫侯。福者，城陽王子，故爲海常侯，坐法失爵，從軍亡功，以宗室故侯。及東粵將多軍，漢兵至，棄軍降，封爲無錫侯。故甌駱將左黃同斬西于王，封爲下邳侯。

이전 월연후(粵衍侯)³⁹⁹ 오양(吳陽)은 전에 한나라에 머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조정에서는 그를 보내 여선을 회유하였으나 여선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다가 횡해장군이 당도하자 월연후 오양은 자신의 읍인(邑人) 700여 명과 함께 여선에게 반기를 들고 한양(漢陽)⁴⁰⁰에서 월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이전 월의 건성후(建成侯) 오(敖)⁴⁰¹와 요왕(繇王) 거고(居股)가

하였다.

394) 徇北將軍: 순북은 ‘徇(徇)北方’, 즉 북방[漢]의 죄를 돌아다니며 대중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이다.

395) 長史: 『史記』에는 長吏로 되어 있다.

396) 錢唐: 縣名. 顏師古는 “회계현(錢唐, 會稽縣也)”이라 하였다. 治所가 현재의 浙江省 杭州市 서남쪽에 있다.

397) 稯終古: 『史記』에는 稯이 轅으로 되어 있다. 『正義』에 따르면 轅은 姓이고 終古가 이름이다.

398) 語兒侯: 『史記』에는 禦로 되어 있다. 『漢書音義』에 따르면, 禦兒는 吳南亭이다. 『正義』는 ‘禦’자가 당시에는 ‘語’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語兒鄉은 蘇州 嘉興縣 남쪽 70리에 있는데, 官이 설치한 도로에 임해 있다고 한다.

399) 粵衍侯: 東越에서 봉한 衍侯이겠지만 편의상 粵衍侯라 번역하였다.

400) 漢陽: 秦이 천하를 통일한 뒤 貴州 일대에 黔中郡을 설치하였고 아울러 西南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는데, 清代 考證學者에 따르면 이때 설치된 縣은 剌成(현재의 黎平), 毋劍(현재의 獨山), 且蘭(현재의 福泉), 夜郎(현재 石阡), 漢陽(현재 赫章) 등이었다고 한다.

401) 建成侯 敖: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따르면, 建成侯 敖 역시 東越의 신하이다.

모의하여 함께 여선을 죽이고, 그 무리를 이끌고 횡해군(橫海軍)⁴⁰²에 항복하였다. 거고(居股)는 동성후(東成侯)⁴⁰³로 식읍 만호에 봉해졌으며, 오(敖)는 개릉후(開陵侯)⁴⁰⁴에, 오양(吳陽)은 묘석후(卯石侯)⁴⁰⁵에, 횡해장군(橫海將軍) 한열(韓說)은 안도후(按道侯)⁴⁰⁶에, 횡해교위(橫海校尉) 유복(劉福)은 요영후(繚嬰侯)⁴⁰⁷에 봉해졌다. 복은 성양왕(城陽王)⁴⁰⁸의 아들인데, 이전에 해상후(海常侯)⁴⁰⁹였다가 위법하여 후작을 잃었다. 종군하여 공을 세우지 못했으나 종실인 까닭에 후가 되었다. 그리고 동월의 장수인 다군(多軍)⁴¹⁰은 한나라 군대가 도착하자 자신의 군대를 버리고 항복해서 무석후(無錫侯)⁴¹¹에 봉해졌다. 이전 구락(甌駱)의 장수 좌황동(左黃同)⁴¹²은 서우왕(西于王)⁴¹³을 침하여 하부후(下邳侯)⁴¹⁴에 봉해졌다.⁴¹⁵

402) 橫海軍: 『史記』에는 橫海將軍으로 되어 있다.

403) 東成侯: 『索隱』에 인용된 韋昭에 따르면, 東成은 九江에 있다고 했는데, 東城이라고도 하며, 縣名으로 그 治所는 현재의 安徽省 定遠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404) 開陵侯: 『索隱』에 인용된 韋昭에 따르면, 開陵은 臨淮郡 소속이다. 현재의 江蘇省 長江 이북 또는 이웃한 安徽省 경내로 추정된다. 新 王莽 때 폐국되었다. 開陵侯에 대해 顏師古는 “功臣年表에 開陵侯 建成이라 하였고, 이전 東粵 建成侯가 餘善侯를 침하여 二千戶의 식읍을 받다고 하였는데, 이 열전에는 이름이 敖로 되어 있다. 아마도 표가 잘못된 것 같다(功臣表云開陵侯建成以故東粵建成侯斬餘善侯, 二千戶. 而此傳云名敖, 疑表誤)”고 하였다.

405) 卯石侯: 顏師古는 “功臣年表에는 外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 아마도 표가 잘못된 것 같다(功臣表作外石, 與此不同, 疑表誤)”고 하였다. 『史記』에는 北石으로 되어 있다.

406) 按道侯: 『史記』에는 案道侯로 되어 있다. 『漢書』 「高惠高后文功臣表」注에는 ‘齊’에 있다고 하였고 『史記志疑』에 案道는 號로 대개 『周書』 「小明武解」에 “案道攻巷, 無襲門戶”에서 취한 것으로, 그 지역은 상고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史記新注』 第3冊 「佞幸列傳」 ‘案道侯韓說’ 주 참조).

407) 繚嬰侯: 『索隱』에 인용된 服虔에 따르면, 嬰의 음은 영(榮)이고 縣의 이름이다.

408) 城陽王: 『史記』에는 成陽共王으로 되어 있다. 제2대 城陽王 劉喜이다. 文帝 4년(전176) 城陽王에 즉위, 재위 33년, 中元 6년(전144)에 사망, 시호는 共王. 사서에는 城陽共王이라 칭한다.

409) 海常侯: 海常은 일설에 東萊郡(治所는 현재의 山東省 掖縣)이라고도 하고 琅瑯郡(治所는 현재의 山東省 諸城縣)이라고도 한다(『漢書』 「王者侯年表」).

410) 多軍: 『集解』에 인용된 『漢書音義』에 따르면, 多軍은 이름이라 하였는데, 『索隱』에 인용된 李奇 역시 이름이라 하였다. 다만 韋昭는 多是 성이고, 軍이 이름이라고 하였다.

411) 無錫侯: 無錫은 현재의 江蘇省 無錫市이다.

412) 左黃同: 『漢書』 「功臣表」에는 “左將黃同”으로 되어 있고 『史記』 「建元以來侯者年表」에는 “左將軍黃同”으로 되어 있어, ‘左將’의 잘못으로 보인다(『漢書新注』注).

413) 西于王: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西越王이다. 箋文에는 于가 亏 혹은 雱로 표기되는데,

於是天子曰：“東粵陜多阻，閩粵悍，數反覆”，詔軍吏皆將其民徙處江淮之間，東粵地遂虛。

이에 천자는 “동월(東粵)은 땅이 좁고 험하며 민월(閩粵) 사람들은 사납고 여러 번 배반하였다”고 하여 군리(軍吏)들에게 명하여 그 백성을 옮겨 장강(長江)과 회수(淮水) 사이에 살도록 하였다. 이에 동월(東粵)⁴¹⁶⁾의 땅은 텅 비게 되었다.

- 이하 朝鮮에 관한 기록과 논찬은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註』 1, 신서원, 2004(1990 초판)에 역주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

『漢書』는 古字를 대부분 사용하여 모두 隸書로 표기, 隸書와 楷書로는 粵로 표기하였다. 3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交阯外域記』에 安陽王이 甌駱지역을 정복한 뒤 交阯의 西于縣에 도읍을 세웠는데, 이 西于縣은 西于王의 옛 왕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西于王은 安陽王에게 쫓겨나 북쪽 桂林의 甌駱지역으로 옮겨 살다가 武帝의 남월 정복 때 甌駱의 장수 左黃同에게 살해되었다(徐仲舒, 『交阯外域記蜀王子安陽王史適箋證』, 『四川大學學報』 叢刊第5輯, 2004-5). 둘째, 西甌王이다. 조타는 남월국을 세운 뒤 진대 설치된 상군에 교지와 구진군을 설치하고, 또 교지를 나눠 ‘西于王’에 분봉, 西于는 곧 西甌라고 한다(黃森章, 『南越國』, 廣東人民出版社, 2004).

414) 下鄜侯: 顏師古는 “鄜의 음은 부(郢)”라고 하였다. 이 下鄜의 鄜가 上古에는 甌駱의 甌와 함께 모두 ‘侯’로 발음되고, 梗語 중에 ‘KAO(谷)’와 동음이라고 하여 같은 의미로 보는 설이 있다(林河, 『一個被中國歷史遺忘了的偉大民族: 論中國“梗民”(荊蠻)在中華民族史上的重要地位』, 『長江文化論叢』 第1輯, 2007-5). 만약 이 설이 타당성이 있다면, 의미는 ‘甌를 정복시킨 侯’가 되어 문맥상 어긋나지 않는다.

415) 이 구절은 『史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416) 『考證』에 인용된 中井積德에 따르면, 閩粵과 함께 언급될 때 東粵은 東甌의 땅일 뿐이다. 이전에 이미 東甌가 漢나라 內地로 遷徙하여 그 땅은 閩粵의 영향권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東甌라 할 수 없기에 粵의 동쪽 변방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말한 東粵은 閩粵에 소속된 東甌의 옛 땅을 포함한 것으로 南越에 상대해서 말한 것이다(『考證』, 4676쪽).

| 참고문헌 |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註』 1, 신서원 복간, 2004
- 이영무 옮김, 『史記列傳』 상·중·하, 범우사, 2003
-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 十三經,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許嘉璐主編, 『二十四史全譯: 漢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瀧川龜太郎, 『史記會注考證』, 臺北: 宏業書局, 1974(再版)
- 김한규, 『古代中國の世界秩序研究』(1982), 一潮閣, 1992
- 劉煒, 김양수 옮김, 『황제의 나라: 秦漢시대』, 시공사, 2004
- 董楚平, 『吳越文化新探』,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8
- 福建省博物館編, 『閩越考古研究』,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1993
- 余天熾 等, 『古南越國史』, 桂林: 廣西人民出版社, 1988
- 中國百越民族史研究會 編, 『百越民族研究』,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0
- 陳國強 等, 『百越民族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 何光岳, 『百越原流史』,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2
- 許智范·肖明華, 『南方文化與百越滇越文明』,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5
- 黃淼章, 『南越國』,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4
- 小林聰, 「漢時代における中国周辺民族の内属について」, 『東方学』 82, 1991
- 齊藤實, 「前漢武帝の對外政策 - 兩越·西南夷·朝鮮の郡県化と泰山封禪」, 『日本大学芸術学部紀要』, 1988
-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大辭典: 歷史地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7
- 譚其驥 編, 『中國歷史地圖集(秦·西漢·東漢時期)』第2冊, 北京: 地圖出版社, 1982
- 史爲樂,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서역전(西域傳)



「서역전(西域傳)」 해제

『한서(漢書)』 「서역전(西域傳)」은 ‘서역(西域)’에 대한 지리적 개념부터 정의하고 시작한 다. 즉 “흉노(匈奴)의 서쪽, 오손(烏孫)의 남쪽” 그리고 “남북으로 큰 산(山)이 있고, 중앙에 강(江)이 있으며, 동서로 6천여 리이며 南北이 천여 리”, 그 안에는 “본시 36국(國)”이 있었으나 “그 뒤에 차츰 나뉘어져 50여 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협의의 서역’을 말하는 것이다. ‘광의의 서역’은 파미르 이서(以西)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며 「서역전」에는 이 후자에 속하는 여러 곳들에 대한 서술도 포함되어 있다. 지리적 정의의 뒤를 이어 서역과 한(漢)과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약사(略史)가 소개된 뒤 비로소 서역 각국(各國)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열거되고 있다. 물론 「서역전」에서 ‘國’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곳들이 모두 오늘날의 국가에 비견될 만한 것은 아니고, 큰 도시에서부터 소규모 읍락(邑落)까지 포괄하기도 하고 유목민의 경우에는 부족(部族)들을 그런 명칭으로 포괄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서역전」에 등재된 ‘國’들의 숫자는 모두 53개에 이르는데, 이는 모두(冒頭)에서 ‘50여 개’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53개국의 배열에는 일정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처음에 약강(若羌)부터 시작이 되는데 “양관(陽關)을 나서서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면 약강이 있다”는 기록이 말해 주듯이, 중국의 서쪽 관문(關門)인 양관·옥문관(玉門關)과 가장 근접한 곳부터 서술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차례로 서진(西進)하면서 서술이 이어지는데, 그 노선은 타림분지의 남쪽을 경유하는 소위 ‘서역남도(西域南道)’이며, 그 연변에 위치한 도시들에 대한 설명이 차례로 나온다. 파미르 산중의 포리(蒲犁)·무뇌(無雷)를 거쳐 현재 아프간과 서아시아에 있는 계빈(罽賓)·오익산리(烏弋山離)·안식(安息)에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돌

아서 동진(東進)하게 된다. 그래서 대월씨(大月氏)에서 강거(康居)·대원(大宛)을 지나 다시 파미르를 넘어서 이번에는 ‘서역복도’를 따라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오늘날 투르판 부근에 해당되는 거사전후국(車師前後國)을 끝으로 종료되는 것이다.

서역 각국에 대한 세부(細部) 소개 역시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① 명칭(名稱), ② 거리(距離), ③ 인구(人口), ④ 관직(官職), ⑤ 물산(物產) 등이 차례로 기술되어 있다. 명칭(名稱)에는 국명과 도읍명(都邑名)이 기록되고, 거리에는 (a) 장안(長安)으로부터의 거리, (b) 도호(都護)로부터의 거리, (c) 인국(隣國)와의 상거(相距), 이 세 가지 가운데 전부 혹은 일부가 기록되었다. 인구에는 (a) 호수(戶數), (b) 구수(口數), (c) 병수(兵數)가 기록되었고, 관직(官職)에는 현지식(現地式)은 물론 중국식(中國式) 관명(官名)과 명수(名數)가 표기되었으며, 물산(物產)에는 농경과 목축(牧畜) 및 직물·광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거리와 인구는 마지막 단위의 숫자까지 기재되어 있어 그것이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의 결과임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사기』의 「대원열전」이 대원(大宛)에 대해 “대원은 흉노의 서남쪽에 있고 한나라의 정서(正西)에 있는데, 한나라에서 대략 만리(萬里)는 됩니다. …… 백성의 숫자는 대략 수십만 명이 됩니다.” 라고 막연히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의 내원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오늘날 쿠차(Kucha, 庫車) 부근 윤대현(輪臺縣) 경내의 오진성(烏壘城)에 두어진 서역도호(西域都護) 이외의 다른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 까닭은 만약 도호(都護)의 막료가 추진한 조사의 결과가 아니라면 도호의 거소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일일이 기록해 놓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역도호가 처음 설치된 것은 신작(神爵) 3년(전59)의 일이었다. 즉 그해에 흉노의 내란이 일어나 그 결과 일축왕(日逐王)이 한(漢)에 투항해 오자 흉노의 서역지배가 일거에 무너지게 되었고 한이 이를 이용하여 서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역도호를 오루성(烏壘城)에 설치한 것이었다. 정길(鄭吉)이 처음 도호로 부임한 이후 기원후 23년 이종(李崇)에 이르기까지 약 80년에 걸쳐 두어진 서역도호는 전한의 서역경영과 흉노견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 서역각국의 인구·병력·물산은 물론, 오루성(烏壘城)까지의 거리를 파악한 것도 바로 이러한 서역지배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우리가 이같은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즉 서역도호의 관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50여 개국과의 거리를 조사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실측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짐사(Jimsa, 吉木薩爾)에 위치해 있던 거사후국(車師後國)에서 오루성까지의 거리가 투르판에 있던 거사전국(車師前國)과 오루성까지의 거리보다 실제로 더 멀지만 「서역전」에는 더 가까운 것으로 기록되는 등의 ‘모순’이 발견된다. 『한서』 「서역전」에 기록된 도리수(道里數)에 대한 기왕의 연구(松田壽男 1970; 長澤和俊 1991; 陳世良 1990a & 1990b)들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조사방식의 특수성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오루성을 출발한 측량대(測量隊)는 3조로 나뉘어, 1조는 선선(鄯善)과 차말(且末)을 거쳐 남도(南道)를 따라갔고, 2조는 고묵(姑墨)과 소륙(疏勒)과 사차(莎車)를 거쳐 북도(北道)로 갔으며, 3조는 고묵에서 우전(于闐)으로 빠져나가 거기서 피산(皮山)·우미(于彌)·정절(精絕) 등에 도달한 것이다. 각조(各組)는 마행(馬行) 1일을 100리(= 약 40km)로 계산하여 일수(日數)를 리수(里數)로 환산하여 합산하였다. 따라서 3개조의 조사결과가 ‘조합’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그러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서』 「서역전」은 『사기』 「대완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차이 자체가 주변 세계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지리 지식의 확대와 심화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타림분지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서역’에 대한 상세한 묘사야 두말 할 것도 없지만, 파미르를 넘어서 계빈(鬲賓)·오과산리(烏弋山離)·안식(安息)·대월지(大月氏)·강거(康居)·엄채(奄蔡) 등에 관해서도 귀중한 정보를 남기고 있다. 이 역시 사마천(司馬遷)의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단순한 ‘전문(傳聞)’이 아니라 ‘대두통(大頭痛)·소두통(小頭痛)의 산지(山地)’, ‘적토(赤土)와 신열(身熱)의 비탈’을 넘어 실제로 그런 곳들을 방문했던 결과였던 것이다.

물론 『한서』 「서역전」은 단순히 주변 세계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의 발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과 흉노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막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서역의 통제를 위하여 한 조정의 현지 진출과 경영의 결과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근대 서구 제국이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 치밀한 현지조사를 수행했던 것과도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 서역에 대한 전한(前漢)의 ‘식민지배(植民支配)’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서역전」의 배후에 담긴 이러한 정치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서아시아나 인도의 어느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국 주변의 고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더할 나위없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서』 「서역전」은 고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대해서 당시 중국인들이 갖고 있던 지식이 총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역주: 김호동
- 교열: 김유철

「서역전(西域傳)」 역주

西域以孝武時始通，本三十六國，其後稍分至五十餘，皆在匈奴之西，烏孫之南。南北有大山，中央有河，東西六千餘里，南北千餘里。東則接漢，阨以玉門·陽關，西則限以葱嶺。其南山，東出金城，與漢南山屬焉。其河有兩：一出葱嶺山，一出于闐。于闐在南山下，其河北流，與葱嶺河合，東注蒲昌海。蒲昌海，一名鹽澤者也，去玉門·陽關三百餘里，廣袤三百里。其水亭居，冬夏不增減，皆以爲潛行地下，南出於積石，爲中國河云。

서역(西域)은 효무(孝武)¹⁾ 때에 처음으로 소통되기 시작하였다. 본시 36국²⁾이었으나 그

1) 孝武: 漢武帝(전141~전87). 本名 劉徹.

2) 三十六國: 이 같은 표현은 張騫이 西域을 다녀온 武帝時에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三十六國’이라는 표현이 사료상 처음 등장한 것은 建平 4년(전3) 黃門侍郎 揚雄이 哀帝에게 올린 諫言이다(『漢書』 卷94下 「匈奴傳下」: “과거에 西域을 도모하고 車師를 견제하기 위해 城郭을 설치하여 ‘三十六國’을 都護하였습니 다.”). 宣帝時인 神爵 2년(전59) 鄭吉을 西域都護로 임명하면서 漢의 서역진출과 경영이 본격화되었고, 흉노의 분열로 인해 呼韓邪單于가 漢에 入朝稱臣한 뒤 元帝 建昭 3년(전36)에는 흉노의 郅支單于가 西域 都護 甘延壽와 副校尉 陳湯 등의 공격을 받아 살해되어 서역의 정세가 一轉되면서, 서역의 여러 도시들이 漢에 복속하게 된 것이다. 西域都護는 이를 계기로 각 도시국가들의 土地·山川·王侯·戶數·道里·遠近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는데, ‘三十六國’은 바로 이때 정착된 용어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으로 ‘三十六國’은 위의 본문에 “모두 흉노의 서쪽, 오손의 남쪽에 있다. 남북으로 큰 산이 있고 중앙에는 강이 있는데, 동서로 6천여 리이며 남북이 천여 리이다. 동쪽으로는 한나라와 접하고 옥문과 양관에 의해 막혀 있으며, 서쪽으로는 총령(葱嶺)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설명이 보여주듯이 기본적으로는 타림분지

뒤에 차츰 나뉘어져 50여 개가 되었는데,³⁾ 모두 흉노의 서쪽, 오손의 남쪽에 있다. 남북으로 큰 산이 있고 중앙에는 강이 있으며, [그 범위는] 동서로 6천여 리이며 남북이 천여 리이다.⁴⁾ 동쪽으로는 한나라와 접하고 옥문(玉門)⁵⁾과 양관(陽關)에 의해 막혀 있으며,⁶⁾ 서쪽으로는葱嶺(葱嶺)으로 차단되어 있다.⁷⁾ 그곳의 남산⁸⁾은 동쪽에 금성(金城)⁹⁾으로 뻗어나와 한나라

- 연변, 즉 東투르크스탄의 도시들을 가리켰다. 그러나 ‘三十六’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實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後漢書』 卷115 「東夷傳」에 周의 穆王에게 복속한 陸地의 “三十有六國”, 卷116 「西南夷傳」에 降附한 “三十六種”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三十六’은 占星術에서 律曆의 數인 360 및 36과 연관된 것으로, 고대 중국인들의 思惟世界 속에서는 ‘多數’·‘無數’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던 숫자였다. 이에 관해서는 伊瀬仙太郎 (1955: 21-37) 참조. 한편 『漢書』 「匈奴傳」에 樓蘭·烏孫·呼揭와 그 근방의 二十六國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대체로 학자들은 ‘二十六國’을 ‘三十六國’의 오류로 보고 있다.
- 3) 顏注: “司馬彪가 『漢書』를 읽고 말하기를 ‘哀帝·平帝 때에 이르러 五十五國이 되었다’라고 했다.” 『後漢書』 卷88 「西域傳」: “무제 때에 서역이 內屬했는데 三十六國이 있었다. 한나라는 使者校尉를 두어 領護토록 하였다. 宣帝가 이를 都護로 고쳤고, 元帝는 다시 戊己二校尉를 두어, 車師前王庭에 屯田을 실시했다. 哀帝·平帝 기간에 스스로 분할하여 五十五國이 되었다.” 哀帝의 치세는 전7~전1년, 平帝는 후1년~5년까지이다.
- 4) 『漢書』는 여기서 ‘西域’의 지리적 개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남북의 큰 산’이란 북쪽의 천산산맥과 남쪽의 카라쿤룬[哈刺崑崙]·쿤룬[崑崙]·알친[阿爾金] 등의 산맥을 지칭하며, 중앙에 있는 강은 타클라마칸사막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흐르는 타림강을 가리키고, 葱嶺은 파미르고원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서 ‘西域’은 천산산맥과 쿤룬산맥, 그리고 파미르와 玉門關·陽關에 의해 둘러싸인 지역, 즉 타림분지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狹義의西域’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西域傳』에는 파미르以西의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廣義의西域’은 玉門關以西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인 셈이다. 둔황에서 파미르까지의 직선거리는 대체로 1,700km이고,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북 직선거리는 500km 정도된다. 따라서 동서 6,000리(2,400km), 남북 1,000여 리(400km)라는 기록은 실제 旅程의 거리를 측량할 때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5) 玉門: 漢武帝 때에 처음 두어진 관문이며, 西域에서 玉을 들여왔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 故址는 현재의 감숙성 둔황시 서북의 小方盤城에 해당된다. 서남쪽에 위치한 陽關과 더불어 서역으로 통하는 兩大關門이었다. 玉門關을 나서면 北道로 이어지고, 陽關을 나서면 南道로 연결되었다. 東漢 建武 말년에 폐지되었다가, 永平 17년(74) 伊吾(=哈密)를 경유하는 소위 ‘新道’가 개척되면서 현재의 安西의 동쪽 南橋子鄉 西北의 馬圈村 西에 위치한 小古城 자리에 復置되었다.
- 6) ‘隄’: 顏注: “隄은 塞의 뜻이다.”
- 7) 葱嶺은 파미르(Pamir). 顏注: “『西河舊事』에 ‘葱嶺이라는 산은 높고 크며, 위에는 모든 것이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西河舊事』는 현재 逸失된 책이다. 그런데 『水經注』(河水二)는 이 서적을 인용하면서 ‘上悉生’이 아니라 ‘上葱生’이라고 썼다. 즉 산 위에 파(葱)가 자라기

의 남산(南山)¹⁰⁾과 맞닿아[屬]¹¹⁾ 있다. 그 강은 두 개의 원천이 있는데, 하나는 총령에서 나오며 또 하나는 우전(于闐)¹²⁾에서 나온다. 우전은 남산 아래에 있으며 그 강은 북쪽으로 흘러 총령하(葱嶺河)¹³⁾와 만나서, 동쪽으로 흘러 포창해(蒲昌海)로 주입된다. 포창해는 일명 염택(鹽澤)¹⁴⁾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옥문·양관에서 300여 리 떨어져 있으며, 넓이와 길이 [廣袤]¹⁵⁾가 300리이다. 그 물은 정지해 있으며, 겨울과 여름에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그 물이] 지하로 잠행하여 남쪽으로 적석(積石)에서 용출하여 중국의 황하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¹⁶⁾

때문에 葱嶺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다. ‘파미르’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타지크(Tajik)어로 ‘세계의 기둥(pa-i mir)’이라는 설, 고대 페르시아어로 ‘太陽神의 寶座(pa-i mihr)’라는 설 등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한국어 ‘파’와 ‘파미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파미르’라는 이름이 한문자료에 처음 등장한 것은 玄奘의 『대당서역기』에 보이는 ‘波謎羅川’으로 알려져 있다.

- 8) 其南山: 이는 ‘漢南山’과 구별된 표현으로, 앞서 언급한 西域을 남북으로 둘러싼 양대 산맥 가운데 남쪽의 산맥, 즉 곤륜에서 알친으로 이어지는 山系를 지칭하는 것이다.
- 9) 金城: 전81년에 初置된 金城郡을 지칭하며 현재 甘肅省 蘭州·西寧 지방에 해당된다. 治所는 允吾로, 감숙성 阜蘭縣 西北 黃河 北岸에 위치하였다.
- 10) 南山: 당시 長安 근교의 終南山을 가리킨다. 西域의 ‘南山’인 崑崙산맥과 알친산맥은 동쪽으로 뻗어 기린산맥과 연결되며, 그것은 다시 秦嶺으로 이어져 장안 남쪽의 終南山까지 연속된다.
- 11) ‘屬’: 顏注: “屬은 聯의 뜻이다.”
- 12) 「大宛列傳」의 ‘우전(于闐)’에 관한 譯註 참조.
- 13) 葱嶺河: 葱嶺에서 발원하는 강이 타림(Tarim) 강이고, 于闐에서 발원하는 강이 호탄(Khotan) 강이다. 타림 강은 葱嶺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本文에서는 ‘葱嶺河’라고 칭해졌다.
- 14) 蒲昌海 즉 ‘鹽澤’은 오늘날 롭 노르(Lop Nor, 羅布泊)에 해당된다. 이 호수가 ‘鹽澤’이라 불렀던 까닭은 극도의 건조함으로 인해 수중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롭 노르는 지하 하도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1921년 호수의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바뀌어진 오늘날의 지점이 漢代 蒲昌海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된다. 현재 玉門·陽關에서 롭 노르까지의 직선거리는 대략 250km 정도이기 때문에 300리(120km) 보다는 더 먼 거리이다. 『水經注』 「河水二」에 鹽澤에 대하여 “東去玉門·陽關千三百里”라는 구절이 있어 위의 본문의 ‘三百里’라는 구절 앞에 ‘千’이 누락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1,300리일 경우 520km가 되므로 실제보다 2배 이상 먼 거리가 된다. 余太山(2005: 62)은 『史記』 「大宛列傳」에 陽關에서 長安까지가 4,500리로 나와 있고, 『漢書』 「西域傳」에 鄯善國에서 長安까지 5,000리로 나와 있으므로, 鄯善國이 위치한 鹽澤에서 陽關까지는 500리가 되는 셈이며, 위 본문의 ‘三百里’는 ‘五百里’의 誤謬가 아닐까 추정하였다. 500리라면 200km가 되므로 실제의 거리에 상당히 부합하는 셈이다.
- 15) 袤: 顏注: “袤는 長의 뜻이다.”
- 16) 積石山: 흔히 青海 南境의 大積石과 甘肅省 臨夏縣 西北의 小積石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前者를 지칭한다.

自玉門·陽關出西域有兩道。從鄯善傍南山北，波河西行至莎車，爲南；南道西踰葱嶺則出大月氏·安息。自車師前王廷隨北山，波河西行至疏勒，爲北；北道西踰葱嶺則出大宛·康居·奄蔡焉[耆]。

옥문·양관에서 서역으로 나서면 두 갈래 길이 있다. 선선(鄯善)¹⁷⁾에서 남산의 북쪽을 끼고 강을 좇아[波河]¹⁸⁾ 서쪽으로 가면 사차(莎車)¹⁹⁾에 이르는 것이 남도(南道)를 이룬다. 남도는 서쪽으로 총령을 넘어서 대월지·안식으로 나아간다. [한편] 거사전왕정(車師前王庭)²⁰⁾에서 북산(北山)을 끼고 강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소록(疏勒)²¹⁾에 이르는 것이 북도(北道)를 이룬다. 북도는 서쪽으로 총령을 넘어서 대완·강거·엄채²²⁾로 나아간다.²³⁾

소위 ‘黃河伏流重源說’에 관해서는 「大宛列傳」에서의 譯註 참조.

17) 鄯善: 뒤에 鄯善國條의 譯註 참조.

18) 波河: 顏注: “波河는 河를 좇아가다(循)는 뜻이다.”

19) 莎車: 뒤에 莎車國條의 譯註 참조.

20) 車師: 뒤에 車師國條의 譯註 참조.

21) 疏勒(siwo-lək): 뒤에 疏勒國條의 譯註 참조.

22) 사본에 따라 ‘奄蔡焉耆’라고도 되어 있으나 耆는 衍字이다. 焉耆(카라샤르)는 葱嶺의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위치해 있다. 大宛·康居·奄蔡에 관해서는 『史記』 「大宛列傳」의 관련 역주 참조.

23) 여기서 玉門關에서 서역으로 통하는 두 개의 교통로, 즉 南道와 北道가 언급되어 있다. 먼저 ‘北道’는 玉門·陽關을 나서서 西進하면 鹽澤과 그 부근의 砂丘지역인 白龍堆를 지나 鄯善(樓蘭)에 도착한다. 거기서 孔雀河(Konche Dariya)를 따라 西北行하면 渠犂와 輪臺에 도달하고, 거기서 ‘北山(천산산맥)’의 南麓을 끼고 ‘江(타림 강)’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疏勒’ 즉 카슈가르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葱嶺(파미르)’를 넘으면 大宛(Fergana), 康居(Sogdiana), 奄蔡(Abzoe) 등의 지역에 이른다. 그런데 宣帝 神爵 3년(전59) 西域都護가 두어지고 투르판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鄯善에서 車師前王庭(交河故城)으로 가는 길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南道’는 陽關을 나서서 北道와 마찬가지로 鄯善까지 갔다가 거기서 西南行·西行하여 ‘南山(쿤룬산맥)’의 북쪽을 따라가 ‘莎車’(Yarkand)에 이르는 길이다. 거기서 葱嶺을 넘으면 현재 아프간과 이란 지방의 大月氏·安息으로 연결되었다. 『漢書』 「西域傳」의 구성을 보면 먼저 上卷은 陽關을 나서서 南道를 따라 진행하면서 만나는 도시들을 婁羌國·鄯善國부터 시작하여 인도·파르티아·서투르키스탄까지 갔다가 다시 타림분지로 돌아오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下卷은 烏孫國에서 시작하여 逆으로 西에서 東으로 오는데 이번에는 北道 沿邊의 도시들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上卷에 28國, 下卷에 25國, 포함 53國에 대해서 國名, 王域名, 距離, 戶口, 兵數, 官制, 他國과의 距離, 物產, 기타 특징 등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기재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剛崎敬

西域諸國大率土著，有城郭田畜，與匈奴·烏孫異俗，故皆役屬匈奴。匈奴西邊日逐王置僮僕都尉，使領西域，常居焉耆·危須·尉黎間，賦稅諸國，取富給焉。自周衰，戎狄錯居涇渭之北。及秦始皇攘卻戎狄，築長城，界中國，然西不過臨洮。

서역의 여러 나라는 대부분 정착생활[土著]²⁴⁾을 하며, 성과와 밭과 가축을 갖고 있다. 흉노·오손과는 풍속이 다르며 전에는²⁵⁾ 모두 흉노에 복속하였다.²⁶⁾ 흉노의 서쪽 변경에 있는 일축왕(日逐王)²⁷⁾은 동북도위(僮僕都尉)²⁸⁾를 두어 서역을 통령토록 했는데, 항상 언기(焉耆)²⁹⁾·위수(危須)³⁰⁾·위려(尉黎)³¹⁾ 사이의 지역에 거주했으며, 여러 나라에 부세(賦稅)를 부과하고, 재화를 취하여 물자를 확보하였다.³²⁾ 주나라가 쇠망한 뒤 용적(戎狄)이 경수(涇水)와 위수(渭水)의 북쪽³³⁾에 서로 섞여³⁴⁾ 살았다. 진시황이 용적을 물리치고 장성(長城)을 쌓아

(1970: 275-277) 참조. 한편 南道는 鄯善에 도달할 때까지 白龍堆·三隴沙와 같이 통과하기 至難한 곳이 있어, 元始年間(紀元元年~5年)에 玉門關에서 鄯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車師前王庭(Turfan)과 車師後王庭(Jimsa)으로 연결되는 길, 즉 '新道'가 개척되었다.

- 24) 土著: 顏注: “토지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가축을 따라 이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 25) 故: “그렇기 때문에”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서역의 여러 나라들은 흉노·오손과 같은 유목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속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6) 役屬: 顏注: “흉노에 복속하면서 그들이 부리는대로 일을 한다.”
- 27) 日逐王: 『漢書』 「匈奴列傳上」에 따르면 “狐鹿姑單于(전96~전85)가 즉위하자, 左大將을 左賢王으로 삼았는데 몇 년 뒤 病死하고 그 아들 先賢揮이 뒤를 잇지 못하자, 대신 日逐王으로 삼았다. 日逐王은 左賢王보다 지위가 낮았다. 선우는 자신의 아들을 左賢王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 28) 僮僕都尉: 日逐王 휘하에 두어진 職名. ‘童僕’은 ‘奴隸’의 의미인데, 서역의 여러 나라를 마치 노예를 부리듯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29) 뒤에 焉耆國條 참조.
- 30) 危須(ngwie-siu): 뒤에 危須國에 관한 주석 참조.
- 31) 尉黎(jwei-liei): 尉犁라고도 표기. 뒤의 尉犁에 대한 주석 참조.
- 32) 顏注: “給은 足의 뜻이다.”
- 33) 즉 현재 陝西省 中部.
- 34) 顏注: “錯은 雜의 뜻이다.”

중국의 경계로 삼았지만,³⁵⁾ 서쪽으로 임도(臨洮)³⁶⁾를 넘지는 않았다.

漢興至于孝武，事征四夷，廣威德，而張騫始開西域之迹。其後驃騎將軍擊破匈奴右地，降渾邪·休屠王，遂空其地，始築令居以西，初置酒泉郡，後稍發徙民充實之，分置武威·張掖·敦煌，列四郡，據兩關焉。自貳師將軍伐大宛之後，西域震懼，多遣使來貢獻，漢使西域者益得職。於是自敦煌西至鹽澤，往往起亭，而輪臺·渠犂皆有田卒數百人，置使者校尉領護，以給使外國者。

한나라가 발흥하여 효무[의 시대]에 이르러 사이(四夷)를 정벌함에 힘쓰고 위덕을 넓혔으며, 장군은 서역으로 가는 길을 처음으로 개통했다. 그 후 표기장군(驃騎將軍)³⁷⁾이 흉노의 우지(右地)³⁸⁾를 공격하여 혼아왕(渾邪王)과 휴도왕(休屠王)³⁹⁾을 항복시키고 마침내 그 지역에서 [흉노를] 몰아낸 뒤 비로서 영거(令居)⁴⁰⁾의 서쪽에 [성을] 쌓았다. 처음으로 주천(酒泉)군을 설치했고 그 후에 차츰 사민시켜서 그곳을 충실하게 채웠다. 무위(武威)·장액(張掖)·돈황(敦煌) [등의 군]을 나누어 설치하여 사군(四郡)⁴¹⁾을 늘여놓고 두 개의 관문⁴²⁾에 의지하도록 하였다. 이사장군(貳師將軍)이 대宛을 정벌한 뒤 서역이 두려움에 떨었고 많은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헌상했으며, 한나라에서 서역으로 사신을 갔던 사람들은 더욱 더 임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⁴³⁾ 이에 돈황에서 서쪽으로 염택에 이르기까지 자주 정(亭)을

35) ‘界中國’: 顏注: “中國의 경계로 삼다는 뜻이다.”

36) 臨洮: 隴西郡에 속한 縣名이며 현재 감숙성 岷縣에 해당. 반면 현재 臨洮는 당시의 臨洮가 아니라 狄道에 해당되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37) 驃騎將軍: 票騎將軍이라고도 표기하며, 霍去病을 지칭. 그는 원래 驃姚校尉였다.

38) 右地: 匈奴는 제국의 영역을 中央·左地·右地로 나누었다. 제국의 高官인 소위 ‘二十四將’도 左右賢王, 左右谷蠡王, 左右大將, 左右大都尉, 左右大當戶, 左右骨都侯 등의 칭호로 불렸다. 匈奴는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南向이었기 때문에 右地는 西方을 의미했다.

39) 渾邪(γ uan-ia)’는 ‘昆邪(kuan-ia)라고도 표기. 渾邪와 休屠(xiū-d’iwo), 이 두 명칭에 관해서는 「大宛列傳」의 譯註 참조.

40) 令居: 「大宛列傳」의 譯註 참조.

41) 四郡: 河西四郡에 관해서는 「大宛列傳」의 譯註 참조.

42) 兩關: 陽關과 玉門關.

세웠다. 또한 윤대(輪臺)⁴⁴⁾와 거리(渠犁)⁴⁵⁾에는 전졸(田卒) 수백 명이 있어, 사자교위(使者校尉)⁴⁶⁾를 두고 [그들을] 지휘·보호⁴⁷⁾하면서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생산되는 식량을] 지급하게 했다.⁴⁸⁾

至宣帝時，遣衛司馬使護鄯善以西數國。及破姑師，未盡殄，分以爲車師前後王及山北六國。時漢獨護南道，未能盡并北道也，然匈奴不自安矣。其後日逐王畔單于，將衆來降，護鄯善以西使者鄭吉迎之。既至漢，封日逐王爲歸德侯，吉爲安遠侯。是歲，神爵三年也。乃因使吉并護北道，故號曰都護。都護之起，自吉置矣。僮僕都尉由此罷，匈奴益弱，不得近西域。於是徙屯田，田於北胥鞬，披莎車之地，屯田校尉始屬都護。都護督察烏孫·康居諸外國動靜，有變以聞。可安輯，安輯；可擊，擊之。都護治烏壘城，去陽關二千七百三十八里，與渠犁田官相近，土地肥饒，於西域爲中，故都護治焉。

43) 益得職: 顏注: “그 勤勞함을 賞讚하다. 모두 배수된 직책을 수행했다는 뜻이다.”

44) 輪臺: 현재 新疆 輪臺[Bugur]縣 東南. 원래 輪臺國(혹은 輪頭國)이 있었으나 전102년 李廣利의 大宛遠征時 멸망했고, 한나라는 이곳에 屯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武帝末年 즉 征和4년(전89) 桑弘羊이 輪臺以東의 捷枝·渠犁 등에 관개된 밭 五千頃 이상이 있으므로 屯田을 보내 匈奴와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 武帝는 더 이상 전쟁을 통해 백성들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屯田의 과전을 반대한 ‘輪臺의 詔’를 내렸다. 黃文弼은 현재 輪臺의 동남쪽에 남아 있는 고대 수리관개의 흔적을 漢代 輪臺의 유적으로 보았다(Hulsewé, 1979: 166; 嶋崎昌, 1977: 50 참조).

45) 渠犁(g'iwo-liei): 渠黎라고도 표기. 현재 新疆의 庫爾勒(Kurla)·尉犁 以西 一帶. 땅도 넓고 수초도 풍부하여, 李廣利의 大宛 遠征 이후 한나라는 이곳에 屯田을 실시하고 使者校尉를 두어 감독케 했으며, 후에는 西域都護가 監護했다. 嶋崎昌(1977: 17, 50)은 渠犁의 위치가 烏壘城[Chadir]의 남쪽 혹은 동남쪽 330리 되는 지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46) 使者校尉: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武帝 太初4년(전101) 輪臺·渠犁 일대의 屯田을 위해서 설치된 관직으로, 서역을 왕래하는 使者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물자를 지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宣帝 때 西域都護로 改置되면서 이 명칭은 다시 보이지 않게 된다.

47) ‘領護’: 顏注: “營田의 사무를 統領·保護한다는 뜻이다.”

48) ‘給使外國者’: 顏注: “심은 五穀을 거두어서 공급한다는 뜻이다.”

선제(宣帝)⁴⁹⁾ 때에 이르러 위사마(衛司馬)⁵⁰⁾를 보내어 선선(鄯善) 이서의 몇 나라를 감호하도록 했다. 고사(姑師)를 격파했지만 아직 진멸하지 못하여,⁵¹⁾ 거사전왕(車師前王)과 거사후왕(車師後王) 및 산북(山北)의 여섯 나라로 나뉘어졌다.⁵²⁾ 당시 한나라는 오로지 남도만 보호했을 뿐 북도까지 모두 장악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흉노는 스스로 불안해했다. 그 후 일축왕(日逐王)이 선우에게 반란을 일으켜 무리를 이끌고 투항해 오니, 선선 이서[의 지역]를 감호하는 사자(使者)⁵³⁾인 정길(鄭吉)이 그를 맞이하였다. 그가 한나라에 오니 일축왕을 봉하

49) 宣帝: 재위 전74~전49년.

50) 衛司馬: 衛의 司馬라는 의미로, 衛尉의 지휘 아래 각 屯에 배치된 관리를 지칭한다. 『漢書』卷70 「鄭吉傳」에는 “宣帝時에 이르러 鄭吉은 侍郎으로서 渠黎에서 屯田하여 積穀한 뒤, 諸國의 병사를 징발하여 車師를 攻破하고, 衛司馬를 옮겨서 鄯善 以西의 南道를 보호하도록 하였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51) 未能盡并: 顏注: “비록 그 나라를 공파했으나 盡滅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52) 姑師와 車師: 嶋崎昌(1977: 3-58)의 연구에 따르면 알타이어 계통으로서 姑師(혹은 車師)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집단이 언제부터인가 울두즈 계곡에서 바르쿨 방면에 걸친 천산산맥 동부지역에 살다가 점차 분열적 경향을 보이며 주변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中核은 투르판 분지와 그 북쪽의 천산산맥에 있었고 그 위치가 서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둘러싸고 한과 흉노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宣帝時에 이르러 한나라가 투르판 분지에 屯田을 실시함으로써 일단 그 지역을 영향권 하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흉노 측의 집요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車師屯田은 포기되고, 그곳의 車師人들은 渠犁로 이주되었다. 전67년 흉노는 車師王 兜莫을 내세워 山北의 車師人들을 東遷시키자, 한나라는 전63년경 軍宿을 車師王으로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車師前王과 車師後王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위의 본문에서 서술되듯이 廣義의 車師人들은 다시 나뉘어져 山北六國(蒲類前後國, 東西且彌國, 卑陸前後國)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흉노의 내분으로 日逐王이 투항하고 기원전 60년에 西域都護가 설치되면서, 渠犁로 이주했던 車師인들이 투르판 지역으로 돌아와 車師前王國이 형성되었고 흉노가 서역의 도시들에 徵稅를 위해 설치했던 童僕都尉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漢은 元帝 初元元年 즉 전48년에 車師前王國의 交河(高昌壁)에 戊己校尉를 배치하고 屯田을 실시하며 흉노의 남하를 견제하도록 했다. 한편 匈奴도 東遷시킨 車師人들을 山北으로 다시 이주시켜 車師後王國을 형성하였다. 車師前王國의 王治는 交河城(현재 신강 투르판 西北의 交河故城址)이었고, 車師後王國의 王治는 務涂谷(현재 신강 吉木薩爾 南泉子街 일대)이었다. 일찍이 松田壽男은 務涂谷을 Jimsa 남쪽에 있는 Pa-no-p'a溪谷으로 비정했다(嶋崎昌, 1977: 8). 또한 車師後王國의 四至轄境, 주요 城鎮(務涂谷, 金滿城, 疏勒城 등)의 方位, 國王의 世系와 주요 職官들, 漢과의 외교관계 및 왕국의 소멸과정 등에 관해서는 孟凡人(1985: 19-48)의 상세한 연구가 있다.

53) 護鄯善以西使者: 이 구절은 앞에 있는 ‘使護鄯善以西數國’이라는 표현에 조응하는 것이며, 『漢書』卷70 「鄭吉傳」에는 ‘使護鄯善以西南道’라는 표현도 보이므로, 官職名이라기보다는 鄭吉의 직무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 귀덕후(歸德侯)로 삼고 정길은 안원후(安遠侯)로 삼았다. 그 해는 신작(神爵) 3년(전59)이었다.⁵⁴⁾ 이에 정길로 하여금 북도도 함께 보호하라고 했고, 그런 연유로 ‘도호’(都護)⁵⁵⁾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도호의 시초는 정길에서부터 두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동북도 위는 폐지되고 흉노는 더욱 약해져서 서역에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둔전민을 이주시켜 북서견(北胥鞬)⁵⁶⁾에서 경작토록 하고 사차의 땅을 나누어⁵⁷⁾ [주었다]. 둔전교위(屯田校尉)가 처음으로 도호에 소속하게 되었다. 도호는 오손과 강거와 여러 외국의 동정을 독찰(督察)⁵⁸⁾하고 변고가 생기면 보고했다. 평안으로 다스릴 수 있으면 평안으로 다스리고[安輯],⁵⁹⁾ 공격할 만하면 공격했다.⁶⁰⁾ 도호의 치소는 오루성(烏壘城)⁶¹⁾이었는데, 양관에서 2,738리 떨어져 있고 거리(渠犂)의 전관(田官)과는 서로 가까웠다.⁶²⁾ 토지는 비옥하고 서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니, 이런 연유로 도호의 치소가 [그곳에] 두어진 것이다.

54) 『漢書』「宣帝紀」에는 神爵 2년(전60) 가을에 匈奴 日逐王 先賢擇이 人衆 萬餘名을 이끌고 來降하자, 都護騎都尉 鄭吉로 하여금 車師를 攻破하도록 했고, 日逐王과 鄭吉 모두 列侯로 봉했다는 기사가 보이며, 「鄭吉傳」에도 日逐王의 투항으로 車師가 고립되자 鄭吉이 車師의 兜訾城을 공파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55) 都護: 顏注: “都是 總과 같은 뜻이며, [都護는] 南北之道를 總護한다는 의미이다.” 『漢書』「百官公卿表」에 “西域都護, 加官, 宣帝地節二年(전68)初置, 以騎都尉·諫大夫使護西域三十六國”이라는 설명이 보인다. 都護의 秩은 比二千石이고, 治所는 烏壘城이었으며, 屬官으로는 丞 1人, 司馬·侯·千人 각 2인이 두어졌다.

56) 胥鞬(siu-w-kien): 여기에서만 한번 언급될 뿐이며 정확한 위치는 불명확하다. 神爵 3년(전61) 漢은 渠犂의 屯田民을 胥鞬으로 이주시켜 車師後部를 견제하려고 한 것이다.

57) 顏注: “披는 分이다.”

58) 顏注: “督은 視이다.”

59) 顏注: “輯과 集은 같다.”

60) 여기서 都護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都護가 관할하는 범위가 烏孫과 같은 天山 以北의 유목민은 물론, 康居와 같이 蔥嶺 以西의 주민들까지 포괄하고 있어 매우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漢書』「西域傳」에 따르면 西域都護에게 ‘屬’하는 나라는 모두 48개에 이른다.

61) 烏壘城: 新疆 輪臺縣 동쪽 策達雅[Chadir]에 해당.

62) 뒤에서 渠犂는 都護의 治所인 烏壘城 남쪽 혹은 동남쪽으로 330리(132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渠犂의 동북으로 가면 尉犂에 이른다는 기록으로 볼 때, 渠犂의 위치는 현재 輪臺에서 동남쪽으로 120~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喀爾曲朶 혹은 阿瓦提 부근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다.

至元帝時，復置戊己校尉，屯田車師前王庭。是時匈奴東蒲類王茲力支將人衆千七百餘人降都護，都護分車師後王之西爲烏貪訾離地以處之。自宣·元後，單于稱藩臣，西域服從，其土地山川王侯戶數道里遠近翔實矣。

원제(元帝)⁶³⁾ 때에 이르러 무기교위(戊己校尉)⁶⁴⁾를 다시 설치하고 거사전왕정(車師前王庭)에 둔전을 실시했다. 이 때 흉노의 동쪽에 있는 포류(蒲類)⁶⁵⁾의 왕 자력지(茲力支)⁶⁶⁾가 1,7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도호에게 투항해 오자, 도호는 거사후왕의 서쪽을 오탐자리(烏貪訾離)⁶⁷⁾라고 [이름]하고 그들을 안치시켰다. 선제·원제 이후 선우는 [스스로] 변신(藩臣)을 칭했고 서역은 복종하게 되었다.⁶⁸⁾ [따라서] 그 토지, 산천, 왕후(王侯), 호수(戶數), 도리(道

63) 元帝: 재위 전48~전33년.

64) 戊己校尉: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元帝 初元元年(전48)에 두어졌고 丞·司馬 각 1인, 候 5인이 있었다고 한다. 丞의 秩이 比六百石이라면 校尉는 比二千石이었을 것이다. 戊己校尉를 설치한 목적은 車師前王庭의 屯田을 위해서였다. 그곳에 둔전을 실시한 것은 宣帝 地節 4년(전66)부터 시작되었지만, 당시는 아직 車師가 前後部로 나뉘기 전이었다. 元康 2년(전64) 흉노의 공격으로 인하여 한은 車師屯田을 방기하고 주민들을 渠犁로 이주시켰는데, 神爵 2년(전60) 日逐王의 투항으로 鄭吉이 車師를 격파하고 渠犁로 이주했던 주민들을 다시 복귀시켰다. 그리고 初元元年 戊己校尉가 두어지면서 車師(交河)에서의 屯田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이다. '戊己'라는 명칭은 흉노의 공격을 막는다는 의도에서 '以土填水'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설명이 있는데(余太山, 2005: 75-76), 자세한 내용은 後註를 참조.

65) 蒲類: 뒤의 蒲類國條 참조.

66) 茲力支: 여기서만 언급되는 인물이며, 다른 사항은 알려진 바 없다.

67) 烏貪訾離: 뒤에 烏貪訾離國條 참조.

68) 이는 구체적으로 전51년 呼韓邪 單于가 휘하 部衆을 이끌고 남하하여 甘泉宮에서 宣帝를 배알하고 入朝稱臣한 사건과 그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근원은 앞서 언급한 기원전 60년 日逐王 투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日逐王 先賢揮의 투항은 전60년 虛閭權渠 單于가 사망한 뒤 자신이 계승자가 되지 못하고 대신 握衍胸赬가 즉위한 것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 흉노 내부에 혼란이 발생하자 左地 귀족들이 呼韓邪를 선우로 옹립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전58년 握衍胸赬가 자살하고 呼韓邪가 권력을 장악하는 듯했으나 곧 뒤이어 五單于가 爭立하는 혼란으로 확대되었고, 마지막에는 郅支와 呼韓邪가 대립하다가 결국 郅支에게 밀려난 呼韓邪가 南下하여 한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呼韓邪는 그 뒤 전49년, 전33년에도 入朝하여 前後 3차례 皇帝를 배알하고 朝貢關係를 맺었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규모의 물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전31년 호한야가 사망한 뒤로도 흉노의 單于들이 교체할 때마다 아들들 한의 조정에서 入侍케 하여 그 같은 관계를 유지했

里)의 원근⁶⁹⁾이 상세하게[翔實]⁷⁰⁾ 알려지게 되었다.

出陽關，自近者始，曰婁羌。婁羌國王號去胡來王。去陽關千八百里，去長安六千三百里，辟在西南，不當孔道。戶四百五十，口千七百五十，勝兵者五百人。西與且末接。隨畜逐水草，不田作，仰鄯善·且末穀。山有鐵，自作兵，兵有弓·矛·服刀·劍·甲。西北至鄯善，乃當道云。

양관을 나서서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면 야강(婁羌)⁷¹⁾이 있다. 야강의 국왕은 ‘거호래왕(去胡來王)’⁷²⁾이라 칭한다. 양관에서 1,800리,⁷³⁾ 장안에서 6,300리 떨어져 있으며, 서남쪽에 동떨

다. 자세한 사항은 사와다(1996: 76-82) 참조. 한편 바필드(Barfield, 1981)는 유목국가가 농경지역에 대한 약탈적 공격을 통해서 물자를 획득하는 ‘Outer frontier policy’와는 달리, 내분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을 때 농경국가에 대해서 朝貢을 바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이러한 방식의 정책을 ‘Inner frontier policy’로 이해한 바 있다.

69) ‘戶數’는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戶數가 아니라 口數와 兵數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숫자의 파악은 기본적으로 物的·人的 徵發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함이었다. 西域에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한나라는 원정군을 보내야 했지만 동시에 현지 도시들로부터 徵發을 했고, 이때 징발할 人數와 物資를 파악하기 위해 戶口와 兵力의 파악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道里의 원근 역시 使臣의 파견을 위해서는 물론, 반란이 터졌을 경우 원정군이 현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일과 그에 따라 필요한 軍糧의 규모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본문에 보이는 ‘道里’에는 ① 長安에서의 里數, ② 西域都護의 治所인 烏壘城에서의 里數, ③ 陽關에서의 里數, ④ 주변 도시로부터의 里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本傳에 기록된 長安·烏壘·陽關 등에서의 거리는 區間別 거리를 합산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이한 계산방법의 적용이나 상이한 자료의 사용 등으로 인해 상호 모순되는 숫자가 산출·기록되기도 하였다.

70) 翔實: 顏注: “翔은 詳과 같다.”

71) 婁의 발음에 대해서 “婁의 음은 ㄸ이다”라고 하나 孟康에 따르면 nzie로 읽을 수 있지만, “音而遮反”이라고 한 顏師古에 따르면 nzi와 tsia의 反切音 즉 nzia로 읽게 된다. Karlgren(1957)에 따르면 그 음은 t'iak이 된다. 婁는 중국 측 기록에서 『左傳』과 『穀梁傳』에 기원전 7세기 魯國의 한 귀족의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羌族의 일부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Hulsewé, 1979: 80 참조). 婁羌은 곤륜산맥에서 인도 서북부에 이르는 고산지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岑仲勉(1981: 1-6)은 이 지명이 후일 야르칸드(Yarkand, 葉爾羌)의 기원이 된 것으로 보았다.

72) 去胡來王: 顏注는 “胡戎을 멀리하고 漢에 來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 顧炎武는 이같이

어져 있고[辟] 대도[孔道] 연변에 있지 않다.⁷⁴⁾ 호수는 450, 인구는 1,750, 병사는 500이다. 서쪽으로 차말(且末)과 접한다. 가축을 따라 수초를 찾아다니며, 농사를 짓지 않고 선선과 차말의 곡식에 의존한다. 산에는 철이 나며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데, 무기에는 활, 창, 단검[服刀], 검, 갑옷 등이 있다. 서북으로는 선선에 이르며, 그렇게 되면 대도를 만나게 된다.

鄯善國，本名樓蘭，王治扞泥城，去陽關千六百里，去長安六千一百里。戶千五百七十，口萬四千一百，勝兵二千九百十二人。輔國侯·卻胡侯·鄯善都尉·擊車師都尉·左右且渠·擊車師君各一人，譯長二人。西北去都護治所千七百八十五里，至山國千三百六十五里，西北至車師千八百九十里。地沙鹵，少田，寄田仰穀旁國。國出玉，多葭葦·檉柳·胡桐·白草。民隨畜牧逐水草，有驢馬，多橐它。能作兵，與婼羌同。

선선국(鄯善國). 본명은 누란(樓蘭)이며, 도읍은 우니성(扞泥城)이다.⁷⁵⁾ 양관에서 1,600리,

뜻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바 있다. 한편 ‘去胡來’라는 표현은 현지음을 한자로 표시하면서 동시에 뜻을 이룰 수 있는 철자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岑仲勉, 1981: 5). 余太山(2005: 77-78)은 이 말이 Tochari를 옮긴 것으로 보는데, 단언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73) 陽關을 나서서 가장 가까운 곳(‘近者’)이 婼羌이라고 했지만 相距는 1,800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이어 나오는 鄯善에 관한 기록 즉 陽關에서 1,600리 떨어져 있다는 내용과 상치된다. 이러한 모순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漢書』에 기록된 里數가 때로는 實測에 근거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구간별 거리를 合算하여 도출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즉 陽關에서 鄯善까지의 거리 1,600리는 馬行으로 16일 걸린다는 實測에 근거한 것이지만, 陽關에서 婼羌까지의 거리는 직통거리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陽關-鄯善에다가 鄯善-婼羌의 2일거리(=200里)를 合算하여 나온 것이다. 이것은 당시 陽關을 나서서 白龍堆를 거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鹽澤 부근의 樓蘭(=鄯善)이고, 婼羌은 鄯善을 경유해서만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세 지점의 방위를 고려하면 陽關에서 婼羌까지의 거리가 실제로는 더 가까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문에서와 같이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婼羌에 대하여 “辟在西南，不當孔道”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사정을 말해 준다. 물론 婼羌을 현재의 若羌으로 볼 경우 鄯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시의 婼羌은 그보다 훨씬 더 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Herrmann, 1966: 16의 지도 참조).

74) 顏注: “辟은 僻으로 읽는다. 孔道는 山險을 뚫어서 길을 낸 것을 말하니 오늘날 穴徑이라 함과 같다.”

75) 扞泥(jiu-niei): 『史記』의 일부 판본에는 扞가 아니라 扞(γ an) 혹은 拘(kiu)로도 표기되어 있다. 카로슈티

장안에서 6,10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1,570, 인구는 14,100, 병사는 2,912명이다. 보국후(輔國侯) · 각호후(卻胡侯) · 선선도위(鄯善都尉)⁷⁶⁾ · 격거사도위(擊車師都尉) · 좌차거(左且渠) · 우차거(右且渠) · 격거사군(擊車師君)이 각각 1명씩 두어져 있으며, 역장(譯長)⁷⁷⁾ 2명이 있다.⁷⁸⁾ 서북으로 도호의 치소에서 1,785리 떨어져 있으며, 산국(山國)⁷⁹⁾까지 1,365⁸⁰⁾리이며, 서북쪽으로 거사까지 1,890리 떨어져 있다. 땅은 모래와 염분이 많고 밭이 적어서, 이웃 나라

문서에는 樓蘭[Kroraina]의 도읍지의 명칭이 kuhani 혹은 kvhani로 표기되어 있고, 이는 『後漢紀』의 驩泥(xuan-nie)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扞泥가 아니라 扞泥가 더 정확한 표기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樓蘭의 위치는 북위 40도 31분, 동경 90도에서 약간 서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있다. 樓蘭은 전77년 한나라가 尉屠耆를 왕으로 세우고 국명을 鄯善으로 개칭하였다. 후에 西域都護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後漢 때에는 莎車에 속했고, 小宛 · 戎盧 · 且末 등과 함께 아들을 보내 入侍케 하였다.

76) 都尉: 漢代에 郡太守의 명령을 받고 군대의 지휘를 담당하는 관리이다. 한나라에서는 기원후 30년 일부 변경지방을 제외하고는 이 직책이 폐지되었다. 물론 본문에서 열거되는 관직들은 현지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며, 대부분 한나라의 정책적 의도가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 輔國侯는 “나라를 돕는 侯”, 卻胡侯는 “오랑캐를 물리치는 侯”, 鄯善都尉는 “鄯善의 군대를 지휘하는 都尉”, 擊車師都尉는 “車師에 대한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都尉”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且渠는 匈奴의 職名이었는데, 그 뜻은 밝혀져 있지 않다.

77) 譯長: 고대 중국에서는 ‘舌人’ 혹은 ‘象胥’라고 불리던 譯官이 존재했는데, 秦 통일 이후 典客 혹은 典屬國이라는 직책을 설치하여 외국의 사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漢代에도 典客이 설치되었는데, 武帝 때에 들어와 大鴻臚로 이름이 바뀌었고 屬官으로는 行人, 譯官, 別火三令, 丞, 郡鄴長丞 등이 두어졌다. 西域과 소통하고 사신들의 과전이 빈번해져 “使者相望于道, 一歲中多至十餘輩”라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西域 각국에 譯長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자료상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모두 24개국에 36명이 설치되었으며,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다양하다. 인구가 많고 국력이 비교적 강하여 한나라와 외교관계가 빈번했던 龜茲, 焉耆, 莎車 등 3국에는 3~4명의 譯長이 두어져 가장 많은 숫자를 보였다. 譯長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俄琮瑋馬(2006) 참조.

78) 이상 鄯善에 두어진 官職들은 輔國侯와 譯長을 제외하고는 모두 軍職이며, 이는 漢의 西域經營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즉 漢은 西域의 도시들을 장악함으로써 匈奴와의 공격에 대비하려고 했고, 특히 匈奴와의 격돌의 중심지였던 車師에서 가까운 鄯善에 擊車師都尉 · 擊車師君 · 却胡侯 등의 軍官을 둔 것은 의미심장하다. 鄯善에는 토착적 전통에 의한 官制도 운영되었으며, 카로슈티 문서에는 kala, gušura, camkura, ogu, kitsaitsa, suvetha, tasuca 등의 官名이 기록되어 있다(Enoki 1963: 213-214, 238).

79) 山國: 顏注: “이 나라는 산간에 있기 때문에 山國이라 이름한 것이다.” 余太山(2005: 80)은 山國을 西域北道상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들로 보았으나, 다수의 학자들은 墨山國의 略稱으로 보고 있다. Grenard나 Chavannes와 같은 학자들은 墨山이 쿠를라 남방 130km 지점에 있는 Kizil Sanghir라고 하였다(Hulsewé, 1979: 85, 182 참조).

80) 일부 학자들은 6세기 『水經注』의 기록에 따라 1,865리가 맞다고 본다.

에 농사를 맡기고 옆나라의 곡식에 의존하고 있다.⁸¹⁾ 나라에서는 옥이 나오며, 골풀[葭葦]·버드나무[檉柳]⁸²⁾·호동(胡桐)⁸³⁾·백초(白草)⁸⁴⁾ 등이 많다. 주민들은 가축을 몰고 수초를 따라다니며, 나귀와 말이 있고 낙타가 많다. 능히 무기를 만드는데 이는 야강과 동일하다.

初，武帝感張騫之言，甘心欲通大宛諸國，使者相望於道，一歲中多至十餘輩，樓蘭·姑師當道，苦之，攻劫漢使王恢等，又數爲匈奴耳目，令其兵遮漢使。漢使多言其國有城邑，兵弱易擊。於是武帝遣從票侯趙破奴將屬國騎及郡兵數萬擊姑師。王恢數爲樓蘭所苦，上令恢佐破奴將兵。破奴與輕騎七百人先至，虜樓蘭王，遂破姑師，因暴兵威以動烏孫·大宛之屬。還，封破奴爲浞野侯，恢爲浩侯。於是漢列亭障至玉門矣。

처음에 무제가 장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열심히 대완 등 여러 나라와 소통하려고 했고, 사신들이 길에서 서로 마주칠 정도였으니, 한 해에 많게는 10여 개의 무리가 파견되었다. 누란과 고사는 연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고 한나라 사신인 왕희 등을 공격하고 겁탈했으며, 또한 여러 차례 흉노의 이목이 되어 그 군대로써 한나라 사신을 가로막았다.⁸⁵⁾

81) 畝田仰穀旁國: 顏師古는 이 구절을 “種田은 他國에게 맡기고, 旁國의 곡물을 사들여 온다는 뜻이다.”라고 해석하였다(Daffinà, 1982: 308 참조).

82) 檉柳: 顏注: “檉柳는 河柳이니 오늘날 赤檉이라 부르는 것이다. 白草는 강아지풀 비슷하나 가늘며 까끄라기(芒)가 없다. 乾孰할 때가 되면 正白色이 되며 牛馬가 먹기 좋아한다.” 이것은 소위 渭城柳(tamarisk)라고 불리는 것인데, 지중해 연안부터 중앙아시아와 북중국에 이르기까지 염분이 많은 건조·반건조 지대에 자란다.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紅柳라고도 불리며, 키는 1.7m가 넘지 않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다. 學名은 *Tamarix chinensis*.

83) 胡桐: 顏注: “胡桐은 오동나무(桐)와 유사하고 뽕나무와는 같지 않다. 벌레가 그 나무를 갉아먹어 진액이 아래로 흐르는데, 이를 세간에서는 胡桐淚라고 부르니 마치 눈물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金銀과도 같이 귀하여 여겨 지금은 工匠들이 모두 그것을 사용한다.” Laufer(1919: 339-342)에 따르면 學名은 *Populus balsamifera*.

84) 白草: 이것은 芣(*Setaria viridis*)와 비슷하지만 더 가늘고 까끄라기가 없고, 마르면 흰색이 되며, 가축의 사료로 사용된다고 한다(Laufer, 1919: 339). 白莢(*Solanum dulcamara*)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白藪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Hulsewé, 1979: 85).

한나라 사신들은 그 나라가 성읍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대가 약해서 공격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이에 무제가 종표후(從票侯) 조파노(趙破奴)로 하여금 속국⁸⁶⁾의 기병과 군병(郡兵)들 수만 명을 이끌고 고사를 공격하라고 보냈다.⁸⁷⁾ 왕희는 여러 차례 누란에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황상께서는 왕희에게 조파노를 보좌하여 군대를 지휘하라고 명령하셨다. 조파노는 경기병 700명을 이끌고 먼저 도착하여 누란왕을 포로로 잡고 마침내 고사를 격파했으나, 이로 인하여 군대의 위용이 오손과 대완 등의 나라에게 떨쳤다[暴].⁸⁸⁾ [군대가] 귀환하자 조파노는 착야후(浞野侯)에 봉해지고 왕희는 호후(浩侯)에 봉해졌다. 이에 한나라는 정장(亭鄣)⁸⁹⁾을 옥문까지 연이어 두게 된 것이다.⁹⁰⁾

樓蘭既降服貢獻，匈奴聞，發兵擊之。於是樓蘭遣一子質匈奴，一子質漢。後貳師軍擊大宛，匈奴欲遮之，貳師兵盛不敢當，即遣騎因樓蘭候漢使後過者，欲絕勿通。時漢軍正任文將兵屯玉門關，爲貳師後距，捕得生口，知狀以聞。上詔文便道引兵捕樓蘭王。將詣闕，簿責王，對：「小國在大國間，不兩屬無以自安。願徙國入居漢地。」上直其言，遣歸國，亦因使候司匈奴。匈奴自是不甚親信樓蘭。

누란이 이미 [한나라에] 항복하고 공물을 헌납했는데, 이 소식을 흉노가 듣고 군대를 내어 그를 공격하였다. 이에 누란은 한 아들은 흉노에 인질로 보내고 한 아들은 한나라에 인질로 보냈다.⁹¹⁾ 후에 이사장군이 대완을 공격할 때 흉노가 그를 가로막으려 했으나 이사장군의

85) 이는 元朔 3년(전126) 이후, 특히 元鼎 2년(전115)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86) 屬國: 顏注: “屬國은 外國으로서 漢에 복속한 여러 나라를 지칭한다.”

87) ‘從票侯’, ‘趙破奴’ 등에 대해서는 「大宛列傳」의 譯註 참조.

88) 暴: 顏注: “暴은 顯揚을 뜻한다.”

89) 亭鄣: 「大宛列傳」의 譯註 참조.

90) 酒泉에서 玉門까지 亭鄣이 연결되었음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기사가 『史記』 「大宛列傳」에 보인다. 趙破奴의 樓蘭征伐은 전110년의 일이다. 樓蘭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姑師를 정벌한 것으로 보아, 行軍도 大道를 따라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91) 여기서 姑師王이 아들을 人質로 보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姑師 주민들은 趙破奴의 정벌 이후 보그다(Bogda, 博格達)산맥을 넘어 북쪽으로 가서 匈奴에 투항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군대가 많아서 감히 맞서지 못했다. 그래서 기병을 보냈는데 이는 누란의 도움을 받아서, 한나라 사신의 후미가 지나갈 때 그것을 차단하여 [본대와]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때 한나라의 군정(軍正)인 임문(任文)⁹²⁾이 군대를 지휘하여 옥문관에 주둔하며 이사장군을 위하여 후미를 방어했는데[後距],⁹³⁾ 포로를 생포하여 [그를 심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를 올렸다. [그랬더니] 황상은 임문에게 지시하여 병사들을 이끌고 편도(便道)로 가서 누란왕을 잡으라고 하였다.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궁궐로 가서 [죄상을 기록한] 문서를 들어 왕을 질책하자,⁹⁴⁾ 그는 “소국이 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 양쪽으로 복속[兩屬]하지 않으면 스스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원컨대 나라를 옮겨 한나라 땅에 들어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 황상은 그의 말이 솔직하다고 여겨서 그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로 하여금 흉노를 엿보도록 시켰다. 이후로 흉노는 누란을 깊이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征和元年，樓蘭王死，國人來請質子在漢者，欲立之。質子常坐漢法，下蠶室宮刑，故不遣。報：「侍子，天子愛之，不能遣。其更立其次當立者。」樓蘭更立王，漢復責其質子，亦遣一子質匈奴。後王又死，匈奴先聞之，遣質子歸，得立爲王。漢遣使詔新王，令入朝，天子將加厚賞。樓蘭王後妻，故繼母也，謂王：「先王遣兩子質漢皆不還，奈何欲往朝乎？」王用其計，謝使：「新立，國未定，願待後年入見天子。」然樓蘭國最在東垂，近漢，當白龍堆，乏水草，常主發導，負水擔糧，送迎漢使，又數爲吏卒所寇，懲艾不便與漢通。後復爲匈奴反間，數遮殺漢使，其弟尉屠者降漢，具言狀。

정화(征和) 원년(전92) 누란왕이 사망하자,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한나라에 있던 질자(質子)⁹⁵⁾를 [돌려 달라고] 청했는데,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질자는 한나라

92) 任文: 이 인물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漢書』 「匈奴傳」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太初3년(전102) 초에 흉노가 “右賢王을 시켜 酒泉과 張掖으로 들어가게 하여 수천 명을 노략했는데, 任文이 구원차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빼앗았던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돌아갔다. 貳師將軍의 군대가 大宛을 격파하고 그 왕을 참수하여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單于는 그를 막으려고 했으나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93) 後距: 顏注: “後距는 후방에 머물며 적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94) ‘簿責’: 顏注: “文簿로써 일일이 견책한다는 뜻이다.”

법을 항상⁹⁶⁾ 어겨서 잠실(蠶室)로 내려보내져 궁형(宮刑)에 처해졌으므로⁹⁷⁾ 그를 보내주지 않고, “시중들고 있는 아들은 천자께서 총애하셔서 보내줄 수 없으니, 그 다음으로 마땅히 옹립되어야 할 사람을 바꿔서 세우도록 하라.”고 대답해 주었다. 누란은 왕을 바꿔서 세웠고 한나라는 그들에게 다시 질자를 요구했으며, [누란은] 또 한 아들을 흉노에 인질로 보냈다. 후일 왕이 또 사망하자 흉노가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질자를 돌려보내 왕으로 추대될 수 있게 하였다.⁹⁸⁾ 한나라가 왕에게 사신을 보내 입조(入朝)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천자께서 많은 상을 내리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누란왕의 후처(後妻)는 원래 계모였는데⁹⁹⁾ 왕에게 말하기를 “선왕께서 두 아들을 한나라에 질자로 보냈는데 모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서 입조하려 가려 합니까?”라고 하였다. 왕은 그녀의 계략을 받아들여, [한나라] 사신에게 감사해 하며 “이제 막 즉위하였으니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여, 원컨대 다음 해에 들어가서 천자를 뵈옵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누란국은 [서역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는] 가장 동쪽 끝에 있어 한나라와 가깝고, 백룡퇴(白龍堆)¹⁰⁰⁾와 연접하여 수초가 부족하다. 항상 길안내를 파견하는 일을 맡아 보았으며, 물과 식량을 지고 날랐고, 한나라 사신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도 하였다.

95) 質子: 당시 樓蘭, 大宛, 康居, 莎車, 烏孫 등의 나라가 모두 質子를 보냈는데, 質子를 들이는 목적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王子를 人質로 잡아 한나라의 지시에 순응케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質子를 조정에서 성장·교육시킴으로써 親漢勢力을 배양하려는 것이고, 셋째는 「大宛列傳」에서 언급된 ‘致殊俗’ 즉 “진심을 다해서 의로움으로써 그들을 귀속케 한다면 영토는 만 리를 넓힐 수 있을 것이고, 거듭해서 통역을 하여 서로 다른 풍속을 갖는 사람들을 초치(致殊俗)한다면 [천자의] 위덕이 사해(四海)에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余太山, 2005: 84-85).

96) 常: ‘嘗’(일찍이)의 뜻으로 새겨도 文意의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97) 蠶室: 마치 養蠶을 위해 만들어진 房처럼 불을 때서 높은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바람도 통하지 않게 한 지하실이다. 宮刑을 당한 사람을 바람이 통하거나 추운 곳에 두면 상처가 덧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처럼 따뜻한 지하실에 안치하여 상처 부위가 악화되지 않고 조속히 아물도록 하였다. 그래서 ‘蠶室’은 宮刑의 別稱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腐刑, 陰刑, 椽刑 등으로도 불리웠다.

98) 顏注: “흉노가 한나라보다 누란왕의 사망 소식을 먼저 듣고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質子를 돌려보낸 것이다.”

99) 樓蘭도 당시 收繼婚(levirate)의 풍습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100) 白龍堆: 「漢書」 「匈奴傳下」에는 “白龍堆는 그 모양이 마치 土龍의 몸체와 같고, 머리는 없고 꼬리만 있으며, 크고 높은 것은 2~3척, 낮은 것은 1척 남짓이며, 모두 東北向으로 비슷하고, 西域에 있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것은 鹽澤 즉 룽 노르 부근 동북부에 있는 거대한 砂丘群을 가리키며 현지 주민들은 yardang이라고 부른다. 이에 관해서는 嶋崎昌(1977: 429-466)의 「白龍堆考」가 가장 자세하다.

더구나 이졸들의 노략질도 자주 받았으니 한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후일 다시 흉노를 위하여 첩자 노릇을 하고, 여러 차례 한나라 사신을 가로막고 죽였다. 그 동생인 위도기(尉屠耆)¹⁰¹⁾가 한나라에 투항하여 [그 같은] 상황을 모두 말하였다.¹⁰²⁾

元鳳四年，大將軍霍光白遣平樂監傅介子往刺其王。介子輕將勇敢士，齎金幣，揚言以賜外國爲名。既至樓蘭，詐其王欲賜之，王喜，與介子飲，醉，將其王屏語，壯士二人從後刺殺之，貴人左右皆散走。介子告諭以「王負漢罪，天子遣我誅王，當更立王弟尉屠耆在漢者。漢兵方至，毋敢動，自令滅國矣！」介子遂斬王嘗歸首，馳傳詣闕，縣首北闕下。封介子爲義陽侯。乃立尉屠耆爲王，更名其國爲鄯善，爲刻印章，賜宮女爲夫人，備車騎輜重，丞相[將軍]率百官送至橫門外，祖而遣之。王自請天子：「身在漢久，今歸，單弱，而前王有子在，恐爲所殺，國中有伊循城，其地肥美，願漢遣<二>〔一〕將屯田積穀，令臣得依其威重。」於是漢遣司馬一人·吏士四十人，田伊循以填撫之。其後更置都尉。伊循官置始此矣。鄯善當漢道衝，西通且末七百二十里。自且末以往皆種五穀，土地草木，畜產作兵，略與漢同，有異乃記云。

원봉(元鳳) 4년(전77) 대장군 광광(霍光)¹⁰³⁾은 [황제에게] 아뢰 뒤 평락감(平樂監)¹⁰⁴⁾ 부

101) 尉屠耆: 흉노에서는 左賢王·右賢王이라고 할 때 ‘賢’을 屠耆라고 불렀다는 기록으로 보아 ‘屠耆’는 중국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02) 本文의 내용은 匈奴에 質子로 가 있던 樓蘭의 왕자가 왕으로 즉위한 뒤, 漢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내면적으로는 匈奴와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樓蘭은 한나라 사신이 西域往來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수송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어 내심 불만이 많았고, 한나라의 외교적 동태를 파악하여 흉노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다. 漢 조정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랐으나, 왕의 동생인 尉屠耆의 투항과 보고를 계기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傅介子를 시켜서 왕의 암살을 지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103) 霍光: 河東 平陽(현재 山西省 臨汾 西南)人. 字는 子孟이며, 霍去病의 異母弟로서 『漢書』 卷68에 立傳된 인물이다. 20여 년 궁정을 출입하면서 성심으로 황제를 모셔 武帝의 신임을 획득했다. 무제 임종시 大司馬大將軍에 임명되고 博擊侯에 봉해졌으며, 金日磾·上官桀·桑弘羊 등과 함께 遺詔를 받들었으나, 昭帝 즉위 후 上官桀·桑弘羊 등과 틈이 벌어져 上官桀을 모반죄로 살해하고 朝廷의 정치를 擅斷하기에

개자(傅介子)¹⁰⁵를 보내서 그 왕을 암살하라고 했다. 부개자는 가벼운 [차림을 하고] 용맹한 병사들을 데리고 갔다. 황금과 비단을 휴대했는데, 외국에 하사품을 줌으로써 명성을 얻기 위해서라고 공언하였다. 그가 누란에 도착해서 그 왕에게 하사품을 주겠다고 속이니, 왕이 기뻐서 부개자와 함께 마시고 취하였는데, 그가 왕과 은밀한 말을 하는 사이에 장사(壯士) 2명이 뒤에서 그를 찔러 죽였다. 좌우의 귀족들이 모두 흩어져 도망갔다. 부개자는 “왕이 한나라에 죄를 지어서 천자께서 나를 보내어 왕을 주살한 것이다. 마땅히 왕의 동생으로 한나라에 있는 위도기를 다시 세울 것이다. 한나라 군대가 이제 막 도착할 테니 감히 [반항하여] 움직여 나라의 멸망을 자초하지 말도록 하라.”고 선포하였다. 이윽고 부개자는 왕 상귀(嘗歸)¹⁰⁶의 머리를 베어서 역전을 통해서 궁궐로 보내니, 북궐 아래에 그 머리를 매달았다. 부개자는 의양후(義陽侯)에 봉해졌다.¹⁰⁷ 이에 위도기를 그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의 이름을 선선(鄯善)¹⁰⁸이라고 바꾸었으며, 그를 위하여 인장을 새겨주고, 궁녀를 하사하여 부인으로

이른다. 그 후 20년간 집권하면서武帝 이후 어려워진 정치·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地節 2년(전68) 病死하였으나, 그 뒤 그의 妻가 許皇后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탄로나서 아들 霍禹 등이 謀反罪를 쓰고 一族이 誅殺되었다.

104) 平樂監: 『漢書』 「景武昭宣元成功臣表」에는 平樂監으로 기록. 그는 아마 上林苑에 있던 平樂觀의 마굿간(廄)을 관할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漢書』 「傅介子傳」에 그가 駿馬監으로 大宛에 파견된 것도 그의 직책과 유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5) 傅介子: 北地 義渠(현재 甘肅省 寧縣 西北)人으로 『漢書』 卷70에 立傳된 인물. 昭帝 元風年間に 駿馬監으로서 大宛에 사신으로 갔고, 詔勅을 받들어 樓蘭·龜茲 등이 漢使를 遮斷하고 살해하는 것을 견책하였으며, 龜茲에서는 匈奴의 使者를 斬殺하기도 했다. 돌아와서 中郎에 拜受되고 平樂監에 임명되었다. 霍光의 지시에 따라 士卒들과 함께 金幣를 갖고 여러 나라에 賞賜를 내려주러 간다고 속이면서 樓蘭에 도착하여 王 安歸(嘗歸)를 刺殺하였다. 귀환한 뒤에는 義陽侯에 봉해졌으며 元康元年(전65) 사망했다.

106) 嘗歸: 顏注: “嘗歸는 그 왕의 이름이다. 昭帝紀에는 安歸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嘗歸라고 되어 있으니, 本紀와 列傳의 기록이 서로 달라서 [그중 하나는] 마땅히 오류일 것이다.” 嘗歸(z'ang-kjwei)는 Changi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語頭音 ca와 ja는 당시 중국인들에게 a로도 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Angi 즉 安歸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Hulsewé, 1979: 90).

107) 義陽侯: 『漢書』 「傅介子傳」에는 昭帝가 그를 義陽侯로 봉하면서 내린 다음과 같은 詔文이 기재되어 있다. “平樂監 傅介子는 持節使로서 樓蘭王 安歸의 首級을 베어 北闕에 걸어서 원수를 갚았으며 무리를 지휘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다. 傅介子를 義陽侯에 봉하여 食邑 700戶를 내린다. 왕을 刺殺한 士卒들은 모두 侍郎으로 임명한다.”

108) 鄯善: 이는 漢字의 의미상 ‘向善’이 되겠지만, 현지어에서 유사한 발음을 근거로 한자로 뜻이 통하게 만든 말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Charchan이라는 지명과 鄯善은 동일한 語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게 하였다. 수레와 기병과 치중(輜重)을 마련해 주고, 승상·장군이 백관을 이끌고 횡문(橫門)¹⁰⁹⁾의 밖에 이를 때까지 배웅하여, 제사[祖]¹¹⁰⁾를 지낸 뒤에 그를 보냈다. 왕은 천자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저는 오랫동안 한나라에 있다가 지금 귀환하는데 혼자이고 약합니다. 그러나 전왕의 아들이 있으니 살해될까 두렵습니다. 나라 안에 이순성(伊循城)¹¹¹⁾이라고 있는데 그 땅이 비옥하니, 원컨대 한나라에서 한 지휘관을 보내 둔전을 설치하고 곡식을 쌓는다면, 신(臣)은 그 위엄에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한나라는 사마(司馬) 1명과 이사(吏士) 40명을 파견하여 이순에 둔전을 실시하고 그곳을 진무하도록 하였다.¹¹²⁾ 그 후에 도위로 바꾸어 설치했으나, 이순의 관직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선선은 한나라[와 서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요충에 있으며, 서쪽으로 720리 가면 차말과 통한다. 차말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모두 오곡을 심고 토지·초목·축산·무기가 대략 한나라와 동일하니,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하겠다.

且末國，王治且末城，去長安六千八百二十里。戶二百三十，口千六百一十，勝兵三百二十人。輔國侯·左右將·譯長各一人，西北至都護治所二千二百五十八里，北接尉犁，南至小宛可三日行。有蒲陶諸果，西通精絕二千里。

109) 橫門: 孟康은 橫을 光으로 발음하라고 注記했다. 『三輔黃圖』에 따르면 橫門은 長安城 西北方에 있던 城門이다.

110) 祖: 『漢書』 「景十三王傳」에 있는 顏注에 따르면 祖라는 것은 送行의 祭祀이며 饗飲의 禮를 올리는 것으로, 과거 黃帝의 아들 纁祖가 멀리 여행다니는 것을 좋아하다가 길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후일 사람들이 그를 여행의 신(行神)으로 추앙해서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111) 伊循(i-zuēn): 과거에 학자들은 전77년 한나라가 樓蘭을 장악하면서 國名을 鄯善으로 고쳐 부르고 首都도 扞泥/扞泥 즉 현재의 Miran遺址에서 伊循 즉 Charklik[若羌]으로 옮긴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Enoki(1960: 200-210)는 전77년 도읍을 옮겼다는 기록은 없고 다만 尉屠耆가 國內人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여 伊循城에 거주한 것이며, 伊循城도 마찬가지로 樓蘭의 도읍인 扞泥 부근에 있었고 漢軍이 주둔했던 곳이라는 신설을 제기했다. 그는 扞泥/驪泥가 樓蘭遺址에서 발견된 카로슈티 문서(3~4세기경)에 Kroraina(樓蘭)의 별칭으로 기록된 kuhani 혹은 khvani를 音寫한 것이며, 鄯善이라는 명칭은 그 근처를 흐르는 강의 이름 Charchan을 音寫한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Enoki는 扞泥를 樓蘭遺址가 발견된 곳으로, 伊循은 Miran遺址라고 주장한 것이다.

112) 伊循지역의 屯田에 관해서는 張德芳(2001)·李炳泉(2003)·張運德(2007) 등을 참고하십시오.

차말국(且末國).¹¹³⁾ 도읍은 차말성(且末城)이고, 장안에서 6,820리 떨어져 있다.¹¹⁴⁾ 호수는 230, 인구는 1,610, 병사는 320명이다. 보국후(輔國侯)·좌장(左將)·우장(右將)·역장(譯長)이 각각 1명씩 있다. 서북으로 2,258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며, 북쪽으로는 위리(尉犁)¹¹⁵⁾와 접하고, 남쪽으로 소완(小宛)까지는 3일 거리이다. 포도 등 여러 과일이 있다. 서쪽으로 2천 리 가면 정절(精絕)과 통한다.

小宛國，王治打零城，去長安七千二百一十里。戶百五十，口千五十，勝兵二百人。輔國侯·左右都尉各一人。西北至都護治所二千五百五十八里，東與婁羌接，辟南不當道。

소완국(小宛國).¹¹⁶⁾ 도읍은 우령성(打零城)¹¹⁷⁾이고, 장안에서 7,210리 떨어져 있다.¹¹⁸⁾ 호

113) 且末(ts'ia-muāt): 일반적으로 Calmad(ana)를 옮긴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玄奘의 글에서는 折摩馱那라고 표기되어 있다. 且末城은 Stein이 발견한 Charchan(且末縣) 西南의 넓은 Lalulik Tati遺址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且末縣에서 북쪽으로 80km 大砂漠 가운데 阿牙克(Ayak)河의 古道 옆에 비교적 잘 보존된 古城遺址가 있는데, 이것이 且末國의 王治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余太山, 2005: 89).

114) 鄯善~長安 6,100리+鄯善~且末 720리=6,820리.

115) 尉犁(jwei-liei): '尉黎'라고도 표기. 19~20세기 漢書註釋家들은 이것을 Bugur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Wylie는 『西域同文志』를 추증하여 尉犁를 Kalgan-aman으로 보았으나, Chavannes는 이를 비판하면서 尉犁와 危須를 Bagrash 호수 혹은 Bostang 호수 부근으로 보았다. 한편 黃文弼은 쿠를라 동북쪽 그리고 四十里城 남쪽에 있는 넓은 유적지가 尉犁의 수도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嶋崎昌은 尉犁를 여전히 Kalgan-aman으로 보고 있다(Hulsewé, 1979: 177).

116) 小宛: 大宛과 대비되는 명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大宛의 '大'字가 원래 뜻이 아니라 音을 옮긴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小宛의 '小'字도 音을 옮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後漢書』에 따르면 기원후 1세기 초 小宛은 다른 小國들과 함께 鄯善에 병합되었는데, 후일 다시 독립을 회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

117) 打零(uo-lieng): 打/扞/掬가 뒤섞여 씌었던 점을 생각하면 打零의 다른 讀音도 가능할지 모른다. 일반적으로 Ender[安得悅]遺址로 간주되고 있으나, Charchan에서 Ayaklar川을 따라 南下하여 Koshalch강을 따라 서남행하다가 나오는 Kapa로 보는 견해도 있다. Kapa는 Charchan과 民豐[Niya]縣의 중간쯤에 위치한 곳이다(余太山, 2005: 90; 長澤和俊, 1983: 64-65 참조).

118) 長安~且末 6,820리이고, 且末~小宛이 3일 거리(300리)라면 長安~且末은 7,120리가 되어야 옳을 것이다.

수는 150, 인구는 1,050, 병사는 200명이다. 보국후(輔國侯)·좌도위(左都尉)·우도위(右都尉)가 각각 1명씩 있다. 서북으로 2,558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며,¹¹⁹⁾ 동쪽으로 야강과 접하고, 남쪽으로 외진 곳에 있어서 대도에 연결해 있지 않다.

精絕國，王治精絕城，去長安八千八百二十里。戶四百八十，口三千三百六十，勝兵五百人。精絕都尉·左右將·譯長各一人。北至都護治所二千七百二十三里，南至戎盧國四日行，地阨陁，西通扞彌四百六十里。

정절국(精絕國).¹²⁰⁾ 도읍은 정절성(精絕城)이고, 장안에서 8,820리¹²¹⁾ 떨어져 있다. 호수는 480, 인구는 3,360, 병사는 500명이다. 정절도위(精絕都尉)·좌장(左將)·우장(右將)·역장(譯長) 각 1명씩 두었다. 북쪽으로 2,723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남쪽으로 4일 거리면 용로국(戎盧國)에 이른다. 지형은 [사방으로] 막혀 있다. 서쪽으로 460리 가면 우미와 통한다.

戎盧國，王治卑品城，去長安八千三百里。戶二百四十，口千六百一十，勝兵三百人。東北至都護治所二千八百五十八里，東與小宛·南與婁羌·西與渠勒接，辟南不當道。

용로국(戎盧國).¹²²⁾ 도읍은 비품성(卑品城)¹²³⁾이고 장안에서 8,30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240, 인구는 1,610, 병사는 300명이다. 동북쪽으로 2,858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¹²⁴⁾

본문의 7,210은 7,120의 오류임이 분명하다. 뒤에 都護의 治所로부터의 거리는 2,258+300=2,558리로 맞게 기재되어 있다.

119) 都護府~且末 2,258리+且末~小宛 3일(300리)=2,558리.

120) 精絕(tsiäng-dz'iwät): 현재 民豐[Niya]縣에서 북방으로 12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있는 Niya(尼雅) 遺址로 간주된다. Stein은 이 지역을 3회에 걸쳐 조사하여 한문문서 60점, 카로슈티 문서 709점을 발견했는데, 카로슈티 문서에 이 지역은 Cadota로 표기되어 있어 精絕은 그 훈譯으로 추정되었다.

121) 長安~且末 6,820리+且末~精絕 2,000리=8,820리.

122) 戎盧(nziung-luo)

123) 卑品(pjie-p'liäm): Niya遺址에서 Niya川을 거슬러 120km 남쪽에 위치한 民豐[Niya]縣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

동으로는 소완, 남으로는 야강, 서로는 거록(渠勒)¹²⁵⁾과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외진 곳에 있어서 대도에 연결해 있지 않다.

扞彌國，王治扞彌城，去長安九千二百八十里，戶三千三百四十，口二萬四十，勝兵三千五百四十人，輔國侯·左右將·左右都尉·左右騎君各一人，譯長二人，東北至都護治所三千五百五十三里，南與渠勒·東北與龜茲·西北與姑墨接，西通于闐三百九十里，今名寧彌。

우미국(扞彌國).¹²⁶⁾ 도읍은 우미성(扞彌城)이고 장안에서 9,280리 떨어져 있다.¹²⁷⁾ 호수는 3,340, 인구는 20,040, 병사는 3,540명이다. 보국후·좌장·우장·좌도위·우도위·좌기군(左騎君)·우기군(右騎君)이 각각 1명씩이며, 역장이 2명 있다. 동북쪽으로 3,553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남으로는 거록, 동북으로는 구자(龜茲),¹²⁸⁾ 서북으로는 고묵(姑墨)¹²⁹⁾과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 390리 가면 우전(于闐)과 통한다. 현재의 명칭은 영미(寧彌)¹³⁰⁾이다.

124) 都護府~小宛 2,558리+小宛~戎盧 300리=2,858리.

125) 渠勒國條 참조.

126) 扞彌(uo-mjie): 『史記』「大宛列傳」의 ‘扞采’. 『後漢書』에는 拘彌, 『史記』 일부 판본에는 扞彌 등으로 표기. Chavannes는 扞彌가 더 옳은 표기일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이유는 먼저 宋雲의 여행기에 捍麼 혹은 捍麼, 『新唐書』에 汗彌라는 지명이 보이기 때문이었고, 그곳을 현재 Chira 오아시스 北端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Uzun Tati로 비정했다. 한편 Pulleyblank는 扞彌의古音を wah-me로, 拘彌의古音を koh-me로 각각 추정하고, 이것은 아마 카로슈티 문서에 보이는 Khema(호탄 부근에 위치)를 옮긴 것으로 보았다. 또한 『後漢書』에서 玉門關을 출발하여 鄯善·且末·精絕를 지나면 拘彌에 이르는데 3,000리가 넘는다는 기록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여겼다(Hulsewé, 1979: 94-95). 그러나 藤田豊八은 扞彌가 Uzun Tati라는 설을 비판하며, 『新唐書』에 汗彌·拘彌·寧彌故城·達德力城 등으로 기록된 사실에 주목하여 Dandan Uiliq으로 비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長澤和俊도 이를 받아들였다. Dandan Uiliq遺址는 신강 策勒縣城에서 北東쪽으로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長澤和俊, 1983: 63-64).

127) 長安~精絕 8,820리+精絕~扞彌 460리 = 9,280리.

128) 龜茲國條 참조.

129) 姑墨國條 참조.

130) 寧彌(neng-mjie): 『後漢書』「西域傳」에 “拘彌國의 居處는 寧彌城”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후한대에는

渠勒國，王治鞞都城，去長安九千九百五十里。戶三百一十，口二千一百七十，勝兵三百人。東北至都護治所三千八百五十二里，東與戎盧·西與婼羌·北與扞彌接。

거륵국(渠勒國). 도읍은 건도성(鞞都城)¹³¹⁾이고, 장안에서 9,95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310, 인구는 2,170, 병사는 300명이다. 동북쪽으로 3,852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동으로는 용로, 서로는 야강, 북으로는 우미와 접해 있다.

于闐國，王治西城，去長安九千六百七十里。戶三千三百，口萬九千三百，勝兵二千四百人。輔國侯·左右將·左右騎君·東西城長·譯長各一人。東北至都護治所三千九百四十七里，南與婼羌接，北與姑墨接。于闐之西，水皆西流，注西；其東，水東流，注鹽澤，河原出焉。多玉石。西通皮山三百八十里。

우전국(于闐國). 도읍은 서성(西城)¹³²⁾이고 장안에서 9,670리 떨어져 있다.¹³³⁾ 호수는 3,300, 인구는 19,300, 병사는 2,400명이다. 보국후·좌장·우장·좌기군·우기군·동성장(東城長)·서성장(西城長)·역장이 각각 1명씩 있다. 동북쪽으로 3,947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¹³⁴⁾ 남으로는 야강에 접하고, 북으로는 고목과 접한다. 우전의 서쪽에서 강물은 모두 서쪽으로 흘러 서해로 들어가지만, 그 동쪽에서 강물은 동쪽으로 흘러 염택으로 들어가니,

寧彌를 拘彌國의 王治로 알고 있었다. 建武 9년(후33) 莎車王 賢이 拘彌國을 攻破하고 왕을 죽인 뒤, 그 형 康의 아들을 拘彌王으로 세웠다. 拘彌國은 그 후 오랫동안 정치적 혼란을 겪다가 章帝 즉위 직후에 한에 투항하였다.

131) 渠勒(g'io-lək), 鞞都(kian-tuo): “王治鞞都城”이라는 구절은 “王治는 鞞都城이다”로, 혹은 “王治는 鞞의 都城이다”로 해석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곳을 Chira와 Domoko를 중심으로 하는 Keriya川 西方의 오아시스, 혹은 그 北方 19km에 있는 Uzun Tati로 추정하고 있다(長澤和俊, 1983: 65).

132) 西城: 于闐國의 王治 ‘西城’은 일반적으로 현재 和田[Khotan]市 서남쪽에 있는 Yotkan遺址로 비정되고 있다. 관직명에도 東城長과 西城長이 있는 것으로 보아, 東西 兩城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33) 長安~扞彌 9,280리+扞彌~于闐 390리=9,670리.

134) 都護府~扞彌 3,553+扞彌~于闐 390리=3,943리. 따라서 本文의 ‘3,947里’는 ‘3,943里’의 誤謬일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황하의 근원이 나온다. 옥돌[玉石]¹³⁵⁾이 많다.¹³⁶⁾ 서쪽으로 380리 가면 피산(皮山)과 통한다.

皮山國，王治皮山城，去長安萬五十里。戶五百，口三千五百，勝兵五百人，左右將·左右都尉·騎君·譯長各一人，東北至都護治所四千二百九十二里，西南至烏秣國千三百四十里，南與天篤接，北至姑墨千四百五十里，西南當罽賓·烏弋山離道，西北通莎車三百八十里。

피산국(皮山國).¹³⁷⁾ 도읍은 피산성(皮山城)이고 장안에서 10,050리 떨어져 있다.¹³⁸⁾ 호수는 500, 인구는 3,500, 병사는 500명이다. 좌장·우장·좌도위·우도위·기군·역장이 각각 1명씩 있다. 동북쪽으로 4,292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서남쪽으로 1,340리 가면 오타국(烏秣國)에 이른다. 남으로는 천독(天篤)¹³⁹⁾에 접하고, 북으로 1,450리 가면 고북에 이르며, 서남으로는 계빈(罽賓)·오익산리(烏弋山離)¹⁴⁰⁾로 가는 대도와 접해 있으며, 서북으로 380리 가면 사차(莎車)와 통한다.

烏秣國，王治烏秣城，去長安九千九百五十里。戶四百九十，口二千七百三十三，勝兵七百四十人，東北至都護治所四千八百九十二里，北與子合·蒲犁，西與難兜接，山居，田石間，有白草，累石爲室，民接手飲，出小步馬，有驢無牛，其西則有縣度，

135) 玉石: 顏注: “玉石은 옥돌(玉之璞)이다. 흑자는 옥과 비슷한 돌이라고도 한다.”

136) 『史記』 「大宛列傳」에 유사한 기록이 보인다.

137) 皮山(b'jie-san): 『魏書』의 蒲山. 『新唐書』 「地理志」에 따르면 이곳은 호탄에서 서남쪽으로 380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 王先謙은 皮山이 호탄의 서쪽, 아르칸드의 서남쪽에 있는 현재의 皮山(Guma)縣과 동일지점으로 보았다.

138) 長安~于闐 9,670리+于闐~皮山 380리=10,050리.

139) 天篤(t'ien-tuok): 身篤·天竺 등과 같은 음을 옮긴 것이며, 북인도에 대한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140) 罽賓, 烏弋山離 등은 該當國條 참조.

去陽關五千八百八十八里，去都護治所五千二百〔十〕里。縣度者，石山也，谿谷不通，以繩索相引而度云。

오타국(烏秣國).¹⁴¹⁾ 도읍은 오타성(烏秣城)이고 장안에서 9,950리¹⁴²⁾ 떨어져 있다. 호수는 490, 인구는 2,733, 병사는 740명이다. 동북쪽으로 4,892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¹⁴³⁾ 북으로는 자합(子合)·포리(蒲犁), 서로는 난두(難兜)와 접한다.¹⁴⁴⁾ [주민들은] 산지에 거주하며, 전토는 돌밭 사이에 있다. 백초가 있다.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다. 사람들은 손을 모아서 [接手] 물을 마신다.¹⁴⁵⁾ 짧은 보폭으로 달리는 말[小步馬]¹⁴⁶⁾이 나오며, 나귀는 있으나 소는 없다.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 현도(縣度)¹⁴⁷⁾가 있고, 양관까지는 5,888리 떨어져 있고, 도호의 치소까지는 5,020리 떨어져 있다. 현도라 함은 암산[石山]을 가리키는데, 지나갈 수 없는 협곡이어서 [사람들은] 끈으로 서로를 끌면서 건너간다.¹⁴⁸⁾

141) 烏秣(uo-tuo): Petech는 이것이 *Uda에 상응하는 음으로 보았고, Herrmann은 야르칸드 남쪽 Sarikol 부근으로 보았다. Chavannes는 烏秣를 Tashkurgan에, 松田壽男은 Hunza에 각각 비정했다(Hulsewé, 1976: 98; 余太山, 2005: 98).

142) 이 里數는 長安~蒲犁 9,550리+蒲犁~烏秣 4일(400)=9,950리로 산출된 것이다.

143) 그러나 앞의 皮山國條의 기록에 따르면 長安~皮山 4,292리+皮山~烏秣 1,340리를 합산하여 5,632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다. 한편 4,892리라는 숫자는 4,292리+600리이기 때문에, 皮山~烏秣의 거리가 1,340리가 아니라 600리일 가능성도 있다.

144) 子合, 蒲犁, 難兜는 각각 該當國條 참조.

145) ‘接手’는 두 손을 모아서 물을 담아 마시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顏注는 “높은 산 아래의 계곡 가운데에서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 손을 연결하는데, 마치 원숭이가 하는 짓과 비슷하다.”라고 하여, 마치 원숭이들이 서로 손을 연결하여 잡아서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는데, 물론 잘못된 해석이다.

146) ‘小步馬’에 대하여 孟康은 “種子是 작지만 잘 걷는다.”라고 설명했는데, 顏師古는 이를 비판하며 “이 설명은 틀리다. 작은 細를 뜻하며, 細步란 잔걸음을 잘한다는 의미이다. 즉 오늘날의 百步千跡을 뜻하니, 어찌 그것이 종자가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였다.

147) 縣度: 顏注: “끈을 달아서 건너간다는 뜻이며, 縣은 懸의 古字이다.”

148) 縣度에 관한 묘사는 본문 아래에도 나와 있듯이 成帝 때 杜欽의 보고가 생생하다. 法顯도 『佛國記』에서 葱嶺(파미르)을 넘는 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여기(즉 陀歷=Darel)서 葱嶺을 따라 西南으로 15일을 가는데, 그 道路는 험난하고 斷崖는 깎아지른 듯하며, 그 산에는 돌만 있고 절벽은 천 길 낭떠러지이다. 내려다보면 눈이 아찔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발디딜 곳이 없다. 아래에는 강이 있는데

西夜國，王號子合王，治呼隄谷，去長安萬二百五十里。戶三百五十，口四千，勝兵千人。東北到都護治所五千四十六里，東與皮山·西南與烏秣·北與莎車·西與蒲犁接。蒲犁(反)[及]依耐·無雷國皆西夜類也。西夜與胡異，其種類羌氏行國，隨畜逐水草往來。而子合土地出玉石。

서야국(西夜國). 왕은 자합왕(子合王)¹⁴⁹⁾이라 불리며 도읍은 호건곡(呼隄谷)¹⁵⁰⁾이고, 장안에서 10,250리 떨어져 있다.¹⁵¹⁾ 호구는 350, 인구는 4,000, 병사는 1,000명이다. 동북쪽으로 5,046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른다.¹⁵²⁾ 동으로는 피산, 서남으로는 오타, 북으로는 사차, 서로는 포리(蒲犁)와 접해 있다. 포리와 의내(依耐)·무뢰국(無雷國)¹⁵³⁾은 모두 서야와 비슷하다. 서야는 오랑개와 다르며, 그 종족은 저·강 등의 유목민[行國]과 비슷하여, 가축을 몰고 수초를 따라 왕래한다. 그리고 자합(子合)의 토지에서는 옥돌이 나온다.

이름은 新頭(인더스)河이다. 옛날에 사람들이 돌에 구멍을 뚫어[鑿石] 길을 내고, 그 옆에 사다리(傍梯)를 놓았는데 대체로 700여 [군데에 있는] 사다리를 건너야 한다. 밧줄로 엮은 구름다리[懸繩]를 밟고 강을 건너는데, 강의 兩岸 사이의 거리는 80步에 조금 못 미친다. 九譯이 끝나는 곳이니, 漢의 張騫이나 甘英조차 모두 이곳까지 이르지 못했었다.” (Legge, 1965[原文 7; 翻譯 26-27]; 長澤和俊, 1971: 29-31 참조). 여기서 묘사된 것을 보면 중국의 棧道와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黃河의 三門峽 지방에서 발견된 古代의 棧道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깎아지른 암벽에 구멍을 내어 들보를 박아넣고 그 위에는 널빤지를 올려놓고 아래에는 버팀목을 설치한다. 그리고 그 위에 암벽에 다시 구멍을 내어 밧줄을 쭉서넣어 사람들이 암벽에 붙어서 널빤지 위를 지나갈 때 그 밧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Hulsewé 1979: 99-100). 法顯의 기록에 따르면 懸도가 있는 곳은 Gilgit 남쪽에 있는 Darel에서부터 Udyana[烏菴]에 이르는 구간(長澤和俊, 1971: 25의 지도와 31의 사진 참조)을 가리킨다. Udyana를 지나면 Swat 계곡을 거쳐서 인더스 강 상류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149) 西夜(siei-ia), 子合(tsi-γ ap): 『後漢書』는 西夜와 子合을 별개의 국가로 기록했지만, 양자가 실은 동일한 音價를 옮긴 것을 가능성도 있다. 子合은 南北朝시대에 朱舍半·朱俱波·朱駒波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현재의 Karghalik에 해당된다. Chavannes는 야르칸드 남쪽의 Yul-arik로 비정하였다.

150) 呼隄(xuo-kian): 『後漢書』 「西域傳」에는 呼隄谷. 현재 葉城[Karghalik] 서쪽의 Asgan-sal河谷으로 비정된다.

151) 長安~莎車9,950리+莎車~西夜(3日行)=10,250리.

152) 都護府~莎車4,746리+莎車~西夜(3日行)=5,046리.

153) 蒲犁, 依耐, 無雷 등은 該當國條 참조.

蒲犁國，王治蒲犁谷，去長安九千五百五十里。戶六百五十，口五千，勝兵二千人。東北至都護治所五千三百九十六里，東至莎車五百四十里，北至疏勒五百五十里，南與西夜子合接，西至無雷五百四十里。侯·都尉各一人。寄田莎車。種俗與子合同。

포리국(蒲犁國).¹⁵⁴⁾ 도읍은 포리곡(蒲犁谷)이고 장안에서 9,55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650, 인구는 5,000, 병사는 2,000명이다. 동북쪽으로 5,396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도달한다. 동쪽으로 540리 가면 사차, 북쪽으로 550리 가면 소륵에 이르고, 남으로는 서야의 자합과 접한다. 서쪽으로 540리 가면 무뢰에 이른다. 후(侯)와 도위가 각각 1명씩 있다. 사차의 경작지에 의존하며, 종족과 풍속은 자합과 동일하다.

依耐國，王治去長安萬一百五十里。戶一百二十五，口六百七十，勝兵三百五十人。東北至都護治所二千七百三十里，至莎車五百四十里，至無雷五百四十里，北至疏勒六百五十里，南與子合接，俗相與同。少穀，寄田疏勒·莎車。

의내국(依耐國).¹⁵⁵⁾ 도읍은 장안에서 10,150리 떨어져 있다.¹⁵⁶⁾ 호수는 125, 인구는 670, 병사는 350명이다. 동북쪽으로 2,730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도달한다. 사차까지는 540리, 무뢰까지는 540리이며, 북쪽으로 소륵까지는 650리이다. 남으로 자합과 연결하며, 풍속은 [자합과] 서로 동일하다. 곡식이 적으며, 소륵과 사차의 경작지에 의존한다.

154) 蒲犁(b'uo-lie): Chavannes는 蒲犁와 依耐를 모두 Tashkurgan 지역에 비정했고, 『清史稿』卷448은 蒲犁를 Sarikol(色勒庫爾)로 비정하였다.

155) 依耐(jei-nai): 『新唐書』卷221上「西域上」, “朱俱波는 朱俱槃이라고도 하며, 漢代의 子合國이다. 西夜·蒲犁·依耐·得若 등 모두 四種의 지방이 있다. 于闐까지 西쪽으로 곧바로 千里, 葱嶺까지 北으로 三百里이고, 西로는 喝盤陀에 이르고, 北으로 九百里 가면 疏勒에 이어지며, 南으로 三千里 가면 女國이다. 병사의 숫자는 2,000명인데, 浮屠의 法道를 숭상하고, 文字는 婆羅門과 동일하다.”

156) 長安~蒲犁 9,550리+蒲犁~依耐 6日行=10,150리.

無雷國，王治盧城，去長安九千九百五十里。戶千，口七千，勝兵三千人。東北至都護治所二千四百六十五里，南至蒲犁五百四十里，南與烏秣·北與捐毒·西與大月氏接。衣服類烏孫，俗與子合同。

무뢰국(無雷國).¹⁵⁷⁾ 도읍은 노성(盧城)이고, 장안에서 9,950리 떨어져 있다.¹⁵⁸⁾ 호수는 1,000, 인구는 7,000, 병사는 3,000명이다. 동북쪽으로 2,465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른다. 남으로 포리까지 540리이며, 남으로는 오타, 북으로는 연독(捐毒), 서로는 대월지와 접하고 있다. 의복은 오손과 비슷하며, 풍속은 자합과 동일하다.

難兜國，王治去長安萬一百五十里。戶五千，口三萬一千，勝兵八千人。東北至都護治所二千八百五十里，西至無雷三百四十里，西南至屬賓三百三十里，南與婁羌·北與休循·西與大月氏接。種五穀·蒲陶諸果。有銀銅鐵，作兵與諸國同，屬屬賓。

난두국(難兜國).¹⁵⁹⁾ 도읍은 [.....이고]¹⁶⁰⁾ 장안에서 10,150리 떨어져 있다.¹⁶¹⁾ 호수는 5,000, 인구는 31,000, 병사는 8,000명이다. 동북쪽으로 2,850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서쪽으로 340리 가면 무뢰에, 서남쪽으로 330리 가면 계빈에 이른다. 남으로는 야강, 북으로는 휴순(休循),¹⁶²⁾ 서로는 대월지와 접한다. 오곡과 포도 및 여러 과일을 심는다. 은·동·철이 있고, 무기를 만드는 것은 여러 나라와 동일하다. 계빈에 복속하고 있다.

157) 無雷(miu-luai): 『後漢書』卷88「西域傳」에는 “莎車國에서 서쪽으로 蒲犁·無雷를 지나 大月氏에 이르는 데, 동쪽으로 洛陽과 10,950리 떨어져 있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158) 長安~蒲犁 9,550리+蒲犁~無雷 4日行=9,950리.

159) 難兜(nan-tau): 榎一雄은 이 단어는 원래 Nan-tou가 아니라 Nan-kou를 잘못 옮긴 것이며, 위치는 Gilgit강 하류지역으로 비정하였다(Hulsewé, 1979: 103).

160) “王治” 이하 脫文으로 추정됨.

161) 長安~無賴 9,950리+無賴~難兜 2日行=10,150리.

162) 休循國條 참조.

罽賓國，王治循鮮城，去長安萬二千二百里。不屬都護，戶口勝兵多，大國也。東北至都護治所六千八百四十里，東至烏秣國二千二百五十里，東北至難兜國九日行，西北與大月氏·西南與烏弋山離接。昔匈奴破大月氏，大月氏西君大夏，而塞王南君罽賓。塞種分散，往往爲數國。自疏勒以西北，休循·捐毒之屬，皆故塞種也。罽賓地平，溫和，有目宿，雜草奇木，檀·櫟·梓·竹·漆。種五穀·蒲陶諸果，糞治園田。地下溼，生稻，冬食生菜。其民巧，雕文刻鏤，治宮室，織罽，刺文繡，好治食。有金銀銅錫，以爲器。市列。以金銀爲錢，文爲騎馬，幕爲人面。出封牛·水牛·象·大狗·沐猴·孔爵·珠璣·珊瑚·虎魄·璧流離。它畜與諸國同。自武帝始通罽賓，自以絕遠，漢兵不能至，其王烏頭勞數剽殺漢使。烏頭勞死，子代立，遣使奉獻。漢使關都尉文忠送其使。王復欲害忠，忠覺之，乃與容屈王子陰末赴共合謀，攻罽賓，殺其王，立陰末赴爲罽賓王，授印綬。後軍候趙德使罽賓。與陰末赴相失，陰末赴鎖琅當德，殺副已下七十餘人，遣使者上書謝。孝元帝以絕域不錄，放其使者於縣度，絕而不通。成帝時，復遣使獻謝罪，漢欲遣使者報送其使，杜欽說大將軍王鳳：「前罽賓王陰末赴本漢所立，後卒畔逆。夫德莫大於有國子民，罪莫大於執殺使者，所以不報恩，不懼誅者，自知絕遠，兵不至也。有求則卑辭，無欲則嬌嫚，終不可懷服。凡中國所以爲通厚蠻夷，愿快其求者，爲壤比而爲寇也。今縣度之阨，非罽賓所能越也。其鄉慕，不足以安西；雖不附，不能危城郭。前親逆節，惡暴西域，故絕而不；今悔過來，而無親屬貴人，奉獻者皆行賈賤人，欲通貨市買，以獻爲名，故煩使者送至縣度，恐失實見欺。凡遣使送客者，欲爲防護寇害也。起皮山南，更不屬漢之國四五，斥候士百餘人，五分夜擊刀斗自守，尚時爲所侵盜。驢畜負糧，須諸國粟食，得以自贍。國或貧小不能食，或桀黠不肯給，擁彊漢之節，餒山谷之間，乞匄無所得，離一二旬則人畜棄捐曠野而不反。又歷大頭痛·小頭痛之山，赤土·身熱之阪，令人身熱無色，頭痛嘔吐，驢畜盡然。又有三池·盤石阪，道陁者尺六七寸，長者徑三十里。臨崢嶸不測之深，行者騎步相持，繩索相引，二千餘里乃到縣度。畜隊，未半阮谷盡靡；人墮，勢不得相收視。險阻危害，不可勝言。聖王分九州，制五服，務盛內，不求外。今遣使者承至尊之命，送蠻夷之賈，勞吏士之衆，涉危難之路，罷弊所恃以事

無用，非久長計也。使者業已受節，可至皮山而還。」於是鳳白從欽言。罽賓實利賞賜賈市，其使數年而壹至云。

계빈국(罽賓國).¹⁶³⁾ 도읍은 순선성(循鮮城)¹⁶⁴⁾이고 장안에서 12,200리 떨어져 있으며,¹⁶⁵⁾ 도호에게 복속하지 않는다. 호수와 병사가 많으며 큰 나라이다. 동북으로 6,840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며, 동쪽으로 2,250 가면 오타국, 동북쪽으로 9일 거리 가면 난두국에 이른다. 서북으로는 대월지, 서남으로는 오익산리와 접한다. 과거에 흉노가 대월지를 격파했을 때, 대월지는 서쪽으로 가서 대하를 지배했는데, [이때] 색왕(塞王)¹⁶⁶⁾도 남쪽으로 가서 계빈을

163) 罽賓(kiäi-pien): 이미 오래 전에 Levi에 의해서 Kapisi를 음譯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Kapisi는 중국측 자료 가운데 『大唐西域記』와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迦畢試, 『冊府元龜』에 訶毗施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罽賓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罽賓으로 칭해지는 지명이 반드시 한 지역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상이한 지역을 지칭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白鳥庫吉(1917)은 漢代의 罽賓이 간다라를, 隋唐代의 罽賓은 카슈미르를 가리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大唐西域記』는 카슈미르(迦濕彌羅)에 대해서 “전에 罽賓이라고 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기록하여 唐代 이전에 카슈미르가 罽賓이라 불리웠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Pulleyblank는 罽賓의 古音이 Kashmir의 프라크리트語形인 *Kaspir를 옮긴 것이며 곧 헤로도투스와 프톨레마이오스 등의 글에 보이는 그리스 語形 Kaspeiria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Hulsewe(1979: 104)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漢書』의 罽賓은 간다라와 카슈미르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지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카불에서 동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Kapisa라는 이름의 省이 있다고 한다(桑山正進, 1992: 100-101, 115-120). 그러나 Daffinā(1982: 316-318)는 Pulleyblank의 견해를 비판하며, 엄격하게 말해 罽賓이 前漢 당시에는 지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인도 북부의 Saka 지역을 지칭하는 정치적인 개념이며, “간다라, 카피시, 편잡 일부를 포함하지만, 아마 카슈미르는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한 Petech(1950: 64)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164) 循鮮(ziuen-siän): 『新唐書』 卷221上 「西域上」에는 ‘脩鮮’으로 표기.

165) 長安~烏秣 9,950리+烏秣~罽賓 2,250=12,200리.

166) 塞王: Saka王을 지칭. 흉노의 공격을 받은 大月氏의 西遷으로 인해 당시 중앙아시아 지방에 거주하던 Saka계통의 부족들이 압력을 받고 남하하기 시작하여 아무다리아 강을 건너서 아프가니스탄 지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박트리아(大夏) 왕국을 무너뜨린 사실은 이미 고대 그리스 작가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Strabo는 Asioi, Pasianoï, Tocharoi, Sacarauoi라는 4종족을 언급했고, Trogius Pompeius는 Asiani가 Tokhara인들의 맹주가 되어 Sacaraucae를 정복했다고 기록했다.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 측 기록과 중국 측 기록을 정합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관해서는 Tarn(1938: 269-311)과 Enoki(1959: 22-29) 참조.

지배했다. 색 종족은 나뉘어져 왕왕 여러 나라를 만들었는데,¹⁶⁷⁾ 소록에서부터 서북쪽으로 휴순·연독 등은 모두 원래 색 종족이었다. 계빈의 토지는 평평하고 온화하며, 목숙(目宿),¹⁶⁸⁾ 잡초와 기이한 나무, 박달나무[檀]·왜나무[櫟]¹⁶⁹⁾·가래나무[梓]·대나무[竹]·옷나무[漆] 등이 있다. 오곡과 포도 및 여러 과일을 심고, 분노를 밭에 뿌린다. 토지는 낮고 습하며, 벼를 기르고, 겨울에는 날야채를 먹는다. 그 주민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무늬를 조각하거나 새겨 넣기를 잘하고, 궁전과 가옥을 짓고, 모직물을 짜고 자수를 놓기도 하며, 음식 만들기를 좋아한다. 금·은·동·주석이 있으며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고, 시장에는 [짐포가] 늘어서 있다.¹⁷⁰⁾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드는데, 정면에는 기마상이, 배면에는 사람 얼굴이 있다. 흑이 난 소[封牛],¹⁷¹⁾ 물소[水牛], 코끼리[象], 큰 개[大狗], 원숭이[沐猴], 공작(孔爵),¹⁷²⁾ 진주[珠璣], 산호(珊瑚), 호박(虎魄), 벽유리(璧流離)¹⁷³⁾ 등이 생산된다. 다른 가축은 여러 나라와 동일하다.¹⁷⁴⁾ 무제 때 처음으로 계빈과 소통하기 시작한 이후, [계빈은] 자기들이 아주 먼 곳에 있어서 한나라 병사가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왕 오두로(烏頭勞)¹⁷⁵⁾는 한나라 사신을 자주

167) 顏注: “여러 종류로 갈라졌다는 것도 역시 그들 언어가 달랐기 때문이다.”

168) 目宿: 『史記』 「大宛列傳」에는 ‘苜蓿’으로 표기.

169) 顏注: “櫟의 음은 懷이다. 즉 왜나무(槐)의 일종이며, 잎이 크고 검다.”

170) 市列: ‘市有列’이 되어야 옳다. 顏注: “시장에 늘어진 짐포가 있는 것이 중국과 같다.”

171) 封牛: 顏注: “封牛는 [등] 위가 隆起한 소이다.” zebu 즉 흑소를 가리키며 犍牛로 표기되기도 한다. 『後漢書』 卷6에 “疏勒國이 師子·封牛를 헌상했다.”라는 구절에 달린 注에 “『東觀記』에는 ‘疏勒王 盤이 文時라는 사신을 보내 詣闕했다.’라고 하였다. 師子는 호랑이와 비슷한데, 正黃色이고 수염(鬚)이 있으며, 꼬리 끝에 무성한 털의 크기가 마치 자루(斗)와 같다. 封牛는 그 목 위에 살이 융기해서 마치 무엇을 쌓아놓은 것(封)과 같기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인데, 곧 오늘날의 峯牛이다.”라는 설명이 보인다.

172) 孔爵: 孔雀이라는 표기가 더 일반적이지만 爵이 ‘새’를 의미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원전 61년 신성한 새의 출현을 기리기 위해 神爵이라는 年號가 채택되기도 하였다.

173) 璧流離: lapis lazuli 즉 靑金石을 가리킨다. 孟康注: “流離는 靑色이고 玉과 비슷하다.” 顏注: “『魏略』은 ‘大秦國에서는 赤·白·黑·黃·靑·綠·縹·紺·紅·紫 등 10종류의 流離가 나온다. 孟康은 靑色 [유리]를 말했지만 두루 언급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대저 自然의 산물인데, 색깔이 곱고 빛이 나서 일반적인 玉보다 더 뛰어나지만 그 색깔이 항구적이지 못하다. 지금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모두 돌가루(石汁)를 녹여서 거기에 여러 약품을 가한 뒤 부어서 만든 것이며, 취약하고 순정하지 못하니 사실 진품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174) 鬲賓의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 특산물 등에 관해서는 『大唐西域記』와 『往五天竺國傳』의 기록과 비교해 볼 만하다(桑山正進, 1992: 40, 115-120; 정수일, 2004: 311-318; 水谷眞成, 1999: I, 129-132 참조).

겁락했다. 오두로가 죽고 아들이 뒤를 이어 즉위하자 사신을 보내어 헌물을 바쳤다. 한나라는 관도위(關都尉)¹⁷⁶⁾ 문충(文忠)으로 하여금 그 사신을 [데리고] 보내도록 했다. 왕이 다시 문충을 해치려고 했는데 문충이 이를 깨닫고 용굴왕(容屈王)의 아들 음말부(陰末赴)¹⁷⁷⁾와 함께 모의하여 계빈을 공격하고 그 왕을 죽인 뒤, 음말부를 계빈왕으로 세우고 인수(印綬)¹⁷⁸⁾를 주었다. 후에 군후(軍候) 조덕(趙德)이 계빈에 사신으로 갔는데, 음말부와 서로 사이가 어그러졌다[相失].¹⁷⁹⁾ 음말부는 조덕을 사슬[琅當]¹⁸⁰⁾로 묶고, 부사(副使) 이하 70여 명을 살해한 뒤 사신을 보내어 글을 올려 변명을 했다. 효원제(孝元帝)¹⁸¹⁾는 [계빈이] 극히 먼 지역이어서 고려하지 않고, 그 사신을 현도에서 놓아주고는 [관계를] 끊고 교통하지 않았다. 성제(成帝)¹⁸²⁾ 때 [계빈은] 다시 사신을 보내 헌물을 바치며 사죄했고, 한나라는 그 사신을 호송하기 위해 다시 사신을 보내려고 했으나, 두흠(杜欽)¹⁸³⁾이 대장군 왕봉(王鳳)¹⁸⁴⁾에게 이렇게 말했다.

175) 烏頭勞(uo-d'əu-lau):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다. Tarn(1938: 340-341)은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兄弟’를 뜻하는 adelphou를 옮긴 것이며, ‘왕의 형제’(adelphou tou basileus)이자 카불 지방의 통치자였던 Spalyris가 바로 烏頭勞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Daffinà(1982: 319)는 이러한 견해를 비판한 바 있다.

176) 關都尉: 秦代에 처음 두어졌다가 後漢代 초기에 폐지된 官名으로 주요한 關門에 배치된 職官이었다.

177) 容屈(iwong-k'iuət), 陰末赴(iəm-muət-p'iu): Tarn(1938: 340-343)은 容屈이 Yonaki 즉 ‘그리스인’을 뜻하고, 陰末赴는 Hermaeus를 음寫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카불 지방의 통치자였던 Spalyris[烏頭勞]가 한나라 사신들을 겁탈했었고 그가 사망한 뒤 아들 Spalagadames가 뒤를 이었는데, 文忠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인들의 수령’(容屈王) 즉 Amyntas의 아들인 Hermaeus(陰末赴)와 연맹하여 Kabul을 공격하여 Spalagadames를 죽인 뒤 Hermaeus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이다. Hermaeus는 인도 서북부를 통치한 마지막 그리스 군주로서 치세는 기원전 90~70년이었으며, 그의 치세에 주조된 銀貨는 전면에 王과 王女の 얼굴이 새겨져 있고, 배면에는 기마상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은 Ermaiou라고 표기되어 陰末赴와 매우 흡사하다.

178) 印綬: 綬는 도장에 달린 끈을 지칭하는데, 地位의 高下에 따라 그 색깔과 길이가 달랐다. 자세한 내용은 『後漢書』卷30「輿服志」참조.

179) 相失: 顏注: “서로 뜻이 어그러졌다는 의미이다.”

180) 琅當: 顏注: “琅當은 長鎖이니, 오늘날 사람을 묶는 사슬과 같은 것이다.”

181) 元帝: 治世 전48~전33년.

182) 成帝: 治世 전32~전7년.

183) 杜欽: 南陽 杜衍人. 杜延年의 아들, 字는 子夏. 한쪽 눈이 장님이었으나 어려서 經書를 좋아했다. 그는 大將軍 王鳳의 신임을 받고 그를 위해 자문을 했다. 또한 議郎에 拜受된 후 匈奴의 降臣을 조정에서 받아들이지 말 것을 건의하고(전28), 鬲賓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것(전25), 또한 西南夷의 하나인

다. “전에 계빈왕 음말부는 본시 한나라가 세운 사람인데 후에는 마침내 반역을 했습니다. 무릇 나라를 갖고 백성을 자식처럼 대하는 것보다 더 큰 덕은 없고, 사신을 붙잡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계빈이]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사신을] 주살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한나라에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 있어 군대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빈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비굴한 언사를 쓰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교만하고 방자하니, 결국 [한나라에] 진심으로 복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저 중국이 만이(蠻夷)와 통교하여 후대하고 그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까닭은 [서로] 토지가 가까워[壤比] 노략질당하기 때문입니다.¹⁸⁵⁾ 현재 현도의 막힘으로 인하여 계빈이 넘어올 수 없으니, 그들이 [한나라를] 향해서 흠모[鄉慕]¹⁸⁶⁾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서역을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추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서역의] 성곽(城郭)¹⁸⁷⁾을 위태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전에는 [계빈왕이] 직접 반역[逆節]하여 그 포악함이 서역에 드러나[暴],¹⁸⁸⁾ 그런 연유로 [한나라는] 절교하고 교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사람들을 보내] 왔지만 [왕의] 친속이나 귀족은 하나도 없고, 헌물을 바치는 자들은 모두 장사하는 천민들이며, 상품을 교환하고 장사를 하려고 할 뿐 헌납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입니다. 그러니 번거롭게 사신을 보내 현도까지 호송한다는 것은 실(實)을 잃고 기만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대저 사신을 보내 손님을 호송하는 것은 노략의 해를 입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사신들은] 피산의 남쪽부터 시작해서 한나라에 복속하지 않는 4~5개 나라를 지나갑니다[更].¹⁸⁹⁾ 척후를 서는 병사 백여 명이 밤을 다섯 [기간]으로 나누어¹⁹⁰⁾ 냄비[刀斗]¹⁹¹⁾를

夜郎에 대한 군사적 원정을 촉구했다.

184) 王鳳: 魏郡 元城(현재 河北 大名 동쪽)人. 字는 孝卿이며 元帝의 황후 王政君의 兄이었다. 永光 2년(전42) 부친의 뒤를 이어 陰平侯에 봉해졌고, 成帝 즉위 후에는 大司馬大將軍領尙書事에 임명되어 政치를 擅斷하였으니 王氏의 집권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185) 壤比: 顏注: “比는 近의 의미이다. 그 땅이 근접하여 약탈을 당하기 쉬웠다는 의미이다.”

186) 鄉慕: 顏注: “鄉은 嚮으로 읽어야 한다.”

187) 城郭: 顏注: “城郭은 西域諸國을 총칭하는 말이다.”

188) 暴: 顏注: “暴은 章露를 뜻한다.”

189) 更: 顏注: “漢나라에 속하지 않는 4~5나라를 지나간다.” 여기서 更은 ‘지나가다, 통과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史記』 권123의 “道必更匈奴”와 같은 표현).

190) 五分夜: 顏注: “밤에는 오경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지킨다는 의미이다.”

두드리며 스스로 경비하는데, 아직도 때로는 공격과 도적질을 당합니다. 나귀와 가축과 양식은 여러 나라에서 식량을 제공해 주어야 비로서 충족됩니다.¹⁹²⁾ [그러나] 나라가 빈약하고 작아서 식량을 대주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사나워서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며, 강력한 한나라의 절(節)을 갖고서도 산곡 사이에서 배를 굶고 구걸하여도 얻는 바가 없으니, 10~20일이 지나면 사람과 가축이 광야에 버려지고 귀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대두통(大頭痛)·소두통(小頭痛)의 산과, 적토(赤土)·신열(身熱)의 비탈길을 지나면, 사람들은 몸에서 열이 나고 창백해지며, 두통과 구토를 일으키니, 나귀와 가축이 모두 그러합니다. 또한 삼지(三池)¹⁹³⁾와 반석(盤石)¹⁹⁴⁾의 비탈길[阪]이 있는데, 길이 좁은 곳은 1척 6~7촌[의 폭]¹⁹⁵⁾이고 길이는 30리나 뻗어있습니다. 험악하고 측량할 수 없는 심연[崢嶸]¹⁹⁶⁾에 닿아 있어, 행인들은 말을 탄 사람이건 걷는 사람이건 서로 붙잡고 끈으로 서로 끌면서, 2천여 리를 지나서 비로서 현도에 도달합니다. 가축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골짜기 반도 내려가기 전에 모두 부서져 버리고,¹⁹⁷⁾ 사람이 추락하면 서로 거두고 살피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험하고 위태로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왕이 구주(九州)를 나누고 오복(五服)을 정한 것¹⁹⁸⁾은 안을

191) 刀斗: 『集解』: “孟康이 말하기를 ‘銅으로 鑊器를 만드는데 한 말(斗)을 담을 만한 크기이고, 낮에는 취사하고 밤에는 그것으로 두드리며 돌아다니는데, 이름하여 刀斗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荀悅은 ‘刀斗는 小鈴이며 宮中에서 사용하는 夜鈴과 같다.’라고 하였다. 蘇林은 ‘형태는 냄비(鑊) 같은데 銅으로 만들었고 테두리(緣)가 없으며 한 말을 담을 만한 크기이므로 刀斗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냄비(鑊)는 즉 鈴이다. 埤倉이 말하기를 ‘鑊는 溫器이니 지루(柄斗)가 있고 냄비(銚)처럼 테두리가 없는 것이다. 품은 焦이다.’라고 하였다.” 즉 刀斗(刁斗라고도 표기)는 銅으로 만든 三足形 그릇이며 1斗를 담을 정도의 크기. 낮에는 취사용으로 밤에는 두드리며 夜警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192) 稟食, 自贍: 顏注: “稟은 給의 뜻이고, 贍은 足하다는 뜻이다.”

193) 三池: 『魏書』卷102「西域傳」〈波知國條〉에 “波知國은 鉢和의 西南에 있다. 지방은 험소하고 주민은 가난하여, 山谷에 의지하여 살고 있으며 그 王은 능히 다 다스리지 못한다. 三池가 있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大池에는 龍王이 있고, 그 다음 [연못에는] 龍婦가 있으며 작은 것에는 龍子가 있어서, 行人이 그곳을 지날 때에는 제사를 바쳐야 지나가지 제사를 바치지 않으면 風雪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즉 三池란 波知國에 있는 세 연못인데, 波知는 Zebak(현재 아프가니스탄의 Badakhshan省 소재)로 비정되고 있다(桑山正進, 1992: 128).

194) 盤石의 비탈길: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파미르 협곡의 한 장소임은 분명하다.

195) 漢代의 1寸은 2.31cm이므로 1척 6~7촌은 40cm가 채 안 되는 셈이다.

196) 崢嶸: 顏注: “崢嶸은 깊고 험한 모양이다.”

197) 畜隊, 靡碎: 顏注: “隊는 墮의 뜻이고, 靡는 散이다.”

번성케 하려고 노력한 것이지 밖에서 구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신을 보내 지존하신 분의 명을 받들어 야만인 출신의 상인들을 호송케 하고, 많은 수의 장교와 사졸을 수고롭게 하여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해야 할 것 [즉 中國]을 피폐하게 하여 아무 쓸모없는 것 [즉 蠻夷]를 도모하는 것이니,¹⁹⁹⁾ 장구한 계획은 아닙니다. 사신은 이미 절(節)을 받았으니 피산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이에 왕봉은 [황제께] 아뢰어 두흙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계빈은 실제로 [조정의] 상사(賞賜)와 교역(賈市)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그 사신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왔다.

烏弋山離國，王去長安萬二千二百里。不屬都護。戶口勝兵，大國也。東北至都護治所六十日行，東與罽賓·北與撲挑·西與犁靬·條支接。行可百餘日，乃至條支。國臨西海，暑溼，田稻。有大鳥，卵如甕。人衆甚多，往往有小君長，安息役屬之，以爲外國。善眩。安息長老傳聞條支有弱水·西王母。亦未嘗見也。自條支乘水西行，可百餘日，近日所入云。烏弋地暑熱莽平，其草木·畜產·五穀·果菜·食飲·宮室·市列·錢貨·兵器·金珠之屬皆與罽賓同，而有桃拔·師子·犀牛。俗重妄殺。其錢獨文爲人頭。幕爲騎馬。以金銀飾杖。絕遠，漢使希至。自玉門·陽關出南道，歷鄯善而南行，至烏弋山離，南道極矣。

오익산리국(烏弋山離國).²⁰⁰⁾ 도읍(王)은이며²⁰¹⁾ 장안에서 12,200리 떨어져 있다.²⁰²⁾

198) 九州, 五服: 顔注: “九州는 冀·兗·豫·青·徐·荆·揚·梁·雍. 五服은 侯·甸·綏·要·荒이다.”

199) 罷弊所持以事無用: 顔注: “罷는 疲로 읽어야 한다. 所持는 中國의 주민을 가리키고, 無用은 遠方의 蠻夷의 나라를 지칭한다.”

200) 烏弋山離(uo-iäk-san-ljie): 이것이 Alexandria의 音譯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런 이름의 도시가 여럿 있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가리켰는가가 문제인데, Chavannes는 Alexandria in Ariois(Herat)를 지목했으나 Marquart는 Alexandria in Arachosia(Kandahar)로 생각했다. 일본의 白鳥庫吉은 Arachosia와 Drangiana, 藤田豊八은 Gaud-i-Zirreh로 비정했으나 수궁하기 어렵고, 松田壽男은 알렉산드리아의 音寫임은 인정하되 Kandahar가 아니라 Ghazni로 보았다. 한편 『後漢書』 卷88 「西域傳」에는 “皮山에서 서남쪽으로 가면 烏秣를 거치고 縣度를 건너게 되는데, 罽賓을 지나서 60여 일을 가면 烏弋山離國에 도착하는데, 사망이 수천 리이고 당시 排持라고 이름을 고쳤다.”라는 구절이 보여, 한때 排持(혹은 拜特으로 표기되기도 함)로 불렸던 사실을 알 수 있다. Chavannes는 『魏略』에 大秦의 수출품

도호에 복속해 있지 않으며, 호구와 병사가 [많고]²⁰³⁾ 대국이다. 동북쪽으로 60일 거리를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며,²⁰⁴⁾ 동으로는 계빈, 북으로는 박도(撲挑),²⁰⁵⁾ 서로는 이현(犁軒)²⁰⁶⁾ · 조지와 접한다. 백여 일 가면 조지에 이른다.²⁰⁷⁾ 나라는 서해에 임해 있으며 덩고 습하며 벼를 재배한다. 대조(大鳥)가 있고 알은 항아리[瓮]와 같다. 사람들이 무척 많으며, 때로는 군소의 군장(君長)들도 있다. 안식이 [조지를] 복속시키고 있으나 외국으로 여기고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마술[眩]에 능하다. 안식의 장로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조지에는 약수(弱水)와 서왕모(西王母)가 있다고 하나 아직 본 적은 없다.²⁰⁸⁾ 오익(烏弋) 지방은 덩고 풀로 덮인 평지이다.²⁰⁹⁾ 그 초목 · 축산 · 오곡 · 과채 · 음식 · 궁실 · 시장 · 전화(錢貨) · 무기 · 금주(金珠) 등은 모두 계빈과 동일하나, [별도로] 영양[桃拔]²¹⁰⁾ · 사자[師子]²¹¹⁾ · 물소

가운데 緋持布라는 직물이 언급된 것에 주목하면서, 여기서 緋持가 烏弋山離의 別稱인 緋持이고 그곳에서 생산된 布를 緋持布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추정했다(Hulsewé, 1979: 112; 松田壽男, 1971: 237-238; Daffinà, 1982: 319 등 참조).

- 201) 다른 나라들에 관한 서술구조로 볼 때 ‘王’ 다음에 ‘治……’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 202) 바로 다음에 烏弋山離는 동쪽으로 罽賓과 접하고 있다는 기사로 미루어볼 때, 長安으로부터의 里數가 罽賓과 동일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203) 원문에 ‘多’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 204) 烏弋山離에서 都護의 治所로 가려면 罽賓을 거쳐서 가야 한다. 그런데 罽賓國條에 罽賓에서 都護의 治所까지 “동북으로 6,840리”라는 기록이 보이므로, 이미 이것만으로도 60日行=6,000리가 넘는다.
- 205) 撲挑(p'uk-t'au): 판본에 따라 撲挑 · 濮達로 표기되기도 한다. Marquart는 이것을 헤로도투스가 언급한 Paktues족(Arachosia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종족)과 연관시켜 이해했으나, Chavannes는 차라리 Bactra (Balkh)에 비정하고자 했다. 한편 Pulleyblank는 이것이 프라크리트語의 Puskalavati를 옮긴 것으로 현재 Charsada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Charsada(혹은 Charsadda, Chahar Sada)는 현재 파키스탄 북부 페샤와르 부근에 있다. Daffinà(1982: 319-320)는 撲挑가 베다 경전에 나오는 Paktháh를 옮긴 것이며, 이는 결국 헤로도투스의 Paktues와 같고, 위치는 Gardez Province나 Kabul Valley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하였다.
- 206) 犁軒: 犁軒國條 참조.
- 207) ‘條支’에 관한 이하의 설명은 『史記』「大宛列傳」에 거의 그대로 보임.
- 208) 弱水: 顏注: “『玄中記』에 따르면 ‘昆侖의 弱水는 鴻毛도 띄울 수 없다’고 한다. 『爾雅』는 ‘觚竹 · 北戶 · 西王母 · 日下를 일컬어 四荒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弱水와 西王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大宛列傳」의 주석 참조.
- 209) 莽平: 顏注: “草莽이 있고 평탄한 것을 일컫는다. 혹자는 莽莽한 平野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

[犀牛] 등이 있다. 풍속은 함부로 살인하는 것을 엄중히 여긴다.²¹²⁾ 그 화폐의 정면에는 오로지 사람의 얼굴을 새기고, 배면에는 기마상을 새긴다. 지팡이[杖]²¹³⁾는 금으로 장식한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한나라의 사신이 오는 일이 드물다. 옥문·양관에서 남도로 나서서 선선을 거쳐 남행하면 오익산리에 이르게 되는데, 남도의 끝이다.

安息國，王治番兜城，去長安萬一千六百里。不屬都護。北與康居·東與烏弋山離·西與條支接。土地風氣，物類所有，民俗與烏弋·屬賓同。亦以銀爲錢，文獨爲王面，幕爲夫人面。王死輒更鑄錢。有大馬爵。其屬小大數百城，地方數千里，最大國也。臨媯水，商賈車船行旁國。書革，旁行爲書記。武帝始遣使至安息，王令將將二萬騎迎於東界。東界去王都數千里，行比至，過數十城，人民相屬。因發使隨漢使者來觀漢地，以大烏卵及犁軒眩人獻於漢，天子大說。安息東則大月氏。

안식국(安息國). 도읍은 번두성(番兜城)²¹⁴⁾이고, 장안에서 11,600리 떨어져 있으며²¹⁵⁾ 도호에 복속하지 않는다. 북으로는 강거, 동으로는 오익산리, 서로는 조지와 접한다. 토지, 기후, 물산, 민속 등은 오익·계빈과 동일하다. 역시 은으로 화폐를 만들고, 정면에는 오로지 왕의

210) 桃拔(d'au-b'wat): 孟康注: “桃拔은 一名 符拔이고 사슴과 비슷하나 꼬리가 길다. 뿔이 하나인 것은 天鹿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뿔이 둘인 것은 辟邪라고도 부른다.” 이 동물은 扶撥(pi-u-b'wat)이라고도 불렸으며 βούβαλις로 보는 견해도 있다(Hulsewé, 1979: 114-115).

211) 師子(si-tsi): 顏注: “師子是『爾雅』에서 말한 狻猊이다.” 師子和 狻猊(suân-ngiei)의 語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각각 토하라어에서 sisäk과 sarvanai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林梅村, 1998: 87-95; Schafer, 1963: 84-87).

212) 俗重妄殺: 顏注: “重은 難의 뜻이다. 그들이 仁愛하여 함부로 살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13) 杖: 顏注: “杖은 갖고 다니는 兵器를 뜻한다.”

214) 番兜(p'iwen-təu): 이미 Hirth가 지적했듯이 이 말은 Parthia를 음寫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後漢書集解』에 安息의 수도는 和禰(γua-d'uk)이며, 동쪽 변경지역에 木鹿(muk-luk)이라는 도시가 있고 小安息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和禰는 Hecatompylos를, 木鹿는 Muru 즉 현재의 Merv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Hulsewé, 1979: 115-116).

215) “장안에서 11,600리”라고 하면 장안에서 大月氏까지의 거리와 동일한 셈인데, 大月氏에서 서쪽으로 49日行하면 安息에 도달한다는 大月氏國條의 기록과 배치된다.

얼굴을, 배면에는 부인의 얼굴을 새긴다.²¹⁶⁾ 왕이 죽으면 다시 화폐를 주조한다. 큰 말과 큰 새[大馬爵]가 있다.²¹⁷⁾ 크고 작은 수백 개의 성이 거기에 속해 있으며, 영토는 수천 리이니 가장 큰 나라이다. 규수(媯水)²¹⁸⁾에 임해 있으며, 상인들이 수레와 선박으로 이웃 나라에 간다. 가죽에 글을 쓰고²¹⁹⁾ 횡서를 한다.²²⁰⁾ 무제가 처음 안식으로 사신을 보냈을 때, 왕은 2만 명의 기병을 동쪽 경계까지 보내서 [사신을] 맞이하도록 했다. 동쪽 경계는 왕도에서 수천 리 떨어져 있어 그곳까지 도착하려면 수십 개의 성을 지나고 주민들은 서로 연이어 있다. 한나라 사신을 따라서 사신을 파견하여 와서 한나라 땅을 보고, 대조(大鳥)의 알과 이현(犁軒)²²¹⁾의 마술사[眩人]를 한나라에 헌상하니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셨다.²²²⁾ 안식의 동쪽이 곧 대월지이다.

大月氏國，治監氏城，去長安萬一千六百里，不屬都護。戶十萬，口四十萬，勝兵十萬人。東至都護治所四千七百四十里，西至安息四十九日行，南與屬賓接。土地風氣，物類所有，民俗錢貨，與安息同。出一封橐駝。大月氏本行國也，隨畜移徙，與匈奴同俗。控弦十餘萬，故彊輕匈奴。本居敦煌·祁連間，至冒頓單于攻破月氏，而老上單于殺月氏，以其頭爲飲器，月氏乃遠去，過大宛，西擊大夏而臣之，都媯水北爲王庭。其餘小衆不能去者，保南山羌，號小月氏。大夏本無大君長，城邑往往置小長，

216) 파르티아 화폐의 正面에는 항상 왕의 초상이 있지만, 背面에는 통상 수염이 없는 弓士 혹은 女神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것을 보고 왕후의 모습으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217) 大馬爵: 『漢紀』나 『通典』에는 ‘大馬·大爵’으로 표기. 大爵의 목, 가슴, 몸통, 발굽은 낙타를 닮았고, 색깔은 푸른 빛이며, 고개를 들면 8-9尺(161~184cm)이고, 날개를 펴면 1丈(230cm)이 넘고, 밀을 먹는다고 한다.

218) 『大宛列傳』의 脚註참조.

219) 書革: ‘書’는 『史記』 「大宛列傳」처럼 ‘書’가 되어야 옳다. 다만 書는 劃(줄을 긋다, 표기하다)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220) 旁行: 顏注: “오늘날 西方의 胡國과 南方의 林邑 등은 모두 橫行으로 글을 쓰지, 아래 방향으로 내려 쓰지 않는다. 革은 가죽에서 부드럽지 않은 면을 말한다.”

221) 犁軒: 『史記』에는 ‘黎軒’으로 표기. 『大宛列傳』의 安息國條 참조.

222) 이 부분은 『大宛列傳』의 기록과 거의 흡사하다.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설명은 그곳의 주를 참조.

民弱畏戰，故月氏徙來，皆臣畜之，共稟漢使者。有五翎：一曰休密翎侯，治和墨城，去都護二千八百四十一里，去陽關七千八百二；二曰雙靡翎侯，治雙靡城，去都護三千七百四十一里，去陽關七千七百八十二；三曰貴霜翎治護深城，去都護五千九百四十里，去陽關七千九百八十二；四曰臍頓翎侯，治薄茅城，去都護五千九百六十二里，去陽關八千二百二；五曰高附翎侯，治高附城，去都護六千四十一里，去陽關九千二百八十三里。凡五翎侯，皆屬大月氏。

대월지국(大月氏國). 도읍은 감씨성(監氏城)²²³⁾이고, 장안에서 11,600리 떨어져 있다.²²⁴⁾ 도호에 복속하지 않으며, 호수는 10만, 인구는 40만, 병사는 10만 명이다. 동쪽으로 4,740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서쪽으로 49일 거리를 가면 안식에 이른다. 남으로 계빈에 접한다. 토지, 기후, 물산, 민속, 화폐는 안식과 동일하다. 단봉낙타가 나온다. 대월지는 본시 이동 생활을 하며 가축을 따라 옮겨다니고 흉노와 풍속이 같다.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10여만 명이어서, 그런 까닭에 강성함을 [민고]²²⁵⁾ 흉노를 가벼이 여겼다. 처음에 둔황과 기련 사이에 살았으나, 목특선우가 월지를 공파하고 노상선우가 월제왕을 죽여 그 머리로 술마시는 그릇을 삼기에 이르자, 이에 월지는 멀리 떠나 대완을 지나서 서쪽으로 대하를 공격하여 그들을 신하로 삼고, 규수의 북쪽에 왕정을 두었다. 그 나머지 [서쪽으로] 갈 수 없었던 소수의 무리는 남산의 강족에게 보호를 받으며 소월지라 불리운다. 대하에는 본디 대군장이 없었고 성읍들은 때때로 군소의 수령[小長]을 두었다. 주민들은 약해서 전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월지가 이주해 오자 모두 그에 신복하였다.²²⁶⁾ 그들은 모두 한나라 사신들에게 [물자를] 공급[稟]해 준다.

223) 監氏(kam-zie): ‘藍氏’ 혹은 ‘藍市’라고도 표기. Chavannes는 Badakhshan을, Tarn은 박트리아의 알렉산드리아를, Pulleyblank는 발흐 동쪽에 있는 Khulm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Hulsewé는 남부 타지키스탄에 있는 Garm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였다(Hulsewé 1979: 119).

224) 監氏城에서 捐毒國까지 17日半(1,750리)이고, 捐毒國에서 장안까지 9,860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문의 11,600리는 11,610리의 오류일지도 모른다.

225) 故疆: 「大宛列傳」에는 ‘故時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故特疆’의 오류이다. 위 본문의 ‘故疆’도 가운데恃를 삽입해야 할 것이다.

226) 이 내용은 한 명의 국왕이 통치하던 박트리아(大夏)와는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아마 박트리아가 북방에서 남하한 Asiani, Pasiiani, Tocharoi 등과 같은 유목집단에 의해 붕괴되어 여러 지방 세력으로

다섯 명의 흡후(翎侯)²²⁷가 있다. 첫째는 휴밀(休密)²²⁸ 흡후이고 도읍은 화묵성(和墨城)²²⁹이며, 도호에서 2,841리, 양관에서 7,802리 떨어져 있다. 둘째는 쌍미(雙靡)²³⁰ 흡후이고 도읍은 쌍미성(雙靡城)이며, 도호에서 3,741리, 양관에서 7,782리 떨어져 있다. 셋째는 귀상(貴霜)²³¹ 흡후이고 도읍은 호조성(護澡城)²³²이며, 도호에서 5,940리, 양관에서 7,982리 떨어져 있다. 넷째는 힐둔(胘頓)²³³ 흡후이고 도읍은 박모성(薄茅城)²³⁴이며, 도호에서 5,962리, 양관에서 8,202리 떨어져 있다. 다섯째는 고부(高附)²³⁵ 흡후이고 도읍은 고부성(高附城)이며, 도호에서 6,041리, 양관에서 9,283리 떨어져 있다. 대저 다섯 흡후는 모두 대월지에 복속해 있다.

나뉘어진 이후의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 227) ‘翎侯’는 “翎即翕字”라고 한 顔注처럼 ‘翕侯(xiap-g'u)’로 읽어야 할 것이다. Pulleyblank에 따르면 이 단어는 토하라어에서 ‘땅, 지방’을 뜻하는 yapoy 혹은 ype라는 말과 연관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학자들은 翕侯가 yabghu를 옮긴 말로 추정하고 있다(Hulsewé, 1979: 121). yabghu(葉護)는 shad(設, 噉)와 함께 돌궐제국 시대에 qaghan 다음의 고위 관칭호였다. 大月氏에 복속한 이 다섯 翕侯는 아무다리 남쪽에 위치하며, 동쪽의 Wakhan 계곡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Balkh에 이르기까지 點在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翕侯=yabghu의 어원에 대해서는 Frye(1962: 356-358) 참조.
- 228)) 休密(xiâu-miet): Marquart에 따르면 Wakhan 지방을 지칭한다. 이하 각 翎侯와 관련된 명칭과 그 위치에 관한 설명은 Hulsewé(1979: 121-123)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은 Daffinà(1982: 321-323)를 보시오.
- 229) 和墨(yuâ-mæk)城: Ptolemy의 『地理志』에 나오는 小部落 Komeda의 音譯으로 보인다.
- 230) 雙靡(şang-mjie): Chitral 지방으로 추정.
- 231) 貴霜(kjwei-şiang): Kushan의 音譯으로 추정.
- 232) 護澡(yuo-tsâu)城: Pulleyblank에 따르면 이 단어의 古音은 hwax-tsau로 Wakhshab를 음역한 것이고, 오늘날 아무다리 상류의 Wakhshu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
- 233) 胘頓(xiet-twæn): Panjshir 강가에 있는 Parwan으로 추정.
- 234) 薄茅(p'âk-mau)城: 余太山(2005: 124)은 이것이 薄第의 오류로 보고, Badakhshan 지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추정.
- 235) 高附(kâu-b'iu): Kabul의 音寫로 추정. 『後漢書』에는 다섯 번째 翕侯로 高附가 아니라 都密을 꼽았다. 王先謙도 大月氏가 高附를 장악한 것은 安息을 격파한 뒤의 일이니, 高附를 다섯 개의 翕侯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한 바 있다. Pulleyblank는 都密의 古音을 tah-milit로 복원하고 Tarmita를 옮긴 말이며 오늘날 Termez를 지칭한다고 추정했다.

康居國，王冬治樂越匿地，到卑闐城，去長安萬二千三百里，不屬都護，至越匿地馬行七日，至王夏所居蕃內九千一百四里，戶十二萬，口六十萬，勝兵十二萬人，東至都護治所五千五百五十里，與大月氏同俗，東羈事匈奴，宣帝時，匈奴乖亂，五單于並爭，漢擁立呼韓邪單于，而郅支單于怨望，殺漢使者，西阻康居，其後都護甘延壽·副校尉陳湯發戊己校尉西域諸國兵至康居，誅滅郅支單于，語在甘延壽·陳湯傳，是歲，元帝建昭三年也。至成帝時，康居遣子侍漢，貢獻，然自以絕遠，獨驕嫚，不肯與諸國相望，都護郭舜數上：「本匈奴盛時，非以兼有烏孫·康居故；及其稱臣妾，非以失二國也。漢雖皆受其質子，然三國內相輸遺，交通如故，亦相候司，見便則；合不能相親信，離不能相臣役。以今言之，結配烏孫竟未有益，反為中國生事，然烏孫既結在前，今與匈奴俱稱臣，義不可距。而康居驕黠，訖不肯拜使者，都護吏至其國，坐之烏孫諸使下，王及貴人先飲食已，乃飲啗都護吏，故為無所省以夸旁國。以此度之，何故遣子入侍？其欲賈市為好，辭之詐也。匈奴百蠻大國，今事漢甚備，聞康居不拜，且使單于有自下之意，宜歸其侍子，絕勿復使，以章漢家不通無禮之國。敦煌·酒泉小郡及南道八國，給使者往來人馬驢橐駝食，皆苦之。空罷耗所過，送迎驕黠絕遠之國，非至計也。」漢為其新通，重致遠人，終羈縻而未絕。

강거국(康居國).²³⁶⁾ 겨울의 도읍은 낙월익(樂越匿)²³⁷⁾ 지방이다. 비전성(卑闐城)²³⁸⁾까지는²³⁹⁾이고, 장안에서 12,300리 떨어져 있다. 도호에 복속하지 않는다. 월익(越匿) 지방까지

236) 康居에 대해서는 「大宛列傳」康居國條 참조.

237) 樂越匿: 사본에 따라 ‘樂越匿’으로도 표기. 그러나 樂은 衍字이고, 匿이 정확한 표기로 추정. Pelliot에 따르면 越匿(jiwət-niak)은 隋唐代 문헌에 보이는 越諾과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Hulsewé, 1979: 124-125). Laufer는 開元 연간(713~741)에 康國에서 보내온 물품 가운데 越諾布가 포함되어 있었고, 『宋史』에서 越諾은 아랍인들의 수출품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越과 諾은 각각 ‘비단 직물’을 뜻하는 vala와 nak이라는 단어를 옮긴 것으로 추정했다(Laufer, 1919: 493-496).

238) 卑闐(pjiə-d'ien): 『漢書』卷70 「陳湯傳」에 “溫宿國을 출발하여 北道를 따라 赤谷에 들어가고, 烏孫을 지나 康居의 경계를 지나면 闐池의 西쪽에 이르게 된다.”라는 구절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康居 변경 지역에 闐池라는 호수가 있고 卑闐도 그 부근의 도시일 것으로 추정된다.

239) 문장에 脫字이 있는 듯하다.

말을 타고 7일 거리이며, 왕의 여름 거처가 있는 영내[蕃內]²⁴⁰⁾까지는 9,104리이다. 호수는 12만, 인구는 60만, 병사는 12만 명이다. 동쪽으로 5,550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른다. 대월지와 풍속이 같고, 동쪽으로 흉노의 견제를 받고 있다. 선제(宣帝) 때에 흉노에 난리가 벌어져²⁴¹⁾ 오선우(五單于)²⁴²⁾가 쟁립했다. 한나라가 호한야(呼韓邪)를 응립하자, 질지(郅支)선우는 원망을 품고 한나라 사신을 살해하고 서쪽으로 강거[와의 교통]를 막았다. 그 후 도호 감연수(甘延壽)²⁴³⁾ 부교위(副校尉) 진탕(陳湯)²⁴⁴⁾이 무기교위와 서역제국의 병사를 보내어 강거에 이르러 질지선우를 주살했는데, 그 이야기는 감연수전과 진탕전에 나와 있다. 그 해는 원제(元帝) 건소(建昭) 3년(전36)이었다. 성제 때에 이르러 강거가 아들을 보내 한나라에 근시케 하고 공물을 바쳤다. 그러나 스스로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여 홀로 교만하여 다른 나라들처럼 [한나라와의] 관계를 갖기를 원치 않았다. 도호 관순(郭舜)²⁴⁵⁾은 여러 차례 황상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본디 흉노가 강성했을 때 그것은 오손과 강거의 고토를

240) 蕃內: 이 단어를 뜻으로 새겨서 ‘蕃國의 領內’로 본다면 “왕의 여름 거처는 나라의 영내에 있으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고유명사(古語는 b'iwen-nâp)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Herrmann은 蕃內를 파르티아 북부에 있는 Parni로 추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왕은 매년 겨울에 출고 여름에 더우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한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顏注가 보인다.

241) 기원전 60년에 일어난 흉노의 내분과 五單于의 쟁립에 대해서는 前註 참조.

242) 五單于: 즉 呼韓邪單于, 屠耆單于(日逐王 薄胥堂), 呼揭單于(呼揭王), 車犁單于(莫鞮王), 烏籍單于(烏籍都尉).

243) 甘延壽: 『漢書』卷70에 立傳. 北地 郁郅(현재 甘肅 慶陽)人. 字는 君況. 어려서 騎射에 능숙하여 羽林이 되고 期門이 되었다가 遼東太守로 승진했으며, 후에 西域都護·騎都尉가 되었다. 元帝 建昭 3년(전36)에, 西域副校尉 陳湯과 함께 矯制하여 서역의 城郭諸國兵과 車師戊己校尉屯田의 吏士들을 징발하여 康居로 진격하여 匈奴의 郅支單于를 살해하였다. 義成侯에 봉해졌고, 후에 長水校尉, 城門校尉, 護軍校尉 등을 역임했으며, 전25년 사망하였다.

244) 陳湯: 『漢書』卷70에 立傳. 山陽 瑕丘(현재 山東 兗州 東北)人. 字는 子公. 元帝 때 郎이 되었고 여러 차례 사신으로 외국에 파견되었다. 당시 흉노의 郅支單于가 康居를 복속시키고 烏孫·大宛 등을 공략하자, 建昭 3년(전36) 矯制하여 甘延壽와 함께 康居로 진격하여 郅支를 주살했다. 關內侯에 봉해졌고 射威校尉에 임명되었다. 成帝 초에 승상 匡衡이 그가 과거에 矯制하여 出征한 것과 康居의 財物을 私取한 것을 彈劾하여 免職되었다. 또한 그는 康居에서 보낸 侍子가 왕의 實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實子임이 밝혀진 일도 있었다. 鴻嘉 2년(전19) 成帝가 昌陵을 廢罷하는 조칙을 내렸을 때 오히려 徙民實陵을 주장하다가 탄핵을 받아 庶人으로 강등되었으며, 전6년에 사망했다.

245) 郭舜: 永始 2년(전15)에서 元延元年(전12)까지 西域都護를 역임했다. 『漢書』卷70에 “郭舜은 청렴하고 공평한 것으로 유명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모두 겸병했기 때문이 아니며, 그들이 [한나라에] 신첩(臣妾)이라고 칭했을 때에도 그 두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라가 비록 그들 모두로부터 질자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세 나라는 내적으로 서로 물자를 주고받으며 전과 마찬가지로 교통하고 있고, 또한 서로 틈을 살피다가 적절한 기회가 오면 공격합니다. 그들은 연합해도 서로 믿지 못하고, 떨어져도 서로 복속케 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말하자면 오손과 혼인을 통한 결연은 끝내 유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중국에 어려움만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손은 과거에 이미 결연을 맺었고, 지금 흉노와 함께 칭신을 하니, 도의상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거는 교만하고 간사하여 끝내²⁴⁶⁾ [한나라] 사신을 받들려 하지 않습니다. 도호의 관리가 그 나라에 도착하면 오손과 여러 [나라의] 사신들보다 더 아랫자리에 앉히고, 왕과 귀족들이 먼저 먹고 마시기를 다한 연후에 도호의 관리에게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눈치보면서] 살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웃나라에게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은 무슨 연유로 아들을 보내 입시(入侍)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교역을 위하여 그럴싸한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흉노는 수많은 야만인들 가운데 대국²⁴⁷⁾인데도 오늘날 한나라를 모시는 것이 심히 예절을 갖추었는데,²⁴⁸⁾ 강거가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는다면 이는 선우로 하여금 스스로 비하의 느낌을 갖게 할 것이니,²⁴⁹⁾ 마땅히 [강거의] 질자를 돌려보내고 관계를 단절하여 다시는 사신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한나라 황실[漢家]이 무례한 나라와는 통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줘야 합니다. 둔황·주천 등의 작은 군들과 남도(南道)의 여덟 나라는 사신과 왕래하는 사람·말·나귀·낙타에게 식량을 공급하느라 모두들 고생을 합니다. 경유하는 곳들은 고갈되고 소모되니, [이렇게 해서] 교만하고 간사한 아주 먼 나라 [사신들]을 영접하고 배웅하는 것은 온당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라는 [강거와의 관계가] 새로 열렸다는 점²⁵⁰⁾을 고려하고 또 먼 곳의 사람들을 초치하는 것을 중시하여,

246) 顔注: “詔은 竟의 뜻이다.”

247) 百蠻大國: 顔注: “百蠻 가운데 가장 大國이라는 의미이다.”

248) 前51年 呼韓邪의 入朝稱臣을 일컫는 내용.

249) 顔注: “單于는 康居가 漢을 모시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康居)은 높아지고 자신은 漢를 모심으로 크게 낮아지니, [이제까지 漢에 대해서 품던] 생각을 바꾸려 한다는 의미이다.”

250) 康居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두절되었다가 成帝 때에 侍子를 보냄으로써 관계가 회복된 사실을 일컫는 내용이다.

끝내 기미[로써 견제]할 뿐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다.

其康居西北可二千里，有奄蔡國。控弦者十餘萬(大)[人]。與康居同俗。臨大澤，無崖，蓋北海云。康居有小王：一曰蘇籬王，治蘇籬城，去都護五千七百七十六里，去陽關八千二十五；二曰附墨王，治附墨城，去都護五千七百六十七里，去陽關八千二十五；三曰窳匿王，治窳匿城，去都護五千二百六十六里，去陽關七千五百二十五；四曰屬王，治屬城，去都護六千二百九十六里，去陽關八千五百五十五；五曰奧鞬王，治奧鞬城，去都護六千九百六里，去陽關八千三百五十五里。凡五王，屬康居。

그 강거의 서북쪽으로 대략 2천리 가면 엄채국(奄蔡國)²⁵¹⁾이 있다.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10여만 명이다. 강거와 풍속이 동일하다. 대택(大澤)에 임해 있는데, 끝이 없이 [넓어서] 그것이 곧 북해(北海)라고 부르는 것인 듯하다. 강거에는 소왕(小王) 다섯 명이 있다. 첫째는 소해왕(蘇籬王)²⁵²⁾인데 도읍은 소해성(蘇籬城)이고, 도호에서 5,767리, 양관에서는 8,025리 떨어져 있다. 둘째는 부묵왕(附墨王)²⁵³⁾인데 도읍은 부묵성(附墨城)이고, 도호에서 5,767리, 양관에서 8,025리 떨어져 있다. 셋째는 유익왕(窳匿王)²⁵⁴⁾인데 도읍은 유익성(窳匿城)이고,

251) 奄蔡: 「大宛列傳」奄蔡國條 참조.

252) 蘇籬(suo-yai): 蘇薤로도 표기. 『晉書』卷97 康居國條에 “康居國은 大宛의 西北으로 대략 二千里되는 곳에 있고, 粟弋·伊列 등과 鄰接하고 있다. 그 왕은 蘇薤城에 살고 있다.”는 기록이 보이며, 『新唐書』卷221下에는 “史[國]은 佉沙 혹은 羯霜那라고도 불리며, 獨莫水 南쪽에 康居小王의 蘇薤城 故地가 있던 곳이다.”라는 기사가 있다. Pulleyblank는 蘇籬가 Soghd를 音寫한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Kesh에 해당된다고 추정했고, Hulsewé(1979: 130)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Daffinà(1982: 323-324)는 이 같은 설을 비판하면서 蘇籬가 康居의 거주지인 Chu河, Talas河, 시르다리아 중류 지역에 위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53) 附墨(b'iu-mək): 『新唐書』卷221下에 “何[國]은 屈霜你迦 혹은 貴霜匿이라고도 불리며, 康居小王의 附墨城 故地가 있던 곳이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屈霜你迦/貴霜匿은 Kushaniya를 옮긴 말이며, 사마르칸드에서 서북쪽으로 12 farsakh 떨어진 곳에 있다(Barthold, 1977: 95).

254) 窳匿(iu-niak): 『新唐書』卷221下에 “石[國]은 柘支·柘折·緒時라고도 불리우며…… 도읍은 柘折城인데 康居小王 窳匿城의 故地이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또한 우측으로는 素葉(Suyab)河가 있고, 서남쪽으로는 藥殺(Jaxartes)水가 있었다고 한다. 柘支 등은 Chach 혹은 Chash를 音寫한 것으로 오늘날 타슈

도호에서 5,266리, 양관에서 7,525리 떨어져 있다. 넷째는 계왕(闕王)²⁵⁵인데 도읍은 계성(闕城)이고, 도호에서 6,296리, 양관에서 8,555리 떨어져 있다. 다섯째는 옥견왕(奧鞬王)²⁵⁶인데 도읍은 옥견성(奧鞬城)이고, 도호에서 6,906리, 양관에서 8,355리 떨어져 있다. 대체로 이 다섯 왕은 강거에 복속해 있다.

大宛國，王治貴山城，去長安萬二千(二)[五]百五十里。戶六萬，口三十萬，勝兵六萬人。副王，輔國王各一人。東至都護治所四千三十一里，北至康居卑闐城千五百一十里，西南至大月氏六百九十里。北與康居·南與大月氏接，土地風氣物類民俗與大月氏·安息同。大宛左右以蒲陶爲酒，富人藏酒至萬餘石，久者至數十歲不敗。俗耆酒，馬者目宿。宛別邑七十餘城，多善馬。馬汗血，言其先天馬子也。張騫始爲武帝言之，上遣使者持千金及金馬，以請宛善馬。宛王以漢絕遠，大兵不能至，愛其寶馬不肯與。漢使妄言，宛遂攻殺漢使，取其財物。於是天子遣貳師將軍李廣利將兵前後十餘萬人伐宛，連四年。宛人斬其王毋寡首，獻馬三千匹，漢軍乃還，語在張騫傳。貳師既斬宛王，更立貴人素遇漢善者名昧蔡爲宛王。後歲餘，宛貴人以爲昧蔡(言闕)，使我國遇屠，相與(兵)[共]殺昧蔡，立毋寡弟蟬封爲王，遣子入侍，質於漢，漢因使使賂賜鎮撫之。又發(數)[使]十餘輩，抵宛西諸國求(其)[奇]物，因風諭以(代)[伐]宛之威。宛王蟬封與漢約，歲獻天馬二匹。漢使采蒲陶·目宿種歸。天子以天馬多，又外國使來衆，益種蒲陶·目宿離宮館旁，極望焉。

켄트에 해당한다.

255) 闕(kiäi): 『新唐書』卷221下에 “安[國]이란 布豁·捕喝이라고도 칭하며, 元魏 때의 靺鞨이다. …… 西쪽으로 烏澹[Oxus]河에 접해 있고, 도읍은 阿濫謐城인데 康居小君長 闕王의 故地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布豁·捕喝은 Bukhara를 옮긴 말이다. 그러나 Pulleyblank는 闕가 고대 Khwarezmia의 수도였던 Kath를 音寫한 것으로 추정했다.

256) 奧鞬(âu-kien): 『新唐書』卷221下에 “火尋은 貨利習彌·過利라고도 칭하며 烏澹水 북쪽에 위치해 있다. 東南으로 六百里 떨어진 곳에 戊地가 있고, 西南으로는 波斯와 접하고 있으며, 西北으로는 突厥의 曷薩과 닿아 있다. 즉 康居小王의 奧鞬城 故地이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貨利習彌는 Khwarezm을 옮긴 말이다. 匈奴의 高官으로 左右 奧鞬王이 있었는데, 동일한 語源인지는 불분명하다.

대완국(大宛國).²⁵⁷⁾ 도읍은 귀산성(貴山城)²⁵⁸⁾이고 장안에서 12,55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6만, 인구는 30만, 병사는 6만 명이다. 부왕(副王)·보국왕(輔國王)이 각각 1명씩 있다. 동쪽으로 4,031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북쪽으로 1,510리 가면 강거의 비전성에 이르며, 서남으로 690리 가면 대월지에 이른다. 북으로 강거, 남으로 대월지와 접해 있다. 토지, 풍토, 물산, 민속은 대월지·안식과 동일하다. 대완의 좌우(즉 동서)는 포도로 술을 만들고, 부자는 술을 보관하는 것이 만 석이 넘을 정도이며, 오래 묵은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들의 풍속은 술을 좋아하고, 말은 목숙(目宿)을 좋아한다. 대완에 속하는 별도의 읍으로 70여 개의 성이 있는데, 선마가 많고 말은 한혈마이며, 그 조상이 천마(天馬)의 자식이라고 말한다.²⁵⁹⁾ 장건이 처음으로 무제에게 그에 관해서 말하자 황상께서는 사신에게 천금(千金)과 금마(金馬)를 들려서 보내어 대완의 선마를 요청했다. 대완의 왕은 한나라가 극히 멀어서 대군이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보마(寶馬)를 아껴 주려고 하지 않았다. 한나라 사신이 왕을 매도[妄言]하자,²⁶⁰⁾ 대완은 마침내 한나라 사신을 공격하여 죽이고 그 재물을 취하였다. 이에 천자께서는 이사장군 이광리를 보내 전후 10여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대완을 정벌토록 했으니 [원정은] 4년이나 계속되었다. 대완 사람들은 그 왕 무과(毋寡)의 머리를 베고 말 3천 필을 헌납하자 한나라 군대가 비로서 귀환하였으니, 그 이야기는 장건전에 나와 있다. 이사가 대완왕을 참수하고 나서 평소 한나라에게 잘해 주던 매채(昧蔡)라는 이름의 귀족을 그 대신 대완왕으로 옹립했다. 1년여 지난 뒤 대완의 귀족들은 매채가 [한나라에] 아부를 해서 “우리 나라가 도륙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서로 짜서 매채를 죽이고, 무과의 동생인 선봉(蟬封)을 대완왕으로 세우고는, 그 아들을 한나라에 입시(入侍)시켜 인질로 보냈다. 이로 인해 한나라는 사신을 보내 하사품을 주고 그곳을 진무하였다. 또한 10여 차례 사신단을 보내 대완 서쪽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여, 진기한 물건을 구하고 대완을 정벌한 위덕을 과시[風諭]하였다.²⁶¹⁾ 대완왕 선봉(蟬封)은 한나라와 약조를 맺고 매년 천마 2필을

257) 大宛國에 관한 내용은 『史記』 「大宛列傳」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註釋을 참조하십시오.

258) 貴山(kjwei-sǎn): 月氏가 복속시킨 다섯 翁侯 가운데 하나인 貴霜과 어원적으로 동일하며 모두 Kushan/Kushaniya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Kushaniya는 사마르칸드에서 서북쪽에 위치.

259) 天馬에 관해서는 「大宛列傳」의 관련 주석 참조.

260) 顏注: “大宛王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뜻이다.”

헌상하기로 하였다. 한나라 사신은 포도·목숙의 종자를 갖고 돌아왔다. 천자는 천마가 많고 또 외국의 사신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포도와 목숙²⁶²⁾을 이궁(離宮)과 별관(別館) 옆에 더욱 많이 재배하여 끝이 없을 정도였다.

自宛以西至安息國，雖頗異言，然大同，自相曉知也。其人皆深目，多須髯。善賈市，爭分銖。貴女；女子所言，丈夫乃決正。其地(皆)[無]絲漆，不知鑄鐵器。及漢使亡卒降，教鑄作它兵器。得漢黃白金，輒以爲器，不用爲幣。自烏孫以西至安息，近匈奴。匈奴嘗困月氏，故匈奴使持單于一信到國，國傳送食，不敢留苦。及至漢使，非出幣物不得食，不市畜不得騎，所以然者，以遠漢，而漢多財物，故必市乃得所欲。及呼韓邪單于朝漢，後咸尊漢矣。

대완의 서쪽에서 안식국에 이르기까지 비록 언어는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도 대체로 비슷하며, 서로 깨달아 이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눈이 깊고 수염이 많으며, 장사에 능하고 사소한 액수[分銖]²⁶³⁾를 두고도 다툰다. 여자를 귀히 여기니, 여자가 말하면 남편은 곧 그것에 따라 결정한다. 그 땅에는 비단과 옷[絲漆]이 없으며 철기를 주조할 줄 모른다. 한나라의 사신이 도망치거나 병졸들이 투항하면 그들을 시켜 [자신들이 사용하는 것과] 다른 병기를 주조하여 만들게 한다.²⁶⁴⁾ 한나라의 황금과 백금을 구하면 자주 그릇을 만드나 화폐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손의 서쪽에서 안식에 이르기까지는 흉노와 가깝고, 흉노는 일찍이 월지를 괴롭힌 적이 있어서, 흉노의 사신이 선우의 신표 하나를 들고 가면 그 나라는 음식을 보내주고 감히 붙잡아 두고 괴롭히지 못한다. 그런데 한나라 사신이 도착할 경우 폐물(幣物)을 내놓지 않으면 음식을 얻을 수 없고 가축을 사지 않으면 탈 것을 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까닭은

261) 顏注: “風은 飄으로 읽는다.”

262) 目宿: 顏注: “현재 北道の 諸州, 즉 예전의 安定·北地의 변경에는 종종 目宿이 있는데 이는 모두 漢나라 때에 심은 것이다.”

263) 銖는 漢代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0.64g에 해당. ‘五銖錢’의 경우처럼 화폐의 단위를 나타내기도 했다.

264) 顏注: “漢使로서 그 나라에 가거나 혹은 도주한 兵卒이 그 나라에 투항한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뜻이다.”

한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재물은 많아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필시 구매를 해서 얻기 때문이다. 호한야 선우가 한나라에 입조한 뒤로 모두 한나라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桃槐國，王去長安萬一千八十里。戶七百，口五千，勝兵千人。

도괴국(桃槐國).²⁶⁵⁾ 도읍은 ...이고 장안에서 11,08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700, 인구는 5,000, 병사는 1,000명이다.

休循國，王治鳥飛谷，在葱嶺西，去長安萬二百一十里，戶三百五十八，口千三十，勝兵四百八十人，東至都護治所三千一百二十一里，至捐毒衍敦谷二百六十里，西北至大宛國九百二十里，西至大月氏千六百一十里。民俗衣服類烏孫，因畜隨水草，本故塞種也。

휴순국(休循國).²⁶⁶⁾ 도읍은 조비곡(鳥飛谷)²⁶⁷⁾이고 총령의 서쪽에 있으며, 장안에서 10,21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358, 인구는 1,030, 병사는 480명이다. 동쪽으로 3,121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연독(捐毒)의 연돈곡(衍敦谷)까지는 260리이다. 서북으로 920리 가면 대완국에 이르고, 서쪽으로 1,610리 가면 대월지에 이른다. 민속과 의복은 오손과 비슷하며, 가축을 몰고 수초를 따라 다니며, 본시 색(塞) 종족이다.

265) 桃槐(d'âu-yuài): 『新唐書』卷43下에 서역의 月支都督府 휘하에 桃槐州라는 羈縻州가 두어졌고 거기에 阿臘城이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266) 休循(xiū-zuēn): 『後漢紀』에는 休修로 표기. 『水經注』에는 西水라는 강이 捐毒에서 시작되어 休循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 難兜로 흘러간다는 기록이 보인다. Chavannes는 이곳을 카슈가르와 오쉬(Osh) 사이에 있는 Irkeshtam으로 보았다. 반면 松田壽男은 捐毒을 Irkeshtam으로 보고, 休循은 Alai 산지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Hulsewé, 1979: 138).

267) 鳥飛谷: 『新唐書』卷221下에는 顯慶年間(656~660)에 護密[Wakhan] 지방에 鳥飛州를 설치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捐毒國，王治衍敦谷，去長安九千八百六十里。戶三百八十，口千一百，勝兵五百人。東至都護治所二千八百六十一里。至疏勒。南與葱嶺屬，無人民。西上葱嶺，則休循也。西北至大宛千三十里，北與烏孫接。衣服類烏孫，隨水草，依葱嶺，本塞種也。

연독국(捐毒國).²⁶⁸⁾ 도읍은 연둔곡(衍敦谷)이고 장안에서 9,86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380, 인구는 1,100, 병사는 500명이다. 동쪽으로 2,861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른다. 소륙까지는 ...²⁶⁹⁾ 남으로 총령과 접해[屬]²⁷⁰⁾ 있고 주민이 없다. 서쪽으로 총령을 오르면 곧 휴순이다. 서북쪽으로 1,030리 가면 대완에 이르며, 북으로는 오손과 접해 있다. 의복은 오손과 유사하며, 수초를 따라다닌다. 총령에 의지해 있으며 본시 색 종족이다.

莎車國，王治莎車城，去長安九千九百五十里。戶二千三百三十九，口萬六千三百七十三，勝兵三千四十九人。輔國侯·左右將·左右騎君·備西夜君各一人，都尉二人，譯長四人。東北至都護治所四千七百四十六里，西至疏勒五百六十里，西南至蒲犁七百四十里。有鐵山，出青玉。宣帝時，烏孫公主小子萬年，莎車王愛之。莎車王無子死，死時萬年在漢。莎車國人計欲自託於漢，又欲得烏孫心，即上書請萬年爲莎車王。漢許之，遣使者奚充國送萬年。萬年初立，暴惡，國人不說。莎車王弟呼屠微殺萬年，并殺漢使者，自立爲王，約諸國背漢。會衛候馮奉世使送大宛客，即以便宜發諸國兵擊殺之，更立它昆弟子爲莎車王。還，拜奉世爲光祿大夫。是歲，元康元年也。

사차국(莎車國).²⁷¹⁾ 도읍은 사차성(莎車城)이고, 장안에서 9,95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2,339, 인구는 16,373, 병사는 3,049명이다. 보국후·좌장·우장·좌기군·우기군·비서야군

268) 顏注: “捐毒은 곧 身毒·天篤이며 본디 하나의 명칭이나, 발음의 輕重 차이일 뿐이다.”

269) 원문 누락.

270) 顏注: “屬은 聯의 뜻이다.”

271) 莎車(sua-ts'ia): 莎車는 Saka語 地名인 swâ-kio를 음사한 것으로 보인다(Daffinà, 1982: 325-326). 현재 莎車縣 즉 Yarkand 부근으로 추정된다.

(備西夜君)²⁷²⁾이 각각 1명씩 있고, 도위가 2명, 역장이 4명 있다. 동북으로 4,746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서쪽으로 560리 가면 소룩에 이르며, 서남쪽으로 740리 가면 포리(蒲犁)에 이른다. 철산(鐵山)이 있고 청옥(靑玉)이 난다. 선제 때에 오손공주의 어린 아들 만년(萬年)이 있었는데, 사차왕이 그를 총애했다. 사차왕이 아들 없이 사망했는데, 죽을 당시 만년은 한나라에 있었다. 사차국 사람들이 스스로 한나라에 의탁할 생각을 갖고, 또 오손의 환심을 살 생각으로, [황제에게] 글을 올려 만년을 사차왕으로 해달라고 청원했다. 한나라가 이를 허락하여 사신 해충국(奚充國)으로 하여금 만년을 호송케 하였다. 만년이 즉위하자 처음부터 포악하여 국인들이 기뻐하지 않았다. 사차왕의 동생 호도징(呼屠徵)이 만년을 살해하고 아울러 한나라 사신도 죽인 뒤 스스로 왕이 되고, 여러 나라들과 맹약하여 한나라를 배신하였다. 위후(衛候) 풍봉세(馮奉世)가 대완의 손님을 호송하러 사신으로 갈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여러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호도징을] 격살하고, 그의 형제의 아들을 사차왕으로 대신 옹립하였다.²⁷³⁾ 풍봉세는 귀환하여 광록대부(光祿大夫)에 배수되었다. 그해는 원강(元康) 원년(전65)이었다.

疏勒國，王治疏勒城，去長安九千三百五十里。戶千五百一十，口萬八千六百四十七，勝兵二千人。疏勒侯·擊胡侯·輔國侯·都尉·左右將·左右騎君·左右譯長各一人。東至都護治所二千二百一十里，南至莎車五百六十里。有市列，西當大月氏·大宛·康居道也。

소룩국(疏勒國).²⁷⁴⁾ 도읍은 소룩성(疏勒城)이고 장안에서 9,35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272) ‘西夜’에 관해서는 西夜國條 참조.

273) 이 사건은 『漢書』 卷79 「馮奉世傳」에도 설명되어 있다. 즉 그가 大宛에 사신으로 떠나 伊脩城에 이르렀을 때, 莎車가 萬年과 漢使 奚充國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때 莎車는 北道の 諸國이 모두 匈奴에게 복속했다고 선전하면서 南道를 공격하고 反漢聯盟을 도모하자 鄯善 以西의 지역이 모두 한나라와 두절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시 西域都護 鄭吉은 北道の 일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馮奉世는 南北道の 여러 도시에서 15,000명의 병사를 징발하여 莎車를 습격, 그 성곽을 함락시키자 莎車王은 自殺하고 그 머리를 長安으로 보냈다.

274) 疏勒(siwolək): ‘疏勒’이라고도 표기되며 漢代부터 唐代까지 Kashghar[喀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宣帝 神爵 2년(전60) 처음으로 西域都護에 예속했고, 後漢 초기에는 莎車·于闐 등에 속했다

1,510, 인구는 18,647, 병사는 2,000명이다. 소룩후(疏勒侯)·격호후(擊胡侯)·보국후·도위·좌장·우장·좌기군·우기군·좌역장·우역장 각각 1명씩 있다. 동쪽으로 2,210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남쪽으로 560리 가면 사차에 이른다. 시장이 있고, 서쪽으로 대월지·대완·강거로 가는 대도에 접해 있다.

尉頭國，王治尉頭谷，去長安八千六百五十里。戶三百，口二千三百，勝兵八百人。左右都尉各一人，左右騎君各一人。東至都護治所千四百一十一里，南與疏勒接，山道不通，西至捐毒千三百一十四里，徑道馬行二日。田畜隨水草，衣服類烏孫。

위두국(尉頭國).²⁷⁵⁾ 도읍은 위두곡(尉頭谷)이고, 장안에서 8,65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300, 인구는 2,300, 병사는 800명이다. 좌도위·우도위 각 1명, 좌기군·우기군 각 1명씩 있다. 동쪽으로 1,411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남으로는 소룩과 접하지만, 산길이라서 통하지 않는다. 서쪽으로 1,314리 가면 연독국에 이르며, 지름길로 말을 타고 가면 이틀 걸린다. 가축을 치고 수초를 따라 다니며, 의복은 오손과 비슷하다.

烏孫國，大昆彌治赤谷城，去長安八千九百里。戶十二萬，口六十三萬，勝兵十八萬八千八百人。相，大祿，左右大將二人，侯三人，大將·都尉各一人，大監二人，大吏一人，舍中大吏二人，騎君一人。東至都護治所千七百二十一里，西至康居蕃內地

가 후에 다시 자립했다.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에서 처음으로 ‘카쉬가르’라는 음을 나타낸 伽師祇離라는 표기가 보인다. 그러나 慧超는 이 도시를 佉沙라고도 표기했다. 카쉬가르라는 도시가 ‘카쉬(Kash)로도 불렸던 것은 한문 자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魏略』의 竭石, 法顯 『佛國記』의 竭叉 등), 투르판에서 출토된 중세 이란어 문서와 소그드 문헌에도 그 같은 용례가 확인된다. 桑山正進은 다양한 언어 문헌에 Kash의 용례를 조사한 결과, Kash가 Kashghar의 축약형이 아니라 원래의 명칭이 Kash였고 거기에 ghar라는 요소가 첨가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종래 Bailey의 가설에 찬동했다. 그러나 kash와 ghar라는 개별 요소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는 실정이다(桑山正進, 1992: 184-186).

275) 尉頭(jwei-d'au): 일반적으로 악수 북방에 있는 Ush[烏什]로 추정되지만, Chavannes는 Ush 부근의 Safyr bay로 비정하였다.

五千里。地莽平。多雨，寒。山多松栢。不田作種樹，隨畜逐水草，與匈奴同俗。國多馬，富人至四五千匹。民剛惡，貪(狼)[狼]無信，多寇盜，最爲疆國。故服匈奴，後盛大，取羈屬，不肯往朝會。東與匈奴·西北與康居·西與大宛·南與城郭諸國相接。本塞地也，大月氏西破走塞王，塞王南越縣度，大月氏居其地。後烏孫昆莫擊破大月氏，大月氏徙西臣大夏，而烏孫昆莫居之，故烏孫民有塞種·大月氏種云。

오손국. 대곤미(大昆彌)²⁷⁶⁾의 도읍은 적곡성(赤谷城)²⁷⁷⁾이고 장안에서 8,900리 떨어져 있다.²⁷⁸⁾ 호수는 120,000, 인구는 630,000, 병사는 188,800명이다.²⁷⁹⁾ 상(相)과 대록(大祿)²⁸⁰⁾

276) 大昆彌: 昆彌의 古音은 kuən-mjie. 『史記』에서는 昆莫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하 본문에서도 보듯이 『漢書』에서는 昆莫·昆靡가 혼용되고 있다. ‘昆莫’에 대한 설명은 『史記』의 註釋 참조. 顏師古는 昆莫을 昆彌라고 표기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昆莫에서 昆을 취하고 獵驕靡에서 靡를 취했기 때문이며, 彌와 靡는 音이 서로 같아서 후일 昆彌와 昆靡가 통용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大’昆靡라는 칭호가 사용된 것은 甘露元年(전53) 漢이 烏孫을 分治하면서 大·小 昆靡의 구분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277) 赤谷城: 余太山(2003: 112)은 이 말이 고대 중국의 少昊의 거처인 暘谷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暘은 ‘밝다’는 뜻으로 동쪽 골짜기에 해가 뜨면서 밝아지기 때문에 暘谷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이것이 곧 赤谷과 같으며, 위치상으로는 이식 쿨 호 동남쪽 나린(Narin)河 상류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清代의 徐松 역시 이 말을 意譯으로 간주하여 악수(Aqsu) 북쪽의 北鹽이라는 산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赤谷’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Hulsewe(1979: 143)는 赤谷이라는 말은 意譯이라기보다는 音譯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278) 余太山(2005: 153)은 8,900리라는 숫자가 姑墨國에서 長安까지가 8,150리, 烏孫에서 姑墨까지가 7日半行程(750리)이기 때문에 생겨난 숫자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赤谷에서 都護의 治所까지는 동쪽으로 7,021리, 姑墨城에서 都護의 治所까지는 동쪽으로 2,021리라는 기사를 고려할 때, 赤谷에서 姑墨까지의 거리는 5,000리(50日程)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赤谷에서 長安까지의 8,900리라는 숫자는 姑墨을 媒介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279) 『漢書』『西域傳』에 기재된 각국의 戶口資料가 정확하게 언제 작성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계에 일치된 견해가 없는 상황이다. 西域都護가 初置된 직후인 甘露 4년(전50)으로 보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漢書』『地理志』에 기재된 戶口數가 작성된 것과 같은 해 즉 元始 2년(후2)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成帝 永始 2년(전15) 혹은 永始 3년(전14)에 작성된 것이라는 가설도 제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錢伯泉(1982)·袁延勝(2007) 참조.

280) 相, 大祿: 원문에는 다른 도시국가의 官制를 설명할 때처럼 ‘相大祿 各一人’이라고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相大祿’ 전체를 하나의 관직명으로 볼 수도 있으나, 뒤에서 大祿이라는 직명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相과 大祿”으로 해석하였다. 相은 물론 중국식 관제에서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것이

이 있고, 좌대장과 우대장 [각 1명씩] 2명이 있으며, 후(侯) 3명,²⁸¹⁾ 대장과 도위 각 1명, 대감(大監)²⁸²⁾ 2명, 대리(大吏)²⁸³⁾ 1명, 사중대리(舍中大吏) 2명, 기군(騎君)²⁸⁴⁾ 1명이 있다. 동쪽으로 7,021리 가면 도호²⁸⁵⁾의 치소에 이르고, 서쪽으로 5,000리 가면 강거의 영내[蕃內]²⁸⁶⁾에 이른다. 땅은 풀이 많고 평평하며,²⁸⁷⁾ 비가 많이 내리고 춥다. 산에는 소나무와

고, 大祿은 烏孫 고유의 職名으로 보인다. 『史記』「大宛列傳」에는 張騫이 烏孫을 방문했을 당시 昆莫의 아들로 ‘大祿疆’이라는 인물이 부친에 대하여 반기를 들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281) 侯三人: 侯는 원래 周代에 公·侯·伯·子·男이라는 五等爵 가운데 하나였는데, 秦代를 거쳐 漢代로 들어온 뒤 宗室·外戚·功臣들에게 封爵하는 칭호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도 漢式 職名인 ‘侯’를 소지한 3명이 두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지만, Hulsewe(1979: 144)는 烏孫에 당연히 있어야 할 翁侯라는 직명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侯三人’이라는 말은 錯簡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여기에 보이는 ‘侯’는 사실 翁侯에 관한 언급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282) 大監: 漢代 中國에는 보이지 않는 官名이며 烏孫國에만 보이고 있고, 職能은 확실치 않다.

283) 大吏: 戰國·秦漢代에는 고급 관리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職能인지 분명치 않다.

284) 騎君: 때로는 左右로 별도의 騎君이 두어지기도 하며, 西域의 11개국에 모두 21명의 騎君이 두어졌다.

285) 都護: 西域都護가 언제 처음으로 설치되었느냐, 즉 初置問題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심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說이 있다. ① 地節 2년(전68)說인데 이는 『漢書』「百官表」에 “西域都護는 加官이며, 宣帝 地節二年에 初置되었다.”라는 기사에 근거한 것이다. ② 神爵 2년(전60)說인데 이는 『資治通鑑』卷26에서 神爵二年條에 “鄭吉이 車師를 공파하고 日逐王을 투항케 하니 그 위세가 西域을 떨게 하였다. 마침내 護車師以西北道하게 하니 이런 연유로 都護라고 칭하게 된 것이며, 都護의 설치는 鄭吉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위시하여, 여러 학자들의 考證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③ 神爵 3년(전59)說인데 이는 『漢書』「西域傳」 본문에서 “그 후 日逐王이 선우에게 반란을 일으켜 무리를 이끌고 투항해 오니…… 그 해는 神爵 3년(전59)이었다. 이에 정길로 하여금 護車師以西北道하게 했고, 그런 연유로 都護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도호의 시초는 정길에서부터 두어지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기사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논란에 관해서는 劉洪波(1986)·劉國防(2002)·李炳泉(2003) 등을 참조. 또 한 가지 都護와 관련된 문제는 그 정식 職名이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漢書』「百官志」에도 명시되었듯이 西域都護는 처음에는 ‘加官’에 불과했지 ‘本官’은 아니었다. 즉 鄭吉의 本官은 騎都尉였는데 여기에 西域都護가 추가되어 ‘西域都護騎都尉’로 불렸던 것이고, 예를 들어 甘延壽는 郎中·諫大夫가 本官이었고, 段會宗은 光祿大夫가 本官이었다. 그런데 많은 경우 西域都護 뒤에 騎都尉가 병칭되는 것을 두고 ‘西域都護騎都尉’가 하나의 고정된 관직명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騎都尉는 서역도호가 되기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할 本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처음에 이처럼 ‘加官’에 불과했던 ‘西域都護’라는 관명은 前漢 말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成帝(전32~전7) 때부터 그 자체가 고정된 하나의 ‘本官’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李大龍(1991)·李炳泉(2003: 69-71) 참조.

느릅나무[櫨]²⁸⁸⁾가 많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지 않고, 가축을 따라 수초를 찾아다니며, 흉노와 풍속이 같다. 나라에는 말이 많아서 부자는 4~5천 필을 소유한다. 사람들은 [성질이] 강박하고 탐심이 많으며 신의가 없고, 약탈과 도적질을 많이 한다. 아주 강한 나라이다. 전에는 흉노에 복속했었는데 후에 강대해져서, 비록 통제[羈縻]를 받기는 하지만 조회(朝會)²⁸⁹⁾에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 동쪽으로는 흉노, 서북쪽으로는 강거, 서쪽으로는 대완, 남쪽으로는 성곽으로 된 여러 나라와 서로 접하고 있다. 본래 색(塞)의 땅²⁹⁰⁾이었는데, 대월지가 서쪽으로 색왕(塞王)을 패주시키자 색왕이 남쪽으로 현도(縣度)²⁹¹⁾를 건너가 버리니, 대월지가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후에 오손의 곤막이 대월지를 격파하니, 대월지가 서쪽으로 이주하여 대하를 신하로 삼았고, 오손의 곤막이 그곳에 살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말미암아 “오손 사람들 중에는 색종과 대월지종이 [섞여]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²⁹²⁾

始張騫言烏孫本與大月氏共在敦煌間，今烏孫雖疆大，可厚賂招，令東居故地，妻以公主，與爲昆弟，以制匈奴。語在張騫傳。武帝即位，令騫齎金幣往。昆莫見騫如單

286) 蕃內: 이 표현은 이미 앞에서 康居國條에서도 나왔다. 고유명사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領內’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287) 莽平: 本書 앞의 烏弋山離國條에도 “烏弋地暑熱莽平”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288) 顏注에 의하면 “櫨는 나무 이름이고, 그 속은 소나무와 비슷하다.” Karlgren(1972: 183e)은 이것을 느릅나무(elm)의 일종으로 보았다. 『漢語大詞典』에 따르면 『左傳』 庄公四年條에 “王遂行，卒於櫨木之下.”라는 기사가 보이며, 明代 徐光啓는 『農政全書』(卷一)에서 “其地不乾，其草如茅與走，其木乃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89) 朝會: 『大宛列傳』의 註釋 참조.

290) 종족명 ‘塞’에 대해서는 前掲 주석 참조. 여기서 ‘塞地’는 天山山脈 북방에 있는 이리 강과 추(Chu) 강 유역을 가리킨다.

291) 縣度: 前註 참조.

292) 顏注는 “오손은 서역의 여러 이민족들 가운데에서도 그 외모가 가장 기이하다. 오늘날의 胡人들은 눈이 파랗고 수염이 붉어서 그 모습이 마치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본디 그 종족이었다.”라고 하여, 烏孫人들의 외모가 唐代的 胡人 즉 소그드(Soghd)인들과 유사하다는 기록을 남겼다. 사실 烏孫과 大月氏와 塞은 모두 인도·이란 계통에 속하는 종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동일한 계통의 소그드인들과 외적인 유사성을 가졌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于禮，騫大慚，謂：「天子致賜，王不拜，則還賜。」昆莫起拜，其它如故。

처음에 장건이 “오손은 본시 대월지와 함께 둔황[과 기련] 사이에 있었습니다.²⁹³⁾ 지금 오손이 비록 강대하긴 하지만 넉넉한 선물을 주어 불러와서, 동쪽에 있는 고향에 거주토록 하고 [왕에게] 공주를 주어 부인으로 삼게 하며, 더불어 형제[의 협약]을 맺어 흉노를 제어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장건전」²⁹⁴⁾에 있다. 무제는 즉시²⁹⁵⁾ 장건에게 명령하여 금과 비단을 갖고 가도록 하였다. 곧막이 장건을 회견하면서 마치 선우(單于)[대하는 듯한] 의례를 취하자,²⁹⁶⁾ 장건은 크게 참담해 하면서 “천자께서 하사품을 내리시는데 왕께서 절을

293)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史記』 「大宛列傳」, “始月氏居敦煌·祁連間”; 本「西域傳」, “本居敦煌·祁連間”; 『漢書』 「李廣利·張騫傳」, “昆莫父難兜靡本與大月氏俱在祁連·敦煌間” 등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본문 의 “在敦煌間”은 “在祁連·敦煌間”의 錯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94) 『漢書』 卷61 「李廣利·張騫傳」을 가리키며, “天子가 張騫에게 大夏 등의 부류에 관해서 자주 물었는데, 장건이 이미 侯爵을 상실했기 때문에 말하기를 ‘臣이 匈奴에 머무르고 있을 때 烏孫의 王은 昆莫이라 불렀습니다. 昆莫의 父 難兜靡는 본시 大月氏와 함께 祁連·敦煌間에 있었던 小國이었습니다.’”의 구절을 지칭한다. “이미 侯爵을 상실했기 때문에” 운운한 것은 烏孫과의 연맹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天子의 총애를 회복하려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95) 即位: ‘位’는 衍字로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장건이 무제에게 이러한 보고를 올린 것은 그가 즉위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이기 때문이다. 한 무제가 즉위한 것은 기원전 141년이고 139년에는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하였다. 장건은 도중에 흉노의 포로가 되어 오랜 세월 그곳에서 보낸 뒤 126년경이 되어야 비로써 장안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그 뒤 그가 烏孫과의 연맹을 제의하여 烏孫에 사신으로 다녀온 것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장건이 霍去病과 함께 원정을 갔다가 돌아온 119년부터, 大行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은 115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건이 오손과의 연맹을 주장한 시점도 기원전 119~115년 사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의 본문에서 무제가 ‘즉위’한 뒤에 곧 장건에게 烏孫에 가도록 명령한 것처럼 서술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Hulsewe(1979: 145) 참조.

296) 昆莫見騫如單于禮: 「大宛列傳」에도 이와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Hulsewe(1979: 145)는 “The K'un-mo received [Chang] Ch'ien with ceremonial such as that [used for receiving] a Shan-yü.”라고 옮겼다. 그런데 顏師古는 이에 대해서 “昆莫이 스스로 單于처럼 행동하였다.”라는 주석을 달았고, 따라서 “昆莫이 張騫을 회견할 때 마치 單于[처럼 행동하며] 의례를 취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앞의 본문에서 “전에는 흉노에 복속했었는데 후에 강대해져서” 흉노의 單于에게 朝會 가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가 된 것을 보면, 한나라의 사신인 張騫에 대해서도 單于-皇帝의 관계에서처럼 ‘對等’한 입장을 취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그런 의미에서 顏師古의 해석도 충분히 수긍이

하지 않으니, [나는] 하사품을 [갖고] 돌아가겠다.”²⁹⁷⁾고 말했다. [이에] 곤막이 일어나 절을 하였고 그 밖에 다른 [의례도] 전과 같이하였다.

初，昆莫有十餘子，中子大祿彊，善將，將衆萬餘騎別居。大祿兄太子，太子有子曰岑陁。太子蚤死，謂昆莫：「必以岑陁爲太子。」昆莫哀許之。大祿怒，乃收其昆弟，將衆畔，謀攻岑陁。昆莫與岑陁萬餘騎，令別居，昆莫亦自有萬餘騎以自備。國分爲三，大總羈屬昆莫。騫旃致賜，諭指：「烏孫能東居故地，則漢遣公主爲夫人，結爲昆弟，共距匈奴，不足破也。」烏孫遠漢，未知其大小，又近匈奴，服屬日久，其大臣皆不欲徙。昆莫年老國分，不能專制，乃發使送騫，因獻馬數十匹報謝。其使見漢人衆富厚，歸其國，其國後乃益重漢。

처음에 곤막은 10여 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중간 아들인 대륙강(大祿彊)은 지휘력이 탁월하여 만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딴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²⁹⁸⁾ [그 까닭은 원래] 대륙의 형이 태자였는데 태자에게는 잠취라는 아들이 있었다. 태자가 일찍 사망하게 되자 곤막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잠취를 태자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였다. 곤막은 슬퍼하며 그[의 요청]을 허락하였다. 대륙이 분노하여 곧 형제들을 모으고, 무리를 이끌어 반란을 도모하였고, 잠취를 공격할 모의를 세웠다. 곤막은 잠취에게 만여 명의 기병을 주어 딴 곳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였다. 곤막 역시 스스로 만여 명의 기병을 데리고 스스로 대비하였으니, 나라가 셋으로 나뉘어졌으나 모두 다 곤막의 통솔[羈屬]을 받았다. 장건이 하사품을 건네주고 [황제가] 지시하는 가르침[諭]을 전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오손이 동쪽의 고향[으로 와서] 거주할 수 있다면 한나라

간다고 할 수 있다.

297) 還賜: 顏注는 “賜物을 갖고 한나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298) 大祿彊에 관한 「西域傳」의 묘사는 계승을 둘러싼 부친 곤막 혹은 그의 손자 잠취와의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가 “만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딴 곳에 거주”하는 것도 일종의 불화에 따른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烏孫도 匈奴나 다른 유목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成年이 되면 取財分家하는 관습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屬民을 주어 독립시켰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다. 또한 ‘萬騎’라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라기보다는 흉노의 ‘萬騎’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職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는 공주를 보내어 부인으로 삼게 하고 형제의 결맹을 맺겠다. 함께 [힘을 합하여] 흉노와 대적한다면 격파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 것²⁹⁹⁾이다.”라는 것이었다. 오손은 한나라가 멀어서 그것이 큰지 작은지조차 모를 뿐더러, 흉노는 가깝고 오랫동안 복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들은 모두 이주하기를 원치 않았다. 곧막은 나이가 많고 나라는 나뉘어져 있어 홀로 [그들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 장건을 전송하고 말 수십 필을 바쳐서 사례로 보답하였다. 그 사신이 한나라에 사람이 많고 재화가 풍부한 것을 보고, 그 나라로 돌아가니 그 나라가 후에는 더욱 한나라를 중시하게 되었다.³⁰⁰⁾

匈奴聞其與漢通，怒欲擊之。又漢使烏孫，乃出其南，抵大宛·月氏，相屬不絕。烏孫於是恐，使使獻馬，願得尚漢公主，爲昆弟。天子問群臣，議許，：「必先內聘，然後遣女。」烏孫以馬千匹聘。漢元封中，遣江都王建女細君爲公主，以妻焉。賜乘輿服御物，爲備官屬宦官侍御數百人，贈送甚盛。烏孫昆莫以爲右夫人，匈奴亦遣女妻昆莫，昆莫以爲左夫人。

흉노가 그 [오손]이 한나라와 교통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그를 공격하려 하였다. 또한 한나라는 오손에 사신들을 보냈으며, [나아가] 그 남쪽을 나서서 대완과 월지에도 도달한 것이 끊이지 않았다.³⁰¹⁾ 이에 오손은 두려워하게 되어 사신을 보내어 말을 바치고 한나라

299) 원문의 “不足破也” 즉 “격파할 만하지 못하다”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 즉 “능히 격파할 수 없다”와 “격파하기 어렵지 않다”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300) 張騫의 烏孫使行과 그 결과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史記』 「大宛列傳」에도 보인다.

301) 前漢 조정이 西域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그 숫자도 많았고 규모도 컸다. “대저 外國에 사신을 보낼 때 1개 團(一輩)이 큰 것은 數百人, 작은 것은 百餘人인데…… 漢나라가 한 해 평균 보내는 사신단이 많으면 10團, 적으면 5~6團이었다.” (『史記』 卷123 「大宛列傳」)는 기록이 이를 말해 준다. 현재 전한대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확인되는 것만해도 27명에 달하고 있다. 전한 시대에 서역에 사신을 파견한 목적과 임무에 따라 구분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3시기로 나뉘어진다. 第1期: 張騫의 出使부터 太初元年(전104) 李廣利의 大宛遠征에 이르기까지로서, 대체로 서역에서 同盟勢力을 구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第2期: 太初元年에서 西域都護가 설치되는 전60년 경까지로, 흉노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第3期: 도호의 설치에서 前漢 붕괴 시점까지로, 서역제국에 대한 한의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과 管理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李大龍(1990) 참조.

의 공주를 맞아들이고 형제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천자가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이 논의한 결과 “반드시 먼저 빙물[聘]을 들이게 한 뒤에 여자를 보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오손이 말 천 필을 빙물로 보냈다. 한 원봉(元封) 연간(전110~전105)에 강도왕(江都王) 건(建)³⁰²⁾의 딸 세군(細君)을 공주라고 하여 [오손왕의] 부인으로 삼게 하였다.³⁰³⁾ 수레와 의복과 황실의 물품을 하사하고, 관속과 환관, 시중들 사람 수백 명을 갖추어 주니, 보내는 것들이 정말 성대하였다. 오손의 곤막은 그녀를 우부인(右夫人)³⁰⁴⁾으로 삼았다. 흉노도 역시 [선우의] 딸을 곤막의 부인으로 보내니 곤막은 그녀를 좌부인(左夫人)³⁰⁵⁾으로 삼았다.

公主至其國，自治宮室居，歲時一再與昆莫會，置酒飲食，以幣帛賜王左右貴人，昆莫年老，語言不通，公主悲愁，自爲作歌：「吾家嫁我兮天一方，遠託異國兮烏孫王。穹廬爲室兮旃爲牆，以肉爲食兮酪爲漿。居常土思兮心內傷，願爲黃鵠兮歸故鄉。」天子聞而憐之，間歲遣使者持帷帳錦繡給遺焉。

공주가 그 나라에 도착하여 스스로 궁실(宮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니,³⁰⁶⁾ 일 년에 한두

302) 江都王 建: 「大宛列傳」의 譯註 참조.

303) 『漢書』 「匈奴傳上」에는 “한나라의 사신 楊信이 匈奴에 사신으로 갔는데, 그 당시 한나라는 동쪽으로 濊貉과 朝鮮을 정벌하여 郡으로 만들고, 또한 서쪽으로는 酒泉郡을 설치하여 胡와 羌 사이의 교통로를 隔絶시켰으며, 더 서쪽으로 月氏·大夏와 교통하여 翁主를 烏孫王의 妻로 삼게 함으로써 匈奴 西方의 援國들을 분열시켰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楊信이 흉노에 사신으로 간 元封 4년(전 107)년에는 이미 細君이 烏孫으로 시집을 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余太山(2005: 157) 참조.

304) 夫人: 『漢語大詞典』에 따르면 이 용어는 諸侯나 列侯의 妻를 의미했으며 帝王의 妾을 칭하기도 했다.

305) 右夫人, 左夫人: 匈奴人들은 左를 右보다 더 우선시하였으며 이는 左賢王이 單于 다음의 제2위로 여겨졌던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烏孫의 경우 左右 어느 쪽이 더 중시되었는지 분명히 말해 주는 자료는 없으나, 본문 뒤에서 오손의 왕 翁歸靡가 三男인 大樂을 ‘左大將’으로 삼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匈奴와 마찬가지로 尙左의 習俗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흉노 선우의 딸이 ‘左夫人’이고 細君이 ‘右夫人’이었다는 기록은 당시 烏孫이 漢과 匈奴에 대한 외교적 비중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Hulsewé(1979: 148)도 烏孫은 匈奴의 영향을 받아 左를 더 중시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306) 宮室: 물론 이는 유목민들의 이동식 천막이 아니라 固定式 居住處를 가리킨다. 그녀가 宮室을 ‘自治’했다는 것으로 보아 한 무제가 細君을 보낼 때 그녀를 동반한 “官屬宦官侍御數百人”들이 건축에 동원되었다

번 곤막과 만나서 술과 음식을 내어놓고 왕의 좌우에 있는 귀족들에게 폐백을 나누어 주었다.³⁰⁷⁾ 곤막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 공주는 슬픔에 잠겨 스스로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었다.

“나의 집에서는 나를 하늘 끝 먼 곳으로 시집보내서,

이국 먼 곳 오손왕에게 맡겼다네.

등근 천막³⁰⁸⁾을 집으로 삼고, 모포[로 만든 덮개]³⁰⁹⁾를 담장으로 삼았네.

고기를 밥으로 여기고, 요구르트³¹⁰⁾를 국으로 삼았다네.

항상 고향을 생각하는 그리움[土思]³¹¹⁾에 속 마음은 상하니,

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들 중에는 工匠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匈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宮殿遺址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아마 이와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을 것이다. 반면 곤막은 계절이동을 했기 때문에 細君과는 “일 년에 한두 번”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07) 以幣帛賜王左右貴人: 이 구절 역시 漢-烏孫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일면을 시사한다. 즉 細君이 烏孫의 左右貴人들에게 매년 幣帛을 分賜했다는 것은 그녀가 漢 朝廷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물자공급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실은 본문 바로 뒤에서 “격년에 한 번씩 사신을 보내 그녀에게 휘장과 비단과 자수를 보내어 주었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그녀는 단순히 昆莫을 회유하기 위해 보내진 婚姻政策의 희생물이 아니라, 漢의 물질적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烏孫의 지배층 내부에 親漢勢力을 부식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중요한 매개물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북방 유목국가에 보내진 소위 和蕃公主들에 대해서 細君의 詩에서 나타나듯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萬里異國에 억지로 보내져서 평생을 슬프게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이라는 식의 ‘감상적’인 접근만으로는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308) 穹廬: 유목민들의 조립식 천막을 지칭한다(江上波夫, 1948 참조).

309) 旃: 毛氈 즉 양털로 만든 펠트(felt)를 가리킨다. 유목민들의 천막은 보통 毛氈으로 만들기 때문에 旃帳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史記』 「匈奴列傳」에는 “[동물의] 껍질과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旃裘를 걸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旃裘는 곧 氈裘이며, 짐승의 털로 만든 외투를 가리킨다.

310) 酪: 『史記』 「匈奴列傳」에는 흉노인들이 湩=酪을 즐겼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集解』는 “湩은 乳汁”이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

311) 土思: 顏注: “土思는 슬픈 마음으로 고향을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後漢書』 卷48 「楊李翟應霍爰徐列傳」에도 “더구나 匈奴로 北征하고 서쪽으로는 三十六國과 접촉을 하게 되니 해마다 服役하게 되고 운송하는 물자의 비용이 과중하게 되었다. 또한 멀리 伊吾·樓蘭·車師·戊己 등지에 둔전을 하게 되니, 사람들은 고향 생각을 품게 되어(民懷土思), 변경 지방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원컨대 누런 고니가 되어 고향에나 돌아가고파.”

천자께서 이를 듣고 그녀를 가련히 여겨, 격년에 한 번씩 사신을 보내 그녀에게 휘장³¹²⁾과 비단과 자수를 보내 주었다.

昆莫年老，欲使其孫岑陁尚公主。公主不聽，上書言狀，天子報：「從其國俗，欲與烏孫共滅胡。」岑陁遂妻公主。昆莫死，岑陁代立。岑陁者，官號也，名軍須靡。昆莫，王號也，名獵驕靡。後書‘昆彌’云。岑陁尚江都公主，生一女少夫。公主死，漢復以楚王戊之孫解憂爲公主，妻岑陁。岑陁胡婦子泥靡尚小，岑陁且死，以國與季父大祿子翁歸靡，：「泥靡大，以國歸之。」

곤막이 늙어서 그 손자인 잠취로 하여금 공주를 맞기를 바랐다. 그러나 공주는 이를 듣지 않고 글을 올려서 상황을 보고했는데, 천자께서 대답하기를 “그 나라의 풍속을 따르라.³¹³⁾ [나는] 오손과 함께 오랑캐[胡]를 멸하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잠취³¹⁴⁾가 공주를 맞아 들였다. 곤막이 사망하자 잠취가 대신 즉위하였다.³¹⁵⁾ 잠취라는 것은 관직명이고 [원래 그의]

312) 帷帳: 帷는 사망으로 둘러쳐져 있으나 꼭대기가 없는 篷帳, 帳은 꼭대기가 있는 篷帳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帷幕床帳 즉 천막의 내외에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휘장(canopy, curtain)을 의미한다.

313) 從其國俗: 여기서 ‘國俗’은 구체적으로 收繼婚을 지칭한다. 匈奴·烏孫을 비롯하여 과거 많은 유목민이 父死子繼·兄終弟及의 收繼婚을 행한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오손의 경우 劉細君이나 解憂가 收繼婚을 했던 예를 살펴보면 그것이 王位繼承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細君은 처음에 昆莫과 혼인했지만 그 왕위가 손자인 잠취에게로 넘어가면서 細君 역시 잠취에게 收繼되었고. 그녀가 사망한 뒤 한나라에서 보내온 잠취에게 시집은 解憂는 잠취가 사망한 뒤 그의 아들에게 收繼되지 않고, 잠취의 뒤를 이어 왕이 된 大祿의 아들, 즉 잠취와는 사촌간인 翁歸靡에게 收繼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收繼婚은 일반적으로 ‘末子相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末子の 財產相續과는 별도의 원칙, 즉 父兄의 身分·地位의 계승과 함께 連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武沐·王希隆(2003) 참조.

314) 岑陁: 「大宛列傳」에는 岑娶로 표기.

315)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劉細君이 잠취에게 再嫁한 것은 곤막 옆교미가 사망하기 직전이다. 余太山(2005: 159)은 그녀가 재가한 해가 전105년, 잠취 군수미가 신임 곤막이 된 해가 전104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름은 군수미(軍須靡)³¹⁶였다. 곤막은 왕의 칭호이고 이름은 엽교미(獵驕靡)³¹⁷였는데, 후에는 ‘곤미(昆彌)’라고 표기하였다. 잠취가 강도(江都)의 공주를 맞아들여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은] 소부(少夫)였다. 공주가 사망하자 한나라는 다시 초왕[楚王] 무(戊)³¹⁸의 손녀 해우(解憂)를 공주로 삼아 잠취에게 부인으로 주었다. 잠취가 오랑캐 처(胡婦)³¹⁹에게서 낳은 아들 니미(泥靡)는 아직 어렸다. 잠취가 죽게 되자, 나라를 작은 아버지인 대륙의 아들 옹귀미(翁歸靡)³²⁰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니미가 장성하면 나라를 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翁歸靡既立，號肥王，復尚楚主解憂，生三男兩：長男曰元貴；次曰萬年，爲莎車；次曰大樂，爲左大；長女弟史爲龜茲王絳賓；小女素光爲若呼翁侯妻。

옹귀미가 즉위한 뒤 ‘비왕(肥王)’이라 칭하였고, 다시 초나라 공주인 해우를 부인으로 맞아들여³²¹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 장남이 원귀미(元貴靡),³²² 그 다음이 만년(萬年)으로 사차왕(莎車王)이 되었고, 그 다음은 대락(大樂)으로 좌대장(左大將)이 되었다. 장녀 제사(弟史)는 구자왕(龜茲王) 강빈(絳賓)의 처가 되었고, 작은 딸 소광(素光)은 약호흡후(若呼翁侯)의 처가 되었다.³²³

316) 軍須靡(kiuan-siu-mjie): Pulleyblank(1966: 29)는 烏孫의 군주들의 이름이 모두 ‘靡’ 혹은 ‘彌’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아마 토하라語(Tokharian)에서 王을 의미하는 wäl(A방언) 혹은 walo(B방언)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했다.

317) 獵驕靡(liäp-kiäu-mjie).

318) 楚王 戊: 즉 劉戊. 전174년 楚王이 되었다가 漢 景帝 3년(전154) 劉邦의 조카인 吳王 劉濞가 주동이 된 吳楚七國의 亂에 동참했다가 敗戰하면서 自殺한 인물이다.

319) 胡婦: 잠취의 조부인 곤막의 경우처럼 흉노에서 보내온 妻일 것이다. 잠취와 ‘胡婦’ 사이에서 난 아들은 烏孫式 이름인 泥靡(niei-mjie)가 붙여졌고, 楚王 戊의 손녀인 解憂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은 少夫라는 중국식 이름이 붙여졌다.

320) 翁歸靡(ung-kjwei-mjie).

321) 岑陁와 翁歸靡는 사촌형제이므로 翁歸靡가 解憂公主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 역시 收繼婚으로 볼 수 있다.

322) 元貴靡(ngiwen-kjwei-mjie).

323) 翁歸靡와 解憂 사이에서 출생한 세 아들 가운데 장남 元貴靡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烏孫式 이름이고,

昭帝時，公主上書，言「匈奴發騎田車師，車師與匈奴爲一，共侵烏孫，唯天子幸救之！」漢養士馬，議欲擊匈奴。會昭帝崩，宣帝初即位，公主及昆彌皆遣使上書，言「匈奴復連發大兵侵擊烏孫，取車延·惡師地，收人民去，使使謂烏孫趣持公主來，欲隔絕漢。昆彌願發國半精兵，自給人馬五萬騎，盡力擊匈奴。唯天子出兵以救公主·昆彌。」漢兵大發十五萬騎，五將軍分道並出。語在匈奴傳。遣校尉常惠使持節護烏孫兵，昆彌自將翁侯以下五萬騎從西方入，至右谷蠡王庭，獲單于父行及嫂·居次·名王·犁汙都尉·千長·騎將以下四萬級，馬牛羊驢橐駝七十餘萬頭，烏孫皆自取所虜獲。還，封惠爲長羅侯。是歲，本始三年也。漢遣惠持金幣賜烏孫貴人有功者。

소제 때에 [해우]공주가 글을 올려 아뢰기를 “흉노가 기병을 파견하여 거사에서 경작을 하며, 거사는 흉노와 하나가 되어 함께 오손을 공격하려 하니, 오직 천자만이 이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한나라는 군마[士馬]³²⁴⁾를 양성하여 흉노를 공격하자고 논의 하였다. 마침 소제가 붕어하고 선제가 처음 즉위하니, 공주와 곤미가 모두 사신을 보내서 글을 올려 아뢰기를 “흉노가 다시 계속해서 대군을 보내어 오손을 침공하며, 거연(車延)·악사(惡師)³²⁵⁾ 등의 땅을 취하고 주민들을 거두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어 오손은 신속하게 공주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한나라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곤미는 나라의 정예병 가운데 절반을 파견할 생각이 있고, 병사와 마필 5만 기를 스스로 갖추어 힘을 다하여 흉노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천자께서 출병을 명령하여 공주와 곤미를

차남 萬年과 삼남 大樂의 경우 중국식 이름임이 분명하다. 두 딸들 가운데 차녀 素光은 중국식으로 보이지만, 장녀 弟史의 경우는 단언하기 어렵다. 西域 諸國의 왕이나 貴族들의 이름이 漢式으로 표기되기 시작하는 현상은 前漢 末年부터 시작되어, 『漢書』에는 거의 漢式 이름이 보이지 않으나 『後漢書』에는 頻出한다. 이에 대해서는 後註 참조.

324) 士馬: 이는 “漢軍의 士馬가 죽은 것이 十餘萬匹”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士卒과 馬匹이 아니라 전투용 馬匹을 의미한다(Hulsewe(1979: 150) 참조).

325) 車延(kiwo-iän)·惡師(äk-si): 이 두 지명은 『漢書』 「常惠傳」과 『匈奴傳』에도 보이기 는 하지만 모두 같은 문맥에서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위치를 짐작케 하는 다른 힌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증은 불가능하다. 다만 일찍이 de Groot(1921: 192f)는 음성상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車延을 Kucharo, 惡師를 Aqsu로 비정한 바 있다.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³²⁶⁾ [이에] 한나라는 15만 명의 기병을 크게 진발시켜, 다섯 명의 장군이 길을 나누어 모두 출정하였으니, 그 이야기는 「흉노전」에 나와 있다. 교위 상혜(常惠)³²⁷⁾로 하여금 절(節)을 갖고 오손의 군대를 호위하라고 파견하였으며, 곤미는 흡후 이하 5만 명의 기병을 스스로 지휘하여 서쪽에서 진입하여 우록리왕(右谷蠡王)³²⁸⁾의 왕정에 이르렀다. 선우의 아버지 항렬의 사람들[父行], 계수들[嫂], 거차(居次),³²⁹⁾ 이름난 왕들[名王], 이우도위(犁汙都尉), 천장(千長), 기장(騎將)을 위시하여 4만 명과, 말·소·양·노새·낙타 등 70여만 마리를 포획하였는데, 오손은 노획물을 모두 자기들이 취하였다. [한나라 군사]가 귀환하니 상혜를 장라후(長羅侯)로 봉하였다. 이해는 본시(本始) 3년(전71)이었다. 한나라는 상혜에게 금과 비단을 갖고 가서 오손의 귀족과 유공자들에게 하사하도록 하였다.³³⁰⁾

326) 『漢書』 卷70 「常惠傳」에 이와 동일한 구절이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宣帝 연간인 本始 2년(전71) 조정은 常惠를 오손에 사신으로 파견했고, 이에 대응하여 공주와 곤미가 각각 조정에 사신을 보내어上册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常惠가 파병의 필요성을 요청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27) 常惠: 太原人이며 生卒年은 不明. 漢武帝·昭帝·宣帝 3대에 걸쳐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일찍이 무제의 명을 받아 大使인 蘇武를 따라 副使의 자격으로 흉노에 갔다가 구금되는 일을 당했다. ‘蘇武帛書’라는 일화로도 유명한 이들의 감금사태는 19 년만에, 즉 武帝 死後에야 비로소 끝나 무사히 조정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그는 昭帝의 신임을 받아 光祿大夫에 봉해졌으며 흉노 문제에 대한 자문에 응했다. 宣帝가 즉위한 뒤 그를 校尉로 임명하여 烏孫으로 파견하고 동맹을 통해서 흉노에 대한 연합전선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한은 흉노를 격파할 수 있었고, 그 공으로 常惠는 長羅侯에 봉해졌다. 長羅는 陳留郡(그 治所는 현재 開封 東南)에 속했던 地名이다. 蘇武가 사망한 뒤 그를 대신하여 典屬國의 직책에 임하면서 외교업무를 담당하였으며, 甘露年間(전53~전50)에는 右將軍으로 발탁되었다.

328) 右谷蠡王: 「大宛列傳」의 前註 참조. 左右賢王·左右谷蠡王은 흉노 강역의 東西 양쪽에 배치되어 지배했으며 ‘四角’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329) 居次(kiwo-tsi): 흉노 귀족들의 부인을 가리키는 호칭. 『漢書』 「匈奴傳下」에는 “王昭君의 큰딸이 須卜居次가 되고 작은 딸이 當于居次가 되었다.”는 구절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李奇는 “居次는 여자의 칭호이며, 漢言으로 말하자면 公主이다.”라는 주석을 달았다. 居次는 투르크어에서 ‘딸’을 뜻하는 ‘크즈’(qiz)에 해당되는 단어로 보인다.

330) 흉노에 대한 漢·烏孫의 합동공격에 관한 이 기사와 유사한 내용이 『漢書』 「常惠傳」과 「景武昭宣元成功臣表」 등에도 보이며, 포획한 적군(39,000명)과 가축의 숫자(馬牛驢羸橐佗 5만 두, 羊 60여만 두) 등 보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元康二年，烏孫昆彌因患上：「願以漢外孫元貴靡爲嗣，得令復尚漢公主，結婚重親，畔絕匈奴，願聘馬騾各千匹。」詔下公卿議，大鴻臚蕭望之以爲「烏孫絕域，變故難保，不可許。」上美烏孫新立大功，又重絕故業，遣使者至烏孫，先迎取聘。昆彌及太子·左右大將·都尉皆遣使，凡三百餘人，入漢迎取少主。上乃以烏孫主解憂弟子相夫爲公主，置官屬侍御百餘人，舍上林中，學烏孫言。天子自臨平樂觀，會匈奴使者·外國君長大角抵，設樂而遣之。使長(盧)[羅]侯光祿大夫惠爲副，凡持節者四人，送少主至敦煌。未出塞，聞烏孫昆彌翁歸靡死，烏孫貴人共從本約，立岑陁泥靡代爲昆彌，號狂王。患上：「願留少主敦煌，惠馳至烏孫責讓不立元貴靡爲昆彌，還迎少主。」事下公卿，望之復以爲「烏孫持兩端，難約結。前公主在烏孫四十餘年，恩愛不親密，邊竟未得安，此已事之驗也。今少主以元貴靡不立而還，信無負於夷狄，中國之福也。少主不止，繇役將興，其原起此。」天子從之，徵還少主。

원강(元康) 2년(전64) 오손의 곤미가 상해를 통해서 글을 올렸다. “원컨대 한나라의 외손자인 원귀미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고, 그도 역시 한나라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 혼인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며, 흉노에 대해서는 이만하여 [그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과 노새를 각 1천 필씩 빙재로 드리고자 합니다.” [천자께서는] 공경들에게 의논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대홍로(大鴻臚³³¹)였던 소망지(蕭望之³³²)가 “오손은 아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번고가 일어난다면 [그 충성을] 보장할 수 없으니, [혼인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상께서는 오손이 새롭게 큰 공을 세운 것을 가상하게 여겼고 더구나 과거의 관계[故業]를 끊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여,³³³ 사신을 오손으로 보내어 먼저 빙재를 맞이해 오도록

331) 大鴻臚: 중국 고대의 관직명. 秦代에는 典客이라 칭해졌으나 漢 景帝 때에 大行令으로 改名했다가, 武帝 太初 元년에 大鴻臚로 이름을 바꾸었다. 九卿에 속했으며, ‘蠻夷’에 관한 事務, 특히 外國使節과 賓客들의 朝見事務를 관장했으며, 行人·譯官·別火令·郡邸長丞(여러 郡國이 長安에 설치한 賓館을 관리하는 인원) 등의 下屬들을 두었다.

332) 蕭望之: 『漢書』卷78에 立傳. 字는 長倩, 東海 蘭陵人. 『蕭望之傳』에 따르면 그는 元康 2년(전64) 직책을 少府에서 左馮翊으로 옮겼으며 3년간 근무한 뒤 大鴻臚가 되었는데, 사실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大鴻臚가 되기 전의 일이었다.

333) 顏注: “重은 어렵다는 뜻. 故業은 전에 烏孫과 맺었던 婚親관계를 의미한다.”

하였다. 곧미와 태자, 좌우대장과 도위 등이 모두 사신을 보내니 대저 300여 명이 한나라로 들어와 공주[少主]를 모시러 왔다. 이에 주상께서는 오손공주³³⁴⁾ 해우의 남동생의 자식³³⁵⁾인 상부(相夫)를 공주로 삼고, 관속과 시중드는 사람 100여 명을 마련해 주었다. 상림원(上林)³³⁶⁾ 가운데 거처를 정해 주고 오손의 말을 배우게 하였다. 천자께서는 스스로 평락관(平樂觀)³³⁷⁾에 남시어 흉노의 사신과 외국의 군장들을 알현하고, 큰 씨름[大角抵]³³⁸⁾과 음악을 베푼 뒤에 그들을 보냈다. 장라후이며 광록대부(光祿大夫)인 상혜를 부사(副使)로 임명하고,³³⁹⁾ 절을 갖는 사람 4명과 함께 공주를 돈황까지 배웅토록 하였다.³⁴⁰⁾ 그들이 아직 [변경

334) 원문은 ‘烏孫主’라고 되어 있지만 ‘烏孫公主’의 오류일 것이다.

335) 원문은 ‘弟子’이지만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자식(弟弟的兒子)’으로 해석되어야 옳을 것이다.

336) 上林: 上林苑. 秦代의 舊苑이었으나 漢初에 荒廢해졌다가 武帝 建元 2년(전138)에 이르러 重建·擴張되었다. 그 규모는 크고 많은 宮室들을 포함했으며 다양한 기능과 오락을 할 수 있었다. 현재 그 자취는 찾아볼 수 없으나, 범위는 長安·咸寧·周至·戶縣·藍田 五縣을 포괄하였고 縱橫이 300리에 미쳤다고 한다. 霸·產·涇·渭·豐·鎬·牢·橋 등 8개의 하천이 그 안을 통과했으며, 황제는 귀족들과 함께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렵을 하였다. 『關中記』에 따르면 上林苑 안에는 三十六苑, 十二宮, 三十五觀이 있었다. 三十六苑 가운데에는 휴게소의 기능을 하는 宜春苑, 供御人들이 숙박을 하는 御宿苑, 太子가 손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만든 思賢苑·博望苑 등이 있었다. 또한 大型 宮城인 建章宮을 위시하여, 歌舞를 즐기는 곳인 宣曲宮, 狗·馬의 경주나 魚鳥를 감상하는 곳인 犬台宮·走狗觀·走馬觀·魚鳥觀, 코끼리와 흰 사슴을 감상하는 觀象觀과 白鹿觀이 있었다. 西域의 포도를 심는 葡萄宮, 南方의 진기한 花木을 기르는 扶荔宮, 씨름(角抵)이 벌어지는 平樂觀 등이 있었다. 또한 상림원 안에는 昆明池를 위시하여 다수의 연못과 소택도 만들어졌다. 특히 곧명지는 元狩 4년(전119)에 굴착된 것으로 장안 서남쪽에 위치, 둘레가 40리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였다고 한다.

337) 平樂觀: 上林苑 안에 두어진 觀名으로 平樂館, 平樂苑으로도 불렸다. 漢 高祖가 처음 지었으나 武帝가 增修했다. 『漢書』 『武帝本紀』에는 “元封 六年 여름, 京師의 백성들이 上林의 平樂觀에서 씨름(角抵)을 관람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338) 角抵: 『大宛列傳』의 譯註 참조. 角抵의 가장 이른 형태는 고대 冀州지역에서 행해지던 소위 ‘蚩尤戲’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두세 사람이 머리에 牛角을 쓰고 서로 겨루는 技藝였다고 한다. 秦의 통일과 함께 민간에서 武器의 소지가 금지됨에 따라 손을 이용하여 힘을 겨루는 角抵가 유행하게 되고, 『史記』 『李斯列傳』에는 秦二世가 甘泉宮에서 角抵 俳優들의 놀이를 관람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漢代에 들어가면 두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힘겨루기 놀이를 보이는 공연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는 ‘角抵百戲’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1970년대에 들어와 산동성 임흔의 金雀山 漢墓 안에서 한 폭의 漢代 帛書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팔을 크게 벌리고 눈을 부릅뜨면서 힘을 겨루는 角抵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다.

339) 누가 正使였는지, 혹은 常惠가 무슨 연유로 正使가 아니라 副使로 임명되어 파견되었는지는 확인할

의] 관문을 나서지도 않았는데 오손의 곤미인 옹귀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손의 귀족들은 모두 본래의 약속에 따라 잠취의 아들인 니미를 후계자로 삼아 곤미로 추대하였는데 ‘광왕’(狂王)이라 불리웠다.³⁴¹⁾ 상해가 글을 올려, “원컨대 공주를 둔황에 머무르게 하고 상해 [저]는 오손으로 말을 달려가서 원귀미를 곤미로 추대하지 않은 것을 질책한 뒤 돌아와서 공주를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했다. 이 문제를 공경들에게 논의토록 하니, 소망지가 다시 “오손은 [한과 흉노] 양쪽에 모두 걸치고 있어서 결맹을 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공주가 오손에 40여 년 머물렀고, [한나라는 오손을] 은애로써 대했음에도 [양국관계는] 친밀해지지 않았으며 변경도 평안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일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 원귀미가 즉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주를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적에 대해서 신뢰를 어기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복입니다. 만약 공주가 [가는 것을]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장차 요역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천자께서는 그 의견에 따라서 공주를 불러들여 오도록 하였다.³⁴²⁾

狂王復尚楚主解憂，生一男鷓靡，不與主和，又暴惡失眾。漢使衛司馬魏和意·副候任昌送侍子，公主言狂王爲烏孫所患苦，易誅也。遂謀置酒會，罷，使士拔劍擊之。

수 없다.

340) 『漢書』 卷78 「蕭望之傳」에 따르면 神爵 2년(전60)의 일이다.

341) 이는 그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국식 別稱이며, 그의 숙부인 翁歸靡가 ‘肥王’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것과 유사하다. 오손왕가의 계보는 부록을 참조.

342) 常惠 일행이 敦煌의 懸泉을 통과할 때 지급된 費用을 기록한 漢簡이 최근에 발견되었다. 소위 ‘懸泉漢簡’으로 알려진 이들 간독 자료 가운데 西域關係는 모두 300餘條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元康五年正月”(사실은 神爵元年)의 年月를 갖는 18個條의 소위 “(過)長羅侯費用簿”가 보고되었고, 烏孫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34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費用簿”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하나는 常惠가 相夫를 공주로 삼아 오손으로 호송하다가 懸泉을 지나면서 제공받은 費用이라는 주장(張德芳: 2000)이고, 또 하나는 常惠가 조정에서 부여받은 또 다른 임무, 즉 匈奴를 공격하고 屯戍를 강화하여 서역 지배를 확고히 하려는 군사적 목적으로 구성된 일행에게 제공된 비용이라는 주장이다(袁延勝: 2003).

劍旁下，狂王傷，上馬馳去。其子細沈瘦會兵圍和意·昌及公主於赤谷城。數月，都護鄭吉發諸國兵救之，乃解去。漢遣中郎將張遵持醫藥治狂王，賜金二十斤，采繒。因收和意·昌係瑣，從尉犁檻車至長安，斬之。車騎將軍長史張翁留驗公主與使者謀殺狂王狀，主不服，叩頭謝，張翁捽主頭罵詈。主上書，翁還，坐死。副使季都別將醫養視狂王，狂王從十餘騎送之。都還，坐知狂王當誅，見使不發，下蠶室。

‘광왕’은 다시 초나라 공주 해우를 부인으로 맞아들여 치미(鴟靡)라는 사내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공주와 사이가 좋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포악하여 [따르는] 무리도 잃어버렸다. 한나라는 위사마(衛司馬)인 위화의(魏和意)와 부후(副候) 임창(任昌)³⁴³으로 하여금 질자로 와 있던 아들을 데리고 가도록 했는데, 공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광왕은 오손에서도 우환 거리가 되었으니 주살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마침내 주연을 준비하기로 음모를 꾸몄고, 주연이 끝나자 병사들에게 검을 뽑아서 그를 치도록 했다. [그러나] 검은 옆으로 [비껴서] 맞았고 광왕은 부상을 입은 채 말을 타고 떠나갔다. 그의 아들 세심수(細沈瘦)는 군대를 모아서 위화의와 임창과 공주를 적곡성에서 포위하였다. 여러 달이 지나서 도호 정길(鄭吉)이 여러 나라의 군대를 징발하여 구원하러 가니 드디어 포위를 풀고 가버렸다.³⁴⁴ 한나라는 중랑장 장운(張遵)으로 하여금 약을 갖고 가서 광왕을 치료하고 금 20근과 채색 비단을 하사했다. 그 기회에 위화의와 임창을 붙들어 사슬에 묶은 뒤, 위리(尉犁)의 감차(檻車)³⁴⁵에 실어 장안으로 데리고 와서 참수하였다. 거기장군(車騎將軍)³⁴⁶의 장사(長史)였던 장웅(張

343) 衛司馬가 軍職의 일종이었음은 분명하지만 魏和意의 경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료가 없다. 또한 副候라는 직책과 任昌이라는 인물에 대한 언급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344) 五鳳年間(전57~전54)의 사건으로 추정된다.

345) 檻車: 죄수를 가두어 호송할 때 사용하는 수레. 尉犁는 西域 36국 가운데 하나로 현재 Bugur로 比定되므로, 張遵 등 한나라 관리들이 오손으로 파견되어 위화의와 임창 2인을 사슬로 포박하고 尉犁까지 끌고 와 거기서 檻車에 실어 호송한 것으로 보인다.

346) 車騎將軍: 漢代에는 大將軍·驍騎將軍보다는 낮고 衛將軍보다는 높은 고위군직으로 金印紫綬를 받았으며, 지위는 上卿에 버금가三公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前漢 때에는 원정이나 정벌할 일이 생기면 부여받는 臨時職이었으나, 後漢 末期에 가게 되면 常職으로 바뀌었다. 최초의 車騎將軍은 文帝 元년에 薄昭를 임명한 것이며, 그 뒤 灌嬰, 周亞夫, 金日磾 등이 임명된 적이 있다.

翁)은 [오손에] 남아서 공주와 사자가 광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정황을 조사했는데, 공주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변명을 하자, 장웅은 공주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옥을 해냈다. 공주가 [주상계] 글월을 올리자 장웅이 귀환하여 사형에 처해졌다. 부사(副使) 계도(季都)는 별도로 의사를 데리고 가서 광왕을 보살피게 했는데, 광왕은 십여명의 기병을 데리고 그를 환송해 주었다. 계도가 귀환했는데, 광왕이 주살되어야 마땅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받아 잠실(蠶室)로 내려보내졌다.³⁴⁷⁾

初，肥王翁歸靡胡婦子烏就屠，狂王傷時驚，與諸翁侯俱去，居北山中，揚言母家匈奴兵來，故眾歸之。後逐襲殺狂王，自立爲昆彌。漢遣破羌將軍辛武賢將兵萬五千人至敦煌，遣使者案行表，穿卑鞞侯井以西，欲通渠轉穀，積居廬倉以討之。

처음에 비왕 옹귀미가 오랑캐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오취도(烏就屠)는 광왕이 부상을 입었을 때 놀라서 다른 여러 흡후들과 함께 모두 떠나서 북쪽의 산속에 머무르면서, 외갓집인 흉노의 병사들이 올 것이라고 떠들었고, 그래서 무리들이 그에게 돌아갔다. 그 뒤 마침내 광왕을 습격하여 살해한 뒤 곧바로 자립하였다. 한나라는 과강장군(破羌將軍) 신무현(辛武賢)³⁴⁸⁾에게 병사 15,000명을 지휘하여 가도록 파견했다. 그는 둔황에 이르러 사신들을 보내어 길을 조사하고 표지를 세웠으며, 비제후 우물[卑鞞侯井]의 서쪽을 굴착하여 곡식을 운반할 운하[渠]를 개통하고,³⁴⁹⁾ 거려창(居廬倉)³⁵⁰⁾에 곡식을 쌓은 뒤에 그를 토벌하려고 하였다.

347) 狂王: 본명은 泥靡로서 岑廞(軍須靡)와 胡婦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烏孫人들은 翁歸靡(=肥王)가 사망한 뒤 그와 解憂 사이에서 태어난 元貴靡를 옹립하지 않고, ‘故約’에 따라 泥靡를 세우자, 실망한 한나라는 泥靡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러나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烏孫과 漢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을 우려하여, 중랑장 장준, 장사 장웅, 부사 계도 등을 보내어 泥靡를 위무하는 한편 위화희와 임창 두 사람을 처형시키게 된 것이다.

348) 辛武賢: 『史記』卷22 「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에 따르면, 酒泉太守 辛武賢은 神爵 元年 4월 破羌將軍에 임명되었다.

349) 卑鞞侯井: 이에 대해 孟康은 “6개의 大井이니 通渠이다. 그 아래로는 泉流가湧出하며, 白龍堆 東쪽 土山 아래에 있다.”라는 주석을 첨가하였다. 敦煌 懸泉漢簡에 따르면 당시에는 운하 굴착의 사무를 전담하는 ‘穿渠校尉’가 두어지기도 하였다. 王國維를 비롯한 중국의 학자들은 이 같은 通渠는 일종의 ‘井渠’이고 곧 地下水路인 카레즈(karez)를 굴착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투르판 지방에 카레즈

初，楚主侍者馮嫪能史書，習事，嘗持漢節爲公主使，行賞賜於城郭諸國，敬信之，號曰馮夫人。爲烏孫右大將妻，右大將與烏就屠相愛，都護鄭吉使馮夫人說烏就屠，以漢兵方出，必見滅，不如降。烏就屠恐，：「願得小號。」宣帝徵馮夫人，自問狀。遣謁者竺次·期門甘廷壽爲副，送馮夫人。馮夫人錦車持節，詔(馮)烏就屠詣長羅侯赤谷城，立元貴靡爲大昆彌，烏就屠爲小昆彌，皆賜印綬。破羌將軍不出塞還。後烏就屠不盡歸諸翁侯民眾，漢復遣長羅侯惠將三校屯赤谷，因爲分別其人民地界，大昆彌戶六萬餘，小昆彌戶四萬餘，然眾心皆附小昆彌。

처음에 초나라 공주를 시종드는 사람[侍者]이었던 풍료(馮嫪)³⁵¹는 공문서[史書]³⁵²에 능통하고 사무에 밝았으며, 일찍이 한나라의 절(節)을 갖고 공주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성곽이 있는 여러 나라로 가서 상을 하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신뢰하여 ‘풍부인(馮夫人)’이라는 칭호로 불렸다. 그녀는 오손의 우대장의 부인이 되었는데, 우대장과 오취도는 서로 아끼는 사이였기 때문에 도호 정길은 풍부인을 시켜서 오취도에게 “한나라 병사가 바야흐로 출병한다. 필히 몰락할 것이니 항복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하게 했다. 오취도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자그마한 칭호[小號]³⁵³를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선제(宣帝)가 풍부인을 불러서 직접 상황을 하문하였다. 그리고 알자(謁者)³⁵⁴ 축차(竺次)를 파견했는데

가 도입된 시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嶋崎昌, 1977: 343-427 참조.

350) 居廬倉: 거려창은 鄯善國의 수도 즉 伊循城 부근에 두어진 屯田에서 수확된 곡식을 쌓아두는 倉庫였고, 서역을 출입하는 漢의 使臣이나 軍隊를 위한 곡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1930~1934년에 西北科學考察團이 룽 노르를 조사할 당시 居廬倉 遺址로 보이는 폐허를 발견했다.

351) 馮嫪: 解憂公主의 侍者였던 풍료는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나라 조정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원귀미를 ‘大昆彌’에 얹히는 외교적 활약을 하였다. 宣帝 甘露 3년(전51) 解憂公主가 연로하여 귀국할 때 그녀도 같이 長安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원귀미의 아들 星靡가 怯弱하여 烏孫의 국내정세가 불안하게 되자, 그녀는 다시 황제에게 上書を 올리고 烏孫에 使臣으로 다녀오기도 하였다.

352) 史書: 漢代에는 歷史書を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令史가 습득해야 하는 글, 즉 당시 通用되던 隸書を 뜻하였다.

353) 小號: 즉 小昆彌의 칭호를 말한다.

354) 謁者: 春秋戰國시대에 처음으로 두어진 관직으로서 군주를 위하여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秦代에도 이를 답습하였고, 특히 漢代에 들어가서는 郎中令의 屬官으로 謁者가 두어졌다. 외국의 賓客

기문(期門)³⁵⁵⁾ 감연수(甘延壽)를 그의 부관으로 삼아서, 풍부인을 [호송해서] 보내도록 하였다. 풍부인은 비단으로 장식되고 지절이 달린 수레를 타고 갔다. 오취도로 하여금 적곡성의 장라후를 찾아가서 원귀미를 대곤미(大昆彌)로 추대하고, 오취도는 소곤미(小昆彌)로 삼으며, 모두에게 인수(印綬)를 하사하는 조칙을 보냈다. 파강장군은 변경의 관문을 나가지 않고 돌아왔다. 후일 오취도가 여러 흡후들에게 백성들을 모두 돌려주지 않자, 한나라는 다시 장라후 상해로 하여금 삼교(三校)³⁵⁶⁾를 이끌고 적곡성에 주둔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 백성과 경계를 분별케 했더니, 대곤미의 호구가 6만여였고, 소곤미의 호가 4만여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마음은 모두 소곤미를 추종하였다.³⁵⁷⁾

들을 맞아들이는 사무를 관장했으며, 員 七十人, 秩 比六百石이었다. 또한 少府의 屬官 가운데 中書謁者라는 것이 있었는데, 成帝 때에 中書謁者令을 中闕者令으로 고쳤다. 官銜에 ‘中’자가 있어서 宦官들이 그 직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355) 期門: 『漢書』 「百官公卿表」에 “期門은 병사를 관장하며 [황제를] 호송하며 따라간다. 武帝 建元 3년에 初置되었으며 郎에 준한다. 정원은 없고, 많은 경우 천 명에 이르기도 한다. 僕射가 있고 秩은 比千石이다. 平帝 元始元년에 虎賁郎으로 개명했으며, [虎賁] 中郎將을 두었으니, 秩은 比二千石이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즉 期門과 羽林은 모두 漢代 宮廷의 禁軍을 관할하던 직책이었는데, 期門은 宿衛兵을 관장하고 皇帝를 따라 微行하였기 때문에 “期諸殿門”이라는 말의 준말이다. 平帝 때에 虎賁으로 改名했는데 이는 “若虎賁獸”의 준말로 그 용맹함을 표현한 것이다.

356) 三校: 校는 漢代 軍事編制의 단위이며 校尉는 그 지휘관이다. 전국 말기에 이미 校尉라는 명칭이 보이며, 秦代에는 中級軍官이었다. 한 무제는 長安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中壘 · 屯騎 · 步兵 · 越騎 · 長水 · 胡騎 · 射聲 · 虎賁 등 八校尉를 두었다. 八校尉의 秩은 모두 二千石이었다. 西域에 두어진 戊校尉 · 己校尉도 이에 준해서 설치된 것이다.

357) 한나라가 오손을 大 · 小昆彌에 의해서 分治되는 兩部로 나눈 시점이 甘露 2년(전52) 四月 이후라는 사실이 최근 발견된 敦煌 懸泉漢簡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袁延勝, 2005 참조). 그 뒤 한나라는 烏孫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漢書』 卷94下 「匈奴傳下」에 따르면 흉노의 內亂으로 말미암아 郅支에게 밀려난 呼韓邪가 남쪽으로 내려와 한나라에 구원을 요청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郅支는 烏孫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小昆彌 烏就屠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烏就屠은 漢과 呼韓邪의 연합세력이 더 강력하다고 판단하여 郅支의 사신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都護에게 보내는 동시에, 8,000명의 기병을 동원하여 郅支를 공격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烏就屠은 다시 벌어진 전투에서 匈奴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元貴靡·鷓靡皆病死，公主上書言年老土思，願得歸骸骨，葬漢地。天子聞而迎之，公主與烏孫男女三人俱來至京師。是歲，甘露三年也。時年且七十，賜以公主田宅奴婢，奉養甚厚，朝見儀比公主。後二歲卒，三孫因留守墳墓云。

원귀미와 치미가 모두 병으로 사망하자, 공주는 “연로하여 고향 생각이 나니 원컨대 돌아가서 해골이라도 한나라 땅에 묻히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천자께서 측은하게 여겨 그녀를 맞아들이니, 공주는 오손의 남녀 3명과 함께 도읍에 도착했다. 이해는 감로 3년(전51)이었고 그녀의 나이 70이었다. 공주에게 전택과 노비를 하사하여 아주 넉넉하게 봉양하도록 하였으며, 조정에 나아가 알현할 때에는 공주의 의례에 준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녀는 사망했고 세 명의 손주들이 남아서 분묘를 지켰다.

元貴靡子星靡代爲大昆彌，弱，馮夫人上書，願使烏孫鎮撫星(彌)[靡]。漢遣之，卒百人送(烏孫)焉。都護韓宣奏，烏孫大吏·大祿·大監皆可以賜金印紫綬，以尊輔大昆彌，漢許之。後都護韓宣復奏，星靡怯弱，可免，更以季父左大將樂代爲昆彌，漢不許。後段會宗爲都護，招還亡畔，安定之。

원귀미의 아들 성미(星靡)³⁵⁸가 그 뒤를 이어 대곤미가 되었으나 [아직] 어렸다.³⁵⁹ 풍부인이 글을 올려 [자신이] 오손에 사신으로 보내어져 성미를 다독거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한나라가 그녀를 보냈는데 병졸 100명이 [오손으로] 호송했다. 도호 한선(韓宣)³⁶⁰이 오손의 대리(大吏)·대록(大祿)·대감(大監) 등에게 모두 자색 끈이 달린 금인[金印紫綬]³⁶¹를 하사하여 대곤미를 존경하고 보좌토록 하자는 상주를 올렸고, 한 [조정]은 이를 허락하였다. 후에 도호 한선이 다시 상주를 올려, 성미는 겁이 많고 허약하니 그를 면직시키고 대신

358) 星靡'(sieng-mjie). 그가 大昆彌로 즉위한 것은 해우공주가 還國한 甘露 3년(전51)의 일로 추정된다.

359) 원문은 '弱'인데 “아직 어리다는 뜻”이라는 顔注가 있다.

360) 韓宣: 전48~전46년에 西域都護의 직책을 수행한 인물.

361) 金印紫綬: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金印紫綬는 相國(혹은 丞相), 太尉, 大司馬, 大司空, 太傅, 太師, 太保와 같은 고관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屬國의 군주도 아닌 高官들에게까지 金印紫綬를 하사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로 보인다.

작은 아버지인 좌대장 락 (樂)³⁶²으로 하여금 곤미의 자리를 대신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한 [조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후에 단회종(段會宗)³⁶³이 도호가 되어, (오손에)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친 사람들을 초치하여 돌려보내서 안돈케 하였다.

星靡死，子雌栗靡代。小昆彌烏就屠死，子拊離代立，爲弟日貳所殺。漢遣使者立拊離子安日爲小昆彌。日貳亡，阻康居。漢徙己校屯姑墨，欲候便討焉。安日使貴人姑莫匿等三人詐亡從日貳，刺殺之。都護廉褒賜姑莫匿等金人二十斤，繒三百匹。

성미가 죽자³⁶⁴ 아들 자울미(雌栗靡)가 뒤를 이었다. 소곤미인 오취도가 사망하자 아들 부리(拊離)가 뒤를 이었으나 동생인 일이(日貳)에게 피살되었다. 한나라가 사신을 보내³⁶⁵ 부리의 아들 안일(安日)을 소곤미로 세우니, 일이가 도망쳐 강거로 갔다.³⁶⁶ 한나라가 기교

362) 樂: 앞에서는 그의 이름이 '大樂'으로 기록되었다.

363) 段會宗: 전84~전10년. 字는 子松, 天水 上邦(현재 甘肅 天水) 출신. 元帝 竟寧 元年(전33)에 西域都護로 임명되었고, 3년 임기를 마치고 귀환했으나 한나라의 西域經營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成帝의 요청에 따라 陽朔 연간인 전21년에 다시 서역도호로 파견되었다. 60의 나이를 넘긴 데다가 두 번째로 都護의 직책을 맡게 된 段會宗의 명성은 이미 서역 여러 나라에 잘 알려져 있어 오손의 소곤미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康居國의 太子 保蘇匿에 관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소환되어 金城(현재 甘肅 蘭州) 太守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뒤 오손의 소곤미인 安日이 피살되는 사건이 터지자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烏孫으로 파견되었고, 결국 75세의 나이로 烏孫에서 사망했다.

364) 星靡의 사망 연도는 景寧元年(전33)이나 建始元年(전32)일 것으로 추정된다.

365) 『漢書』 「段會宗傳」에 따르면 단회종이 烏孫을 방문하게 되자 安日이 과거 자신이 단회종의 덕으로 소곤미로 즉위하게 된 것을 생각하여 龜茲까지 와서 영접을 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余太山(2005: 172)은 위의 본문에서 한나라가 '사신'으로 보내 안일을 소곤미로 올린 인물이 바로 단회종이었다고 보고, 따라서 安日의 즉위는 단회종이 西域都護의 직책을 마친 뒤 즉 전30년 이후의 일로 추정했다.

366) 『漢書』 「陳湯傳」에는 '西域都護' 段會宗이 '烏孫兵'에게 포위되어 서역의 여러 성과와 둔황의 병력을 지원해 달라는 上書를 올렸고, 이에 대해서 丞相 王商과 大將軍 王鳳 등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陳湯이 烏孫兵의 취약함을 지적하면서 지원군을 보내지 않아도 烏孫軍이 스스로 포위를 풀고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에 대해서 余太山(2005: 172)은 이 '烏孫兵'이 段會宗에 의해서 올린 安日의 군대 일리도 없고 또한 한나라와 관계가 좋았던 大昆彌 雌栗靡의 군대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康居로 도망했던 日貳가 그 군대를 얻어서 段會宗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段會宗이 '西域都護'로 있을 때가 아니라, 1차로

(己校)³⁶⁷를 옮겨 고묵(姑墨)³⁶⁸에 주둔시켜서³⁶⁹ 토벌할 기회를 엿보려고 하였다. 안일이 귀족인 고막닉(姑莫匿) 등 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반란을 일으켜 강거로] 도망케 하여 일리를 따르도록 한 뒤 그를 질러서 살해하였다. 도호 염포(廉褒)³⁷⁰는 고막닉 등에게 금 20근과 비단 300필을 하사하였다.

後安日爲降民所殺，漢立其弟末振將代。時大昆彌雌栗靡健，翁侯皆畏服之，告民牧馬畜無使入牧，國中大安和翁歸靡時。小昆(靡)[彌]末振將恐爲所并，使貴人烏日領詐降刺殺雌栗靡。漢欲以兵討之而未能，遣中郎將段會宗持金幣與都護圖方略，立雌栗靡季父公主孫伊秩靡爲大昆彌。漢沒入小昆彌侍子在京師者。久之，大昆彌翁侯難栖殺末振將，末振將兄安日子安犁靡代爲小昆彌。漢恨不自(責)誅末振將，復使段會宗即斬其太子番丘。還，賜爵關內侯。是歲，元延二年也。

후에 안일이 투항민들에게 피살되자 한나라는 그의 동생인 말진장(末振將)으로 하여금 뒤를 잇게 하였다.³⁷¹ 당시 대군미였던 자율미는 강력하여 흡후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하여

都護職을 마치고 돌아간 뒤 拊離 피살 후 혼란한 烏孫의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使臣’으로 파견되었을 때 벌어진 일인 셈이다.

367) 己校: 『漢書』 「百官公卿表」에는 “戊己校尉는 元帝 初元元年(전48)에 두어졌다.”라는 기사가 있고, 『漢書』 「西域傳」에는 “元帝時에 이르러 戊己校尉를 復置하고 車師前王庭에 屯田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러나 『後漢書』 「西域傳」에는 “元帝가 다시 戊己二校尉를 두어 車師前王庭에 屯田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로써 戊己校尉라는 하나의 직책인가 아니면 戊校尉·己校尉라는 두 직책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나중에 둘로 나뉘었는가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漢書』의 戊己校尉도 실은 戊·己校尉로 읽어야 옳다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敦煌 懸泉漢簡에 따라서 初元元年 처음 설치될 때부터 戊·己 二職으로 分設되었으나 후일 一職으로 통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李炳泉, 2002). 한편 余太山(2006: 235)은 “元帝가 다시 戊己二校尉를 두었다.”는 『後漢書』 「西域傳」의 기사에 대해서 元帝는 初元元年(전48)에 戊己校尉·戊校尉·己校尉 등 모두 3명의 校尉를 두었고, 戊校尉·己校尉는 戊己校尉의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368) 뒤에 나오는 姑墨國條 참조.

369) 己校: 顏注: “戊己 兩校의 병력이 있었는데, 여기서 己校만을 이주시켰다는 뜻이다.”

370) 廉褒: 전30~전28년에 西域都護를 역임한 인물.

371) 『漢書』 「段會宗傳」의 기록에 따르면 鴻嘉 3년(전18) 단희종이 두 번째 西域都護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

복종하였으며, 백성들에게 말과 가축을 방목할 때 [곤미의] 목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통고하였다.³⁷²⁾ 나라는 옹귀미 때에 비해서 크게 평안하고 화목하였다.³⁷³⁾ 소곤미 말진장은 [대곤미에게] 병합될까 두려워 귀족인 오일령(烏日領)에게 거짓으로 투항하여 자율미를 칼로 찢러 죽였다. 한나라는 군대를 보내 그를 토벌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랑장인 단회중으로 하여금 금과 비단을 갖고 가서, 도호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여 자율미의 계부이자 [해우]공주의 손자인 이질미(伊秩靡)를 대곤미로 삼았다. 한나라는 경사에 시자로 와 있는 소곤미의 아들을 노예로 만들었다.³⁷⁴⁾ 한참 뒤에 대곤미의 흡후인 난서(難栖)가 말진장을 살해하고, 말진장의 형인 안일의 아들 안리미(安犁靡)로 하여금 뒤를 이어 소곤미로 삼았다.³⁷⁵⁾ 한나라는 직접 말진장을 견책하여 주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다시 단회중을 사신으로 보내어 그 태자 번구(番丘)를 참수하였다.³⁷⁶⁾ 그가 돌아오자 관내후(關內侯)³⁷⁷⁾의 작위

은(更盡還) 뒤 “歲餘”에 소곤미 안일의 피살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余太山(2005: 174)은 鴻嘉 3년(전 18) 이후에 “歲餘”라고 한다면 대체로 鴻嘉 4년이나 永始元年(전17~전16)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추정하였다.

372) 원문은 “告民牧馬畜無使入牧.” 이에 대한 해석은 “昆彌의 목지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로 인해 서로 소란이 일어날까 우려해서였다.”라고 한 顏注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Hulsewé(1979: 160)는 “말과 가축을 치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축세를 바치게(入牧)해서는 안 된다고告하였다.”라고 번역하였다.

373) 원문은 “國中大安和翁歸靡時.” 이에 대한 해석 역시 “翁歸靡 때보다 더 나았다(勝於)”라고 한 顏注를 따랐다.

374) 원문은 “沒入”인데, 이 말은 원래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재산을 ‘몰수하다’는 뜻이지만, 사람에게 대해서 사용될 때에는 ‘노예가 되다’라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史記』 卷10 「孝文帝紀」에는 齊太倉令淳于公이得罪했을 때 그 딸이 아버지를 따라 長安에 와서 “妾은 願컨대 官婢로 沒入되어, 아버지의 형벌을 贖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上書を 올린 일이 있다.

375) 『漢書』 「段會宗傳」에는 末振將이 ‘病死’한 것으로 나와 있다. 末振將의 사망과 安犁靡의 즉위는 단회중이 파견되어 番丘를 참살한 元延 2년(전11) 직전, 즉 元延元年(전12)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76) 番丘의 주살에 대해서 『漢書』 「段會宗傳」은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會宗은 大兵을 이끌고 烏孫에 들어가면 番丘가 놀라서 도망쳐 그를 붙잡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여, 즉시 징발한 병사들을 墊婁地에 남겨두고 精兵 三十騎를 선발하여 지름길을 이용하여 昆彌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番丘를 불렀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여 가로되 ‘末振將은 骨肉相殺을 범하고 漢의 公主의 子孫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伏誅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으니, 使者는 詔勅을 받들어 番丘를 誅殺하노라.’라고 하며, 즉각 검으로 番丘를 쳐서 죽였다. 官屬 이하 놀라 두려워했고, [단회중은] 말을 달려 돌아갔다. 小昆彌인 烏犁靡는 末振將의 兒子였는데, 數千騎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會宗을 포위하니, 會宗이 주살하러 온 뜻을 설명하여 ‘지금 포위해서 나를 살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한나라라는 소의 터럭 하나(漢牛一

를 하사했다. 이해는 원연(元延) 2년(전11)이었다.

會宗以翁侯難栖殺末振將，雖不指爲漢，合於討賊，奏以爲堅守都尉。責大祿·大吏·大監以雌栗靡見殺狀，奪金印紫綬，更與銅墨云。末振將弟卑爰寔本共謀殺大昆彌，將衆八萬餘口北附康居，謀欲藉兵兼并兩昆彌。兩昆彌畏之，親倚都護。

단희종은 흡후 난서가 말진장을 죽인 것이 비록 한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반도를 특별한 행동과 부합되므로, 그를 견수도위(堅守都尉)³⁷⁸⁾로 삼자고 상주를 올렸다. [한나라는] 대록·대리·대감을 견책하며 자울미가 살해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자색 끈이 달린 금인을 빼앗고 검은 끈이 달린 동인(銅印)³⁷⁹⁾으로 바꾸어 주었다. 말진장의 동생 비원치(卑爰寔)는 원래 대군미를 살해하려고 공모했다가, 8만여명의 무리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강거에 의부하여, 군대를 빌려서 두 곤미를 겸병하려고 도모하였다.³⁸⁰⁾ 두 곤미는 그를 두려워하여 [한나

毛)를 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大宛王과 郵支의 머리가 藁街에 내걸리게 된 것을 오손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곤미 이하가 모두 습복하여 말하기를 '末振將은 한나라에 빚을 졌으니, 그 아들을 주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만 알려 주어서 그에게 [마지막] 음식을 줄 수 있게 했으면 어떠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會宗이 말하기를 '미리 昆彌에게 알려 주었다면 그를 도망쳐 숨겨서 大罪를 지었을 것이오. 만약 음식을 준 뒤에 내게 [그를] 넘겼다면 骨肉의 정과 어긋나는 것이니, 그런 연유로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에 昆彌 以下 여러 사람들이 소리내어 울면서 돌아갔다." 여기서 小昆彌 烏犁靡는 安犁靡를 지칭한다.

377) 關內侯: 秦漢代에 두어진 爵位名으로, 二十等級 가운데 第十九級에 해당되어, 徹(列)侯의 다음에 위치해 있었다. 일반적으로 軍功이 있는 將領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사하는 작위이며, 國邑은 없었지만 약간의 食邑을 내려주고 규정에 따라 食邑에 대한 租稅徵收勸을 부여하기도 했다.

378) 堅守都尉: 이 직명은 여기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難栖에게 烏孫國을 '堅守'하라는 의미에서 붙여 준 것이다.

379) 銅墨云: '墨云'이라는 단어에는 무엇인가 錯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銅印墨綬를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漢舊儀』에는 東漢 光武帝 建武元年(후25)에 정해진 규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金璽綬를 받는 諸侯王 이하, ①金印紫綬, ②銀印青綬, ③銅印墨綬, ④銅印黃綬의 4단계가 있다.

380) 『漢書』 卷94下 「匈奴傳下」에는 “哀帝 建平 2년(전5), 烏孫의 庶子 卑援寔 翁侯의 人衆이 匈奴 西界로 들어와 牛畜을 寇盜하고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 單于가 이를 듣고 左大當戶 烏夷冷에게 五千騎를 지휘하여 보내 烏孫을 공격케 하고 數百人을 죽이고 千餘人을 略取하고 牛畜을 끌고 갔다. 卑援寔가 두려워하

라] 도호와 친밀하게 되고 의지하였다.

哀帝元壽二年，大昆彌伊秩靡與單于並入朝，漢以爲榮。至元始中，卑爰寔殺烏日領以自效，漢封爲歸義侯。兩昆彌皆弱，卑爰寔侵陵，都護孫建襲殺之。自烏孫分立兩昆彌後，漢用憂勞，且無寧歲。

에제 원수(元壽) 2년(전1) 대곤미 이질미가 선우와 함께 조정에 왔고 한나라는 이를 큰 성과라고 여겼다.³⁸¹⁾ 원시(元始) 연간에 이르러 비원치가 오일령을 죽이고 스스로 투항해 와서 한나라는 그를 귀의후(歸義侯)로 봉하였다.³⁸²⁾ 두 곤미가 모두 약하여 비원치가 침범하니, 도호 손건(孫建)³⁸³⁾이 그를 습격하여 죽였다. 오손이 두 곤미로 분립한 이후 한나라는

여 아들 趨遂을 匈奴에 質子로 보내자, 單于가 이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한나라에] 보고했다. 漢이 中郎將 丁野林과 副校尉 公乘音을 匈奴에 사신으로 보내 單于를 견책하고, 卑爰寔의 質子를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單于가 詔勅을 받들어 그를 돌려보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卑爰寔의 활동 및 흉노와의 관계가 『漢書』卷45 「息夫躬傳」에서도 그에 관한 추가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烏孫의 두 昆彌는 약한데 卑爰寔는 強盛합니다. 그는 疆墟之地에 머물면서 十萬의 무리를 이끌고, 東으로는 單于와 결맹하여 아들을 侍子로 보냈습니다. 그가 스스로 강성하다고 여겨서 烏(孫)就屠가 했던 행적을 좇아서 舉兵南伐하여 烏孫의 세력을 병합하려고 하는데, 烏孫이 병합되면 즉 匈奴가 강성해지고, 그렇게 되면 西域이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 기사를 종합해 볼 때 당시 卑爰寔의 세력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81) 『漢書』 「哀帝紀」에 따르면 元壽 2년 春正月의 일이다.

382) 歸義侯: 異民族의 지도자들 가운데 漢에 투항하여 이 작위를 받은 경우가 여럿 보인다. 예를 들어 『漢書』卷6 「武帝紀」(187쪽); 「衛青霍去病傳」(2487쪽); 4上 「匈奴傳·上」(3780, 3793쪽) 등. 비원치가 오일령을 살해하고 한나라에 귀의한 사건은 元始元年(후1)의 일로 추정된다(袁延勝, 2005).

383) 孫建: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哀帝 元壽 2년(전1), 護軍都尉였던 孫建이 執金吾가 되고 3개월 후에는 右將軍이 되었으며, 平帝 元始2년(후2)에는 左將軍이 되었다. 또한 『漢書』 「外戚恩澤侯表」에는 그가 元始 5년(후5) 閏6월에 強弩將軍으로서 적을 제압한(折衝) 위세를 떨쳐 成武侯에 봉해졌다. 余太山(2005: 177)은 前漢代에 將軍의 직책을 가지면서 都護에 임명받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위의 본문에서 孫建이 이미 將軍이 된 元始年間に ‘都護’로서 비원치를 습살했다는 것은 잘못이며, 아마 과거의 도호의 칭호를 소급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 懸泉漢簡에 근거한 한 연구는 후8~15년 사이에 일어난 일로 추정하고 있다(袁延勝, 2005).

걱정과 노고[憂勞]³⁸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해가 없었다.³⁸⁵⁾

姑墨國，王治南城，去長安八千一百五十里。戶三千五百，口二萬四千五百，勝兵四千五百人。姑墨侯·輔國侯·都尉·左右將·左右騎君各一人，譯長二人。東至都護治所〔二〕千二十一里，南至〔於〕〔于〕闐馬行十五日，北與烏孫接。出銅·鐵·雌黃。東通龜茲六百七十里。王莽時，姑墨王丞殺溫宿王，并其國。

고목국(姑墨國).³⁸⁶⁾ 도읍은 남성(南城)이고, 장안에서 8,150리 떨어져 있다.³⁸⁷⁾ 호수는 3,500이고 인구는 24,500, 병사는 4,500명이다. 고목후(姑墨侯)·보국후(輔國侯)·도위·좌장·우장·좌기군·우기군 등이 각각 1명씩 있고, 역장이 2명 있다. 동쪽으로 2,021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³⁸⁸⁾ 남쪽으로 말로 15일 가면 우전에 이르며, 북으로는 오순에 접해 있다. 동·철·자황(雌黃)³⁸⁹⁾ 등이 나온다. 동쪽으로 670리 가면 구자와 통한다. 왕망 때에

384) 憂勞: 顏注는 이 말을 “혹은 鎮撫하고 혹은 威制하기도 했으니 다사다난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하였다.

385) 漢이 烏孫을 大小 두 昆彌로 나눈 것은 分治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 즉 翁歸靡(=肥王)가 漢家の 여자인 解憂公主와의 사이에서 낳은 元貴靡를 大昆彌로 삼고, 匈奴에서 온 胡婦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烏就屠를 小昆彌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烏孫 세력의 兩分은 오히려 主導權을 둘러싼 內紛을 격화시키고, 한과 흉노의 개입과 간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한나라 조정은 赤谷에 屯田을 설치하고, 己校를 姑墨으로 이주시키거나, 혹은 戊己校尉의 병사를 파견하기도 했으며, 재물과 인장과 봉작을 내려서 위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군대를 동원하거나 사신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段會宗의 4차에 걸친 出使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가 “걱정과 노고(憂勞)”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평가는 결코 지나친 폄하라고 하기 어렵다.

386) 姑墨(kuo-mək). 보통 악수(Aqsu, 阿克蘇)로 비정한다.

387) ‘8,150리’는 姑墨에서 龜茲까지 670리에, 龜茲에서 長安까지의 7,480리를 합산한 결과이다.

388) 1,021리: 그러나 姑墨에서 龜茲까지 670리에, 龜茲에서 都護의 治所까지 350리를 더하면 1,020리가 된다. 그러나 中華書局 標點本은 “[一]千二十一里”를 “[二]千二十一里”로 校勘하였다.

389) 雌黃: 雄黃과 같으며 영어로는 orpiment라고 한다. 유황과 비소의 화합물인 결정체를 이용하여 만든 노란색의 채료(彩料). 고대에는 잘못 쓴 글씨를 덮어서 지울 때 사용하기도 했다. 『晉書』卷43 「王戎傳」에 “口中雌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王戎이 자신의 잘못된 말을 능수능란하게 고쳐서 말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일에는 사실을 올바르게 살피지 않고 말이 나오는데로 비평하는 것을

고목왕 승(丞)³⁹⁰이 온숙왕을 살해하고 그 나라를 병합했다.

溫宿國，王治溫宿城，去長安八千三百五十里。戶二千二百，口八千四百，勝兵千五百人。輔國侯·左右將·左右都尉·左右騎君·譯長各二人。東至都護治所二千三百八十里，西至尉頭三百里，北至烏孫赤谷六百一十里。土地物類所有與鄯善諸國同。東通姑墨二百七十里。

온숙국(溫宿國)³⁹¹ 도읍은 온숙성(溫宿城)³⁹²이고, 장안에서 8,35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2,200, 인구는 8,400, 병사는 1,500명이다. 보국후·좌우장·좌우도위·좌우기군·역장이 각각 2명씩 있다. 동쪽으로 2,380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서쪽으로 300리 가면 위두에 이르며, 북쪽으로 610리 가면 오손의 적곡에 도달한다. 토지와 물산 등 있는 것은 선선과 다른 여러 나라들과 동일하며, 동쪽으로 270리 가면 고목과 통한다.

龜茲國，王治延城，去長安七千四百八十里。戶六千九百七十，口八萬一千三百一十七，勝兵二萬一千七十六人。大都尉丞·輔國侯·安國侯·擊胡侯·卻胡都尉·擊車師都尉·左右將·左右都尉·左右騎君·左右力輔君各一人，東西南北部千長各二人，卻胡君三人，譯長四人。南與精絕·東南與且末·西南與杆彌·北與烏孫·西與姑墨接。能鑄冶，有鉛。東至都護治所烏壘城三百五十里。

구자국(龜茲國)³⁹³ 도읍은 연성(延城)³⁹⁴이고 장안에서 7,48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두고 “信口雌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390)丞(zhang): 이민족의 이름을 표기할 때 이렇게 한 글자로, 그것도 중국식으로 의미가 통하는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중국식 이름이 아니라 현지식 이름을 음寫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91)溫宿(uən-siuk): 악수 부근의 우쉬(Ush, Uch)로 비정된다.

392)溫宿城: 顏注: “오늘날 雍州 醴泉縣의 북쪽에 溫宿嶺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는데, 본디 한나라 때 온숙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며 농사짓고 목축하게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6,970, 인구는 81,317, 병사는 21,076명이다. 대도위승(大都尉丞)·보국후·안국후(安國侯)·격호후(擊胡侯)·각호도위(卻胡都尉)·격거사도위(擊車師都尉)·좌우장·좌우도위·좌우기군·좌우역보군(左右力輔君) 등이 각각 1명씩 있으며, 동서남북 각 부(部)의 천장(千長)이 각각 2명씩 있고, 각호군(卻胡君) 3명, 역장 4명이 있다.³⁹⁵⁾ 남쪽으로 정절, 동남쪽으로 차말, 서남쪽으로 우미, 북쪽으로 오손, 서쪽으로 고목과 접해 있다. 주조와 야금에 능하여 납[鉛]이 생산된다. 동쪽으로 350리 가면 도호의 치소인 오루성에 도달한다.

烏壘，戶百一十，口千二百，勝兵三百人。城都尉·譯長各一人。與都護同治。其南三百三十里至渠犂。

오루(烏壘).³⁹⁶⁾ 호수는 110, 인구는 1,200, 병력은 300명이다. 성도위(城都尉)와 역장이 각각 1명씩 있다. [이 성의 치소는] 도호의 치소가 같고, 거기서 남쪽으로 330리 가면 거리에 이른다.

渠犂，城都尉一人，戶百三十，口千四百八十，勝兵百五十人。東北與尉犂·東南與且末·南與精絕接。西有河，至龜茲五百八十里。

393) 龜茲: 현재 新疆 庫車縣에 해당되지만, 龜茲國의 범위는 오늘날의 庫車縣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前漢代에 龜茲國은 비교적 약했기 때문에, 한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龜茲王 絳賓은 漢의 公主와 烏孫王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혼인을 하였다. 後漢代가 되어서 龜茲國은 強大해졌다.

394) 延城: 일반적으로 현재 庫車縣 동쪽 교외에 위치한 皮郎古城으로 지정된다. 『冊府元龜』 卷958 「外臣部·國邑二」에는 '居延城'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 '居延'은 예친골 부근의 居延과 같은 지역은 아니다.

395) 쿠차는 실크로드 대도상에 있어 동쪽으로는 투르판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북으로는 비록 천산산맥이 있지만 그 사이의 계곡을 통해서 북방의 이리 계곡 및 준가리아 초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본문에서 보이듯이 龜茲에 '胡'(匈奴)나 '車師'(투르판)를 '물리치거나'(却) '공격'(擊)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직책이 많이 두어진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396) 烏壘: 서역도호의 치소인 烏壘의 위치에 대해서는 前註 참조.

거리(渠犁).³⁹⁷⁾ 성도위 1명이 있고, 호수는 130, 인구는 1480, 병력은 150명이 있다. 동북쪽으로 위리, 동남쪽으로 차말, 남쪽으로 정절과 접해 있다. 서쪽에 강이 하나 있으며, 구자까지 580리이다.

自武帝初通西域，置校尉，屯田渠犁。是時軍旅連出，師行三十二年，海內虛耗。征和中，貳師將軍李廣利以軍降匈奴。上既悔遠征伐，而搜粟都尉桑弘羊與丞相御史奏：「故輪臺(以)東捷枝·渠犁皆故國，地廣，饒水草，有溉田五千頃以上，處溫和，田美，可益通溝渠，種五穀，與中國同時孰。其旁國少錐刀，貴黃金采繒，可以易穀食，宜給足不(可)乏。臣愚以為可遣屯田卒詣故輪臺以東，置校尉三人分護，各舉圖地形，通利溝渠，務使以時益種五穀。張掖·酒泉遣騎假司馬為斥候，屬校尉，事有便宜，因騎置以聞。田一歲，有積穀，募民壯健有累重敢徙者詣田所，就畜積為本業，益墾溉田，稍築列亭，連城而西，以威西國，輔烏孫，為便。臣謹遣徵事臣昌分部行邊，嚴敕太守都尉明烽火，選士馬，謹斥候，蓄芟草。願陛下遣使使西國，以安其意。臣昧死請。」

무제 초기에 서역과 소통되기 시작한 이래 교위를 두고 거리에 둔전을 실시했다. 그 당시 군대를 연속해서 동원하여 내보냈고 원정이 32년 계속되어 온 나라가 고갈되었다. 정화(征和) 연간(전92~89)에 이사장군 이광리가 휘하 군대와 함께 흉노에 투항했다. 주상께서는 이미 먼 곳을 정벌한 것을 후회하였고, 그래서 수속도위 상홍양과 승상(丞相)³⁹⁸⁾·어사(御史)³⁹⁹⁾

397) 渠犁(g'iwo-liei): 위치는 현재 쿠를라(庫爾勒)의 서쪽, 콘체다리아(孔雀河)의 동쪽으로 비정되며, 黃文彌는 오늘날 차르치(Charchi, 查爾赤)의 쿠르추(Kurchu, 庫爾楚)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水經注』에 따르면 이곳은 龜茲 동남쪽에 위치.

398) 丞相: 고대 중국에서 황제를 보좌하고 百官을 통할하는 최고위 관직명. 승상제도의 기원은 戰國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秦의 武王 때부터 左·右丞相을 두기 시작하였다. 前漢 초 蕭何가 丞相이 되었다가 후에 相國이 되었고, 그가 사망한 뒤에는 曹參이 뒤를 이었다. 惠帝·呂后에서 文帝 初년에 이를 때까지 左·右丞相을 두었으나, 후에는 단지 하나의 丞相직만을 두었다. 漢初에는 지방의 각 王國들이 中央의 제도를 본따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각각 丞相職을 설치했다. 景帝 中元 5년(전145)에 丞相은 相으로 改稱되었다. 丞相의 秩은 萬石이었고, 月俸으로 받는 곡식은 350斛, 錢 6萬이었다. 屬官으로는 長史

는 [다음과 같이] 상주를 올렸다. “옛 윤대 동쪽에 첩지(捷枝)⁴⁰⁰와 거리는 모두 오래된 나라 [故國]입니다. 땅도 넓고 수초도 풍부하며, 관개된 밭이 5,000경이 넘습니다. 온화한 곳에 위치해 있고 밭은 기름져서 도랑과 운하[溝渠]⁴⁰¹를 통하게 하여 오곡을 심는다면 [곡식이] 중국과 같은 시기에 익을 것입니다. 그 이웃 나라에는 송곳·칼[錐刀] [등의 철기]가 부족하고 황금과 채증(采繒)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곡식을 바꾼다면 마땅히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⁴⁰²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둔전할 사졸들을 옛 윤대의 동쪽으로 파견하여, 교위 3명을 두어 [그들을] 나누어 보호하게 하고, 각자 지형을 그려서 올리게 하고 도랑과 운하를 소통케 하며, 때에 맞추어 힘써서 오곡을 많이 심으면 어떨까 합니다. 장액과 주천에서 기가사마(騎假司馬)⁴⁰³를 파견하여 척후로 삼고 교위에게 소속케 하여, 상황이 허락된다면 역마[騎置]⁴⁰⁴를 이용하여 보고케 하면 좋을 것입니다. 1년간 농사를 지어 곡식이 쌓이게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⁴⁰⁵ 둔전하는 곳으로 감히 이주할 만한 건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곡식을 축적하는 것을 그 본업으로 삼게 하고, 더욱 밭을 갈고 관개케 하며 연도에 정(亭)들을 조금씩 건설하고 성을 연이어 쌓아서 서쪽으로 확장시킨다면 서방의 나라들을 위세로써 누르고 오손을 지원하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신들은 삼가 징사(徵事)⁴⁰⁶[의 직책을 수행하는] 신하 창(昌)을 변경 지역 여러 곳으로 파견하였습니다. 태수와

2인이 있어 승상을 보조하였다.

399) 御史: 先秦시기에는 天子·諸侯·大夫·邑宰 등이 모두 御史를 두었는데, 이들은 기록의 책임을 맡는 史官 겸 秘書官이었다. 秦代 이후에 御史大夫는 丞相에 버금가는 고위직이 되어, 관리들의 과실을 彈劾하고 糾察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400) 捷枝(dz'jap-tsie): 『水經注』에 보이는 龜茲 동북의 ‘積梨’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文獻通考』는 이곳을 ‘接枝’라고 표기했다. 현재 Charchi에 비정된다.

401) 溝渠: 溝와 渠는 모두 인공관개시설이지만 규모에 크고 작음에 차이가 있다. 堀直(1980)은 위구르인들의 현지어로 전자가 östäng, 후자가 ariq로 불리며 구별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402) 顏注: “錐刀와 黃金·綵繒 등으로 이웃 나라에서 곡식을 사들인다면 가히 둔전의 사졸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으니, 양식 부족의 걱정은 없다는 뜻이다.” ‘錐刀’가 ‘錢刀’의 錯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당시 貨幣經濟의 미발달을 말하는 본문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403) 騎假司馬: 漢代에 관직명 앞에 ‘假’字를 첨가하여 副官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軍假司馬는 軍司馬의 副官이고, 假候는 候의 副貳였다. 따라서 騎假司馬는 騎司馬의 副官에 해당되는 직책이다.

404) 騎置: 顏注에 따르면 驛馬를 뜻한다.

405) 累重: 顏注에 따르면 妻子家屬을 뜻한다.

도위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려 봉화를 잘 밝히도록 하고, 군마[土馬]를 올바로 선발하며, 척후의 일을 신중하게 수행하고, 사료를 비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사신들을 서방의 나라들에 파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안돈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들은 감히 죽음을 무릎쓰고 청원하는 바입니다.”⁴⁰⁷⁾

上乃下詔，深陳既往之悔，：「前有司奏，欲益民賦三十助邊用，是重困老弱孤獨也。而今又請遣卒田輪臺。輪臺西於車師千餘里，前開陵侯擊車師時，危須·尉犁·樓蘭六國子弟在京師者皆先歸，發畜食迎漢軍，又自發兵，凡數萬人，王各自將，共圍車師，降其王。諸國兵便罷，力不能復至道上食漢軍。漢軍破城，食至多，然士自載不足以竟師，彊者盡食畜產，羸者道死數千人。朕發酒泉驢橐駝負食，出玉門迎軍。吏卒起張掖，不甚遠，然尚廝留甚衆。曩者，朕之不明，以軍候弘上書言‘匈奴縛馬前後足，置城下，馳言「秦人，我匈若馬」，又漢使者久留不還，故興(師)遣貳師將軍，欲以爲使者威重也。古者卿大夫與謀，參以蓍龜，不吉不行。乃者以縛馬書徧視丞相御史二千石諸大夫郎爲文學者，乃至郡屬國都尉成忠·趙破奴等，皆以‘虜自縛其馬，不祥甚哉!’或以爲‘欲以見彊，夫不足者視人有餘。’易之，卦得大過，爻在九五，匈奴困敗。公車方士·太史治星望氣，及太卜龜蓍，皆以爲吉，匈奴必破，時不可再得也。又曰‘北伐行將，於鬴山必克。’卦諸將，貳師最吉。故朕親發貳師下鬴山，詔之

406) 徵事: 『漢書』卷7 「昭帝紀」에는 ‘丞相徵事’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文穎은 “徵事は 丞相의 官屬”이라 하였고, 如淳은 “당시 宮에서 일이 생기면 때때로 불렀으니, 丞相府에서 待詔했다고 하여 丞相徵事라고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張晏은 “徵事に 관한 漢儀의 注에는 秩이 比六百石이라고 되어 있다. 二千石의 故吏들은 贓罪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免罪를 받은 사람은 모두 徵事를 했고, 絳衣를 입고 正月에 朝賀를 드렸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顏師古는 “張晏의 설명이 옳다”라고 하였다. 한편 Dubs(1938: 165)는 이 단어를 ‘consultant’로 옮겼고, Hulsewe(1979: 167)도 그대로 따왔다. 徐松은 여기서 말하는 昌이 武帝 때의 拔胡將軍인 郭昌과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다.

407) 前漢은 이미 太初(전104~전101)·天漢(전100~전97) 연간에 輪臺와 渠犂에 둔전을 실시했으나 그 규모는 각각 田卒 수백 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충분한 곡식을 확보하지 못했고, 따라서 西域 諸國을 장악하거나 匈奴를 견제하는 데에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桑弘羊 등이 輪臺에서 渠犂에 이르는 지역에 “五千頃” 이상을 灌溉하여 屯田을 대대적으로 확보하자는 건의를 하게 된 것이다.

必毋深入。今計謀卦兆皆反繆。重合侯(毋)[得]虜侯者，言‘聞漢軍當來，匈奴使巫埋羊牛所出諸道及水上以詛軍。單于遺天子馬裘，常使巫祝之。縛馬者，詛軍事也。’又卜‘漢軍一將不吉’。匈奴常言‘漢極大，然不能飢渴，失一狼，走千羊。’乃者貳師敗，軍士死略離散，悲痛常在朕心。今請遠田輪臺，欲起亭隧，是擾勞天下，非所以優民也。今朕不忍聞。大鴻臚等又議，欲募囚徒送匈奴使者，明封侯之賞以報忿，五伯所弗能爲也。且匈奴得漢降者，常提掖搜索，問以所聞。今邊塞未正，闌出不禁，障候長吏使卒獵獸，以皮肉爲利，卒苦而烽火乏，失亦上集不得，後降者來，若捕生口虜，乃知之。當今務在禁苛暴，止擅賦，力本農，脩馬復令，以補缺，毋乏武備而已。郡國二千石各上進畜馬方略補邊狀，與計對。」由是不復出軍。而封丞相車千秋爲富民侯，以明休息，思富養民也。

이에 주상께서 조칙을 내려서 과거의 후회스런 일에 대해서 깊이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관리들이 상주해서 백성들의 부세[民賦]⁴⁰⁸⁾를 [1인당] 30전씩 증액하여 변방의 비용을 보조하자고 했으나, 이는 노인과 병약한 사람, 또 고아와 독신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사졸들을 파견하여 윤대에 둔전시키자고 청하고 있다. 윤대는 거사에서 서쪽으로 천여리 떨어져 있어, 과거에 개릉후(開陵侯)⁴⁰⁹⁾가 거사를 공격할 때 위수·위리·누란 등 6국의 자제로서 경사에 있던 자들이 모두 먼저 귀국하여, 비축된 식량을 내어서 한나라

408) 賦: 여기서 ‘賦’는 ‘算賦’와 동일한 말이다. 즉 漢왕조는 田賦 이외에 ‘算賦’, ‘口錢’, ‘更賦’라는 것을 거두었으니, 이는 人頭稅라고 할 수 있다. 漢 高祖 4년에 시작된 算賦는 “民年十五以上至五十六出賦錢, 人百二十爲算”이라고 하였듯이, 1인당 120錢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賈人과 奴婢는 加倍하여 二算을 납부하였다. 文帝(전180~전147)는 算賦를 3분의 1로 輕減하여 40전만 내도록 했다. 未成年者에게 물리는 人頭稅인 ‘口錢’은 武帝(전140~전87) 때에 군비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民三歲以至十四歲, 出口錢人二十三”하도록 규정하였다. 元帝(전49~전33)는 口錢을 7세 이상에게 물리고, 20세 이상이 되면 算賦를 내도록 하였으며, 이외에 力役으로 ‘更賦’라는 것이 부과되었다.

409) 開陵侯: 한 무제 天漢 3년(전99), 匈奴의 降將인 介和王 成婉을 開陵侯로 봉하고, 그에게 樓蘭國 군대를 이끌고 車師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匈奴의 右賢王이 수만 기를 이끌고 구원하러 와서 한의 군대는 패배하고 돌아갔다. 본문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征和 4년(전89) 한이 다시 開陵侯를 파견하여 樓蘭을 위시한 六國의 군대를 이끌고 車師를 포위함으로써 車師의 왕이 한나라에 투항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군대를 맞이하였다. 또한 그들 스스로 무릇 수만 명의 군대를 내어서, 왕은 각자 스스로 군대를 지휘하여 함께 거사를 포위해서 그 왕을 항복시켰다. 여러 나라의 군대는 곧 해산되었고, [그들이] 다시 대로에 이르러서 한나라 군대에게 식량을 공급해 줄 힘이 없었다. 한나라 군대가 성을 공파했을 당시 식량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병사들 스스로 싣고 가는 것으로는 원정이 끝날 때까지 버티기에 부족했다. 그래서 강한 자는 가축을 모두 먹어치웠지만 약한 자는 길에서 죽은 것이 수천 명이었다. 짐은 주천에서 나귀와 낙타에 식량을 싣고 옥문을 나가서 군대를 영접하도록 하였다. 군관과 병졸들은 장액을 출발하여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낙오자들이 많았다.⁴¹⁰⁾ 일찍이 짐이 불민했고, 또 군후(軍候) 홍(弘)⁴¹¹⁾이 ‘흉노인들이 말의 앞뒤 발을 묶어서 성⁴¹²⁾ 아래에 놓아두고, 달려와서 말하기를 「진나라 사람(秦人)⁴¹³⁾들이여! 우리가 그대들에게 말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상서를 올렸다. 또한 한나라 사신이 오랫동안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키고 이사장군을 파견하여 [우리] 사신들을 위하여 그 위세를 높일려고 했다. 옛날에 경과 대부들이 미라⁴¹⁴⁾ 논의할 때 점대나 구갑⁴¹⁵⁾을 참고하여 길하지 않으면 가지 않았었다. 그때 짐도 말을 묶어 놓았다는 [내용의] 글을 승상, 어사, 이천석(二千石), 여러 대부들(諸大夫),⁴¹⁶⁾ 글을 익힌 낭(郎)들,⁴¹⁷⁾ 심지어 군과 속국의 도위인 성충(成忠)⁴¹⁸⁾과 조파노(趙破奴)에게도 보여주었는데, 모두 ‘오랑캐[虜]가 스스로 그 말을 묶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극히 불길한 징조입니다.’라고 하였고, 혹자는 ‘[그들이 짐짓]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고, 대저 여유가 없는 자들이

410) 廝留: 顏注: “(대열의) 앞뒤에서 떨어지고 뒤쳐져서 미치지 못한 것을 뜻한다.”

411) 軍候: 『史記』卷109 「李將軍列傳」의 기사에 대하여 『後漢書』卷24 「百官一」에 따르면 軍候는 將軍, 校尉, 司馬 이하의 軍官이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된 ‘弘’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412) 萬里長城을 가리킨다.

413) 秦人: 前註 참조.

414) 顏注에 따라 본문의 輿를 豫의 의미로 해석했다.

415) 蓍龜: 점칠 때 사용하는 나뭇가지와 거북이 등뼈를 지칭한다.

416) 諸大夫: ‘大夫’는 先秦시대 諸國에서 國君 아래에 있던 卿·大夫·士의 三級 가운데 하나였으나, 후대로 내려와 大夫는 일반적인 官稱號로 바뀌었다. 秦漢 이후에 中央의 요직에는 御史大夫가 있고, 顧問에 응하는 諫大夫, 中大夫, 光祿大夫 등이 있었다.

417) 郎爲文學者: 顏注: “文學은 經書를 공부한 사람.”

418) 여기에 언급된 成忠은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인물들이다.

남에게 여유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역(易)으로 [점을] 쳐 보니 대과(大過)⁴¹⁹라는 괘(卦)가 나왔고 효(爻)는 구오(九五)⁴²⁰여서, 흉노가 곤경에 처해 패배할 점이었다.⁴²¹ 공거(公車)의 방사(方士),⁴²² 태사(太史)⁴²³에 소속되어 별을 관찰하고 기운을 살피는 사람들과 태복(太卜)⁴²⁴에 소속되어 구갑과 점대로 점치는 사람들이 모두 길조로 여기며 흉노가 반드시 격파될 것이고, [이와 같은] 때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북벌을 하러 원정을 떠날 때 부산(黼山)⁴²⁵에서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 장군들에 대해서 점을 쳐 보니 이사[장군]이 가장 길조였다. 그래서 짐은 친히 이사를 부산으로 내려보냈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조칙을 내렸다. 그런데 이제 보니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과 징조를 점치는 사람들이 모두 [사실과는] 상반되고 오류를 범했다. 중합후(重合侯)⁴²⁶가 오랑캐의 척후를 붙잡았는데, 그가

419) 大過: 『周易』의 第二十八卦로서 ‘澤風大過’라고 불린다.

420) 九五: 九五是 64卦 중에서 제1卦인 乾卦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爻를 지칭한다.

421) 이 두 개의 점괘에 대해서 孟康은 “마른 버드나무에서 꽃이 피는 모양(枯楊生華)”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않을 象이고 따라서 “匈奴가 머지않아 패배할 징조”라고 해석하였다.

422) 公車: 漢代에 徵擧를 받은 讀書人이 京師에 가서 考核을 받을 때에는 官에서 준비한 馬車를 타고 갔다. 예를 들어 『後漢書』 「光武帝紀·下」에는 “擧賢良方正各一人, 遣詣公車”라는 구절이 보인다. 후대에 가서 公車는 擧人이 入京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方士’는 方術士 혹은 有方之士라고도 칭해졌다. 戰國時代에 燕·齊 등 해안지방에서 기원했으며 長生不死의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煉丹·采藥의 神仙術을 표방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 “公車方士”는 황제가 縛馬書와 관련하여 公車로서 召喚되어 대기하고 있는 方士들을 뜻한다.

423) 太史: 太史令이라고도 칭해지며, 西周·春秋시대에 문서를 起草하고 諸侯·卿大夫에게 주는 策命을 작성하였으며, 史事를 기재하고 史書를 編寫하였고, 아울러 典籍·天文曆法·祭祀 등을 관장하였다. 秦漢代에도 太史令을 두었으나 지위는 상당히 낮아졌으며, 漢代에는 특히 太常에 소속되어 天文曆法을 관장했으며 秩六百石이었다.

424) 太卜: 西周에서 처음 설치되었고 지위는三公 다음이고 六卿의 하나였다. 자연현상의 변화와 점괘를 통해서 국가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직능을 수행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차츰 그 지위가 낮아져 前漢代에 太卜은 太常에 속한 여러 官署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게 되었다. 秩六百石의 令이 두어졌고, 그 아래 丞은 秩四百石이었다.

425) 顏注에 따르면 黼山은 山名이고, 黼는 釜의 古字이다. 五原 塞外의 匈奴 境內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26) 重合侯: 『漢書』 卷6 「武帝紀」에는 征和 3년(전90)에 “貳師將軍 李廣利가 七萬人을 이끌고 五原을 나섰고, 御史大夫 商丘成이 二萬人을 이끌고 西河를 나섰으며, 重合侯 馬通이 四萬騎를 이끌고 酒泉을 나섰다. 商丘成이 浚稽山에 이르러 오랑캐와 전투를 벌여 다수를 斬首했다. 馬通이 天山에 이르자 오랑캐는

말하기를 ‘한나라 군대가 곧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흉노는 무당으로 하여금 [한나라 군대가] 나오는 여러 길과 물이 있는 곳에 양과 소를 묻어서 군대를 저주하도록 하였다. 선우가 천자에게 말과 털외투를 보낼 때에도 항상 무당에게 시켜서 주술을 걸도록 하였다. 말을 묶은 것도 군대를 저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흉노가] 짐을 쳤더니 ‘한나라 군대에서 한 명의 장군이 불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흉노는 항상 말하기를 ‘한나라는 아주 강대하지만 기갈은 견디지 못하니, 한 마리의 늑대가 없다면 천마리의 양이 도망친다.’고 한다. 최근 이사가 패배하고 군대가 노략되고 흩어져 버렸으니, 그 비통함이 항상 짐의 마음에 남아 있다. 그런데 이제 저 멀리 윤대에 둔전을 청하며 정(亭)과 수(隧)⁴²⁷⁾를 세우자고 하니, 이는 천하를 소란케 하고 피곤하게 하는 바이며 백성을 우홀하는 바가 아니다. 이제 짐은 [그런 제안을] 차마 듣지 못하겠노라. 대홍로(大鴻臚)⁴²⁸⁾ 등이 또한 논의하여 죄수와 형도를 모집하여 흉노로 가는 사신을 호송케 하자고 하는데, [이러한 일은] 후(侯)로 봉하는 상급을 분명히 내려서 원한을 갚는 것이니,⁴²⁹⁾ [춘추시대의] 오패(五伯)도 차마 하지 않던 일이다.⁴³⁰⁾ 또한 흉노가 한나라에서 투항한 사람들을 얻으면 항상 겨드랑이를 들어올리고 수색을 하며 [투항한 사람들이] 들어서 아는 것들을 심문한다. 현재 변방의 관문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여서 함부로 나가는 것을 금하지 못한다. 장후(障候)를 지휘하는 군관들이 사졸들을 시켜 금수를 사냥케 하고 [포획한 동물들의] 깍질과 고기로써 이익을 취한다. 사졸들은 힘들고 봉화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 [이러한] 손실이 있어도 위로 [올라가는 문서에는] 모여서 보고되지 않는다. 후에 투항자가 오거나 오랑캐를 생포해야 비로서 [그 같은] 사정을 알게 된다. [그러니] 지금은 마땅히 가혹함을 금지하고, 함부로 부세를 걷는 것을 중지하며, 근본이 되는 농사에 힘쓰고, 마복령(馬復令)⁴³¹⁾을 고쳐서 그 부족함을 보충하고, 무비(武備)에 부족함이 없도

후되었고 그래서 車師를 항복시켰다. 모두 군사를 이끌고 귀환했는데, 李廣利는 敗하여 匈奴에게 투항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馬通의 字는 達이고 黃門郎, 侍中을 역임하다가 重舍侯에 봉해졌는데, 重舍는 縣名으로 勃海郡에 속했으며, 현재 滄州 樂陵縣 동쪽에 해당된다.

427) 隧: 顏注에 따르면 隧는 험난한 곳에 통행을 위하여 뚫은 길을 뜻한다.

428) 征和 9년(전89) 大鴻臚에 임명된 淮陽太守 田廣明을 가리킨다.

429) 文意가 잘 통하지 않는데, Hulsewè(1979: 172)는 이것이 錯簡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430) 이에 대해서 顏師古는 “伯은 霸로 읽는다. 五霸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일을 어찌 오늘날 大漢이 하겠는가?”라고 풀이하였다. ‘五伯’는 ‘五霸’와 같다.

431) ‘馬復令’에 대해서 顏師古는 “馬復은 養馬를 하면 徭賦를 免除해 주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록 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군국의 이천 석들은 각각 말과 가축을 올리고 변방을 보강할 계획을 적은 보고서를 올리게 하여, 함께 대책을 논의토록 하라. 이에 다시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그리고 승상 차천추(車千秋)⁴³²를 부민후(富民侯)로 삼아서 [천자가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고 백성을 부요하게 기르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리도록 하였다.

初，貳師將軍李廣利擊大宛，還過杆彌，杆彌遣太子賴丹爲質於龜茲。廣利責龜茲：「外國皆臣屬於漢，龜茲何以得受杆彌質？」即將賴丹入至京師。昭帝乃用桑弘羊前議，以杆彌太子賴丹爲校尉將軍，田輪臺，輪臺與渠犂地皆相連也。龜茲貴人姑翼謂其王：「賴丹本臣屬吾國，今佩漢印綬來，迫吾國而田，必爲害。」王即殺賴丹，而上書謝漢，漢未能征。

처음에 이사장군 이광리가 대宛을 쳤을 때 우미를 거쳐서 귀환했는데, 우미가 태자 뇌단(賴丹)을 구자에 질자로 보냈었다. 이광리가 구자를 질책하여 말하기를 “밖에 있는 나라들[外國]이 모두 한나라에 신하가 되어 복속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구자는 우미의 질자를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며, 즉시 뇌단으로 하여금 경사로 들어가게 하였다.⁴³³ 이에 소제는 과거에 상홍양의 제의를 활용하여 우미의 태자 뇌단을 교위장군(校尉將軍)⁴³⁴으로 삼고 윤대에 둔전하게 했는데, 윤대와 거리는 그 땅이 모두 서로 연결해 있다. 구자의 귀족인 고익(姑翼)이 그 왕에게 말하기를 “뇌단은 본디 우리 나라에 신속했었는데, 이제 한나라의 인수를 차고 와서 우리 나라와 근접한 곳에서 둔전을 하고 있으니 필시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즉시

馬復令은 漢 文帝·景帝 이래 軍馬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에서 養馬를 할 경우 賦稅를 면제해 주던 제도를 칭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武帝 때가 되면 40여만 필에 달하는 마필이 확보되었다.

432) 車千秋: 그의 조상은 원래 齊나라 사람이었고, 본래의 姓도 田이었다. 車千秋가 高寢郎이었을 때, 衛太子가 江充에게 모함을 당하는 사건이 터지자, 그는 太子를 위하여 극력 변호하였고, 이에 武帝가 감동하여 그를 大鴻廬로 임명하였고 몇 달 뒤에 丞相이 되었으며 富民侯에 봉해졌다.

433) 貳師將軍이 大宛 원정에서 돌아오면서 벌어진 이 사건은 太初 4년(전101) 봄의 일이다.

434) 校尉將軍: 賴丹은 輪臺와 渠犂 사이에 屯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으므로 원래 그에게 주어진 직함은 使者校尉였던 것으로 보이나, 후일 그가 사망한 뒤 ‘將軍’으로 追稱되어 ‘校尉將軍’으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余太山, 2005: 188).

너단을 살해하고 한나라에 글을 올려 사죄하니 한나라가 능히 정벌하지 못했다.⁴³⁵⁾

宣帝時，長羅侯常惠使烏孫還，便宜發諸國兵，合五萬人攻龜茲，責以前殺校尉賴丹。龜茲王謝：「乃我先王時爲貴人姑翼所誤，我無罪。」執姑翼詣惠，惠斬之。時烏孫公主遣女來至京師學鼓琴，漢遣侍郎樂奉送主女，過龜茲。龜茲前遣人至烏孫求公主女，未還。會女過龜茲，龜茲王留不遣，復使使報公主，主許之。後公主上書，願令女比宗室入朝，而龜茲王絳賓亦愛其夫人，上書言得尚漢外孫爲昆弟，願與公主女俱入朝。元康元年，逐來朝賀。王及夫人皆賜印綬。夫人號稱公主，賜以車騎旗鼓，歌吹數十人，綺繡雜繒琦珍凡數千萬。留且一年，厚贈送之。後數來朝賀，樂漢衣服制度，歸其國，治宮室，作徼道周衛，出入傳呼，撞鐘鼓，如漢家儀。外國胡人皆：「驢非驢，馬非馬，若龜茲王，所謂騾也。」絳賓死，其子丞德自謂漢外孫，成·哀帝時往來尤數，漢遇之亦甚親密。東通尉犁六百五十里。

선제 때에 장라후 상혜가 오손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다가 마음대로 여러 나라의 병사를 징발하여, 모두 5만 명으로써 구자를 공격하고 과거에 교위 너단을 살해한 것을 질책하였다. 구자왕이 사죄하며 말하기를 “이는 저의 선왕 때에 귀족 고익이 저지른 잘못이고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고익을 붙잡아 상혜에게 보냈고 상혜는 그를 참하였다.⁴³⁶⁾ 당시

435) 『漢書』卷七十「傳介子傳」에 “이에 앞서 龜茲·樓蘭이 모두 일찍이 漢의 使者를 살해하였다. 元鳳 연간에 이르러 [傳]介子が 駿馬監이 되어 大宛에 使者로 가게 되어서, 詔令으로써 樓蘭·龜茲國을 질책하였다. 介子が 樓蘭에 이르러 그 王이 匈奴로 하여금 漢使를 차단하고 살해케 한 것을 질책하였다…… 介子が 龜茲에 이르러 다시 그 王을 질책하자 王이 죄를 인정하였다…… 介子が 大將軍 霍光에게 말하기를 ‘樓蘭·龜茲는 여러 번 배신을 했는데도 誅殺하지 않으니 정계의 본보기가 없게 되었습니다. 介子が 龜茲를 지나갈 때 그 王의 측근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원컨대 가서 그를 刺殺해서 諸國에 위용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으나, 大將軍은 ‘龜茲로 가는 길이 먼 일단 그 [방법을] 樓蘭에 시험해 보자.’고 하였다.”는 구절은 당시 龜茲가 ‘反覆’을 여러 차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436) 『漢書』卷七十「常惠傳」에는 本始 4년(전70)에 宣帝가 “다시 常惠에게 金幣를 갖고 가서 烏孫의 귀족들 가운데 유공자들에게 하사하라고 파견했는데, 상혜는 이를 계기로 龜茲國이 일찍이 校尉 賴丹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伏誅되지 못했으니, 청컨대 지름길로 가서 그를 치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宣帝는

오손 공주가 딸을 경사로 보내서 복치고 거문고 뜯는 것을 배우게 하였는데, 한나라는 시랑(侍郎)⁴³⁷⁾ 악봉(樂奉)⁴³⁸⁾으로 하여금 공주의 딸을 호송토록 하였고 구자를 지나가게 되었다. 구자는 일찍이 귀족을 오손으로 보내 공주의 딸을 청한 적이 있었다.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딸이 구자를 지나가게 되니, 구자왕이 그녀를 머무르게 하고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공주에게 사신을 보내 보고하도록 하니 공주가 [혼인을] 허락하였다.⁴³⁹⁾ 후에 공주가 글을 올려 딸을 종실의 사람처럼 간주하여 입조케 하기를 원했고, 또한 구자왕 강빈(絳賓) 역시 그 부인을 사랑하여 글을 올려 말하기를 “한나라의 외손녀를 맞아들였으니 [한나라 황실의] 형제가 된 셈입니다. 원컨대 공주의 딸과 함께 입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강(元康) 원년(전65) 그는 마침내 입조하여 경하를 드렸고, [한나라는] 왕과 그 부인에게 모두 인수(印綬)를 하사하였다.⁴⁴⁰⁾ 부인을 ‘공주’라고 호칭하고, 수레와 말, 깃발과 북, 가수와 악사 수십 명, 수농인 비단과 여러 종류의 비단 및 귀한 진품 등 수천만[전에 달하는 물품들]을 하사하였다. 1년간 머물게 한 뒤 후한 선물을 주어 보냈다. 후에 여러 차례 입조하여 경하드렸는데, 한나라 의복과 제도를 즐겼으며, 그 나라에 돌아가서는 궁실을 짓고 주위를 둘러싸는 길을 만들고, 출입할 때에는 서로에게 전달하여 부르면서 종과 북을 치니, 한나라 황실의 의례와 같았다. 바깥 나라의 호인(胡人)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귀인데도 나귀가 아니고 말인데도 말이 아닌 것이, 마치 구자왕과 같으니 [그것이 바로] 노새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강빈이 죽자 그 아들 승덕(丞德)이 스스로 한나라의 외손자라고 하면서, 성제와 애제

이를 윤택하지 않았다. 大將軍 霍光은 상혜로 하여금 적절히 알아서 일을 처리하라는 눈치를 주었다. 이에 상혜와 吏士 500명이 함께 烏孫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龜茲의 서쪽 나라에서 병사 2만 명을 동원하고 副使에게는 龜茲 동쪽 나라에서 2만 명을 징발토록 명령하여, 烏孫병사 7천 명과 함께 三面에서 龜茲를 공격하였다. 군대들이 아직 합류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 그 왕이 전에 한나라의 使者를 살해한 일을 책망하였다. 왕은 사죄하면서 말하기를 ‘저의 先王 때에 귀족 姑翼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 제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상혜는 즉시 ‘만일 그렇다면 姑翼을 결박해서 오라. 그러면 내가 왕은 놓아주겠다.’고 하였다. 왕이 姑翼을 붙잡아 상혜를 찾아가니 상혜가 그를 참수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기사가 보인다.

437) 侍郎: 前漢代의 侍郎은 郎官의 일종이었고, 宮廷의 門戶를 지키고 車騎로써 皇帝를 隨從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438) 樂奉: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다.

439) 여기서 말하는 烏孫의 公主는 ‘肥王’ 옹귀미와 초나라 공주 해우 사이에서 출생한 장녀 弟史를 가리킨다.

440)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漢書』 「宣帝紀」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때에 왕래한 것이 또한 여러 차례이니, 한나라는 그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친밀하게 대우해주었다. 동쪽으로 650리 가면 우리와 통한다.

尉犁國，王治尉犁城，去長安六千七百五十里。戶千二百，口九千六百，勝兵二千人。尉犁侯·安世侯·左右將·左右都尉·擊胡君各一人，譯長二人。西至都護治所三百里，南與鄯善·且末接。

위리국(尉犁國).⁴⁴¹⁾ 도읍은 위리성이고, 장안에서 6,75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1,200이고 인구는 9,600, 병사는 2,000명이다. 위리후(尉犁侯)·안세후(安世侯)·좌우장·좌우도위·격호군이 각각 1명씩 있고, 역장이 2명 있다. 서쪽으로 300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남으로는 선선·차말과 접해 있다.

危須國，王治危須城，去長安七千二百九十里。戶七百，口四千九百，勝兵二千人。擊胡侯·擊胡都尉·左右將·左右都尉·左右騎君·擊胡君·譯長各一人。西至都護治所五百里，至焉耆百里。

위수국(危須國).⁴⁴²⁾ 도읍은 위수성이며, 장안에서 7,29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700, 인구는 4,900, 병사는 2,000명이다. 격호후(擊胡侯)·격호도위(擊胡都尉)·좌우장·좌우도위·격호군·역장이 각 1명씩 있다. 서쪽으로 500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100리를 가면 언기에 이른다.

441) 尉犁(jwei-liei): 그 위치를 둘러싼 여러 가설에 대해서는 앞의 주석 참조.

442) 危須: 『水經注』에 따르면 敦薨河의 동쪽 지류가 동남방으로 흐르다가 두 갈래로 나뉘는데, 焉耆 쪽에서 흘러오는 것은 危須 서쪽으로 흐르다가 동남쪽으로 흘러 敦薨澤에서 끝났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 물줄기는 울두즈河이고, 연못은 보스탕湖 혹은 바그라시湖로 비정된다(Hulsewé, 1979: 177). 余太山(2005: 191)은 曲惠古城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危須가 山國의 서쪽이니 마땅히 焉耆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焉耆國，王治員渠城，去長安七千三百里。戶四千，口三萬二千一百，勝兵六千人。擊胡侯·卻胡侯·輔國侯·左右將·左右都尉·擊胡左右君·擊車師君·歸義車師君各一人，擊胡都尉·擊胡君各二人，譯長三人。西南至都護治所四百里，南至尉犁百里，北與烏孫接。近海水多魚。

언기국(焉耆國).⁴⁴³⁾ 도읍은 원거성(員渠城)⁴⁴⁴⁾이고 장안에서 7,30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4,000, 인구는 32,100, 병사는 6,000명이다.

격호후·각호후(卻胡侯)·보국후·좌우장·좌우도위·격호좌우군(擊胡左右君)·격거사군(擊車師君)·귀의거사군(歸義車師君)이 각 1명씩 있고, 격호도위·격호군이 각 2명씩 있으며, 역장이 3명 있다. 서남쪽으로 400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남쪽으로 100리를 가면 위리에 이르며, 북으로는 오손과 접해 있다. 해수(海水)⁴⁴⁵⁾와 가까워 고기가 많다.

烏貪訾離國，王治于婁谷，去長安萬三百三十里。戶四十一，口二百三十一，勝兵五十七人。輔國侯·左右都尉各一人。東與單桓·南與且彌·西與烏孫接。

오탐자리국(烏貪訾離國).⁴⁴⁶⁾ 도읍은 우루곡(于婁谷)이고, 장안에서 10,31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41, 인구는 231, 병사는 57명이다. 보국후·좌우도위 각 1명씩 있고, 동으로는 단환(單

443) 焉耆(yān-qí): 현재 Qarashahr. 黃文弼은 哈拉木登에서 數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옛 성곽이 焉耆의 治所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과거 일부 학자들은 焉耆의 古稱 argi를 *arsi로 오인하여 Aorsi족(Strabo가 박트리아를 침공한 다섯 부족 가운데 하나)으로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Aorsi는 奄蔡와 동일한 집단으로 추정되고 있다(Hulsewé, 1979: 177).

444) 員渠(jián-qú): 員渠와 焉耆가 같은 지명을 유사하게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錢大昕의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徐松은 울두즈河 남쪽 9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故址가 員渠城에 해당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445) 海水: 보스탕湖 혹은 마그라시湖를 지칭한다.

446) 烏貪訾離(uō-tān-sī-lí): 車師後部에 속하는 지명으로 추정되는데, 마나스(瑪納斯, 綏來)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Chavannes는 마나스와 Ebi Nor 사이의 지역으로 보았다(Hulsewé, 1979: 179).

桓),⁴⁴⁷⁾ 남으로는 차미(且彌),⁴⁴⁸⁾ 서로는 오손과 접해 있다.

卑陸國，王治天山東乾當國，去長安八千六百八十里。戶二百二十七，口千三百八十七，勝兵四百二十二人。輔國侯·左右將·左右都尉·左右譯長各一人。西南至都護治所千二百八十七里。

비륙국(卑陸國).⁴⁴⁹⁾ 도읍은 천산 동쪽의 건당국(乾當國)⁴⁵⁰⁾이고, 장안에서 8,68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227, 인구는 1,387, 병사는 422명이다. 보국후·좌우장·좌우도위·좌우역장 각 1명씩 있다. 서남으로 1,287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른다.

卑陸後國，王治番渠類谷，去長安八千七百一十里。戶四百六十二，口千一百三十七，勝兵三百五十人。輔國侯·都尉·譯長各一人，將二人。東與郁立師·北與匈奴·西與劫國·南與車師接。

비륙후국(卑陸後國). 도읍은 번거류곡(番渠類谷)이고 장안에서 8,71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462, 인구는 1,137, 병사는 350명이다. 보국후·도위·역장이 각 1명씩 있고, 장(將)이 2명 있다. 동으로는 옥립사, 북으로는 흉노, 서로는 겁국(劫國), 남으로는 거사와 접해 있다.

郁立師國，王治內咄谷，去長安八千八百三十里。戶百九十，口千四百四十五，勝兵三百三十一人。輔國侯·左右都尉·譯長各一人。東與車師後城長·西與卑陸·北與

447) 單桓: 後註 참조.

448) 且彌: 後註 참조.

449) 卑陸(pjie-liuk): 『魏略』 「西戎傳」에는 '畢陸'으로 표기. 이곳의 위치는 불분명하나, 松田壽男(1970)은 紫泥泉 혹은 白楊驛으로 비정한 바 있다.

450) 乾當(kân-tâng): 松田壽男(1970)은 Qara-usen山이나 Döss Mengenola로 보았다.

匈奴接.

옥립사국(郁立師國).⁴⁵¹⁾ 도읍은 내돌곡(內咄谷)⁴⁵²⁾이고 장안에서 8,83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190, 인구는 1,445, 병사는 331명이다. 보국후, 좌우도위, 역장이 각 1명씩 있고, 동으로는 거사후성장(車師後城長)[의 거처]와, 서로는 비륙, 북으로는 흉노와 접해 있다.

單桓國，王治單桓城，去長安八千八百七十里。戶二十七，口百九十四，勝兵四十五人。輔國侯·將·左右都尉·譯長各一人。

단환국(單桓國).⁴⁵³⁾ 도읍은 단환성이고 장안에서 8,87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27, 인구는 194, 병사는 45명이다. 보국후·장·좌우도위·역장이 각 1명씩 있다.

蒲類國，王治天山西疏榆谷，去長安八千三百六十里。戶三百二十五，口二千三十二，勝兵七百九十九人。輔國侯·左右將·左右都尉各一人。西南至都護治所千三百八十七里。

포류국(蒲類國).⁴⁵⁴⁾ 도읍은 천산 서쪽의 소류곡(疏榆谷)⁴⁵⁵⁾이고 장안에서 8,36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325, 인구는 2,032, 병사는 799명이다. 보국후·좌우장·좌우도위가 각 1명씩

451) 郁立師(iuk-liəp-si): 대체로 奇臺縣 古城의 서북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52) 顏師古는 “咄音丁忽反”이라고 하여 발음이 ‘돌’보다는 ‘졸’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453) 單桓(tân-γ uân): 우룸치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呼圖壁이나 昌吉(우룸치에서 서북방으로 100km) 일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

454) 蒲類(b'uo-ljwi): 蒲類澤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山北의 Barkul[巴里坤] 호수로 比定. kul은 투르크어에서 ‘호수’를 뜻하는 köl이고, bar는 蒲類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토하라어에서 ‘물(水)’를 뜻하는 wär(A방언) 혹은 war(B방언)을 음사한 것이다(林梅村, 1998: 73, 蒲類國은 당연히 이 호수 부근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455) 疏榆(siwo-iu)谷: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듬성하게 난 느릅나무’. 徐松은 느릅나무가 이 지방에 광범위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松田壽男은 오늘날의 Barköl-Dawān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있고, 서남으로 1,387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른다.

蒲類後國，王去長安八千六百三十里。戶百，口千七十，勝兵三百三十四人。輔國侯·將·左右都尉·譯長各一人。

포류후국(蒲類後國). 도읍은 [……이고] 장안에서 8,63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100, 인구는 1,070, 병사는 334명이다. 보국후·장·좌우도위·역장이 각 1명씩 있다.

西且彌國，王治天山東于大谷，去長安八千六百七十里。戶三百三十二，口千九百二十六，勝兵七百三十八人。西且彌侯·左右將·左右騎君各一人。西南至都護治所千四百八十七里。

서차미국(西且彌國).⁴⁵⁶⁾ 도읍은 천산 동쪽의 우대곡(于大谷)이고 장안에서 8,67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332, 인구는 1,926, 병사는 738명이다. 서차미후(西且彌侯)·좌우장·좌우기군이 각 1명씩 있고, 서남으로 1,487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른다.

東且彌國，王治天山東兌虛谷，去長安八千二百五十里。戶百九十一，口千九百四十八，勝兵五百七十二人。東且彌侯·左右都尉各一人。西南至都護治所千五百八十七里。

동차미국(東且彌國). 도읍은 천산 동쪽의 태허곡(兌虛谷)이고, 장안에서 8,25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191, 인구는 1,948, 병사는 572명이다. 동차미후(東且彌侯)·좌우도위 각 1명씩 있고, 서남으로 1,587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른다.

456) 且彌(tsiwo-mjie): 徐松에 따르면 東西且彌國은 마나스 남쪽의 呼圖壁 부근일 것이라고 하나, 松田壽男은 울두즈 지역으로 보았다.

劫國，王治天山東丹渠谷，去長安八千五百七十里。戶九十九，口五百，勝兵百一十五人。輔國侯·都尉·譯長各一人。西南至都護治所千四百八十七里。

劫국(劫國).⁴⁵⁷⁾ 도읍은 천산 동쪽의 단거곡(丹渠谷)이고 장안에서 8,57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99, 인구는 500, 병사는 115명이다. 보국호·도위·역장이 각 1명씩 있고, 서남으로 1,487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른다.

狐胡國，王治車師柳谷，去長安八千二百里。戶五十五，口二百六十四，勝兵四十五人。輔國侯·左右都尉各一人。西至都護治所千一百四十七里，至焉耆七百七十里。

호호국(狐胡國).⁴⁵⁸⁾ 도읍은 거류곡(車柳谷)⁴⁵⁹⁾이고 장안에서 8,20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55, 인구는 264, 병사는 45명이다. 보국후·좌우도위가 각 1명씩 있다. 서쪽으로 1,147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770리 가면 언기에 이른다.

山國，王去長安七千一百七十里。戶四百五十，口五千，勝兵千人。輔國侯·左右將·左右都尉·譯長各一人。西至尉犁二百四十里，西北至焉耆百六十里，西至危須二百六十里，東南與鄯善·且末接。山出鐵，民山居，寄田糴穀於焉耆·危須。

산국(山國).⁴⁶⁰⁾ 도읍은 [.....]이고 장안에서 7,17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450, 인구는

457) 劫: 徐松에 의하면 이 지명은 唐代에도 昌吉 북방에 존재했다.

458) 狐胡(xuo-y uo): ‘狐胡’로 표기되기도 하며, 이는 발음이 ‘호호’가 아니라 ‘고호’였을 가능성도 짐작케 한다(Hulsewe, 1979: 182). 松田壽男(1970)은 투르판에서 焉耆로 가는 도중에 있는 托克遜(Toqsun) 境內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고, 陳世良(1990b: 78)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459) 原文의 ‘車師柳谷’에서 師는 衍字. ‘車柳(kiwo-liôg)谷’. 松田壽男(1976: 77-84)은 야르(Yar, 雅爾)湖의 서쪽, 특순(Toqsun, 托克遜)의 동북에 있으며, 투르판에서 우룸치로 가는 교통로상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5,000, 병사는 1,000명이다. 보국후·좌우장·좌우도위·역장이 각 1명씩 있다. 서쪽으로 240리 가면 위리에 이르고, 서북으로 160리 가면 언기, 서쪽으로 260리 가면 위수에 이른다. 동남으로는 선선·차말과 접하고 있다. 신⁴⁶¹⁾에는 철이 나오며 백성들은 산에 거주하고 있고, 농사는 언기·위수에 의존하고 곡식을 사들인다.

車師前國，王治交河城。河水分流繞城下，故號交河。去長安八千一百五十里。戶七百，口六千五十，勝兵千八百六十五人。輔國侯·安國侯·左右將·都尉·歸漢都尉·車師君·通善君·鄉善君各一人，譯長二人。西南至都護治所千八百七里，至焉耆八百三十五里。

거사전국(車師前國).⁴⁶²⁾ 도읍은 교하성(交河城)인데, 강물이 나뉘어져 성 아래를 감싸며 흐르기 때문에 ‘교하(交河)’라고 부르는 것이다.⁴⁶³⁾ 장안에서 8,150리 떨어져 있고, 호수는 700, 인구는 6,050, 병사는 1,865명 있다. 보국후·안국후·좌우장·도위·귀한도위(歸漢都尉)·거사군(車師君)·통선군(通善君)·향선군(鄉善君)이 각 1명씩 있고, 역장이 2명 있다. 서남으로 1,807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르고, 835리 가면 언기에 이른다.

車師後(王)國，[王]治務塗谷，去長安八千九百五十里。戶五百九十五，口四千七百七

460) 山國: 徐松은 립 노르의 북쪽, 즉 廣安의 서남쪽에 있는 산맥 가운데 위치해 있다고 하였는데, 廣安은 투르판 지역에 있는 安樂城과 동일 지점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Chavannes(190: 552)와 Grenard(II: 61)는 쿠를라에서 130km 남방에 위치한 키질 상기르(Kizil sanghyr)로 지정하였다.

461) 여기서 ‘山’은 쿠룩크 타그(Qurugh Tagh)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462) 車師前國: 徐松은 전술한 투르판 지역의 廣安城으로 지정했으며, 다른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의 ‘姑師’에 관한 주석 참조.

463) 交河城: 『漢書』 『鄭吉傳』에 나오는 兜訾城과 동일하다. 兜訾는 車師 현지어 명칭을 음寫한 것인데, 이를 투르크어에서 ‘소금[鹽]’을 의미하는 tuz를 나타낸 것이라는 주장은 당시 주민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交河故城에 관한 고고발굴의 성과에 대해서는 李文瑛·王宗磊(1997), 解耀華(1999)참조.

十四，勝兵千八百九十人。擊胡侯·左右將·左右都尉·道民君·譯長各一人。西南至都護治所千二百三十七里。

거사후국(車師後國).⁴⁶⁴⁾ 도읍은 무도곡(務塗谷)⁴⁶⁵⁾이고 장안에서 8,950리 떨어져 있다. 호수는 595, 인구는 4,774, 병사는 1,890명이다. 격호후·좌우장·좌우도위·도민군(道民君)·역장이 각 1명씩 있고, 서남쪽으로 1,237리 가면 도호의 치소에 이른다.

車師都尉國，戶四十，口三百三十三，勝兵八十四人。

거사도위국(車師都尉國).⁴⁶⁶⁾ 호수는 40, 인구는 333, 병사는 84명이다.

車師後城長國，戶百五十四，口九百六十，勝兵二百六十人。

거사후성장국(車師後城長國).⁴⁶⁷⁾ 호수는 454, 인구는 960, 병사는 260명이다.

武帝天漢二年，以匈奴降者介和王爲開陵侯，將樓蘭國兵始擊車師，匈奴遣右賢王將

464) 車師後國: 원문은 “車師後王國”이지만 “車師後國，王”이 되어야 마땅하다. Chavannes(1905: 558)은 이곳을 Jimsa 부근으로 추정하였다.

465) 務塗(miu-d'uo)谷: 徐松은 이곳을 짐사 부근, 즉 保惠城에서 북쪽으로 20리(13km) 떨어진 곳에 있는 孚遠으로 보았다. Chavanne(1905: 558)는 이 나라의 도읍이 於賴(uo-lai)라고 불렀다고 지적했고, 王國維는 務塗를 浮圖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사실 여러 학자들이 務塗는 浮圖 혹은 浮屠라고도 표기되며, 모두 Buddah의 음譯이라고 인정한다.

466) 車師都尉國: 徐松은 카라호토(Qarakhoto) 혹은 高昌으로 비정하였다.

467) 車師後城長國: 徐松은 오늘날의 奇臺로 비정하였다. 車師都尉國과 車師後城長國는 모두 車師後國의 서쪽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余太山, 2005: 204).

數萬騎救之，漢兵不利，引去。征和四年，遣重合侯馬通將四萬騎擊匈奴，道過車師北，復遣開陵侯將樓蘭·尉犁·危須凡六國兵別擊車師，勿令得遮重合侯。諸國兵共圍車師，車師王降服，臣屬漢。

무제 천한(天漢) 2년(전99), 흉노에서 투항한 개화왕(介和王)을 개릉후(開陵侯)로 삼아서 누란국의 병사를 시켜서 거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⁴⁶⁸⁾ 흉노는 우현왕을 보내서 수만 기를 이끌고 그곳을 구원하도록 했고, 한나라 군사는 불리하게 되어 철수하였다. 정화(征和) 4년(전89) [한나라는] 다시 중합후(重合侯) 마통(馬通)을 보내어 4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흉노를 치게 했는데,⁴⁶⁹⁾ 길이 거사의 북쪽을 통과하기 때문에 다시 개릉후를 보내서 누란·위리·위수 등 6개국의 병사를 지휘하여 별도로 거사를 공격해서 중합후[가 가는 길]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여러 나라의 군대가 함께 거사를 포위하니 거사왕이 항복하고 한나라에 신속하게 되었다.

昭帝時，匈奴復使四千騎田車師。宣帝即位，遣五將將兵擊匈奴，車師田者驚去，車師復通於漢。匈奴怒，召其太子軍宿，欲以爲質。軍宿，焉耆外孫，不欲質匈奴，亡走焉耆。車師王更立子烏貴爲太子。及烏貴立爲王，與匈奴結婚姻，教匈奴遮漢道通烏孫者。

소제 때에 흉노가 다시 4천 명의 기병을 보내 거사에서 둔전을 하였다. 선제가 즉위하여 5명의 장군⁴⁷⁰⁾을 파견하여 군대를 이끌고 흉노를 공격하자, 거사에서 둔전하던 사람들이

468) 匈奴의 降將인 介和王 成婉을 開陵侯로 봉한 일에 대해서는 앞의 주석 참조. 그런데 한나라가 車師의 前身인 姑師에 대해서는 이미 元封 3년(전108)에 공격을 가했고, 그때 姑師王이 포로로 잡혀 많은 무리들이 쿠룩크 타그를 넘어서 흉노로 투항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본문에서 “始擊車師”라고 한 것은 姑師와 車師를 별개로 여겼기 때문이다.

469) 重合侯 馬通: 앞의 주석 참조. 다만 본문에서 征和 4년(전89)이라고 한 것은 『漢書』 卷6 「武帝紀」의 기사에 따라 征和 3년(전90)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470) ‘五將’에 대해서 顏注는 “本始 2년(전72) 御史大夫 田廣明이 祁連將軍이 되고, 後將軍 趙充國이 蒲類將軍

놀라서 가버리고 거사는 다시 한나라와 소통하게 되었다. 흉노가 분노하여 그 태자 군숙(軍宿)을 불러들여서 질자로 삼고자 하였다. 군숙은 언기[왕실]의 외손자였는데, 흉노에 질자로 가기를 바라지 않아 언기로 도망쳤다. 거사왕은 다시 아들 오귀(烏貴)를 태자로 세웠다. 오귀가 왕으로 즉위하기에 이르자 흉노와 혼인을 맺고, 흉노로 하여금 한나라가 오손과 교통하는 길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地節二年，漢遣侍郎鄭吉·校尉司馬憲將免刑罪人田渠犂，積穀，欲以攻車師。至秋收穀，吉·憲發城郭諸國兵萬餘人，自與所將田士千五百人共擊車師，攻交河城，破之。王尚在其北石城中，未得，會軍食盡，吉等且罷兵，歸渠犂田。(秋收)[收秋]畢，復發兵攻車師王於石城。王聞漢兵且至，北走匈奴求救，匈奴未爲發兵。王來還，與貴人蘇猶議欲降漢，恐不見信。蘇猶教王擊匈奴邊國小蒲類，斬首，略其人民，以降吉。車師旁小金附國隨漢軍後盜車師，車師王復自請擊破金附。

지절(地節) 2년(전68), 한나라는 시랑(侍郎) 정길(鄭吉),⁴⁷¹⁾ 교위 사마희(司馬憲)⁴⁷²⁾로 하여금 형벌을 면제받은 죄인들을 이끌고 거리에서 둔전케 하였는데, 이는 곡식을 축적하여 거사를 공격하려 함이었다. 가을이 되어 곡식을 거두게 되자 정길과 사마희는 성곽이 있는 여러 나라의 병사 만여 명을 징발하고, 자신들은 둔전하던 1,500명을 이끌고 거사를 공격하였다. 교하성을 공격하여 그것을 파괴하였다. 왕은 여전히 북쪽의 석성(石城)⁴⁷³⁾ 안에 있어서

이 되고, 雲中太守 田順이 武牙將軍이 되었으며, 度遼將軍 范明友, 前將軍 韓增 등 모두 五將이다.”라고 하였다.

471) 鄭吉(?~전49년): 『漢書』 卷70에 立傳된 인물. 會稽人. 처음에는 兵卒로 從軍하여 여러 차례 西域에 갔으며 이로 인하여 郎이 되었다. 神爵 연간(전61-58)에 匈奴에 변란이 일어나, 日逐王 先賢揮이 한나라에 투항하려고 鄭吉에게 사람을 보내 알리자, 鄭吉은 渠黎·龜茲 諸國의 五萬人을 동원하여 日逐王을 맞이하고 口萬二千人, 小王將十二人 등이 鄭吉을 따라 河曲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도망친 사람도 많았는데, 그는 추격하여 참수하고 이들을 京師로 호송해 왔다. 그는 이 공으로 歸德侯에 봉해졌다. 이렇게 車師를 격파하고 匈奴의 일축왕이 투항하면서 西域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자, 한나라는 西域都護를 설치하고 鄭吉을 최초의 도호로 임명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정길은 幕府를 세우고 治所를 烏壘城에 설치하여 서역을 鎮撫하였다.

472) 司馬憲: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다.

붙잡지 못했다. 마침 군대의 식량이 다 떨어져서 정길 등은 군대를 일단 해산시키고 거리둔전으로 귀환했다. 추수가 끝난 뒤 다시 군대를 징발하여 석성에 있는 거사왕을 공격하였다. 왕은 한나라 군대가 막 도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으로 흉노에게 도망쳐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흉노가 아직 군대를 파견하기도 전에 왕은 돌아와서, 귀족 소유(蘇猶)와 의논하고 한나라에 투항하려고 했으나, [한나라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소유는 왕에게 흉노의 변방에 있는 나라인 소포류(小蒲類)⁴⁷⁴를 공격케 하여, 그 사람들을 참살하고 약탈한 뒤 정길에게 투항하였다. 거사 주변에 약소한 나라인 금부국(金附國)⁴⁷⁵이 한나라 군대의 뒤를 따라와서 거사를 약탈했었는데, 거사왕은 금부를 공파하겠다고 스스로 다시 청하였다.

匈奴聞車師降漢，發兵攻車師，吉·憲引兵北逢之，匈奴不敢前。吉·憲即留一候與卒二十人留守王，吉等引兵歸渠犂。車師王恐匈奴兵復至而見殺也，乃輕騎奔烏孫，吉即迎其妻子置渠犂。東奏事，至酒泉，有詔還田渠犂及車師，益積穀以安西國，侵匈奴。吉還，傳送車師王妻子詣長安，賞賜甚厚，每朝會四夷，常尊顯以示之。於是吉始使吏卒三百人別田車師。得降者言，單于大臣皆曰「車師地肥美，近匈奴，使漢得之，多田積穀，必害人國，不可不爭也。」果遣騎來擊田者，吉乃與校尉盡將渠犂田士千五百人往田，匈奴復益遣騎來，漢田卒少不能當，保車師城中。匈奴將即其城下謂吉：「單于必爭此地，不可田也。」圍城數日乃解。後常數千騎往來守車師，吉上書：「車師去渠犂千餘里，間以河山，北近匈奴，漢兵在渠犂者勢不能相救，願益田卒。」公卿議以爲道遠煩費，可且罷車師田者。詔遣長羅侯將張掖·酒泉騎出車師北千餘里，揚威武車師旁。胡騎引去，吉乃得出，歸渠犂，凡三校尉屯田。

473) 石城: 徐松은 高昌 북쪽 70리(40km) 貪汗山脈 가운데 있는 성채로 비정했으며, 이것이 鄭吉이 공격했던 兜貨와 동일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Chavannes(1906: 224)에 따르면 우치 투르판(Uch Turfan) 부근에 石城의 존재를 언급한 자료도 있다고 한다.

474) 小蒲類: 徐松은 이것이 蒲類後國과 같다고 생각했다.

475) 金附(kiəm-b'iu)國: 현재 짐사(Jimsa) 남쪽의 東大龍溝 遺址로 비정된다(余太山, 2005: 206).

홍노는 거사가 한나라에 투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내어 거사를 공격했는데, 정길과 사마희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맞이하니 홍노가 감히 앞으로 오지 못하였다. 정길과 사마희는 곧바로 1명의 후(候)⁴⁷⁶⁾와 20명의 병졸을 남겨서 왕을 지키도록 하고, 정길은 군대를 이끌고 위리로 귀환했다. 거사왕은 홍노의 군대가 다시 오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여, 이에 경기(輕騎)를 타고 오손으로 도망쳤고, 정길은 즉시 그 처자를 맞아들어 거리에 안치하였다.⁴⁷⁷⁾ 사태를 아뢰기 위하여 동쪽으로 오다가 주천에 이르렀는데, 거리와 거사로 돌아가서 둔전하고 더욱 곡식을 쌓아서 서방의 나라[西國]⁴⁷⁸⁾들을 안돈케 해서 홍노를 침공[할 준비를] 하라는 조칙을 받들게 되었다. 정길은 돌아와서 거사왕의 처자를 역전을 통해 장안으로 보냈고, 그들은 매우 풍부한 상사(賞賜)를 받았다. 매번 사이(四夷)들과 조회를 할 때마다 항상 그들을 눈에 띄게 존귀하게 대접해 주었다. 이에 정길은 처음으로 군관과 병졸 300명으로 하여금 거사에서 별도로 둔전을 실시케 하였다.⁴⁷⁹⁾ [홍노에서] 투항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우의 대신들은 모두 다 ‘거사의 땅은 비옥하고 홍노와 가까운데, 한나라가 그곳을 얻어서 많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쌓는다면 필시 [우리] 나라와 백성들에게 해가 될 것이니, [그곳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였다. 과연 그들이 기병을 보내서 둔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니, 정길이 이에 교위 [사마희]와 함께 거리에서 둔전하는 사졸 1,500을 모두 이끌고 [거사로] 가서 둔전을 하였다. 홍노가 다시 더 많은 기병을 보내오니, 둔전하던 한나라의 사졸들은 숫자가 적어서 당해낼 수가 없어 거사성(車師城)⁴⁸⁰⁾ 안으로 피신하였다. 홍노의 장군이 그 성 아래로 와서 정길에게 말하기를 “선우는 필히 이 땅을 빼앗을 것이니 [너희는]

476)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戊己校尉 아래에는 丞·司馬 각 1인, 候 5인이 두어졌다. 이를 보아 候는 校尉의 屬官이었음을 알 수 있다.

477) 『漢書』 「匈奴傳」에도 “그 다음 해에 西域의 城郭들이 연합하여 匈奴를 공격하고 車師國을 공략하여, 그 王과 人衆을 취한 뒤에 가버렸다. 單于가 다시 車師王의 昆弟 兜莫을 車師王으로 삼고, 나머지 사람들을 거두어 동쪽으로 이주했는데 감히 그 故地에 거주하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478) 西國: 『漢書』 「鄭吉傳」에 “宣帝 때에 이르러 鄭吉을 侍郎으로 삼아 渠黎에 둔전을 하고 곡식을 쌓게 하여, 이를 계기로 여러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車師를 공격하였다. 衛司馬를 옮기고 鄯善 以西의 南道를 보호하도록 하였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위의 본문에서 ‘西國’은 ‘鄯善 以西’의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79) 車師王의 妻子를 長安으로 보낸 것과 車師지방에 둔전을 실시한 것은 모두 地節 4년(전66)의 일이다.

480) 車師城: 이것은 交河城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둔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며칠간 성을 포위하다가 마침내 풀어졌다.⁴⁸¹⁾ 후에 늘상 수천 기가 와서 거사를 포위하곤 하였으니, 정길이가 글을 올려 말하기를 “거사는 거리에서 1천여 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강과 산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흉노와 가까워서 거리에 있는 한나라 병사들은 서로 구원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원컨대 둔전하는 사졸을 더욱 늘였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공경들이 논의한 바, 길은 멀고 경비는 많이 드니 잠시⁴⁸²⁾ 거사의 둔전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조칙을 내려 장라후 [상해]를 보내서 장액과 주천의 기병을 이끌고 거사 북쪽 천여 리 쯤 나가서, 거사의 주변 지역에 [한나라의] 무위를 선양하도록 했다.⁴⁸³⁾ 오랑캐 기병들이 물러가니⁴⁸⁴⁾ 정길이가 이에 빠져나와 거리에 돌아올 수 있었고, 대저 세 교위[三校尉]는 둔전을 실시하게 되었다.⁴⁸⁵⁾

車師王之走烏孫也，烏孫留不遣，遣使上書，願留車師王，備國有急，可從西道以擊匈奴。漢許之。於是漢召故車師太子軍宿在焉耆者，立以爲王，盡徙車師國民令居渠犂，遂以車師故地與匈奴。車師王得近漢田官，與匈奴絕，亦安樂親漢。後漢使侍郎

481) 『漢書』 「匈奴傳上」에 다음과 같은 관련기사가 보인다. “그로부터 2년 뒤, 흉노는 左右奧韃王에게 각각 6천기를 주어 파견하여, 左大將과 함께 다시 車師城에서 둔전하고 있는 한나라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元康 元年(전65)의 일로 추정된다.

482) 且: 그러나 Hulsewe는 이것을 ‘宜’의 誤字로 보고 “거사의 둔전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석했다.

483) 이는 元康 2년(전64)의 일이다.

484) 中華書局本은 “騎出車師北千餘里，揚威武車師旁。胡騎引去。”로 끊었으나, “騎出車師北千餘里揚威武，車師旁胡騎引去。”로 읽어서 “기병을 이끌고 거사 북쪽 천여 리 쯤 나가서 무위를 선양하도록 했다. [그래서] 거사의 주변 지역의 오랑캐 기병들이 물러갔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485) 당시 屯田은 校尉 司馬燾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三校尉’ 가운데 하나였지만 다른 두 校尉를 통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맡았던 校尉는 후일 元帝 때에 설치된 戊己校尉의 前身인 셈이다. 그러나 三校尉의 둔전은 宣帝 때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武帝 末年에 桑弘羊은 “屯田卒을 옛날 輪臺의 以東 지역에 보내서, 校尉三人을 두어 나누어 監護케 하자”는 제의를 했고, 후에 昭帝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杆彌의 太子 賴丹을 ‘校尉將軍’으로 임명하여 輪臺에 둔전했다는 기사가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宣帝 地節年間(전69~전66)에 侍郎 鄭吉과 校尉 司馬燾를 서역에 보내서 먼저 渠犂에서 둔전하고 후에 車師에서 둔전케 하여 ‘三校尉’의 둔전을 실시했다(余太山, 2005: 209 참조).

殷廣德責烏孫，求車師王烏(孫)[貴]，將詣闕，賜第與其妻子居。是歲，元康四年也。其後置戊己校尉屯田，居車師故地。

거사왕이 오손으로 도망쳤을 때, 오손은 그를 잡아두고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글을 올려 “거사왕을 붙잡아 두어 나라가 위급할 때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히 서쪽 길(西道)⁴⁸⁶을 통해서 흉노를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한나라는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한나라는 전에 거사의 태자였다가 언기에 있는 군숙을 소환하여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거사국 사람들을 모두 이주시켜 거리에 살게 하였으니, 마침내 거사의 옛 땅[故地]은 흉노에게 넘어갔다.⁴⁸⁷ 거사왕은 한나라의 전관(田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 흉노와 관계를 끊었고 또한 편안하고 즐겁게 한나라와 화친하게 되었다. 후에 한나라가 시랑 은광덕(殷廣德)⁴⁸⁸을 오손에 사신으로 보내어 거사왕 오귀(烏貴)⁴⁸⁹를 [한나라] 궁궐로 보내도록 요청했고, [한나라는] 그에게 저택을 하사하여 그의 처자와 함께 살도록 하였다. 이 해는 원강 4년(전 62)이었다. 그 후에 무기교위를 두어 둔전을 실시하고 거사의 옛 땅에 거주하도록 하였다.⁴⁹⁰

486) 西道: 흉노의 右地를 지칭한다.

487) 軍宿을 車師王으로 세웠다가 주민들과 함께 渠犂로 이주시킨 일은 地節 3년(전67)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상황은 匈奴도 많이 쇠약해졌지만 한나라 역시 서역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이는 『漢書』 「魏相傳」의 다음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元康 연간(전65~전62)에 흉노가 군대를 보내 車師에서 둔전하고 있는 한나라 사람들을 공격했지만 함락시킬 수 없었다. 주상께서 後將軍 趙忠國 등과 논의하여 흉노가 쇠약해 있는 틈을 타서 군대를 출병시켜 그 右地를 공격하여 다시는 감히 西域을 동요치 못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이에 魏相이 上書を 올려 간언하기를 ‘최근 흉노가 善意를 품고 한나라 사람을 갑자기 귀환시켰으며 변경을 범하는 일도 없습니다. 거사의 둔전을 두고 다툰다고 해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정은 魏相의 의견을 받아들여 出兵을 중지하고 車師의 屯田을 철폐하게 된 것이다.

488) 殷廣德: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인물이다.

489) 原文의 ‘烏孫’은 ‘烏貴’의 誤字이다. 그러나 顏師古는 “烏孫이 그 장군 가운데 貴人을 보내 한나라에 입조케 하였다(烏孫遣其將之貴者入漢朝)”라고 해석하였다.

490) 戊己校尉: 戊己가 ‘居中’을 의미한다는 것은 十干 가운데 戊己가 中間에 위치하며, 五行 가운데 土德이 四方의 中央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顏師古 이래 주석가들에 의해서 알려진 바이다. 그런데 戊己校尉의 명칭에 관한 최근의 한 연구는 天干 중에서 戊己가 土行에 해당되고, 이것은 한나라가 표방하는 土德과 일치하는 것이며, 北方의 匈奴는 水, 西方의 西域은 金에 配屬되므로, 土克水而生金

元始中，車師後王國有新道，出五船北，通玉門關，往來差近，戊己校尉徐普欲開以省道里半，避白龍堆之厄。車師後王姑句以道當爲拄置，心不便也。地又頗與匈奴南將軍地接，普欲分明其界然後奏之，召姑句使證之，不肯，繫之。姑句數以牛羊踈吏，求出不得。姑句家矛盾生火，其妻股紫陬謂姑句：「矛盾生火，此兵氣也，利以用兵。前車師前王爲都護司馬所殺，今久繫必死，不如降匈奴。」即馳突出高昌壁，入匈奴。

원시 연간(후 1~5)에 거사후왕국에 신도(新道)가 생겨났다. [이 길은] 오선(五船)⁴⁹¹의 북쪽을 나서서 옥문관과 통하며, 왕래하는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다. 무기교위 서보(徐普)⁴⁹²는 거리를 반으로 줄이고 백룡퇴(白龍堆)의 장애를 피하기 위해 [이 길을] 개통하려고 했다.⁴⁹³ 거사후왕 고구(姑句)는 길이 [개통되면] 당연히 걸림돌[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를 불편하게 여겼다.⁴⁹⁴ [또한 그의] 땅은 흉노의 남장군(南將軍)⁴⁹⁵의 땅과 상당히

의 원리에 따라 漢軍(土, 戊己)이 匈奴(水)를 누르고 西域(金)을 안정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하였다(賈叢江, 2006 참조).

491) 五船(nguo-dz'iwan): 이 말이 현지어를 음寫한 것인지, 한자식 표기인지는 분명치 않다. 일찍이 徐松은 『西域水道記』에서 “五船은 지금 小南路에 있는 小山 다섯을 가리킨다. 계곡의 길이가 半里 남짓이고, 정상은 평평한데 首尾가 가파르기 때문에 五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하여, 이 말이 漢字式 표현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黃文弼은 五船에 대하여 “托乎拉克布拉克에서 嚶順고비(莫賀延磧)을 관통하면 룽노르의 동북쪽에 이르고, 거기서 魯克沁(록친) 남쪽의 得格爾, 즉 車師의 경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五船은 哈密 일대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松田壽男 역시 ‘五船은 의심할 나위 없이 伊吾’라고 주장하여 哈密說을 지지했다. 최근의 한 연구는 玄奘의 傳記인 『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 玉門關을 나서서 伊吾의 경계에 이르는 과정에 지나게 되는 ‘五峰’에 관한 언급에 주목하고, 이 五峰은 곧 驛傳 혹은 驛站이 있었던 것이어서 ‘五傳’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이 五傳이 음성상의 유사함으로 인하여 五船으로 假借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五船에 해당되는 5개의 지점을 ① 紅柳井子, ② 哈什布拉克, ③ 若泉溝, ④ 雅滿蘇泉, ⑤ 喀赫夏勒布拉克으로 비정하였다(馬千希, 1999 참조).

492) 徐普: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인물.

493) 敦煌 馬圈灣 漢簡을 종합해 보면 王莽 天鳳 4년(후17)에 戊己校尉 郭欽이 ‘新道’를 이용하여 車師에 이르러 거기서 다시 西南쪽으로 焉耆를 공격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新道’가 前漢 平帝 元始연간에 戊己校尉 徐普가 개척한 길이 아닌가 추정된다(余太山, 2005: 211 참조).

494) 이에 대해 顏師古는 拄는 ‘기둥을 세우는 것(支拄)’을 뜻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가 나게 되면 자기에게 기둥을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資治通鑑』 卷35에는 이 부분이 “길이 개통되어 使者들에게 물자를 공급하게 되므로 마음이 불편했다(以當道供給使者心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보는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한 다음에 이에 관해서 상주를 올리려고 하였다. 그는 고구를 불러서 그 같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시켰지만, 그가 하려고 하지 않자 그를 구금하였다. 고구는 군관에게 소와 양을 뇌물로 주어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고구의 집에 있던 창[矛]의 끝에서 불이 나자, 그 처인 고자취(股紫陬)가 고구에게 말하기를 “창 끝에서 불이 나왔으니, 이는 군사에 관한 징조이며, 용병(用兵)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전에 거사전왕(車師前王)⁴⁹⁶이 도호부의 사마에게 살해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오래 구금되어 있으면 필시 죽을 것이니, 흉노에게 투항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고구는] 말을 달려 고창벽(高昌壁)⁴⁹⁷을 탈출하여 흉노로 들어갔다.⁴⁹⁸

又去胡來王唐兜，國比大種赤水羌，數相寇，不勝，告急都護。都護但欽不以時救助，唐兜困急，怨欽，東守玉門關。玉門關不內，即將妻子人民千餘人亡降匈奴。匈奴受之，而遣使上書言狀。是時，新都侯王莽秉政，遣中郎將王昌等使匈奴，告單于西域內屬，不當得受。單于謝罪，執二王以付使者。莽使中郎王萌待西域惡都奴界上逢受。單于遣使送，因請其罪。使者以聞，莽不聽，詔下會西域諸國王，陳軍斬姑句·唐兜以示之。

또한 거호래왕 당두(唐兜)⁴⁹⁹는 나라가 큰 종족인 적수강(赤水羌)과 가까워서⁵⁰⁰ 여러 차례 노략을 당했고, 이를 당해낼 수 없어서 도호에게 급하게 보고하였다. 도호 단흠(但欽)⁵⁰¹이

不便也)”라고 되어 있다.

495) 南將軍: 敦煌 馬圈灣 漢簡에서도 3회나 언급되어 있다(孫占宇, 2006: 107 참조).

496) 車師前王: 즉 兜莫을 지칭한다.

497) 高昌壁: 高昌故城을 지칭한다. 따라서 늦어도 평帝 즉위 때까지는 戊己校尉의 治所가 종래 交河故城에서 高昌故城으로 옮겨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98) 이는 元始 2년(후2)에 벌어진 사건이다.

499) 唐兜(d'ang-tau): 去胡來王에 대해서는 前註 참조.

500) 國比大種赤水羌: 顏注에 따르면 “比는 近”의 뜻이다. 赤水羌은 羌族의 일종으로 오늘날 青海 서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501) 但欽: 元始 元年(후1)부터 王莽의 始建國 5년(후13)까지 西域都護를 역임한 인물이다. 宣帝 때부터

때때 구원해 주지 못하자, 당두는 궁지에 몰려 단함을 원망하면서 동쪽의 옥문관으로 가서 피신하려고 했다. 그러나 옥문관에서 들여보내주지 않자 그는 곧 처자와 백성 천여 명을 데리고 1로 투항했다. 흉노는 그를 받아들였고 또한 [한나라로] 사신을 보내서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이때 신도후(新都侯) 왕莽(王莽)⁵⁰²이 정권을 장악하고 중랑장 왕창(王昌)⁵⁰³ 등을 흉노에 사신으로 보냈다.⁵⁰⁴ 그리고 선우에게 통고하기를, 서역은 [한나라에] 내속(內屬)했으니 마땅히 [투항자들]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⁵⁰⁵ 선우가 사죄하며 두 왕 [고구와 당두]를 붙잡아 사신에게 붙여주었다. 왕망은 중랑(中郎)⁵⁰⁶ 왕맹(王萌)⁵⁰⁷을

王莽에 이르기까지 西域都護를 역임한 사람은 모두 18명이었는데, 韓宣부터 시작해서 但欽 이년까지 모두 3年1更의 원칙이 지켜졌고, 다만 段會宗만 2차례 연임하였다.

502) 新都侯 王莽: 新王朝의 창건자인 王莽은 魏郡 元城(현재 河北 大名縣 東) 사람이었고, 元帝의 皇后 王政君의 侄이었다. 成帝 때인 전22년에 黃門侍郎을 初任으로 관직을 시작하여, 永始 元年(전16)에 新都侯·驃都尉·光祿大夫侍中에 봉해졌다. 전1년 哀帝가 자식이 없이 사망하자, 王政君은 傳國의 玉璽를 장악하고 王莽을 大司馬로 임명하고 平帝를 옹립하였다. 王莽은 기원후 1년 安漢公의 작위를 받았고 자신의 딸을 平帝의 황후로 들였다. 5년에는 平帝를 독살하고 두 살짜리 ‘皇太子’를 세운 뒤 ‘假皇帝’ 혹은 ‘攝皇帝’라는 이름으로 섭정을 하다가, 마침내 9년에 ‘禪讓’을 받아 稱帝建元하며 新朝를 세웠다.

503) 王昌: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인물.

504) 『漢書』卷94下「匈奴傳下」에는 “西域의 車師後王 姑句와 去胡來王 唐兜가 모두 都護校尉를 원망하여 妻子와 人民을 데리고 匈奴로 투항하였는데, 이는 「西域傳」에 나와 있다. 單于가 그들을 받아들여 左谷蠡王의 땅에 두고, 사신을 보내 上書하여 말하기를 ‘臣이 삼가 이미 받았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詔勅으로 中郎將 韓隆, 王昌, 副校尉 甄阜, 侍中 謁者 帛敞, 長水校尉 王歙 등을 匈奴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505) 內屬: 漢代에는 외국과 관계를 가질 때 內臣과 外臣을 구분했는데, 전자는 納質內屬한 西域 36국과 같은 경우이고, 후자는 重譯貢獻하는 番禺의 遠邦의 경우였다. 이 같은 구분은 『後漢書』 「西域傳·叙」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內臣과 外臣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① 邊關을 除去하느냐, ② 漢조정이 任官權을 장악하느냐, ③ 漢法을 시행하느냐의 여부에 있었다. 또한 內臣이 되면 수행해야 할 의무로는 ① 質子를 보내고, ② 土物을 貢獻하며, ③ 出兵助戰하여, ④ 漢軍에게 軍糧을 제공하고, ⑤ 天子의 詔書가 없이는 함부로 兵馬를 발동하지 못하며, ⑥ 다른 屬部로부터 人質을 받아서는 안 되며, ⑦ 漢人 및 다른 屬部의 逃民과 叛臣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한나라가 中郎將 王昌을 흉노에게 보내서 去胡來王 唐兜의 투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도, 바로 匈奴가 漢의 內臣·屬部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漢代 屬部의 지위와 의무에 대해서는 賈叢江(2003) 참조.

506) 中郎: 中郎將과 동일.

507) 王萌: 『漢書』卷99中「王莽傳」에 따르면 그는 始建國 2년(후10) 十二月 王莽의 명령을 받고 ‘平狄將軍’이

과견하여 서역의 오도노(惡都奴)⁵⁰⁸ 경계에 미리 가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⁵⁰⁹ 선우가 사신을 호송하여 보내면서 그의 죄를 [사면해 달라고] 청했고, 사신이 이를 보고했으나 왕망은 듣지 않았다. 그는 서역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모이라고 조칙을 내리고, 군대의 사열식에서 고구와 당두를 참수하여 시범을 보였다.

至莽篡位，建國二年，以廣新公甄豐爲右伯，當出西域。車師後王須置離聞之，與其右將股鞮·左將尸泥支謀：「聞甄公爲西域太伯，當出，故事給使者牛羊穀芻芣，導譯，前五威將過，所給使尚未能備。今太伯復出，國益貧，恐不能稱。」欲亡入匈奴。戊己校尉刀護聞之，召置離驗問，辭服，乃械致都護但欽在所埽婁城。置離人民知其不還，皆哭而送之。至，欽則斬置離。置離兄輔國侯狐蘭支將置離衆二千餘人，驅畜產，舉國亡降匈奴。

왕망이 제위를 찬탈하고 나서 건국(建國) 2년(후10), 광신공(廣新公) 환풍(甄豐)을 우백(右伯)으로 삼았다.⁵¹⁰ 그가 서역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거사후왕 수치리(須置離)가 이를 듣고 그 우장 고제(股鞮), 좌장 시니지(尸泥支)와 함께 모의하여 말하기를 “듣자 하니 환공(甄公)이 서역태백(西域太伯)이 되어 [서역으로] 나서려 한데, 과거에는 사신들에게 소·양·곡

라는 직함을 갖고 代郡을 나서서 흉노로 출정했다.

508) 惡都奴: 顔師古는 服虔을 인용하여 “西域의 계곡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後漢書』 「西域傳」에 보이는 伊吾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분명치 않다.

509) 逢受: 顔注: “逢受는 먼저 가서 마중한다는 뜻이다. 즉 逢見하여 受取한다는 의미이다.”

510) 『漢書』 卷99中 「王莽傳」에는 甄豐과 그의 아들 甄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당시 [甄豐의] 아들 尋이 侍中京兆大尹 茂德侯였는데 符命을 만들어서, 新나라 皇室은 마땅히 陝을 경계로 二伯을 나누어, 豐을 右伯으로 삼고 太傅 平晏을 左伯으로 삼아서, 周公과 召公의 故事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王莽이 곧 이를 따라서 豐을 右伯으로 배수하였다. 직책에 임하여 西方으로 나가려 했는데, 그가 채 나가기도 전에 尋이 다시 符命을 만들어서 말하기를, 과거 漢室의 平帝의 皇后인 黃皇室主는 바로 [자기 자신] 尋의 妻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王莽은 詐術로 즉위를 하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大臣들이 [자신을] 怨謗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고, 따라서 震威로서 아랫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黃皇室主는 天下의 母親인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라고 하면서, 尋을 체포하였다. 이에 尋이 사망하고 豐도 自殺하고 말았다.”

식·꿀·건초·길안내·통역 등을 공급해 주었다. 또한 전에 오위장(五威將)⁵¹¹이 통과할 때에는 사신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충분치 못했었다. 이제 태백이 다시 나온다니 나라는 더욱 가난해질 것이고 [요구사항을] 다 이행하지 못할까 두렵다.”고 하면서 흉노로 도망하려고 하였다. 무기교위 도호(刀護)⁵¹²가 이를 듣고 수치리를 불러서 심문을 하니 그가 자백하였다. 이에 그를 묶어서 도호 단흙이 있던 날루성(埽婁城)⁵¹³으로 보냈다. 수치리의 백성들은 그가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연도에서] 모두 통곡을 하면서 그를 보냈다. 그가 도착하자 단흙은 즉시 수치리를 참수하였다. 수치리의 형인 보국후(輔國侯) 호란지(狐蘭支)는 수치리의 무리 2천여 명을 이끌고 가축을 몰아서, 나라 전체를 들어 흉노에게 투항하였다.

是時，莽易單于璽，單于恨怒，遂受狐蘭支降，遣兵與共寇擊車師，殺後城長，傷都護司馬，及狐蘭兵復還入匈奴。時戊己校尉刀護病，遣史陳良屯柎且谷備匈奴寇，史終帶取糧食，司馬丞韓玄領諸壁，右曲候任商領諸壘，相與謀：「西域諸國頗背叛，匈奴欲大侵，要死，可殺校尉，將人衆降匈奴。」即將數千騎至校尉府，脅諸亭令燔積薪，分告諸壁：「匈奴十萬騎來入，吏士皆持兵，後者斬！」得三(百四)[四百]人，去校尉府數里止，晨火燃，校尉開門擊鼓收吏士，良等隨入，遂殺校尉刀護及子男四人·諸昆弟子男，獨遺婦女小兒。止留戊己校尉城，遣人與匈奴南將軍相聞，南將軍以二千騎迎良等。良等盡脅略戊己校尉吏士男女二千餘人入匈奴。單于以良·帶爲烏貴都尉。

511) 五威將: 『漢書』卷94下「匈奴傳下」에 “王莽이 篡位하고 나서 始建國元년에 五威將 王駿을 파견하여, 頸阜·王颯·陳饒·帛敞·丁業을 인솔하여 6인이 金帛을 많이 갖고 가서 單于에게 풍부하게 주면서 漢狀을 대체하는 명령을 받으라고 諭를 전달했는데, 이를 계기로 單于의 故印을 바꾸었다. 故印의 구절은 ‘匈奴單于璽’였는데, 王莽이 이를 ‘新匈奴單于章’으로 바꾸었다.”는 기사로 볼 때, 본문의 ‘五威將’은 王駿을 가리키고, 한 해 전인 始建國元年(후9)에 일어났던 일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12) 刀護: 그러나 『漢書』卷99中「王莽傳」에서는 그의 이름이 ‘刁護’로 표기되어 있다. “[始建國二年]十一月, 立國將軍이 上奏하기를 ‘西域의 將領인 [段]欽이 上言하였는데, 九月 辛巳에 戊己校尉史 陳良과 終帶 등이 함께 校尉 刁護를 賊殺하고 吏士를 劫略한 뒤, 漢의 大將軍을 廢했다고 自稱하면서 匈奴로 亡入했다’고 합니다.”

513) 埽婁(liwät-liu)城: 徐松은 焉耆의 도읍에서 가까운 “陳陸故城”(『後漢書』卷40「班超傳」)일 것으로 비정하였다.

이때 왕망이 선우새(單于蠶)를 바꾸니⁵¹⁴⁾ 선우가 분하게 여겨, 마침내 호란지의 투항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보내 [호란지와] 함께 거사를 약탈 공격하였다. 후성(後城)의 수령을 죽이고 도호의 사마를 상해했다. 호란지의 병사들이 다시 흉노로 들어갈 때, 마침 무기교위 도호가 병이 들어 사(史)⁵¹⁵⁾ 진량(陳良)을 환차곡(桓且谷)에 둔전하며 흉노의 노략에 대비하라고 보냈다. 또한 사 종대(終帶)에게 양식을 취하도록 했고, 사마승(司馬丞)⁵¹⁶⁾ 한현(韓玄)에게는 여러 성벽(諸壁)을 지휘토록 했으며, 우곡후(右曲候)⁵¹⁷⁾ 임상(任商)에게는 여러 성루(諸壘)⁵¹⁸⁾를 지휘토록 하였다. 이들이 서로 모의하여 말하기를 “서역의 여러 나라들이 상당수 배반하였고 흉노가 크게 침략하려 하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교위를 죽이고 사람들을 이끌고 흉노로 투항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즉시 수천 기를 이끌고 교위부(校尉府)로 가서, 여러 정(亭)을 협박하여 [봉화를 위해] 쌓아둔 장작에 불을 지피게 하였다. 여러 성벽으로 각각 나누어 통고하기를 “흉노 10만 기가 들어오니 군관과 병졸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오라. 늦는 자는 참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3~4백 명을 얻자 교위부에서 몇 리 떨어진 곳에 멈추었는데 새벽[에 피우는] 불이 지펴졌다. 교위는 문을 열고 북을 치며 군관과 사졸들이 들어오도록 했다. 진량 등도 따라 들어와 마침내 교위도호와 그의 아들 4명, 여러 동생과 그 아들들을 죽였고, 다만 부녀자와 어린아이들만 남겨두었다. 그들은 무기교위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 흉노의 남장군에게 알렸다. 남장군은 2천 기를 보내어 진량 등을 맞이 하였다. 진량 등은 무기교위의 군관과 사졸 및 남녀 2천여 명을 모두 억박질러서 흉노로 들어갔다. 선우는 진량과 종대를 오분도위(烏賁都尉)⁵¹⁹⁾로 삼았다.

514) 王莽은 ‘匈奴單于’를 ‘降奴服于’라고 고쳐 부르고, ‘匈奴單于蠶’를 ‘新匈奴單于章’로 바꾸었다.

515) 史: 戊己校尉의 屬官으로 秩六百石이었다.

516) 司馬丞: 司馬에 소속된 丞.

517) 右曲候: 이 관직은 任商과 관련해서만 언급될 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518) 본문에서는 ‘諸壁’와 ‘諸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519) 烏賁都尉: 이는 중국식 관제에 보이는 虎賁都尉를 본따서 ‘호랑이처럼 빠른’이 아니라 ‘까마귀처럼 빠른’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唐朝를 건국한 李淵의 祖父의 이름을 忌諱하려고 ‘虎’字를 ‘烏’로 대체했을 가능성도 있다(Hulsewé, 2005: 195).

後三歲，單于死，弟烏索單于咸立，復與莽和親。莽遣使者多齎金幣賂單于，購求陳良·終帶等。單于盡收四人及手殺刀護者芝音妻子以下二十七人，皆械檻車付使者。到長安，莽皆燒殺之。其後莽復欺詐單于，和親遂絕。匈奴大擊北邊，而西域亦瓦解。焉耆國近匈奴，先叛，殺都護但欽，莽不能討。

3년 뒤 선우가 죽고⁵²⁰⁾ 그 동생 오류선우(烏索單于) 함(咸)이 즉위하여 다시 왕망과 화친하였다. 왕망은 사신을 보내서 선우에게 많은 금과 비단을 주어 진량과 종대 등을 사들이려고 하였다. 선우는 [진량·종대·한현·임상] 4명을 모두 거두고 아울러 도호를 직접 죽인 지음(芝音)과 그의 처자 등 27명을 모두 형틀에 채우고 우리가 실린 수레에 실어서 사신에게 붙여 주었다. 그들이 장안에 도착하자 왕망은 그들을 모두 태워 죽였다.⁵²¹⁾ 그 후 왕망은 다시 선우를 기만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화친은 끊어지고 말았다. 흉노는 북변을 크게 공격하였고 서역도 역시 와해되고 말았다. 언기국은 흉노와 가까워 먼저 반란을 일으켜 도호 단흠을 죽였으나 왕망은 토벌하지 못했다.⁵²²⁾

天鳳(二)[三]年，乃遣五威將王駿·西域都護李崇將戊己校尉出西域，諸國皆郊迎，送兵穀。焉耆詐降而聚兵自備。駿等將莎車·龜茲兵七千餘人，分爲數部入焉耆，焉耆伏兵要遮駿。及姑墨·尉犁·危須國兵爲反間，還共襲擊駿等，皆殺之。唯戊己校尉郭欽別將兵，後至焉耆。焉耆兵未還，欽擊殺其老弱，引兵還。莽封欽爲劉胡子。李崇收餘士，還保龜茲。數年莽死，崇遂沒，西域因絕。

천봉 3년(후16) 마침내 오위장(五威將) 왕준(王駿)⁵²³⁾과 서역도호 이숭(李崇)⁵²⁴⁾을 보내어

520) 즉 후13년에 사망한 烏珠留若鞮單于.

521) 후14년의 일이다.

522) 『漢書』卷99中「王莽傳」에는 始建國 5년(후13) “王莽이 누차 恩信을 잃어버리지자 西域諸國은 焉耆를 시작으로 반란을 일으켜 都護 但欽을 죽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523) 1979년 敦煌 馬圈灣의 漢代 烽燧遺址에서 발견된 簡牘資料를 정리보고한 吾初驥의 『敦煌馬圈灣漢代烽燧遺址發掘報告』(中華書局, 1991)는 簡牘자료에 보이는 ‘使西域大使五威左率都尉’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무기교위를 지휘해서 서역으로 나가도록 했다. 여러 나라가 모두 교외까지 나와 영접했고 병사와 양식을 보냈다. 언기는 투항하는 체하면서 군사를 모아서 스스로 대비하였다. 왕준 등은 사차·구자의 병사 7천여 명을 이끌고 그들을 몇 개의 부대로 나누어 언기로 들어갔다. 언기는 북병으로 왕준을 차단하려고 했다. 마침내 고목·위리·위수 등의 나라의 군인들이 간첩질을 하다가 돌아오자, 함께 왕준 등을 습격하여 모두 살해하였다. 오로지 무기교위 곽흠(郭欽)만 별도로 군대를 이끌고 뒤늦게 언기에 도착했는데, 언기의 군대가 아직 돌아오기 전이어서 곽흠은 그곳의 노약자들을 죽인 뒤 군대를 이끌고 귀환했다. 왕망은 곽흠을 삼호자(劉胡子)⁵²⁵로 삼았다. 이승은 나머지 병사들을 거두어 구자로 돌아가 피신했다. 몇 년 뒤 왕망이 사망했고⁵²⁶ 이승도 마침내 없어져서, 서역은 이로 인하여 단절되어 버렸다.

最凡國五十，自譯長·城長·君·監·吏·大祿·百長·千長·都尉·且渠·當戶·將·相至侯·王，皆佩漢印綬，凡三百七十六人。而康居·大月氏·安息·罽賓·烏

王駿이라고 추정했고, 余太山(2005: 217)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孫占宇(2006)는 五威左率과 五威將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使西域大使五威左率都尉은 『漢書』 「王莽傳」에 언급된 대로 五威將 王駿을 따라 원정에 참가했지만, 그와는 별도의 부대를 지휘했던 五威帥 何封이라고 주장했다. 王駿 등이 焉耆를 공격한 시점에 대해서도 天鳳 3년(후16) 六月說과 天鳳 4년(후17) 六月說이 갈라져 있으나, 그 行軍路線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즉 天鳳 3년 十二月 玉門의 千秋隧를 통과하여 翌年 正月에는 大煎都候障에 도착했고, 그곳에 幕府를 설치하고 군대를 모으고 식량을 축적하였다. 그가 지휘했던 군대는 모두 河西의 各郡에서 징발되었다. 漢軍은 둘로 나뉘어 2천 명으로 구성된 一隊는 王駿과 李崇이 지휘하여 屯煌을 나서서 鄯善을 경과하여 尉犁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莎車·龜茲·尉犁 등에서 온 서역의 병사들과 합하여 모두 7천 명의 병력으로 天鳳 4년(후17) 四月 焉耆로 진군했다. 처음에는 우세했으나 도중에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갔고, 마침내 王駿은 피살되고 전군이 몰살당했으며, 李崇은 龜茲로 퇴각하였다. 또 다른 一隊는 左帥 何封과 戊己校尉 郭欽이 지휘하는 5천 명이었는데 '新道'를 경유하여 車師를 통과해서 西南으로 焉耆를 공격했고, 그 결과는 위의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이다.

524) 李崇: 그는 天鳳 3년(후16)부터 地皇 4년(후23)까지 서역도호를 역임하였다. 但欽이 피살된 始建國 5년부터 天鳳 3년까지는 서역도호가 空職으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525) 劉胡子: 이는 '오랑캐를 절멸시킨 인물'이라는 의미이다. 鄧展에 따르면 '劉의 음은 衫'이고, 顏師古는 '劉은 絕'의 의미라고 주석을 달았다.

526) 地皇 4년(후23)의 일이다.

弋之屬，皆以絕遠不在數中，其來貢獻則相與報，不督錄總領也。

모두 50개 나라였다. 역장(譯長)·성장(城長)·군(君)·감(監)·이(吏)·대록(大祿)·백장(百長)·천장(千長)·도위(都尉)·저거(且渠)·당호(當戶)⁵²⁷⁾·장(將)·상(相), 그리고 후(侯)와 왕(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나라의 인수를 패용한 것이 대저 376명이었다. 그러나 강거·대월지·안식·계빈·오익산리 등과 같은 부류는 모두 극히 먼 곳에 있어서 숫자 안에 넣지 않았고, 그들이 조공을 갖고 와서 바치면 그에 상응해서 보답했고, 감독하거나 통솔하지는 않았다.

贊：孝武之世，圖制匈奴，患其兼從西國，結黨南羌，乃表河(曲)[西]，列(西)[四]郡，開玉門，通西域，以斷匈奴右臂，隔絕南羌·月氏，單于失援，由是遠遁，而幕南無王庭。

찬(贊): 무제 때에 흉노를 제압하려고 시도했을 때, [흉노가] 서방의 나라들을 모두 종속시키고 남쪽의 강족과 연맹을 맺지나 않을까 걱정하여, 해서 지방에 [경계를] 표시하고 사군을 설치하며 옥문관을 열어 서역과 통함으로써, 흉노의 오른팔을 끊고 남쪽의 강족과 월지 등과 단절시키려고 하였다. [그 결과] 선우는 지원세력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멀리 도망쳐서 사막의 남쪽에는 그의 왕정이 없게 되었다.

遭值文·景玄默，養民五世，天下殷富，財力有餘，士馬彊盛。故能睹犀布·瑇瑁則建珠崖七(部)[郡]，感枸醬·竹杖則開牂柯·越嶲，聞天馬·蒲陶則通大宛·安息。自是之後，明珠·文甲·通犀·翠羽之珍盈於後宮，蒲梢·龍文·魚目·汗血之馬充於黃門，鉅象·師子·猛犬·大雀之羣食於外園。殊方異物，四面而至。於是廣開上

527) 且渠, 當戶: 모두 匈奴의 官職名.

林，穿昆明池，營千門萬戶之宮，立神明通天之臺，興造甲乙之帳，落以隨珠和璧，天子負黼依，襲翠被，馮玉几，而處其中。設酒池肉林以饗四夷之客，作巴俞都盧·海中磬極·漫衍魚龍·角抵之戲以觀視之。及賂遺贈送，萬里相奉，師旅之費，不可勝計。至於用度不足，乃榷酒酤，筦鹽鐵，鑄白金，造皮幣，算至車船，租及六畜。民力屈，財用竭，因之以凶年，寇盜並起，道路不通，直指之使始出，衣繡杖斧，斷斬於郡國，然後勝之。是以末年遂棄輪臺之地，而下哀痛之詔，豈非仁聖之所悔哉！且通西域，近有龍堆，遠則葱嶺，身熱·頭痛·縣度之陀，淮南·杜欽·揚雄之論，皆以爲此天地所以界別區域，絕外內也。書曰“西戎即序”，禹既就而序之，非上威服致其貢物也。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의 그윽하고 잠잠한 통치[玄默]는 백성들에게 오세(五世)⁵²⁸의 후식을 주었고, 온 세상이 부유해져 재정에도 여유가 생겼으며, 군마[土馬]도 강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코뿔소의 뿔[犀]⁵²⁹과 상아[象]⁵³⁰와 대모(瑇瑁)⁵³¹를 목도하니 주애(珠崖) 등의 칠군(七郡)⁵³²을 건립하였고, 구장(枸醬)⁵³³과 죽장(竹杖)을 알게 되니 장가(牂柯)·월수(越嶲) 등[의 군]을 열었으며,⁵³⁴ 천마(天馬)와 포도(蒲陶)를 듣고서 대완·안식과 소통하게 되었다. 그 뒤 명주(明珠)⁵³⁵·문갑(文甲)⁵³⁶·통서(通犀)⁵³⁷·취우(翠羽)⁵³⁸ 등의 진귀한 물

528) 五世: 高祖, 惠帝, 文帝, 景帝, 武帝를 가리킨다.

529) 코뿔소의 뿔에 대해서는 Schafer (1963: 83-84) 참조.

530) 布: ‘象’의 誤字로 추정된다.

531) 瑇瑁: 바다거북과에 속하며 그 甲은 細工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열대·아열대 해안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희귀한 물품이었다(Schafer, 1963: 245).

532) 珠崖七郡: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설치된 것으로 南海郡·蒼梧郡·鬱林郡·合浦郡·交趾郡·九真郡·日南郡·珠崖郡·儋耳郡 등을 일컫는다. 오늘날 廣西와 越南 北部가 이들 지역에 해당된다. ‘七郡’은 ‘九郡’이 되어야 옳다.

533) 枸醬: 종려과에 속하는 말레이시아 원산의 상록교목인 빈랑나무의 열매(betelnut)로, 다량의 타닌과 알칼로이드·아레콜린 등을 함유하며 조충구제·설사·피부병·두통 등에 쓰인다.

534) 『漢書』 卷6 「武帝紀」에 “西南夷를 평정하여 武都·牂柯·越嶲·沈黎·文山郡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오늘날 四川·貴州의 일부 지방이 이들에 해당된다.

535) 明珠: 영롱한 광택을 내는 眞珠.

건들이 후궁에 가득하게 되고, 포초(蒲梢)·용문(龍文)·어목(魚目)·한혈마(汗血)⁵³⁹⁾ 등의 말이 황문(黃門)⁵⁴⁰⁾을 채웠고, 거상(鉅象)⁵⁴¹⁾·사자(師子)·맹견(猛犬)·대작(大雀)과 같은 무리가 바깥 뜰에서 사육되게 되었다. 먼 지방의 진기한 물건들이 사방에서 도달하니, 이에 널리 상림원(上林苑)을 열고, 곤명지(昆明池)⁵⁴²⁾를 굴착했으며, 천 개의 문과 만 개의 가구가 거주하는 궁⁵⁴³⁾을 짓고 신명(神明)과 통천(通天)의 망대(臺)⁵⁴⁴⁾를 세웠으며, 갖가지 휘장⁵⁴⁵⁾을 만들어서 수주(隨珠)⁵⁴⁶⁾와 화벽(和璧)으로 연결[落]⁵⁴⁷⁾하였다. 천자는 보의(黼依)⁵⁴⁸⁾를 등지고 취피(翠被)⁵⁴⁹⁾를 걸치고, 옥으로 된 탁자에 기대어 그 안에 기거하였다. 주지육림(酒

536) 文甲: 璚瑁와 동일하다.

537) 通犀는 중앙이 白色이고 양쪽 끝이 서로 통하는(通兩頭) 犀角의 일종이다.

538) 翠羽: 翠鳥의 羽毛이며 고대에 장식물로 사용되었다.

539) 孟康에 따르면 이들은 ‘四駿馬’의 이름이라고 한다. ‘蒲梢’는 ‘蒲梢’라고도 표기.

540) 黃門: 여기서는 宮禁을 뜻한다.

541) 鉅象: 즉 巨象(큰 코끼리).

542) 上林苑과 昆明池에 관해서는 前註 참조.

543) 千門萬戶之宮: 이는 太初元年(전104)에 건설된 建章宮을 지칭하며, 未央宮 서쪽에 위치해 있었다.

544) 神明通天之臺: 『漢書』 「武帝紀」에는 元封 2년(전109) 여름 甘泉通天臺를 세웠다는 기록이 보이고, 이에 대해 “높이가 30丈이고 長安城을 바라볼 수 있다”는 顏注가 있다. 또한 『漢書』 「校祀志下」에는 神明臺를 건설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이에 대해 “높이가 50丈이고 위에는 9室이 있다”는 顏注가 있다.

545) 甲乙之帳: 顏注: “그 숫자가 하나가 아니며, 甲乙로써 차례로 그것들을 지명한 것이다.”

546) 隨珠和璧: 隨侯珠와 和氏璧의 并稱. 傳說에 따르면 古代에 隨國의 姬姓 諸侯가 한 마리 큰 뱀이 상처를 입고 끊어진 것을 보고 藥을 발라서 고쳐주었다고 한다. 그 후 그 뱀이 江에서 明月珠를 물었다 주어 그 은덕에 보답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를 가리켜 隨侯珠라고 하며 靈蛇珠라고도 부른다. 한편 楚人 卞和가 荊山에서 하나의 璞玉을 얻었는데 武王·文王에게 차례로 獻給했으나 모두 돌(石)로 여겼고, 和는 欺君罪를 뒤집어 쓰고 兩足이 잘리는 형을 받았다. 成王이 즉위한 뒤 사람을 시켜 璞을 갈라보니 그 안에 과연 夜光寶玉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和氏璧이라 이름하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이 일화는 『韓非子·和氏』, 『淮南子·覽冥訓』 등에 보인다. 후에 ‘隨珠和璧’은 珍寶 혹은 珍寶 중에서도 上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547) 顏注: “落은 絡과 같다.”

548) 黼依: 古代 帝王이 앉는 寶座 뒤에 黑白色이 섞인 斧形 花紋의 屏風이 비단으로 만들어져 설치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黼依’이라고 불렀다. 顏注: “依는 屣으로 읽어야 한다. 屣는 小屏風과 같고, 黼 문양으로 되어 있다. 白과 黑[이 섞인 것]을 黼라고 부르며, 또한 도끼(斧) 모양으로 되어 있다. 襲은 중복해서 입는 의복(重衣)이다.”

549) 翠被: 翡翠(물총새)의 털(羽)로 만든 背帳. 被는 帳와 동일.

池肉林)⁵⁵⁰의 잔치를 열어 사이(四夷)의 손님을 향응하고, 파유(巴俞)⁵⁵¹와 도로(都盧)⁵⁵², 해중탕극(海中湯極)⁵⁵³, 만연(漫衍)과 어룡(魚龍)⁵⁵⁴, 각저(角抵)⁵⁵⁵와 같은 놀이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보내준 선물과 증물, 만 리 먼 길에 필요한 경비, 군대의 자금 등은 헤아리기도 힘들었으니, 사용하기에 부족하게 되자 이에 술거래[酒酤]와 염철(鹽鐵)을 전매하고, 백금을 녹이고 피폐(皮幣)를 만들었으며, 수레와 배를 헤아리고 육축(六畜)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게 되었다. 백성들의 힘이 꺾이고 재력이 고갈되었으며 게다가 흉년까지 겹치니, 도적이 함께 일어나고 도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황제가] 직접 지명한 사신이 처음으로 나가서, 비단옷을 입고 도끼를 들고 군국(郡國)에서 [그 같은 도적들을] 죽여버리니, 그리고 나서야 비로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무제는] 말년에 마침내 윤대의 땅을 포기하고 애통해하는 조칙을 내렸으니, 어찌 인자하고 성스러운 군주가 후회하지 않았겠는가? 또한 서역과 교통할 때 가까이에는 백룡퇴가 있고 멀리에는 총령이 있으며 신열과 두통과 현도의 장애가 있었다. 회남(淮南)⁵⁵⁶과 두흠(杜欽)⁵⁵⁷과 양웅(揚雄)⁵⁵⁸이 논한 것처럼 이것들은 모두 천지에 경계

550) 酒池肉林: 앞의 주석 참조.

551) 巴俞: 顏注: “巴人是巴州人이고, 俞는 水名이니, 오늘날의 渝州이다. 巴俞의 사람들은 이른바 賓人이니, 힘이 세고 민첩하여 춤추는 데에 능하다. 본시 高祖를 따라 三秦을 평정할 때 공을 세웠는데, 高祖가 그 춤추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여 樂人으로 하여금 그것을 익히도록 했으니 이런 연유로 巴俞之樂이 생기게 된 것이다.”

552) 都盧: 晉灼: “都盧는 國名이다.” 李奇: “都盧는 體輕善緣者이다.” 都盧는 원래 南海의 國名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몸이 가벼워서 매달리는 묘기에 능했다고 한다.

553) 海中湯極: 樂名이다.

554) ‘漫衍’과 ‘魚龍’은 모두 雜戲의 명칭이다. 顏師古는 漫衍에 대해서 張衡이 『西京賦』에서 ‘거대한 짐승을 형용하여 하는 놀이’라고 한 것이며, 魚龍에 대해서는 거대한 물고기가 殿前의 물속에 들어가 입에서 뱀어내어 햇빛을 가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놀이라고 설명하였다.

555) 角抵: 前註 참조.

556) 淮南: 『漢書』 卷64上 「嚴助傳」에는 淮南王이 “越은 方外之地이며 劓髮文身の 주민들입니다. 冠帶의 國法和 度理로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三代之 번성함이 있는 이래 胡越은 正朔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 다. 힘으로써가 아니면 복속시킬 수 없고 위엄으로는 제압할 수는 없으니,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며 다스릴 만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로 인하여] 중국을 힘들게 하기에 족하지 못합니다.”라고 諫한 내용이 보인다.

557) 杜欽: 杜欽이 大將軍 王鳳에게 말한 내용은 앞의 본문에서 나왔다.

558) 揚雄: 『漢書』 卷94下 「匈奴傳下」에는 建平 4년(전3)에 揚雄이 上書한 내용이 나와 있다. “또한 과거에

와 구역을 지어서 안과 밖을 격절시키는 것이다. 서경(書經)에 “서융(西戎)이 곧 질서가 잡혔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왕(禹王)이 가서 질서가 잡힌 것이었으니, 그가 뛰어난 권위를 지니지 못했다면 그들로 하여금 공물을 갖고 오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西域諸國，各有君長，兵衆分弱，無所統一，雖屬匈奴，不相親附。匈奴能得其馬畜旃罽，而不能統率與之進退。與漢隔絕，道里又遠，得之不爲益，棄之不爲損。盛德在我，無取於彼。故自建武以來，西域思漢威德，咸樂內屬。唯其小邑鄯善·車師，界迫匈奴，尚爲所拘。而其大國莎車·于闐之屬，數遣使置質于漢，願請屬都護。聖上遠覽古今，因時之宜，羈縻不絕，辭而未許。雖大禹之序西戎，周公之讓白雉，太宗之卻走馬，義兼之矣，亦何以尚茲！

서역의 여러 나라들은 각자 군장이 있고, 병사의 무리는 나뉘어 약하며 통일되는 바가 없다. 비록 흉노에 복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친하게 따르지는 않는다. 흉노가 능히 그 말과 가축과 모포(旃罽)를 획득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통솔하여 함께 나아가거나 물러가게 하지는 못한다. 한나라와는 격절되어 있고 거리도 또한 멀기 때문에, 그곳을 얻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버려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 번영은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로부터는 취할 것이 없다. 건무(建武) 연간 이후(후25) 서역은 한나라의 위덕을 사모하여 모두 내속하기를 기뻐했다. 다만 그 조그만 고장인 선선과 거사만이 흉노와 경계가 가까워서 항상 [흉노에게] 구속되었다. 그러나 그 큰 나라인 사차와 우전과 같은 부류는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한나라에 질지를 두었고 도호에 종속되기를 청하였다. 성상⁵⁵⁹⁾께서는 고금을 두루 살피시어 그때그때 마땅함에 따라서 기미(羈縻)하되 단절하지 않았고, 사양하며 허락하지 않으셨다. 비록 위대한 우왕이 서융을 질서잡고, 주공이 흰 꿩(白雉)을 사양했으며,⁵⁶⁰⁾ 태종(太宗)이 준마를 물리쳤

西域을 도모하고 車師를 제압하고 城郭을 두어서 三十六國을 都護하였지만, 그 비용이 매년 극도로 많이(大萬) 들어가니, 어떻게 康居와 烏孫을 [치기] 위해서 白龍堆를 넘어가 西邊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 匈奴만을 제압하면 그만입니다.”

559) 後漢 光武帝를 가리킨다.

560) 周公之讓白雉: 成王을 보필하던 周公의 德이 멀리까지 미쳐 南海 지방에 있는 越裳氏가 여러 차례

으나,⁵⁶¹⁾ [황상의] 의로움은 그것들을 모두 겸한 것일지니, 그 어떤 것이 그보다 더 고귀하겠는가.

통역을 거쳐 가면서 白雉를 갖고 와서 그에게 헌납했으나 이를 사양했다는 일화.

561) 太宗之御走馬: 太宗은 漢 文帝를 가리킨다. 어떤 사람이 文帝에게 千里馬를 헌납했는데 그가 받지 않고 물리치면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주었다는 일화이다.

| 참고문헌 |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注』 1, 서울: 신서원, 2004(影印)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余太山, 『兩漢魏晉南北朝正史西域傳要注』, 北京: 中華書局, 2005
內田吟風 編, 『中國正史西域傳の譯註』, 京都: 龍谷大學文學部, 1980
長澤和俊 譯注, 『法顯傳·宋雲行紀』, 東京: 平凡社, 1971
玄奘, 水谷眞成 譯注, 『大唐西域記』1~3, 東京: 平凡社, 1999
Legge, James tr., *A Record of Buddhist Kingdoms*(원간 1886), New York: Paragon, 1965
Rachewiltz, Igor de, tr.,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of the Thirteenth Century*, 2 vols., Leiden: Brill, 2004
- 디 코스모, 이재정 역, 『오랑캐의 탄생: 중국이 만들어 낸 변방의 역사』, 서울: 황금가지, 2005, 2002(원간)
사와다 이사오, 『흉노』, 김숙경 옮김, 서울: 아이필드, 2007, 1996(원간)
長澤和俊, 関丙勳 譯, 『東西文化의 交流』, 서울: 民族出版社, 1991
孟凡人, 『北庭史地研究』, 烏魯木齊: 人民出版社, 1985
蘇北海, 『西域歷史地理』, 烏魯木齊: 新疆大學出版社, 1988
余太山, 『塞種史研究』,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92
余太山, 『兩漢魏晉南北朝與西域關係史研究』,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95
余太山, 『兩漢魏晉南北朝正史西域傳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3
王明哲·王炳華, 『烏孫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83
林梅村, 『漢唐西域與中國文明』, 北京: 文物出版社, 1998
岑仲勉, 『漢書西域傳地理校釋』上·下, 北京: 中華書局, 1981(重印)
張廣達, 『西域史地叢稿初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張星烺 編注, 朱杰勤 校訂, 『中西交通史料匯編』 1~4, 北京: 中華書局, 2003
曾問吾, 『中國經營西域史』, 新疆,, 1986, 1935(원간)
馮承鈞, 『西域南海史地: 考證論著彙輯』, 香港: 中華書局, 1976
解耀華 主編, 『交河故城保護與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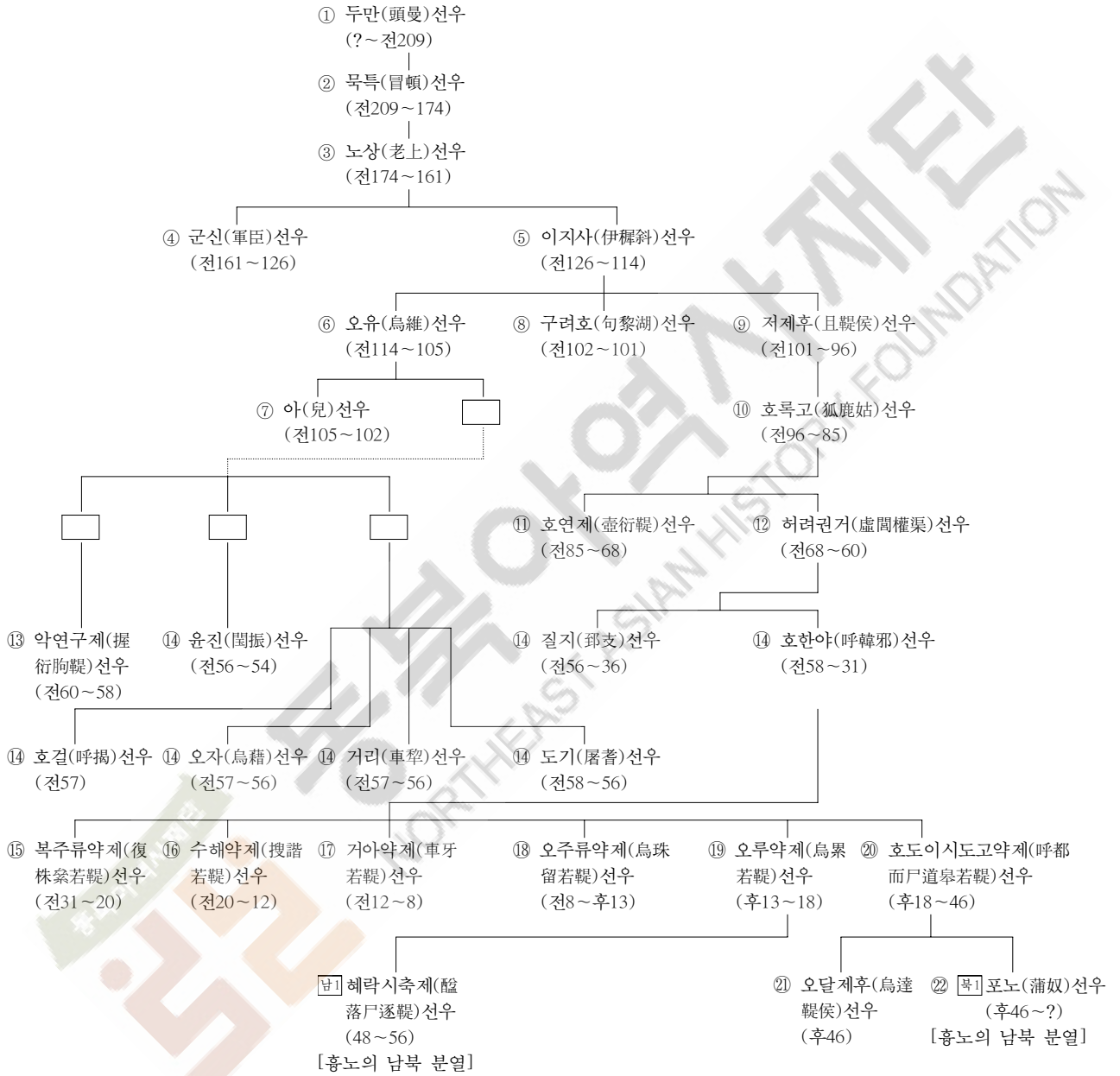
- 黃文弼, 『西北史地論叢』,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 江上波夫, 『ユウラシア古代北方文化: 匈奴文化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1948
- 内田吟風, 『北アジア史研究 匈奴篇』. 京都: 同朋舎, 1975
- 鳴崎昌, 『隋唐時代の東トウルキスタン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7
- 武田雅哉, 『星への筏: 黄河幻視行』, 東京: 角川春樹事務所, 1997
- 桑山正進 編,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2
- 小谷仲男, 『大月氏』, 東京: 東方書店, 1999
- 松田壽男, 『古代天山の歴史地理學的研究(増補版)』,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1970
- 伊瀬仙太郎, 『中國西域經營史研究』, 東京: 巖南堂, 1955
- 護雅夫 編, 『漢とローマ』(東西文明の交流 1), 東京: 平凡社, 1970
- Barthold, W.,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hiladelphia: Porcupine, 1977(4th ed.)
- Hedin, Sven, *The Wandering Lake*, New York: Dutton, 1940
- Herrmann, Albert, *An Historical Atlas of China*(based on 1933 ed.), Chicago: Adline Publishing Co., 1966
- Hirth, F., *China and the Roman Orient*, Leipsic Munich: G. Hirth, 1885
- Hulsewé, A. F. P., *China in Central Asia: The Early State: 125 B.C.~A.D. 23*, Leiden: E. J. Brill, 1979
- Karlgren, Bernhard, *Grammatica Serica Recensa*, Stockholm: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1972
- Laufer, Berthold, *Sino-Iranica*, Chicago: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1919
- Mallory, J. P. & Mair, Victor H., *The Tarim Mummies: Ancient China and the Mystery of the Earliest Peoples from the West*, London: Thames & Hudson, 2000
- Petech, Luciano, *Northern India according to Shui-ching chu*, Roma: Istituto del medio ed estremo oriente, 1950
- Průšek, Jaroslav, *Chinese statelets and the northern barbarians 1400~300 B.C.*, Prague: Academia, 1971
- Schafer, Edward H.,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A Study of T'ang Exo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 Stein, Aurel M., *Ancient Khotan: Detailed report of archaeological explorations in Chinese Turkestan*. 2 vols, Oxford: Clarendon Press, 1907
- Stein, Aurel M., *Serindia: Detailed report of explorations in Central Asia and westernmost China*.

- 5 vols, London & Oxford: Clarendon Press, 1921
- Stein, Aurel M., *Innermost Asia: Detailed Report of Explorations in Central Asia, Kan-su and Eastern Iran*. 5 vols, Oxford: Clarendon Press, 1928
- Tarn, W. W., *The Greeks in Bactria and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8
- Whitfield, Susan, *The Silk Road: Trade, Travel, War and Faith*, London: British Library, 2004
- 金浩東,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1993
- 모리야스 다카오, 「당대 불교적 세계지리와 ‘호’의 실태」,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서울: 사계절, 2006
- 李成珪, 「漢武帝의 西域遠征·封禪·黃河治水와 禹·西王母神話」, 『東洋史學研究』 72, 2000
- 賈叢江, 「西漢屬部朝貢制度」, 『西域研究』 2003-4, 2003
- 賈叢江, 「兩漢戊己校尉的名和實」, 『中國邊疆史地研究』 2006-4, 2006
- 賈叢江, 「兩漢時期西域人漢式姓名探微」, 『西域研究』 2006-4, 2006
- 高榮, 「月氏·烏孫和匈奴在河西的活動」, 『西北民族研究』 2004-4, 2004
- 馬雍, 「東漢〈曹全碑〉中有關西域的重要史料」, 『西域史地文物叢考』, 北京: 文物出版社, 1990
- 馬千希, 「漢代‘五船道’考略」, 『西域研究』, 1999-2, 1999
- 武沐·王希隆, 「對烏孫收繼婚制度的再認識」, 『西域研究』 2003-4, 2003
- 孫毓棠, 「安息與烏弋山離 - 讀『漢書·西域傳』札記之一」, 『文史』 5, 1978
- 孫占宇, 「敦煌漢簡王莽征伐西域戰爭史料研究綜述」, 『西域研究』 2006-3, 2006
- 俄琮璋馬, 「漢代西域譯長」, 『西域研究』 2006-4, 2006
- 王炳華, 「烏孫王難兜靡死于大月氏考」, 『絲綢之路考古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3
- 袁延勝, 「也談『過長羅侯費用簿』的史實」, 『敦煌研究』 2003-1, 2003
- 袁延勝, 「懸泉漢簡所見漢代烏孫的幾個年代問題」, 『西域研究』 2005-4, 2005
- 袁延勝, 「『漢書·西域傳』戶口資料系年蠡測」, 『鄭州大學學報』(哲社版) 2007-5, 2007
- 劉國防, 「漢西域都護的始置及其年代」, 『西域研究』 2002-3, 2002
- 劉洪波, 「關於西域都護的始置時間」, 『中國史研究』 1986-3, 1986
- 李大龍, 「西漢派往西域的使者述論」, 『民族研究』 1990-6, 1990
- 李大龍, 「西漢西域都護略論」, 『中國邊疆史地研究』 1991-2, 1991
- 李文瑛·王宗磊, 「近年來交河故城考古的新成果」, 『西域研究』 1997-3, 1997
- 李炳泉, 「兩漢戊己校尉建制考」, 『史學月刊』 2002-6, 2002
- 李炳泉, 「西漢西域伊循屯田考論」, 『西域研究』, 2003-2,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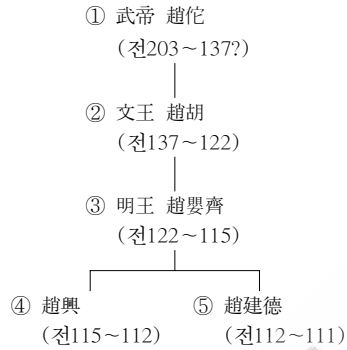
- 李炳泉, 「關於漢代西域都護的兩個問題」, 『民族研究』 2003-6, 2003
- 張德芳, 「『長羅侯費用簿』及長羅侯與烏孫關係考略」, 『文物』 2000-9, 2000
- 張德芳, 「從懸泉漢簡看兩漢西域屯田及其意義」, 『敦煌研究』 2001-3, 2001
- 張運德, 「兩漢時期西域屯墾的基本特徵」, 『西域研究』 2007-3, 2007
- 錢伯泉, 「西漢時期西域的人口和社會經濟情況」, 『新疆社會科學』 1982, 1982
- 錢伯泉, 「烏孫和月氏在河西的故地及其西遷的經過」, 『敦煌研究』 1994-4, 1994
- 錢伯泉, 「烏孫的宗族及其遷徙」, 『西域研究』 1997-4, 1997
- 陳世良, 「『漢書·西域傳』記載道里之特殊方法」, 『新疆社會科學』 1990-1, 1990
- 陳世良, 「『漢書·西域傳』山北諸國之道里」, 『新疆社會科學』 1990-6, 1990
- 榎一雄, 「漢書西域傳の研究: フールスウェ・岑仲勉氏の近業を中心として」, 『東方學』 64, 1982
- 榎一雄, 「史記大宛傳と漢書張騫・李廣利傳との關係について」, 『東洋學報』 64-1~2, 1983
- 堀直, 「清代回疆の水利灌漑」, 『大手前女子大學論集』 14, 1980
- 白鳥庫吉, 「罽賓國考」, 『東洋學報』 7-1, 1917
- 船木勝馬, 「匈奴・烏桓・鮮卑の大人について」, 『内田吟風博士頌壽記念東洋史論集』, 京都: 同朋社, 1978
- 松田壽男, 「絹馬交易と禹氏の玉」, 『東洋史研究』 26-1, 1967
- 松田壽男, 「烏弋山離へのみち」, 『史學』 44-1, 1971
- 長澤和俊, 「古代西域南道考」, 『内陸アジア・西アジアの社會と文化』, 護雅夫 編, 東京: 山川出版社, 1983
- Barfield, T. J., "Hsiung-nu Imperial Confederacy: Organization and Foreign Polic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1, no. 1 (191), 1981
- Brough, John, "Comments on Third-century Shan-shan and the History of Buddhism",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vol. 28, no. 3, 1965
- Chavannes, Edouard, "Les pays d'Occident d'après le Wei Lio", *T'oung Pao* série 2, vol. 6, 1905
- Chavannes, Edouard, "Trois généraux chinois de la dynastie des Han orientaux", *T'oung Pao* série 2, vol. 7, 1906
- Chavannes, Edouard, "Les pays d'Occident d'après le Heou Han chou", *T'oung Pao* série 2, vol. 8, 1907
- Daffinà, Paolo, "The Han Shu Hsi Yü Chuan Re-translated", *T'oung Pao* vol. 68, no. 4~5, 1982
- Enoki, Kazuo, "The Yüeh-chih-Scythians Identity: A Hypothesis", *Studia Asiatica* (Tokyo:

- Kyuko-Shoin, 1998), 1959(원간)
- Enoki, Kazuo, “Yü-ni-ch'êng and the site of Lou-lan”, *Studia Asiatica* (Tokyo: Kyuko-Shoin, 1998), 1960(원간)
- Enoki, Kazuo, “The Location of the Capital of Lou-lan and the Date of the Kharoṣṭī Inscription”, *Studia Asiatica* (Tokyo: Kyuko-Shoin, 1998), 1963(원간)
- Frye, R. N., “Some Early Iranian Titles”, *Oriens*, vol. 15, 1962
- Henning, W. B., “The date of the Sogdian Ancient Letters”,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vol. 12, no.3~4, 1948
- Ma, Yong. “A Study on ‘Skull-made Drinking Vessel’”, *Religious and Lay Symbolism in the Altaic World and Other Papers: Proceedings of the 27th Meeting of PIAC*, Walberberg, 1984, Wiesbaden, 1989
- Mair, Victor H., “Mummies of the Tarim Basin”, *Archaeology*, vol. 48, no. 2, 1995
- Pulleyblank, E. G., “Chinese and Indo-Europeans”, *Journal of Royal Asiatic Society*, 1966
- Sinor, Denis, “The Custom of Scalping in Inner Asia”, C. Ch'en ed., *Proceedings of the 35th Permanent International Altaistic Conference*, Taipei, 1993
- 紀大椿 主編, 『新疆歷史事典』, 烏魯木齊: 人民出版社, 1993
- 長澤和俊 編, 『シルクロードを知る事典』東京: 東京堂, 2002
- 『アジア歴史事典』, 東京: 平凡社,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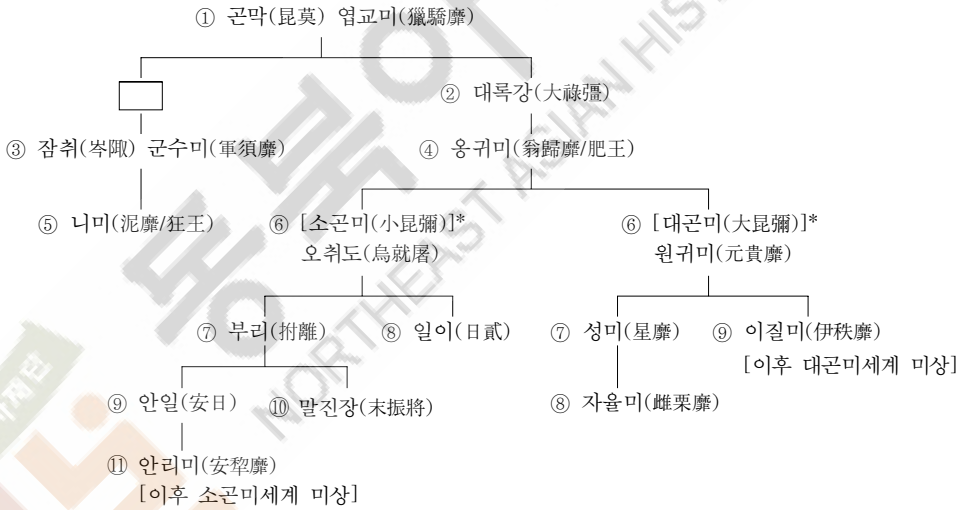
흉노(匈奴) 세계표



남월(南越) 세계표



오손(烏孫) 세계표



※ 한(漢)이 오손을 분치하면서 대곤미와 소곤미로 구분한 것은 전한 선제(宣帝) 감로(甘露) 2년(전52)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연표

연도	북방(北方)	남방(南方)	서역(西域)
210		진 시황제(始皇帝)가 순행 중 사망	
209	흉노 목특선우(冒頓單于)가 섬 동호(東胡)를 병합하고, 진의 혼란을 틈타 하남(河南, 오르도스) 지역을 회복*	진 흉노(匈奴)의 목특선우에게 하남(오르도스) 지역을 빼앗김 진승(陳勝) 등의 거병 이후 항우(項羽)·유방(劉邦) 등 군웅이 할거하는 혼란에 빠짐	
206	흉노 목특선우(冒頓單于)가 섬 동호(東胡)를 병합하고, 진의 혼란을 틈타 하남(河南, 오르도스) 지역을 회복*	진 진의 멸망 뒤 주도권을 쥔 항우가 유방을 한왕(漢王)으로 봉함	
202		전한 유방이 황제를 칭함 서남이 진·한 교체기의 혼란 속에서 중원 왕조의 영향권 밖에 존재*	
200	흉노 한 고조(高祖)를 평성(平城)에서 포위	전한 고조가 흉노의 친정 중 목특선우에게 포위당하였다가 간신히 탈출	
198	흉노 한과 화친	한 흉노와 화친	
195	조선 이즈음 연인(燕人) 위만(衛滿)이 망명해 음		
194	조선 위만이 준왕(準王)을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됨 준왕은 남으로 내려가 한왕(韓王)을 칭함*		
177			월지 흉노의 공격으로 일리강(江) 유역으로 서천(西遷)*
174	흉노 노상선우(老上單于)가 서고한(漢) 종실의 여자를 연지(閼氏)로 맞음	전한 문제(文帝)가 종실의 여자를 노상선우에게 시집 보냄 중행열(中行說)이 흉노로 투항	
160	흉노 군신서우(軍臣單于)가 서고한과 화친	전한 흉노의 새 선우와 화친 시도	
144	흉노 동호의 왕이 한으로 투항	전한 투항해 온 흉노의 동호왕을 아곡후(亞谷侯)로 봉함	

141		전한 무제(武帝)가 즉위	
139		전한 장건(張騫)이 흉노에 대한 협공을 위하여 월지(月氏)로 출발*	
135		서남이 야랑(夜郎)이 한(漢) 당몽(唐蒙)의 계책에 건위군(犍爲郡)으로 편입됨	
134		전한 파(巴)·촉(蜀)의 군사를 동원하여 서이도(西夷道)와 남이도(南夷道)를 개척하기 시작	강계 처음으로 한에 사신을 파견
133	흉노 선우가 마읍(馬邑)으로 유인되었다가, 한의 계책을 알고 철수 후 한과의 관계 악화	전한 흉노의 선우를 유인해 죽이려 한 계획이 실패한 뒤 흉노와의 관계가 악화	
130			오손 대월지를 공격하여 일리강 유역을 점거 대월지 오손에게 쫓겨 아무다리아 유역으로 이주하고, 대하(大夏, 박트리아)를 복속시키며 정착
129	흉노 한의 위청(衛靑) 등의 대규모 공격을 받기 시작함 대월지 장건의 흉노 협공 제안을 거절*	전한 위청 등에 의한 대대적인 흉노 공격 시작 서남이 남이 지역에 처음으로 한의 우(郵)와 정(亭)이 설치됨	
128	예맥 예왕(濊王) 남려(南閩) 등이 한으로 내부(內附)		
126	흉노 이지사선우(伊稚斜單于)가 섬	전한 장건이 귀국* 공손홍(公孫弘)의 보고에 따라 서이 경영을 포기하고 남이에만 두 현(縣)과 하나의 도위(都尉)를 설치 서남이 서이는 한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나고, 남이에만 한의 현과 도위가 두어짐	
122		전한 장건에게 촉(蜀)을 통해 대하에 이르는 길을 탐색토록 지시	
121	흉노 한의 광거병(霍去病) 등의 대규모 공격을 받기 시작함 혼야왕(渾邪王)이 한에 투항	전한 광거병 등이 대대적인 흉노 공격 개시 하서(河西) 지역을 장악하고 4군을 설치*	

119	오환 광거병에 의하여 상곡군(上谷郡) 등 5군의 해외(塞外)로 옮겨짐	전한 장건이 오손(烏孫)과 협력하여 흉노를 협공하기 위해 재차 서역으로 출발* 염철(鹽鐵)의 전매 등 새로운 재정 정책을 개시	
114	흉노 오유선우(烏維單于)가 섬		
112		남월 상(相) 여가(呂嘉)가 반란을 일으켜 남월(南越)왕과 한의 사신을 죽임 전한 남월의 내분을 틈타 출병 서남이 한의 남월 공격에 징발됨	
111		전한 남월을 점령하여 남해군(南海郡) 등 9군을 설치 남월 한의 군현 지배로 들어감 서남이 남이를 평정하여 장가군(牂柯郡)을 설치하고, 서이를 평정하여 월수군(越巂郡) 등을 설치	
109		전한 조선(朝鮮)으로 출병, 왕검성(王儉城)을 포위 백시창(柏始昌) 등을 파견하여 대하(大夏)와 소통하려 했으나 곤명(昆明)에 길이 막혀 실패 서남이 진왕(滇王)이 항복하여 그 땅에 익주군(益州郡)을 설치	
108	조선 한 무제의 공격을 받아 1년여의 항전 끝에 결국 항복하여 한의 군(郡)이 설치됨	전한 조선을 멸한 뒤 낙랑(樂浪) 등 4군을 설치	누란 한장(漢將) 조파노(趙破奴) 등의 공격을 받음 오손 곤막(昆莫) 엽교미(獵驕靡)가 한의 종실녀와 흉노 선우의 딸을 모두 처로 맞음*
105	흉노 아선우(兒單于)가 섬		오손 엽교미의 손자 잠취(岑廞) 군수미(軍須靡)가 한의 종실녀를 처로 맞음
104		전한 이광리(李廣利)에게 대완(大宛)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실패	
102	흉노 구려호선우(句黎湖單于)가 섬	전한 이광리가 재차 대완을 공격하여 그 왕을 한과 친하던 매채(昧蔡)로 교체한 뒤 개선(凱旋)	대완 한에 굴복하여 많은 말을 헌납하고, 한이 원하던 매채를 왕으로 세움

100			대한 매채 대신 한과 싸웠던 무과(母寡)의 동생 선봉(蟬封)을 왕으로 세웠으나, 그 아들을 한에 입시(入侍)하게 하여 화친 관계는 유지
101	흉노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가 섬		
99	흉노 한의 공격을 받음	전한 이광리가 흉노를 공격하고, 이때 이릉(李陵)이 흉노에게 패하여 항복 개릉후(開陵侯)가 누란(樓蘭) 등의 병사를 징발하여 車師를 공격	누란 한 개릉후의 지휘 아래 거사(車師)의 공격에 동원됨
96	흉노 호록고선우(狐鹿姑單于)가 섬		
92	흉노 일축왕(日逐王)이 동북도위(僮僕都尉)를 설치하여 서역 지방을 통제		
90	흉노 이광리가 투항해 음	전한 이광리가 흉노에게 항복	누란 한의 거사 공격에 재차 동원됨
87		전한 무제가 사망하고 소제(昭帝)가 즉위	
86		서남이 익주군과 장가군에서 봉기가 발생하였으나, 한에게 진압됨	
85	흉노 호연제선우(壺衍鞮單于)가 섬		
83		서남이 익주군에서 다시 봉기가 발생하여 이듬해까지 계속됨	
80		서남이 무도군(武都郡)에서 봉기가 발생하였으나, 한에게 진압됨	
78	오환 선우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흉노와 갈등	전한 흉노와 오환(烏桓)의 상쟁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대	
77		전한 자객을 보내 누란의 왕을 죽이고, 장안에 있던 그 동생 위도기(尉屠耆)를 왕으로 세우면서, 누란이라는 국명도 선선(鄯善)으로 고침	누란 한에 의하여 위도기가 새 왕으로 되고 국명도 선선으로 바뀜
75	오환 장성을 넘어 공격해 음		

71	<p>홍노 오손을 공격하였으나 실패</p> <p>오환 홍노의 동부를 공격</p>	<p>전한 오손과 연합하여 홍노를 대대적으로 공격</p>	<p>오손 전년 홍노의 공격을 받고 한에 구원을 요청하여, 한과 함께 홍노를 공격</p>
68	<p>홍노 허려권 거선우(虛閭權渠單于)가 섬</p>	<p>전한 정길(鄭吉) 등으로 거리(渠犂)에서 둔전하게 하고 추수 뒤에 거사를 공격</p>	<p>거사 한의 공격을 받아 교하성(交河城)이 파괴됨</p> <p>이듬해 왕이 한에 투항하였다가 후에 오손으로 도주</p>
66		<p>전한 거사(車師)에 둔전(屯田)을 개시</p>	
65		<p>전한 이즈음 사차(莎車)의 왕위 계승에 개입하여, 한의 뜻대로 왕을 세움</p>	<p>사차 한이 보낸 왕을 죽인 호도징(呼屠徵)이 살해되고 그 조카가 왕으로 섬</p>
64		<p>전한 거사의 둔전을 철폐</p>	<p>오손 곤미(昆彌)가 한과의 혼인을 요청하면서 홍노와의 관계 단절을 제의, 그러나 이후 곤미의 사망 등 상황 변화로 실현되지 못함</p>
60	<p>홍노 악연구제선우(握衍胸鞬單于)가 섬</p> <p>일축왕이 한으로 투항해 간 뒤 동북도위를 폐지하여 서역에 대한 통제권 상실</p>		
59		<p>전한 서역도호(西域都護)를 설치하고, 정길(鄭吉)이 오루성(烏壘城)을 치소로 삼음*</p>	
58	<p>홍노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가 선 뒤, 도기선우(屠耆單于)와 대립하는 등 내분 양상</p> <p>오환 홍노의 동부를 재차 공격</p>		
57	<p>홍노 거리선우(車犂單于)·호갈선우(呼揭單于)·오자선우(烏菟單于)가 자립하여 호한야선우·도기선우와 함께 5선우가 병립하였으나, 이후 호한야선우가 패권 장악</p>	<p>전한 소망지(蕭望之)가 홍노의 정벌을 반대</p>	

	신라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居)가 즉위, 서나벌(徐那伐)을 국호로 신라 건국*		
56	흉노 질지선우(郅支單于), 윤진선우(閼振單于) 등이 자립하여 호한야선우와 함께 3선우가 병립하였으나, 윤진선우는 이후 질지선우에게 패사(敗死)		
53	흉노 이즈음 호한야선우와 질지선우가 상쟁하면서, 모두 한과 친교를 맺고자 아들을 보내 입시(入侍)하게 함		
52		전한 주애군(珠崖郡)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호군도위(護軍都尉) 장록(張祿)을 파견하여 진압	오손 대곤미(昆彌)와 소곤미(小昆彌)가 분립*
51	흉노 동부 지역에 있던 호한야선우가 한에 입조(入朝)하여 한 달간 장안(長安)에 머무름 질지선우가 한에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침	전한 호한야선우가 투항해 오자 특별히 우대함과 동시에 질지선우도 후대 오손으로 보내졌던 한의 종실녀 해우(解憂)가 귀환	
49	흉노 호한야선우가 한에 입조 질지선우가 오손·오결(烏揭/呼揭)·견곤(堅昆)·정령(丁零)을 격파	전한 호한야선우의 입조를 허락하고 우대함	
48	흉노 기근이 들어 호한야선우가 한에 구휼을 요청	전한 흉노의 구휼 요청에 따라 곡식 2만斛(斛)을 공급 무기교위(戊己校尉)를 설치	거사 교하성에 한의 둔전이 설치됨
46		전한 주애군을 방기	
44	흉노 질지선우가 한의 관리를 살해		
43	흉노 호한야선우가 세력을 회복하여 북 선우정(單于庭)으로 귀환		
42		전한 농서(隴西)의 강(羌)들이 봉기하자 이를 진압	
37	고구려 주몽(朱蒙)이 즉위, 고구려 건국*		
36	흉노 질지선우가 서역 부도호(副都護) 진탕(陳湯)의 공격을 받아 패사, 호한야선우는 일면 반기고 일면 두려워함		

33	흉노 호한야선우가 한에 입조	전한 왕소군(王昭君)을 호한야선우에게 시집보냄	
31	흉노 복주류약제선우(復株鞬若鞮單于)가 섬, 아들을 장안으로 보내 입시하게 함		
28	고구려 북옥저(北沃沮)를 지배		
27		서남이 야랑왕(夜郎王) 등이 이반하였으나, 한에게 진압됨	
25	흉노 복주류약제선우가 한에 입조(入朝)	전한 서역의 계빈(闕賓)에서 온 사신에게 교섭을 불허	계빈 한으로 사신을 파견
21			오손 내정에 혼란이 발생하였으나, 한의 예전도호(都護) 단회종(段會宗)이 수습
20	흉노 수해약제선우(搜諧若鞮單于)가 서서 아들을 장안으로 보내 입시하게 함		
18	백제 온조(溫祚)가 즉위, 백제 건국*		
12	흉노 수해약제선우가 한으로 오던 중 사망하고, 거야약제선우(車牙若鞮單于)가 서서 아들을 장안으로 보내 입시하게 함		
11			오손 소곤미(小昆彌)가 난을 일으켜 단회종을 파견하여 대곤미(大昆彌)를 세움 강거 한에 인질을 보내고 공물을 바침
8	흉노 오주류약제선우(烏珠留若鞮單于)가 서서 아들을 장안으로 보내 입시하게 함	전한 흉노에게 장액군(張掖郡)에 면한 땅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6	백제 하북위례성(河北慰禮城)에서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으로 천도*		
5	흉노 오손을 공격하여 인질을 데리고 왔으나, 한의 요구로 귀환시킴		
3	고구려 국내성(國內城)으로 천도		

1	<p>흉노 오주류약제선우가 한에 입조(入朝)</p>	<p>전한 흉노의 오주류약제선우가 입오손의 대곤미가 내조하고, 서역의 50국이 모두 한의 인수(印綬)를 패용</p>	<p>오손 대곤미가 한에 입조(入朝)</p>
기원후 2		<p>전한 왕망(王莽)이 한의 영향력 아래 있던 흉노와 서역의 여러 나라들에게 4개조의 규약을 포고(布告)하여 통제를 강화</p>	
8	<p>흉노 한의 4개조 규약에 반하여, 오환에게 종래와 같이 피포세(皮布稅)를 요구하여 상호 충돌이 발생</p> <p>백제 마한(馬韓)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p>	<p>전한 왕망이 제위(帝位)를 선양받아 신(新)을 세움</p>	
9	<p>흉노 신이 '흉노선우새(匈奴單于璽)'라는 인장을 회수하고 '신흉노선우장(新匈奴單于章)'을 지급하여 그 지위를 강등시키자 이에 불만</p> <p>예맥 맥인(貊人)들이 신의 북변을 공격*</p>	<p>신 주변 국가와 종족의 지위를 낮춤으로써 국제관계의 긴장과 물리적 충돌을 유발</p> <p>서남이 구정왕(鉤町王)을 구정후(侯)로 강등하자 한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장가군 태수를 죽임</p>	
10	<p>흉노 옛 인장의 반환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주변의 종족들도 다수 흉노와 연대</p>	<p>신 흉노의 반발을 징벌하고자 '흉노선우'를 '항노복우(降奴服于)'로 개칭함</p> <p>흉노를 공격하기 위해 오환 정령의 병사들도 징발</p> <p>서역도호 단흠(但欽)이 거사후왕(車師後王)을 죽임</p>	<p>거사 거사후왕 수치리(須置離)가 서역도호에게 피살</p>
11	<p>흉노 오주류약제선우가 한에 대한 충성을 빌미로 신(新)을 대대적으로 공격</p>	<p>신 호한야선우의 아들들을 선우로 만들어 흉노를 분열시키려 함</p>	
12	<p>고구려 흉노를 함께 공격하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뒤 그 침입을 받아 왕이 죽음</p>	<p>신 흉노와의 갈등 속에서 그 시자(侍子)를 죽여 대립이 격화</p> <p>고구려를 '하구려(下句驪)'로 개칭</p>	
13	<p>흉노 오루약제선우(烏累若鞮單于)가 서서, 신과의 화친을 시도</p>	<p>신 흉노와의 관계가 개선됨</p> <p>서역의 이반이 분명히 드러나고, 서역도호가 피살됨</p>	<p>오손 대소(大小) 두 곤미(昆彌)가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침</p> <p>연기 신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 서역 여러 나라와 함께 도호 단흠을 살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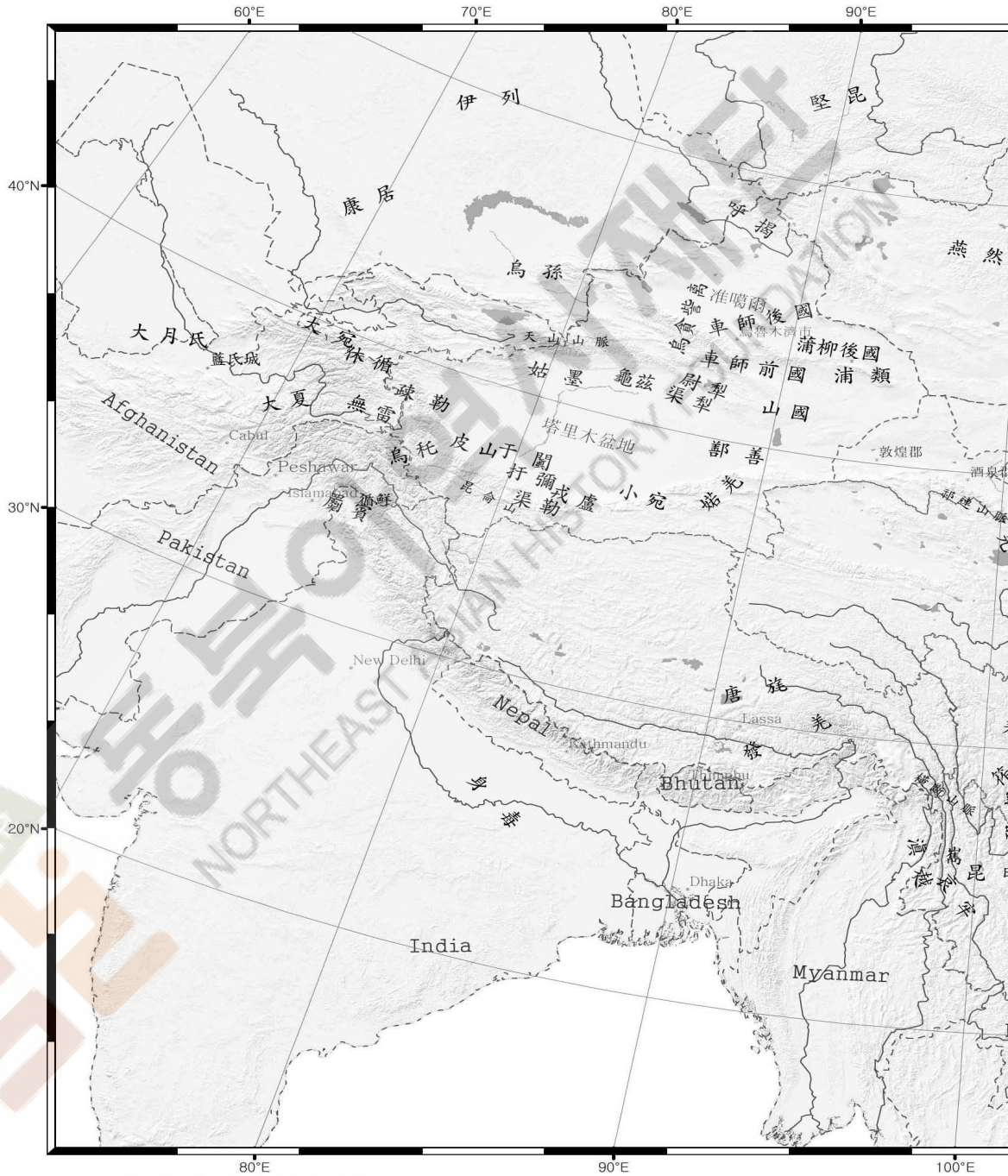
14		서남이 이즈음부터 익주군·월수군 등의 지역에서 신이 망할 때까지 봉기가 계속됨	
15		신 흉노의 공격이 끊이지 않자, '흉노선우'를 '공노선우(恭奴善于)'로 개칭	
16		신 사차 등의 군대를 이끌고 언기(焉耆)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뒤 서역과의 관계가 단절됨	언기 한의 공격을 방어, 이후 서역과 중원의 관계가 끊어짐
18	흉노 호도이시도고약제선우(呼都而尸道皋若鞮單于)가 섬	신 왕망은 수복선우(須卜單于)를 임명하여 흉노를 분열시키고자 기도 번승(樊崇) 등의 봉기가 발생하여 큰 혼란에 빠짐	
23		신 반란의 와중에 왕망이 죽고 신이 멸망 한의 종실 유현(劉玄)이 경시제(更始帝)로 즉위	
24		전한 흉노에 사신을 보내 기존의 규격에 따른 인장과 인수를 수여	
25	흉노 한의 종실을 자칭한 노방(盧芳)을 황제로 세워 중원의 혼란에 개입하려 함	전한 공손술(公孫述)·유수(劉秀)·유분자(劉盆子) 등이 모두 황제를 칭하며 상쟁	
36		후한 광무제(光武帝)가 공손술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	
37	흉노 노방, 오환의 군사와 함께 북변을 공격 예맥 맥인들이 다시 조공하기 시작*		
38		후한 사차와 선선(鄯善)을 통해 서역과의 교류를 재개	사차 사차왕 현(賢)과 선선왕 안(安)이 후한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후한과의 관계를 재개
40		교지 징측(徵側)·징이(徵貳) 자매가 봉기하여 자립	
41		후한 서역도호를 다시 설치해 달라는 사차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에게 단지 '한대장군(漢大將軍)'의 인수를 하사	사차 왕(王) 현이 후한에 도호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현은 '한대장군'의 인수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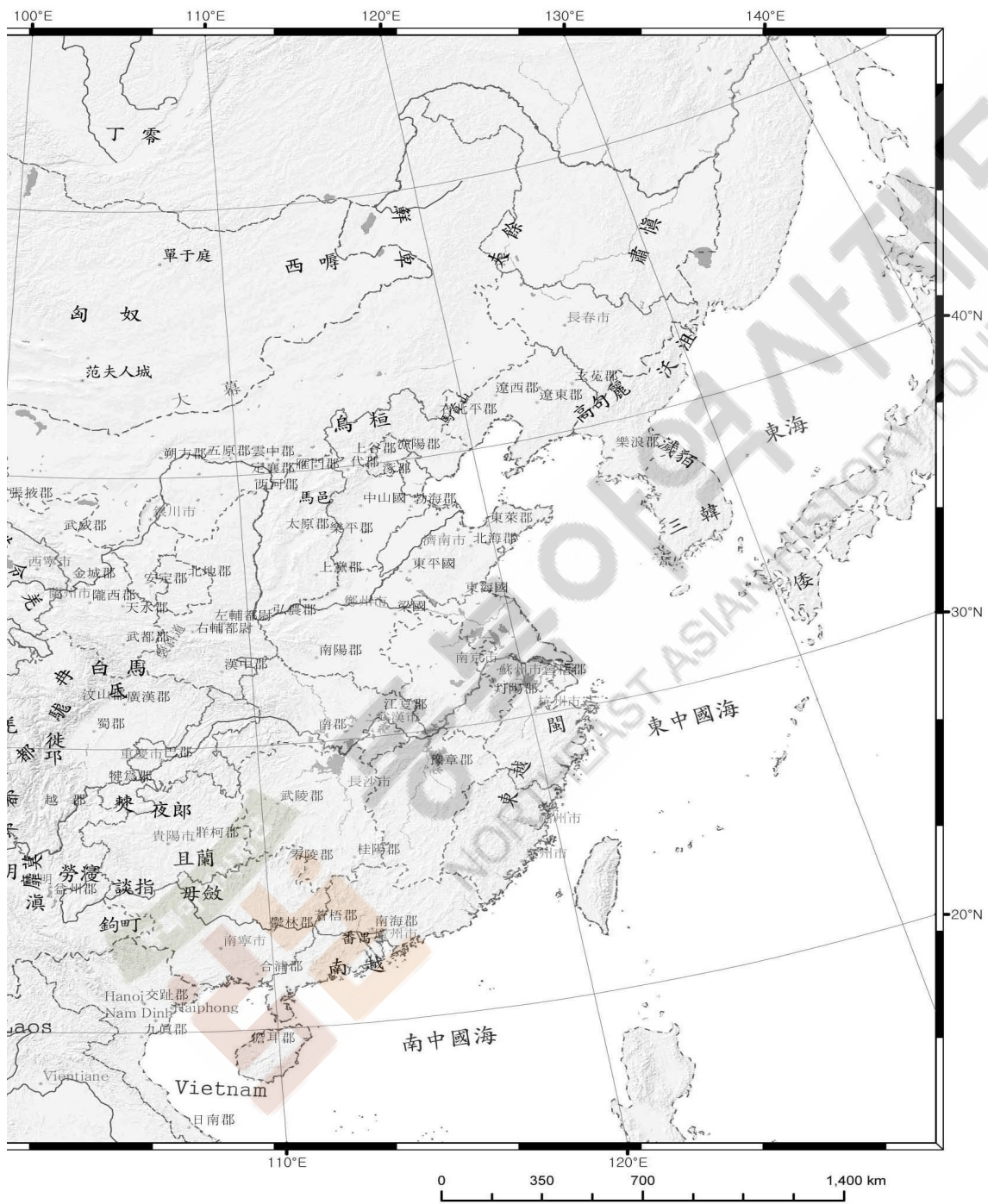
42	가야 수로왕(首露王)이 가락국(駕洛國)을 세움*		
44		후한 마원(馬援)이 교지(交趾)를 평정하고 귀환	
45	선비 요동을 공격 오환 흉노·선비 등과 한의 변경을 침입	후한 제용(祭彤)·마원(馬援) 등을 파견하여 변경의 혼란을 수습 선선·거사·언기 등 서역의 18국이 서역도호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중원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	선선 거사·언기 등 17개의 나라들과 함께 후한에 도호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46	오환 흉노를 격파 흉노 오달 제후 선우(烏達鞬侯單于)가 쫓다가 곧 죽고, 포노선우(蒲奴單于)가 섬	후한 선선 등의 서역도호 설치 요청을 재차 거절	서차 도호가 오지 않음을 알고 선선을 공격하여 구자(龜茲)를 병합 선선 재차 후한에 도호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거사 등과 함께 흉노에게 복속
48	흉노 팔부대인(八部大人)들이 일축왕(日逐王) 비(比)를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로 세워 남흉노의 헤락시축제선우(醜落尸逐鞬單于)가 되고, 흉노가 남북으로 분열		

※ 시기 표시: 서력 표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음력을 사용하던 당시 역법의 연말은 서력으로 볼 때 사실상 그 이듬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정확한 연대의 확정이 불가능하거나 논란이 있을 경우 ‘*’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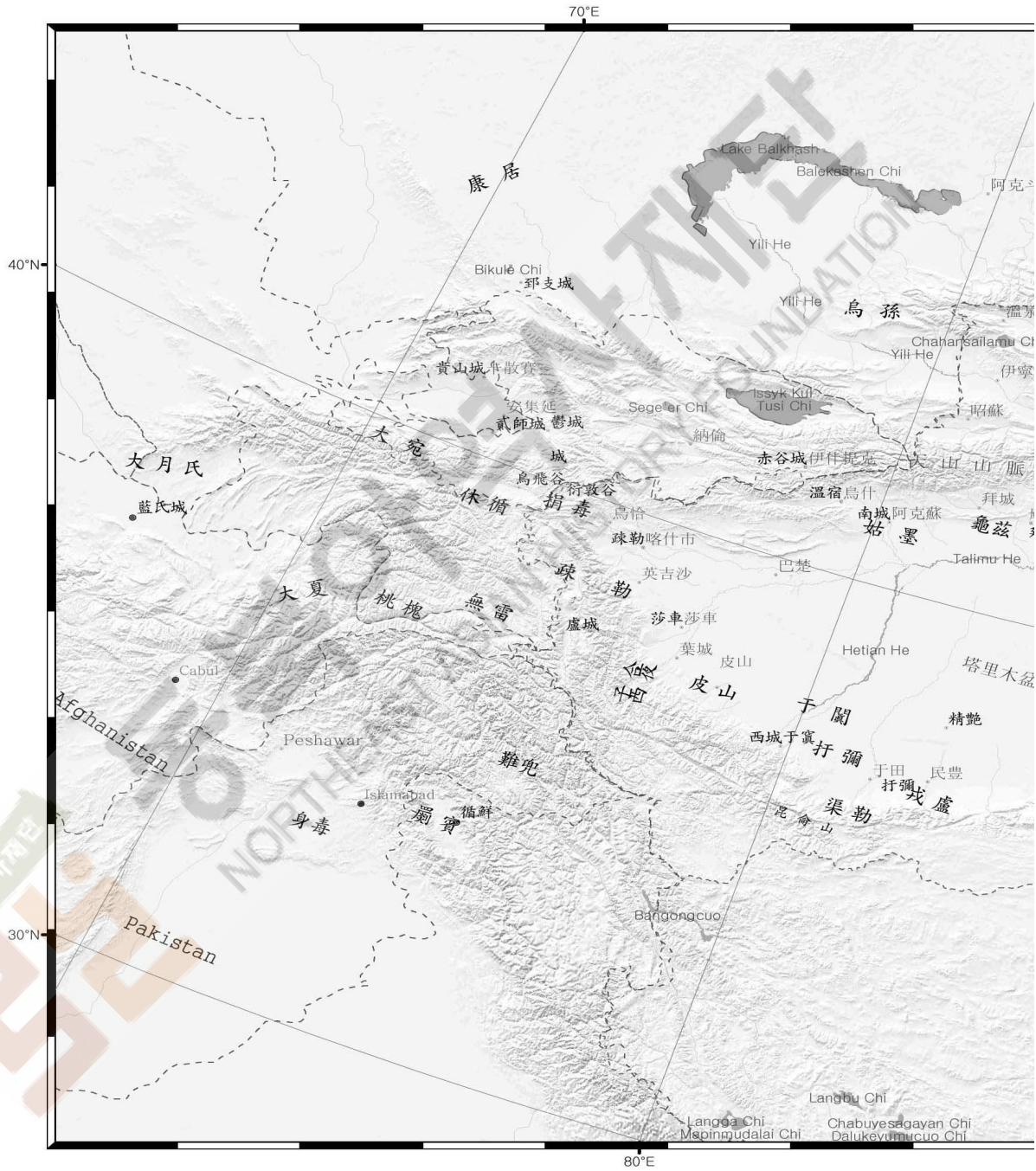
※ 지역 구분: ‘북방’과 ‘남방’은 장성(長城)을 경계로 하여 나누고, 실크로드 지역은 ‘서역’으로 따로 구분한다. 단, 한반도와 일본열도 지역은 편의상 ‘북방’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후 시기에 따른 변화와 활동지역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획일적인 명칭과 지역 구분이 어려운 국가나 종족의 경우에도 그 주요 활동 시기와 중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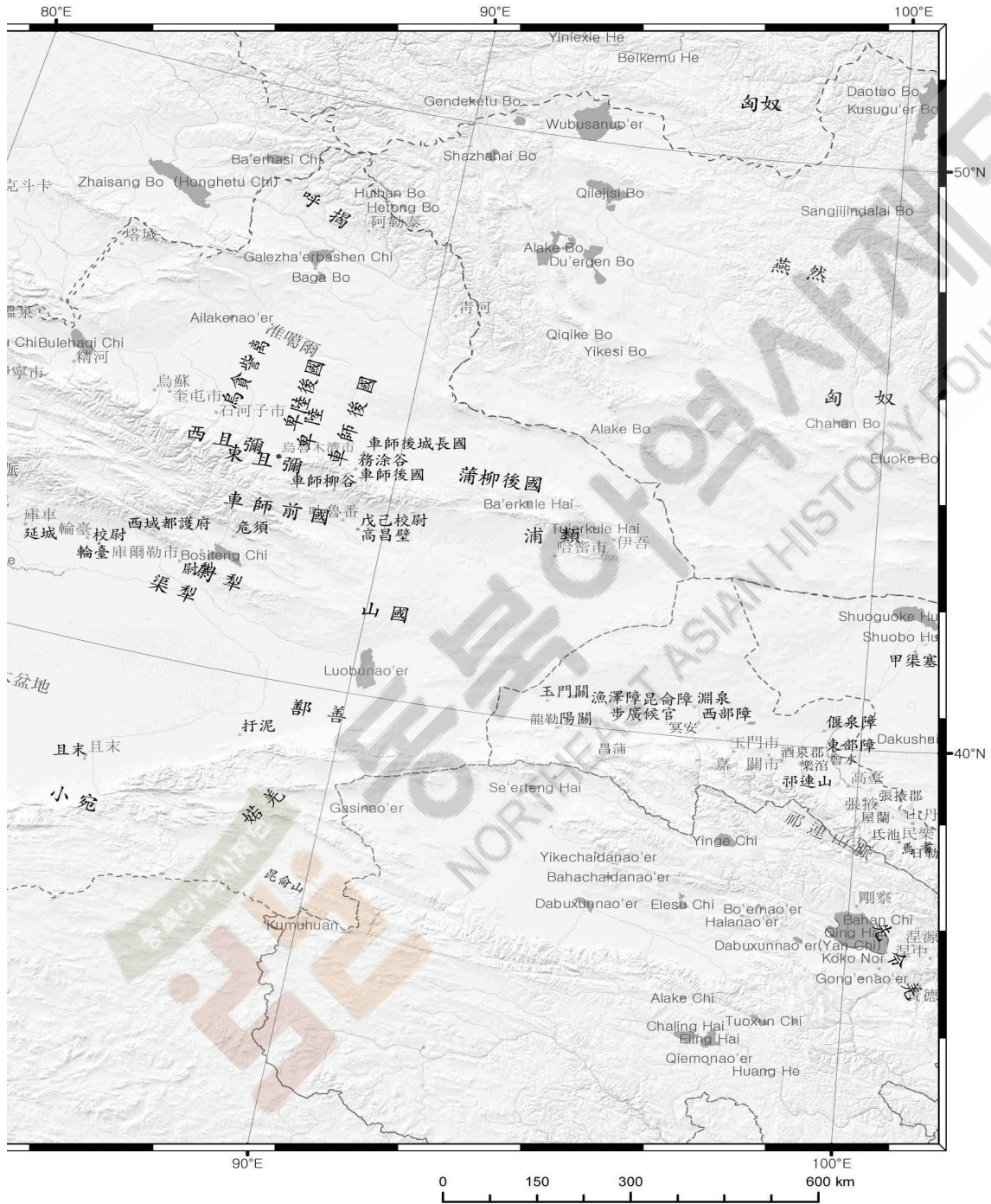
전한 시기 종족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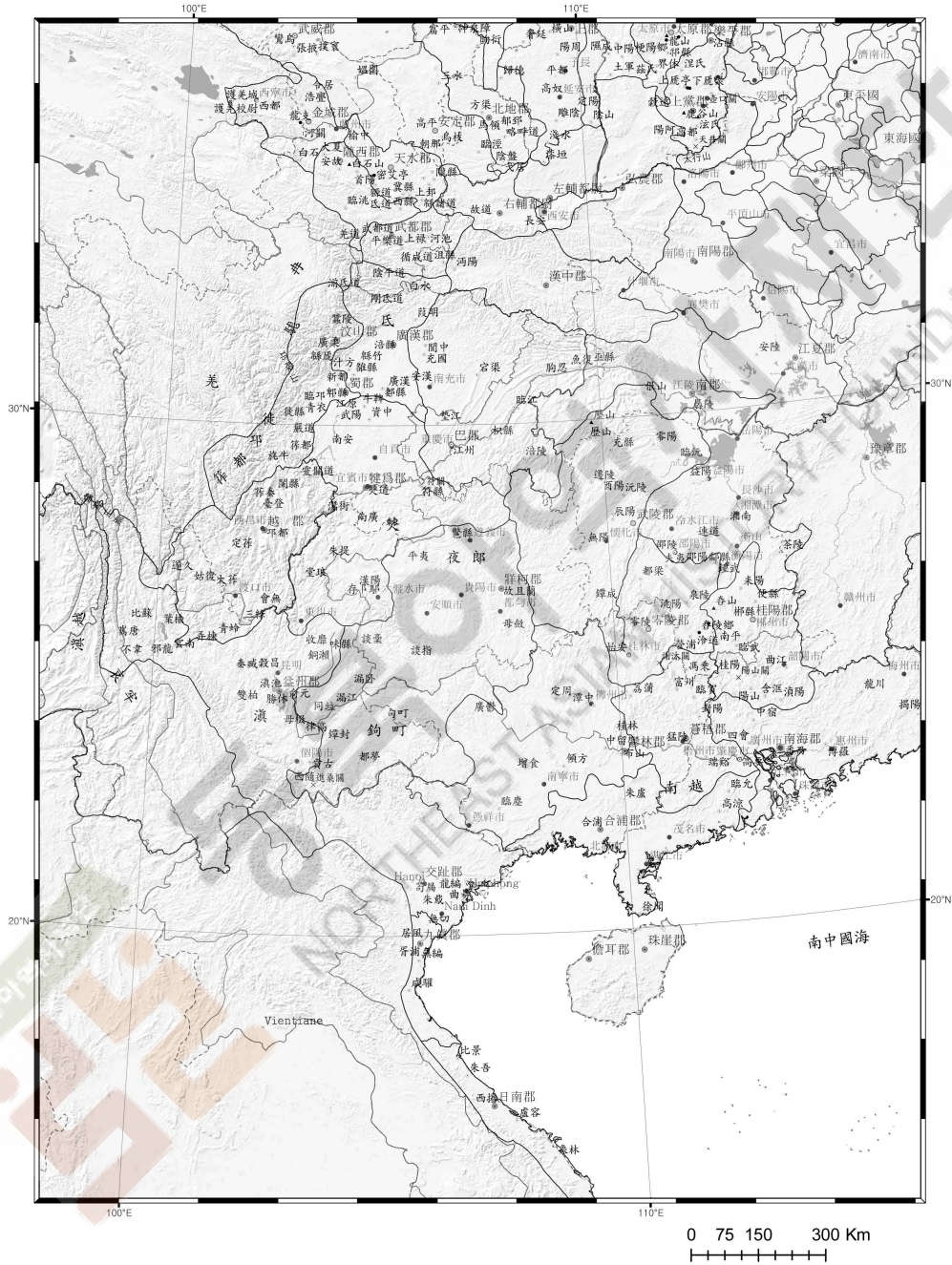


전한 시기 서역도호부도





전한 시기 서남지역도



❖ 색 인 ❖

【ㄱ】

- 가외(賈誼) 205, 248, 307, 320, 339
- 각저(角抵) 34, 36
- 각호군(卻胡君) 434
- 각호도위(卻胡都尉) 434
- 각호후(卻胡侯) 367, 446
- 갈사새(葛邪塞) 238
- 감씨성(監氏城) 394
- 감연수(甘延壽) 172, 181, 184, 185, 355, 397, 408, 425
- 감천(甘泉) 54, 95, 101, 176, 206
- 감천궁(甘泉宮) 54, 55, 58, 95, 175, 206, 364
- 강(羌) 32, 67, 68, 126, 154, 189, 413, 485
- 강거(康居) 85, 115, 127, 131, 136, 165, 172, 183, 185, 212, 217, 352, 353, 358, 363, 370, 371, 373, 375, 392, 396, 397, 398, 399, 400, 401, 405, 406, 408, 409, 427, 428, 430, 442, 443, 467, 471
- 강도왕(江都王) 127, 413
- 강빈(絳賓) 416, 434, 444
- 갓옷[裘] 40
- 개릉후(開陵侯) 143, 346, 438, 453, 483
- 개화왕(介和王) 143, 438, 453
- 거기도위(車騎都尉) 175, 177, 181
- 거기장군(車騎將軍) 96, 101, 106, 107, 111, 113, 190, 191, 422
- 거려(車廬) 34
- 거려창(居廬倉) 423, 424
- 거룩(渠勒) 377, 378
- 거리(渠犁) 32, 39, 361, 362, 363, 364, 365, 366, 375, 376, 380, 381, 385, 391, 392, 394, 397, 407, 422, 434, 435, 436, 437, 442, 454, 455, 456, 457, 458, 459, 471, 484
- 거리선우(車犁單于) 169, 170, 171, 484
- 거사(車師) 143, 155, 162, 173, 179, 210, 211, 215, 220, 222, 230, 231, 254, 352, 353, 358, 362, 363, 364, 367, 408, 417, 434, 438, 439, 447,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2, 464, 466, 471, 483, 484, 487
- 거사군(車師君) 451
- 거사성(車師城) 163, 456, 457
- 거사왕(車師王) 143, 162, 220, 362, 453, 454, 455, 456, 458, 461, 487
- 거사후 성장(車師後城長) 448, 452, 464
- 거상(鉅象) 469
- 거아약 제선우(車牙若鞮單于) 197, 486
- 거연(居延) 115, 135, 138, 319, 434
- 거용(居翁) 332
- 거유곡(車柳谷) 450
- 거차(居次) 159, 193, 239, 418
- 거호래왕(去胡來王) 220, 221, 365, 460, 461
- 건당(乾當) 447
- 건덕(建德) 325, 326, 329, 330
- 건도성(鞬都城) 378
- 건성후(建成侯) 96, 345, 346
- 검중(黔中) 279
- 겁국(劫國) 447, 450
- 계양(揭陽) 332, 342
- 격거사군(擊車師君) 367, 446
- 격거사도위(擊車師都尉) 367, 434
- 격곤(鬲昆/隔昆) 179, 184, 485

격호도위(擊胡都尉) 445, 446
 격호좌우군(擊胡左右君) 446
 격호후(擊胡侯) 406, 434, 445, 452
 견곤(堅昆) 60, 64, 73, 74, 85, 86, 88, 169, 179, 180
 견부(甄阜) 221, 223, 226, 463
 견수도위(堅守都尉) 430
 견용(犬戎/吠戎) 42, 43, 44, 46, 50
 견이씨(畎夷氏) 30, 32, 43, 44, 45, 46, 50, 51
 결제(駃騠) 35
 결휴도위(決眭都尉) 145
 경로도(徑路刀) 39, 147, 182
 경수(涇水) 43, 44, 46, 50, 176, 359
 경시제(更始帝) 226, 245, 246, 488
 경양(涇陽) 234, 235
 경장기병(輕裝騎兵) 39, 118
 경형(黥刑) 320, 321
 계도(季都) 423
 계두(桂蠹) 313
 계록새(雞鹿塞) 177
 계류곤(稽留昆) 200, 218
 계림(桂林) 203, 260, 298, 347, 348
 계빈(鬪賓) 351, 379, 383, 385, 386, 387, 388, 390, 391, 392, 394, 467, 486
 계성(鬪城) 400
 계양(桂陽) 319, 326, 327
 계왕(鬪王) 400
 계질산(雞秩山) 158, 211
 계포(季布) 81, 205, 248
 계후산(稽侯獬) 165, 166
 고공단보(古公亶父) 42
 고구(姑句) 220, 221, 459, 460, 461, 462
 고궐(高闕) 55, 56, 107, 111
 고노(高奴) 82
 고막닉(姑莫匿) 428
 고무루두(姑瞀樓頭) 171
 고묵(姑墨) 353, 377, 378, 379, 407, 428, 432, 433, 434, 466
 고부(高附) 395
 고사(姑師) 143, 242, 275, 311, 362, 368, 369, 451, 453
 고연산(姑衍山) 119, 120, 209
 고유(固乳) 40, 55, 227, 408
 고익(姑翼) 442, 443, 444
 고자취(股紫陘) 460
 고제(股鞮) 76, 77, 78, 301, 317, 336, 462
 고증(姑繒) 213, 288, 289, 290
 고차수(姑且水) 142
 고창벽(高昌壁) 143, 221, 460, 460
 고후(高后) 78, 79, 80, 81, 83, 136, 205, 206, 248, 250, 251, 303, 304, 306, 308, 311, 312, 321, 435
 곡길(谷吉) 172, 181, 182, 183, 194
 곡영(谷永) 194, 195
 곤명(昆明) 278, 285, 286, 482
 곤명지(昆明池) 206, 328, 420, 469
 곤미(昆彌) 156, 157, 179, 211, 407, 416, 417, 418, 419, 420, 421,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79, 484, 485, 486, 487
 곤이(昆夷) 32, 43
 골도후(骨都侯) 66, 68, 228, 232, 239, 243
 골풀[葭葦] 368
 공곡왕(邛穀王) 296
 공도(邛都) 277, 287
 공손오(公孫敖) 51, 106, 107, 112, 115, 131, 138, 139, 177
 공손하(公孫賀) 51, 105, 106, 107, 112, 121, 123

공손홍(公孫弘) 248, 249, 284, 481
 공승음(公乘音) 201, 431
 공작(孔爵) 313, 386
 공작(孔雀) 314, 386
 과선장군(戈船將軍) 327, 332, 344
 괘거병(霍去病) 102, 107, 108, 114, 121, 153,
 174, 208, 209, 215, 319, 360, 372, 410, 481,
 481, 481
 괘광(霍光) 153, 154, 155, 156, 177, 208, 212,
 222, 255, 372, 373, 443, 444
 괘순(郭舜) 397
 괘창(郭昌) 129, 286, 437
 괘흠(郭欽) 459, 466
 관대(冠帶) 57, 301, 470
 관도위(關都尉) 387
 관시(關市) 102, 106, 107, 146, 251, 303
 관영(灌嬰) 82, 83, 94, 248, 422
 광덕(廣德) 326
 광록새(光祿塞) 177
 광무성(廣武城) 77, 251
 광신공(廣新公) 462
 광왕(狂王) 421
 교위(校尉) 107, 118, 129, 139, 157, 211, 231,
 242, 245, 286, 324, 325, 330, 364, 418, 425,
 428, 439, 443, 456, 457, 463
 교위장군(校尉將軍) 442, 457
 교지(交趾/交趾) 332, 347, 489
 교하(交河) 362, 451
 구고(句姑) 220, 222, 223
 구군(九郡) 163, 333, 468
 구류사후(胸留斯侯) 197
 구복(九服) 44
 구산(句山) 144
 구우리수(胸于利受) 174
 구원(九原) 58, 123
 구자(龜茲) 377, 432, 434, 435, 442, 443, 444,
 454, 466, 489
 구장(句章) 281, 344
 구장(枸醬) 281, 468
 구정왕(鉤町王) 291, 292, 294, 296, 487
 구진(九真) 332, 333
 구탈(甌脫) 63, 151, 161, 181
 군수미(軍須靡) 415, 416, 423, 479, 482
 군숙(軍宿) 362, 454, 458
 군신선우(軍臣單于) 93, 100, 103, 110, 207, 480
 군정(軍正) 213, 290, 370
 군후(軍候) 387, 439
 굴석(屈射) 64, 73, 74, 86, 88
 궁려(穹廬) 34, 36, 93, 200, 227, 229, 414
 궁형(宮刑) 138, 321, 371
 귀덕후(歸德侯) 165, 226, 245, 363, 454
 귀산성(貴山城) 401
 귀상(貴霜) 184, 395, 401
 귀의거사군(歸義車師君) 446
 귀의후(歸義侯) 327, 431
 귀한도위(歸漢都尉) 451
 규수(媯水) 127, 393, 394
 규악(摎樂/樛樂) 325, 326
 극문(棘門) 101, 206, 215
 금마(金馬) 401
 금부(金附) 455
 금성(金城) 120, 144, 356, 357, 427
 기가사마(騎假司馬) 436
 기교(己校) 427, 428, 432
 기군(騎君) 377, 378, 379, 404, 406, 408, 432
 기도위(騎都尉) 138, 171, 184, 218, 226, 241,
 397, 408, 461
 기련산(祁連山) 115

기문(期門) 177, 184, 397, 425
 기미(羈縻/羈靡) 27, 151, 176, 211, 247, 258,
 399, 409, 471
 기산(岐山) 42, 50, 95
 기장(騎將) 157, 159, 341, 418

【L】

낙(駱) 304, 305
 낙수(諾水) 182
 낙수(洛水) 44, 49
 낙읍(雒邑/洛邑) 43, 47, 48, 49
 낙타(駱駝) 33, 35, 40, 86, 159, 184, 368, 393,
 398, 418, 439
 난두(難兜) 380, 383, 403
 난서(難栖) 429, 430
 난씨(蘭氏) 66
 난지(難氏) 84
 날루성(埽婁城) 463
 남군(南郡) 221, 309
 남도(南道) 215, 353, 356, 358, 359, 362, 392,
 398, 405, 456
 남산(南山) 356, 357, 358, 394
 남성(南城) 327, 432
 남월(南粵/南越) 102, 122, 123, 205, 206, 276,
 280, 281, 285, 286, 287,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7, 309, 311, 312, 313,
 315, 316, 319, 320, 322, 324, 325, 326, 327,
 329, 330, 332, 340, 341, 342, 347, 482
 남월 명왕(南粵明王/南越明王) 316, 317, 318,
 319
 남월 무제(南粵武帝/南越武帝) 122, 275, 27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6,
 307, 308, 311, 312, 313, 315, 317, 321, 347,

479, 311, 333
 남월 문왕(南粵文王/南越文王) 32, 53, 56, 284,
 315, 316, 317, 479
 남이도(南夷道) 283, 284, 481
 남장군(南將軍) 231, 459, 460, 464
 남해(南海) 122, 298, 299, 303, 321, 332, 471
 낭거서산(狼居胥山) 119, 208
 내돌곡(內咄谷) 448
 내사(內史) 104, 312, 320, 327
 내제후(內諸侯) 318, 320
 노경(盧卿) 95
 노관(盧綰) 79, 80
 노박덕(路博德) 134, 135, 138, 139, 326
 노산(盧山) 210
 노상선우(老上單于) 89, 100, 127, 182, 251, 394,
 480
 노새 35, 159, 419, 444
 노성(盧城) 383
 노심(勞深) 287, 288
 노혼(盧渾) 240
 녹리왕(谷蠡王) 65, 66, 68, 110, 119, 140, 148,
 149, 151, 152, 159, 167, 168, 170, 171, 193,
 240, 418, 461
 농산(隴山) 50, 55
 농서(隴西) 55, 68, 78, 96, 108, 109, 114, 115,
 116, 117, 138, 154, 171, 175, 213
 녀단(賴丹) 442, 443, 457
 누란(樓蘭) 85, 356, 358,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438, 453, 483
 누번(樓煩) 51, 55, 60, 63, 77, 79
 누선장군(樓船將軍) 315, 327, 327, 329, 330,
 333, 342, 343, 345
 누와후(漏臥侯) 292, 294
 니미(泥靡) 416, 421, 422, 423, 479

【ㄷ】

- 다군(多軍) 346
단거곡(丹渠谷) 450
단도(丹徒) 337
단여오수(丹余吾水) 158, 159
단환(單桓) 446, 447, 448
단회종(段會宗) 185, 408, 427, 428, 429, 430, 432, 461, 486
단흠(但欽) 221, 230, 231, 460, 461, 463, 465, 466, 487
담이(儋耳) 332
담지(談指) 213, 288, 289
당나귀 159
당두(唐兜) 220, 221, 222, 223, 460, 461, 462
당몽(唐蒙) 280, 281, 282, 480
당우거차(當于居次) 193, 239, 418
당호(當戶) 66, 68, 96, 169, 171, 177, 467
대(代) 53, 54, 55, 56, 64, 81, 307
대감(大監) 408, 426, 430
대급(戴級) 231, 232
대당호(大當戶) 65, 66, 132, 169, 201, 228, 360, 430
대도위(大都尉) 65, 132, 133, 136, 144, 148
대도위승(大都尉丞) 434
대두통(大頭痛) 353, 389
대락(大樂) 413, 416, 417
대려(大荔) 51
대록(大祿) 407, 408, 411, 415, 416, 426, 430, 467
대록강(大祿疆) 408, 411, 479
대리(大吏) 218, 408, 426, 430
대림(躡林) 70
대모(瑇瑁) 468, 469
대완(大宛) 131, 135, 136, 212, 298, 352, 358, 360, 368, 369, 394, 401, 402, 404, 405, 406, 409, 412, 442, 468, 482
대월지(大月氏) 59, 85, 102, 115, 126, 127, 131, 165, 182, 184, 352, 353, 358, 383, 385, 392, 393, 394, 395, 397, 401, 403, 406, 409, 410, 467, 481
대인(大人) 174
대작(大雀) 469
대장(大將) 59, 65, 66, 140, 141, 142, 143, 145, 146, 161, 163, 170, 174, 311, 408, 413, 416, 424, 427, 457
대장군(大將軍) 81, 96, 104, 107, 108, 109, 111, 112, 114, 117, 121, 129, 134, 139, 148, 153, 154, 161, 194, 195, 208, 212, 218, 226, 286, 292, 294, 344, 372, 387, 422, 427, 443, 444, 463, 470
대저거(大且渠) 161, 164, 167, 168, 171, 172, 229, 243, 244
대조(大鳥) 391, 393
대택(大澤) 399
대하(大夏) 126, 127, 131, 157, 284, 385, 394, 410, 413, 481, 482
대행(大行) 104, 280, 300, 340, 341
도계(都稽) 330, 331
도괴(桃槐) 403
도기선우(屠耆單于) 66, 165, 168, 169, 170, 171, 178, 179, 372, 397, 478, 484
도도(騶騶) 35, 36
도도오서(都塗吾西) 168
도로(都盧) 470
도료장군(度遼將軍) 154, 156, 158, 454
도룡기(都隆奇) 164, 168, 169, 171
도리호차(都犁胡次) 163

도민군(道民君) 452
 도위(都尉) 68, 95, 96, 104, 108, 112, 141, 149,
 170, 199, 232, 241, 245, 283, 284, 292, 293,
 295, 298, 367, 374, 376, 377, 379, 382, 405,
 406, 408, 420, 432, 437, 447, 450, 451, 467,
 481
 도호(都護) 179, 184, 211, 215, 221, 230, 352,
 355, 356, 363, 364, 367,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5, 391, 392,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3, 404,
 405, 406, 407, 408, 412, 422, 424, 425, 426,
 427, 428, 429, 431, 432, 433, 434, 445, 446,
 447, 449, 450, 451, 452, 454, 460, 463, 464,
 465, 471, 486, 487, 488, 489
 둔황(敦煌/燉煌) 127, 130, 143, 182, 185, 187,
 208, 356, 360, 394, 398, 410, 420, 421, 423,
 425, 427, 428, 459, 460, 465, 466
 동구(東甌) 122, 276, 304, 316, 335, 336, 337,
 338, 339, 347
 동구왕(東甌王) 336, 339
 동락(重酪/漣酪) 90
 동반(同並) 132, 213, 289
 동복도위(僮僕都尉) 215, 359, 363, 483, 484
 동사(桐師/同師) 278, 281
 동산(東山) 182
 동성후(東成侯) 346
 동월(東粵/東越) 102, 122, 134, 139, 213, 249,
 276, 280, 310, 315, 331, 334, 342, 343, 344,
 345, 346, 347
 동중서(董仲舒) 28, 248, 249, 252, 253, 256, 307,
 339
 동차미후(東且彌侯) 449
 동충(董忠) 177
 동해(東海) 334, 335, 419

동해왕 요(東海王搖) 334, 335, 336, 341
 동혁(董赤) 96, 251
 동호(東胡) 47, 51, 52, 53, 56, 57, 59, 60, 62,
 63, 67, 75, 80, 88, 153, 212, 480
 두란(頭蘭) 286
 두막(兜莫) 162, 362, 456, 460
 두만선우(頭曼單于) 59, 60, 61, 62, 64, 478
 두함산(兜銜山) 142
 두흠(杜欽) 194, 195, 292, 294, 380, 387, 390,
 470
 둔전교위(屯田校尉) 184, 231, 363
 등(登) 231, 232, 237, 238, 241

【口】

마유주(馬乳酒) 40
 마읍(馬邑) 75, 103, 104, 105, 106, 107, 108,
 109, 206, 207, 215, 249, 280, 340, 481
 마통(馬通) 141, 143, 440, 441, 453
 막북(幕北) 124, 188
 만궁(彎弓) 37
 만기(萬騎) 66, 171, 411
 만년(萬年) 48, 201, 207, 295, 405, 416, 417
 만연(漫衍) 470
 만이(蠻夷) 154, 177, 213, 238, 241, 246, 247,
 278, 279, 280, 289, 290, 292, 294, 295, 296,
 304, 311, 312, 340, 388, 390, 419
 말진장(末振將) 428, 429, 430, 479
 망통(莽通) 141
 매령(梅嶺) 315, 342, 343, 344
 매채(昧蔡) 401, 482
 맹견(猛犬) 469
 면저(縣諸) 50, 51
 명왕(名王) 157, 159, 209, 211, 216, 318, 325

명적(鳴鑼) 61, 68, 118, 218, 246
 명주(明珠) 468
 모우(髦牛) 280
 모전(毛氈) 213
 목숙(目宿/苜蓿) 386, 401, 402
 몽염(蒙恬) 58, 59, 61, 63, 68, 109, 116, 203, 204, 215
 묘석후(卯石侯) 346
 무(戊) 337, 416
 무과(毋寡) 136, 401, 482
 무기교위(戊己校尉) 143, 184, 215, 220, 230, 231, 241, 362, 364, 397, 428, 432, 456, 457, 458, 459, 460, 463, 464, 466, 485
 무도(武都) 63, 67, 468
 무도곡(務塗谷) 452
 무뢰(無雷) 381, 382, 383
 무림(武林) 343, 344, 345
 무석후(無錫侯) 346
 무소뿔[犀角] 313, 469
 무위(武威) 124, 133, 208, 211, 235, 360, 457
 무제(無諸) 27, 102, 122, 134, 148, 187, 207, 235, 249, 253, 254, 286, 308, 315, 317, 334, 335, 336, 338, 340, 344, 356, 368, 369, 372, 386, 393, 401, 410, 413, 418, 425, 435, 438, 453, 467, 470, 480, 482, 483
 무주(武州) 104
 목특선우(冒頓單于) 52, 60, 61, 62, 63, 64, 68, 73, 74, 75, 76, 77, 78, 79, 80, 81, 84, 85, 89, 89, 100, 118, 127, 128, 147, 153, 169, 182, 187, 205, 212, 251, 356, 394, 480
 문갑(文甲) 468, 469
 문충(文忠) 387
 물소[犀牛] 391
 물소[水牛] 305, 386

미막(靡莫) 277, 287, 288
 민월(閩粵/閩越) 102, 122, 249, 276, 299, 304, 305, 312, 315, 316, 334, 335, 337, 338, 339, 340, 341, 343, 347
 민월왕(閩粵王/閩越王) 122, 315, 316, 334, 336, 340
 민중(閩中) 180, 219, 334, 335, 336

【바】

박도(撲挑) 391
 박망후(博望侯) 108, 115, 284
 박모성(薄茅城) 395
 박양후(博陽侯) 308, 309
 반석(盤石) 389
 방(驤) 68, 278
 백등산(白登) 75, 76, 77, 78, 205
 백룡퇴(白龍堆) 215, 220, 358, 359, 366, 371, 423, 459, 470, 471
 백마(白馬) 68, 76, 182, 278, 287
 백사(白沙) 343, 344
 백양(白羊) 60, 63
 백월(百粵/百越) 203, 299, 302
 백장(百長) 68, 467
 백적(白翟/白狄) 49, 50
 백창(帛敞) 221, 226, 461, 463
 백초(白草) 368, 380
 버드나무[檉柳] 36, 200, 368, 440
 버새 35
 번거류곡(番渠類谷) 447
 번구(番丘) 429
 번두성(番兜城) 392
 번우(番禺) 102, 281, 298, 299, 328, 329, 342
 번쾌(樊噲) 79, 81, 205, 215, 248

범명우(范明友) 154, 155, 156, 211, 212, 213, 454
 범부인성(范夫人城) 145
 범읍(汎邑) 48
 벽유리(壁流離) 386
 변발(辮髮) 88, 278
 보국왕(輔國王) 401
 보국후(輔國侯) 367, 375, 376, 377, 378, 404, 406, 432, 433, 434, 446, 447, 448, 449, 450, 451, 463
 보마(寶馬) 401
 복령(服領) 309
 북암(伏黯) 242, 243
 북주류약제선우(復株鞮若鞮單于) 193, 196, 485, 486
 북파장군(伏波將軍) 122, 135, 213, 319, 326, 329, 330, 333
 부개자(傅介子) 372, 373
 부교위(副校尉) 184, 198, 201, 221, 223, 231, 355, 397, 431, 461
 부리(拊離) 427, 428, 479
 부묵(附墨) 399
 부민후(富民侯) 442
 부산(黼山) 440
 부시(膚施) 64
 부양(夫羊) 144
 부왕(副王) 157, 401
 부인(夫人) 61, 127, 137, 145, 205, 210, 218, 303, 373, 393, 410, 412, 413, 416, 418, 419, 422, 423, 424, 444
 부저정(浮苴井) 123
 부후(副侯) 422
 북가(北假) 59
 북도(北道) 143, 215, 282, 353, 356, 358, 362, 363, 396, 402, 405
 북도(犛道) 282, 358, 362, 363
 북동(犛僮) 280
 북만(北蠻) 32
 북산(北山) 358
 북서건(北胥鞬) 363
 북이(北夷) 64
 북지(北地) 55, 94, 95, 96, 101, 108, 115, 116, 117, 123, 125, 144, 202, 373, 397, 402
 북해(北海) 36, 124, 124, 399
 분명(犇命/奔命) 289, 290
 분지(分地) 36, 68, 84, 143, 209, 362
 비륙(卑陸) 447, 448
 비서야군(備西夜君) 404
 비소왕(裨小王) 68, 112, 113, 115
 비원치흠후(卑援寔翁侯) 200, 201, 430, 431
 비제후(卑鞬侯) 423
 비품성(卑品城) 376
 비호구(飛狐口) 101

【人】
 사(徙) 278
 사마상여(司馬相如) 201, 282, 283, 313
 사마승(司馬丞) 230, 231, 464
 사마희(司馬憲) 454, 456
 사자(師子/獅子) 41, 62, 63, 78, 81, 84, 86, 87, 92, 93, 94, 104, 121, 124, 125, 128, 129, 130, 146, 147, 149, 155, 158, 161, 172, 176, 183, 196, 199, 216, 222, 242, 285, 286, 287, 288, 292, 304, 318, 319, 322, 323, 324, 325, 330, 338, 342, 361, 362, 386, 391, 392, 423, 469
 사자교위(使者校尉) 356, 361, 442
 사정(史定) 250, 331, 332

사중대리(舍中大吏) 408
 사차(莎車) 353, 358, 363, 367, 371, 379, 381,
 382, 404, 405, 406, 471, 484, 488
 삭방(朔方) 45, 46, 109, 111, 120, 122, 124, 129,
 133, 135, 139, 144, 163, 177, 286, 300
 산국(山國) 367, 445, 450, 451
 산북(山北) 143, 362, 448
 산융(山戎) 31, 32, 47, 48, 51
 산주후(山州侯) 343, 344
 산호(珊瑚) 386
 삼교(三校) 425
 삼지(三池) 389
 상곡(上谷) 56, 66, 80, 107, 109, 113, 141, 153,
 163, 187
 상군(象郡) 298, 301
 상군(上郡) 50, 54, 55, 67, 82, 96, 100, 102, 111,
 117, 122, 144, 204, 206, 231, 251, 347
 상귀(嘗歸) 373
 상림원(上林苑) 216, 217, 289, 373, 420, 469
 상봉(相封) 68
 상부(相夫) 420, 421
 상성후(湘城侯) 332
 상 주왕(商紂王) 43
 상파(嘗破) 279
 상혜(常惠) 156, 159, 210, 211, 418, 419, 420,
 421, 425, 443, 444, 457
 색왕(塞王) 385, 409
 생취(生翠) 313, 314
 서강(西羌) 188, 189, 213
 서구(西瓠) 30, 180, 299, 304, 305, 312, 347,
 353
 서보(徐普) 220, 221, 459, 460
 서성(西城) 378
 서야(西夜) 381, 382, 405
 서역태백(西域太伯) 462
 서왕모(西王母) 391
 서우왕(西于王) 346, 347
 서융(西戎) 42, 43, 50, 51, 52, 107, 235, 471
 서이도(西夷道) 283, 284, 481
 서하(西河) 49, 122, 135, 138, 141, 144, 156,
 204, 206, 208, 211, 319, 440
 석문(石門) 329
 석성(石城) 454, 455
 선봉(蟬封) 325, 329, 333, 401, 482
 선선(鄯善) 353, 358, 359, 362, 366, 367, 373,
 374, 375, 377, 392, 405, 433, 445, 451, 456,
 466, 471, 483, 488, 489
 선선도위(鄯善都尉) 367
 선우(單于) 59, 60, 61, 62, 63, 65, 66, 68, 69,
 70, 71, 74, 77, 78, 79, 81, 84, 86, 87, 88, 89,
 90, 91, 93, 94, 96, 97, 98, 99, 100, 103, 104,
 105, 110, 113, 116, 117, 118, 119,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7, 159,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4, 175, 176, 177, 178, 182, 183,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6,
 197, 199, 200, 201, 202, 207, 208, 211, 214,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1, 232,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8, 250, 251, 253,
 254, 255, 256, 359, 362, 364, 370, 398, 402,
 403, 408, 410, 413, 418, 430, 431, 441, 456,
 461, 462, 463, 464, 465, 467, 482, 483
 선우정(單于庭) 65, 67, 68, 69, 70, 107, 114,
 120, 148, 149, 164, 167, 168, 171, 172, 175,
 179, 191, 231, 485

선태후(宣太后) 54
 선현탄(先賢掇) 141, 165, 166, 169, 211, 359, 363, 364, 454
 섭일(聶壹) 103, 104, 207
 성도위(城都尉) 434, 435
 성미(星靡) 424, 426, 427, 479
 성안후(成安侯) 152, 324, 326
 성양왕(城陽王) 346
 성장(城長) 378, 467
 성충(成忠) 439
 세군(細君) 210, 413, 414, 415
 세류(細柳) 101, 206, 215
 세심수(細沈瘦) 422
 소건(蘇建) 112, 113, 137
 소관(蕭關) 94, 95, 108
 소광(素光) 416, 417
 소도호(蘇屠胡) 240
 소두통(小頭痛) 353, 389
 소류곡(疏榆谷) 448
 소륙(疏勒) 353, 358, 382, 386, 404, 405, 406
 소망지(蕭望之) 169, 176, 255, 256, 419, 421, 484
 소무(蘇武) 113, 137, 138, 150, 156, 157, 418
 소부(少夫) 416
 소유(蘇猶) 455
 소포류(小蒲類) 455
 소혜(蘇龔) 399
 소홍(蘇弘) 330, 331
 속국(屬國) 121, 144, 145, 152, 188, 202, 208, 241, 369, 426, 439
 손건(孫建) 431
 손양(孫印) 90, 95
 쇠녀 38, 81
 수(嵩/嵩) 278
 수계혼(收繼婚) 41, 371, 415, 416
 수도후(隋桃侯) 331
 수루거당(銖婁渠堂) 174
 수복거차(須卜居次) 193, 219, 239, 418
 수복당(須卜當) 239, 243, 244, 488
 수복씨(須卜氏) 41, 66, 193
 수치리(須置離) 230, 462, 463, 487
 수항성(受降城) 107, 131, 132, 133, 151, 177
 수해약제선우(搜諧若鞮單于) 196, 197, 486
 순북장군(徇北將軍) 345
 순사(殉死) 72
 순선성(循鮮城) 385
 순유(淳維) 29, 31, 64
 술양후(術陽侯) 325
 스키타이 34, 38, 39, 157
 승덕(承德) 444
 시니지(尸泥支) 462
 신도(新道) 299, 459
 신도후(新都侯) 218, 461
 신독도(身毒國) 127, 285
 신리(新犁/薪犁) 64, 73, 74, 88
 신망(薪望) 86, 321
 신무현(辛武賢) 423
 신열(身熱) 353, 389, 470
 신진중(新秦中) 46, 58, 60, 63, 64, 82, 94, 107, 109, 111, 116, 248, 253, 480
 신후(申侯) 43, 46, 47
 신흥노선우장(新匈奴單于章) 226, 227, 463, 464, 487
 심협(尋陝/尋陝) 329
 십장(十長) 68
 쌍미(雙靡) 395
 씨름 34, 36, 420, 470

【ㅇ】

- 아키나케스단검 39
 악도노(惡都奴) 222, 462
 악봉(樂奉) 444
 악사(惡師) 155, 417, 444
 악연구제선우(掇衍胸鞮單于) 164, 165, 166, 167, 168, 478, 484
 안거(偃渠) 143
 안국소계(安國少季) 318, 319
 안국후(安國侯) 434, 451
 안도후(按道侯) 134, 139, 332, 344, 346
 안리미(安犁靡) 429, 430, 479
 안문(雁門) 53, 102, 104, 105, 163
 안문산(雁門山) 53, 54, 75, 101, 232
 안세후(安世侯) 445
 안식(安息) 85, 351, 353, 358, 391, 392, 393, 394, 395, 401, 402, 467, 468
 안원후(安遠侯) 363
 안일(安日) 427, 428, 429, 479
 안후(安侯) 142
 알형(軋刑) 70, 71
 야(治) 336
 야강(婁羌) 220, 365, 366, 368, 376, 377, 378, 383
 야랑(夜郎) 102, 277, 281, 282, 287, 288, 328, 388
 약수(弱水) 135, 391
 약제(若鞮) 193, 243
 약호흡후(若呼翁侯) 416
 양(羊) 67, 68, 418
 양관(陽關) 220, 351, 355, 356, 357, 358, 360, 363, 365, 366, 380, 392, 395, 399, 400
 양복(楊僕) 122, 213, 315, 326, 327, 342, 344
 양산(梁山) 304
 양산(陽山) 59, 300
 양산관(陽山關) 300
 양웅(揚雄) 27, 201, 211, 216, 355, 470, 470
 양월(兩粵/兩越) 122, 123, 213, 297, 315
 양월(揚粵/楊越) 298
 양평(襄平) 56, 57
 어도구탄왕(於涂仇揮王) 197, 200
 어룡(魚龍) 470
 어목(魚目) 469
 어숙치지후(於粟置支侯) 237, 240
 어아후(語兒侯/禦兒侯) 345
 어양(漁陽) 104, 108, 153, 163
 언기(焉耆) 359, 445, 450, 451, 454, 458, 466
 언병목계려후(言兵鹿奚盧侯) 163
 엄우(嚴尤) 28, 234, 237, 257
 엄조(嚴助) 276, 316, 338, 339
 엄채(奄蔡) 165, 353, 358, 399, 446
 여가(呂嘉) 122, 213, 244, 286,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9, 330, 331, 342, 482
 여구산(廬胥山) 134
 여도왕(盧屠王) 149
 여벽호(呂辟胡) 290
 여사(如邪) 344
 여산(驪山) 46
 여오수(余吾水) 107, 139, 139, 142
 여후(呂后) 78, 79, 83, 83, 205, 206, 248
 역장(譯長) 367, 375, 376, 377, 378, 379, 405, 432, 433, 43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67
 연(燕) 47, 48, 51, 52, 56, 57, 61, 75, 101, 109, 204, 226, 228, 249, 440
 연독(捐毒) 383, 386, 403, 404

연둔곡(衍敦谷) 403, 404
 연연산(燕然山) 145, 146
 연유(煉乳) 40, 116
 연제씨(攀鞬氏) 65, 66, 69
 연지(關氏) 60, 61, 77, 78, 159, 161, 166, 168, 192, 192, 193, 198, 205, 239
 연지산(焉支山) 114, 174
 염(冉/丹) 68, 278
 염난장군(厭難將軍) 237
 염두(廉頭) 288, 289
 염택(鹽澤) 357, 358, 360, 366, 371, 378
 염포(廉褒) 428
 염교미(獵驕靡) 415, 416, 479, 482
 염유(葉榆/楨榆) 213, 278, 290
 영거(令居) 120, 123, 360
 영릉(零陵) 327, 328
 영미(寧彌) 377, 378
 영양[桃拔] 391, 392
 영오수(零吾水) 231
 예맥(穢貊) 53, 66, 67, 126
 예장(豫章) 281, 282, 315, 327, 340, 342, 343
 오귀(烏貴) 454, 458
 오도노(惡都奴) 222, 462
 오두로(烏頭勞) 386, 387
 오려굴(烏厲屈) 171
 오려온돈(烏厲溫敦) 171
 오루(烏壘) 365, 434
 오루약제선우(烏累若鞬單于) 226, 231, 239, 256, 465, 487
 오복(五服) 44, 257, 389, 390
 오분도위(烏賁都尉) 464
 오선(五船) 220, 459
 오선막(烏禪幕) 165, 166
 오손(烏孫) 45, 84, 85, 88, 115, 126, 127, 131, 149, 155, 156, 157, 158, 159, 160, 162, 165, 172, 173, 179, 180, 184, 185, 200, 201, 210, 211, 223, 351, 355, 356, 359, 363, 369, 371, 383, 396, 397, 398,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6, 443, 444, 446, 447, 454, 456, 458, 471, 481
 오양(吳陽) 345, 346
 오예(吳芮) 279, 295, 296, 302, 303, 335, 336
 오원(烏員) 158
 오원(五原) 58, 107, 122, 134, 139, 141, 144, 145, 153, 158, 163, 211, 344, 440
 오원새(五原塞) 134, 175, 177
 오위장(五威將) 223, 226, 227, 228, 229, 233, 238, 242, 463, 465, 466
 오유선우(烏維單于) 122, 123, 130, 134, 164, 482
 오이당(烏夷當) 197
 오이령(烏夷冷) 201, 430
 오익(烏弋) 391, 392
 오익산리(烏弋山離) 351, 353, 379, 385, 390, 391, 392, 467
 오일령(烏日領) 429, 431
 오자(烏藉) 478
 오자선우(烏藉單于) 169, 478, 484
 오제아사(烏鞬牙斯) 198
 오주류약제선우(烏珠留若鞬單于) 197, 222, 465, 486, 487
 오지(烏氏) 51
 오척도(五尺道) 279
 오취도(烏就屠) 179, 423, 424, 425, 427, 479
 오타(烏秬) 381, 383
 오타자리(烏貪訶離) 364, 446

오환(烏桓/烏丸) 27, 52, 63, 153, 154, 155, 160, 166, 212, 213, 219, 223, 224, 225, 228, 229, 242, 483, 487, 488
 옥문(玉門) 355, 356, 357, 358, 369, 392, 439, 466
 온숙(溫宿) 433
 온우도왕(溫偶駱王) 199, 200
 옹귀미(翁歸靡) 413, 415, 416, 421, 423, 429, 432, 444, 479
 옹주(雍州) 79, 89, 95, 127, 128, 206, 300, 390, 433
 왕근(王根) 195, 198, 199, 229
 왕림(王颯) 226, 241, 245, 463
 왕망(王莽) 218, 223, 224, 226, 231, 232, 233, 234, 237, 238, 239, 241, 242, 243, 244, 245, 255, 275, 296, 432, 461, 462, 464, 465, 466, 487, 488
 왕맹(王萌) 222, 461
 왕봉(王鳳) 185, 194, 195, 218, 223, 292, 294, 387, 388, 390, 427, 470
 왕소군(王昭君) 166, 186, 187, 193, 219, 221, 239, 240, 241, 418, 485
 왕순(王舜) 196, 237
 왕순(王巡) 196, 237, 238
 왕심(王尋) 223
 왕연우(王然于) 285, 287
 왕온서(王溫舒) 344
 왕준 226, 227, 465, 466
 왕준(王駿) 195, 223, 226, 463, 466
 왕창(王昌) 221, 223, 461
 왕평(王平) 213, 290
 왕함(王咸) 242, 243
 왕황(王黃) 75, 77, 79
 왕희(王恢) 105, 106, 207, 248, 249, 280, 315, 340, 368, 369
 왕흠(王欽) 221, 240, 241, 242, 243, 244, 461
 외신(外臣) 171, 226, 227, 228, 281, 311, 461
 외월(外粵) 311, 312
 요(徼) 280
 요동(遼東) 53, 154, 187, 203, 213, 489
 요서(遼西) 47, 108, 153
 요영후(遼嬰侯) 346
 요후(遼侯) 332
 옥고(囑姑) 170
 용굴왕(容屈王) 387
 용문(龍文) 469
 용천(龍川) 298, 299, 300
 용후(隳侯) 326
 우고노왕(右股奴王) 198
 우고림왕(右皋林王) 194
 우곡후(右曲侯) 231, 464
 우니성(扞泥城) 85, 366
 우대곡(于大谷) 449
 우루곡(于婁谷) 446
 우미(扞彌) 353, 376, 377, 378, 434, 442
 우백(右伯) 462
 우북평(右北平) 57, 104, 108, 115, 135, 153, 207, 249
 우장(右將) 375, 376, 377, 378, 379, 404, 406, 432, 462
 우전(于闐) 353, 357, 377, 378, 379, 382, 405, 432, 471
 우치로아왕(右致盧兒王) 193
 옥견(奧鞬) 162, 400
 옥견왕(奧鞬王) 169, 400
 옥립사(郁立師) 447, 448
 운양(雲陽) 58, 95, 114, 122
 운중(雲中) 79, 101, 135, 156, 163, 211

울림(鬱林) 328, 332
 원거(員渠) 446
 원귀미(元貴靡) 416, 419, 421, 423, 424, 425, 426, 432, 479
 원숭이[沐猴] 380, 386, 409
 원종고(稜終古/輾終古) 331, 345
 월수(越嵩) 296, 468
 월연후(粵衍侯) 345
 월왕 구천(粵王句踐/越王句踐) 122, 334, 335
 월요왕(粵繇王/越繇王) 341
 월지(月氏) 34, 59, 60, 61, 63, 67, 75, 84, 85, 86, 87, 88, 89, 126, 127, 157, 165, 173, 182, 184, 394, 402, 412, 413, 467, 480
 위(衛) 48, 49
 위(魏) 49, 52, 53, 54, 57, 75
 위강(魏絳) 52, 53
 위교(渭橋) 177
 위도기(尉屠耆) 367, 372, 373, 374, 483
 위두(尉頭) 406, 433
 위리(尉犁) 359, 375, 422, 435, 438, 445, 451, 453, 456, 466
 위사마(衛司馬) 194, 362, 422, 456
 위속(魏遼) 95, 96
 위수(危須) 46, 101, 359, 438, 445, 451, 453, 466
 위수(渭水) 46, 101, 359, 451, 453, 466
 위신(魏臣) 242, 319
 위율(衛律) 144, 146, 147, 148, 150, 151
 위청(衛靑) 107, 109, 111, 208, 215
 위항(衛伉) 134
 위화의(魏和意) 422, 423
 위후(衛侯) 405
 유건(劉建) 127, 413
 유경(劉敬) 78, 79, 205, 248, 250
 유리(留犁) 182, 386
 유리당호(唯犁當戶) 169
 유목(遊牧) 32, 33, 34, 35, 36, 38, 53, 131, 132, 153, 173, 179, 259
 유수(劉遂) 488
 유여(由余) 50
 유익(竄匿) 399
 육가(陸賈) 301, 306, 307, 310, 314, 339
 육록임(陸遂任) 244
 육혼(陸渾) 49
 윤대(輪臺) 361, 436, 438, 441, 470
 응(戎) 52
 응려후(隆慮侯) 304, 308
 응로(戎盧) 367, 377, 378
 응적(戎狄/戎翟) 32, 42, 45, 48, 49, 53, 235, 238, 247, 255, 359
 은광덕(殷廣德) 458
 은수(園水) 49, 50
 음말부(陰未赴) 387, 388
 음산(陰山) 55, 56, 139, 174, 177, 187, 188, 203, 204, 253
 의거(義渠) 32, 51, 54, 59, 61, 72, 152, 217, 373
 의내(依耐) 381, 382
 의양후(義陽侯) 171, 373
 의형(剄刑) 321
 이광(李廣) 108, 112, 115, 138, 171, 186
 이광리(李廣利) 20, 26, 131, 135, 138, 139, 140, 141, 144, 154, 174, 212, 298, 360, 361, 369, 370, 401, 410, 412, 435, 439, 440, 441, 442, 482, 483
 이도지아사(伊屠智牙師) 192, 239
 이릉(李陵) 138, 142, 171, 483
 이리목선우(伊利目單于) 178
 이면(撈面) 72

이목(李牧) 57, 252
 이묵거차(伊墨居次) 239
 이사막연(伊邪莫演) 194, 195, 196
 이수(離水) 327, 328
 이순성(伊循城) 374, 424
 이숭(李崇) 465, 466
 이식(李息) 109
 이오(犁汗) 152
 이우도위(犁汗都尉) 418
 이지사선우(伊墀斜單于/伊稚斜單于) 110, 116,
 122, 481
 이질미(伊秩靡) 429, 431, 479
 이질자(伊秩訾) 172, 173, 191, 192, 231
 이추약왕(伊耆若王) 164
 이현(犁軒) 391, 393
 익수새(益壽塞) 232
 익주(益州) 156, 226, 279, 282, 290, 296
 인우(因杆) 131
 인포(蘭苞) 231, 232
 일(il) 74
 일남(日南) 332, 333
 일룩(日勒) 152
 일이(日貳) 427, 479
 일축왕(日逐王) 141, 165, 168, 169, 192, 211,
 215, 218, 254, 352, 359, 362, 363, 364, 397,
 408, 454, 483, 489
 임귀(任貴) 296
 임도(臨洮) 360
 임문(任文) 135, 370
 임상(任商) 231, 241, 464, 465
 임오(任噐) 298, 299, 300
 임조(臨洮) 58, 203
 임창(任昌) 121, 422, 423
 임채후(臨蔡侯) 331

임호(林胡) 51, 55, 79, 232

【ㅈ】

자구(子駒) 338
 자력지(茲力支) 364
 자율미(雌栗靡) 427, 428, 429, 430, 479
 자차왕(自次王) 113
 자합왕(子合王) 381
 자황(雌黃) 432
 작도(笮都) 278, 287
 작마(笮馬) 280
 잠실(蠶室) 371, 423
 장가(牂柯) 289, 290, 294, 328, 468, 483
 장가강(牂柯江) 281, 282, 328
 장건(張騫) 115, 284, 285, 360, 368, 401, 410,
 411, 412, 480, 481
 장교(莊蹻) 275, 279, 328, 390
 장군(將軍) 56, 57, 66, 67, 77, 79, 95, 96, 101,
 104, 105, 106, 107, 108, 109, 111, 112, 115,
 119, 121, 122, 135, 145, 156, 157, 158, 161,
 171, 199, 204, 206, 211, 215, 223, 226, 234,
 235, 237, 238, 251, 254, 279, 294, 299, 304,
 308, 315, 322, 323, 340, 341, 343, 374, 418,
 440, 441, 453, 456, 458
 장기(壯騎) 118
 장니(章尼) 99
 장라후(長羅侯) 157, 159, 210, 418, 420, 421,
 425, 443, 457
 장량후(將梁侯) 327, 333, 342
 장맹(張猛) 175, 181, 182, 183
 장사(長沙) 43, 281, 302, 308, 309, 312
 장삼(莊參) 324
 장상여(張相如) 96, 251

장성(張成) 55, 56, 57, 58, 61, 79, 82, 83, 96,
97, 101, 103, 105, 109, 118, 134, 144, 153, 156,
158, 161, 199, 204, 222, 235, 343, 359, 483,
489
장수교위(長水校尉) 221, 397, 461
장액(張掖) 115, 135, 144, 199, 208, 211, 223,
360, 370, 436, 439, 457, 486
장옹(張翁) 422, 423
장준(張遵) 422, 423
장평(長平) 176
저(氏) 67, 68, 278
저거(且渠/沮渠) 66, 68, 69, 164, 171, 367, 467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 137, 144, 174, 483
적곡(赤谷) 407, 433
적미(赤眉) 245
적석(積石) 357
적수강(赤水羌) 221, 460
적원(狄獮) 50, 51
적적(赤翟/赤狄) 49, 50
적토(赤土) 353, 389
전(滇) 102, 277, 279, 285, 288
전거연지(顛渠閼氏) 148, 161, 164, 192, 193
전광명(田廣明) 156, 211, 290, 291, 441, 453
전당(錢唐) 345
전발(剪髮) 72
전분(田蚡) 104, 276, 338, 340
전안산(眞顔山/闕顔山) 118, 119, 208
전장군(前將軍) 96, 112, 113, 127, 156, 158, 211,
454
전한 경제(前漢景帝) 314, 317, 337, 340, 468
전한 고조(前漢高祖) 63, 64, 68, 75, 76, 77, 78,
79, 80, 81, 82, 83, 95, 96, 101, 111, 122, 128,
136, 204, 205, 206, 241, 248, 299, 301, 303,
304, 306, 307, 308, 334, 335, 336, 340, 416,
420, 438, 468, 470, 480
전한 무제(前漢武帝) 27, 51, 58, 68, 88, 95, 100,
102, 103, 106, 107,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21, 122, 123, 124, 126,
127, 128, 129, 130, 131, 133, 134, 135, 136,
137, 138, 141, 143, 144, 146, 148, 151, 153,
154, 155, 156, 161, 167, 169, 171, 174, 175,
176, 177, 181, 187, 202,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2, 213, 217, 221, 222, 232,
235, 240, 241, 248, 249, 251, 253, 254, 257,
280, 283, 285, 286, 287, 289, 290, 297, 298,
300, 307, 308, 315, 316, 319, 321, 324, 327,
328, 333, 334, 336, 337, 338, 339, 340, 344,
347, 355, 356, 361, 368, 369, 372, 373, 386,
393, 401, 410, 413, 418, 419, 425, 435, 437,
438, 442, 453, 457, 467, 468, 470, 479, 482,
483
전한 문제(前漢文帝) 73, 76, 79, 81, 82, 83, 84,
87, 89, 92, 94, 95, 96, 100, 101, 108, 121, 128,
182, 205, 206, 248, 251, 252, 275, 306, 307,
308, 314, 315, 319, 320, 321, 324, 337, 346,
422, 435, 438, 442, 468, 472, 480
전한 선제(前漢宣帝) 97, 129, 143, 151, 153, 154,
155, 156, 159, 160, 162, 163, 165, 166, 167,
168, 169, 170, 172, 175, 176, 178, 179, 180,
181, 184, 186, 190, 196, 197, 202, 210, 211,
215, 218, 222, 223, 226, 231, 232, 238, 245,
255, 256, 290, 293, 307, 324, 331, 356, 358,
361, 362, 364, 397, 405, 408, 417, 418, 424,
443, 453, 456, 457, 460, 479
전한 성제(前漢成帝) 185, 186, 190, 191,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18,
219, 229, 239, 255, 289, 292, 320, 380, 387,
388, 397, 398, 407, 408, 425, 427, 444, 461

전한 원제(前漢元帝) 143, 157, 166, 172, 175,
 180, 181, 183, 184, 185, 186, 187, 190, 213,
 218, 230, 231, 245, 255, 256, 332, 355, 356,
 362, 364, 387, 388, 397, 427, 428, 438, 457,
 461
 전한 평제(前漢平帝) 143, 198, 201, 218, 219,
 220, 221, 223, 245, 283, 331, 356, 425, 431,
 459, 460, 461, 462
 전한 혜제(前漢惠帝) 79, 80, 81, 83, 205, 218,
 250, 251, 303, 307, 308, 311, 320, 334, 336,
 435, 468
 절(節) 125, 127, 389, 390, 418, 424
 정(亭) 105, 134, 294, 360, 436, 441, 464, 481
 정(鄭) 48, 49
 정길(鄭吉) 156, 162, 184, 211, 222, 254, 352,
 355, 362, 363, 364, 405, 408, 422, 424, 454,
 455, 456, 457, 484
 정령(丁令/丁零) 60, 64, 73, 74, 85, 86, 88, 160,
 163, 169, 179, 233, 485, 487
 정야림(丁野林) 201, 431
 정양(定襄) 107, 108, 111, 112, 135, 163
 정업(丁業) 226, 242, 463
 정장(亭鄣) 105, 153, 369
 정절(精絕) 353, 375, 376, 434, 435
 정절도위(精絕都尉) 376
 제(齊) 31, 43, 47, 48, 49, 57, 75, 78, 83, 95,
 96, 102, 136, 203, 248, 440
 제로새(制虜塞) 240, 241, 244
 제사(弟史) 416, 417, 444
 제왕(題王) 99, 163, 228
 제 이공(齊釐公) 48
 제제거당(題除渠堂) 163
 제천금인(祭天金人) 114, 426, 430
 제 환공(齊桓公) 31, 47, 48
 조거난(雕渠難) 97
 조광(趙光) 321, 322, 331
 조덕(趙德) 387
 조리(趙利) 77, 79
 조 무령왕(趙武靈王) 51, 55, 56, 79, 180, 232
 조비곡(鳥飛谷) 403
 조선(朝鮮) 56, 66, 67, 103, 126, 205, 213, 276,
 311, 413, 482
 조신성(趙信城) 118, 142, 208
 조양(造陽) 56, 109, 109, 116, 253
 조양자(趙襄子) 53, 54
 조조(朝錯/龜錯/晁錯) 101, 248, 249, 337
 조충국(趙充國) 154, 156, 163, 211, 453
 조파노(趙破奴) 121, 123, 129, 369, 439, 482
 조흥(趙興) 318, 479
 종군(終軍) 145, 154, 156, 189, 286, 319
 종군하여 346
 종대(終帶) 230, 231, 241, 463, 464, 465
 종표후(從票侯/從驃侯) 123, 369
 좌고석후(左姑夕侯) 227
 좌도기왕(左屠耆王) 65, 66, 167, 240
 좌독(左蠶) 305, 311
 좌장(左將) 346, 375, 376, 377, 378, 379, 404,
 406, 432, 462
 좌축도한왕(左祝都韓王) 197
 좌황동(左黃同) 346, 347
 주객(主客) 124, 167, 256
 주매신(朱買臣) 248, 249
 주 목왕(周穆王) 43, 44, 45, 356
 주 무왕(周武王) 42, 43, 44, 47, 54, 68, 203,
 301, 303, 435, 469
 주 문왕(周文王) 32, 42, 43, 44, 203, 317, 335,
 469, 479
 주사(周舍) 95, 251

주 선왕(周宣王) 45, 46, 48, 234, 235
 주애(珠崖) 332, 468
 주 양왕(周襄王) 48, 49, 282
 주영(朱央/朱英) 112
 주유고석왕(廚唯姑夕王) 241, 243
 주 유왕(周幽王) 43, 46, 47, 49, 101, 235
 주 의왕(周懿王) 45
 주조(周寵) 96, 304, 308
 주천(酒泉) 68, 115, 135, 138, 141, 208, 211,
 360, 369, 370, 398, 436, 439, 440, 456, 457
 주 평왕(周平王) 46, 47
 죽장(竹杖) 468
 준계산(浚稽山) 133, 142, 440
 중랑장(中郎將) 137, 154, 196, 198, 201, 217,
 221, 222, 223, 231, 245, 283, 286, 422, 423,
 425, 429, 431, 461
 중위(中尉) 95, 104, 251, 308, 312, 320, 344
 중합후(重合侯) 141, 143, 440, 441, 453
 중항열(中行說) 89, 90, 91, 92, 93, 94, 100, 480
 지백(智伯) 53, 54
 지양궁(池陽宮) 176, 177
 지음(芝音) 241, 465
 직도(直道) 58
 진(晉) 31, 49, 50, 51, 52, 53, 54, 289
 진개(秦開) 56, 67
 진 도공(晉悼公) 31, 52, 53
 진량(陳良) 221, 230, 231, 241, 243, 463, 464,
 465
 진립(陳立) 294, 295
 진 목공(秦穆公) 49, 50, 52, 206
 진 문공(晉文公) 43, 49
 진 소양왕(秦昭襄王) 44, 45, 54, 113, 177, 203,
 279, 309, 399
 진 시황(秦始皇) 59, 68, 116, 122, 203, 204, 235,
 257, 297, 298, 299, 305, 306, 314, 332, 335,
 359
 진 양공(秦襄公) 43, 47, 48, 52, 136
 진요(陳饒) 226, 227, 228, 463
 진적장군(震狄將軍) 237, 238
 진정(眞定) 297, 301, 306, 308
 진주[珠璣] 332, 386
 진준(陳遵) 245
 진탕(陳湯) 181, 184, 185, 355, 427, 485
 진평(陳平) 77, 83, 205, 306, 307
 진 혜왕(秦惠王) 54, 55
 진흙(陳欽) 237, 238, 242
 진희(陳穉) 75, 79, 80, 81, 83, 96, 205
 질거수(鄧居水) 142, 145
 질지선우(鄧支單于) 85, 166, 169, 172, 173, 174,
 178, 181, 184, 185, 355, 397, 478, 484, 485

【 ㄸ 】

차거(且渠) 66, 367
 차란(且蘭) 286, 287, 328, 345
 차말(且末) 353, 366, 367, 374, 375, 376, 377,
 434, 445, 451
 차미(且彌) 447, 449
 차천추(車千秋) 442
 착야후(浞野侯) 129, 133, 137, 369
 창오(蒼梧) 237, 321, 322, 325, 328, 332
 천금(千金) 251, 401
 천마(天馬) 401, 402, 468
 천산(天山) 115, 138, 143, 173, 215, 363, 440,
 447, 448, 449, 450
 천장(千長) 68, 152, 159, 418, 434, 467
 철산(鐵山) 405
 첩지(捷枝) 361, 436

청옥(靑玉) 405
 초왕(楚王) 79, 101, 210, 337, 416
 초호(刀護) 231, 241, 463
 총령(葱嶺) 355, 356, 357, 358, 380, 382, 403, 404, 470
 총령하(葱嶺河) 357
 추계(魁結) 277
 추력(騶力) 343
 추록(趨遼) 201, 431
 축차(竺次) 424
 『춘추(春秋)』 31, 47, 50, 51, 136, 202, 223, 224, 247, 249, 250, 257, 325, 326
 취우(翠羽) 314, 468, 469
 취조(翠鳥) 313, 469
 측대보(側對步) 39
 치미(鴟靡) 422, 426
 치의후(馳義侯) 286, 328, 332
 칠군(七郡) 468
 칠수(漆水) 50, 51

【ㄱ】

큰 개[大狗] 386

【ㄷ】

타락(駝酪) 40
 탁야산(涿邪山/涿涂山) 138
 탄한장군(呑漢將軍) 343
 단해(驪奚/驪駭) 35, 36
 탕저(蕩姐) 213
 태원(太原) 31, 43, 45, 75, 76, 83, 156, 235
 태허곡(兌虛谷) 449
 탕그리 65

통서(通犀) 468, 469
 통선군(通善君) 451

【ㅍ】

파강장군(破羌將軍) 423, 425
 파르티아식 기사법(騎射法) 39
 파유(巴俞) 470
 파촉(巴蜀) 278, 282, 286, 288, 296, 302, 328
 패릉(霸陵) 318
 패상(霸上) 101, 206
 팽양(彭陽) 95
 평락감(平樂監) 372, 373
 평락관(平樂觀) 420
 평성(平城) 77, 81, 83, 136, 204, 205, 248, 250, 480
 포도(蒲陶) 217, 468
 포도궁(蒲陶宮) 216, 217
 포류(蒲類) 364, 448, 449, 455
 포류택(蒲類澤) 158, 448
 포리(蒲犁) 351, 380, 381, 382, 383, 405
 포리후수(蒲離候水) 158
 포반(蒲反) 194
 포사(褒姒) 46
 포음왕(蒲陰王) 158, 211
 포창해(蒲昌海) 357
 포초(蒲梢) 469
 포호로자(蒲呼盧訾) 229
 표기장군(票騎將軍/驃騎將軍) 107, 112, 114, 115, 116, 117, 121, 135, 138, 153, 195, 198, 208, 229, 360, 422
 풍당(馮唐) 251, 252
 풍료(馮嫫) 424
 풍봉세(馮奉世) 181, 213, 405

풍호(鄴鄙) 43, 44, 47
피산(皮山) 353, 379, 380, 381, 388, 390
피포세(皮布稅) 224, 229, 487
필취(畢取) 332

【ㅎ】

하(夏) 31, 42, 43, 127, 203, 204, 253
하남(河南) 46, 58, 60, 63, 64, 94, 107, 109, 116,
253, 480
하퇴장군(下瀨將軍) 327, 328, 332, 344
하부후(下鄜侯) 346, 347
하서(河西) 49, 50, 54, 68, 85, 102, 115, 116,
126, 208, 466, 467, 481
하후번(夏侯藩) 198, 199, 200, 229
하후씨(夏后氏) 29, 31
학숙왕(郝宿王) 164
한(韓) 48, 49, 53, 54, 57
한료(韓遼) 97
한릉(韓隆) 221, 461
한선(韓宣) 426, 461
한선이 426
한신(韓信) 77, 79, 96, 205, 207, 299
한안국(韓安國) 103, 104, 105, 108, 207, 248,
249, 280, 315, 340, 340
한양(漢陽) 345
한연년(韓延年) 324, 326
한열(韓說) 122, 134, 139, 213, 343, 344, 345,
346
한용(韓容) 198
한증(韓增) 156, 211, 291, 454
한창(韓昌) 175, 177
한천추(韓千秋) 324, 325
한해(翰海) 120, 209

한현(韓玄) 231, 241, 464
한혈마(汗血馬) 212, 401, 469
한황(韓況) 217
합기후(合騎侯) 107, 115
합포(合浦) 332, 333
항우(項羽) 64, 75, 76, 96, 205, 251, 299, 302,
304, 308, 309, 334, 336, 480
항적(項籍) 96, 331, 336
해상후(海常侯) 330, 331, 346
해우(解憂) 210, 415, 416, 485
해중탕극(海中碭極) 470
해충국(奚充國) 405
향선군(鄉善君) 451
허가(許嘉) 100, 184, 190, 191
허려권거선우(虛閭權渠單于) 160, 161, 165, 166,
168, 172, 364, 478, 484
협윤(狹狁/狹允/獵狁) 30, 31, 32, 45, 46, 234,
235
현도(縣度) 380, 390, 409
현뢰(眩雷/眩靄) 127
현왕(賢王) 65, 66, 68, 69, 71, 77, 82, 84, 87,
107, 111, 112, 115, 119, 130, 134, 135, 138,
139, 140, 141, 142, 145, 149, 152, 160, 164,
165, 166, 167, 168, 169, 172, 174, 193, 197,
198, 208, 225, 228, 232, 239, 240, 243, 359,
370, 372, 413, 438, 453
협현(郊縣) 324, 326
형가(荊軻) 56
형미양(刑未央) 164
혜독왕(醢犢王) 244
혜해도노후(醢諧屠奴侯) 193
혜호천(係雩淺) 86
호(胡) 53, 284, 315, 316
호건곡(呼犍谷) 381

호걸(呼揭) 85, 169, 179, 180, 356, 478
 호걸선우(呼揭單于) 169
 호군(護軍) 105
 호도오사(呼屠吾斯) 167, 172
 호도이시도고약제선우(呼都而尸道皋若鞮單于)
 243, 488
 호도징(呼屠徵) 405, 484
 호동(胡桐) 368
 호란지(狐蘭支) 230, 463
 호려자왕(呼盧訾王) 161
 호로자(呼盧訾) 232
 호록고선우(狐鹿姑單于) 140, 483
 호박(虎魄) 386
 호복(胡服) 55
 호연씨(呼衍氏) 41, 66
 호연제선우(壺衍鞮單于) 144, 149
 호우(護于) 240
 호인(胡人) 409, 444
 호조성(護澡城) 395
 호척루(呼遼累) 171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9, 187, 193,
 196, 198, 222, 226, 239, 254, 256, 364, 397,
 425, 478, 489
 호호(狐胡) 450
 호후(浩侯) 369
 흑소[封牛] 386
 혼야왕(昆邪王/渾邪王) 102, 116, 126, 208, 360,
 481
 혼유(渾庾) 64, 73, 86, 88
 화목성(和墨城) 395
 환차곡(桓且谷) 464
 황계관(滄谿關) 300
 황문(黃門) 201, 469
 황복(荒服) 44, 45, 255
 황수(滄水) 189, 300, 326, 327
 황옥(黃屋) 304, 305, 311
 회계(會稽) 315, 316, 335, 337, 340, 342, 344
 회중궁(回中宮) 95
 횡문(橫門) 374
 횡포(橫浦) 300, 327
 횡포관(橫浦關) 300, 327
 횡해군(橫海軍) 346
 효선우(孝單于) 232, 237, 238
 후산(候山) 158
 후연(胸衍) 51
 후응(侯應) 27, 187, 256
 후의로후(後義盧侯) 84
 후장군(後將軍) 112, 154, 156, 163, 211, 453,
 458
 훈육(薰粥/葷粥) 30, 31, 32, 235
 흰풍(甄豐) 462
 휘거후(輝渠侯) 145
 휴도왕(休屠王) 114, 116, 126, 360
 휴밀(休密) 395
 휴순(休循) 383, 386, 403, 404
 휴순왕(休旬王) 171, 174, 484
 흉노(匈奴) 27, 28, 29, 41, 55, 57, 58, 59, 60,
 62, 63, 64, 65, 74, 75, 77, 79, 80, 81, 82, 84,
 86, 87, 89, 90,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5, 166, 167,
 169, 170, 171, 172, 173, 174, 179, 180, 182,

183, 184, 187, 188, 189, 190, 191, 192, 194,
195,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9, 210, 211, 214, 215, 216, 220,
221, 222, 223, 224, 225, 227, 228, 229, 230,
231, 233, 234, 235, 237, 238, 239, 241, 242,
243, 244, 245,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80, 284, 285, 290, 303, 340,
351, 352, 355, 356, 359, 360, 362, 363, 364,
368, 369, 370, 371, 372, 385, 394, 397, 398,
402, 409, 410, 411, 412, 413, 416, 417, 418,
419, 423, 425, 431, 432, 435, 440, 441, 447,
448,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2, 463, 464, 465, 467, 471, 478,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흉노선우새(匈奴單于璽) 226, 463, 464, 487

흉노하수(匈奴河水) 123

흡(翁) 113

흡돈(關敦) 170

흡후(翎侯) 113, 117, 127, 184, 200, 395, 418,
423, 425, 428, 429, 430

흡후(翁侯) 113, 127, 157, 184, 211, 395, 401,
408, 416, 430

힐돈(肸頓) 395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22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2
漢書 外國傳 譯註 下

초판 1쇄 인쇄 2009년 4월 15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4월 27일

편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02-0-94910
978-89-6187-106-8-세트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